

충청남도
예산말
사전 제 3 권

이명재 著

불휘 기픈 날곤 부르매 아니 뭇씨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서미 기픈 뜨른 그 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려 바루래 가느니

발 간 사

넓은 세상을 본다면 하루에도 수많은 생성물이 태어나기도 하고 새롭게 창조되기도 하고 또는 말없이 사라져 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멸종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주의 섭리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인류의 역사가 다른 피조물의 역사와 다른 점은 이를 기록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산문화원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져 온 지역민들의 역사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문화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예산문화원에서는 지역의 민속 문화 중 충청도 중에서도 예산지역의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고 회자되었던 예산지역의 말을 정리하여 지역문화의 역사물로 만들고자 2012년 『예산말 사전 1권』을 2013년에는 『예산말 사전 2권』을 발행하였고, 2015년에는 충청남도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충청도말 이야기』라는 수필집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문명을 태동시킬 수 있었던 건 문자와 더불어 말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록 작은 지역이라도

지역문화가 태동되는 데에는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언어도 시대에 맞춰서 지역민과 함께 변하고 재탄생 되었기에 예산말사전 1권과 2권에서 기록되지 못한 예산말을 추가 발굴하여 『예산말사전 3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간된 『예산말사전 3권』이 지역사에 있어서 금자탑과 같은 기록물로 보존되기를 희망해 보며 저자 이명재 선생님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같은 예산인으로서 예산인다움의 긍지를 느껴 봅니다. 아울러 본 책자 발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1,100년 예산의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기록물로서 미래 1,000년의 자손들에게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전국의 지역학 연구의 좋은 자료로 쓰여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 시 운



일 러 두 기

1. 표제어

1-1. 선정 범위

공시적으로 현대에 쓰이는 여러 형태의 예산말을 선정하였다. 통시적으로는 표준말 보급이 일반화되기 전인 1960대 이전의 말을 포함하였으며, 발생적 범주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일상어, 속어를 포함하였다.

1-2. 배열 순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에 따르되, 이중모음 ‘으[ji]’는 ‘ㅣ’의 뒤에 두었다. 자모가 같은 말의 차례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순으로 하였으며, 동음이의어의 경우 짧은 소리를 앞에 두고 긴 소리를 뒤에 배열하였다.

1-3. 주표제어

원칙적으로 단일어 및 합성어, 파생어의 단어와 조사, 어미, 접사 따위의 형식형태소를 주표제어로 삼되, 표준말과 다른 특수한 예산말의 어구는 일부 표제어로 삼았다.

1-4. 표제어인 예산말에 대응하는 표준말은 표제어 뒤에 ㉠로 나타내었다.

예) **가잡다**[**-따**] ㉠ 가잡다

1-5. 표제어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 하였다.

예) **구럭** ㉠ 망태기

1-6. 소리값이 표준어 발음인 ‘ㅣ’와 방언 발음 ‘ㅡ’가 함께 쓰이는 경우엔 ‘ㅡ’를 가진 어휘를 방언으로 신고, ㉡으로 함께 쓰이는 어휘를 표시했다.

예) **으즌** ㉠ 어전(御前) ㉡ ㉢ 어전

으즐 ㉠ 어절(語節) ㉡ ㉢ 어절

으촌 ㉠ 어촌(漁村) ㉡ ㉢ 어촌

2. 맞춤법과 발음

2-1. 맞춤법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여 예산말의 발음값이 잘 드러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형태소의 구분이 뚜렷한 경우엔 표준어법에 맞도록 하였다.

2-2. 표제어의 발음값은 표제어 바로 뒤 []안에 변화된 음절만 표기하였으며, 변화하지 않는 음절에는 줄표(-)로 대신하였다.

예) **각개-표**[-개-]
깨구락지[-찌]

2-3. 국어 자모 체계에 없는 이중모음 ‘으’는 ‘이(ji)’를 나타낸다.

예) **은애** [ㄹ] 연애(戀愛)
은출 [ㄹ] 연출(演出)

3. 뜻풀이

3-1. 뜻의 갈래

한 어휘가 여러 뜻을 지닐 때는 ①, ②, ③으로 가르치며, 예산 지역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거나 근원이 되는 뜻 풀이를 앞에 두었다. 표준어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엔 예산말의 뜻만을 취했으며, 뜻풀이는 되도록 간략히 하고자 했다.

3-2. 활용 형태

규칙과 불규칙은 표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어에서 불규칙 활용하는 말이 예산말에서 규칙 활용을 할 경우에는 용언의 품사 뒤에 (규칙)이라 표시하고, ‘안’에 활용 형태를 열거하였다.

예) **흘르다** [ㄹ] 흐르다 [ㄹ](규칙) ‘활용 형태: 흘르게. 흘르구. 흘르니. 흘르더락. 흘르지’

저스다 [ㄹ] 짓다 [ㄹ](규칙) ‘활용 형태: 저스게. 저스구. 저스니. 저스더락. 짓어’

3-3. 표준어에 대응하는 말이 둘 이상인 경우 모든 어휘를 실었다. 이러한 경우 1)사용 빈도가 높은 것과 2)더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또한 3) 풀이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으로 풀이 항목을 가리켰다.

1)의 예 : 오티기 > 오치기 > 워치기. 오리봉낭구 > 오리봉나무

2)의 예 : 몸땡이 > 몸땡이. 몽덩이 > 몽땡이

3)의 예 : **오틱-허다**[-티커-] [ㄹ] 어떻게 하다 [ㄹ] 어떤 일이나 행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

오칙-허다[-치커-] [ㄹ] 어떻게 하다 ☞ ‘오틱-허다’

4. 어원

- 4-1. 한자어를 비롯한 각 나라에서 들어온 말은 표준어 뒤에 ()를 두어 한자나, 국적, 영문 표기를 하였다.
- 4-2. 순우리말은 형태소별로 분석하였고, 각 요소의 변화되기 전 모습을 밝히고자 하였다. 형태소 분석시 접사, 조사, 어미의 뜻은 되도록 풀이하지 않고, 어근에 해당하는 형태소에는 ()안에 한자를 넣어 뜻을 풀이하였다.
예) 개: 동백-낭구 '개(접사)+동백(冬栢)+낭구(木)'
- 4-3. 어원 변천의 모습은 >으로 시대적 앞뒤를 표시하였고, 개연성은 있으나 뜻과 형태가 불분명할 경우엔 ?로 표시하였다.
예) 든니다>덴니다?>대니다. 든기다>덴기다?>맹기다

5. 용례

- 5-1. 용례는 예산말의 모습을 잘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실제로 쓰이는 구어체 문장으로 하였다. 용례는 뜻풀이 뒤에 ¶로 구분하였으며, 하나 이상의 예문을 두고자 하였다.
- 5-2. 둘 이상의 예문 사이는 /으로 표시하였다. 단, 이어지는 대화 문장에는 /를 하지 않았다.
- 5-3. 용례에 해당하는 단어는 굵은 글씨로 하였다.
예) 가꼬다 [𪛗] 갖고 오다. 툇(타) '가지구 오다'가 줄어든 말. ¶책 점 가파라./가방은 가랐니?
- 5-4. 용례의 해석을 돕기 위해, 일부 예산말 뒤에 ()를 두어 해당 한자를 써 넣었다.
예) 송칭이(松蟲-)를 근디렀더니 따거워 죽겼네.

6. 이 밖의 사항은 기호 및 약호에 따른다.

6-1. 품사는 아래와 같이 약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 대명사
- ☐ 수사
- ☐ 명사
- ☐ 의명 의존명사
- ☐ 형용사
- ☐ 보형 보조형용사
- ☐ 동사
- ☐ 보동 보조동사
- ☐ 관형사
- ☐ 부사
- ☐ 조사
- ☐ 감탄사

6-2.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약호를 사용했다.

- ☐ 표준어
- ☐ 접사
- ☐ 어미
- ☐ 속담
- ☐ 준말
- ☐ 북한어
- ☐ 동의어, 이형태
- ☐ 복합어
- ☐ 유의어
- ☐ 반 상대가 되는 낱말. 반의어
- () 표제어나 표준어에 해당하는 한자
- () 품사의 하위 갈래인 문법요소나 구문, 전문어, 특수어, 한자어 따위 표시
- + 형태소의 결합

[]	발음값
☞	풀이가 있는 낱말 찾아가기, 중심 낱말 찾아가기
→	낱말의 변화 과정이나 형태 풀이
‘ ’	낱말의 형태소 분석, 또는 활용의 형태를 살펴볼 때
:	긴소리로 나는 음절 표시
>	어형 변화가 일어난 단어 사이에, 앞쪽에 있는 단어가 앞선 시대의 어형임을 나타냄
/	같은 무게로 나란히 쓰이는 말 표시. 병립(並立), 또는 선택(選擇)
※	참고 사항이나 특이 사항

6-2. 전문어

- <가톨릭>
- <건축>
- <경제>
- <고고학>
- <공업>
- <광업>
- <교육>
- <군사>
- <기독교>
- <기상>
- <논리>
- <농업>
- <동물>
- <문학>
- <물리>
- <미술>
- <민속>
- <법률>
- <불교>

〈사회〉
〈생물〉
〈수산업〉
〈수학〉
〈식물〉
〈심리〉
〈언어〉
〈역사〉
〈연극〉
〈영화〉
〈예술〉
〈오락〉
〈운동〉
〈음악〉
〈의류〉
〈의학〉
〈인명〉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친문〉
〈철학〉
〈통신〉
〈한의학〉
〈화학〉



목 차

■ 발간사 / 2

■ 일러두기 / 4

• 기	13
• 니	88
• 디	102
• 리	115
• 모	123
• 비	137
• 시	156
• 오	181
• 스	227
• 었	294
• 코	300
• 티	302
• 표	305
• 흥	310
■ 충청남도 예산말 색인(1~2권 수록 어휘)	327



가꼬다 𠵼 갖고 오다 (구문) '가지구 오다→갖구[각꾸] 오다'의 준말. ㉹가 조다. ㉸밥상을 **가짜라**./가방을 **가짜야**지./유산을 **가꼴테닝**께 장판만 지들러./은장을 **가짜야** 허니께 좀 쉬구덜 있어.

가냥 𠵼 그냥 𠵼 ㉸ '기냥'의 이형태. ※'기냥'과 '가냥': 예전으로 갈수록 '가냥'이 많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충청말이 표준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냥'이 선택되면서 '가냥'이 사라져 감. ㉸자는 근덜덜 말구 **가냥** 뉘두믄 더./**가냥** 두믄 뉘 일을 왜 들쭈서서니 일을 뉘그는 겨, 뉘 글질?

가는-소곰 𠵼 가는-소곰 𠵼 정제를 여러 번 하여 보드랍고 곱게 만든 소금. ㉹곱은소곰. ㉸짐칠 당그넌디 왜 아까운 **가는소곰**을 쓰능 겨?

가닥-가루[-까-] 𠵼 녹말-가루(綠末-)

𠵼(일본어) '가다꾸리/가다꾸(かたくり)+가루(粉)→가닥가루'. ㉸ '감жат가루'. ㉸이 사람아, **가닥가루**가 뉘여? 그러기, 감жат가루라구 히야 허넌디 어려서버텨뉘 왜눔덜 말이 입이 배서 그랴.

가마-솥[솥] 𠵼 가마-솥 𠵼 크고 안이 깊은 솥. ㉹가매솥. 가마솥. 가매솥. ㉸아니, 뉘 뉘팍죽을 **가마솥**이다[가마소시다] 끓인다? 이, 아래뉘미 초상났잖어./**가마솥**을[가마소솥] 울릴라른 이국 징이를 점 늣히야졌구먼.

가:매 𠵼 가마 𠵼 머리 위쪽 가운데에 머리털이 소용돌이처럼 휘돌아간 부분. ㉹가:매. ㉸**가매**가 돌이믄 장개를 두 번 든다넌디, 넌 참 좋겠다.

가매-솥[솥] 𠵼 가마-솥 𠵼 ㉸ '가마솥'. ㉸그 큰 **가매솥**은[가매소솥] 오디루 개져 가능하다?

가매-솔 [솔] ㅁ 가매-솔 ㅁ '가마
솥'. ㅁ **가매솔이다**[가매소티다] 뭘 끓이
는 겨?

가뿌다 ㅁ 가쁘다 ㅁ '갓쁘다'.

가솔¹ ㅁ 가설(架設) ㅁ 기둥이나 보
(梁)를 세우고 전선이나 전화선, 다리
따위를 설치함. ㅁ **구장이 동네이다** 큰
화 **가솔**을 부탁한다구 존화국이 간대
유. ㅁ(타) **가솔-허다**. ㅁ **목은 다리** 혈
구 새 다리를 **가솔한다**년디 거서 인부
를 구한다네유.

가 : 솔² ㅁ **가 : 설**(假說) ㅁ <논리>
어떤 사실이나 어떤 이론 체계를 위하
여 설정한 임시 이론. ㅁ **그건 믿을 게
못 되년 가솔**이여. 지 말 믿게 혈라구
저년 거라니께.

가운데-차 ㅁ 가운데의 것 ㅁ '가
운디차'.

가운데-차 ㅁ 가운데의 것 ㅁ 차곡차
곡 쌓여있는 물건들의 가운데 쪽에 있는
것. ㅁ **길겹땡이만 썩은 것이 아니구 가
운디차**까장 다 썩었년디 이를 오쩨다?

가이-똥 ㅁ 개 : -똥 ㅁ 개가 눈 똥.
또는 개똥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 ㅁ **개똥**. ㅁ **가이똥**은 약이루
락두 쓰년디 뇌눔덜은 아무짝이두 쓸
디가 읍어.

가이-밭 ㅁ 개 : -밭 ㅁ '가이밭'개:밭.
개의 밭. ㅁ **개밭**.

가이-밥 ㅁ 개 : -밥 ㅁ '가이밥'개:
밥. 개가 먹는 밥. ㅁ **개밥**.

가이-집 ㅁ 개 : -집 ㅁ 개가 사는 집.
또는 개를 기르는 우리. ㅁ **개집**. ㅁ **집이
냐구 가이집만** 헌디 새끼덜은 육시덜허
게 퍼질러 났더면.

가(:)자 ㅁ 과자(菓子) ㅁ '표준어화
과정: 가:자'과자. 밀가루나 쌀가루에 설
탕, 우유 따위를 넣어 만든 균음식. ㅁ
과자. ㅁ **면 가자** 먹고 싶어? **밥풀가자**
사주까, **썸뻘이**(せんべい) **가자** 사주까?

가-조다 ㅁ 가져-오다 ㅁ(타) '가지구
오다'의 준말.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어
오다. ㅁ **가조다**. ㅁ **밤을 찢결랑** 일루 **가
좌** **봐**./**방아 찢** 쌀은 **광이루 가조구**, 등
겨는 **오양간** 옆이다 **놔**./뭘 이런 구연
걸 다 **가좌다**?/가가 니알 **가조다**구 헛
이닝께 너머 극정허덜 말어라.

가주다 ㅁ 가지다 ㅁ(타) ①어떤 물건
을 소유하고 있다. ㅁ **보리쌀을 가주구** 오
딜 **가신대유**?/ **그것** **점** **절루 가주구** **가
거라**. ②마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품다.
ㅁ **넌 뭘** 생각을 **가주구** 그런 일을 **즈질
른** 겨? ③무엇을 다른 일의 근거로 삼
다. ㅁ **지난 일덜 가주구** 왜덜 그런대유?
ㅁ(ㅁ) **앞말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
음을 나타내는 말. ㅁ **개자다**. **가지다**. ㅁ
느덜 **짐이나** 잘 **챙겨 가주구** **가**.

가지-가다 ㅁ 가져-가다 ㅁ 어떤 물
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몰래 **훔**

쳐 자신의 소유로 하다. ㉠가져가다. ※ 충청말이나, 예산말의 구어에서는 어미가 흔히 생략된다. '가지가다'는 '가져가다'에서 연결어미 '-어'가 생략된 것이다. ㉡도둑놈 차람 될 가지갈라구 그러능가?/가지갈라른 다 가지가지 요건 머더러 냉겨논 거라?

각객[-객] ㉢ 각각(各各) ㉣ '각각'각객(전설모음화). 저마다 떨어진 하나하나. ㉤피해를 본 각객헌티 다 보상금을 주능 겨?/승두 각객이구 사넌 디두 다 각객이라./친 자맨디두 생긴 것은 썩판 각객이유. ㉥따로따로. ㉦각각. ㉧하냥 가넌 게 아니구 각객 따루 가능 규?

간극 ㉨ 간격(間隔) ㉩ '표준어화 과정: 간극>간격. 사물과 사물, 일과 일,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 ㉪간격. ㉫옆쪽 차허구 급쪽 차허구 간극이 점 멀은 것 같은디 괜찮을라나? 그럼 간극을 점 좁허문 되지.

각-승[-승] ㉬ 각-성(各姓) ㉭ ①서로 다른 성씨. 또는 서로 다른 성을 지닌 사람. ㉮자덜은 이름은 같어두 승은 다 각승이여. ②'각승바지'.

각승-바지[-승-] ㉯ 각성-바지(各姓-) ㉺ '각(各)+승(姓)+받-(受)+-이(접사)→각승받이>각승바지.' 한 어머니에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각승. ㉼자집 애덜은 성제찌리 왜 승이 달브다? 이, 동식이 아배가 가난히서 애 딸린 과부헌

티 늦장개를 들었거든. 그러서 저 성제덜이 각승바지가 된 겨.

간릉-허다 ㉽ 간명-하다(簡明-) ㉾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간단명료하다. ㊱복잡하게 맹글지 말구 간릉허게 츠리혀.

간 : 지랄(癎-) ㊲ 간질 발작(癎疾 發作) ㊳ 간질병 환자가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허우적거리거나 발작으로 의식을 잃는 행동. ㊴애가 갑자기 거품을 물구 나자빠지매 간지랄을 허넌디, 내가 올매나 놀랬넌지 물러. ㊵(자)간지랄-허다.

간지르다 ㊶ 간질이다 ㊷'갠지르다'.

간초리다 ㊸ 간추리다 ㊹(타) 중요한 것만 골라서 간략하게 하거나, 흐트러진 물건을 가지런하게 해 놓다. ㊺간추리다. ㊻추리다. ㊼삿내끼를 꺾야 허닝께 거기 쫘토매 점 간초려서 방이루 덜이거라./쓸 만헌 것만 대충 간초리구 나머지 것덜은 다 퇴비장이다 내버려.

갈구리 ㊺ 갈고리/갈고랑이 ㊻ 손잡이에 뾰족하고 꼬부라진 쇠꼬챙이를 박아, 물건을 걸어 끌어당기는 도구. (센말)꺾구리. ㊼벧섬이 한둘이 아닌디 갈구리도 안 쓰고 맨손이루 오티기 날를 라구려?

갈라-스다 ㊼ 갈라-서다 ㊽(자) ①두 방향으로 나누어 서거나, 서로 헤어지

다 ②맺어온 관계를 끊다. 『갈러스구 싶어두 애덜 땀이 그러덜 못휴./그 모 임은 발써 들루 빼개졌유. 두 낭반이 반 썩 차구 갈러쌌다낭계유.

감 : 른 ㉞ 감 : 면(減免) ㉞ 세금이나 형벌 따위를 덜거나 면해줌. ㉞(타) 감 른-허다. 『요새 시상이 오부 도지가 워딧냐구 따졌더니 멍년버텀은 3부 도 지로 감면히 주겏다구 허더라.

감жат-가루 [-/-작까-] ㉞ 녹말-가루 (綠末-) ㉞ '감자(甘藷)+스+가루(粉)'. 감자나 고구마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려 만든 가루. ㉞(은)본(澱粉). 녹말가루. 알레짓가루. 가닥가루. 『보리감잘 싸 났더니 밀이 차가 썩어 물이 흘르네그라. 기냥 버리긴 뿔허구 암만히두 물이 당겏다가 감жат가루를 내야 쓰겏어.

감주(甘酒) ㉞ 식혜(食醪) ㉞ 밥을 엿기름물에 삭혀 설탕을 넣고 끓여 만드는 전통 음료. ㉞(은)식혜. 『지사상인 술은 못 올려두 감주는 빠띠리른 안 되능겨./밤중이 씨끼럽게 뿔 쫓년 겨? 애가 메칠채 통 입맛이 읍다구 허넌디 오쩨 대유. 감주래두 점 헤멕일라구 엿기름 빵닝 규. ※충청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주'를 써왔고, '식혜'는 극히 일부의 식자(識者)들이 써온 말이다. 그것이 표준어 교육에 의해 2010년 현재, '감주'의 쓰임이 줄어들고 '식혜'의 쓰임이 일반화되었다.

갓부다[갓뿌-] ㉞ 가쁘다 ㉞ 『갓

부다.』 『째끔만 움적겨려두 심장이 갓 부게 뛰넌디 뿔 뽕이나 아닌지 걱정이여.

갓쁘다[갓뿌-] ㉞ 가쁘다 ㉞ 『갓부다 →갓쁘다/갓부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몹시 숨이 차거나, 급하다. ㉞(은)갓부다. 가쁘다. 『숨이 갓버서니[간빠서니] 더는 못 뛰겏네./너머 갓쁘게[간쁘게] 뛰덜 말어. 그러다 자빠지겏구면.

갓 : -짜[갓-] ㉞ 가/가장자리 ㉞ 『갓/갓(邊)+짜(方/位). ㉞ 『갓편짜.』 『넌 틀 렸으닝께 저 갓짜이루 나가 있어.

갓 : -차 ㉞ 가의 것 ㉞ 『갓/갓(邊)+차(者/접사). 여럿 가운데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갓차두 쓸 만허닝께 안짜이루 덜여나라./갓차는 좋덜 았으닝께 따루 쳐라.

갓 : -편짜[갓-] ㉞ 가/가장자리 ㉞ 『갓/갓(邊)+편(便)+짜(方/位)'. 공간의 중앙에서 떨어진 바깥쪽. 공간의 가장자리. ㉞(은)가생이. 가시. 갓짜. 『넓은 길 두 구 왜 피뚝헌 갓편짜이루 가능 겨?/저 밧둑 갓편짜이루 썩덜이 참 실허더면.

강근-허다[-/-그너-] ㉞ 강건-하다 ㉞ 『표준어화 과정: 강근허다>강건허다.』 꺾끗하고 세다. 『이 사람, 증신 채려. 땀을 강근허게 먹으야 흥두 나가녕 겨.

강륙-허다[-느커-] ㉞ 강력-하다 ㉞ 『표준어화 과정: 강륙허다>강력허다.』 매우 굳세다. ㉞(은)강력허다. 『저 사람덜이 즈 령기 강륙허게 나올 적인 뿔가 있긴 있



녕 겨. 쏘내기는 일단 피허구 보랬잖
 남? 이럴 때닌 참구 장관 물러스녕 개
 상책이여.

강 : 십 ㅍ 강 : 습(講習) ㅁ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익히도록 가르침. ㅍ 느이
 할아버진 사랑이다 사람덜을 뒹놓고 한
 글 강십을 했어. 시방 문해교실인 노인
 네덜이 땡기지면 그땐 동네 꼬맹이덜이
 강십을 받으러 왔지.

개 : 구녕-받이[-바지] ㅍ 개 : 구멍-
 받이 ㅁ 친자식이 아닌, 밖에서 데려
 다 기른 아이. ㅍ 말루는 **개구녕받이**라
 구 허네티 암만히두 백이다 뿌린 지 씨
 앳이겼지.

개려움 ㅍ 가려움 ㅁ 굵고 싶은 불쾌
 한 기분을 일으키는 느낌. ㅍ 온 몸땡이
 루 **개려움**이 퍼졌다.

개려움-증 ㅍ 가려움-증(-症) ㅁ 살
 잦이 가려운 증세.

개렵다[-다] ㅍ 가렵다 ㅁ ‘ㄱ랍-(軟
 癢)+-다→개랍다>개렵다. 근질거리 굵고
 싶은 느낌이 있다. ㅍ 늙이 오믄 아토편
 땡이 몸이 **개려워** 미치겼어.

개 : 령 ㅍ 가 : 령(假令) ㅁ ①가정하
 여 말하면. ㉟슬령. ㅍ **개령** 그렇다구 처
 도 사램이 인두꺽을 쓰구설래민 그러덜
 못 허녕 겨. ② ㅍ ‘말허자믄’.

개롱개 ㅍ 탈곡기 ㅁ ㅍ ‘호룽기’.

개롱-기 ㅍ 탈곡기 ㅁ ㅍ ‘호룽기’.

개몽 ㅍ 개명(改名) ㅁ 이름을 바꿈.
 ㅍ 아닌 시님이 **개몽**을 허믄 좋겠다구
 했다더면 이름 바꾼다구 뭐가 달버지겠
 남? ㅁ(타) **개몽**-허다.

개 : -보름 ㅍ 대보름 전날 ㅁ ㅍ ‘개
 보름날’. ㅍ 대보름허구 **개보름**은 달븐
 날이여. 대보름은 사램덜이 쇠년 거구,
개보름은 가이덜이 쇠년 보름이여.

개 : 보름-날 ㅍ 대보름 전날 ㅁ ‘개
 (犬)+보름(望)+날(日)’. ‘개가 보름을 쇠
 는 날’의 준말. 대보름 전날에 개를 굶
 기며 풍년을 빌던 풍습에서, 대보름의
 전날인 음력 정월 열나흘날을 이르는
 말. ㉟개보름날. ㅍ **개보름날** 밤 흠치기.
개보름날 밤새기./할머니는 **개보름** 전
 날이면 저녁밥을 고봉으로 퍼다 개에게
 주었다. 그것은 **개보름날**이면 개에게
 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일 굶어야 하
 는 개를 위한 조치였다.

개야미 ㅍ 개 : 미 ㅁ ‘ㄱ야미/기야미→
 개야미>개:미’. <동물> 벌목 개미과에 속
 한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㉟개미.
 ㅍ 썩은 나무등껍이 **개야미**덜이 들끓구
 있구면./찬장 지름통이 **개야미**덜이 새
 까만디 저걸 워쩨다?

개야미-떼 ㅍ 개 : 미-떼 ㅁ 개미의
 무리. ㉟개미떼. ㅍ **개야미떼**가 수웁이
 이사를 허년 것 보닝께 곧 장마가 시작

될 모양이여.

개야미-집 ㅍ 개 : 미-집 ㅎ 개미가 모여 사는 구멍과 흙더미. ㉠개미집. ㉡마당갓이루 맨 **개야미집** 투성이구먼. 근디 **개야미집**이다 암만 물 뷔봤자 쇠 영윽어.

개우-장 ㅍ 개울 ㅎ '개울(川)+장(접사) →개우장'. 고랑이 좁고 작은 시내. ㉠개우쟁이. ㉡갱굴창. 갱고랑. 갱굴. 갱구장. ㉢**개우장인** 머더러 뒤지구 있는 겨? 물 괴기를 잡넌다구 이춤버텀 슬쳤넌디 벨 것 읍네유.

개우-쟁이 ㅍ 개울 ㅎ ㉠'개우장'. ㉡새벽참버텀 **개우쟁이**는 머더러 갔다? **개우쟁이** 터서 눈이루 물꼬를 낸다네유.

개조다 ㅍ 가지고 오다 (구문) '개지구 오다'가 줄어든 말. ㉠그 물건 점 일루 **개조** 봐. 머, **개조** 보구 말 겨두 읍유.

개지다 ㅍ 가지다 ㅎ(타) ㉠'가주다'. ㉡그런 물건 **개지구** 오디서 자랑질이라?/그런 댜볼 **개지구** 올마나 잘 되나 내가 지켜볼 규.

개춘-절 ㅍ 개천-절(開天節) ㅎ ㉠'개춘졸'.

개춘-졸 ㅍ 개천-절(開天節) ㅎ '표준어화 과정: 개춘졸>개춘절/개천절'. 매년 10월 3일로, 우리나라의 개국 기념일. ㉠개춘절. ㉡농사짓넌 사람이 **개춘졸**이라 구 놀 수 있넌? 태극기 매달었이니 얼

릉 꽤 털러 가야지.

객-꾼(客-) ㅍ 객꾼/제삼자 ㅎ 어떤 일에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닌 사람. ㉠구경꾼. ㉡당사자(當事者). ㉢당사자털은 가만 있넌디 왜 **객꾼**이 설치구 지랄이라?/이 사람이, 투전판은 **객꾼**이 점 있어야 판이 오래 가능 겨.

객병 ㅍ 간병(看病) ㅎ ㉠'객뵙'.

객병-인 ㅍ 간병-인(看病人) ㅎ ㉠'객뵙인'.

객뵙 ㅍ 간병(看病) ㅎ '표준어화 과정: 객뵙>객뵙>간뵙'. 병든 이를 시중하며 보살핌. ㉠객뵙. ㉡뵙구완. 뵙수발. ㉢그 노인네 혼저 사넌디 **객뵙**은 누가 헨다? 그집 딸래미가 **객뵙**을 헨다구 네려왔다 더면 **뵙**이 오래가든 큰일이지. ㅎ(타) **객뵙**-허다.

객뵙-인 ㅍ 간병-인(看病人) ㅎ '표준어화 과정: 객뵙인>객뵙인>간뵙인'. 병든 이를 시중하며 보살피는 사람. ㉠객뵙인. ㉡**객뵙인**을 두구 자석털은 들어가 매 얼굴 보러 온다더면, **객뵙인**이 자석털버텀 날라나? 낫기야 못 허졌지먼 다 털 직장 땜기닝게 **객뵙인**을 붙인 거지.

객지럼 ㅍ 간지럼 ㅎ 살갓에 무엇이 닿아 웃음이 나는 느낌이나, 미묘한 기운. ㉠간지럼. ㉡넌 발바당두 **객지럼**을 안 타나배. 난 저드랑이두 **객지럼** 안 타.

객지럼다 ㅍ 간지럼다 ㅎ 살갓에 무



엇이 닿아 웃음이 나는 느낌이나, 미묘한 기운이 있다. ㉔간지럽다. ㉕ **꺽지러니** 꺽 내 몸이 손대널 말어./꺽일 방안이 만 있으니 원 몸이 다 **꺽지럽더라**구.

꺽지럽히다 ㉖ 꺽간질이다 ㉗ 꺽간질(軟痒/擬態)+업(집사)+히(집사)+다. ㉘ 꺽꺽지르다. ㉙ 자네 애 **꺽지럽히덜** 말구 집 짝이루 가서 놀어라.

꺽지르다 ㉚ 꺽간질이다 ㉛ 꺽간질(擬態)+으(매개음)+다→꺽지르다) 꺽지르다. 꺽지럽게 하다. ㉜꺽지르다. ㉝꺽지럽히다. ㉞ 왜 들구 꺽어대기매 저드랭이는 **꺽지르**는 겨?

꺽질-꺽질 ㉟ 꺽간질-꺽간질 ㊱ 살갓에 자릿자릿한 느낌이나, 참기 힘든 느낌. ㊲꺽간질꺽질. ㊳ 옷 올렸더니 **꺽질꺽질** 죽졌구면.

꺽호 ㊴ 꺽간호(看護) ㊵ 아픈 사람을 시중하며 보살핌. ㊶꺽간호. ㊷꺽수발. 꺽구완. 꺽꺽호. 꺽꺽병. ㊸ 한약두 대릴 중 물르넨 게 뭘 **꺽호**를 허겼대능 겨? ㊹(자)(타) 꺽호-허다.

꺽호-원 ㊺ 꺽간호-원(看護員) ㊻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 ㊼꺽꺽호사. ㊽ 왕진 가방 하나 달랑 들루 야매허넨 가짜헌티 뭘 **꺽꺽호원**이 있겠어?

꺽꺽-허다 ㊾ 꺽꺽꺽-허다(剛剛-) ㊿ 꺽꺽꺽(剛剛)+허다→꺽꺽꺽허다/꺽꺽꺽허다) 꺽꺽

허다. 기력이나 언행 따위가, 굳세고 단단하다. ㉔꺽꺽꺽허다. 꺽꺽꺽허다. ㉕그 집안 사람덜 기질이 다덜 **꺽꺽꺽**혀. 웬만히선 고집 못 꺽넨다니께.

겨 : 가 ㉖ 꺽 거기가 (구문) '거기(其所)+가(主格)→거기가'가 줄어든 말. ㉗그기가. 그가. ㉘ **꺽**가 그리 좋으넨 **겨**가 살지 뭘더라 여긴 왔대유?/**겨**가 볼 게 많다구 소문은 났더면 난 물르겠어.

-겨던¹ ㉚ -겨든 ㉛(중결)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밝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미. ㉜-겨든. ※'-겨던'과 '-겨든'은 발음 차이가 변별력을 갖지 못함. ㉝그 일은 내가 할 수 읍넨 **겨였겨던(겨든)**./이게 오덜 갔지? 야까 분명히 여기서 내가 봤**겨던(겨든)**.

-겨던² ㉚ -겨든 ㉛(연결) 사실이나 상황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을 때 쓰는 어미. ㉜-겨든. ※'-겨던'과 '-겨든'은 발음 차이가 변별력을 갖지 못함. ㉝일 마 치**겨던** 곧장 집이루 와라./밥이나 다 먹**겨던** 따지자.

거덜 ㉚ 꺽거덜/무능력자 ㉛ ㉜뺏고 헤져 쓸모없는 물건 ㉝그건 개져가봤자 **거덜**유. 그 쓰두 못덜 **거덜**을 뭇허러 들구 챙기넨 말유? ㉞ '여럿의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빔대어 이르는 말. ㉟그 사람은 일만 치넨 **거덜**인디 머더라 뺏꾸 뺏긴라구 현대유?/넨 우리편이 썬썬 봤자 **거덜**이닝께 집

짜편이나 가서 알아봐.

-거덜랑 [ㅁ] -거들랑 [ㅁ](연결) ‘-거든+랑’,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어미. [㉮]-거들랑. [㉮]된 일 있거덜랑 얼릉 전화하라./다 먹거덜랑 설거지 까장 끝내구 나와.

거둑 [ㅁ] 거듭 [ㅁ] 여러 번 되풀이하여. [㉮]거듭. [㉮]거듭 사정을 히봤넌디 시꿏두 안허네유. [㉮]거듭-허다. [㉮]실수를 거듭허문 그건 실수가 아닝 겨.

거듭-거듭[-꺼-] [ㅁ] 거듭-거듭 [ㅁ] 여러 번 되풀이하는 모양. [㉮]거듭거듭. [㉮]그런 건 거듭거듭 쟁야놨자 야중이 다 쇠영(所用) 읍을 겨.

거 : 따 [ㅁ] 거기에다가 (구문) [㉮]‘그따’. [㉮]애는 장관 거따 떠놓구 왔유.

거 : -따가 [ㅁ] 거기에다가 (구문) [㉮]‘그따’. [㉮]물건은 거따가 두구 왔으닝께 알 어서덜 혀.

거 : 루 [ㅁ] 거기로 (구문) ‘거기루’가 줄어든 말. [㉮]‘글루’. [㉮]거루 가문 질이 읍다넌디 왜 들구 겨루만 갈라군다?

거륵-배[-빼] [ㅁ] 거룻-배 [ㅁ] ‘거루(小木船)+ㅅ+배→거룻배)거륵배(변자음화)’. 노를 저어 움직이는 작은 배. [㉮]나 시집을 적이만 히두 다리가 읍어서니 거륵배를 타구 근너댕겼어.

거리-지 [ㅁ] 거리-제(-祭) [ㅁ](민속) 정

월 대보름을 맞으며, 마을 어귀나 거리에서 지내는 마을 제사. [㉮]왜정 때만 히두 거리지가 흔했지. 풍물허닌 사렘덜이 풍장 치구 들어댕기믄 참 볼만 험어.

거백기 [ㅁ] 거북이 [ㅁ] [㉮]‘거백이’.

거백이 [ㅁ] 거북이 [ㅁ](동물) ‘거북+이→거백이)거백이/거백기’. 파충류 거북목에 속한 동물. [㉮]거백기. [㉮]토깽이랑 거백이가 긍줄(競走-) 허문 누가 이기닌 중 아남? 그야 퇴깽이겼지. 그럼 둘이 싸우문 누가 이기닌 중 아남? 짓두 퇴깽이겼지. 아녀. 토깽이랑 거백이는 서루 볼 일이 읍어. 그닝께 긍주혈 일두 싸울 일두 읍능 겨./이 통세빠진 늬이 오덜 와서 거백이 털 뽑닌 소릴 히싼다?(이 엉퐁한 녀석이 어디 와서 헛소리를 한대?)

거 : 서 [ㅁ] 거기서 (구문) ‘거기(其所)+이서(處所格)→거기서’가 줄어든 말. [㉮]거서 뵈덜 허능 겨?/거서 한상 잘 읍어 먹었네.

거시기 [ㅁ] 거시기 [ㅁ] 바로 생각이 나지 않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물을 이룰 때 쓰는 말. [㉮]거시기. [㉮]자네 거시기 있잖남? 먼 거시기? 아, 이번이 자네가 구했다면 그 밤일 혈 때 쓰닌 거시기 말여. 내가 구헌 것은 그런 거시기가 아닌디?

거시기-허다 [ㅁ] 거시기-하다 [ㅁ][ㅁ]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행위를 이룰 때 쓰는



말. 『그게 참 내 입이루 말허긴 거시 기현디 말여. 어제니 있었던 일은 암체 두 자네덜이 거시기히야 쓰겼구먼.

거시다 ㅍ 거세다 ㄷ 『거시다』 『살살 구실르야지 너머 거시게 물어부치 문 반항히게 되는 뱀이여./그 사람 승질이 올라나 거신지 말두 못허.

거심푸레 ㅍ 거슴츠레 ㅍ 『거심푸레』

거편-허다 ㅍ 가뿐-하다 ㅎ 『가볍-/갑-/겁-(輕)+-전/잔(접사)+허-+-다 →갑잔-/겁전허다>견전허다(변자음화)>거편허다』 ㄱ갑잔허다. ㄱ갑잔허다. 거뿐허다. 가뿐허다. ①(사물의 무게나 일의 정도가)가볍거나, 가벼운 듯하다. 『원판심이 좋으니까 거편히게 들구 가더면./일갈잡두 앓구 허서 한 나절만이 거편히게 끗냈유. ②몸이나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 『그 약 먹구 거편히게 낫었다./자구 일났더니 몸이 거편히네유. ③일이 어렵지 아니하고 쉬운 듯하다.

거트다 ㅍ 같다 ㅎ 『거트다』

거퍼 ㅍ 거꾸 ㅍ 거둑하여. 잇달아. ㉵ 연거퍼. 연짱. 연짱이루. 연신. 『장적을 빼갠다다 거퍼 헛손질을 허더니 도치를 집어 던지더라구.

-건 ㅍ -거나 ㅍ 『-거나』의 준말. 대체로 『-건 -건』의 구조로 쓰이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뜻을 나타

낼 때 쓴다. ㉵-던. 『내가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당신이 먼 창관(參關, 상관)이여?→내가 밥을 먹건 안 먹건 당신이 먼 창관이여?/가가 일을 허건 말건 난 관심없다낭께.

건넛-말 : [-넛-] ㅍ 건넛-마을 ㅎ 시내나 길의 건넛에 있는 마을. ㉵건넛말. 『건넛말인 뒤편이라 갔던 겨?

건넛-말 : [-넛-] ㅍ 건넛-마을 ㅎ 『건넛말』

걸구 ㅍ 걸귀(乞鬼) ㅎ 『먹을 것을 심하게 탐하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저 높이 걸구 들렸나, 허구헌 날 처먹기만 허네./늑이 걸구나? 하냥 먹으란 걸 왜 혼쳐 다 먹는 겨?

걸핏-허믈[-피터-] ㅍ 걸핏-하면 ㅍ 『걸썸허믈』

겁 ㅍ 겁 ㅎ 『표준어화 과정: 글→겁(단모음화)>겁』 면이나 선 따위가 거듭이어진 상태로 된 것. ㉵글. 겁. 『시 겁으로 둘러쌌이니 얼어붙던 앓을 규./뻗 겁이루 쌓인 저걸 온제 다 친다?

겁겁이 ㅍ 겁겁이 ㅍ 여러 겁으로. ㉵글. 겁. 『겁겁이 쌓이 속이서 그걸 오치기 찾넌다나?

겁-나다[검-] ㅍ 굉장하다 ㅎ 어떤 사물이나 일의 상황이 매우 굉장하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음청나다. 『개네집이 올라나 큰지 가 봐. 증말루 겁나다낭

께./새루 씨름장을 맵근다더니 **겹나년**
구먼./저 자동차 봐. 진짜 **겹나잖나?**

겹-보[-보] ㉠ 겹-보/겹-쟁이 ㉡ 겹
이 많은 사람. ㉢ 겹쟁이. ※'겹보'와 '겹쟁
이': 표준어의 보급으로 '겹쟁이'가 선택되
어 쓰이고, '겹보'는 사라져 감.

것[건] ㉠ 저것/그것 ㉡ '저것, 그것'
의 준말. ㉢ **것**(저것,그것)두 인전 싫어졌
어./**것이** 뭐여?/**것**두 슨물(贖物)이라구
개져온 겨?/**이것**두 그만 두구 **것**두 집어
쳐 빼려.

걸-깎뎡이[건-뎡-/거-뎡-] ㉠ 걸-깎
뎡이 ㉡ '꺠깎뎡'. ㉢ 그 사람 **꺠깎
뎡**이는 멀쩡헌디 속은 다 꺠었어. 뽕주
거리라닝께.

걸-꺠질[건-꺠] ㉠ 걸-꺠질 ㉡ 꺠에
드러나 있는 꺠질. ㉢ 속꺠질. ㉣ **꺠**은 서
리꺠을 암만 좋아히두 그룽지. 워티기
꺠꺠꺠까장 꺠어 먹넨다?

꺠다[꺠따] ㉠ 꺠다 ㉡ '꺠다/꺠하다
→꺠다/꺠다/꺠다/꺠다'. ①무엇이
서로 다르지 않거나, 서로 동일한 부류
에 속하다. ㉢ 그 냥반 **꺠**은 사람은 만
나기 심들지. ②불명확한 단정이나 예
측을 나타내는 말. ㉣ **꺠** 말 **꺠**은 소릴
허슈. ③어떤 조건에 맞는, '-다면'과
어우러져 쓰이는 말. ㉣ **꺠**기(景氣)가 요
꺠 **꺠**은 워뎡 장사두 전디덜 못혀.

꺠-모십[건-] ㉠ 꺠-모십 ㉡ 꺠으로

드러난 생꺠새. 외양(外樣). ㉢ **꺠모십**은
뚝 지 에민디 허넨 꺠은 응 뎡뎡이여.

꺠이[꺠치] ㉠ 꺠이 ㉡ '꺠티→꺠이/
꺠이'. ① '꺠 체언의 특징꺠럼'의 뜻을
나타내는 꺠조사. ②꺠 체언이 뜻하는
시간을 강조하는 꺠조사. ※'꺠이'와 '꺠
이': 조사로 쓰일 경우엔 항상 꺠체가 가능
하다. ㉢ **꺠**시상이 너꺠이 꺠을른 늡은 츠 본
다.→**꺠**시상이 너꺠이 꺠을른 늡은 츠 본다
(○). 그러나 '서로 꺠께', '어뎡 꺠과 다름이
없이'의 뜻을 지닌 부사로 쓰일 경우엔 모음
의 꺠체가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않는다. ㉣
나랑 꺠이 가자.→나랑 꺠이 가자(X).

꺠-차[꺠-] ㉠ 꺠의 꺠 ㉡ 차꺠차꺠
꺠여있는 물꺠들 가운데 위꺠이나 바꺠
꺠에 있는 꺠. ㉢ **꺠차**는 다 꺠어내꺠
성헌 속차만 꺠안이루 뎡이꺠라.

꺠-채림[꺠-] ㉠ 꺠-차림 ㉡ 꺠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꺠미는 꺠. 또는 꺠며
드러난 꺠모양. ㉢ **꺠**기 **꺠채림**이 신꺠
꺠 저름이 꺠 한 꺠 더 봤으넨 일뎡을
꺠꺠구나.

-꺠꺠니 ㉠ -꺠꺠 ㉡(꺠꺠) '-꺠+꺠-꺠
니'. '무엇을 할 수 있도록'의 뜻으로 앞뎡
내용을 이어주는 꺠꺠어미. ㉢ -꺠꺠리. -
꺠꺠리. -꺠꺠름. -꺠꺠락. ㉣ **꺠**꺠을 먹꺠꺠
꺠꺠을 꺠야지. 꺠꺠꺠꺠가 이꺠 뺠라니?/**꺠**
꺠 일꺠 수 있꺠꺠꺠 꺠꺠 꺠 꺠 꺠.

-꺠꺠름 ㉠ -꺠꺠 ㉡(꺠꺠) '-꺠+꺠-꺠
름'. ㉢ '-꺠꺠꺠'보다 쓰임 빈도가 낮
다. ㉣ **꺠**꺠꺠 **꺠꺠꺠**름 볼도 꺠꺠꺠꺠 꺠꺠

넌디 머가 그리덜 말이 많다?/가가 잘 지내**계끄**름 보살핀 계 누군디 그렇게 공 썬(공 없는) 소리를 현다?

계 : -놓다[-노타] **㉠** 게워 놓다 **㉡** 먹은 음식을 토해내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재물을 도로 내어놓다. **㉢** 오편 높이 술 처먹구 해필 여따 **계놏**구면./존 말루 혈 적이 그 간이 해먹은 것 다 **계 놓으**란 말여.

계 : 다 **㉠** 게우다 **㉡**(타) 먹은 음식을 입 밖으로 토하다. **㉢**게우다. 괴우다. 괴:다. **㉣**돌루다. **㉤** 뭇 잘못 먹엇걸래 저렇기 **계쌌**넌다?/구연 음식을 먹엇으믄 똥구녁이루 싸야지, 왜 입이루 **젠**다?

계로움 **㉠** 괴로움 **㉡** **㉢** '계롭'. **㉣** 그 **계로움**을 뉘헌티 말허졌넌? 그렇게 자석 잃구 혼쳐 시름시름허다가 조용히 밥수갈 논 겨.

계 : 롬 **㉠** 괴로움 **㉡** '계롭-(苦)+-ㅁ (접사)→계:롬>계로움'.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픈 상태나 그런 느낌. **㉢**계로움. **㉣** 그 놈헌티 당헌 **계롭**이야 말루다는 혈 수두 읍지./**계롭**이나마나 다 지가 사서 허넌 **계롭**이닝께 난 썸들 자리두 읍어.

계롭다[-따] **㉠** 괴롭다 **㉡** '고(苦)+-롭(접사)+-다→고롭다/괴롭다>계롭다.' 몸이나 마음의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고롭다. **㉣** 인생 너머 **계롭**게 살덜 말여./나 하나 뜬허자구 으

러 사람덜헌티 **계롭**게 허믄 못 쓰능 겨.

계롭히다[-로피-] **㉠** 괴롭히다 **㉡** <타> 성가시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다. **㉢**고롭히다. **㉣** 애꾸진 동상 **계롭**히덜 말구 혈일 읍으믄 나가 놀어라.

계비 **㉠** 고비 **㉡** <식물> '고비'괴비'계비'. 식용하는 고사릿과의 한 종. **㉢**괴비. 제비고사리. 지비고사리. **㉣** 지삿상인 고사리를 올리넌 거지, **계비**는 올리닝계 아녀./고사린 못 꺾구 **계비**만 점 꺾어 왔유. 위매, 즉은 계 아니구면. **계비**를 오서 이렇기 꺾엇다?

-계스리 **㉠** -계끔 **㉡** **㉢** '-계꾸니'. **㉣** 점 쉬**계스리** 냅뒤유.

-계시리 **㉠** -계끔 **㉡** **㉢** '-계꾸니'. **㉣** 올 애가 공부 점 허**계시리** 손상님이 신경을 써 주시야졌유.

계심푸레 **㉠** 거슴츠레 **㉡** '거슴푸레'거심푸레>계심푸레'. 졸리거나 술에 취해서, 눈이 흐리멍덩하여 감길 듯한 모양. **㉢** 거심푸레. **㉣** 계심푸레-허다. **㉤** 초상집이 갔다더니 밤을 샀넌개 벼. 눈이 **계심푸레**헌 것이 말여.

계 : 육질[-짚] **㉠** 구역-질(嘔逆-) **㉡** 먹은 음식을 토하거나, 토하려는 짓. **㉢** 토약질. **㉣** 뭇 잘못 먹엇걸래 저렇기 격격 **계육질**은 해싼다?/아니, 퇴비장이라 두 가서 허지 드럽게 문지방 앞이다 **계육질**을 허문 오쩨다?

겨 ㅍ 거야 (구문) '것(者)+이(조사)+어 (종결어미)→것이어→겨어'의 준말. 해라체에서 ①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 때 쓰는 말. 『다 생각이 있어서니 내가 그런 겨./그니까 가가 못된 놈인 겨./그리기, 그 놈 땀이 시방 내가 환장하는 겨./밥은 왜 냉긴 겨? 속 상헌 일을 당허니께 목구멍이 맥혀서니 냉긴 겨. ②상대의 말에 물음을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자네 또 일 친 겨?/뭘 재미난 일 생긴 겨?/그 낭반은 왜 간 겨? 뭘 말두 읍이 기냥 간 겨?

겨란-말이 ㅍ 계란-말이(鷄卵-) ㅁ 달걀을 부쳐서 돌돌 말아 놓은 음식. ㉮달걀말이.

겨란-찜 ㅍ 계란-찜(鷄卵-) ㅁ 계란을 풀고 새우젓이나 명란젓, 파 따위의 양념을 넣고 찐 음식. ㉮달걀찜.

겨역 ㅍ 기억(記憶) ㅁ 과거의 경험을 되돌려 떠올려 낸. 『그 야긴 하 오라 되구 어렸을 적 일이라 겨역두 읍어. ㉮격: 지역. ㉮(타) 겨역-허다. 『그리두 뭘 겨역나년 것 있으믄 되년 대루 얘길 허 봐.

겨역-력[-영력] ㅍ 기억-력(記憶力) ㅁ 과거의 경험을 되돌려 떠올려 내는 힘. ㉮격:력. 지역력. 『그 낭반이 나 잡숫구 기력은 쇠했어두 겨역력 하난 비상혀.

경 : 찜 ㅍ 경증(輕症) ㅁ 질병의 가벼

운 증세. ㉮증:증. 『뻔 게 심헌 것은 아니구 기냥 경찜이라. 침 뒤 대믄 낫 겠다더면.

-고 ㅍ -오 ㅁ(중결) 무엇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며 문장을 끝내도록 하는 명령형어미. ㉮-구⁴. 『우리집이 장관 멩겨와 다고./보리쌀이나 한 말 퍼 다고.

고 : ㅍ 고기 ㅁ '고기'의 준말. 『고 가서 뭘 야글 들었나?/고서 연태 뵈을 헌 겨?

고(:)가 ㅍ 고기가 (구문) '고기(其所)+가(조사)→고기가'가 줄어든 말. ㉮고기가. 『고가 쥬일 웃을 논 겨?/고가 그리두 질 앓을 만헌 디어.

고 : 구-여다 ㅍ 고 : 귀하다(高貴-) ㅁ 고귀(高貴)+허--+다→고귀허다(전설모음화)고구여다(음운탈락). ㉮ '고귀여다'. 『고구여기루 따지믄 녀의 자석이나 내 자석이나 매일반인 겨.

고 : 귀-여다[고구이-] ㅍ 고 : 귀-하다(高貴-) ㅁ '고귀(高貴)+허--+다→고귀허다[고구이허다](전설모음화)고귀여다>고구여다'. 신분이 존귀하거나, 정신적 가치가 높다. ㉮고기여다. 고구여다. 『그 사람이 양반댁 삼대 독잔디 올라나 고귀여게 자랐었어.

고 : 기-여다 ㅍ 고 : 귀-하다(高貴-) ㅁ ㉮ '고귀여다'.

고꾸러-지다 ㅍ 고꾸러-지다 ㅁ(자)

허리가 고부라진 채 앞으로 쓰러지다.
(센말)꼬꾸러지다. 『문지방을 넘다가니
꼭 꼬꾸러졌넌디 앞니빨이 똑 뿌러져
빠렸다.

고니 ㅍ 고누 ㅍ<민속> 땅이나 종이에
말발을 그리고 그 위에서 말을 따먹거
나 길을 막아 승부를 가리는 놀이. ㉟곤
질이. 『저놈의 자석이 일 점 거들래니
께 고니만 허구 자빠졌네.

고달푸다 ㅍ 고달프다 ㅎ 처지나 형편
따위가 힘들고 괴롭다. 『인생 땃 쪼끔
이나 된다구 그리 고달푸게 사나? 개진
건 읊어두 나차람 좋게 좋게 생각허매
살어.

고도래미 ㅍ 고드름 ㅍ ‘곧-(直)+얼-
(氷)+-애미(접사)→고더래미/고도래미/고도
름.’ 흐르던 물이 얼어붙어 길게 매달린
얼음. ㉟고도름. 『날이 풀렸다가 갑작
시리 취나닝께 고도래미덜만 살판 났구
면./거 머리 조심혀. 그러다가 고도래
미헌티 이마 깨지넌 수가 있당께.

고도름 ㅍ 고드름 ㅍ ‘고도래미’.
『나랑 고도름 칼삼 헐 터? 그 고도름
이룬 나헌티 째두 안될 겨.

고동² ㅍ 원-뿌리 ㅍ ‘고동뿌리기’
의 준말. 『먹지 못허넌 고동은 잘어내
야지, 머더라 그걸 끌구 왔다?/나무뿌
리길 다 캘라구 허문 심이 많이 들잖어.
목괘이루 고동만 딱 끊어뻘지라닝께.

고동-뿌럭지 ㅍ 원-뿌리 ㅍ ‘고동
뿌리기’. 『하이구, 고동뿌럭지가 월매
나 쉼이 백였넌지 통 뻘힐 기색이 안
보너면./아니, 고동뿌럭지를 뻘어뻘지
야 일이 끝나지, 잔뿌리기만 캐내구 있
으른 워느 시월이 일을 끝낸다?

고동-뿌레기 ㅍ 원-뿌리 ㅍ ‘고동
뿌리기’.

고동-뿌리 ㅍ 원-뿌리 ㅍ ‘고동뿌
리기’가 표준어화한 말.

고동-뿌리기 ㅍ 원-뿌리 ㅍ<식물>
‘고동(莖, 莖)+뿌리기(根)→고동뿌리기’고동
뿌리. ①굳고 단단한, 식물의 중심뿌
리. ㉟원뿌리기. 『무수 고동뿌리기가
들구 썩넌디 이게 무신 붕이랴? ②식
용하는 식물에서, 질기거나 단단해서
식용하지 못하는 뿌리의 윗부분. ㉟고
동. 고동뿌럭지. 고동뿌리. 『마를 찢라믄
고동뿌리긴 잘러버리구 찢야지./췌뿌리
기를 캔다구 나가더니 고동뿌리기만 끊
어왔구면.

고등아 ㅍ 고등어 ㅍ<동물> 고등엇과
의 바닷물고기. ㉟고등어. 『원체 버린
것을 좋아허닝께 고등아 샅으른 찬겨린
됐유./식구가 뻘인디 고등아 한 손을
누구 코이 붙일라구 현다?

고 : 따 ㅍ 고기에다가 (구문) ‘고기(其
所)+이다가(조사)→고기다가’고따가’가
줄어든 말. 『치리기는 고따 놓릴 말구

퇴비장이다 내다비려라./그 친구 버릇을 생각하니깐 딱 **고따** 승겼을 것 같더라구.

고 : -따가 **ㅍ** 고기에다가 (구문) **ㅅ** '고따'. **ㅍ** **고따가** 뿔다가니 월매 존이 접착이루 왕겼유.

고랑-거리다 **ㅍ** **고롱-거리다** **㉠(자)** 병치레로 숨을 헐떡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 **㉡**고롱거리다. 고랑고랑하다. 고롱고롱하다. **ㅍ** **맨날 고랑거리던** 낭반이 논이는 뭐더라 나오신 규?

고랑-고랑 **ㅍ** **고롱-고롱** **㉠** 병치레를 하는 늙은이가 목에 가래 따위가 걸린 듯 숨을 헐떡이는 모양, 또는 그 소리. **㉡**가랑가랑. 고롱고롱. **ㅍ** **밤새 고랑고랑** 금방 숨 넘어갈 것 같지만 아침이 되니까 멀쩡해 지더라니까.

고랑고랑-허다 **ㅍ** **㉠(자)** 병치레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 **㉡**고랑거리다. 고롱고롱하다. **ㅍ** **저 늙은이가 젊어서버텨** 해소끼가 있어서 노상 **고랑고랑허두** 밧일 눈일 혼처 다 허던 낭반이여./**맨날** 객 객거리구 **고랑고랑허구** 있으면서 왜 약을 빼잡숄녕 규?

고랑-팔십[-십] **ㅍ** **㉠(관용어)** 허약하여 잦은 병치레를 하면서도 오래 사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 **㉡**고롱팔십. **ㅍ** **고랑팔십이라더니** 그 낭반이 똑 그작이여. 뭘 소리라? 그 낭반 나가 날모리

믄 구십이여. 그랑께 **고랑팔십**이 아니구 **고랑구십**이여. **㉡**쭈그렁 밤랭이 시 해 간다./쭈구렁 밤랭이 삼 년 간다.

고름 **ㅍ** **고름** **㉠** '끓-(膿)+-옴'. 몸 안에 병균의 침입으로 생긴 희거나 누른빛의 액체. **ㅍ** **고름**이 짹하다. **고름**을 짜다.

고름다[-따] **ㅍ** **괴롭다** **㉠** '계롭다'. **ㅍ** **멤**이야 점 **고름**겼지만 그만허길 다행이루 알구 좋게 생각허.

고름히다[-로피-] **ㅍ** **괴롭히다** **㉠(타)** '계롭히다'. **ㅍ** **그렇게** 날 **고름**히야 자네 속이 선허겄남?

고름-팔십[-십] **ㅍ** **㉠(관용어)** '고랑팔십'.

고른-내 **ㅍ** **고린-내** **㉠** '끓-(傷)+-은 +내(臭)→고른내)고린내'. 무엇이 썩을 때 나는 고약한 냄새. **㉡**구른내. 꾸른내. 구린내. 꾸린내. 꼬른내. 꼬린내. 고랑내. 꼬랑내. **ㅍ** **오서 고른**내가 난다 헛더니 방안이 덮여논 호박이 탕났구먼.

고리-즌(-錢) **ㅍ** **고리 전(錢)** **㉠** 예전에 쓰던 고리 모양의 동전에서, '액수가 매우 적은 돈'을 이르는 말. **ㅍ** **고리**즌이구 뭐구 인전 땡즌 한 폰두 안 남었다니까.

고무락지[-찌] **ㅍ** **고물** **㉠** '고물(粉)+-약지(접사)'. ①떡을 만들 때, 콩이나 팥, 참깨 따위를 갈아 곁에 묻히는 가루. **ㅍ** **고무락**지가 점 모지란디 내머진 백무

리루 허쥬?/콩고무락지. 팻고무락지. 떡
고무락지. ②‘조그마한 이익’을 빗대어
이르는 말. 『옆대이서 고모락지라두 은
어먹을래믄 창관허덜 말어.

고소롬 ㅍ 고소함 ㅎ ‘고습-(甘味)+
롬(접사)+-음→고스르롬?>고소로움?>고
소롬/꼬소롬’. 고소한 맛. 맛이 고소함.
㉠꼬소롬. 구수롬. 『위떠? 쟁지름을 놓
니께 고소롬 허지 않남? 고소롬이구 뉘
구 음식이 간이 맞아야지.

고소롬-허다 ㅍ 고소하다 ㅎ 고소롬
한 맛이 나다. ㉠ ‘고소롬’. 『창패 볶
넌 냄새가 고소롬허니 참 좋구먼.

고 : -수덤 ㅍ 고-스톱(go-stop) ㅎ
화투놀이의 한 가지. ㉠고수담. 『민하
토두 못 허매 뉘 고수덤을 뵈다는 겨?/
고수덤판이 뉘 개평이라?

고순-내 ㅍ 고소한 냄새 ㅎ ‘고습-(甘
味)+-ㄴ+내(臭)’. 깨를 볶을 때 나는 기
름 냄새. ㉠꼬순내. 『신희두 아니구먼
날마두 손을 꼭 잡구 먼 고순내를 그렇
기 풍기매 땡긴다?

고 : -스화 ㅍ 고 : -서화(古書畫) ㅎ 오
래 전에 쓴 글씨나 그려진 그림. 『이런
산구석이 뉘 고스화가 있겠어? 고린장(高
麗葬)서 나온 식기 쪼가리라믄 물러두.

고시란-허다 ㅍ 고스란-하다 ㅎ 흠
없이 그대로 온전하다. 『누가 근대리
두 앓구 고시란허더면.

고시란히[-라니] ㅍ 고스란히 ㅍ 흠
없이 그대로. 온전히. 『아주 한 개두
안 냉기구 고시란히 쓸어가 뵈졌다닝
께. 누가 보믄 똑 핑 귀먹은 자리여.

고시러-지다 ㅍ 고스러-지다 ㅎ 버
나 보리 따위가 거들 때가 지나 줄기나
잎이 말라붙어 꺾이고 고부라지다. 『
예구, 들패가 고시러져서 다 쏘어져 뵈
렸네./베가 다 고시러지려면 왜 안 빈
다? 촌수답이 냉해를 입어서니 다 쪼징
이여. 바심허두 풍갑두 안 나온다닝께.

고웁다[-따] ㅍ 곱 : 다 ㅎ ‘활용형태:
고웁게. 고웁구. 고웁구나. 고우니. 고우니
께/고우닝께/고웁께. 고웁다구. 고워서’. 보
기에 아름답거나, 매끄럽고 보드랍다.
『으냥이파리가 노라니 참 고웁구먼./
살글이 오쩌문 요룽기 뵈야니 고웁다?
/그집 새닥은 얼굴두 이쁘구 뵈뉘 고운
디 음식 솜씨는 웁 아니더면.

고이-허다 ㅍ 괴이-하다(怪異-) ㅎ
‘괴이[고이이]+허다→고이허다(동음생략)’.
이상하고 야릇하다. 『동네이 고이헌
일이 왜 들구 벌어지는 겨?

고지 ㅍ 임수(林藪) ㅎ 특정한 사물이
흐드러지게 모여 나는 곳. ※제주어의
‘수풀’, 또는 ‘수풀이 우거진 곳’을 말하는
‘고지’와 어원이 같을 것으로 추정됨. 『여
기가 고사리 고지여./광천장은 이전버
팀 어리굴젓허구 새우젓 고진디 연태
그것두 물렸남?/겨 응지(靈芝) 많이 나

넌 고지가 오디랴? 나한테 실쩍 짐 귀
뜸 주믄 안 되까?

고칭 ㅍ 고층(高層) ㅊ 건물의 높은 층.
『아파트 고칭이 좋다넌 사람덜두 있더
면 난 어지럽구 번거러서 싫여. 올라댕
이기두 심든 고칭을 왜덜 좋다구 허넌
지 몰르겠다닝께.

고푸다 ㅍ 고프다 ㅊ ‘굶(-餓)+-ㅍ(접
사)-다→골푸다>고푸다’. 주리어 음식이
먹고 싶다. 『배 많이 고푸자? 그리두
찬찬이 먹어. 배가 고푸수루기 찬찬이
먹으야 체허덜 앓녕 겨.

곤두-벌레 ㅍ 장구-벌레 ㅊ ‘곤두(筋
斗)+벌레(蟲)’. 모기의 애벌레. 웅덩이
에서 재주를 넘듯이 헤엄치는 모습에서
나온 이름. 『빛물 구덩이에 곤두벌레
덜이 새까맣게 후엽치구 있구면.

곤 : -소곰 ㅍ 곤 : -소곰 ㅊ 천일염을
녹여 잡티를 거르고 끓여서 만든 깨끗
한 소곰. 『곤소곰은 오파 두구 국이다
끓은소곰을 놓는 겨?

곤질-이 ㅍ 곤줄-고누/고누 ㅊ ①말
밭 위의 말을 따먹어 승부를 가리는 고
누놀이의 하나. 『곤질이만 잘 허믄 장
뎡인감? ② ㅊ ‘고니’.

곧-대고[-때-] ㅍ ㅊ ‘곧대구’.
『지지 앓구 곧대고 말대꼴 허닝께 성
이 널 때린 겨.

곧-대구[-때-] ㅍ ㅊ ‘곧(直)+대-(對),

紐)+-구(어미)’. 상대를 앞에 대놓고 곧
바로. 상대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
지 앓고 끝까지. ㅊ곧대고. 『어린 놈이
곧대구 나한테 대드는 겨./넘이 말은 들
두 앓구 곧대구 지 말만 옳다구 우기는
겨. 그러니 윈 놈이 지를 좋아허겠냐구.

곧 : -말 : ㅍ 곧 마을 ㅊ ‘곧(谷)+말
(里)’. 산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
『그 외진 곧말서 무얼 히먹구 산다? 곧
말이 있던 산패기말 짐 허구 솔때비(솔
따비) 일루 은뎡(延命)히유.

곧 : -망테기 ㅍ 곧짜기 ㅊ ㅊ ‘곧망
텡이’. 『저 짙은 곧망테기가 솟구덩이
곧인 겨? 그려. 저 곧망테기 아래루다
시방두 시꺼면 솟달이 둥글어 뎡긴다닝께.

곧 : -망텡이 ㅍ 곧짜기 ㅊ ‘곧(谷)+망
텡이(網罟)→곧망텡이>곧망테기’. 망테기
처럼 움푹 들어가고 좁은 곧짜기. ㅊ곧망
테기. 『그 곧망텡인 뭐더러 가능 겨?/
적솟굴은 오디 붙어있던 곧망텡이라?

곧모 ㅍ 곧무 ㅊ 바늘을 밀 때 손가락
을 보호하기 위해 끼는 바느질 도구.
『이눔으 곧모가 또 오디루 내뺏다?/곧
모두 읍이 뵈 바느질을 헌다는 겨?

곧탕 ㅍ 고랑/곧짜기 ㅊ 산 사이에 깊
숙이 패어 들어간 땅. ㅊ고랑. 고랑텡이.
고랑텡이. 곧짜. 곧짜. 『거긴 순 곧탕이
여. 가볼 것두 읍다닝께.

곰 : 지 ㅍ 곰 : 쥐 ㅊ <동물> ①짚은

갈색의 털을 지닌, 집쥐보다 몸집이 작은 쥐과의 한 종. 개체수가 적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곰지가 왜 곰지였어? 사람덜 눈에 안 띄던 지닝께 곰지지. ㉡곰쥐처럼,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무엇인가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저 곰지가 뒤란이서 뭇허구 있다?/저놈은 곰지라서 뭇허두 소리 하나 읊유.

곰 : 텅이 ㉠ ㉡ 미련한 사람 ㉢ '곰탕이'.

곰 : 텅이 ㉠ ㉡ (흔히 '미련'과 함께 쓰여) 행동이 굹뜨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곰텅이. ㉣저 곰텅이가 밥때두 놓치구 워덜 쏘맹간다?

끓으다 ㉠ 끓 : 다 ㉡ '활용형태: 끓으게, 끓으구, 끓으더락, 끓어, 끓으지, 끓어서'. '표준어화 과정: 끓으다>끓:다'. 상처가 덧나 고름이 잡히다. ㉢끓다. ㉣그렇기 다친 디가 끓으더락 가냥 뱀똥 겨?/송꼬락 끓으지 않게 약 발르자.

곰핍-이 ㉠ 곰곰-이 ㉡ '곰곰(深慮)+이/히(접사)→곰곰이>곰핍이/핍곰히(전설모음화)'. 이리저리 골똘히 헤아리는 모양. ㉢곰곰이. 핍곰이. ㉣곰핍이 생각허다 보닝께 암만허두 이번은 우덜이 실수헌 것 같어.

곰- 짹 ㉠ 고-쪽 ㉡ '고(其)+짝(隻/方)→곰짝'. 요쪽에 마주한 조금 떨어진 곳. ㉢고짝. ㉣곰짝이루 자리 하나만 말어

냐. 이구, 곰짝인 자리 말기가 쉽덜 앓은디유?

곰-쟁이[-쟁-] ㉠ 곰 ㉡ '곰(倍)+-쟁이(접사)'. 일정한 수가 거듭하여 합쳐지는 것. ㉢곰. 곰절. ㉣곰값은 똑같은디 곰쟁이루 심든 그집 일을 누가 가졌어?/그런 물건은 곰쟁이루 준대두 난 싫어./저것이 자네 것버덤 뭇 곰쟁이는 크졌구먼.

공기다 ㉠ 공기다 ㉡(자) ㉢ '굉기다'와 함께 쓰임 빈도가 높다. ㉣손등이 공격서니 고름을 짚더니 속이 까시가 백였더라구.

공-꺼 ㉠ 공-것 ㉡ ㉢ '공겨'. ※구어체에서 흔히 쓰이는 말. ㉣공것 너머 바러덜 말어. →공겨 너머 바러덜 말어./공겨 좋아허든 머리 뺏겨진다.

공 썩 소리 ㉠ 공 없는 소리 (구문) '애를 썼는데도 알아주지 않는 말'을 이룰 때 쓰는 말. ㉢공 읊년 소리. ㉣이런 못된 늑이 오디 으른 똥통수를 친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머리에 붙은 파릴 잡어줄라다 그런 거여. 친구 간이 공 있단 말은 못허두 그리 공 썩 소릴 허문 섭허지.

공-이루 ㉠ 공-으로(空-) ㉡ '공(空)+이루(조사)'. 아무런 수고도 없이, 공짜로. ㉢맨이루. ㉣시상이 공이루 생기던 것은 하나두 읊어./넌 일허던 것 츠다 보구만 있다가니 밥때 되닝께 공이루

수갈 들구 템비넨 짓은 허덜 말어.

과 : 증 ㉠ 과 : 정(科程) ㉡ 일이 이루 어져 가는 경로. ㉢ 사증이 있다군 히두 **과증**이 그리 되믄 못 쓰능 겨./지난 **과증**이야 그렇다 치구 인전 앞이루 위치 기힐 겨?

관절 ㉠ 관절(關節) ㉡ <의학> '관절'관 절. 인접한 뼈를 이어주는 부분. ㉢관 절. ㉣ 지난 번 사고로다 무르팍 **관절**을 상히서니 일두 못헌다.

관절-염[-염] ㉠ 관절-염(關節炎) ㉡ <의학> '표준어화 과정:관절염'관절염. 관절에 생긴 염증. ㉢관절염. ㉣ 날이 구지구 취나믄 **관절염**이 도져. 들 구 아프구 쭈신다닝께.

관절-음[-음] ㉠ 관절-염(關節炎) ㉡ <의학> ㉢ '관절염'.

괄세[-세] ㉠ 괄시(愼視) ㉡ 업신여 기고 하찮게 대함. ㉢ 그 **괄세**를 받구두 가만 있다니? 그제 속이 짚은 겨? 무지 란 겨?

괄세-허다[-세-] ㉠ 괄시-하다(愼視-) ㉡(타) 업신여기고 하찮게 대하다. ㉢ 돈 점 불었다구 사람 **괄세**허믄 못 쓰 능 겨. 사람 나구 돈 닐지, 돈 나구 사 람 난 게 아니잖어.

광-섬유 ㉠ 광-섬유(光纖維) ㉡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빛을 전파하는 가는 유리 섬유. ㉢광섬유. ㉣

광학섬유(光學纖維)를 줄여서 흔히 **광섬유**라구 말헌다.

광우리 ㉠ 광주리 ㉡ 대오리나 싸릿가 지 따위로 아래는 촘촘하게, 위는 넓고 성글게 엮어 만든 등그런 그릇. ㉢ **대광우리**, **싸리광우리**.

괴 : ㉠ 괴 : (櫃) ㉡ ㉢ '괴:작'.

괴깍-배[-배] ㉠ 고깃-배 ㉡ '표준어 화 과정: 괴기(魚)+사+배(舟)→괴깍배(변자음 화) >고깍배'. 고기잡이에 쓰는 배. ㉢고 깍배. 괴깃배. 으선. 으순. ㉣ 태안 사년 느이 당숙이 **괴깍배**를 시 척이나 개지 구 있었지. 그제 노 젓넌 배긴 허두 이 전이 **괴깍배** 시 척이믄 갑부였어.

괴깃-배[-깃배] ㉠ 고깃-배 ㉡ ㉢ '괴 깍배'의 본딧말. ㉣ 바닷가이 산다구 다 **괴깃배**를 가진 게 아녀. 이전이 노 젓넌 **괴깃배**라두 있던 집은 애타 대학 같쳤 어.

괴 : -**놓다**¹ ㉠ 괴어 놓다 ㉡ '괴-(觸/搨)+어+놓-(放)+다→괴어 놓다'가 줄어 든 말. 어떤 사물이 쓰러지거나 기울어지 지 않도록, 나무막대나 돌 따위로 받쳐 놓다. ㉢고여 놓다. ㉣ 가로수를 새루 심 구 **괘목**이루다가 **쭈 괴**났더면 이번 바람 이 나무털이 전덜라나 물르겠어./부로꾸 담배락이 금이 가서 통나무루다 **괴**놓긴 혀넌디 멧 쪽이나 갈룽가 물르겠네.

괴 : -**놓다**² ㉠ 괴어 놓다 ㉡(타) '고

이-(溜)+-어+놓-(放)+-다→고여 놓다'가 줄어든 말. 물을 막아 구멍이 같은 곳에 고이도록 하다. ㉔고여 놓다. ㉕논이 델 라구 개우장을 파 물을 점 **과났어**./진즉이 논이다 물을 **과놓긴** 했더니 일소를 못 은어서 연태 못 갈구 있어.

과 : -놓다³ ㉔ 게워 놓다 ㉕ '게:- (吐)+-어+놓-(放)+-다→게:놓다)과: 놓다. ①먹은 음식을 입 밖으로 토해 놓다. ㉕누가 술을 처먹구 담배락 아래다가 **과났구먼**. ②부당하게 차지했던 재물을 도로 내어놓다. ㉕그 낭반 녀이 돈 떼먹을 땐 참 좋았졌지만, 그거 딱 걸려서니 **과놀라**님께 시방 죽을 맛인 모양이여.

과 : 다 ㉔ 게우다 ㉕ '게다'.

과우다 ㉔ 게우다 ㉕ '게:다'.

과 : 육질[-짚] ㉔ 구역-질(嘔逆-) ㉕ '게:육질'.

과 : -짜 ㉔ 궤 : (櫃)/궤 : -짜(櫃-) ㉕ ①물건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네모진 상자. ㉕쌀 **과짜**./돈 **과짜**./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덜은 저 **과짜**이다 느냐. ②물건이 담긴 상자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 ㉕짜. ㉕뭘 것울 시 **과짜**이나 보냈다니?

괘괘-이 ㉔ 괘괘-이 ㉕ '괘괘이'. ㉕위디가 잘못된 건지 자네가 점 **괘괘**이 따져봐.

괘기다 ㉔ 괘기다 ㉕(자) ㉖ '괘기다'.

㉕다친 디가 덧나구 **괘겨**서니 빨강계 부풀었더먼.

괘 : -독[-뜯] ㉔ 괘-돌 ㉕ 물건이 똑바로 서 있도록 밑에 받쳐놓은 돌. ㉕괘돌. ㉕암체두 지동 밑이다 **괘독**을 받치야 낫겠지?/괘독이 빠졌더니 위만 쌓으면 뭇헌다?

괘기다 ㉔ 괘기다 ㉕(자) '괘+-기(접사)+-다→괘기다/괘기다(음운탈락, 변자음화)괘기다/괘기다(전설모음화)'. 고름이 잡혀 살이 팽팽하게 붓다. ㉕괘기다. 괘기다. **괘기다**. ㉕생여손이 **괘겨**서니 손톱이 빠지게 생겼네.

괘여니 ㉔ 공연히 ㉕ '괘니'. ㉕괘여니 오해 살 일은 근대리덜 말여.

괘일 ㉔ 공일(空日) ㉕ '괘일날'. ㉕이번 **괘일**이 일 잡힌 것 있남? 야, 이번 **괘일**은 갯골 건넛집 일 맞췄유.

괘일-날 ㉔ 공일(空日) ㉕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일요일을 이르는 말. ㉕괘일. ㉕우덜 같은 사람이야 **괘일날**이 따루 있나? 비 오구 눈 오년 날이 **괘일날**이지.

교 : 증 ㉔ 교 : 정(矯正) ㉕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㉕허리뼈가 헛으님께 **교증**을 받으안다구 허더랴. ㉕(타) **교증**-허다. ㉕이빨을 **교증**한다구 치과이 멩긴다너먼.

-구¹ ㉔ -고 ㉕(중결) 단순한 물음, 빈

정거림이나 반문 따위를 나타내는 의문 형어미. ㉡-고. 『자네 자당은 근강히 시구?/홍, 뇌놈 말을 내가 믿을 중 알 구?/니가 내 말을 잘 듣기는 허구?

-구² ㉡ -고 ㉢(종결) 생략의 여운을 두어 부드럽게 명령할 때 쓰는 평서형 어미. ㉡-고. 『자자, 할머니 일루 오 시구. 그렇쥬. 이짜이 기신 할아버진 절루 가시구.

-구³ ㉡ -고 ㉢(연결) ①대등, 상반, 나열, 강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 『비두 오구 바람두 불구 참 일허기 싫어지너면./이번 일은 잘 되구 못 되구두 읍유./정일 애 업구 떠땡기너라 심이 하나두 안 남었다닝께. ②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어미. ㉡-고. 『나두 집이 가구 싶다./자넨 연태 뵈허구 있었남?

-구⁴ ㉡ -오 ㉢(종결) 『-고』. 『누가 밥 점 맥여다구./우리 할매 점 잘 피셔다구./나 점 일써 다구.

구구락지[-찌] ㉡ 동사리/구굴무치 ㉢ '구굴(擧擧)+악지/-이(접사)→구구락지/구구리. 구굴무치과의 민물고기. ㉡ 구구리. 구굴무치. 『낚시질했다더니 웬 구구락지랴? 지렁이 낚시를 킷넌디 봉언 안 잡허구 구구락지만 들구 물더래유.

구구리 ㉡ 동사리/구굴무치 ㉢ 『구구락지』. 『구구릴 왜 내뺨릴라능 겨? 그거 어죽 짙이믄 참 맛있어.

구구-줄줄 ㉡ 구구-절절(句句節節) ㉢ 글이나 말의 마디마디. 『펜지는 구구줄줄을 잘 알 수 있더락 쓰야 허네. ㉢ 『구구줄줄이』. 『구구줄줄 지저분허게 벤명헐 것 읍이 느이가 책음져.

구구줄줄-이 ㉡ 구구절절-이(句句節節-) ㉢ 글이나 말의 마디마디. ㉢ 구구줄줄, 줄줄이. 『그 냥반 사증 야글 듣다 보닝께 구구줄줄이 가심을 찢르더라구.

구구줄줄-허다 ㉡ 구구절절-허다(句句節節-) ㉢ 말이나 글의 내용의 매우 상세하고 간절하다. ㉢ 구구절절허다. 『말은 구구줄줄허게 늘어놓더면 통 뵈소린지는 못 알아듣겠더라구.

구굴무지 ㉡ 구굴무치 ㉢ 『구구락지』.

구덕-살[-쌀] ㉡ 굳은-살 ㉢ '굳-(硬)+-억(접사)+살(肉)'. 『구둔살』. 『삿내끼 파서 손바닥이 구덕살 백인단년 애긴 그눔헌티 촌 들었구먼. 그닝께 그눔은 생전 사내길 파보지 았은 늬이여.

구둔-살 ㉡ 굳은-살 ㉢ 잦은 사용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따위에 생긴 단단한 살. ㉢ 굳은살, 구덕살, 꾸덕살. 『즈내 도치질만 히뎃더니 손바당이 죄다 구둔살이 백였유.

구땨 ㉡ 귀-땨 ㉢ 『귀땨』. 『구땨두 헐 사람헌티나 히야지. 가는 입이 써서 동네방네 나불대구 뎡길 텐디 인전 소문날 일만 남았구먼.



구땀 ㅍ 귀-땀 ㅎ ㄴ '귀땀'. ㅍ 그 사람 만나거덜랑 실쩍 구땀이나 느쥌.

구락쟁이[-쟁-] ㅍ 아궁이 ㅎ ㄴ '구락쟁이'. ㅍ 자꾸 굴내년 게 구락쟁이가 멘 모양이구먼.

구락-징이[-쟁-] ㅍ 아궁이 ㅎ ㄴ '굴(窟)+악(口)+-쟁이(접사)→구락쟁이' 구락쟁이. 솥을 걸어놓고 불을 때는 구멍. ㄴ '아궁지'. ㅍ 구락징이에 군불이나 접지퍼라./구락징이다가니 생장적개비 뺏개 느 노문 쥘일 탈 겨.

-구랴 ㅍ -구려 ㅁ(종결) 하오체에서, ①어떤 사실에 대하여 감탄, 주목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ㅍ 이, 일이 그러닝께 그렇기 된 거구랴./근디 참 성님두 답답허구랴. ②어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물음의 뜻을 지닌 어미. ㅍ 이, 그러닝께 가가 갑속대매 까불다가니 은어터졌단 얘기구랴?

구름 ㅍ 구름 ㅎ 공기 중의 수증기나 얼음 알갱이들이 뭉쳐져 흰색이나 회색으로 공중에 떠다니 것. ㅍ 구름이 잔뜩 현 게 또 비가 올라나 벼./구름덜이 북 짝이루 움직이던 게 큰비가 올 모양이여.

구물덕-거리다[-떡꺼-] ㅍ 구무력-거리다 ㅎ ㄴ '꾸물덕거리다'.

구물덕-구물덕[-떡-떡] ㅍ 구무력-구무력 ㅁ ㄴ '꾸물덕꾸물덕'.

-구서 ㅍ -고서 ㅁ(연결) 앞과 뒤 절의

두 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ㅍ 놀드래두 일은 허구서 놀어라./손을 씻구서 들어와. 멀 믿구서 그런 짓을 현겨?/쥘일 놀기만 허구서두 밥 먹을 생각은 헛남?

-구서니 ㅍ -고서는 ㅁ(연결)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보다 앞섬을 나타내는 어미. ㅍ 숨 점 돌리구서니 밥을 먹자./멀 믿구서니 그런 짓을 현 겨?

구석-텅이 ㅍ 구석-빼기 ㅎ ㄴ '구석쟁이'. ㅍ 구석배기 안져있덜 말구 일루 점 나 앉어봐.

구석-쟁이[-쟁-] ㅍ 구석 ㅎ ㄴ 모퉁이가 있는 후미진 곳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속되게 이르는 말. ㉠구석. ㉡구석배기. 구석텅이. ㅍ 느네덜, 그 퉁퉁한 구석쟁이서 뺏허구 있다냐?/은장통이 오디루 갔던지 헛간 구석쟁이까장 다 뒤져두 뵈덜 않네유.

구석-텅이 ㅍ 구석-빼기 ㅎ ㄴ '구석쟁이'. ㅍ 죄진 늙차람 그 구석텅이에 백허서 왜 쥘그리구 있다니?

구수름 ㅍ 구수함 ㅎ ㄴ '구수-(甘味)+-럽(접사)+-음→구수러봄? 구수러움? 구수름'. 구수한 맛. 맛이 구수함. ㉠고소름. ㅍ 구수름이란 게 누릉개를 끓이기만 현다구 생기던 맛이 아니여.

구수름-허다 ㅍ 구수하다 ㅎ ㄴ 구수름한 맛이 나다. ㄴ '구수름'. ㅍ 자넬 보

니께 말여. 말 허닌 것허구 사람 대허
 닌 것이 참 구수롬허구면. 자넨 꼭 송님
 맞이라니께.

구술 ㉞ 구술 ㉟ 유리나 보석 따위로
 동그랗게 만든 물건. ㉠ 구술이 스 말이
 라두 피야 보배./구술 반지. 옥구술. 쇠
 구술.

구신 ㉞ 귀신(鬼神) ㉟ ①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나, 사람에게 화복
 을 내려 준다는 신령. ㉠ 요점같은 시상
 이 통세빠지게 웬 구신 타령이여?/신병
 이 걸려서니 죽네 사네 허터니 시방은
 당집을 채리구 구신을 뵈신다너면. ②
 어떤 일에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 ㉠ 그 늠이 생긴 건 그리두 지집
 질허닌던 구신이여.

구신-같다[-같다] ㉞ 귀신-같다(鬼
 神-) ㉟ 동작이나 추측이 정확하거나,
 어느 분야의 재주가 기막히게 뛰어나다
 ㉠ 등치는 째끄마두 주먹질 하나는 구신
 같은 늠이라니께.

구신-같이[-가치] ㉞ 귀신-같이(鬼
 神-) ㉟ 동작이나 추측이 정확하게. 재
 주가 기막히게 뛰어나게. ㉠ 거참, 어느
 새 구신같이 사려져 버렸네.

구여다 ㉞ 귀 : -하다(貴-) ㉟ '귀(貴)+
 허-+-다→귀허다/구허다)구여다(전설모음
 화/음운탈락). 구하기가 힘들 만큼 아주
 드물거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 귀허
 다. 기여다. ㉠ 구연 발걸음을 헛넌디 호

찌꿍을(헛걸음을) 허게 뵈이니 이를 위
 쩌냐?/그건 구여기가 하늘이 불따기라
 던디 위치기 구헌 겨?/구연 손님이 오
 셧이닝께 얼릉 들와서 질 디러라.

구적-거리다[-꺼-] ㉞ 구질다 ㉟(자)
 '긋-(惡天候)+-억(접사)+-거리다'. 비나
 눈이 많이 내려, 언짢고 불쾌할 정도로
 물기가 많다. ㉠ 갈날이 왜 이렇기 구적
 거린다?/그 구적거리닌 디를 뵈더러 쏘
 대니니?/맨날 비가 와싸니 기분까장 구
 적거리네.

구준-허다 ㉞ ㉟ '구준(不快, 虛飢)+허
 +-+다'. 먹은 것이 다 소화가 되어 뱃
 속이 허전하다. 배가 고프듯하다. ㉠ 출
 출허다. ㉠ 밥 먹은 지가 오라라 그런지
 응 속이 구준허네. 그렇기 구준허문 무
 수래두 까까?

구질-허다[-지러-] ㉞ 구질다 ㉟ ㉠
 '꾸질허다'의 원말. ㉠ 이 구질헌 날이
 오딜 행차허실래는 겨?

구창 ㉞ 귀 : 청 ㉟ ㉠ '기창'. ㉠ 죄웁
 닌 느이 할애비가 왜놈 순사헌터 잡혀
 가서니 꺾방맹이를 되게 맞엇잖어. 그
 러구선 구창이 터져서 멧 달 동안 귀
 서 진물을 줄줄 흘렸넌디, 그 뒤론 통
 소리를 못 알아 들엇어.

구척-대신[-때-] ㉞ 구척-대신(貴戚
 大臣) ㉟ ①<역사> 임금의 인척이 되
 는 높은 벼슬아치. ②<공정> 권력이나



큰 힘을 지닌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큰 죄를 진 늙이닝께 인전 구척 대신이 와두 쇠영 읍어./그놈이 구척대 신인디 느이가 오티기 당헌다능 겨?

구-허다¹ ㉠ 구-하다(求-) ㉡ (타) '활용형태: 구허게. 구허구. 구허니. 구허더탁. 구혀. 구혀서>구혀서. 구혀서니>구혀서니. 구허지. 구혔구나>구혔구나. 구혔구먼>구혔구먼. 구혔니>구혔니. 구혔다>구혔다. 구혔다니께>구혔다니께. 구혔으니>구혔으니. 구혔으믄>구혔으믄'. ①필요한 것을 찾아 얻다. 『워치기 살 집은 구헌 겨? 구허긴 구혔다년디 개갈나던 얇은 모냥이여./그 물건을 오치기 구혔다(구혔다)? ②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다. 『양보 점 허달라구 양해를 구허긴 구혔년디 씨끗두 앓더먼.

구-허다² ㉠ 구-하다(救-) ㉡ (타) '활용형태: 구허게. 구허구. 구허니. 구허더탁. 구혀. 구혀서>구혀서. 구혀서니>구혀서니. 구허지. 구혔구나>구혔구나. 구혔구먼>구혔구먼. 구혔니>구혔니. 구혔다>구혔다. 구혔다니께>구혔다니께. 구혔으니>구혔으니. 구혔으믄>구혔으믄'.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건져내다. 『물이 빠진 사람 구혀(구히) 주니께 보따리 내놓란다더니 가가 시방 허닌 짓이 톱 그쪽이여./목숨은 구허긴 구혔년디(구혔년디)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뵈다년면.

군디 ㉠ 군데 ㉡ (군데) '각기 떨어진 하나하나의 장소를 이르는 말. 『

인전 한 군디만 더 돌려보른 데./뻗 군디가 혈었년디 암체두 이잠이 기계를 개비하야졌어.

군-음식 ㉠ 군-음식(-飮食)/간식 ㉡ 끼니 외에 먹는, 주전부리나 밤참으로 먹는 음식. 『마실꾼덜 시장허졌다. 감자 통가리 가서 군음식이라점 점 내거라.

군근-허다[-고너-] ㉠ 군건-하다 ㉡ '군근허다>군건허다'.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다. 『아줌닌 군근헌 아덜이 들썩이나 옆이 있으니 월매나 좋대유?

군-시다[-씨-] ㉠ 군-세다 ㉡ (자) '군시다>군세다'. 몸이나 의지가 강하고 굳다. 『집 떠나든 심든 일이 많을 텅계 맴을 군시게 먹어야 혀./그 공장 들어오년 걸 막어낼라든 동네사람덜이 군시게 몽치년 수빠끼 읍어.

굴 : -내(屈-) ㉠ (굴) '굴(屈/濶坑)+내(臭). 방고래나 굴뚝 안에 들러붙은 그을음에서 나는 역한 냄새. 『방안이 굴내가 꼭 찬 걸 보닝께 암체두 방바닥이 금간 모양이여.

굴 : 내-나다(屈-) ㉠ (굴) '굴(屈/濶坑)+내(臭)+나-(出)+-다'. 방고래나 굴뚝 안에 들러붙은 그을음 냄새가 나다. 『아궁이다 군 감자서 굴내나년 걸 보닝께 암만히두 방고래가 맥헛내 비구면.

굵은-소금 ㉠ 굵은-소금 ㉡ 천일염 그대로의, 굵고 거친 소금. ㉢ 가는소금.

『**끓은소굽**은 기냥 쓰문 안 좋아. 갠수를 뗏달 받아내구 쓰야 **끓은소굽**이 쓴맛이 나덜 앓능 겨.

굽 : -불 [표] **굽** : -불 [표] **궂** '굽(접사)+불(火) →굽불' <굽불(변자음화)'. 음식을 하거나 쇠죽을 끓이는 따위의 목적이 아니라, 방을 데우기 위한 목적으로 때는 불. ㉠**굽불**. 『손님덜 온다님께 아랫방이 **굽불** 점 지퍼라./구연 낭굴 갖다 빈 방이 왜 **굽불**을 때능 겨?

긱 : 다 [긱따] [표] **긱** : 다 [긱(타)] (스불규칙) '활용 형태: 긱계[긱계], 긱구[긱꾸], 구니, 구녕계, 긱터락[긱터락], 귀서, 귀라'. 불로 무엇을 익히거나, 만들어내다. ㉡**긱대**[긱태]. ※'긱대[긱태]와 **긱대**[긱태]': 둘 모두 쓰임 빈도가 높으며,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 『밤을 **긱재**긱재. → 밤을 **긱재**[긱채]/감자를 **긱계**[긱계] → 감자를 **긱계**[긱계]./감자를 **긱넌다**더니[긱넌다더니]. → 감자를 **긱다**더니[긱다더니].

긱기다 [표] **긱기다** [표] (타) '긱기대[긱기대] <긱기다(변자음화)'. 끼니를 주지 않거나, 먹지 못하게 하다. 『암만 개보름 이라두 그렇지 새끼 뱀 가이를 쫓쫓 **긱기년** 뱀이 워뒸다?

긱뎡이 [표] **긱뎡이** [표] 『**긱뎡이**』.

긱뎡이 [표] **긱뎡이** [표] '긱뎡이 → **긱뎡이** > **긱뎡이**/**긱뎡이**. 엉뎡이의 아랫부분. 『다큰 지집애가 왜 이렇기 **긱뎡이**가 싸

다니?/일루 와서니 **긱뎡이** 점 붙이구 장판 쉬거라.

긱 : 다 [긱타] [표] **긱** : 다 [긱(타)] (규칙) '활용 형태: **긱계**[긱계], **긱구**[긱꾸], 구니, 구녕계, **긱터락**[긱터락], 귀서, 귀라'. 불로 무엇을 익히거나, 만들어내다. ㉢**긱다**. 구:다. 『이눔이 짐을 **긱다**가[긱타]기 워디루 내뺨다?/접착 감자는 짚 거녕계 **긱지**[긱치] 말구 냉겨 뒤.

긱-전 [-전] [표] **긱전** (關錢) [표] '긱즌/긱즌' <긱전'. ①정해진 날짜에 내야 할 것을 내지 못한 돈. ②(방언) 두레 일판이나 부역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그 대가로 내야 하는 쌀이나 돈. ㉣**긱즌**. 『동네 일두 안 보구 **긱전**두 못 내겠다 이겨여, 시방?

긱-즌 [표] **긱전** (關錢) [표] 『**긱전**』. 『두렛일두 안 보구 **긱즌**을 못 내겠다던 건 뉘 심뻐라?

긱 : 글 [기-] [표] **긱** : 결 (歸結) [표] '긱글>긱결'. 어떤 결말에 도달함, 또는 그 결말. 『그렇기 으논히서 나온 **긱글**이 뭐여? [긱(자) **긱글**-되다. **긱글**-허다. (타) **긱글**-시키다. 『꽃내 이장을 끌어내기루 **긱글**된 겨?

긱 : 글-점 [기-점] [표] **긱** : 결-점 (歸結點) [표] 여러 의견이 모여져 맺어진 귀착점. 『맨날 모여서니 뉘 **긱글**즘이 고작 그건감?



귀뚜리 ㉞ 귀뚜라미 ㉞〈동물〉 ‘표준어 화 과정: 귀뚜리>귀뚜래미>귀뚜라미’. 매뚜기목 귀뚜라미과의 곤충. ㉞귀뚜리. 기뚜리. 기뚜래미. ㉞ 또 같이 오고 해 저무넌구나. 찌릭찌릭 귀뚜리 소리에 장개 못간 저더러 총각 가슴장 무너진다네.

귀-똥[구이-/기-] ㉞ 귀-똥 ㉞ ‘귀(耳)+ㅅ+ㅍ-(開眼)+-이(접사)+-ㅁ(접사)→꺾똥[구인똥]>구똥/구똥/기똥/귀똥[구이똥]’. 상대방이 알아차리도록 넌지시 눈치를 줌. ㉞귀똥. 구똥. 구똥. ㉞ 그런 일이 있었으믄 진작이 귀똥이라두 해졌으야지. ㉞(자) 귀똥허다. ㉞ 나두 아까참이 안 거라 귀똥헐 새나 있었가니?/조조대기나 허넌 그 사람헐틴 귀똥헐 것두 읍어.

귀-똥[구이-/기-] ㉞ 귀-똥 ㉞ ‘귀똥’. ㉞ 귀똥을 헐다구 헐넌디 그 늠이 통 눈치를 못 채너면.

귀-뻐기 ㉞ 귀 ㉞ ‘꺾배기’.

귀 : -허다[구이-/기 : -] ㉞ 귀-하다 (貴-) ㉞ ‘귀(貴)+허-+-다→귀허다’. ㉞ ‘구역다’.

꺾-배기[-뻐-/꺾뻐-] ㉞ 귀 ㉞ ‘꺾배기’. ㉞ 저 늠이 귀를 잡구 늘어지넌 통이 내 꺾배기가 한 발은 늘어났당께.

꺾-갓[꺾갓/꺾갓] ㉞ 꺾-가 ㉞ ‘귀(耳)+ㅅ+ㅊ(邊)→꺾갓>꺾갓’. 귀의 바깥쪽. ㉞꺾갓[꺾갓]. 꺾갓[꺾갓]. 꺾갓[꺾갓].

㉞ 그 사람 목소리가 꺾갓이 생생헌디 말여, 시월 참 빠르구먼./스님님 말씀은 꺾갓이루 들으믄 안 디여.

꺾-배기[꺾뻐-] ㉞ 귀 ㉞ ‘귀(耳)+ㅅ+ㅈ(접사)→꺾배기>꺾배기/꺾배기(변자음화)’. 동물의 머리 양 옆에 붙어 소리를 인지하는 기관. ㉞꺾배기. 꺾배기. 꺾배기. ㉞ 올마나 춘지 백이 나갔다 꺾배기가 떨어지넌 중 알었어.

꺾-쑤시개 ㉞ 꺾이개 ㉞ 꺾이를 파내는 도구. ㉞ 이 냥반이 꺾쑤시개 옆이 두구 왜 성냥골루 꺾을 후빈다?

꺾 ㉞ 거요 (구문) ‘꺾(者)+이(서술격조사)+-어(종결어미)+유(보조사)→꺾이유>거유>가 줄어든 말. ‘해요체’에서, ①평서문-어떤 일의 예측이나, 미래의 의지를 나타냄. ㉞ 진지는 잘 자시구 있을 것이유.→진진 잘 자시구 있을 꺾./나두 시방 집이 갈 것이유.→나두 시방 집이 갈 꺾./지두 인저버텀은 죽으라 공부헐 꺾. ②의문문-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을 나타냄. ㉞ 진지를 잡술 것이유?→진 잡술 꺾?/니얏두 일 나갈 것이유?→얏두 일나갈 꺾?

꺾가 ㉞ 꺾기가 (구문) ‘꺾(其所)+가(主格)→꺾기가>가 줄어든 말. ㉞꺾가. ㉞ 꺾가 그리 좋던감? 꺾가 좋긴 개뿔이나 좋아?

꺾 : 꺾 ㉞ 꺾 : 꺾(擧國) ㉞ 온 나라, 또는 국민 전체.

그 : 국-적 ㉠ 거국-적(擧國的) ㉡ 나
라에서 온 국민이 일어서는, 또는 그런
것. ㉢ 『지왕 말 나온 짐이 우리 그국적
이루다가 토론히 보까? 그국적 좋아허
구 있네. 그개 모살(謀事-) 트자는 거지
그국적 토론이여?』

그-그러끼 ㉠ ㉡그그러께 ㉢ 『그러
끼의 앞선 해. 올해보다 세 해 앞선 해.
3년 전의 해. ㉣재재작년(再再昨年). 작년
그러끼(昨年). ㉤ 『그 사람이 떠난 제가 그
그러끼닝께 발써 삼년 전 일이구먼.』

-그나 ㉠ -거나 ㉡(연결) ①'-그나, -
그나' 꼴로 쓰여, 둘 이상의 내용에서
어느 것이든 가리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어미. ㉢ 『허그나(거나) 말그나(거나) 내
비뒤라./떡그나 굶그나 맘대루 허라구
히여. ②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
를 나란히 벌여놓을 때 쓰는 어미. ㉣-
거나. ※'-그나'와 '-거나': 발음상 변별력
을 자니지 않음. ㉤ 『비가 오그나 눈이 오
그나 허겼네./여기선 뛰그나 떠들그나
허믄 안 된다.』

그나-따나 ㉠ 그나-저나 ㉡ 『그렇거
나 말았거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은 그렇다 치고』의 뜻으로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릴 때 쓰는 말. ㉢그나저나. 이
나따나. ㉣ 『그나따나 난 인저 클났어./그
나따나 이 녀석은 심부름 보낸 지가 윈
젠디 강감무소식이랴?』

그네 ㉠ 벼훅이/도급기(稻扱機) ㉡<농

업> 벼 이삭을 하나씩 훅어내는데 쓰는
농기구. 젓가락처럼 가늘고 긴 막대기
두 개로 집게처럼 만든다. ㉢근네. ※'그
네'와 '훅태': 벼이삭을 훅어내는 방식. 꼬챙
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훅태와 같지만,
충남의 '그네'는 젓가락만한 두 개의 막대기
를 손에 끼고 벼 낱알을 훅어내는, 도급기
(稻扱機)를 이르는 말이다. ㉣ 『베바심이 쪼
나믄 논바다이 베이삭이 더러 떨어져
있잖은감? 그걸 한 주먹씩 주서다가 그
네루 하나씩 훅트년 거여. 젊은 사람덜
은 안 쓰구 늙은이덜이 쓰년 게 그네지.
베 한 주먹두 이전인 참 구했잖어.』

그따 ㉠ 거기에다가 (구문) '그기/거기
(其所)+이다가(조사)→그기다가/거기다
가>그따가/거따가'가 줄어든 말. ㉢ 『삼
일랑 그따 두구 가./그따 던져두믄 다
알어서니 내가 치께.』

그-따가 ㉠ 거기에다가 (구문) 『그
따. ㉢ 『그따가 됴을 다 내베리믄 입작박
은 위쩡다?』

그러끼 ㉠ 그러께 ㉡ 『그렇고→그러끼.』
지난해에 앞선 해. ㉢지지난해. 재작년
(再昨年). ㉣ 『그러닝께 그 사고가 난 게
작년인가? 아니 그러끼구먼. 오쨌던 그
일루다가 동네가 벌켜 뒤집혔지.』

그 : 라-매다 ㉠ 걸 : 어 매다 ㉡(타) '글
-掛)+-어+매-繫)+-다'. 끈의 두 끝을
잡아당겨 걸어 매다. ㉢ 『송아치 가지구
장냥치덜 말구 얼릉 말뚝이다 그러매』

여./장정이 그개짓 걸 하나 그러매지 못허구 뵈힌다?

그루² ㅍ 그것으로 (구문) '그것+이루→그걸루'가 줄어든 형태. 그것으로. ㉠그걸루. ㅍ 그리두 그루 일 다 끝냈유.(그래도 그것으로 일을 다 끝냈어요.)/그루 땃을 헐라구?(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루다¹ ㅍ 그것으로다가 (구문) '그것 이루다가'가 줄어든 형태. ㅍ 그루다 땃을 헐라는가?(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가?)/그루다 땅을 파면 쓰겠구먼.(그것으로다가 땅을 파면 되겠구먼.) 그루단 암 것두 안 되니께 목괭이루 개져와.(그것으로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큰 괭이를 가져 와.)

그루다² ㅍ 거기로다가 (구문) '그리루다가→글루루다가'가 줄어든 형태. ㅍ 물건을 그루다 냉겨뼈렀다넌디. 그러? 클 낫구먼. 그 물건은 그루다 냉겨주면 안 되넌 것인디.

그리끼다 ㅍ 거리끼다 ㉠(자) '거리끼다/그리끼다?'그리끼다. ①순조롭지 못하게 방해가 되다. ㅍ 즉은 일 하나 허넌 디 웬 그리끼는 게 이렇기 많언 겨? ②꺼림하거나 어색하여 마음에 걸리다. ㅍ 그 냥반을 기냥 보낸 게 맘이 그리끼네.

그리킴 ㅍ 거리킴 ㉠ 어떤 일에 방해가 되거나, 어색하여 마음에 걸림. ㅍ 그리킴두 읍이 그런 짓을 허다니.

그리킴-읏다[-음따] ㅍ 거리킴-읏다 ㉠ '그리킴읏다'.

그리킴-읏다[-음따] ㅍ 거리킴-읏다 ㉠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거나,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다. ㅍ 내야 깨갓허 닝께 하나두 그리킴읏어.

그리킴-읏이[-음씨] ㅍ 거리킴-읏이 ㉠ 거리끼는 것이 없이.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이. ㅍ 짱깜헌 밤중이 생여집 문을 그리킴읏이 열어췌했다.

그믐 ㅍ 그믐 ㉠ 한 달 가운데 달이 가장 기운 때, 또는 바로 그날. 음력에서 그 달의 마지막 날. ㅍ 그믐이 니얼모린 디 베랑 어둠덜 앓구먼. 날이 맑으닝께 벨두 많구./오늘이 순달 그믐인디 이집 인 오째 찾아오넌 사람이 읏다?

그믐-끼 ㅍ 그믐-께 ㉠ '그믐(晦)+끼(時)→그믐께)그믐끼(고모음화)'. 그믐을 사이에 둔 무렵. 음력에서 그 달의 마지막 즈음. ㉠그믐때. ㅍ 이달 그믐끼나 되야 풍갑을 준다닝께 점 지둘르야 쓰겠어.

그믐-날 ㅍ 그믐-날 ㉠ 음력에서, 그 달의 마지막 날. ㉠그믐. ㅍ 순달 그믐날 슬 쇠러 온다다가 교통 사골 당혔다너 먼./이번 그믐날은 못 오구, 내달 초승끼나 되야 온다너면.

그믐-달[-팔] ㅍ 그믐-달 ㉠ 음력에서, 그달의 마지막에 뜨는 달. 매달 26~7일경 새벽, 동쪽에 가늘게 잠깐 뜨는

달. ㉞초승달. ㉟그믐달 볼 일 있남? 이 새벽버텀 슬치게?

그믐-때 ㉟ 그믐-께 ㉟ ㉟ '그믐끼'. ㉟ 그 일은 내달 그믐때나 되야 시작한다.

그믐-밤 [-뻘] ㉟ 그믐-밤 ㉟ 음력에 서, 그 달의 마지막 날. ㉟ 이 사람이, 말이 되닌 소릴 혀. 시방 자네가 현 말은 그믐밤이 달귀경 가자년 소리허구 같은 거라닝께.

그 : 사¹ ㉟ 거 : 사(巨事) ㉟ 거창하게 큰 일. '큰일'로 순화. ㉟ 그사를 모의허년 술자리에 나를 빼노른 섭허지.

그 : 사² ㉟ 거 : 사(擧事) ㉟ 사회적 의의가 있는 일을 일으키는 것. ㉟ 그사를 일키다.

그 : 세 ㉟ 거 : 세(去勢) ㉟ ㉟ '그시'.

그 : 세-마 ㉟ 거 : 세-마(去勢馬) ㉟ ㉟ '그시마'.

그세미 ㉟ ㉟ 도둑나방의 애벌레 ㉟ '그시미'. ㉟ 배차순이 죽은 걸 모닝께 그세미가 있닌 모냥이다. 그세미는 두어 마리만 돌어댕겨두 배차 농사 망치닝께 싸게 잡어라.

그 : 시 ㉟ 거 : 세(去勢) ㉟ '그세→그시(전설모음화)'. ①동물의 생식 기능을 잃게 함. 수컷의 불알 바르기, 또는 암컷의 난소를 없애기. ㉟그세. 불알발름. 불알발르기. ㉟그시를 허털 앓닌 수도야지라 노린내가 나닌구면. ②저항이나 반

대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없앴. ㉟(자)그시-되다. (타) 그시-허다.

그 : 시-마 ㉟ 거 : 세-마(去勢馬) ㉟ 생식기능을 잃은 수말. ㉟그세마.

그시미 ㉟ ㉟ 도둑나방의 애벌레 ㉟ '그시미>그세미>거세미'. 도둑나방이나 거세미나방의 애벌레. 고추나 채소, 화초 따위의 어린 줄기를 잘라먹어 죽게 하는, 회녹색의 벌레. ㉟그세미. ㉟그시미 약을 안 쳤더니 이놈은 그시미덜이 꼬춤모가지들 다 잘라났어.

그저-사 ㉟ 그제-서 ㉟ ㉟ '그저서'. ㉟그저사 와서니 달래몬 누가 주기는 현대남?

그저-서 ㉟ 그제-서 ㉟ '그저(其時)+서(조사)'. 그때에야 비로소. 그때에 이르러서야. 그때에 이르러서야 막. ㉟그저사. 그제사. 그지서. ㉟넘털 밥 다 먹구나닝께 그저서 나타나설래미 밥달라구 허더라닝께.

그제-사 ㉟ 그제-서 ㉟ ㉟ '그저서'.

그지² ㉟ 그렇지 (구문) '그러히/그르히-(然/肯定)+-지→그러히지/그르히지' 그렇지/그렇지가 줄어든 말로, 의문문에서는 '확인', 평서문에서는 '긍정'을 뜻한다. ㉟그지(確認)? 내 말이 맞지? 암, 그지(肯定). 니 말이 딱 맞닌구면./삿내끼는 이릉기 꼬닌 게 맞잖어. 그지(確認)?

그지-서 ㉟ 그제-서 ㉟ ㉟ '그저서'.

그 : 참 ㉠ 거 : 참 ㉡ '그것참'의 준말. 귀찮거나, 어이없거나 놀랐을 때 내뱉는 말. ㉢ **그참**, 사람이 왜 그러? 약속을 했으면 지키얌 것 아냐?/㉣**그참**, 희안하게두 일이 꼬였네 그러./㉤**그참**, 잘 났구먼.

극정[-정] ㉠ 걱정 ㉡ 무슨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꾸지람. ㉢**극정**. ㉣너 때민이 느이 아버지가 **극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여. 그러닝께 느이 아버지한테 **극정** 안 듣게 혀.

극정-까머리[-정까-] ㉠ 걱정-가마리 ㉡ '걱정가머리'.

근 : 강 ㉠ 건 : 강(健康) ㉡ 몸이 탈 없이 튼튼한 것. 또는 몸이 튼튼한 상태. ㉢(자) **근강-허다**. ㉣애기가 토실토실헌 게 아주 **근강허**구나./**근강**은 **근강혈** 때 챙기야 허년 겨.

근 : 강-검 : 진 ㉠ 건 : 강-검 : 진(健康檢診) ㉡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그렇기 아프신디 **근강검진**을 왜 안헐라구 허신대유?

근 : 강-뵈[-뵈] ㉠ 건 : 강-법(健康法) ㉡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방법. ㉢너머 탐욕허덜 말어. 욕심을 버리년 게 **근강뵈**의 지름질이라.

근 : 강-식 ㉠ 건 : 강-식(健康食) ㉡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진 음식. ㉢인전 먹구덜 살만허서 웰빙식이다 **근강식**이다 좋은 음식덜만 찾년다.

근 : 강-진 : 단 ㉠ 건 : 강-진 : 단(健康診斷) ㉡(의학)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몸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근강진단**을 받으닝께 간딩이가 뵈다년디, 인전 술두 끊으야 혈 모양이여.

근근-허다[-그너-] ㉠ 매우 어렵다 ㉡ '근근(僅僅)+허-(爲)+-다'. 겨우겨우 버티는 상태에 있다. ㉢그 낭반 행편이 응 아니라구 허더면 요짐은 워똥던가? 가냥 **근근허**게 버텨기던구먼유.

근근-히[-그니] ㉠ 근근-이(僅僅-) ㉡ '근근(僅僅)+허-(爲)+-이(접사)'. 겨우겨우, 아주 힘들게. ㉢**근근히** 빚을 가프던 헐년디 앞일이 더 **극정**이유.

근궁 ㉠ 근경(近景) ㉡ 가까이 보이는 풍경, 또는 가까이서 바라다보는 풍경. ㉢원궁(遠景). ㉣**근궁**이 좋으나마나 취죽졌년디 뭘 소영이라?

근너 ㉠ 건 : 너 ㉡ '근너-(渡)+-어-근너>건너'. 일정한 공간을 지난 맞은 편, 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지닌 시간. ㉢저 **근너**이는 가본 적이 읍년디, 느인 가본 겨?/함부루다 입 놀리덜 말어. 한 입 **근너** 두 입이구, 두 입 **근너** 시 입인 겨./이틀 **근너** 찾아오년 빗쟁이덜 땀이 지가 똑 죽졌유.

-근마는 ㉠ -건마는 ㉡(연결) 앞 구절의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거나 추측하면서 뒤에 오는 구절과 대립되는 뜻으로 연결하는 어미. ㉢-근만. 『내가 그렇게 일렸**근마는** 너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참 똑똑한 **손상님이근마는** 왜 애덜헌틴 인기가 읍넌지 무르겼어.

-근만 ㉠ -건만 ㉡(연결) ㉢ ‘-근마는’의 준말. 『그 냥반은 먹넌 건 잘 먹**근만** 살을 안 찌데.

근 : 망-증[-쯙] ㉠ 건 : 망-증(健忘症) ㉡ ㉢ ‘근망징’. 『젊은 놨이 시방버텀 **근망증**이 심허믄 오티길 겨?

근 : 망-징[-쯙] ㉠ 건 : 망-증(健忘症) ㉡ ‘표준어화 과정: 근망징>근망중>건망중’. ①<의학> 경험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느 시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 ②경험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증세. 『저 노인네는 요새 **깜박징**이 심허져서 질두 못 찾넌다. 참내, 그 **웅감님** **깜박징**은 **근망징**이 아니라 치매유.

근 : 설 ㉠ 건 : 설(建設) ㉡ 건물, 시설 따위를 세우거나, 조직 따위를 새로 세우는 일. ㉢근슬. 『아파트 **근설**. 민주 사회의 **근설**. ㉣(타) 근 : 설-허다.

근 : 설-비 ㉠ 건 : 설-비(建設費) ㉡ 건설하는데 쓰이는 경비. 『그 **엄청헌** **근설비**를 오티기 **감당헐**라구 그러능 겨?

근 : 설-업 ㉠ 건 : 설-업(建設業) ㉡ 토목, 건축과 관련된 일을 맡아 하는 영업. ㉢근슬읍.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구 온 나라이 분양이 안 되서니 **근설읍**이 바닥이루 떨어졌다.

근 : 설업-자[-짜] ㉠ 건 : 설업-자(建設業者) ㉡ 토목이나 건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근슬읍자. 『**근설** 경기가 살아나질 않히서 **근설읍자**덜이 죽을 맛이라.

근 : 슬 ㉠ 건 : 설(建設) ㉡ ㉢ ‘근설’.

근 : 슬-비 ㉠ 건 : 설-비(建設費) ㉡ ㉢ ‘근설비’.

근 : 슬-읍 ㉠ 건 : 설-업(建設業) ㉡ ㉢ ‘근슬읍’.

근 : 슬읍-자[-짜] ㉠ 건 : 설업-자(建設業者) ㉡ ㉢ ‘근설업자’.

글력 ㉠ 힘/근력(筋力) ㉡ 근육이 지니는 힘, 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 ※‘근력(筋力)→글력’. 자동동화에 의해 변이된 소리가 본래 단어처럼 인식되어 굳어진 것. 『**글력** 뿔다 오따 **슬라구려**? **글력**은 이럴 때 쓰라구 생긴 거란 말여. **글력**이나마나 **짱일** **비력질**허너라 당체 **글력**이 오디루 다 내뻘유.

글어-네리다 ㉠ **걸**어서 내리다 ㉡ ‘글-(縣)+-어+내리-(下)+-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도구로 걸어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다. ㉢**걸어내리다**. 『**지병**이 올



러 가서 영 점 **글어네려라**./그 잡풀을
뒤다라 **글어네리**는 겨?

급쟁이[-쟁-] ㉸ 급개 ㉸ '급징이'.

급징이[극쟁-] ㉸ 쟁기/쟁이 ㉸ '급-(抓)
+-쟁이(접사)→급쟁이>급징이'. ①주로
밭을 갈 때 쓰는, 보습에 벗이 달려있
지 않은 단조로운 구조의 쟁기. ㉸급쟁
이. ㉸쟁기. ㉸산밭이라 **급징이**루 대충 같
어 었었어. ②흙을 긁어모으는데 쓰는,
끝날 부분이 삼각형으로 넓적하게 생긴
쟁이. ㉸급쟁이. ㉸흙을 긁던 딴 **급징**일
쓰야지, 쟁이루 **급**으믄 심들어서 오쩌냐?

금: 법[-뵵] ㉸ 검: 법(劍法) ㉸ 검
술에서, 칼을 쓰는 법. ㉸**금법**을 익히
다./**금법**이 능통허다.

금: 뵵[-뵵] ㉸ 검: 법(劍法) ㉸ '금법'.

금: 시 ㉸ 검: 시(檢視) ㉸ ①사실을
조사함. ②시력의 좋고 나쁨을 조사함.
㉸**눈앞이 침침**허서니 안과이 가서 **금**시
란 걸 했넌디 난시라구 허매 앵경을 쓰
랴. ㉸(자)(타) **금**시-허다.

금: 시 ㉸ 검: 시(檢屍) ㉸<법률> 변
사체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신을 검
사하는 일. ㉸(자)(타) **금**시-허다.

금: 시-관 ㉸ 검: 시-관(檢視官) ㉸
'**금**시관'검시관'. 검시를 하는 공무원.

금: 역 ㉸ 검: 역(檢疫) ㉸<법률> '금

속>금역'. 전염병이나 해충 따위가 확산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조
치. ㉸**신종플루**를 막기 우히서 외국갔
다 오년 사람덜은 공항서 다 **금**역을 현
다. ㉸(타) **금**역-허다.

금: 역-법 ㉸ 검: 역-법(檢疫法) ㉸
<법률> 국내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역 절차와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우리나라
이서 **금**역법이 시행된 것은 1954는 이
후이다.

금: 역-소[-소] ㉸ 검: 역-소(檢疫
所) ㉸ 항구나 공항에 마련된 공공검역
기관.

금: 자리 ㉸ 거: 머리 ㉸ '금저리'.
㉸**논바당**이 맨 **금**자리 촌지라 미서워서
니 **논**일을 못 허졌어.

금: 침 ㉸ 검: 침(檢針) ㉸ 전기, 수
도, 가스 따위의 사용량을 알기 위하여
계량기의 숫자를 검사하는 일. ㉸**검침**.
㉸**지난 달**이 수도 **금**침을 잘못허서 물
갑이[물가베] 너머 나왔어. ㉸(타) **금**침
-허다. ㉸**넬** 른사무소 직원이 수도기
량기를 **금**침허러 온다구 했넌디.

금: 침-원 ㉸ 검: 침-원(檢針員) ㉸
검침하는 사람. ㉸**검침원**. ㉸**금**침이 잘
못됐다더니 **금**침원을 다시 불른 모양이
구먼.

금: 토 ㉸ 검: 토(檢討) ㉸ 어떤 사실

이나 내용을 이모저모 따지거나 판단하는 것. 『예당즈수지의 갑문을 높이고 즈수량을 키우던 문제를 군이서 **금토** 중이라. **툰(타)** 금토-허다. 『증부(政府)가 공공요금을 올려름이 올리는 거를 **금토한다**더니 왜 올리는 거만 있구 내리는 건 읍녕 겨?

금:표 **툰** 검:표(檢票) **툰**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따위를 검사하는 것. **툰(타)** 금표-허다. 『차 떠난다구 **금표허**더니 이 사람은 오딜 간 겨?

금-짝 **툰** 그-쪽 **툰** '그(其)+짝?(隻/方)→금짝>그짝'. 이쪽에 마주하고 있는, 듣는 이에게 가까운 쪽. **툰**그짝. 『**금짝**이 아무리 그리두 이번인 내 사증이 곤란허 다닐께. 이번 일은 어려워두 **금짝**이서 해글히 보더락 혀.

금께 **툰** 그러니까 **툰** '그러닐께'의 준말.

기급¹ **툰** 기겁(氣怯) **툰** 갑자기 놀라고 무서워 숨이 막힐 듯함. **툰**기겁. 『애가 **기급**을 허구 우넌디 월매나 놀랬넌지 몰려. **툰(자)** 기급-허다. 『저눔이 어둔 디서 갑자기 터나오넌 통이 내 **기급** 허구 주잔졌당께.

기:급² **툰** 계:급(階級) **툰** ①<사회> 신분이나 직업 따위로 계층이 나누어진 집단. ②어느 조직 내에서의 지위나 계

층. 『자네 아덜 승진혔다매? 그래, **기급**이 뭐여? 이, **금**장이었넌디 **금**사가 뵘어. 쯤 있으믄 **지스장**이 될 거라너 먼./느이 아버진 육이오 때 **기급**이 일 등중사였어. **즌장**인 안 나가구 부산이 있던 임시 수도사령부서 근무했어.

기:급-장[-짱] **툰** 계:급-장(階級章) **툰** 군대나 경찰 조직에서, 어깨나 모자에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 『작대기두 **기급장**이라구 달구 멍기남? 그리두 재차람 밥풀메긴 되야지.

기:끗[-끝] **툰** 기:끗 **툰** 힘이나 정도가 미치는 데까지. 『**기끗** 일러준 걸 하루도 못 되서 다 까먹나?/기끗 헛 것 이란 게 친구덜 못 살게 군 겨여?

기:끗-허다[-끄터-] **툰** **툰(타)** 힘이 미치는 데까지 애쓰다. 『**기끗허서** 예까장 왔넌디 기냥 들어가란 말이여?/네 심으루는 **기끗허**두 택두 읍단 말여.

기:끗-히야[-끄티-] **툰** 기:껏-해야 **툰** ①아무리 한다고 해야. 『지가 공불 헨다구는 허넌디 **기끗히야** 가운데 토막이나 갈런지두 몰류. ②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기끗히야** 쌀 가마나 될라나?

기냥 **툰** 그냥 **툰** '그/기(其)+**니**(참가음)+양(樣)→그냥/기냥/가냥.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툰**그냥. 가냥. 기양. 강. 『**기냥** 내비뒤. 아녀, 이번두

기냥 냉길 수는 읊능 겨.

기 : 단 [단 계 : 단(階段)] [단] 높은 곳이 나 낮은 곳으로 걸어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턱. [청계. 칭칭대. 층층대. 칭칭다리. 층층다리. ¶기단이 얼어붙어 재를 뿌려던디두 미끼럽구면./기단이 흠허닝게 발 조심혀.

기 : 락 [락 계 : 락(計略)] [락]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피나 방편. ¶어런 일일수루기 들어가란 말이 있잖여. 무작중 달이밀 게 아니구 이럴 땐 기락을 쓰야 허능 겨.

기레기 [기레기 계 : 기레기(동물)] [기레기] 가을에 왔다가 겨울을 지내고 떠나가는, 오릿과의 철새. ¶기레기 울고 간지 오라여. 떠난 사람헌티 미련두덜 말구 얼릉 증신채려.

기 : 모 [모 계 : 모(繼母)] [모] '기모'계모. 아버지가 재혼하여 생긴 어머니. [오붓에미. 오붓어매. [친어매. 친에미. ¶그게 기몬디 자식을 못 낳어. 그리서 가를 친자석버덤두 더 구엽게 질렀지.

기 : 부 [부 계 : 부(繼父)] [부] '기부'계부. 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 [오붓애비. 오붓아배. [친아배. 친애비. ¶어려선 기부랑 하냥 살었넌디 커서넌 나가 살어. 승도 친아배 것 따구 여긴 오두 않혀.

기 : 산-법 [-법] [산-법 계 : 산-법(計算法)]

[산-법] 셈을 하는 방법. [기산법. ¶기산법 두 물르던 냥반이 뭇 아년 책을 헌다?

기 : 산-뵈 [-뵈] [산-뵈 계 : 산-뵈(計算法)] [산-뵈] '기산법'.

기 : 산-서 [산-서 계 : 산-서(計算書)] [산-서] 물건 값이나, 셈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 ¶먹은 거두 읊넌디 왜 이려? 이거 바가지 기산서 아녀?

기 : 산-적 [산-적 계 : 산-적(計略)] [산-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또는 그런 것. ¶일이란 게 기산적이루만 되닝감?/저 냥반은 똑똑허긴 헌디 너머 기산적이라 정이 안가.

기 : 수 [수 계 : 수(季嫂)] [수] '지:수'. ¶이런 일은 기수가 뭐라 히두 뇌가 참으야 히여.

기 : 수-씨 [수-씨 계 : 수-씨(季嫂氏)] [수-씨] '지:수'. ¶동상이 나스넌 건 알겠넌디 기수씨할라 왜 그런다?

기 : 약 [약 계 : 약(契約)] [약]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가 해야 할 일을 꼭 지키기로 한 약속. ¶밭써 기약 쫓냈유. [타] 기 : 약-허다. (자) 기 : 약-되다. ¶그 땅은 다른 사람허구 기약했응게 더 찾아오구 자시구 헐 것두 읊유./그러기루 기약된 일을 인저 와서 왜 따지능 겨?

기 : 약-금 [-금] [약-금 계 : 약-금(契約金)] [약-금]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

는 돈. ¶기약금은 준 겨? 기약금은 안 줬 구유. 널모리 따루 만나 상의허기루 했유.

기 : 약-서[-써] ㉞ 계 : 약-서(契約書) ㉞ '기: 약스)기: 약서'. 계약 내용을 기록한 서류. ㉞기약스. ¶기약서는 안 써도 되겠는가? 우덜 사이에 뭇 기약서여?

기 : 약-스[-쓰] ㉞ 계 : 약-서(契約書) ㉞ '기약서'. ¶기약스두 받아놔 구 인전 다 꾀났유.

기 : 약-직[-찍] ㉞ 계 : 약-직(契約職) ㉞ 임금이나 기간을 약정하고, 그 기간 안에서만 고용이 이루어지는 직무. ㉞비중규직. ㉞중규직. ¶기약직이긴 허지만 한두 해 지나면 중규직이루 올려준다.

기양² ㉞ 그냥 ㉞ '기양'. ¶내가 저 늬을 기양 두나 보라.

기여다 ㉞ 귀-하다(貴-) ㉞ '구여다'. ¶그 냥반은 기연 집안서 땀어두 (태어났어도) 사람 차별헐 중 물어.

기 : 열 ㉞ 계 : 열(系列) ㉞ 서로 관련이 되어 이어지는 갈래나 조직. ㉞기통(系統). ¶자석늬이 인문 기열을 슨택했넌디. 그짜이 추직허기가 어렵다너면.

기 : 열-사[-싸] ㉞ 계 : 열-사(系列社) ㉞〈경제〉계통이 비슷하여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대기업에 종속된 회사. ¶그 마트라넌 게 대기업

의 기열산디 동네 슈퍼가 당헐 재간 있겠남?

기 : 열-화 ㉞ 계 : 열-화(系列化) ㉞〈경제〉①기업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 ¶대기업이 기열화를 추진허다. ②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계통이 됨. ¶농업 생산과 판매망을 기열화허다.

기왕-이른 ㉞ 기왕-이면(既往-) ㉞ '지왕이른'.

기우-지 ㉞ 기우-제(祈雨祭) ㉞〈역사〉'표준어화 과정: 기우지)기우제'. 예전,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 고을에서 비가 내리도록 빌던 제사. ㉞기우제. ¶이태를 하 비가 앓오닝게 올허는 군수가 기우지까장 지냈다너면.

기창 ㉞ 귀 : 청 ㉞ '귀[구어](耳)+청(膜)→구창/기창'. 〈의학〉귓구멍 속에 있는 동그란 막. ㉞구창. 구청. ¶이늬아, 살살 점 소리질러. 귀먹쟁이 늬이 할매 기창 떨어지겠다.

기 : 피-나무 ㉞ 초피-나무(椒皮-) ㉞ '기피낭구'. ¶요새는 기피나무두 구혀. 숲이 우거지니께 기피나무는 봐두 앓넌다닝게.

기 : 피-낭구 ㉞ 초피-나무(椒皮-) ㉞〈식물〉'기: 피낭구)기: 피나무'. 우리나라 남중부 지방에서 자라는 운향과에 속한 낙엽 관목. ㉞기피나무. ¶산이 가서 기

피낭구 가장이 땀만 짜와라. 기피낭구는 뭇덜라구유? 요샐 개우장서 물게기 점 잡을라구려.

그레 ㉠ 겨레 ㉡ '결/결[글/글](編)+-에 (접사)→그레(?)그레'. 혈연관계로 이어진, 또는 혈통상으로 같은 민족. ㉢그레불이. ㉣남이나 북이나 똑 같은 한 **그렌디** 오 찌다가 즈장까장 허게 된넌지 몰르겠어.

그레-불이[-부치] ㉠ 겨레-불이 ㉡ 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온 사람. ㉢그레.

그렛-말[-렌-] ㉠ 겨레-말 ㉡ 한 민족이 함께 쓰는 말. ㉣**그렛말**을 잇으면 **그레중신두** 날러가녕 겨.

그루기 ㉠ 겨루기 ㉡ 승부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 다투는 일. ㉢저루기. ㉣나랑 **그루기** 한 번 혈 탕가? 심**그루기**라믄 몰러두 장기는 관돌 튜.

그루다 ㉠ 겨루다 ㉡(자)(타) '겨루다 [그루다]→그루다'저루다(구개음화). 승부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 다투다. ㉢그루다. ㉣**그룰라**믄 너버더 심이 썬 늠덜허구 **그루야지**. 허구헌 날 성허구 심을 **그루야** 허넌 니 동상 월매나 괴롭겠냐?

그름-대[-때] ㉠ 겨름-대 ㉡ ㉢'저름대'.

그자 ㉠ 겨자 ㉡ <식물> 겨자과에 속한 풀의 이름. 또는 그 씨로 만든 양념. ㉣맵구 쏘넌 **그자**를 오티기 먹넌다?

그자-씨 ㉠ 겨자-씨 ㉡ <식물> 겨자의 씨.

그жат-지름[-잡씨-] ㉠ 겨자-기름 ㉡ 겨자씨나 갖의 씨로 짠 기름.

극 ㉠ 격(格) ㉡ 주변의 형편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식이나, 분수와 품위. ㉣야 인마, 너랑은 **극**이 안 맞어서니 안 놀 겨./금강산두 식후경이구 배가 볼르야 도덕두 생긴땀어. 그냥께 배고픈 나헌티 **극** 따지덜 말어.

극감[-감] ㉠ 격감(激減) ㉡ '극감'격감. 수량이 한 순간에 줄어들음. ㉢격감. ㉣(자) **극감**-허다. **극감**-되다. ㉣시골 인구가 **극감**허서니 인전 환감이 동네 층년이유./이전인 승년이루 꼬추가 **극감**허문 꼬추금이 금갑뿔넌디 시방은 중국서 달여오잖유. 꼬추금 베랑 아뉴.

극납-고[공-꼬] ㉠ 격납-고(格納庫) ㉡ 비행기를 넣어두거나 정비하는 건물. ㉣그 낭반이 왜정 때 징용가서니 **극납고** 짓넌디 있었다넌디 죽덜 앓구 용케 살아왔어.

극년 ㉠ 격년(隔年) ㉡ ㉢'극는'.

극는 ㉠ 격년(隔年) ㉡ '극는'극년. 한 해씩 겨름. ㉢극년. ㉣회에 돈이 부족허서니 증로(敬老) 잔질 **극는**이루 치르기로 험다너면.

극노[공-] ㉠ 격노(激怒) ㉡ '극노'격노. 몹시 화를 내며 노여워함. ㉣(자)

극노하다. 『난 있던 대루만 얘기헌겨. 못난 자네 자석 못 났다구 헛넌디 그렇기 **극분허구** 그럴 필요없잖어?

극돌[-뜰] ㉠ 격돌(激突) ㉡ '극돌'격돌. 매우 세게 부딪힘. ㉢(자) 극돌하다. 『이번 글승즌(決勝戰)인 충청도찌리 붙넌다. 공주고랑 북일고가 **극돌헌** 다녀면.

극동[-똥] ㉠ 격동(激動) ㉡ '극동'격동. 정세나 감정 따위가 세차게 움직임. ㉢(자) 극동-하다.

극동-기[-똥-] ㉠ 격동-기(激動期) ㉡ '극동기'격동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

극려[공녀] ㉠ 격려(激勵) ㉡ '극려'경려. 힘을 북돋아 줌. 『그럼 못써. **극려**는 못히 줄 망정 애 기를 그렇기 직이른 쓰남? ㉢(자) 극려-하다.

극려-문[공녀-] ㉠ 격려-문(激勵文) ㉡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쓴 글.

극려-사[공녀-] ㉠ 격려-사(激勵辭) ㉡ 의식에서, 힘이 솟도록 전하는 말. 『위디 가두 콧방구나 끼넌 낭반덜 **극려사**란 건 지루헌 뱀이여.

극랑[공낭] ㉠ 격랑(激浪) ㉡ '극랑'격랑. 거친 물결에서, 모진 시련을 비유.

극렬-허다[공녀러-] ㉠ 격렬-하다(激烈-) ㉡ '극렬허다'격렬허다. 거칠고

세차다. 『회허넌디 서루덜 말쌘 한 번 **극렬허더면**. 근디 글론(法論)난 것은 하나두 읍어.

극론[공논] ㉠ 격론(激論) ㉡ '극론'격론. 세차고 사나운 논쟁. 『국회라넌디서니 허구헌 날 **극론**만 허문 뉘더. 뉘 하나 개갈나넌 게 읍넌디. ㉢(자) 극론-하다.

극류[공뉴] ㉠ 격류(激流) ㉡ ①세차게 흐르는 물줄기. ②세상이 변화하는 세찬 기세.

극리[공니] ㉠ 격리(隔離) ㉡ 서로 통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사이를 떼어놓음. ㉢(자) 극리-되다. ㉣(타) 극리-하다. 극리-시키다. 『붕원일 갈 짓은 읍어. 장질부사라구 붕원이서 **극리시켜** 뉘이닝께 메칠 지나문 퇴원헐겨.

극멸[공-] ㉠ 격멸(擊滅) ㉡ '표준어화과정: 극틀>극멸'격멸. 적 따위를 쳐서 없앴. ㉢(자) 극멸-되다. ㉣(타) 극멸-하다.

극문[공-] ㉠ 격문(檄文) ㉡ '극문'격문. 널리 알려 여러 사람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쓴 글. 『시상이 어수선헐라믄 **극문**버텨뉘명이는겨. 동네마두 저흔수막인가 먼가 점 봐. 저렇기 울긋불긋헌 **극문**이 후날리넌 건 다 그 못뉘뉘쓰레기장 때민인겨여.

극발[극빨] ㉠ 격발(擊發) ㉡ '극발'격발. 방아쇠를 당겨 탄환을 쏘. ㉢(자) 극발-되다. ㉣(타) 극발-허다.

극변-허다[-뵤-] ㉠ 극변-하다(劇變-) ㉡(자)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다. ㉢ 시상이 **극분허넌디** 내가 가만 있구 싶다구 있어 지남?

극분[-뵤] ㉠ 격분(激忿) ㉡ '극분'격분. 왈각 화가 북받쳐 오름. ㉢(자) 극분-허다. 극분-되다. ㉣그놈이 갑자기 **극분히서** 오목냇을 쳐드넌디 그럼 오쥬? 걸음아 나 살려라 허구 일단 내뺐쥬.

극상[-쌩] ㉠ 격상(格上) ㉡ '극상'격상.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을 높임. ㉢(자) 극상-되다. ㉣(자) 극상-허다. 극상-시키다.

극세지감[-췌-] ㉠ 격세지감(隔世之感) ㉡ 짧은 동안에 주변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적세지감. ㉣ 요즘은 시상이 하 빨리 른허닝께 **극세지감**이구 뭐구 느낄 틈두 없어.

극식[-씩] ㉠ 격식(格式) ㉡ 격에 맞는 일정한 형식. ㉢격식. ㉣ **극식**을 채리든 좋은 중이야 누가 몰르남? 우덜 입장이 **극식**을 따질 흥편이 못되닝께 그렇지.

극심-허다[-쌌-] ㉠ 격심-하다(激甚-) ㉡ 아주 심하다. ㉢ 올헌 가물이 원체

극심히서 밭농사구 논농사구 츠다볼 것 두 없어.

극언 ㉠ 격언(格言) ㉡ '극은'극언. 삶의 교훈이 될 만한 짧은 글. ㉢극은. ㉣ 노인네 말이라구 흐투루 들으믄 못쓰능겨. 저런 말이 다 증험이서 나오넌 **극언**이란 말여.

극은 ㉠ 격언(格言) ㉡ '극언'.

극음 ㉠ 격음(激音) ㉡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 ㉢격음.

극음-화 ㉠ 격음-화(激音化) ㉡ 예사 소리가 거센소리로 변화하는 현상.

극자-무니[-짜-] ㉠ 격자-문(格子門) ㉡ 장기판의 줄무늬처럼, 가로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만든 무늬.

극전[-쩨] ㉠ 격전(激戰) ㉡ '극즌'극전. 거칠고 세차게 싸우거나, 그런 싸움. ㉢극즌. ㉣(자) 극전-허다.

극전-지[-쩨-] ㉠ 격전-지(激戰地) ㉡ '극즌지'극전지. 거칠고 세찬 싸움이 있던 곳. ㉢극즌지. ㉣ 예산 득지기(官爵)는 동학농민군허구 유희군 일천이 맞붙은 **극전지**여. 장쾌헌 승리였지. 올마전이 존적표적지두 세워졌잖남?

극정[-쩨] ㉠ 격정(激情) ㉡ 주체하지 못할 만큼 거세게 일어나는 감정. ㉢극증. ㉣ 시상 승질대루 살 수 있넌감? 참으야 되넌 게 분이구, 눌러야 되넌 게 **극**

정이며.

극증[-증] ㉟ 격정(激情) ㉟ ㉞ '극정'.

극조[-조] ㉟ 격조(格調) ㉟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품격. ㉟ 집성두 집성대루 자리가 있구 사람은 사람대루 **극조**가 있던 겨. 몸개짐이나 맴개짐을 함부루 허덜 말란 얘기여.

극-조사[-조사] ㉟ 격-조사(格助詞) ㉟ <언어>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 앞말에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㉟ 격조사. ㉟ 주극조사)주격조사, 스술극조사)스술격조사, 보극조사)보격조사, 관흥극조사)관형격조사.

극주[-주] ㉟ 격주(隔週) ㉟ 한 주를 거르거나, 한 주씩 거름. ㉟ 한 달은 너 무 지닝께 회는 **극주**로 허더락 허지. 그럼 **극주**마다 상이해서 일 쓰리를 헐 수 있잖어.

극전[-전] ㉟ 격전(激戰) ㉟ ㉞ '극전'.

극전-지[-전-지] ㉟ 격전-지(激戰地) ㉟ ㉞ '극전지'.

극차 ㉟ 격차(隔差) ㉟ 서로 다른 정도나, 서로 떨어져 동떨어진 거리. ㉟ 흠 버팀 완벽한 것이 워딴넌감? 서루덜 생각의 **극차**가 있긴 허지만 앞이루 노력 허서 좁혀가야지.

극찬 ㉟ 격찬(激讚) ㉟ 크게 칭찬함. ㉟ 그게 그 사람만 **극찬**만 헐 일이 아

녀. ㉟(타) **극찬**-허다. ㉟ 심 합쳐서 여럿이 히넌 건디 한 사람만 **극찬**허문 나머진 뭐가 된다?

극추 ㉟ 격추(擊墜) ㉟ 하늘을 나는 비행기 따위를 쏘아 떨어뜨리다. ㉟(타) **극추**-허다. **극추**-시키다. ㉟(자) **극추**-되다.

극침 ㉟ 격침(擊沈) ㉟ 함선, 함정 따위를 공격하여 물속으로 가라앉힘. ㉟(타) **극침**-허다. **극침**-시키다. ㉟(자) **극침**-되다. ㉟ 촌안함이 **극침**된 것은 참 분헌 일이여. 말허문 뭐더. 근디 그 큰 군함이 으뢰헌티 맞구 **극침**뿸다던 것두 문젠 문제여.

극퇴 ㉟ 격퇴(擊退) ㉟ 적이나 상대를 쳐서 물리침. ㉟(타) **극퇴**-허다. ㉟(자) **극퇴**-되다. ㉟ 임존성이서 지수신이란 낭반이 문무왕이 끌구온 신라군은 **극퇴**했지먼 당군을 데리구 온 흑치상지를 막을 방도가 읍엇잖어. 그리서 임존성이 떨어지구 거서 백제가 꺾난 겨.

극투 ㉟ 격투(激鬪, 格鬪) ㉟ 맞붙어 거세게 싸움. ㉟ 장거리서 두 으자가 썸박질을 히댄다넌디 말여. 서루 머리끄덩일 잡어채구 발질질까장 히대매 싸우넌디 **극투**두 그런 **극투**는 흠 기경혔다닝께. ㉟(자) **극투**-허다.

극투-기 ㉟ 격투-기(格鬪技) ㉟ <운동> 상대와 격투를 하여 이기고짐을 가르는 경기.

극파 ㉠ 격파(擊破) ㉡ 상대를 쳐부수거나, 단단한 물체를 쳐서 깨뜨림. ㉢ (타) 극파-하다. ㉣(자) 극파-되다.

극화[극화] ㉠ 격화(激化) ㉡ 기세가 몹시 거칠고 세차고 됨. ㉢(자) 극화-하다. 극화-되다. ㉣ 이우지찌리 그리 봤자 감증만 **극화**되던 겨? 좋은 게 좋은 거라구 엉간허문 화해허.

극다[-따] ㉠ 겪다 ㉡ '겪다'. ㉢ 그 된 일을 **겪**구 난 뒤론 엉간헌 것은 일 같두 앓더라구./물난리를 으러 번 **겪**어 봤지만 이런 물난리는 평생이 흠이여.

극으다 ㉠ 겪다 ㉡ '겪다'. ㉢ 그 냥 반 강단이 보통이 아녀. 큰일을 **극으**구 두 눈 하나 꺾혀덜 앓더라구.

근고-하다 ㉠ 견고-하다(堅固-) ㉡ 사물이 단단하고 튼튼하거나,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 집을 **근고**하게 짓긴 했더면, 모양은 점 빠지게 졌더라구./광 자물통이 올라나 **근고**헌지 장도리루 쳐두 부서지덜 앓더면.

근:공 ㉠ 견공(犬公) ㉡ '개'를 의인화하여 높이는 말. ㉢ 옛날버텀 쥘 살리구 죽은 개 얘기두 있잖어. 그즈 되믄 개두 **근공**이라 불를 만허지.

근디다 ㉠ 견디다 ㉡ '전디다'. ㉢ 그 승질 급헌 늬이 한 시간을 **근디**길랑 사리 십 분두 못 되서 궁덩이를 들썩거리더라냥께./일이 되긴 헌디 서둘덜 앓

구 섬섬 허닝께 **근딜** 만은 허구면유.

근:리-사의[글:-] ㉠ 견리-사의(見利思義) ㉡ 이로움을 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함.

근:마 ㉠ 견마(犬馬) ㉡ 개와 말. 또는 자신을 낮추어 나타내는 말.

근:마지로 ㉠ 견마지로(犬馬之勞) ㉡ 개와 말의 수고로움에서, 윗사람에게 바치는 충성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근:문 ㉠ 견:문(見聞) ㉡ 보고 들음, 또는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 ㉢ 되두 앓은 말을 오서 은어듣구서니 그것두 **근문**이라구 내세는 겨?

근:문-록[-녹] ㉠ 견:문-록(見聞錄) ㉡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글. ㉢ 동방-**근문록**(東方見聞錄).

근:문-일치 ㉠ 견:문-일치(見聞一致) ㉡ 보고 들은 내용이 실제와 꼭 같음.

근:물생심 ㉠ 견:물생심(見物生心) ㉡ 어떤 물건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김. ㉢ 구연 물건은 뵈넌 디 두넌 게 아녀. **근물생심**이라구 내것이 아녀두 눈앞이 뵈믄 근대리게 되 있어.

근:본 ㉠ 견:본(見本) ㉡ 실제 상품을 알리기 위해 선보이는 물건. ㉢ 이 사람이야. 물건을 팔라믄 **근본**이라두 뵈주알 것 아닌가?

근사 ㉠ 견사(絹絲) ㉡ <의류> 비단을 짜는데 쓰는 명주실. ㉢ 뽕주실. 멩지실.

근 : 식 ㉠ 견 : 식(見識) ㉡ 견문과 학식. ㉢ 식근(識見). ㉣ 그 까막눈헌티 **근식** 이구 머구가 오딧겼어?

근실-허다 ㉠ 견실-하다(堅實-) ㉡ 굳건하고 튼튼하다. ㉢ 그 집안 사람덜은 허구 땡기년 건 보잘 게 읍어도 참 **근실 허다닝께**. /이 집은 지동허구 서까래가 **근실헌** 것이 백년이 가두 끄떡읏졌네.

근우 ㉠ 견우(牽牛) ㉡ 하늘나라에서 소를 치며 직녀(織女)를 사랑한 이의 이름. ㉢ **근우**는 그리두 한 해이 한 번씩은 직녀를 보잖나? 근디 그 칭군 애 따러 외국 간 마누라 못 본 제가 속 삼년이 넘었다.

근원 ㉠ 견원(犬猿) ㉡ '근원→전원(구개음화). 개와 원숭이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 전원.

근원지간 ㉠ 견원지간(犬猿之間) ㉡ ㉢ '전원지간'.

근인 ㉠ 견인(牽引) ㉡ 크고 무거운 물건 따위를 끌어당김. ㉢ (타) **근인-허다**. ㉣ (자) **근인-되다**.

근장 ㉠ 견장(肩章) ㉡ 군인이나 경찰관 등이 제복의 어깨에 붙이는 표장. ㉢ **왜정** 때나 **근장** 달구 땡기년 늬이 미서웠지, 요즘 시상두 그러헌감?

근 : 적 ㉠ 견 : 적(見積) ㉡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어림잡아 계산함. 또는 그런 계산. ㉢ **니** 얼굴 지대루 뜯어 고칠래믄 **근적** 뺨기가 수월허던 았을 겨. **근적**이나마나 난 얼굴 고칠 생각읏넌디 말여, 그짜 얼굴두 만만턴 았을 겨.

근 : 적-서[-써] ㉠ 견 : 적-서(見積書) ㉡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은 문서. ㉢ **근적서**를 보닝께 짐수리허던 것두 집 짓년 모냥 만만턴 았구먼.

근제 ㉠ 견제(牽制) ㉡ 상대방이 세력을 지나치게 키우거나,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음. ㉢ (타) **근제-허다** ㉣ 그 사람은 아무편두 아니닝께 **근제**할 것 읍어. 슬블리 **근제**헌다구 을르구 어찌구 허더가니 고여니 짹짹이 붙으면 일만 더 골차퍼져.

근주다 ㉠ 견주다 ㉡ ㉢ '전주다'. ㉣ 서루덜 **근줄** 수야 있겠지먼 그것을 머더라 **헐라군다**?

근지-허다 ㉠ 견지-하다 ㉡ 어떤 입장이나 견해를 굳게 지키다. ㉢ 우덜은 우덜 입장이나 **근지**허구 있으믄 며. 고여니 그 틈이 찌들었다가닌 서루 얼굴만 붉히게 된다닝께.

근직-물[-징-] ㉠ 견직-물(絹織物) ㉡ <의류> 명주로 짠 천. ㉢ 옛날인 뉘치구 질쌘두 많이 **희**잖어. 그렇기 질쌘이



루 멩근 멩주를 **근직물**이라구 혀.

근 : **학**[-/크낙] **㉠** **견** : **학**(見學) **㉡** 어느 곳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지식을 배움. **㉢** 근학-허다. **㉣** **순진지**(先進地) **근학을** 댜겨왔다너디 거 가서 뉘점 배 왔넌가?

근 : **해**[-/크내] **㉠** **견** : **해**(見解) **㉡** 어떤 것에 관한 자신의 생각. **㉣** 자네 시방 여가 오면 자린디 그런 걸 **근해**냐구 내 세능가?

근훤[-/크뉘] **㉠** **견훤**(甄萱) **㉡** <인명> 후백제(892~936)를 세운 사람의 이름.

글-가부좌 **㉠** **결-가부좌**(結跏趺坐) **㉡** <불교> 좌선할 때, 오른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놓은 다음 왼발을 오른편 허벅다리 위에 놓고 앉는 자세.

글강 **㉠** **결강**(缺講) **㉡** 정해진 강의를 거르다. **㉣** **글강**이라구 하나투 좋아헐 까닥이 읍는 겨. 당장은 놀기 좋아두 야중인 그거 다 채우야 헐 것 아넌가 배. **㉢** 글강-허다.

글격 **㉠** **결격**(缺格) **㉡** **글극**.

글계[-/게] **㉠** **결계**(結界) **㉡** <불교> 불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제한하는 것. 또는 행동을 제한하는 요소를 빗대어 이르는 말. **㉣** 그 집인 들어가덜 말어. 대문 우이 **글계** 처진 것 안 뵈남? **글계**라니 먼 소리랴? 아, 이 사람 아, 애 뉘다구 글계 처진 것 안 뵈여?

글과 **㉠** **결과**(結果) **㉡** ①식물이 열매를 맺음. 또는 그 열매. **㉣** **올힌** **봄판**이 너머 가물어서니 **글과**두 신통털 없여. ②어떤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상황이나 모습. **㉣** 이 일은 **글과**가 위치기 되던 그짜이서 **챙견헐** 일이 아녀.

글구[-/꾸] **㉠** **결구**(結句) **㉡** ①글의 마지막 구절. **㉣** **펜지던** 머던 글이란 것은 **글구**가 질 중요형 겨. **글구**가 선찮 으면 앞이 좋아두 말짱 훗겨여. ②<문학> 시문(詩文)의 마지막 구절.

글국 **㉠** **결국**(結局) **㉡** '표준어화 과정: 글국>결국'. 일의 마무리 단계. **㉣** 시방은 **퐁오**좁 **뉘**[뉘] 개리구 저리 **펼펼** 뉘 지면 **글국**이 가문 지풀이 자빠질 **팅**게 두구나 **뵈**. **㉢** **끝**에 다다라. 마지막에 이르러. **㉣** 일이 **글국** 그리 뉘구면./**글국** 그리 헐 일을 왜 **들**구 **미련**은 **뉘**다?

글근 **㉠** **결근**(缺勤) **㉡** '표준어화 과정: 글근>결근'. 직장에 나가 일하지 아니하고 빠짐. **㉣** **퐁** **글근**은 안 허넌 사람인디 **은락**두 **읍**이 **이**게 먼 일이라? **㉢** (자) **글근**-허다. **㉣** **글근**허겠다구 말이나 허구 **글근**허문 내가 **극정**두 없여. 이[㉣]건 **특허문** 말두 **읍**이 **글근**허넌디 내가 **환장**허겠다닝께.

글극 **㉠** **결격**(缺格) **㉡** '글극>글격'. 지녀야할 자격을 채우고 있지 못함. **㉣** 먼 **놈**이 **요구** 사항이 **이**렇기 **뉘**다? 우리 **걸**은 **놈**은 **애**체버텀 **글극**이구면.

글단[-판] ㉸ 결단(決斷) ㉸ '표준어화 과정: 글단>결단'. 딱 부러지게 판단함. 또는 그런 판정이나 단정. ㉸ '오늘 중이루 **글단**을 내리긴 하야 허네티 참 그계 그렇구면.

글단-력[-판력] ㉸ 결단-력(決斷力) ㉸ '표준어화 과정: 글단력>결단력'. 딱 부러지게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힘. ㉸ 글단력. ㉸ '판 건 물러두 그 낭반이 **글단력** 하난 곳내줘. 곳내주긴 개뿔, 앞뒤 재두 못허넹 게 **글단력**만 있으믄 뒤더?

글단-력[-판력] ㉸ 결단-력(決斷力) ㉸ '글단력'.

글단-성[-판성] ㉸ 결단-성(決斷性) ㉸ '표준어화 과정: 글단성>결단성'. 딱 부러지게 판단하는 과감한 성질. ㉸ 글단성. ㉸ '사람이 **글단성**두 점 있으야 허네티, 그 사람은 허넹 일마두 물이 물 탄 덧, 술이 술 탄 덧 통 개같이 안나.

글단-성[-판성] ㉸ 결단-성(決斷性) ㉸ '글단성'.

글단-코[-판-] ㉸ 결단-코(決斷-) ㉸ '절단코'. ㉸ **글단코** 그 일맹큼은 승공(成功)하야 혀.

글렬 ㉸ 결렬(決裂) ㉸ '글를'.

글를 ㉸ 결렬(決裂) ㉸ '표준어화 과정: 글를>글렬>결렬'. 과정쌍방의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자) **글를-**되다.

글레 ㉸ 결례(缺禮) ㉸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못함. ㉸ '아니, 도지사 상을 받넹 자리에 추리닝 채림이로 나갔다니, 그런 **글레**가 또 오뎸다? ㉸(자) **글레-**허다.

글론 ㉸ 결론(結論) ㉸ 말이나 글의 끝을 맺음. 또는 마지막으로 내려진 판단. ㉸ '날 저물어 가넹디 얼릉 **글론**을 짓구 말어. 벨 것두 아닌 걸 개지구 노닥거리다 저녁밥 굶을 건감?/그 일이야 **글론**이구 머구가 오뎸어? 발써 물 건너간 일인디.

글막 ㉸ 결막(結膜) ㉸ <의학> 눈꺼풀의 안쪽과 눈알의 흰자 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

글막-염[-망염] ㉸ 결막-염(結膜炎) ㉸ <의학> 외부적 자극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결막이 충혈되어 눈곱이 끼거나 눈 안쪽에 물질이 생기는 병. ㉸ '웬 **글막염**이라? 이, 들구 눈이 깜짝겨려져서니 안과이 갔더니 **글막염**이라매 그걸 느라더면.

글말 ㉸ 결말(結末) ㉸ 어떤 일이나, 이야기의 마무리. ㉸ 결말. ㉸ 글미. ㉸ 일을 시작했으믄 뉘 **글말**이 있어야지. 일은 맨날 저 늬이 맹글어놓구 뒤트리는 내가 험다넹게.

글몽자 ㉸ 결명자(決明子) ㉸ <한의학> 간열(肝熱), 안질(眼疾), 두통 따위에 효

네이 산업쓰레기장은 죽어두 안 더. 난
글사 반대구먼.

글사-대[-싸-] ㉠ 결사-대(決死隊)
㉡ 죽을 각오로 싸울 사람들로 이루어
진 부대나 무리. ㉢ 접착인 건달들이 앞
장섰으니께 우덜두 글사대를 꾸리아
혀. 그리야 이 일을 오티기라두 막을
수 있다닝께.

글산[-싼] ㉠ 결산(決算) ㉡ 일정 기
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마무리
함. 또는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산.
㉢ 동네 층년회 글산두 다 봤구 인전 새
해나 되야 또 모이겼구먼. ㉣(타) 글산
-허다.

글산-서[-싼-] ㉠ 결산-서(決算書)
㉡(경제)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기록한 문서.

글석¹[-씩] ㉠ 결석(結石) ㉡(의학) 장
기 속에 돌처럼 엉겨 붙은 물질. 담석,
요석, 신장 결석, 췌장 결석 따위가 있
다. ㉢ 그 사람 담이 글석이 배겨서니
고상헌다더먼 요새 위젠가 몰르겠네.

글석²[-씩] ㉠ 결석(缺席) ㉡ 참석할
자리에 빠짐. ㉢ 회원이란 사람이 글석
이 그리 잦으면 오티겨? 바뿌다 보문
글석을 헐 수도 있긴 허지만 너머 빠지
문 못쓰능 겨. ㉣(타) 글석-허다.

글석-상[-씩쌍] ㉠ 결석-생(缺席生)
㉡ '표준어화 과정: 글석상(글석생)결석생'.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 ㉢글석생.

글석-생[-씩쌍] ㉠ 결석-생(缺席生)
㉡ ㉢ '글석상'. ㉣ 독감이 하 유행허닝
께 핵겨두 못 가년 글석생이 여럿이라.

글선[-썬] ㉠ 결선(決選) ㉡ ①우승자
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싸움. ㉢ 글선은
히보나 마나여. 칼자를 접착이 지구 있
넌디 우덜이 먼 재주루 글선이서 이기
겄난 말여. ②<법률>투표 결과 당선자
를 내지 못했을 때, 많은 표를 얻은 두
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당선자를 가르는
선거. ㉣ 조합장 손겨이서 글선 투표까
장은 같넌디 아깝게 떨어졌다더먼. ㉤
(타) 글선-허다.

글성[-쌩] ㉠ 결성(結成) ㉡ 모임이나
단체를 만듦. ㉢(타) 글성-허다. ㉣
(자) 글성-되다. ㉤ 층년회를 새루 글
성했넌디 동네이 층년덜이 남아있덜
않으닝께 마흔 넘은 지가 막내유.

글속[-씩] ㉠ 결속(結束) ㉡ 사물을
하나로 뭉치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끼
리 서로 뭉침. ㉢(자/타) 글속-허다.
㉣(타) 글속-시키다. ㉤(자) 글속-되
다. ㉥ 그 못된 공장이 들어스년 걸 막
을래문 동네 사람덜이 똥똥 글속히야
혀. 우덜이 먼침 글속되야 아랫 동네 사
람덜두 따를 것이구 말여.

글손[-썬] ㉠ 결손(缺損) ㉡ 지출이
많아 돈이 모자람. 또는 모자라거나 빠
진 부분이 있어 완전하지 아니함. ㉢ 회



돈이 **글손**이 점 있다더니 오찌된 거랴? 그게 회장허구 총무가 지맘대루 써대서 **글손**이 생긴 거라더니, 지덜이 쓴 돈이 닝께 지덜이 알아서 채라구려.

글승[-승] ㉠ 결승(決勝) ㉡ 승부를 가리는 일에서, 마지막 시험. ㉢글승준, 글승전. ㉣답 번이 **글승**인가? 아녀, 한 번 더 이기야 **글승**이여.

글승-전[-승-] ㉠ 결승-전(決勝戰) ㉡ '글승준'.

글승-준[-승-] ㉠ 결승-전(決勝戰) ㉡ '표준어화 과정: 글승준>글승전'.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시험. ㉢글승. ㉣ **글승준**은 볼 것두 없어. 우리 편은 벌써 다 떨어지구 넘어 편찌리 허던 **글승준**을 뿔허러 본다?

글승-점[-승점] ㉠ 결승-점(決勝點) ㉡ '글승준'.

글승-점[-승점] ㉠ 결승-점(決勝點) ㉡<운동> '표준어화 과정: 글승점>글승점'. ①승부를 가려지는 지점. ㉣다 이긴 중 알았더니, **글승점**을 코앞이다가 두구서 니 나자빠질 중을 누가 알았겠어. ②승부가 가려지는 점수. ㉣뎌 시간두 다 지나더니 **글승점**이 나올 중을 누가 알 기나 했겠어?

글시[-씨] ㉠ 결시(缺試) ㉡ 치르기로 한 시험에 못 나가거나, 나가지 않음. ㉣가까 새벽까장 밤새 공부 했더니 말

여, 아침이 까빱 일어나덜 못허서 **글시**를 했다. ㉢(자) **글시**-허다.

글식[-씩] ㉠ 결식(缺食) ㉡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거름. ㉣아직두 **글식**허던 아덜이 있다. 그리서니 그런 **글식**아동을 우혀서니 핵져서 따루 즘슨을 챙긴다더니. ㉢(자) **글식**-허다.

글실[-실] ㉠ 결실(結實) ㉡ ①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어진 열매. ㉣**글실**이 맺긴 했더니 모양이 응 시부정참네유. ②일의 성과. ㉣오치기 된 늬음 일이 시월(歲月)만 잡어먹구 통 **글실**이 읍유.

글심[-심] ㉠ 결심(決心) ㉡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음. ㉣떨 헐라던 **글심**이 있으야쥬. 아무 생각두 읍이 방안이만 처백혀 있으믄 오찌자능 규? ㉢(타) **글심**-허다. ㉣**글심**허다구 다 일이 되믄 그버덤 싱진 게 시상이 또 있겠남?

글심[-심] ㉠ 결심(結審) ㉡<법률> 재판에서, 변론이나 조사 따위를 종결함. ㉣재판은 오치기 잘되 간대유? 이, 인 전 **글심**두 끝이[끄시] 나구 판결만 남 었더니면.

글여 ㉠ 결여(缺如) ㉡ 갖춰져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 ㉢(타) **글여**-허다. (자) **글여**-되다.

글연 ㉠ 결연(結緣) ㉡ '글은'.

글연-허다[-/-여너-] ㉠ 결연-하다

(決然-) ㉸ '결은하다'.

결연-히[-/-여니] ㉸ 결연-히(決然-) ㉸ '결은히'.

결원 ㉸ 결원(缺員) ㉸ 정해진 인원에 차지 않거나, 모자라는 사람의 수. ㉸ 동지(洞契)에 **결원**이 생겼더니 이참이 자네가 들어오면 쓰겠넌디? ㉸(자) **결원-하다**. ㉸(피) **결원-되다**.

결의-안[-/그리-] ㉸ 결의-안(決議案) ㉸ 논의하고 뜻을 모아 결의해야 할 안건.

결은 ㉸ 결연(結緣) ㉸ '표준어화 과정: 글은>결연>결연'. 서로 인연을 맺음. ㉸ 저 핵겨가 도시에 있던 핵겨허구 자매 **결은**을 맺구 방핵이문 학상덜이 서루 오가기루 헛다너면. ㉸ **결연-하다**.

결은-하다[-/-여너-] ㉸ 결연-하다(決然-) ㉸ '표준어화 과정: 글은하다>결연하다>결연하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다. ㉸ **결연하다**.

결은-히[-/-으니] ㉸ 결연-히(決然-) ㉸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고 당당하게. ㉸ **결은히**. ㉸ 맴을 다져 먹구서니 **결은히** 찾어가기는 헛넌디 막상 얼굴 대허닝께 말을 못허겄더라.

결의¹[-/-그리] ㉸ 결의(決意) ㉸ 뜻을 굳게 다지거나, 그런 뜻. ㉸ 그 낭반 **결의**가 대단히서니 우덜두 우덜 수가 읍었어. ㉸(자/타) **결의-하다**. ㉸(자)

결의-되다.

결의²[-/-그리] ㉸ 결의(決議) ㉸ 주어진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함. 또는 그렇게 얻어진 결정.

결의-문[-/그리-] ㉸ 결의-문(決議文) ㉸ 논의하고 합의한 결의 사항을 적은 글. ㉸ 지덜찌리 썩덕공론을 히쌌더니 **결의문**인가 먼가를 멩길어서 벨표(發表)헛다너면.

결자[-/짜] ㉸ 결자(缺字) ㉸ 글이나 문장에서 빠지거나 빠뜨린 글자. ㉸ **결자**가 나지 않더라 찬찬히 혀.

결자-해지[-/짜-] ㉸ 결자-해지(結者解之) ㉸ 일을 벌여놓은 사람이 그 일을 풀어야 함. ㉸ **결자해지**라구, 이 일은 자네가 책음지구 츠리혀.

결장[-/짱] ㉸ 결장(缺場) ㉸ 자리에서 나오지 않음. ㉸ **결장-하다**.

결재[-/째] ㉸ 결재(決裁) ㉸ 결정권을 지닌 상급자가 하급자가 낸 안을 허가하거나 승인함. ㉸ **결재**를 맡아야 헐 것이 한돌이 아닌디 뜬장이 오딜 가서니 들오덜 앓구 있다. ㉸(타) **결재-하다**. (자) **결재-되다**.

결전[-/쩐] ㉸ 결전(決戰) ㉸ '글즌'.

결절[-/쩔] ㉸ 결절(結節) ㉸ '글즐>글절'. 서로 맺어져 생긴 마디나, 서로 맺어져 불룩하게 솟은 부분.



글점[-점] ㉠ 결점(缺點) ㉡ '글점'.
 ㉢글점이란 것두 보던 사람따러 달리지
 능겨. ㉣㉤마두 모양 좋은 거 찾던 사람
 있구, 못나두 큰 것만 찾던 사람 있잖언
 가배.

글정[-정] ㉠ 결정(決定) ㉡ '글증'.
 ㉢글정된 게 읍으님께 즈부 안개 속이
 여. 그님께 앞이루 일이 오티기 될런가
 는 압두 몰러.

글정-적[-정-] ㉠ 결정-적(決定的)
 ㉡ ㉢ '글증적'.

글정-체[-정-] ㉠ 결정-체(結晶體)
 ㉡ 각이 진 딱딱한 물체. 또는 사물의
 핵심이 되는 요소.

글정-타[-정-] ㉠ 결정-타(決定打)
 ㉡ ㉢어떤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칠 만한 사건이나 행위. ㉣한 방이 훅
 날려뻬질 **글정타**가 필요헌디 말여, 뵤
 수가 읍으까? ㉤<운동>승부를 가릴 만
 큼 큰 타격.

글제[-제] ㉠ 결제(決濟) ㉡ ㉢<경제>
 화폐나 물건 따위를 주고받아 거래를
 끝맺음. ㉣책임자가 사무 처리를 끝맺
 음. ㉤**글제**를 맡긴 헛헌디 일이 점 걸
 릴 것 같유. ㉥(타) **글제**-허다. ㉦(자)
글제-되다.

글즌[-즌] ㉠ 결전(決戰) ㉡ '글즌>글
 전'. 승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싸움. ㉢
 접짜 팀허구 **글즌**을 치르겠다구 다덜

베르구는 있헌디 암만히두 우리편 실력
 이 점 무지르다 싶어. ㉣(자) **글즌**-허다.

글즐[-즐] ㉠ 결절(結節) ㉡ '글절'.

글즘[-즘] ㉠ 결점(缺點) ㉡ '글즘>글
 점'. 모자라거나 잘못된 점. ㉢글점. ㉣
 녀이 **글즘**이나 쫓어댕기매 들추덜 말구
 니 못된 뻔보나 뻔질히서 고쳐.

글증[-증] ㉠ 결정(決定) ㉡ '글증>글
 정'. 어떤 것에 대한 태도나 방향을 분
 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한 것. ㉢
 ㉣저 낭반은 믿을 게 못 더. 물이 물 탄
 덧 술이 술 탄 덧 머 하나 지대루 **글증**
 허년 걸 보지 못헌다냥께. ㉤(타) **글증**-
 허다. ㉥(자) **글증**-되다. **글증**-나다.

글증-적[-증-] ㉠ 결정-적(決定的)
 ㉡ ㉢ '글증적>글정적'. 바뀔 수 없이 확
 실한, 그러한 것.

글증-타[-증-] ㉠ 결정-타(決定打)
 ㉡ '글정타'.

글집[-집] ㉠ 결집(結集) ㉡ 한데 모
 여 뭉침. ㉢(자) **글집**-허다. ㉣(피) **글**
집-되다. ㉤그 못된 공장이 들어서는
 걸 막을라든 암체두 동네 사람덜이 먼
 침 하루 **글집**하야 혀.

글초-보은 ㉠ 글초-보은(結草報恩) ㉡
 죽어서도 풀을 맺어 은혜를 갚음. ㉢**글**
초보은이라구 알기는 허남? 자넨 나헌
 티 죽어두 갚으야 헐 은혜를 입은 거다
 그런 얘기여.

글코 ㉠ 결코(決-) ㉡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 **글코** 그런 짓은 안 허기루 히 놓구서니 왜 또 그런 겨?

글탁 ㉠ 결탁(結託) ㉡ '서로 마음을 맺어 기댐'의 뜻이나, 주로 '안 좋은 일을 꾸미려고 한 통속이 됨'을 나타내는 말. ㉢ 째짜미. ㉣(자) 글탁-허다. 글탁-되다. ㉤ **글탁했더면**, /고여니 그 잡놈덜헌티 **글탁되서** 자네가 고역을 치렀구면.

글투 ㉠ 결투(決鬪) ㉡ 승부를 결정짓기 위한 싸움. 또는 어떤 조건 아래서 벌이는 싸움. ㉣(자) 글투-허다. ㉤ 누가 허던 지간이 일 끝덜 말구 둘이 **글투허서락두** 얼릉 매듭져 빠려.

글판 ㉠ 결판(決判) ㉡ 승부나 시비 따위를 가려 최후로 판정함. ㉢ 내 만나서니 **글판을** 짓구 말 터. 말루는 맨날 **글판을** 낸다지면 그 말을 누가 믿기나 허 남유?

글판-나다. ㉠ 결판-나다(決判-) ㉡ (자) ㉢ '글판'.

글판-내다. ㉠ 결판-나다(決判-) ㉡ (타) ㉢ '글판'.

글핍 ㉠ 결핍(缺乏) ㉡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빠짐. 또는 써서 없어짐. ㉣(자) 글핍-되다. ㉤ **애가** 응양(營養) **글핍이** 라구 잘 맥이야 현다./그 사람은 암만

봐두 애정 **글핍**인 것 같어.

글함 ㉠ 결함(缺陷) ㉡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있는 흠결. ㉢ 그 사곤 조작 미숙 땀이가 아니구 기계 **글함**이루 생긴 거래유./**글함** 읍넨 인생이 오뎀겼어? 누구나 구멍난 디 꼬매구 모지란 디 채 우매 사넨 거지.

글합 ㉠ 결합(結合) ㉡ 둘 이상이 맺어져 하나로 합쳐짐. ㉢ 혼인은 당사자두 그렇지면 집안 간의 **글합**이여. ㉣(자) **글합**-허다. **글합**-되다.

글항 ㉠ 결항(缺航) ㉡ 정기 운항하던 비행기나 배가 운항을 거름. ㉣(자) **글항**-허다. **글항**-되다. ㉤ 날이 안 좋으면 배가 종종 **글항한다니**께 넉넉하게 날을 잡구 떠나더락 혀.

글핵 ㉠ 결핵(結核) ㉡〈의학〉 결핵균이 일으키는 전염성의 질병. ㉢ 어른내가 맨날 허리가 아프다구 허서 **봉원**일 갔더니 **촉촉** **글핵**이라구 허더라. **촉촉** **글핵**은 수술을 하야 현다니면.

글행 ㉠ 결행(決行) ㉡ 굳은 기세로 실행함. ㉣(타) **글행**-허다.

글혼 ㉠ 결혼(結婚) ㉡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음. ㉣(자) **글혼**-허다.

글혼-식 ㉠ 결혼-식(結婚式) ㉡ 부부의 연을 맺는 식.

글비 ㉠ 겸비(兼備) ㉡ 여러 가지를 두

루 갖추. **툇(타) 금비-허다.**

금손 **툇** 겸손(謙遜) **툇** ⇨ '점손'.

금 : 양 **툇** 겸양(謙讓) **툇**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양보하는 태도. **툇(자) 금양-허다.** **¶** 젊은이가 **금양혈** 중두 앓구 사람이 아주 뿔더라구.

금 : 양지덕 **툇** 겸양지덕(謙讓之德) **툇**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봉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씨.

금업 **툇** 겸업(兼業) **툇** '금읍/금업'. 두 가지의 일을 하거나, 본업 이외의 직업을 또 가짐. **툇**금읍. **¶** **금업**이란 것두 없어. 농사치가 즉으니까 평일인 장사 나가구 평일인 농살 짓년 겨. **툇(자/타) 금업-허다.**

금읍 **툇** 겸업(兼業) **툇** ⇨ '금업'.

금장 **툇** 겸장(兼掌) **툇** 둘 이상의 일을 맡아 처리함. **툇(타) 금장-허다.**

금직 **툇** 겸직(兼職) **툇** 둘 이상의 직업을 함께 하거나, 둘 이상의 직무를 함께 봄. **¶** 공무원이 **금직**이 안 된다군 허두 농사는 괜찮다. **툇(타) 금직-허다.**

금-허다 **툇** 겸-하다(兼) **툇(타) 둘 이상의 것을 함께하다.**

금허 **툇** 겸허(謙虛) **툇**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 **툇** 금허-허다.

금 **툇** 겸 **툇** ⇨ '겸'. **¶** 이게 **금**이 뻗인

겨?(이것이 몇 겹으로 된 거야?)

금-공사[-공-] **툇** 겸-경사(-慶事) **툇** 기쁜 일이 겹쳐서 일어남. **¶** 저 집안은 **공사**가 겹쳤어. **금공사**라니까.

금금이 **툇** 겹겹이 **툇** ⇨ '겹겹이'. **¶** 이게 뭘 보물단지라구 **금금이** 싸냈다?

금-웃[그본] **툇** 겸-웃 **툇** ⇨ '점웃'.

금각 **툇** 경각(頃刻) **툇** 매우 짧은 시간.

금 : 각-심[-각심] **툇** 경 : 각-심(警覺心) **툇** 일의 심각성을 깨달아 조심하는 마음. **¶** 이번 일은 중허니까 사람덜한테 **금각심**을 깨쳐주야 허.

금감 **툇** 경감(輕減) **툇** 덜어서 가볍게 해줌. **툇(타) 금감-허다.** (자) **금감-되다.** **¶** 이번이 증부서 농가부채를 **금감**혀 준다더면, **금감**은 개뿔, 말루는 그러년디 그제 실지룬 안 그렇 겨.

금거-망 : 동 **툇** 경거-망 : 동(輕舉妄動) **툇**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함. **툇(자) 금거망 : 동-허다.** **¶** **툇** 매사이 **금거망동허문** 못 쓰능 겨여.

금건-허다 **툇** 경건-하다 **툇** ⇨ '금근-허다'.

금근-허다 **툇** 경건-하다 **툇** '표준어화 과정: 금근허다>금건허다>경건허다'. 공손히 받들고 삼가 엄숙하다. **툇**금근-허다. **¶** 사당(祠堂) 안이서닌 **금근허게** 츠신히야 쓰능 겨.

경제¹[**-계**] ㉠ 경계(境界) ㉡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는, 사물이나 지역의 끝. ㉢ 그 갱굴이 우리 동네허구 접작 동네의 경제여.

경: **계²**[**-/-계**] ㉠ 경: 계(警戒) ㉡ 주위를 살피며 지키거나, 조심하여 단속함. ㉢(타) 경: 계-하다. ㉣ 물러난 사람은 늘 경제해야 혀./참초혈 적인 벌집을 근대리지 않더락 경제혀.

경: **계-경보** ㉠ 경: 계-경보 ㉡ '표준어화 과정: 경제(경보)경제(경보)경계(경보)'. 다가오는 위험을 조심하라고 알리는 신호. ㉢ 웬 싸이렝 소리랴? 이, 오늘이 보름이닝께 민방공훈련 경제(경보)구먼.

경제-선[**-계-**] ㉠ 경계-선(境界線) ㉡ '경제(경계)경제(경계)'. 구분되는 인식의 기준, 지역이 나누어지는 선. ㉢ 경제(경계)선. ㉣ 말뚝 친 다가 경제(경계)선이닝께 거룬 넘어스지 않더락 혀.

경제-선 ㉠ 경계-선(境界線) ㉡ '경제(경계)경제(경계)'. 구분되는 인식의 기준, 지역이 나누어지는 선. ㉢ 경제(경계)선. ㉣ 말뚝 친 다가 경제(경계)선이닝께 거룬 넘어스지 않더락 혀.

경: **고** ㉠ 경: 고(警告) ㉡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일. ㉢(자) 경: 고-하다. ㉣ 경고(경고)허넌디 말여. 또 이런 일이 생기문 땅 떼일 중만 알어뉘.

경: **고-문** ㉠ 경: 고-문(警告文) ㉡ 주의하라고 알리는 글.

경: **고-장**[**-장**] ㉠ 경: 고-장(警告狀)

㉡ 주의하라고 전하는 문서.

경: **고-판** ㉠ 경: 고-판(警告板) ㉡ 경고의 내용을 써서 알리는 게시판.

경: **공업** ㉠ 경-공업(輕工業) ㉡(공업)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

경: **과** ㉠ 경과(經過) ㉡ 시간의 지남이나 일이 되어가는 과정. ㉢ 스둔다구 되넌 것이 아니닝께 경과(경과)를 봐가맨서니 허자구. ㉣(자) 경과-하다. 경과-되다. ㉤ 약속헌 시일이 경과(경과)했넌디 왜 소식이 읏다?

경: **과-보고** ㉠ 경과-보고(經過報告) ㉡ 일정 기간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고하는 일. ㉢ 경과(경과)보(경과)콜 현다구 이장이 회관(회관)이루 나오랴. 께(경과)만 동넛(동넛)일 보맨서 뵈(경과)보고?

경: **관** ㉠ 경관(景觀) ㉡ 자연의 멋진 풍경. ㉢(경)치. ㉣ 여(경)가 경관(경관)이 지일(경) 좋은 디어.

경: **관** ㉠ 경: 관(警官) ㉡ '경(경)찰관(경)을 줄여 이르는 말. ㉢ 아(경)까(경)침이 경(경)관(경)들이 들(경)이(경)닥(경)쳐서 잡(경)어(경)갔(경)어. 왜? 그 칭(경)구가 승(경)추(경)행(경)을 히(경)다(경)나 오(경)짤(경)다(경)나 그(경)렀(경)다(경)니(경)면.

경: **구**[**-구**] ㉠ 경: 구(警句) ㉡ 삶의 교훈이 될 만한,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구문. ㉢(경)경: 구. ㉣ 일(경)허(경)지(경) 않은(경) 늬(경)은(경) 먹(경)을(경) 자(경)극(경)두(경) 읏(경)다(경)넌(경) 경(경)구(경)두(경) 있어(경). 그러(경)닝(경)께(경) 밥(경) 읏(경)어(경)먹(경)을(경)라(경)든(경) 너(경)두(경) 일(경)허(경)구(경) 와(경).

금 : -구개 ㉠ 경-구개(硬口蓋) ㉡〈의학〉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금 : -구개음 ㉠ 경-구개음(硬口蓋音) ㉡〈언어〉 ‘스, 츠, ㅍ’처럼, 혀의 앞쪽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금구개음은 달래 셴입천장소리라 한다.

금국대전[-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금국대준’금국대전. 조선조의 근간을 이루는 법전. ㉢ 금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하여 승종(成宗) 때 완성되었다.

금국지색[-짜-] ㉠ 경국지색(傾國之色) ㉡ 임금이 반하여, 나라가 위태로워도 모를 만큼 예쁜 여인.

금극 ㉠ 경극(京劇) ㉡〈연극〉 노래와 춤으로 엮어진 중국 전통의 연극.

금기¹ ㉠ 경기(景氣) ㉡〈경제〉 경제 활동의 상황. ㉢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되어, 금기가 예전같을 않다니까.

금 : 기² ㉠ 경 : 기(競技) ㉡ 정해진 규칙 속에서 운동이나 재주를 겨루는 일. ㉢ 뻥히 질 증긴디 뭐더라 거기 목을 맨다? ㉣(자) 금 : 기-허다.

금기-도 ㉠ 경기-도(京畿道) ㉡ 서울을 감싸고 있는,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행정구역의 이름. ㉢ 큰국의 인구가 다 줄구 있넌디 증기도허구 서울만는다니면.

금 : 기-력 ㉠ 경 : 기-력(競技力) ㉡

운동이나 재주를 겨루는 힘의 정도. ㉢ 저 손수는 증기력이 행편윽구먼.

금 : 기-장 ㉠ 경 : 기-장(競技場) ㉡ 운동이나 재주를 겨룰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공간. ㉢ 올림픽을 은다구 잠실다가 크다란 증기장을 짓넌다니면.

증기체-가 ㉠ 경기체-가(景幾體歌) ㉡〈문학〉 고려 중기 이후에 발생하여 조선 초기까지 이어진 3음보의 시가.

증끼 ㉠ 경기(驚氣) ㉡ ㉢ ‘정끼’. ㉣ 어러서니 오래더락 증낄 했다넌디 그러서 그런가 애가 점 무질러.

증 : 내 ㉠ 경내(境內) ㉡ 일정한 구역의 안쪽. ㉢ 사찰 증내서넌 그렇기 막 떠들믄 못써.

증 : 대 ㉠ 경 : 대(鏡臺) ㉡ 서랍 위에 거울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 도구. ㉢ 증대 앞이 정일 붙어있넌다구 못 생긴 얼굴이 이뻐진다남?

증 : 덕-궁 ㉠ 경덕-궁(敬德宮) ㉡〈역사〉 조선 태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던 집.

증 : 덕-왕 ㉠ 경덕-왕(景德王) ㉡〈인명〉 성명은 김현영(金憲英). 신라 제33대 성덕왕의 셋째아들이며 효성왕의 동생으로, 신라 제35대 왕(재위 742~765).

증도¹ ㉠ 경도(經度) ㉡〈지리〉 본초자오선을 기점으로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

내는 좌표의 하나. ㉠위도(緯度).

금도² ㉠ 경도(傾倒) ㉡ 물건이나 마음 따위가 한쪽으로 쏠림. ㉢(자) 금도-되다. ㉣스양 문화이 금도되서 우리 존통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

금 : 락[-낙] ㉠ 경락(經絡) ㉡〈한의학〉 사람의 몸 안에서 기혈이 운행되고 순환하는 통로. ㉢금락 마사지를 받으러 땡긴다던디 암체두 기혈 푸닌 딘 침이 속허잖남?

경력[-녁] ㉠ 경력(經歷) ㉡ ‘금륵[금늑] 금례[금녀]’. 살아오면서 겪어온 사실이나 내력. ㉢금륵. ㉣경력자두 아닌디 썩판 초보더러 워쩌라능 겨? 경력이 읍어도 쩌끔만 배우믄 다 헐 수 있는 일이어.

금륵[-늑] ㉠ 경력(經歷) ㉡ ㉢ ‘경력’.

금련[-년] ㉠ 경련(痙攣) ㉡〈의학〉 ‘금른[금느]금련[금년]’. 까닭 없이 근육이 수축하거나 떨리는 증세. ㉢금른. ㉣갑자키 눈까풀이 금련이 일맨서니 입이 들어가넌디 올마나 놀랜넌지 물러.

금른[-느] ㉠ 경련(痙攣) ㉡ ㉢ ‘금련’.

금 : 례[-례] ㉠ 경 : 례(敬禮) ㉡ 존중이나 공경의 뜻을 표하는 인사. ㉢금례를 헐라믄 똑떠기 히야지, 그계 머여? ㉣(자) 금 : 례-허다.

금로[-노] ㉠ 경로(經路) ㉡ 지나는 길이나, 일이 되어가는 과정. ㉢질이 여

럿인디 오면 금로를 택헐 건가?/유통금로가 원체 복잡서러니께 통 알 수가 읍어.

금 : 로[-노] ㉠ 경 : 로(敬老) ㉡ 노인을 공경함. ㉢른이서 금로 잔치를 은다넌디 갈 적이 나랑 하냥 가지.

금 : 로-당[-노-] ㉠ 경 : 로-당(敬老堂) ㉡ 노인들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집. ㉢내 나이가 칠십이 넘었넌디, 금로당이 나가믄 막내라닝께. 금로당이선 내가 머심이구 심부림 썩이어.

금륵¹[-늑] ㉠ 경륵(經綸) ㉡ 뜻을 펼치며 짜임새 있게 일을 계획하거나, 그러한 계획이나 포부. ㉢그 낭반은 금륵이 많으닝께 그 일두 말을 만혀.

금 : 룬²[-늑] ㉠ 경 : 룬(競輪) ㉡〈운동〉 일정한 규칙 안에서 자전거 타기를 겨루는 운동경기.

금리 ㉠ 경리(經理) ㉡ 회사나 단체의 회계, 금전 출납 따위의 일을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부서나 사람. ㉢금리를 하나 두야졌넌디 아년 사람 있으믄 소개해 주서.

금 : 마 ㉠ 경 : 마(競馬) ㉡〈운동〉 말을 타고 달리며 빠르기를 겨루는 운동경기. ㉣(자) 금 : 마-허다.

금 : 마-장 ㉠ 경 : 마-장(競馬場) ㉡ 경마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갖춰놓은 시

설물. ㉠일두 안 허구 **금마장**이서 살다가 집까장 다 날렸다. 마누라허구두 이 혼혔다너면.

금망-허다 ㉡ ㉢ 경망-하다(輕妄) ㉣(자) 언행이 진중하지 못하고 방정맞다. ㉠

금: 매 ㉣ ㉤ 경: 매(競賣) ㉥ ①사려는 여럿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매기는 이에게 물건을 팔. ㉠과실이나 채소나 다 설루 실어다가 **금매루** 냉긴다. ②<법률>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나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을 통해 파는 일. ㉠물건을 **금매**에 부치다. 집이 **금매루** 넘어가다. ㉣(자) **금: 매-되다**. (타) **금: 매-허다**.

금: 매-장 ㉣ ㉤ 경매-장(競賣場) ㉥ 경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금멸-허다 ㉣ ㉤ 경멸-하다(輕蔑-) ㉥ (타)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다. ㉤**금멸-허다**. ㉠그 사람이 돈점 불더니 우덜까장 읍시보구 **금멸허더면**.

금: 문 ㉣ ㉤ 경문(經文) ㉥<민속> 무당이나 판수가 푸닥거리할 때에 쓰는 사설. ㉠오티기 된 놈으 정쟁이가 **금문**을 외털 않넌다? 정은 안 읽구 정일 팽맥이만 두 디리구 있넌디, 저저 증각쟁이 맞어?

금물 ㉣ ㉤ 경물(景物) ㉥ 철에 따라 변화하는 경치. ㉠대둔산 **금물**이 그렇기 좋다더면. **금물**은 개빨, 바웃당이만 그득 현 산인디.

금미-허다 ㉣ ㉤ 경미-하다(輕微-) ㉥ 가법고 대수롭지 않다. ㉠큰 걱정했넌디 피해가 **금미허대서** 한 시름 놓구 있던 참이여.

금멸-허다 ㉣ ㉤ 경멸-하다(輕蔑-) ㉥ (타) ㉤'금멸-허다'.

금박-허다[-바커-] ㉣ ㉤ 경박-하다(輕薄-) ㉥ 언행이 조심스럽지 못하고 가법다. ㉠저 놈이 **금박허기**가 하늘을 찢르넌 놈이구면, /자네겜이 **금박헌** 사람 헌턴 일 못 맥기네.

금: 배 ㉣ ㉤ 경: 배(敬拜) ㉥ 공손히 절을 올림. 또는 부처나 신을 우러름. ㉣(자/타) **금: 배-허다**.

금범-죄[-죄] ㉣ ㉤ 경범-죄(輕犯罪) ㉥ <법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범죄. ㉠술 먹구 운전허넌 것은 **금범죄**가 아니여.

금보 ㉣ ㉤ 경보(警報) ㉥ 재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미리 알리는 신호. ㉠**금계금보**(警戒警報), **공습금보**(空襲警報), **재난금보**(災難警報), **금보기**(警報器), **대설금보**(大雪警報).

금: 보 ㉣ ㉤ 경: 보(競步) ㉥<운동> 빠른 걸음을 겨루는 육상 경기. ㉠**금보선수**(競步選手).

금: 복-궁[-궁] ㉣ ㉤ 경: 복-궁(景福宮) ㉥ 조선 태조 때의 궁궐.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말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

금부-선 ㉠ 경부-선(京釜線) ㉡ 서울
과 부산을 잇는 철도의 이름.

금비¹ ㉠ 경비(經費) ㉡ 어떤 일을 하
는데 쓰이는 돈. ㉢ **금비가** 넉넉할 앓으
님께 서루 애껴쓰더락 허자구.

금: 비² ㉠ 경: 비(警備) ㉡ 도난이나
사고를 막기 위하여 미리 살피고 지킴.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 또 위
편 일이 생길 중 몰르니께 **금비**를 단단
히 세야 혀. ㉣(타) **금비-허다**.

금: 비-대 ㉠ 경: 비-대(警備隊) ㉡
〈군사〉 경비 임무를 맡아 하는 부대.

금: 비-망 ㉠ 경: 비-망(警備網) ㉡
그물처럼 짜놓은 경비 조직.

금: 비-병 ㉠ 경: 비-병(警備兵) ㉡
〈군사〉 ‘금비병’**금비병**. 경비의 임무를
맡고 있는 병사.

금: 비-실 ㉠ 경: 비-실(警備室) ㉡
경비를 위해 설치해 놓은 방.

금: 비-원 ㉠ 경: 비-원(警備員) ㉡
경비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 ㉢ **요새**는
증년을 허른 **금비원**이루 추직을 많이
헌다더면. 근디 아파트 **금비원**두 아무
나 허넌 게 아니라.

금사¹ ㉠ 경사(傾斜) ㉡ 비스듬히 기울
어짐. 또는 기울어진 정도. ㉢ **금사가**
심헌디 오터기 올러갈 만허겄남? **금사**

가 그렇던 헌디 뒤서 심끗 밀어나 봐.

금: 사² ㉠ 경: 사(慶事) ㉡ 축하를 나
눌 만한 기쁜 일. ㉢ **자네** 큰애가 공무
원섭이 붙었다매? 그런 **금사**가 있넌디
입 싹 씻넌 겨?(그런 경사가 있는데 술 한
잔도 안 사는 거야?)

금사-면 ㉠ 경사-면(傾斜面) ㉡ ‘**금사**
-면〉**금사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면. ㉣
금사-면. ㉢ 이번 장마이 뒷산 **금사면**이
무너져 내려서니 뒷담배락까장 밀려왔
다니께.

금사-른 ㉠ 경사-면(傾斜面) ㉡ ㉢
‘**금사-면**’.

금: 사-럽다[-따] ㉠ 경: 사-롭다(慶
事-) ㉡ ㉢ ‘**금사-시럽다**’.

금: 사-시럽다[-따] ㉠ 경: 사-스럽
다(慶事-) ㉡ 좋은 일이 있어 즐겁고
기뻐할 만하다. ㉣**금: 사-스럽다**. ㉢ 동네서
판금사(判檢事)가 쌍이루 났이니, 이런
금사시런 일이 또 워딧다?

금사-지 ㉠ 경사-지(傾斜地) ㉡ 비탈
진 곳에 있는 땅. ㉢ **그런 금사지**를 뒹
터라 개간헌다? 이 **금사지**를 기단식(階
段式)이루 맹글어 쓰까 허구유. 그럼 들
꽤나 담배같은 것은 심을 수 있잖유.

금사-지다 ㉠ 경사-지다 ㉣(자) 한켠
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다.

금: 상-도 ㉠ 경: 상-도(慶尙道) ㉡

〈지명〉 우리나라의 남동부에 자리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금상도** 사람 옆이 가문 시끄러 못 살어. 살살 얘기혀두 될 것을 왜 그렇게 싸우뎡 험다? 금상도 물이 원래 그런 것을 오져. 앞소린 커두 뒷소린 읊넌 게 또 **금상도** 사램이잖어.

금색 〔**표** 경색(梗塞) 〕 〔**뜻** 원활하게 소통되지 아니하고 막혀버림. 〕 〔**동(자)** 금색-허다. 금색-되다. 〕 『자리가 **금색되**서 편털 앓더면./그리기 그 얘기는 왜 끄내서 분위길 **금색되**게 허냐구.

금: 서 〔**표** 경서(經書) 〕 〔**뜻** 옛 성현들이 남긴 유교의 경전, 곧 사서오경을 이르는 말. 〕 『**금서**를 팔팔 외넌디 대단혀. 시대가 조순시대두 아넌디 **금서**를 떨떨 외믄 뒗혀. 사람이 시대를 잘못 탸 거지.

금: 선 〔**표** 경: 선(競選) 〕 〔**뜻** 두 사람이 상의 후보가 나와 경쟁하는 선거. 〕 『회장을 뽑넌디 **금선**을 허면 시끄러닝께 한 사람을 추대허기루 허지. 아니 후보가 둘인디 **금선**을 히야지, 누굴 추대허구 누굴 떨어떠리자는 거? 〕 〔**동(타)** 금: 선-허다.

금세-치: 용 〔**표** 경세-치: 용(經世致用) 〕 〔**뜻** 학문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유교의 한 주장.

금-수필 〔**표** 경-수필(輕隨筆) 〕 〔**뜻**〈문학〉 일상생활과 관련한 경험과 생각을

가볍게 펼쳐낸 수필.

금: 순-왕 〔**표** 경: 순-왕(敬順王) 〕 〔**뜻**〈인명〉 신라의 마지막인 제56대 왕(재위 927~935)으로, 성명은 김부(金傅).

금: 시-허다 〔**표** 경시-허다(輕視-) 〕 〔**뜻**〈타〉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기고 낮춰보다. 〕 『**넘을 금시허**문 이우지가 금가구, 나를 **금시허**문 좃대가 무너지는 거.

금신 〔**표** 경신(更新) 〕 〔**뜻** 고쳐 새롭게 하거나,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 〔**동(자)** 금신-되다. 〕 〔**동(타)** 금신-허다. 〕 『우리 양궁 선수덜이 올림픽 기록을 전부 다 **금신**했다넌면.

금: 신 〔**표** 경신(庚申) 〕 〔**뜻**〈민속〉 육십갑자의 신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것. 〕 『**금신**는(庚申年) 원생이떠면 시방 땃 살인 거? **금신**생(庚申生)이믄 나버뎡 한참 아래여. 지우 환갑 냉긴 걸, 뒗.

금약 〔**표** 경약(驚愕) 〕 〔**뜻** 너무 놀라 소스라침. 〕 〔**동(자)** 금약-허다.

금: 애 〔**표** 경: 애(敬愛) 〕 〔**뜻** 받들어 우러르며 사랑함. 〕 〔**동(타)** 금: 애-허다. 〕 『스승을 **금애**허다./**금애**허넌 어버이 수령!

금: 어 〔**표** 경: 어(敬語) 〕 〔**뜻**〈언어〉 상대에게 공경의 뜻을 담아 하는 높임말. 〕 『으른헌티는 공손허게 **금어**를 써 버릇 히야 허능 거./즈런 무식쟁이가 **금어**가 뭇지나 알간?

금:연¹ ㄱ 景:연(競演) ㉸ '금:은>금:연'. 음악이나 연기 따위의 실력을 겨루름. ㉸금:은. ㉸극단 예춘이 충남 은극 공연대회(演劇競演大會)서 일등을 했다./자네 애가 노래 공연일 나간다면? ㉸금:연-허다.

금:연² ㄱ 景:연(慶宴) ㉸ '금:은>.

경영 ㄱ 景營(經營) ㉸ '금:은>경영'. 기업이나 사업을 꾸려 운영함. ㉸금:은. ㉸요즘은 농사두 다 경영이여. 금운기(耕耘機)만 끌구 땡겨서는 돈이 안 된다니까. ㉸(타) 경영-허다.

경영-권[-권] ㄱ 景營-권(經營權) ㉸ <경제> '금융권'경영권. 사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권리. ㉸금:은-권.

경영-난 ㄱ 景營-난(經營難) ㉸ '금융난'경영난. 사업체를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금:은-난.

경영-자 ㄱ 景營-자(經營者) ㉸ '금융자'경영자. 사업체를 관리, 운영해 가는 사람. ㉸금:은-자.

경영-학 ㄱ 景營-학(經營學) ㉸ <경제> '금융학'경영학'. 기업 경영에 관한 이론과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금:은-학. ㉸우리 애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단디두 추적을 못했어.

금:옥 ㄱ 景:옥(瓊玉) ㉸ 빛깔이 특별히 예쁜 구슬.

금:외 ㄱ 景:외(敬畏) ㉸ 공경하며 두려워함. ㉸(타) 금:외-허다. ㉸금:외-롭다.

금우 ㄱ 景우 ㉸ 사물의 이치나 사람의 도리. 또는 조건에 따른 상황이나 형편. ㉸나야 먹구 살만허니까 그렇지면 그 사람은 금우가 다르지./자넨 으른을 대허닌 금우두 몰르냐? 으른헌티 금우가 그러문 못 쓴단 말여.

금운-기 ㄱ 景運-기(耕耘機) ㉸ <농업> (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력을 이용하여 논밭을 갈고, 곡식의 운송과 탈곡 따위에 쓰이던 농업용 기계. ㉸농약을 친다구 금운기를 끌구 나갔단디 왜 이렇기 늦는다?

금:원 ㄱ 景:원(敬遠) ㉸ (논어의 '敬鬼神而遠之'에서 나온 말로)공경하되 가까이하지 않음. ㉸(타) 금:원-허다. ㉸증치가덜은 금원히야 혀. 고여니 따리 땡기다가 증치 걸물 들으문 엇배기 되기 딱이랑께.

금유¹ ㄱ 景유(經由) ㉸ 어느 곳을 거쳐서 지남. ㉸(타) 금유-허다. ㉸복잡시런 스올은 금유허덜 말구 강원도짜이루 쪽 빠지쥬.

금유² ㄱ 景유(輕油) ㉸ <화학> 원유를 증류할 때 등유 다음으로 얻어지는 기름. ㉸금유다가 시금을 올려붙여서니 요새 휘발유나 거진 비슷혀.

금: 의[-/이] ㉠ 경: 의(敬意) ㉡ 공경하여 받드는 뜻. 『묵념은 먼저 돌어간 애국열사들한테 **금의**를 표하던 거여.

금의-선[-/이-] ㉠ 경의-선(京義線) ㉡ <교통> 1906년 개설된,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 『**금의선**이 있어지야지. 통일이 얼릉 되야능 겨.

금이 ㉠ 경이(驚異) ㉡ 놀랍고 신기함. ㉢ 금이-허다. 금이-럽다. 『암이루다 죽었다 살아나님께 시상이 다 **금이**럽게 보더면.

금: 은¹ ㉠ 경: 연(競演) ㉡ 『금:연¹』

금: 은² ㉠ 경: 연(慶宴) ㉡ 『금:은>금:연』. 경사스런 잔치. ㉢ 금:연. 『칠순 **금은**을 헨다구 아랫동네 사람덜까장 죄다 불렀다야. 도야지두 돌이나 잡었다 너면.

금용 ㉠ 경영(經營) ㉡ 『금영』. 『손바당만헌 가게 하나 채려놓구 뭘 **금용**이라?

금용-권[-권] ㉠ 경영-권(經營權) ㉡ <경제> 『금영-권』.

금용-난 ㉠ 경영-난(經營難) ㉡ 『금영-난』.

금용-자 ㉠ 경영-자(經營者) ㉡ 『금영-자』. 『저 닥공장 **금용자**가 누구랴?

금용-학 ㉠ 경영-학(經營學) ㉡ 『금

영-학』.

금: 자 ㉠ 경자(庚子) ㉡ <민속> 육십갑자의 서른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것. 『내 동상이 **금자**생인디. 아버지가 큰장이 끌려가년 통이 짓두 지대루 못 먹구 컸어.

금작 ㉠ 경작(耕作) ㉡ 땅을 갈아 농사를 지음. ㉢ (자) **금작**-허다. 『이 독밭인 콩두 어려워. **금작**할 만헌 것은 들패배끼 읏다닝께./**금작**할 땅두 매런 못 허구 뭘 농사를 허겠다냐?

금작-권[-권] ㉠ 경작-권(耕作權) ㉡ <법률> 농사를 지을 권리.

금작-지[-찌] ㉠ 경작-지(耕作地) ㉡ 농사짓는 땅. ㉢ 금지. 『**금작지**야 소작을 은으른 되넨디, 오치기 농사는 저본 겨?

금: 장¹ ㉠ 경장(輕裝) ㉡ 간편하고 가벼운 옷차림. 『그렇기 화사헌 **금장**채림으로 워뭘 가능 겨? 나들이 가는 겨?

금: 장² ㉠ 경: 장(警長) ㉡ <법률> 순경의 위, 경사의 아래에 해당하는 경찰계급. 『이번 지서장이루 박 **금장**이 온다매? 그럼 이 **금장**은 오디루 가능 겨?

금: 쟁 ㉠ 경: 쟁(競爭) ㉡ 이기거나 앞서려고 겨루거나 다툼. 『**금쟁**을 헐라믄 너버디 나슨 놈덜허구 히야지. 왜 맨날 너버딤 못헌 놈덜허구 못똔 것만 **금쟁**을 허녕 겨? ㉢ (자) **금: 쟁**-허다.

금: **쟁-국** 冫 競 : 쟁-국(競爭國) 冫 어느 분야에서 서로 나은 위치를 겨루는 상대국.

금: **쟁-심** 冫 競 : 쟁-심(競爭心) 冫 남과 겨루어 이기고자 하는 마음. 冫 **금쟁심**이 늘 낮본 것만은 아녀. **금쟁심**두 집있어야 심두 나구 발준두 허넨 거랑께.

금: **쟁-자** 冫 競 : 쟁-자(競爭者) 冫 같은 목적을 두고 앞섬이나 승부를 다투는 사람. 冫 순서를 매기넨 일인 순의의 **금쟁자**란 읍넨 뱍이여.

금: **적** 冫 警 : 적(警笛) 冫 조심하라고 내는 소리. 또는 그런 소리를 내는 장치. 冫 동네서 누가 이렇키 **금적**을 울려 썬다?

금: **전¹** 冫 耕 : 전(耕田) 冫 논이나 밭을 갈. 또는 그런 논이나 밭. 冫(자) **금: 전**-허다. 冫 하춘부지를 **금전**헌다더면 거기 농사가 되까?

금: **전²** 冫 經 : 전(經典) 冫 '표준어화 과정: **금: 준**(**금: 전**)경전'. 종교의 교리를 담은 책이나 옛 성현들이 남긴 책. 冫(금: **준**). 冫 그 사람은 어려서버텨 **금전**을 줄 줄 썬 사람이여.

금: **경제** 冫 經 : 경제(經濟) 冫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소비, 분배에 관한 활동. 冫 수출 **경제**는 좋다지면 스민덜 **경제**는 응아니여.

금: **경제-력** 冫 經 : 경제-력(經濟力) 冫<경

제> 생산력이나 자본 등으로 경제 행위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 冫 **참** 좋은 사람인디 **경제력**이 읍어서니 문제지.

금: **조** 冫 吊 : 조(慶弔) 冫 경사스러움과 불행스러움.

금: **조-사** 冫 吊 : 조-사(慶弔事) 冫 좋은 일과 굿은 일. 冫 그 냥반 손거이 나온다구 **금조사**이 쫓어댁기너라 발바닥이 굿은살이 백였다.

금: **종** 冫 鐘 : 종(警鐘) 冫 위험을 알리는 소리. 또는 주의나 충고를 빔대어 이르는 말.

금: **주** 冫 走 : 주(競走) 冫 정해진 거리를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일. 冫 이번 **금주**는 보나마나여. 암체믄 퇴깅이가 거북이헌티 또 지겼남? 冫(자) **금: 주**-허다.

금: **주** 冫 州 : 주(慶州) 冫<지명> 경상북도 남동쪽에 있는 시. 옛 신라의 서울. 冫 **금주** 김가라구 빼기더면 **금주** 돌이라고 지두 옥돌인 중 아나 배.

금: **쫓-말**[-쫓-] 冫 競 : 주-마(競走馬) 冫 달리기 경기에 나가는 말. 冫(금: **주**마).

금: **중** 冫 重 : 중(輕重) 冫 가벼움과 무거움. 冫 일을 허두 **금중**을 개려서 히야지. 무턱대구 뽁비기만 허문 뽁 일이 되겠냐?

금: 존 ㉠ 경전(經典) ㉡ '금:전'.

『옛날 **금**은이래서 덜어나보니까 땀심 보감을 펼쳐놓구 있더라.

금증[-증] ㉠ 경증(輕症) ㉡ '경증'.

금지¹ ㉠ 경지(耕地) ㉡ 농사짓는 땅.

㉢금작지. 『스수지가 생겨 **금지** 증리덜 을 헨다구 난리더면 자넨 오쩨 쟈? 이, 나두 **금지** 증리 헨겠다구 구장헌티 신 충혔어.

금지² ㉠ 경지(境地) ㉡ 신체나 정신이 도달한 어느 정도. 또는 학문이나 예술 따위가 체계화된 범주. 『**금지**에 도달 허다./**금지**를 이루다.

금직 ㉠ 경직(硬直) ㉡ ①몸이나 근육 따위가 뻣뻣하게 굳음. ②마음이집이나 생각 따위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함.

㉢(자) **금**직-되다. (타) **금**직-시키다. 『긴장허른 몸이 **금**직되니까 땀 흔하게 먹어.

금: 진 ㉠ 경진(競進) ㉡ 물건이나 재 주의 우열을 서로 겨룸. 『**금**진대회. **금**진회.

금질 ㉠ 경질(更迭) ㉡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바꿈. ㉢(자) **금**질-허다. **금**질-되다. 『이번 사건이루 장관이 또 **금**질된다니.

금차 ㉠ 경차(輕車) ㉡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승용차. 『다들 차를 끌구 땡기넨디 나두 이참이 **금**차라두 하나

사까 히여.

금: 찰 ㉠ 경찰(警察) ㉡<법률> 국가의 공공질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금찰관'. 『무지른 사람이 맨날 **금**찰을 불른다니까. 벨일 아닌 것 이루다 불려두 요즘 **금**찰은 금방 달려 오잖어. 그러니까 허넨 말이 지는 **금**찰 이랑 친허다.

금: 찰-관 ㉠ 경:찰-관(警察官) ㉡ 경찰 업무를 맡은 공무원. ㉢금:관. 『흥 제 둘이 **금**찰관 섬이 붙었다더면. 그리 서 삼흥제가 점부 **금**찰관을 허게 됐다.

금: 찰-서[-써] ㉠ 경:찰-서(警察署) ㉡<법률>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의 하나. 『지서두 아니구 **금**찰서로 끌려간 거 보든 보통 일은 아닌 거.

금: 천 ㉠ 경:천(敬天) ㉡ '금:촌> **금**천'. 하늘을 우러러 받들.

금: 촌 ㉠ 경천(敬天) ㉡ '금천'.

금청 ㉠ 경청(傾聽) ㉡ '금충>금청'. 귀 담아 들음. ㉢금충. ㉣ **금**청-허다. 『어른이 말씀허실 적인 공손허게 **금**청히 야 쓰는 거.

금충 ㉠ 경청(傾聽) ㉡ '금청'.

금: 축 ㉠ 경축(慶祝) ㉡ 좋은 일에 축하함. ㉢ **금**:축-허다. 『가랭이 터진 집안이 애 생긴 게 뵈 **금**축할 일인가?

금: 축-일 ㉠ 경:축-일(慶祝日) ㉡

경사스러움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
 『십일절이 된 **금축일**이라능 겨?
금치 ㉾ 경치(景致) ㉿ 불만한 자연이
 나 세상의 모습. 『애를 두구 왔더니
금치두 눈이 뵈덜 얹여.
금: **칭** ㉾ 경: 칭(敬稱) ㉿ 상대를 높
 여 부르는 말이나, 그러한 칭호. 『**금칭**
 은 암디나 붙이넌 게 아녀. 그러다가니
 잘 허문 ‘아번님 대갈님이 검불님이 붙
 었다’ 허겼구먼. ㉾(자) **금**: 칭-허다.
금쾌-허다 ㉾ 금쾌-하다(輕快-) ㉿
 행동이나 기분 따위가 가볍고 상쾌하
 다. 『**금쾌**헌 노랏 듣구 있자님께 궁딩
 이가 제절루 들썩들썩허너면.
금: **탄** ㉾ 경탄(驚歎) ㉿ 놀라 감탄함.
 『이 사람덜아, 우덜이 시방 넘어 것
 츠다보매 **금탄**만 허구 있을 때가 아녀.
 ㉾(자/타) **금**: 탄-허다.
금판 ㉾ 경판(經板) ㉿ 인쇄를 목적으
 로 불경을 나무나 금속에 새겨놓은 판.
 『**판**만대장**금판**. **금판** 작업.
금포-대 ㉾ 경포-대(鏡浦臺) ㉿ 관동
 팔경의 하나로, 강릉시 경포에 있는 누
 각의 이름.
금: **품** ㉾ 경: 품(景品) ㉿ 거계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눠주는 물건
 이나, 모임에서 나눠주는 상품. 『**문**이
 안 갈 터? **금로**잔칠 허넌디 늙은이덜헌
 턴 다 **금품**을 준다.

금: **하-허다** ㉾ 경: 하-하다(敬賀-)
 ㉿(타) 공손히 축하하다.
금: **하-허다** ㉾ 경: 하-하다(慶賀-)
 ㉿(타) 기쁜 일을 축하하다. 『자네 아
 들이 **금사**(檢事)가 뵈다니 **금하**허네.
금학 ㉾ 경학(經學) ㉿ 유학의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 『**예**즌인 **금학**이다 심췌
 다지면 시방이야 누가 그걸 츠다보기나
 허남?
금: **합** ㉾ 경: 합(競合) ㉿ 서로 맞서
 겨룸. 『**조**합장 슌거이 후보자 **금합**이
 여간 아니랴. ㉾(자) **금**: 합-허다.
금향 ㉾ 경향(傾向) ㉿ 사상이나 행동
 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 또는 그리
 한 요인. 『이 일은 증치적인 **금향**이
 강히서니 넘덜이 오해힐 듯싶은디.
금향-신문[-양심-] ㉾ 경향-신문(京
 鄉新聞) ㉿ 1946년 천주교 재단 신문
 으로 창간되어 이어져 오는 일간 신문
 의 하나.
금험 ㉾ 경험(經驗) ㉿ ‘표준어화 과정:
금흥>**금협**>경험’. 몸소 보고 듣고 겪음.
 또는 거기서 얻은 사실이나 지식. 『너
 머 낙심 말구 비싼 **금험** 한 번 헛구나,
 그리 썬쳐./**금험**두 읍년 사람이 오딜
 나슬라능가? ㉾(타) **금험**-허다.
금험-담 ㉾ 경험-담(經驗談) ㉿ 『**금**
흥담’.

공험-담 ㉠ 경험-담(經驗談) ㉡ 몸소 겪어본 실제 이야기. ㉢공험담. ㉣이건 내가 실지루 겪어본 **공험담**이랑께.

공혈 ㉠ 경혈(經穴) ㉡ ㉢'공혈'.

공흘 ㉠ 경혈(經穴) ㉡<한의학> 땀을 뜨거나 침을 놓을 때 이용되는 14경맥(經脈)의 혈. ㉣**공흘**두 모르넌 사람이 댜 침쟁이라?

공: 호 ㉠ ㉡ 경: 호(警護) ㉢ 누군가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함. ㉣(타) 공: 호-허다.

공: 호-원 ㉠ ㉡ 경: 호-원(警護員) ㉢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 ㉣그런 놈 **공호원** 노릇이나 허구 멍기다니 네 신세두 참 깝깝허다.

공화 ㉠ 경화(硬化) ㉡ 딱딱하게 굳어짐. ㉢은화(軟化). ㉣(자) 공화-허다. 공화-되다. ㉣**간공화**(肝硬化). 동맥**공화**(動脈硬化). 신장**공화**(腎臟硬化).

공황 ㉠ 경황(景況) ㉡ ㉢'정황'.

공황-없다[-읍따] ㉠ ㉡ 경황-없다(景況-) ㉢ ㉣'정황-없다'. ㉣**공황없**넌 냥반을 왜 근디려쑤는 거?

공황-없이[-읍씨] ㉠ ㉡ 경황-없이(景況-) ㉢ ㉣'정황-없이'.

글-가쟁이[글까-] ㉠ ㉡ ㉢'절-가쟁이'. ㉣**글가쟁이** 너머 치털 말

어. 그렇기 막 치른 나중이 그늘이 안 생긴다냥께.

글-가지[글까-] ㉠ ㉡ ㉢'절-가쟁이'. ㉣**글**산이 가서 솔나무 **글**가지 점 쳐 뇌라. **글**이 땄라든 지금 쳐뇌야 혀.

글-가징이[글까-] ㉠ ㉡ ㉢'절-가쟁이'.

글-눈[글-] ㉠ ㉡ ㉢'절-눈'과 함께 두루 쓰임. ㉣**글**눈을 허문 녀털이 좋아허덜 얹여.

글-눈-질[글-] ㉠ ㉡ ㉢'절-눈-질'과 함께 두루 쓰임. ㉣**글**눈이 오해 허니께 들구 **글**눈질허지 말여.

글-눈-팔다 ㉠ ㉡ ㉢'절-눈-팔다'. ㉣**글**눈 **팔**년 놈은 나헌터 댜 통 혼구녕날 중 얹여.

글-다리[글따-] ㉠ ㉡ ㉢'절-다리'와 함께 두루 쓰임. ㉣**글**일을 헐라든 지대루 혀. 몸통은 녀두고 **글**다리만 처내든 뵈허난 말여?

글-들이다[글뜨리-] ㉠ ㉡ ㉢'절-들이다'와 함께 두루 쓰임. ㉣**글**비린내를 **글**앨라든 생강을 점 **글**들이든 좋은디 **글**으녕께 마늘이나 많이 놓으.

글-따르다[글-] ㉠ ㉡ ㉢'절-따르다'.

글-순 ㉠ ㉡ ㉢'절-순'과 함께 두루 쓰임. ㉣**글**순을 안 따 쑤터니 수

박은 안 열구 녀쿨만 응겨 붙었어.

-까 ㉠ -ㄹ까 ㉡ (종결) ①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 『우덜이 가두 되 까?/자가 오늘 따러 왜 저렇기 보채 까?/넬은 지초지나 뿌려보까? ②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으까. 『넬덜차람 나두 꾀뵤이나 내보까?/우덜두 하냥 가보까?/인저 집이루 가까?/춘디 불이라두 때까?

까닥² ㉠ 가탈/까탈 ㉡ '표준어화 과정: 까닥)까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휘방하는 짓. ㉢까탈. 『저 사람이 여까장 쫓아와서니 까닥을 피닌 까닥을 난 당채 몰르겠어.

까닥-내다[-당-] ㉠ 끝내다/결론을 내다 ㉡(자) '까닥(原因)+나-(出)+-이(접사)+-다'.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를 없애다'에서) 일이나, 결론, 판결 따위의 매듭을 짓다. 『까닥낼 일은 얼릉 까닥내구 마닌 게 좋은 겨./질질 끌 것 읍이 이참이 까닥내자./그 일을 연테 까닥내덜 못혔대남? 스둔다구 까닥날 게 아니라구 다덜 내남보살 허구 있던 모양이유.

까닥-시럽다[-씨-따] ㉠ 까다-롭다 ㉡ '까닥(軀)+-스럽+-다→까닥시럽다'. ㉢ '까탈시럽다'. 『그참 드롭게 까닥시러서 일 못허졌구먼. 아니, 뜯었다 붙였다 똑같은 일을 시방 몇 번채 허녕 거

냐구./그류. 너머 까닥시럽게 굴덜 말구 유. 왕간히 허셨으믄 그만 허시슈.

까닥-읏다[-다급따] ㉠ ㉡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 『까닥읏넌 짓점 그만허라구 허. 까닥읏다구만 허덜 말구 아헌티 신경 짐 썬 봐유.

까닥-읏이[-다급씨] ㉠ ㉡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가가 까닥읏이 그런 일을 허던 았혔을 겨./까닥읏이 뵤 돈을 내라능가?

까닥-피다 ㉠ ㉡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까다롭게 굴다. 『내 말은 다 끝난 일을 꼬잡어내서 까닥피는 까닥이 뵤난 말여. 시쳇말루다가니 어떤 놈 붙잡구 여서 까닥피덜 말구 말여. 까닥필 일 있으믄 느이집이나 가서 허란 말여.

까딱-읏다[-읍따] ㉠ 까딱-없다 ㉡ ㉢ '깨딱읏다'. 『이 정도믄 태풍이 불어두 까딱읏졌네.

까딱-허문[-따커-] ㉠ 까딱-하면 ㉡ ㉢ '깨딱허문'. 『넬 되준대가니 고여니 오해만 샀당께. 까딱허문 송장 치다 가막갈 뵤혔어.

까러지다 ㉠ 까라지다 ㉡(자) 기운이 없이 축 늘어지다. 『몸이 들구 까러지구 열이 나넌 걸 보닝께 암만히두 고쁠이 난내 벼./잔 왜 저렇기 기분이 까러진 겨?

까 : -무니다 ㉠ 까-뵤개다 ㉡ '까-脫



+아+문호-(壞)+다→까: 무느냐?)까: 무니다. 산이나 흙무더기 따위를 파거나 깎아서 무너지게 하다. ※'까무니다'와 '까몽개다': 현대의 국어사전에는 지역말 '까무느냐/까무니다'를 '까몽개다'의 같은 뜻의 말로 여겨 '까몽개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까서 무너뜨리다'의 '까무니다'와 '까서 몽개다'의 '까몽개다'는 엄연히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충청도에서는 '까몽개다'와 '까무니다'를 다른 말로 인식하며, 두 말을 구분하여 쓰고 있다. ♣ 기냥 함마루 까무니지, 백돌을 온제 하나씩 떼내구 있다?/고여니 배랍박 까무녀서니 일 치덜 말구유. 기냥 냅 뒤유.

까-몽기다 ㉠ 까-몽개다 ㉡(타) '까(脫)+몽개-(摩滅)+다→까몽기다(전설모음화). ①높은 곳의 흙을 짓이기듯 파 내리거나, 벽이나 담장 따위를 부수어 내리다. ㉠까몽개다. ㉡까무니다. ♣아, 이 사람아. 풍씨농구 까몽기년 짓을 머더라 허능 겨?/그 어덕배기는 뭘덜라구 까몽기는가?/넌이네 독담을 까몽겼으은 원상복굴 히놉알 것 아닌가 배? ②인격을 깎아내리다. ㉠까몽개다. ♣문즌이다 대구 날 그렇기 까몽긴 까닥이 대체 뭇이여?

까-부시다 ㉠ 까-부수다 ㉡(타) 속된 말로, 치거나 때려 깨뜨리다. ♣함마(해머)루다 까부시른 간단헐 걸 그렇기 지분거리구 있다?/일본군 높은 놈덜을 폭탄 한 방이루 까부신 게 윤봉길 의사여.

까수다 ㉠ ㉡(타) 무나 당근 따위를 길고 잘게 썰다. ♣널 짐장 혈라문 밤새 까쉬두 될까 말까 혀. 그러닝게 얼롱 무수나 까쉬. 판짓허다 손바당 다치덜 않게 허구.

-까유 ㉠ -르까요 ㉡(종결) '-까(종결어미)+유(높임보조사). ㉠ '-까'를 높여 이르는 말. ♣밥 점 먹어보까유?/지랑 하냥 노래허까유?

까탈-시럽다[-따] ㉠ 까다-롭다 ㉡ 성격이나 취향이 별스러워 비위를 맞추거나 다루기가 어렵다.

까토리 ㉠ 까투리 ㉡<동물> '표준어화 과정: 까토리>까투리'. 암컷 꿩을 이르는 말. ㉠쟁끼. ※1970년대 이후 '까투리'로 급속히 변화하여, 2010년대에 들어선 지금엔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확인됨. ♣'쟁끼는 풀쌔이다 머리만 감추고, 까토리는 풀쌔이서 머리만 내민다.'-장끼는 미련해서 쉽게 발각되고, 까토리가 약아서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의 관용어.

각쟁이[-쟁-] ㉠ 각쟁이/각지/껍질 ㉡<식물> ①도토리, 상수리 따위의 열매를 감싸고 있는 받침. ♣도토리 각쟁이는 말린 담이 따야 일이 쉬운 겨. ②씨앗을 덮고 있는 겉 부분. ㉠각쟁이. 각지. 껍데. 껍질. ♣각쟁이두 안 까구 콩을 찢 겨? 서리콩은 콩대채 찢서 각쟁이를 벗겨 먹으른 더 고소히유.

깍징이¹[-짱-] ㉠ 깍정어/깍지/깍질
㉡ <식물> ㉢ '깍쟁이'.

깍 : 징이²[-짱-] ㉠ 깍쟁이 ㉡ '깍쟁이→깍징이(전설모음화)'.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 ㉢ 그 삭시가 말은 곱게 하두 여간 꼬꼼헌 **깍징이**가 아녀.

깍 : -단[-똥] ㉠ 꼴-단 ㉡ 마소에게 먹일 꼴을 묶은 덩어리. 꼴지게에 얹힌 꼴의 덩어리. ㉢ **깍단**은 너머 크게 허문 무너지닝께 즉당히 히서 팍 조야야 혀.

깍 : -전[-쩨] ㉠ ㉡ ㉢ '깍:즌'.

깍 : -즌[-쯔] ㉠ ㉡ 한 아룸으로 안을 수 있는, 꼴의 단. ㉢ **깍:전**. ㉣ **깍단**. ㉤ **깍즌**을 그렇기 어슬렁허니 치니께 **깍**이 바수거리 옆이루 다 쏘어지능 겨.

깍짜지근 : -허다[-찌-] ㉠ 꺼림칙-하다 ㉡ ㉢ '꺄짜지근허다'의 작은말. ㉣ **꺄**뻤이 **꺄짜지근**헌디 머가 잘못된 건 질 몰르겠네.

깍쿠리² ㉠ 갈고리/갈고랑이 ㉡ ㉢ '갈구리'의 센말. ㉣ 구먹이 작으닝께 **꺄**쿠리루 느서 **꺄**내봐./가대기두 못허녕 게 **꺄**쿠리만 많으문 뵈헌다?

꺄뵈[-물] ㉠ 꺄박 ㉡ ㉢ '꺄뵈'. ㉣ 을 시어매가 올마 즈버텀 **꺄뵈꺄뵈** 잘 꺄꺄뵈넌디 이리다 노망드는 거나 아닌 지 격정되여.

꺄뵈-허다[-무터다] ㉠ 꺄박-하다

㉡ ㉢ '꺄뵈허다'. ㉣ **꺄뵈**허 것이 따루 있지, 이눔아. 그러구 보문 뇌 늙은 지 불알이 떨어져두 **꺄뵈허구** 못 챙길 늙이여.

꺄꺄-무소식 ㉠ 꺄꺄-무소식(無消息) ㉡ 아무 소식이 오지 않는 상태. ㉢ 그 사람 집 나간 지가 십넌디 **꺄꺄무소식**이구면. 죽었넌지 살었넌지 연락두 안 된다.

꺄꺄-허다 ㉠ 꺄꺄-하다(剛剛-) ㉡ ㉢ '꺄꺄허다'. ㉣ 그 냥반 꺄이루만 **꺄꺄**허지 들앗이른 병주거리여.

꺄 ㉠ 뚜꺄/뵈개 ㉡ 밥꺄루이나 향아리의 뚜꺄을 이르는 말. ㉢ **꺄**발꺄. 사발꺄./밥을 먹었으문 **꺄**를 뵈어놔야 허 것 아니여. 파리뵈이 뵈 **꺄**기문 오치꺄라구 **꺄**를 안 뵈어논나 말여./날이 구질 모양이니 얼롱 꺄치장꺄 **꺄**버터 뵈으야꺄다.

꺄 : -나다 ㉠ 꺄어-나다 ㉡(자) 잠이나 혼수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다. ㉢ 인저 술이 **꺄**나남?/증말 증신이 **꺄**난 겨?

꺄 : 다 ㉠ 꺄우다 ㉡(타) '꺄-+-이-(꺄사)+-다→꺄:다'. 잠든 사람을 부르거나 흔들어 잠에서 벗어나게 하다. ㉢ 밤새구 인저 막 잠들었으께 **꺄**뵈 말유./장꺄 눈 불일 텅꺄 못 일나문 **꺄** 꺄(꺄워 꺄)./쟈 꺄 오티기 **꺄** 뵈유.(저 애 줌어떻게 꺄워 뵈요.)

깨닥-깨닥 **ㄷ** 까닥-까닥 **ㄹ** ☞ '깨딱 깨딱'의 작은 말.

깨-덮다[-덮다] **ㄷ** **ㅇ** '깨(盒蓋/函蓋)+덮-(蓋)+-다'. 항아리나 그릇의 뚜껑을 덮다. **ㄱ** 밥이 식덜 얇게 깨덮어 요 맛이다 느나라.

깨딱¹ **ㄷ** 까딱 **ㄹ** ①고개나 손가락을 위아래로 조금 움직이다. **㉸**깨딱. **ㄱ** 넘어 다 일허넌디 송꼬락두 깨딱 앉구 넌 뭇허넌 늠이여? ②무엇이 흔들림 없이 버티다. **㉸**깨딱. **㉹**끄딱. **ㄱ** 바웃독이 올매나 지피 백였넌지 깨딱두 앉여.

깨딱² **ㄷ** 까딱 **ㄹ** 의도한 바와 달리 실수나 잘못된 상태. **ㄱ** 그러다가 깨딱 실수라두 허넌 날이른 우덜은 초상치는 겨.

깨딱-거리다[-꺼-] **ㄷ** 까딱-거리다 **㉸**(자) 고개나 손가락을 아래위로 끄덕이다. 또는 물체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어 자꾸 흔들리다. **㉸**깨딱거리다. 까딱거리다. **ㄱ** 이놈은 도가지가 왜 바루 서들 앉구 자꾸만 깨딱거리다?

깨딱-그리다[-끄-] **ㄷ** 까딱-거리다 **㉸**(자) ☞ '깨딱거리다'.

깨딱-깨딱 **ㄷ** 까딱-까딱 **ㄹ** 고개나 손가락을 아래위로 끄덕이는 모양. 또는 물체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어 자꾸 흔들리는 모양. (작은말)깨딱깨딱. **ㄱ** 차가 아까침버텀 깨딱깨딱 조넌 게 고뿔 지운이래두 있는개 빈디?/바웃덩이

가 깨딱깨딱은 허넌디 굴려지덜 앉너면. **㉸**(자)(타) 깨딱깨딱-허다. **ㄱ** 지는 일두 안 허매 송꼬락만 깨딱깨딱허넌디 미갈맞어 죽겼어.

깨딱-없다[-읍다] **ㄷ** 까딱-없다 **㉸** '표준어화 과정: 깨딱없다>까딱없다>까딱없다. 주변의 상황이나 힘에 흔들림이나 손상이 전혀 없다. **㉸**까딱없다. **ㄱ** 점 손해가 있긴 헛지면 아적겨정은 깨딱없어.

깨딱-허다¹[-커-] **ㄷ** 까딱-하다 **ㄹ** ☞ '깨딱'. **ㄱ** 송꼬락을 깨딱허넌디 그게 뭇 신호였던개 버./암만 사정히두 눈빛 하나 깨딱허지 않더라구.

깨딱-허다²[-커-] **ㄷ** 까딱-하다 **㉸** ☞ '깨딱²'. **ㄱ** 이겨 깨딱허다가넌 큰일나갔넌 걸.

깨딱-허문 **ㄷ** 까딱-하면 **ㄹ** 자칫 실수를 하거나, 일을 잘못하게 되면. **㉸**까딱허문. **㉹**자칫허문. **ㄱ** 깨딱허문 올 농사 망칠 뻔했다닝께./그 낭반 주정형 적인 근디리덜 말어. 깨딱허문 밤새 정친다닝께./지불 놓다가 바람이 불어서니 깨딱허문 산불 낼 뻔했다.

깨박 **ㄷ** **ㅇ** '깨-(破)+박(瓢)'. 일이 어그러지도록 휘방을 놓는 짓. **ㄱ** 어런 사람 돕던 못힐 망정 깨박을 허문 오쩌는가?/동네방네 깨박을 놓구 땡기다가 혼구녕이 났대너면./그런 사람은 깨박을 점 당히야 증신을 채린당께.

깨박-놓다[-노타] ㉠ ㉡ ㉢(자) '깨-(破)+박(擗)+놓-(放)+-다'. 일이 어그러지도록 휘방을 놓다. ㉠ 그런 깨박놓년 짓일랑 그만허구 땡겨./그렇기 깨박놓구 땡기다가니 온젠가는 크게 당힐 날이 있을 것이구먼.

깨치다² ㉠ 깨우치다/깨치다 ㉡(타) '깨-(覺)+-치-(강세접사)+-다'. 모르던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다. ※접사 '이'와 '우': 충청말에서는 '끼우다→끼:다. 세우다→세:다. 씌우다→씌:다. 일깨우다→일깨:다. 재우다→재:다. 치우다→치:다. 태우다→태:다'처럼 사동접사 '우'를 쓰지 않으므로 '깨우치다'란 말은 선택되지 않는다. ㉠ 핵겨 땡기년 늬이 연태 은문두 못 깨친 겨? 인저 1핵년인디 뉜 걱정이래유? 다 때 되믄 알아서니 깨칠 거녕께 가냥 냐뉜유.

깎이다 ㉠ 깎이다 ㉡(자) ①어떤 사물이 잘라지거나 베어내지다. ㉠ 장맛비루 논뚝이 깎여서니 새루 쌓야졌어./머리를 그렇기 잘브게 깎이믄 오편다? ㉠ 가봉굽이 깎여서니 어렵게 뉜다. ②두께나 액수 따위가 줄어든다. ③권력이나 지위가 낮아지거나, 명예 따위가 손상되다. ㉠ 구장 손겨서 떨어졌이니 치른(體面) 깎이게두 뉜지./느이 아배 낮 깎이뉜 앞게 조신허게 행동혀.

깟놈으-것[깟-건] ㉠ 그까짓 것 (구문) '그(이)깟짓 놈의 것→그(이)깟 놈으

것'의 준말. ㉠ 깟놈으 것 허다 보믄 워치기 되겠지./깟놈으 게 뉜 미섭대능가?

깟깟-허다 ㉠ 강강-하다(剛剛-) ㉡ ㉢ '깟깟허다'보다 쓰임 빈도가 아주 높다. ㉠ 그 늬은이는 나이가 팔십인디두 아직 깟깟혀./뉜은 늬구 빼짜 말렸어두 근력 하난 깟깟허다니께.

꺼칠다 ㉠ 거칠다 ㉡ 표면이 고르지 아니하다. (작은말)거칠다. ㉠ 알갱이뉜이 너머 꺼칠어서 안 좋구먼.

꺼칠어-지다 ㉠ 거칠어-지다 ㉡(자) 표면이 거칠게 변해가다. (작은말)거칠어지다. ㉠ 늬이러두 그렇지 살글이 너머 꺼칠어졌구먼.

깟뉜이[-뉜-] ㉠ 깟뉜기 ㉡ '깟뉜(戡)+-잉이/ㅇ이(접사)'. ㉢ '깟뉜'. ㉠ 이건 깟뉜이만 있구 속은 읏네그라.

깟속-그리다[-속꼬-] ㉠ 깟속-거리다 ㉡(자)(타) '표준어화 과정: 깟속그리다>깟속거리다>깟속거리다/깟속거리다'. 방정맞게 나대며 잘난 체하다. ㉠ 깟속그리다. ㉠ 또 깟속그리매 나대믄 그뉜 나헌티 진짜 죽넌다이./늬가 나슬 자리가 아니니께 깟속그리뉜 말어라.

깟속-깟속[-속-속] ㉠ 깟속-깟속 ㉡ 경망스럽게 까불어 나대는 모양. ㉠ 깟속깟속. ㉠ 안디서나 깟속깟속 나스믄 못 쓰넌 겨여.

깟속-대다[-속때-] ㉠ 깟속-대다 ㉡



☞ ‘꺾숙그리다’. 『그 사람 말여. 어제 또 잘난 책해매 꺾숙대다가니 된통 당혔다니께.

꺾줄[-쫄] ㉠ 꺾질 ㉡ ①부드러운 속을 감싸고 있는 딱딱하거나 질긴 켜. 『감자 꺾줄은 버리덜 말구 구정물이다 놓으라./암만 급히두 그렇지, 꺾줄두 안 뱉기구 먹으은 오쩌냐? ②핵심이 되는 알맹이가 빠져나간 상태. ㉢꺾질. ㉣꺾데. 꺾데기. 『그 사람 붕이루 땃달 뵈넌 동안이 꺾줄만 남었더라구./알맹이다 빠지구 꺾줄만 남은 일이 지가 머더러 발을 정그겼유?

꺾줄-데기[-쫄-떼-] ㉠ 꺾질 ㉡ 식물의 줄기에서 벗겨낸 꺾질. ‘꺾줄’을 속되게 이르는 말. ㉢꺾줄땡이. 『멍웃대(머웃대)는 버리덜 말여. 삶어서니 꺾줄데기 벗겨내구 무쳐먹으은 올마나 맛있넌디 그걸 버린다?

꺾줄-땡이[-쫄-땡-] ㉠ 꺾질 ㉡ ☞ ‘꺾줄데기’.

-꺾 ㉠ -르게 ㉡(종결) 모음이나 ‘르’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서,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으꺾. 『나는 이만 집이루 가꺾./널 생각히서라두 열심히 떠보꺾./빌려준 물건은 쓰구 얼릉 돌려주꺾./나 집이 점 얼릉 땡겨오꺾.

꺾-까닥시럽다[-따] ㉠ 꺾-까다롭다 ㉡ 성미나 취향 따위가 유별나고 까다롭다. ㉢꺾까드럽다. ㉣까다럽다. 『승격이 올마나 꺾까닥시럽진 그 비우 맞출라믄 복창이 터쥬.

꺾름-허다 ㉠ 꺾름칙-하다 ㉡ ☞ ‘꺾름찍지근허다’의 작은말. 『그렇기 꺾름허다맨서두 들구 그 일이 매댕기넌 까닥이 뵈질 통 물르겠다니께?

꺾름칙-허다[-치커-] ㉠ 꺾름칙-하다 ㉡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기분이 언짢다. ㉢꺾름허다. 꺾찍지근허다. 꺾름칙허다. 『냉장고다 뒤셔 괜찮다군 허더면 난 꺾름칙혀서 안 먹었어.

-꺾유 ㉠ -까요 ㉡(종결) ‘-꺾(종결어미)+유(높임보조사). ☞ ‘-꺾’를 높여 이르는 말. 『그런 건 헐 필요 읊다니꺾유./인전 열심히 일혀 볼 거라니꺾유./지는 방이 가서니 점 누꺾유(누울꺾유)./춤두 점 추꺾유.

꺾이다 ㉠ 꺾이다 ㉡(자) ‘꺾-(折)+-이(접사)+-다’. ①구부러지게 하거나, 구부러 끊어지게 하다. ㉢꺾이다. 『나뭇가징이가 많이 꺾였구먼./지계가 넘어가넌 통이 허리가 꺾였넌디 월매나 다쳤넌지 일나지두 못한다. ②기세가 누그러지거나, 방향이 바뀌어지다. ㉢꺾이다. 『지 엉아덜헌티 된통 당허구 기가 꺾여서니 인전 까불두 못혀./거진 질이 꺾여서 우험허니 조심히셔 운전혀.

꼬-깡이 ㉠ 곡-깡이 ㉡ <농업> 양쪽에
 뼈죽한 쇠붙이 머리를 붙여 단단한 땅
 을 파는데 쓰는 깡이. ㉢ 꼭깡이. 곡깡이.
 ㉣ 독땅이라 **꼬깡이**가 있어야 파겠네.

꼬꾸러-지다 ㉠ 고꾸러-지다 ㉡(자)
 ㉢ ‘고꾸러지다’의 센말. ㉣ 개머리판이
 루 뒤통수를 후려쳐서 앞이루 팍 **꼬꾸
 러졌넌디** 다신 일어스덜 못허더라. 그
 리서 오치기 뵈대유? 오치긴 되긴 뵈
 오치기 되여, 고자리서 죽은 거지. 그
 럼 지 당숙을 직인 거네유? 육이오 적
 인 두 패루 갈려져서 그런 일 많았어.

꼬누다 ㉠ 겨누다 ㉡ ㉢ ‘저누다/꼬누
 다’. ㉣ 날 **꼬누구** 작대길 쳐드는디 용
 빼닌 재주 있남? 뒤두 안 보구 디립다
 내뻬지.

꼬닥-지다[-찌-] ㉠ ㉡(자) ‘꼬닥(頂)+
 지-+-다’. 골짜기나 산등성이가 가파르
 게 높이 솟다. ㉣ 우염허구먼, 그 **꼬닥
 진** 디는 왜 올라갈라는 겨?

꼬두-머리 ㉠ 곱슬-머리 ㉡ ㉢ ‘곱실
 머리’.

꼬디기다 ㉠ 꼬드기다 ㉡(타) 부추겨
 무엇을 하도록 조종하다. ㉢ 꼬드기다.
 ㉣ 부치키다. 부치기다. ㉣ 왜 가만 있던
 앤 **꼬디겨서**니 일을 시핀 겨?워치기
 된 놈이 **꼬디긴다구** 훌딱 넘어간다니?
 /싫다년 사람 **꼬디겨** 뵈 허능가?/뵈 짓
 을 꾸미너라 동네 사람들을 **꼬디기**구

뵈긴다?

꼬락쟁이[-쟁-] ㉠ 꼬락서니 ㉡ 사
 물의 모양이나 됃뵈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꼬라지. 꼬락스니. ㉣ 허구 뵈기년
꼬락쟁이가 그제 뵈랴? 거렁뱅이뵈이
 성넌허겠네./**꼬락쟁이**가 그리 사나서야
 윈!/**꼬락쟁이** 그렇기 허구 뵈기년디 누
 가 널 좋아허겠어?

꼬로록-꼬로록 ㉠ 꼬르륵-꼬르륵 ㉡
 ㉢ ‘꼬록꼬록’.

꼬록 ㉠ 꼰뚜기 ㉡ 충청 남부, 서천 지
 역에서 많이 쓰는 말. ㉢ ‘꼰뚜기’. ㉣
 어저께 태안 친구네 갔다가니 **꼬록** 무
 지 잡었어유. **꼬록**이요? **꼬록** 몰라요?
 께깐헌 것이 짓도 담구 오징어차람 생
 긴 것 있잖어유. 아, 꼰뚜기요? 예, 꼰
 뚜기라고도 많이 허는데 즈이 동네서닌
 지금두 다 **꼬록**이라고 해유. 뵈이 서천
 이랬쥬?

꼬록-거리다[-꺼-] ㉠ 꼬르륵-거리
 다 ㉡(자) 허기가 저서 배에서 자꾸만
 끓는 소리가 나다. ㉢ 꾸룩거리다. ㉣ 그
 놈으 뵈고래인 그지가 들었나 쯤전이
 밥 먹구 왜 **꼬록거리**다?

꼬록 : -**꼬록** ㉠ 꼬르륵-꼬르륵 ㉡ 허
 기가 지거나 속이 거북할 때, 배가 끓
 으며 나는 소리. ㉢ 꼬로록꼬로록. 꾸룩꾸
 룩. ㉣ 배이서 **꼬록꼬록** 신호가 오넌디
 뵈 먹을 것 점 읊남? ㉡(자) **꼬록** : **꼬
 록**-허다. **꼬록** : **꼬록**-거리다.



꼬룩-젓[-쩨] [표] 꼴뚜기-젓 [표] 충남 남부, 서천 지역에서 흔히 쓰는 말. [표] ‘꼴뚜기젓’.

꼬맹이 [표] 꼬마 [표] ‘꼬마(?/幼兒)+-앵이(접사)’. ①어린이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표] 요 꼬맹이가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이뻐 죽겠어./그 꼬맹이덜을 데리꾸 오딜 가는감? ②몸집이 작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꼬모락지[-찌] [표] 뽀루지 [표] 살갓에 생긴 조그만 부스럼. [표] 꼬무락지. 꼬드락지. 부시럼. 뽀루지. 뽀드락지. [표] 콧잔딩이에 꼬모락지가 나서니 창피해 죽겠어.

꼬무락지[-찌] [표] 뽀루지 [표] [표] ‘꼬모락지’. [표] 꼬무락진 손이루 근디는 것 아녀. 들구 만져싸른 덧난다니께.

꼬백-이 [표] 꼬박-이 [표] ‘꼬박(始終)+-이(접사)’. 어떤 상태가 온전하게 지속되는 모양. [표] 꼬박. 꼬백히. [표] 그렇기 밤을 꼬백이 새문 낮인 오티기 전달라구려?

꼬백-히[-백히] [표] 꼬박-이 [표] [표] ‘꼬백이’. [표] 그 일을 허넌디 꼬백히 사흘이 걸렸어.

꼬셔-내다 [표] 꺾어-내다 [표] (타) ‘피스/코스-(誘)+-어-+내-(出)+-다→꺾서내다/꼬셔내다. 그럴 듯한 언행으로 상대를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내다. [표] 꺾서내다. 꼬여내다. [표] 아니 순진헌 앨 꼬셔내다가니 뭇 짓을 허능 겨?/꼬셔내넌 건

내가 혈 탕께 뒷책음은 느이가 저라이.

꼬소름 [표] [표] 고소함 [표] ‘고소름’. [표] 고놈 그드름만 피구 땀기더니 이번이 된통 당했더면, 아주 꼬소름이여.

꼬소름-허다 [표] [표] 고소하다 [표] ‘고소름’. [표] 꼬소름헌 냄새가 나넌디 이게 뭇 냄새라?/과자 맛이 참 꼬소름허구면.

꼬순-내 [표] [표] 고소한 냄새 [표] ‘고순내’의 센말. [표] 쟁지름이루 치나물을 점 무쳤더니 밥상이 꼬순내루 진동을 허너면유.

꼬스다 [표] 꺾 : 다 [표] (타) [표] ‘피스다’.

꼬여-내다 [표] 꺾어-내다 [표] (타) [표] ‘꼬셔내다’가 표준어화한 형태.

꼬잡-쟁이[-쟁-] [표] [표] ①꼬집기를 잘 하는 버릇을 지닌 사람. [표] 꼬잡쟁이. 꼬집쟁이. [표] 너같은 꼬잡쟁이허군 다신 안 놀 겨. 내가 왜 꼬잡쟁이여? ②남의 약점을 잡아 들춰내거나, 감정을 건드리는 버릇을 지닌 사람. [표] 꼬잡쟁이. 꼬잡쟁이. [표] 그 사람은 순 꼬잡쟁이여. 녀의 흠만 찾아댕기매 꼬잡어 썻넌디 미 깔맞어 죽겠다당께.

꼬잡-쟁이[-쟁-] [표] [표] 꼬집기를 잘 하는 사람 [표] ‘꼬잡쟁이’.

꼬쟁이¹ [표] 심술쟁이 [표] ‘꼬장(心術)+-이(접사)’. 공연히 남의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심술을 부리는 사람. [표] 저 꼬쟁이

는 근딜덜 말여. 술만 먹으면 아무나 붙들구 꼬장부린다니까.

꼬쟁이² ㉠ 꼬챙이/꽃이 ㉡ 물건 사이나 구멍에 꽃을 수 있는, 가늘고 길쭉한 나무나 쇠붙이 따위의 물건. ㉢꽃이. ㉣꼬챙이. ㉤꼬챙이. ㉥『광문 열리덜 얹게 꼬쟁이 점 꽃어놔라./꼬쟁이루 찢르넌 것차람 역꾸리가 뜨끔뜨끔허넌디 이게 뵈는 뵈이나 아닌가 몰르겠네?』

꼬지다² ㉠ 구질다 ㉡ 『꾸지다』의 유아어(幼兒語). ㉢『넌 왜 그렇기 꼬진 옷만 입구 땡기냐?/재차람 꼬진 애허군 놀지 말자.』

꼬질-허다[-지러-] ㉠ 구질다 ㉡ 『꾸질허다』. ㉢『인석아, 옷을 그렇기 꼬질허게 입구 땡기믄 넘덜이 승박./사람이 말여. 그렇기 꼬질허게 놀믄 못쓰능 겨.』

꼬집-쟁이[-쟁-] ㉠ ㉡ 꼬집기를 잘 하는 사람 ㉢ 『꼬잡쟁이』.

꼬 : 창 ㉠ 고추장 ㉡ 『꼬치장』의 준말. ㉢『가가 차다 싫구[실꾸] 가다가 꼬창 단지를 깨쳤다./장광이 가서니 꼬창 점한 보새기 퍼 와라.』

꼬창이 ㉠ 꼬챙이 ㉡ 『곳창이→꼬창이』 꼬챙이. ①가늘고 길쭉한 나무나 쇠붙이 따위의 물건. ㉢꼬챙이. ㉣꼬챙이. 꽃이. ㉤『시방은 다덜 꼬챙이라구 허넌디 이전인 꼬창이라 허넌 사람두 많았어. 그닝게 꼬창이나 꼬챙이나, 두재기(두터

지)나 두지기나 그게 그겨여. ②비쩍 마른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꼬창이. ㉥『즈내 뵈이 나서 뵈 있었다. 몸이 푹 꼬창이더라구.』

꼬치 ㉠ 고치 ㉡ 『고터→고치』꼬치. ①다 큰 누에가 실을 토하여 만든 집. ㉢뵈꼬치. ㉣『꼬치를 따다 말구 왜 섰은 집어뵈지는 겨? 그렇기 꼬치가 따기 싫으면 잠박이나 골르던가. ②벌레가 변태나, 알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집.』

꼭-괭이[-괭-] ㉠ 곡-괭이 ㉡ <농업> ㉢ 『꼬괭이』.

끈 : 다[-따] ㉠ 겨누다 ㉡ 『꼬느냐』가 줄어든 말. ㉢『그 한 놈만 끈구 있으면 더. 그 끈은 놈만 뉘달허문 다 나올 거라니까.』

꼴랑 ㉠ ㉡ 『꼴(尾)+-양/랑(접사)』. 머리카나 몸통이 아닌, 꼬리만큼. ※'지우, 제우, 고작'에 비해 쓰임 빈도는 낮다. ㉢『꼴랑 밧 한 고랑 매구서니 먼 큰일혔다구 놀리간다는 겨?』

꼴다[꼴타] ㉠ ㉡ 『활용형태: 꼴게[꼴게]. 꼴구[꼴꾸]. 꼴터럭[꼴터럭]. 꼴어[꼬러]. 꼴으니[꼬르니]』. 노름판에서 돈을 잃다. ㉢『타짜를 만나서니 가진 다 꼴구 말었유. 진짜유. 있던 돈 읍넌 돈 하나투 읍이 다 꼴었다니께유. 근디 화투만 치문 꼴어짜매 뵈더라 그걸 못 놓넌대유?』

꽃-자리[꽃짜-] ㉠ 마음-자리 ㉡ 『꽃

(花)+자리(席/所). (꽃이 맺혔던 자리에서) '생각이나 마음이 맺혀 있는, 심성(心性)의 근원'을 빗대어 이르는 말. ㉹마음자리. ㉺젊은 사램이 맘을 바르게 쓰야지 말여. 그렇기 **꽃자리**가 좁으믄 뭐가 되겠어?/그 사람은 **꽃자리**가 좁어서니 큰 일 못휴.

꽃자리가 좁다 ㉺(관용어)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가 웅졸하고 대범하지 못하다. ㉺사내가 **꽃자리**가 그리 **좁어서**니 뭇 일을 헌다?/그 **꽃자리** **좁은** 사램은 데려다 오따 쓸라구려?

공-것[-견] ㉺ 공-것 ㉺ '공꺼'.

공-꺼 ㉺ 공-것 ㉺ '공(空)+것(者)→공 것>공껏(경음화)/공꺼(음운탈락). 노력 없이 거저 얻은 것. ㉹공껏. 공꺼. 공껏. ㉺맨날 **공꺼**나 밝히던 너를 누가 좋아하겠냐? 참내, 시상이 **공꺼** 싫어하던 사램 있으믄 나와보라구 혀.

공 : -돈[-똥] ㉺ 공-돈(空-) ㉺ 노력이나 애씀 없이, 거저 생긴 돈. ㉺열 질 땅을 파두 땀은 한 푼 나오덜 앓는 뱀인디, 시상이 **공돈**이 워뎠겄냐? 다 대가가 있는 거니께 너머 **공돈** 좋아허덜 말여. 시상이 **공짜**를 좋아허문 대머리가 까지는 뱀이구, **공돈** 좋아허문 야중이 발목 찹히는 겨. 그런 중이나 알아.

꽤-소곰 ㉺ 깨-소곰 ㉺ 참깨를 볶은 뒤 빵아 가루로 만든, 고소한 양념. ㉺

손주눔더러 **볶이** 가서니 **꽤소곰** 점 개져와라 허닝께 소곰 주발을 들고 오더면./너무शल 무질 적인 **꽤소곰**이 점 들어가야 맛이 나녕 겨./꽤소 미갈맞인 늬이 혼나년 걸 보니께 **꽤소곰** 맛이더라구.

꽤속다리[꽤속다-] ㉺ 깃-단 ㉺ '꽤(荏)+속(速)+다리(脚). 깨를 떨기 위해 새끼로 줄기를 묶어세울 때, 다리처럼 묶어놓은 깨의 줄기. ㉹꽤속다리. 꽤단. ㉺**꽤속다리** 마당갓이다 세났다가 빼싹 말르믄 **볶이**루 달이야 혀./**꽤속다리** 퇴비장이다 냅버려. 말려 때두 되긴 허넌디 부셔진 건 썩혀서 거름이루 쓰능 게 더 실혀.

꽤 : 서-내다 ㉺ **꽤어**-내다 ㉺(타) ㉺'꼬셔내다'. ㉺맘 잡구 일허던 사람 **꽤서**낼 생각은 허덜 말여.

꽤 : 스타 ㉺ **꽤** : 다 ㉺(타) '꽤:스타 ㉺(:)스타>꼬시다>꼬이다'. 그럴듯한 언행으로 남을 부추겨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내다. ㉹**꽤**스타. **꼬**시다. **꼬**이다. ㉹**꽤**드기다. **꽤**디기다. ㉺모지란 사램잉께 주먹다짐 놓덜 말구 살살 **꽤서** 봐./그 고집 썩 늬을 먼 수루다가 **꽤**스다능가?

꾸덕-살[-쌀] ㉺ 굳은-살 ㉺ '구둔살'.

꾸레미 ㉺ 꾸러미 ㉺ '뿌리/꾸리-(藟)+-엄(접사)+-이(접사)→꾸러미/꾸레미)꾸

리미'. 한데 싸 묶은 물건이나, 그것을 세는 단위. 『가찬 디두 아니라매 먼 꾸레미를 그룽기 크게 허녕 저? 애덜 옷을 점 챙겼더니 꾸레미가 커졌유. 무건 거 아니닝께 걱정허덜 말유.

꾸루룩-꾸루룩 ㅍ 꼬르륵꼬르륵 ㅍ ㅍ루룩꾸루룩. 『꾸루룩꾸루룩 친동치년 소릴 허매 들구 배가 아프구 슬사를 허서 빙원일 갔더니 장념이라대.

꾸룩-거리다[-꺼-] ㅍ 꼬르륵-거리다 ㅍ(자) 허기가 저서 배에서 자꾸만 끓는 소리가 나다. ㉠꼬룩거리다. 『들구 꾸룩거리는 걸 보니께 저녁을 너머 먹었구면.

꾸룩 : -꾸룩 ㅍ 꼬르륵-꼬르륵 ㅍ 허기가 지거나 속이 거북할 때, 배가 끓으며 자꾸만 나는 소리. ㉠꾸루룩꾸루룩. ㅍ루룩꾸룩. 『속이 더부룩허매 꾸룩꾸룩 소리가 나던 게 암체두 먹은 게 잘못됐내 벼. ㅍ(자) 꾸룩 : 꾸룩-허다. 꾸룩꾸룩거리다.

꾸리 ㅍ 꾸리미 ㅍ 『쁘레→꾸리?』. 『꾸레미』. ※ 자립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실'과 함께 합성어를 이룬 '실꾸리'가 많이 쓰인다.

꾸리미 ㅍ 꾸리미 ㅍ 『꾸레미』가 전설모음화한 형태. 『배 고푸대서 다갈이나 쏘어 먹어라 헛더니 이놈이 한 꾸리미를 다 쏘어 먹었네.

꾸린-내 ㅍ 꾸린-내 ㅍ 『구룬내』.

꾸물덕-거리다[-떡꺼-] ㅍ 꾸물럭-거리다 ㅍ 『구물-(緩行)+-덕(접사)+거리다→구물덕거리다/꾸물덕거리다』구물럭거리다/꾸물럭거리다. 매우 굼뜨게 움직이다. ㉠꾸물덕거리다. 『야가 시방 해를 스산이 붙들어 댔나, 왜 이렇기 꾸물덕거리구 있는 저?

꾸물덕-꾸물덕[-떡-떡] ㅍ 꾸물럭-꾸물럭 ㅍ 게으르고 굼뜨게 몸을 움직이는 모양. ㉠꾸물덕꾸물덕. ㅍ(자) 꾸물덕꾸물덕-허다. 『꾸물덕꾸물덕허던 굼병이가 널 보몬 성님아우 허자 허겠다.

꾸엉 ㅍ 꿩 ㅍ 『꿩』.

꾸지다 ㅍ 구질다 ㅍ 『구질다→꾸질다(강음화)』꾸지다(꺾탈락). 생김새나 차림새가 볼품없고 지저분하다. ㉠꾸질허다. ㅍ질허다. (작은말)ㅍ지다. 『네 옷은 참 꾸지다./난 그렇기 꾸진 물건은 필요없네.

꾸질-꾸질 ㅍ 구질-구질 ㅍ 날씨가 사물의 상태가 지저분한 모양. ㉠꾸질꾸질. (작은말)ㅍ질ㅍ질. 『옷을 꾸질꾸질 후질른 거 보닝께 워서(어디에서) 또 흑장냥혔구면. ㅍ 꾸질꾸질-허다. 『갈비가 꾸질꾸질허게두 네리너면.

꾸질-허다[-지러-] ㅍ 구질다 ㅍ 『구질(不淨/險)+허--+다→구질허다』꾸질허다(강음화). 상태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지저분하다. ㉠구질하다. 꼬질하다/꼬질하다. 꾸지다. 꼬지다. 구질구질하다. 꾸질꾸질하다. 꼬질꼬질하다/꼬질꼬질하다. 『일이나구 참 꾸질하게두 히웠네./그 꾸질헌 늑헌티 붙어서 뭘 은어먹겠다던가?』

꿈-글[-플] ㉠ 꿈-결 ㉡ 꿈을 꾸는 동안, 또는 빠르게 지나는 시간. ㉢꿈결. 『인생은 무상한 겨. 한 바탕 꿈글이라닝께.』

꿩 : ㉠ 꿩 ㉡ <동물> ‘꿩→꾸엥’꿩:’. 꿩과에 속한 새. 『이 사람 장관 댁겨 온다더니 꿩 귀 먹은 소식이구먼.』

꿩 : -괴기 ㉠ 꿩-고기 ㉡ 식용할 수 있는, 꿩의 살. 『닭괴기 살이 왜 이렇기 빨경다? 이 사람아, 그건 닭괴기가 아니구 꿩괴기여. 먹어봐. 닭괴기 같잖게 신탈두 점 날 겨.』

꿩 : -다갈 ㉠ ㉡ ‘꿩(雉)+닭(鷄)+알(卵)’. 꿩의 알처럼 씨알이 작은 달걀. 닭이 처음 알을 낳을 때의 작은 달걀. ㉢꿩알. 『웬 꿩다갈이라? 봄이 봄아릴 쳄넌디 인저 알을 낳기 시작했구먼유. 짝긴 허지면 츠 난 것이라 먼침 잡쉬보시라구 개져왔유.』

꿩새 울다 ㉠ (구문) ‘잡으려고 하던 꿩이 울면서 이미 날아가 버렸다.’라는 뜻에서, ‘하러던 일이 이미 종료되어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어. ㉡황새 울다. 물 건너가다. 『꿩새 운 일이다 미련두덜 말어./그 일은 벌써 꿩새 울었어./꿩새 운 뒤서 발 굴르른 뭇한다?』

꼬끔-허다[-꼬퍼-] ㉠ 꼬끔-하다 ㉡ 『꼬끔허다.』 『두칸서 밋 안 셋치구나 온 것차람 왜 이렇기 몸이 꼬끔헌지 무르겼네.』

꼬시렁키 ㉠ 환삼-덩굴 ㉡ 『꼬시렁키.』 『꼬시렁키 어린 순을 따다가니 무쳐봤넌디 한 번 잡쉬보실 튜? 잉? 꼬시렁키두 무쳐먹는감?』

꼬시렁키 ㉠ 환삼-덩굴 ㉡ ‘꼬슬(荊棘)+-엥(접사)+-키(접사)→꼬시렁키/꼬시렁키. <식물> ‘가시가 달린 풀’이란 뜻으로, 흔히 뽕나무과의 한해살이 덩굴 풀인 환삼덩굴을 일컬음. 환삼덩굴은 길이가 2~3미터인데, 잎과 줄기에 작은 가시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 ㉢꼬시렁키. 까시렁키. 『꼬시렁키는 크기 전이 뽑어내야 허. 덩굴을 번기 시작허믄 감당을 못헌다니께./까시가 있긴 허지만 장갑 찌구 걷어오른 소나 퇴깁이는 꼬시렁키를 참 좋아허.』

꼬시레기 ㉠ 꼬뜨러기 ㉡ ‘끗(端/末)+-으러기(접사)→꼬스러기)꼬시레기/꼬시레기(전설모음화). ①물건의 끝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그 꼬시레긴 뉘다라 끌어달이는가? ②알맹이가 빠진 쓸모 없는 것. ㉢꼬시리기. 『알맹인 읍구 맨 꼬시레기만 남었네.』

꼬시리기 ㉠ 꼬뜨러기 ㉡ 『꼬시리기.』 『꼬시리긴 내가 칠 테니께 대충 큰 것만 골러봐.』

꼬잡어-내다 ㉠ 끌어 잡아내다 ㉡
(타) 끌어 잡아서 어느 지점 밖으로 나오게 하다. ㉢ 적가락이루 배차 속 버려지를 한 나절이나 **꼬잡어냈다**니까.

끈끼다[끈끼-] ㉠ 끊기다[끈키-] ㉡
(자) ㉢ ‘끊치다’.

끈나팔 ㉠ 끈나폴 ㉡ ‘값(紐)+아폴?→ 끈나팔)끈나폴/끈나폴’. ①길지 않은, 동강난 끈의 나부랭이. ㉢ 이불보 뜯은 **끈나팔**은 구락징이다 버려라. ②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나쁘게 이르는 말. ㉣끈나폴. ㉤저작때 **끈나팔** 헐 사람은 암만히두 자배끼 읍구면.

끈-내쟁이 ㉠ 끈 ‘끈내끼(紐)+-앵이(접사)→끈내쟁이’. 꼬아 만든 끈. ㉢ ‘끈내끼’를 훌하게 이르는 말. ㉣위치기 된 놈으 게 집안이 **끈내쟁이** 하나가 안 뵈는겨?/오디 가서 **끈내쟁이** 점 구히 와라.

끈덕-거리다[-꺼-] ㉠ 끈적-거리다 ㉡(자) ‘끈덕거리다)끈적거리다’. ①끈끈한 성질이 있어 자꾸 들러붙다. ㉢땀을 흘렸더니 몸이 **끈덕거리**서 등목 점 헐어. ②질기게 붙어 있으면서 귀찮게 하다. ㉣고연현 트집을 잡으매 **끈덕거리**던 통이 지가 애 점 먹었유.

끈덕-끈덕 ㉠ 끈적-끈적 ㉡ ‘끈덕끈덕)끈적끈적’. 끈끈한 것이 자꾸만 들러붙는 모양. ㉢ **끈덕끈덕**하다. ㉣정일 날이 짜니께 **끈덕끈덕**하니 환장허졌네.

끈덕-허다[-더커-] ㉠ 끈적-하다 ㉡
(자) ‘끈덕허다)끈적하다’. 끈끈하게 들어붙는 성질이 있다. ㉢엿이 **끈덕허터**락 끄스름허니 끓이야 혀.

끈치다[끈치-] ㉠ 끊기다[끈키-] ㉡
(자) 줄이나 실 따위가 동강나거나, 소통이 되지 아니하다.

끊끼다[끈끼-] ㉠ 끊기다[끈키-] ㉡
(자) ㉢ ‘끊치다’. ㉣**끊**긴 줄 점 얼릉 있어 보.

끌썩지근 : -허다[-찌-] ㉠ 꺼림칙-하다 ㉡ ‘끌썩지근허다’.

꿈뭇[-물] ㉠ 깜박 ㉡ 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 흐려지는 모양. ㉣꿈뭇. ㉤깜막. 깜빡. ㉥내 톱 개져올라구 헐넌디 **꿈뭇** 토방이다 빠띠리구 왔네. 내 증신 빼기가 이러니 이를 워쩐다.

꿈뭇-허다[-무터다] ㉠ 깜박-하다 ㉡
(자) 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 흐려지다. ㉣꿈뭇허다. ㉤깜막허다. 깜빡허다. ㉥미안혀. 내가 **꿈뭇허**구 못 개져왔구면.

꿈꿈-허다[-끄퍼-/끄끄퍼-] ㉠ 꿈꿈-하다 ㉡ ‘꿈꿈(多濕)+허다→꿈꿈허다)끄꿈허다)끄끄퍼다/끄끄퍼다(변자음화)’. ①물기가 남아 축축하다. ㉢지저구가 뽀송뽀송 말르덜 앓구 점 **꿈꿈허**구나. ②마음이나 기분이 물에 젖은 듯 개운하지 아니하다. ㉣**끄**꿈허다. ㉤자구 일났넌디 몸이 개운털 앓구 왜 이렇기 자운이



얕구 **얕얕하다?**

얕[곧] **얕** **얕** **얕** **얕** ‘곧/곧→얕/얕’. 사물이 나 일, 현상 따위의 마지막 지점. **얕**얕. **얕**이느무 일은 히두히두 **얕**이[끄시] 안 나너면./송곳 **얕**은[끄슨] 날카리니께 조 심혀./칼 **얕**을[끄슬] 점 같으야 쓰겼구 먼. ※충청말 ‘끄트머리/끄티머리’엔 ‘얕’의 형태가 분명하게 살아있지만, 단독형에서는 ‘얕’보다 ‘얕’이 주로 쓰인다.

얕-내[곧-] **얕** **얕**-내 **얕** **얕**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 **얕**얕내. **얕** 그 사람이 초장버텨 말썽이더니 **얕**내 일을 망쳐놨구나./말루는 골백번은 올 것차람 허더니 **얕**내 얼굴 한 번 디밀지 않너면.

얕 **얕** **얕** **얕** **얕** ‘끄떡>얕’. 고개나 손발, 막대기 따위를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 **얕**얕. **얕** 고집이 얼마나 썩지 옥허구 혼내싸두 **얕**두 않더라구./독덩이가 얼마나 무건지 들어볼라닝게 **얕**두 않더면.

얕-거리다[-꺼-] **얕** **얕**-거리다 **얕**(자)(타) 고개나 손발을 위아래로 세

게 움직이거나, 물체가 쏠리어 위아래로 세게 흔들리다. **얕**얕거리다. **얕** 고개만 두어 번 **얕**거리다 벨말 **얕**이 들어갔유.

얕-끼떡 **얕** **얕**-끼떡 **얕** **얕** 고개나 손발을 위아래로 세게 움직이는 모양이나, 물체가 쏠리어 위아래로 세게 흔들리는 모양. **얕**얕끼떡. **얕** **얕**끼떡 움직거리긴 허더면 바웃독이 원체 크닝게 위쩔 도리가 **얕**내 벼. **얕**(자)(타) **얕**끼떡 **얕**-허다. **얕** 고개는 **얕**끼떡허더면 알아들은 것 같든 얕여.

얕-얕다[-떠급따] **얕** **얕**-얕다 **얕** 주변의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다. **얕**얕얕다. **얕** 지등을 새것이루 바꿨이닝게 인전 십 년이 가두 **얕**을 규.

얕 **얕** **얕** **얕**(타) ‘얕이다>얕이다>얕이다(전설모음화)’. ①열을 가해 물을 끓게 하다. **얕**얕이다. **얕** 쇠죽 **얕**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오딜 갔다? ②격정으로 속이 타다. **얕**얕이다. **얕** 속이다 **얕**이 구 있딜 말구 선허게 애길히 봐.



-ㄴ **ㅍ** 에는 **ㅅ** **ㅅ** ‘이느’의 준말.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며,
보조사 ‘느’의 준말과 형태가 같음. **ㅍ** **ㅅ** **ㅅ**
안 가는 거?/어젠 왜 안 온 거?

-ㄴ **ㅅ** **ㅍ** **ㅍ** **ㅍ** **ㅍ** (종결) (구어체에서)
‘ㄴ’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의 어간 뒤에 붙어, 동년배나 아랫사람
에게 어떤 내용을 물을 때 쓰는 어미.
ㅅ **ㅅ** ‘-느ㅅ’. **ㅍ** **ㅅ** **ㅅ** **ㅅ** **ㅅ** **ㅅ**
감?/새약시가 그렇기두 **ㅅ** **ㅅ** **ㅅ** **ㅅ** **ㅅ**
은 바른ㅅ?

-ㄴ **ㅅ** **ㅍ** **ㅍ** **ㅍ** **ㅍ** (종결) ‘-
ㄴ가(의문형종결어미)+보-(推測, 보조동사
어간)+-구면(감탄형종결어미), -ㄴ가 보구
면→-ㄴ개구면→-ㄴ개군. ‘-ㄴ가 보구면’
의 준말로,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추
측을 느낌으로 나타낼 때 쓰는 말. (본
말) -가 보구면,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좋아하던개구면./먹을 만헌개구면./참
을 만헌개구면./소문난 부자가 저 사람

인개구면.

-ㄴ **ㅅ** **ㅍ** **ㅍ** **ㅍ** **ㅍ** (종결) **ㅅ** **ㅅ**
 ‘-ㄴ개구면’의 준말. **ㅍ** **ㅅ** **ㅅ** **ㅅ** **ㅅ** **ㅅ**
 개군./밥수갈이 큰 걸 뵈니 배가 되게
고팠던개군.

-ㄴ **ㅅ** **ㅍ** **ㅍ** **ㅍ** (구문) ‘-ㄴ가
비어’의 준말. **ㅍ** **ㅅ** **ㅅ** **ㅅ** **ㅅ** **ㅅ** **ㅅ**
 비어’의 준말. **ㅍ** **ㅅ** **ㅅ** **ㅅ** **ㅅ** **ㅅ** **ㅅ**
 개. **ㅅ**
 냥개 비.

-ㄴ **ㅅ** **ㅍ** **ㅍ** **ㅍ** (구문) ‘-ㄴ
가 봐유’의 준말. **ㅍ** **ㅅ** **ㅅ** **ㅅ** **ㅅ** **ㅅ** **ㅅ**
 간 오늘두 밤을 쉰
개 뷰(것인가 봐요)./가냥 냥들 개개
뷰(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봐요).

-ㄴ **ㅅ** **ㅍ** **ㅍ** **ㅍ** (구문) ‘-
ㄴ가 비다’가 전설모음화한 형태. **ㅍ** **ㅅ** **ㅅ** **ㅅ** **ㅅ** **ㅅ**
 암
체두 개가 낫던개 비다./개는 점 늦던
개 비다.

-ㄴ **ㅅ** **ㅍ** **ㅍ** **ㅍ** (구문) ①-ㄴ(어미)
것+이(서술격조사)+-어(의문형어미)→-ㄴ



것이어→-ㄴ 거여→-ㄴ 겨. 과거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낼 때 말. 『밥은 다 드신 것이여?→밥은 다 드신 겨?/벌써될 일난 겨? ②'-ㄴ(어미) 것+이(서술격조사)+-어(평서형어미)→-ㄴ 것이여→-ㄴ 거여→-ㄴ 겨. 과거의 사실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말. 『일이 그리 된 것이여.→일이 그리 된 겨여.→일이 그리 된 겨./그러니까 걱정할 것 한 개두 읍는 겨.

-ㄴ 규 ㄷ -ㄴ 거예요 (구문) '-ㄴ(어미)+것+이(서술격조사)+-어(종결어미)+유(보조사)→-ㄴ 것이유→-ㄴ 거유→-ㄴ 규. ㄷ '-ㄴ 겨' 『장이는 온제 땡겨온 것이유?→장이는 온제 땡겨온 것유?→장이는 온제 땡겨온 규?/원래 소문난 잔치인 먹을 게 읍는 규.

-ㄴ 다다 ㄷ -ㄴ다고 하다가 ㄷ(연결) '-ㄴ다고 허다가' 또는, '-ㄴ다고 했다 가'의 준말. 말한 바를 실행하거나 실행하려고 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짐을 나타내는 말. ㄷ -ㄴ다다가. -다다. -다다가. 『접밥 한 술 은어 먹넌다다 고여니 시간만 축냈구먼./깎버려 간다다 먼 심통이 났넌지 저렇기 주장저만 있네유.

-ㄴ 다다가 ㄷ -ㄴ다고 하다가 ㄷ(연결) ㄷ '-ㄴ다다. 『일 도와준다다가 고여니 오해만 샅구면유./일허려 간다가 이눔이 위드루 내뻘다?

-ㄴ 다다가니 ㄷ -ㄴ다고 하다가는 ㄷ(연결) '-ㄴ다고 허다가니' 또는, '-ㄴ다고 했다가니'의 준말. 말한 바를 실행하거나 실행하려고 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짐을 나타내는 말. ㄷ -다다가니. 『넌다 똠다다가니 독부리허구 부집었구면유./집이 간다다가니 왜 돌아온 겨?

-ㄴ 다다간 ㄷ -는다고 하다가는 ㄷ(연결) ㄷ '-ㄴ다다가니. 『공부를 한다다간 왜 그만둔 겨?

-ㄴ 다면² ㄷ -ㄴ다고 하면 (구문) ㄷ '-ㄴ다면².

-ㄴ 다문² ㄷ -ㄴ다고 하면 (구문) ㄷ '-ㄴ다문².

-ㄴ 다문² ㄷ -ㄴ다고 하면 (구문) ㄷ '-ㄴ다구 허문'이 줄어든 말. 『자네가 그리 말허다문 나두 열심히 허야지./니가 대학을 간다문 나야 좋지.

-ㄴ 다¹ ㄷ -는대 ㄷ(종결) ㄷ '-넌다'. 『누가 너를 도와주긴 도와준다?/저 많은 일을 온제 다 한다?

-ㄴ 다² ㄷ -는대 ㄷ(종결) '-ㄴ다구 하', 또는 '-ㄴ다구 혀'의 준말. ㄷ '-넌다². 『하냥 가재두 들구 고집피매지 혼쳐 간다./요센 일이 밀려서니 오밤중이나 되야 들어온다.

-ㄴ 뉘 ㄷ -ㄴ대요 ㄷ(종결) ㄷ '-ㄴ디 유²가 줄어든 말로, 상대에게 되물을

때 쓰는 말. 『모양이 볼수루기 이뿐
듀?/그 장맛이 오편듀?/맛만 존듀?

나 ㅍ 나이 ㅊ '나이'가 줄어든 말. ㉠
나이. ㉡낫살. 『올히 자네 나가 땃이
여?/가 나가 아매두 시물이 넘었지?/니
가 그러닝께 나가 서른이나 처먹구두 장
겔 못 드는 겨.

나꾸다 ㅍ 낡다 ㉠ 『나꾸다』의 이
형태.

나끄다 ㅍ 낡다 ㉠(타 '낡다/낡다→나끄
다'. ①무엇을 잡아 채거나, 낚시로 물고
기를 걸어 잡다. 『괴길 나끄다매 낚싯
대는 안 들구 가남? 지는 괴기는 나끄
지 앗구 옆이서 귀경만 혈 규./허년 짓
이 하두 미깁맞어서니 땃들밀 확 나꼈
더니 뒤루 벌러덩허더면. ②좋지 않은
수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에게
이롭도록 하다. 『표를 나끌래믄 사렘
덜이 편 디를 가야지 머더라 이런 한디
를 찾은 규?

나래 ㅍ 이영 ㉠ 『영』. 『나래를 튼
튼히 올리야 지병이 안 새는 겨./징일터
락 비비적그리서니 지우 나래 시 마름
속은 겨?

나뭇-그늘 [-문꼬/-묵꼬-] ㅍ 나무-
그늘 ㉠ '나무(木)+사+그늘(陰)→나뭇그늘
[나무꼬늘] (변자음화)'. 『나뭇그늘』. 『
나뭇그늘이 읍이니 담뻐 읍유라믄 촛막
(天幕)이라두 치야 허덜 앗겼냐?

나박-지[-찌] ㅍ 나박-김치 ㅊ 소금
과 고춧가루로 국물을 낸 뒤, 무와 미
나리, 당근, 배추 따위를 썰어 넣어 담
근 물김치. ㉡물김치. 멸국김치. 『나박
지가 슴슴허니 맛나구면./떡이 들구 메
넌디 선헌 나박지를 들이켰으믄 똑 좋
겼네.

나쁘다 ㅍ 나쁘다 ㉠ 『낫쁘다』.

나-안지다 ㅍ 나-았다 ㉠ ①떨쩍이
물러나 앉거나, 밖으로 나가 앓다. 『
으른덜 말썸 나누닝께 찌웃거리지 말구
저만침 나안져라. ②직장이나 살던 집
에서 쫓겨나다. ㉡들안지다. 『②사업이
잘못 되서 식구덜이 집 백이 나안지게
생겼다.

나 : -원 ㅍ ㅊ 『참내』. 『나원, 극
정두 팔자여. 아니, 넘덜은 있던 극정
을 델라구덜 히쌌넌디 넌 오치기 된 게
읍넌 극정까장 맹글어 허냐?

나 : -원참 ㅍ ㅊ 『참내』. 『나원
참, 내가 보다보다 너겔은 황소고집은
츄 본다.

나즌 ㅍ 나전(螺鈿) ㉠ 자개를 이용하
여 나무에 무늬를 넣거나 붙여 장식하
는 공예기법. 『나즌칠기(螺鈿漆器)』.

나 : -참 ㅍ ㅊ 『참내』. 『나참, 벨
시덤잖은 눈 땀이 한 나절 일만 축냈구면.

나-참내 ㅍ ㅊ 『참내』. 『나참내,
뭇 일이 요룽기 복잡시럽게 꼬였다냐?



낚이다 ㅍ 낚다 ㉸ '나끄다'. ㅍ 월척을 낚이다./금품(景品)을 미끼루 손님을 낚을라구 애쓴다./돈 많은 남자를 낚을라구 허넌디 니가 다리 점 놔줘.

난리-통[날-] ㅍ 전쟁 통 ㉸ '난리(亂離)+통(通)'. 전쟁이나 병란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전쟁통. 존장통. ㅍ 난리통이 퍼랭이 빨갱이가 따루 있었간? 그 난리통인 퍼런 거든 빨건 거든 완장 주른 기냥 차는 거여. 목심이 왔다갔다 허넌디 안 찰 사램이 누가 있어?

난쟁이 똥자루[-짜루-] ㅍ 난쟁이 똥자루 ㉸난쟁이처럼 키는 작으면서 살이 찢 사람을 놀려 이르는 말. ㅍ 원 참, 사람 인물이 읍다읍다 히두 오ტი기 그렇기 생겼다? 키는 쟈끄만 디다 살은 디룩디룩 쪼넌디 난쟁이 똥자루두 그버덤은 낫겼더면.

날개미² ㅍ 지느러미 ㉸〈동물〉 물에 사는 동물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지느레미.

날-게기 ㅍ 날-고기 ㉸ '늘(生)+고기(肉)→날피기(전설모음화)〉날게기(저모음화). 익히지 않은 고기. ㉸날피기. ㅍ 회한 점 허지 그러? 아녀, 난 날게기 못 먹어. 날게긴 땀두 꺾적지근허구 응 비우이두 안 맞구 그러.

날-괴기 ㅍ 날-고기 ㉸ '날게기'.

날르다² ㅍ 나르다 ㉸(타) '활용형태:

날르게. 날르구. 날르니. 날르더락. 날러. 일정한 곳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들거나 기구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다. ㅍ 무겁던 앉으니까 너두 하나씩 날러라./지 깐이는 날르다구 날르긴 허넌디 그게 하시월유(何歲月-). 그니까 원제 깃날 중은 암두 물류.

날-망 ㅍ ㉸ '날(勿)+망(望?)→날망(宗稜線)'. 하늘과 맞닿은 높은 지붕의 끝선이나, 꼭대기로 이어진 산등성의 끝선. 하늘과 맞닿은 높은 곳의 끝. ㉸날. 날맹이. 능선(稜線). ㉸꼬닥지. 꼭대기. 등생이. ㅍ 저 지붕 끝이 날차람 하늘이랑 붙어서 이서졌잖어. 저걸 지붕 날망이라구 쓰던 사람이 있었넌디 보통은 날맹이라구 히어.

날-맹이 ㅍ ㉸ '날(勿)+망(望?)+이(조사)→날망이〉날맹이(전설모음화)'. ㉸ '날망'. ㅍ 내가 젊었을 적이는 저 날맹이를 타구 맹기매 낭구를 허러 맹겼지. 그전인 지금차람 낭구가 흔허덜 안혔잖어.

날-바당 ㅍ 날-바닥 ㉸ '날바당'날바닥'. ㉸ '알바닥'.

날-베락 ㅍ 날-벼락 ㉸ '날브락'날베락'. ①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날브락. ㅍ 아니, 마른 하늘이 웬 날베락이 이렇기 미섭게 쳐싼다? ②뜻하지 않게 당하는 불행한 사고. ㅍ 혼사를 이틀 냉겨농구 교통사고라니, 시상이 이런 날베락이 또 워덧어? ③호된 꾸지

람. ♪ 너 허구 멩기년 꼬라지 보닝께
또 아버지헌티 날베락 맞겼다.

날-브락 ㉠ 날-벼락 ㉡ ≡ '날베락'.
♪ 날브락 맞을 소리 허덜 말구 그 입단
속이나 잘혀.

날창날창 ㉠ ㉡ '날(刃)+창(첩사)+날
(刃)+창(첩사)'. 얇고 날카로운 쇠붙이나
막대기, 가죽의 날이 탄력 있게 휘어지
는 모양. ♪ 출판이 얇어서니 날창날창
후여지년디 이걸 오터기 쓴다?

날창날창-허다 ㉠ ㉡ 얇은 물체의
날처럼 날카롭거나, 잘 휘어지는 특성
이 있다. ≡ '날창날창'. ♪ 뽕칼이 날창
날창혀서 송꼬락 비기 딱이구면./양복
이 낱어서니 등짝이 날창날창혀년면.

-남 ㉠ -나/-는가 ㉡(중결) '있다/없
다'와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물을 때 쓰
는 어미. ㉢-나. ♪ 시방두 놀구 있남?/
돈은 잘 부남?/밥은 먹구 사남?

낫[낫] ㉠ 낫 ㉡ '낫/낫→낫/낫'. 앞 얼
굴이나 체면. ㉢낫. ♪ 낫이다[나사대] 뿔
을 그렇기 발르구 멩기능 겨? 샴이 가
서니 얼릉 시수혀라./그 낭만헌틴 가가
잘못헌 게 원체 많어서니 낫을[나술] 들
구 찾아갈 수가 읍다.

낫-간지럽다[낫간-따] ㉠ 낫-간지럽
다 ㉡ 옆치가 없어 남 보기에 민망스럽
다. ㉢낫간지럽다. 낫간지럽다. ♪ 나두 치

면이 있년디 그런 낫간지럽 소릴 또 위
치기 한다?

낫-거죽[낫꺼-] ㉠ 낫-가죽 ㉡ 얼굴
이나, 얼굴의 살가죽. ㉢낫가죽. 낫거죽.
♪ 내가 낫거죽이다 출판을 깔구 멩기긴
허지면 그런 일꺼정은 못혀.

낫 : -믄[난-] ㉠ 낫-면 ㉡ 본 적이
있는 얼굴. 익히 아는 얼굴. ㉢낫면. ♪
그 사람 낫믄이 있긴 헌디 친허던 없이어.

낫-무르다[난-] ㉠ 낫-모르다 ㉡ 얼
굴을 모르다. 알지 못하다. ㉢낫무르다.
♪ 낫몰르년 사람이 와서니 아년 책을
허년디 참 난감허더면.

낫쁘다[낫쁘-/납뿌-] ㉠ 나쁘다 ㉡
'낫-(優/長)+-쁘-(否定, 첩사)+-다→낫쁘
다'나쁘다/나쁘다. 다른 것에 비해 질이
낫지 아니하거나, 해롭다. ㉢나쁘다. ♪
밥맛이 점 낫쁘더래두 뿔 술 떠 봐./근
강이 낫쁜 것을 왜 상이 올리구 그런다?

낫-빚[낫빚] ㉠ 낫-빚 ㉡ 얼굴에 나
타난 표정이나 기색. ㉢낫빚. ♪ 자네 낫
빚이[납뽀시] 왜 그려? 워디 아픈 겨?

낫-슬다[낫슬-] ㉠ 낫-설다 ㉡ 무엇
이 눈에 익지 아니하다. ㉢낫슬다. ㉣낫
익다. 낫익다. ♪ 낫슨 사람덜은 머더라
초대했대유?

낫-익다[난익따] ㉠ 낫-익다 ㉡ 사
람이나 사물이 눈에 익어 친숙하다. ㉢
낫익다. ♪ 낫익은 얼굴이긴 헌디 통 누



군지 생각이 나뉠 얹네유./즌화루 야그 만 히보사니 목소리 낫익지면 얼굴은 알덜 못유.

남국-그늘[-고-] ㉠ 나무-그늘 ㉡ '표준어화 과정: 남(木)+우(접사)+스+그늘(陰)→남긱그늘>남긱그늘(변자음화)>남국그늘(변자음화)>나긱그늘'. ㉢ '남긱그늘'이 변자음화한 형태.

남긱-그늘[-곤고-] ㉠ 나무-그늘 ㉡ '남긱그늘/남국그늘>나긱그늘'. 나무가 만 들어낸 그늘. ㉢나긱그늘. 나긱그늘. 남긱그늘. ㉣벧이[베시] 너머 뜨겁구면, 오디 남긱그늘이라두 들어가야졌다./우덜은 일 바빠 죽겼넌디 저눔덜은 남긱그늘서 바뉘관 찌구 신선놀음이나 허구 자빠졌구면.

남중 ㉠ 나중 ㉡ ㉢ '야중'. ※쓰임 빈도가 매우 낮다. ㉣그 일 남중이루 밀문 안되야.

낫-간지럽다[낫갠-따] ㉠ 낫-간지럽다 ㉡ ㉢ '낫갠지럽다'. ㉣고여니 거기 나섰다가니 낫갠지러 혼났어.

낫-거죽[낫꺼-] ㉠ 낫-거죽 ㉡ ㉢ '낫거죽'. ㉣낫거죽이 두껍다 두껍다 히두 그런 사람은 춤 봤다닝께.

낫:-면[난-] ㉠ 낫-면(-面) ㉡ ㉢ '낫면'. ㉣그 냥반 낫면을 술허게는 봐왔지만 그 속을 알던 못허겼더라구.

낫-무르다[난-] ㉠ 낫-모르다 ㉡ ㉢

'낫무르다'. ㉣가가 등치가 점 죽다구 낫무르구 댘뵈다가 은어터친 애덜이 참 많다.

낫-빋[낫뵈] ㉠ 낫-빋 ㉡ ㉢ '낫빋'. ㉣지가 바른 소릴 점 헛더니 대변이 낫빋이[낫뵈시] 달려지더면유.

낫-슬다[낫쓸-] ㉠ 낫-설다 ㉡ ㉢ '낫슬다'. ㉣오티기 낫슬구 물 설은 대처루 이사할 생각을 다 헛대유?

낫-개비[낫개-] ㉠ 낫개 ㉡ 가늘고 길게 쪼개진 사물의 하나하나. ㉢낫개. ㉣무신 냥구를 낫개비를 해갓구 온다?/성냥이 다 떨어지구 쓰두 못헛 낫개비만 뵈 남었군.

내리막-질[-짚] ㉠ 내리막-길 ㉡ ①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어진 비탈길. ㉢ 오르막질. ㉣비 끝이라 내리막질이 미끄러니께 조심덜 헛. ②높았던 기세가 약해지는 단계를 빧대어 이르는 말. ㉣열흘 가년 쫓 읍구 십년 가년 권세 읍다 짚여. 인전 이 장사두 내리막질 탄 겨.

내:-응 ㉠ 내:명(內命) ㉡ 비밀스럽게 내리는 명령.

내:-번지다 ㉠ 내:-버리다(圖)(타) '내-(出)+-어+번지-(棄)+-다.' 쓰지 않는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 따위를 버리다. ㉢넵버리다. 넵버리다. 넵뵈다. 넵버리다. 넵뵈다. 내뵈지다. ㉣하냥 간 사람덜은 워디다 내번지구 혼쳐 오능

규?/죽징이덜은 다 쓸어서니 퇴비장이
다 내번졌어.

내:-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 -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의 안쪽 벽. ㉠안북. 안벽. ㉡와:북. ㉢
외북버덤두 내북이 금이 간 게 더 불
안혀.

내-뻘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뻘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버리다 ㉠(타) ㉡ '내
번지다'의 센말. ㉢쓰서리힌 물은 저 수
챗구녕이루 내뻘지른 데.

내-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세우다 ㉠ '나-(出)+-
이(접사)+-어+서/스-(立)+-이(접사)+-
다. 어떤 일이나 어느 곳에 나서도록
하다. ㉢내셀 사람이 마뜩잖은디 이를
오쩨다?/우덜이 내세두 았았넌디 지맘
대루 나스 겨?

내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성(來姓) ㉠ 토박이 성이 아
닌, 마을에 새로 들어온 성씨. ㉡타승배
기. 타승바지. ㉢이 동네는 전주 이씨 집
성촌인가요? 아녀. 여긴 제주고씨 집성
촌이여. 지금은 전주 이가덜이 많이 사
넌디, 그건 해방 후이 모여든 내승이여.

내승-바지(來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승-바지(來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성바지 ㉠ '내
(來)+성(姓)+받-(受)+-이(접사). 집성촌
(集姓村)에 새로 들어와 사는, 다른 성씨
를 지닌 사람. ㉡내승배기. ㉢타승배기.
타승바지. ㉣그 박가는 내승바지라 이
동네선 심 못 씨.

내승-배기(來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승-배기(來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성바지 ㉠
'내승바지'.

내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외(內外) ㉠ '표준어화 과정:
내우/내외>내외'. ㉡남녀가 얼굴을 마주
보지 아니하고 피하는 일. ㉢내외. ㉣내
우두 춤 보던 사람허구나 허넌 거지.
맨날 보넌디 내우는 뭘 내우여? ㉤안사
람과 바깥사람. 남편과 아내. ㉥내외.
㉦내우가 옷을 짝악 빼입구 워덜 나가
넌디, 그집이 뭘 일 있는 겨?

내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외-간(內外間) ㉠ 남편
과 아내의 사이. ㉢내외간. ㉣암만 내우
간이래두 넘덜 보넌디 그렇기 손을 잡
구 땡기믄 오쩌냐?

내우지-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우지-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외지-간(內外之間) ㉠
남편과 아내의 사이. ㉢내외지간. ㉣
그 집안은 내우지간이 맨날 싸워싸. 원
제 보믄 웬수두 그런 웬수가 따루 읊다
니께.

내우-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우-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외-하다(內外-) ㉠
남녀가 얼굴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피하
다. ㉢내외허다. ㉣이전에 내가 일허던
집방이 자주 오던 여자가 있었어. 내동
잘 내우혔넌디 그날은 들구 눈질이 가
더라구.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넌디 그
눈이 참 이쁘더면. 그러서 워찌긴 뭘
워찌. 그냥 둘이 입때까장 사는 거지.

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내. ㉢내원, 시월
갈판이 뭘 비가 사흘을 내리 쏟넌다니?

내:-원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원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내. ㉢내원참.
일 못허넌 친구덜허구 땡기니께 사장이



나할라 그런 중 알구 일을 못 뻐기겠다.

내-참내 ㉞ ㉟ ㊱ '참내'. ㉞ 내참내, 살다살다 이런 드런 경우는 참 보너면.

낙엽-송[-송] ㉞ 낙엽-송(落葉松) ㉟ <식물> 소나무과에 속한 낙엽 교목. ㊱ 낙엽송. ㉞ 쓰두 못허넌 낙엽송은 뭐덜라 구 비는 겨? 장적이룬 벨루지면 낙엽송이 왜 쓸 디가 읍유. 단단히서 근조장 지등이룬 낙엽송만헌 게 읍넌 듀.

-냐 : ㉞ 내어 야 (구문) '내-(出)+어 (명령형종결어미)+야(앞선 명령이 강압적이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것임을 나타내는 감탄사)→내어 야→내 야'의 준말로, 명령문을 만든다. ㉞ 후딱 치우구 걷어냐.(빨리 치우고 걷어내.)/호랑이라는 것덜 얼릉 집어냐.(호주머니에 넣은 것들 얼른 집어내.)/성헌 것덜은 놔두구 못쓸 것덜이나 대충 골러냐.

너푸다 ㉞ 높다 ㉟ '활용형태: 너푸게. 너푸구. 너푸니. 너푸더락. 너피. 너피서'. ① 아래에서 위까지의 거리가 꽤 멀다. ㉞ 담부락을 머더라 너푸게 쌓는다? 담부락이 너머 너푸믄 자꾸 무너지기만 헌다 닝께. ②어느 기준보다 위에 있거나 세다. ㊱ 높다. 노푸다. 높다. ㉞ 천장은 너푸게 허덜 말어. 자고루다가 천장이 너푸믄 방이 축다구 헛잖어./너푼 자린 탐허덜 말어. 너피 올라갈수록 우염헌 뱀이여. ※'너푸다'와 '노푸다': 충청말에서 모음 '니'와 '고'는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져 변별

력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예전에는 '너푸다', '높다'가 주로 쓰였는데, 이것이 표준어화가 진행되는 현대에 이르러 '노푸다', '높다'로 바뀌었다.

너피 ㉞ 높이 ㉟ 높게. ㊱ 높이. ㉞ 너머 너피 올라가던 말어라./저 낭구이 너피 걸려있넌 게 뭐라? ㉟ 높은 정도. ㊱ 높이. ㉞ 저 근물의 너피를 점 재봐야겠다./이 정도 너피믄 충분헐 것 같은디.

-넌다다 ㉞ -는다고 하다가 ㉟(연결) ㊱ '-넌다다'. ㉞ 책 읽넌다다 잠만 자너면.

-넌다다가 ㉞ -는다고 하다가 ㉟(연결) ㊱ '-넌다다'. ㉞ 막대기루 등 굽넌다다가 상채기만 닳유.

-넌다다가니 ㉞ -는다고 하다가 ㉟(연결) ㊱ '-넌다다가니'. ㉞ 꿩 잡넌다다가니 자빠져서 다리만 뻗유.

-넌다다간 ㉞ -는다고 하다가는 ㉟(연결) ㊱ '-넌다다가니'. ㉞ 느이 술은 어먹넌다다간 정월 한 달 붙잡어 매겼다.

-넌다면¹ ㉞ -는다면 ㉟(연결) ㊱ '-는다면¹'.

-넌다면² ㉞ -는다고 하면 (구문) ㊱ '-넌다면²'.

-넌다문¹ ㉞ -는다면 ㉟(연결) ㊱ '-는다문¹'.

-넌다문² ㉞ -는다고 하면 (구문) ㊱ '-

‘-넌다문²’. 『먹넌다문 채려 주야지, 벨 수 있간유?』

-넌다문¹ ㉠ -는다면 ㉡(연결) ㉢ ‘-는다문¹’과 함께 쓰임 빈도가 높은 말. 『내 그 도둑놈을 잡넌다문 가냥 냅두덜 았을 겨.』

-넌다문 ㉠ -는다고 하면 (구문) ㉢ ‘-넌다구 허문’이 줄어든 말. 『위쩌졌냐? 식구덜이 먹넌다문 구찮어두 히야지.』

-넌대야 ㉠ -는대야 ㉡(연결) ‘-넌다구 하야야’의 준말. ㉢ -는대야. 『그 사람이 먹넌대야 올라나 먹넌다구 그리쌌넌다?』

-넌다¹ ㉠ -는대 ㉡(종결) 놀람이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을 담아,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말. ㉢ -는다. -나다². 『저 미서운 개를 누가 잡넌다?/누가 뇌 꼰 뺏어먹넌다?/즈넉밥을 왜 혼져 먹넌다?』

-넌다² ㉠ -는대 (구문) ‘-넌다구 하’, 또는 ‘-넌다구 혀’의 준말로, 다른 이의 말을 상대에게 전할 때 쓰는 말. ㉢ -나다². -는다². 『배깁이선 애덜헌티 맨날 은어터지구 멩기넌 늬이 집안이선 지 동상덜을 삭 잡넌다./날마두 술만 퍼쌌넌다.』

-넌디유 ㉠ -는데요 ㉡(종결) 뜻밖의 사실에 놀람, 또는 상대에게 어떤 사실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

미 ‘-넌디’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유’가 붙어 이루어진 말. ㉢ -는디유. -나다유. 『이것두 먹다봉께 참 맛 있넌디유?/가보두 았언 질을 오치기 아넌디유?』

네-로다 ㉠ 내려-오다 ㉡ ‘네리-(降)+-어+오-(來)+-다-세려오다가 줄어든 말. (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다. 『위편쪽은 가냥 냅두구 일루 네랴./싸게 네로라닝께 뿔덜 허녕 겨?/산이서 네로다가 보닝께 그 냇방 산 밑이서 뿔 캐구 있넌디?/쟈 점 얼릉 네로라구 혀./멀쩡헌 사람이 멧허라 시골루 네롤라구 허겼남? (타) 물건을 위쪽에서 아래로 옮겨오다. 『깁짐을 지구 비알질을 내로다가 오여져서니 톱 죽넌 중 알었어.』

네리다 ㉠ 내리다 ㉡(자) ①어떤 물체에서 물건이 밖이나 아래로 옮겨지다. 『빠스서 네려 걸어갔다. ②무엇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다. 『눈이 네려 교통이 마비되였다. (타) 무엇을 아래로 옮기거나, 수치를 낮추다. 『차이 실린 짐을 네리겨라./물건 갑을 짜끔 네렸더니 사람덜이 찾아오더면./살을 점 빼서니 흘압을 네리아겼어.』

네모-다랴다[-라타] ㉠ 네모-지다 ㉡ ‘네모(四角形)+다랴-(접사)+-다’. 생김새가 네모나다. ※표준어에서 일부 형용사의 어근에만 붙는 ‘-다랴다’가 예산말에서는 일



부 명사 뒤에도 붙어 쓰인다. 『판판허구 네모다란 큰 독이 필요헌디, 오디 읍을 라나?/메주 점 네모다랗게 맹길랬더니 왜 들구 똥구렇게 맹기년 겨?』

노 : 라-지다 ㉠ 노 : 래-지다 ㉡(자)
 ㉢ ‘뇌래지다’. 『끓이다가 물이 노라지
 른 건디긴 근져내야.』

노로꼬롬-허다 ㉠ 노르꼬롬-하다 ㉡
 ‘노르-(黃)+ㅅ+~고롬-(접사)+허-(접
 사)+~다→노로꼬롬허다/노로소롬허다. 사
 물의 빛깔이 매우 노란 듯하다. ㉢노로
 소롬허다. (큰말)누루꾸롬허다. 누루수롬허다.
 『때깔이 노로꼬롬헌 것이 참 이뿌구나.』

노로소롬-허다 ㉠ 노르소롬-하다 ㉡
 ㉢ ‘노로소롬허다’. 『누리미를 너머 두
 껍게 부치닝께 걸이는 노로소롬허니 먹
 음직한 디 속이는 들 익년구먼.』

노릿-노릿[-린-린] ㉠ 노릇-노릇 ㉡
 사물의 군데군데가 매우 노르스름한 모
 양. ㉢누릿누릿. 『차미가 노릿노릿 먹
 음직허게 익어가너면. ㉣ 노릿노릿-허
 다. 『꺼멧게 태지 말구 노릿노릿허문
 건져내어.』

노릿-허다[-리터-] ㉠ 노릇-하다 ㉡
 빛깔이 노란 듯하다. ㉢노로꼬롬허다. 노
 로소롬허다. 『보리감자는 관 불이다가
 구믈 까맣게 타닝께 췌불이다가 구야
 노릿하계 잘 익년 겨.』

노푸다 ㉠ 높다 ㉡ ㉢ ‘너푸다’. 『그

노푼 낭구 꼬닥진 머더라 올라간 겨?/
 그 산은 노푼기두 허지면 보통 흠허덜
 았다.』

놀 : -바탕[-빠-] ㉠ 놀이터 ㉡ 널찍
 하여 놀기에 알맞은 곳. 『여서 놀덜
 말구 집짜이 놀바탕이 있으닝께 급짜이
 루 가서 놀어라. 거긴 놀바탕이 쪼어서
 재미없유.』

뇌랄다[-타] ㉠ 뇌랄다 ㉡ 아침 해의
 빛깔처럼 누르거나, 부황난 얼굴처럼
 핏기 없이 누르게하다. ㉢노랄다. (큰말)
 누렁다. 뇌렁다. 『뇌랑긴 헌디 모가는
 서릴 맞아야 향이 좋은 겨./얼굴이 뇌
 랑게 뜬 걸 보닝께 밤 췌구먼.』

뇌 : 래-지다 ㉠ 노 : 래-지다 ㉡(자)
 빛깔이 노랗게 되다. ㉢노래지다. 노라지
 다. ㉣뇌래지다. 누래지다. 『그놈이 그
 빙변을 당허구 얼굴이 뇌래지년디 혼져
 보긴 참 아깝더면.』

뇌리끼리-허다 ㉠ 뇌리끼리-하다 ㉡
 사물의 빛깔이 노란 듯하다. ㉢뇌리끼리
 허다. (큰말)누리끼리허다. 뇌리끼리허다.
 『뇌리끼리헌 이것이 뭇 죽이랴? 뇌리
 끼리헌 것이 호박죽빼끼 더 있겠유?』

복이다 ㉠ 복이다 ㉡(타) ①어떤 것을
 물처럼 되게 하다. 『언 생선을 복이두
 았구 구믈 안 더. 곁은 타구 속은 들 익
 년다닝께./손 씻으라닝께 손은 안 씻구
 비누만 복이구 있구먼. ②상한 감정이

나, 추위로 굳어진 몸을 풀어지게 하다.
『춘다 서 있덜 말구 얼릉 일루와 몸
점 **복여라**. ③반하도록 흘리다.

복하다[뇌키-] ㉞ **복이다** ㉞(타) ㉞
‘복이다’. 『기껏 사온 아이스계끼를 왜
덜 안 먹구 **복하능** 겨?

누디기-지다 ㉞ **누더기가 되다** ㉞
(타) ‘누디기(襤褸)+지-(爲)+-다’. 옷이
불품없이 헤지다. 『**누디기**진 옷을 내
다 버리야지 머더러 끌어안구 **하능** 겨?

누 : 러-지다 ㉞ **누 : 레-지다** ㉞(자)
㉞ ‘**누래지다**’. 『정일 담뱃 따다 손을
씻으니까 대얏물이 **누러지더면**.

누루꾸름-허다 ㉞ **누르끄름-하다** ㉞
‘**노르/누르-(黃)+스+고름/구름(접사)+허
-(접사)+-다**→**누루꾸름허다/누루수름허
다**. 사물의 빛깔이 매우 누른 듯하다.
㉞**누루수름허다**. (작은말)**노로끄름허다**. **노
로소름허다**. 『**숫** 밥이 **누루꾸름허게** **뵈**
네. 이참이 **누른밥**이나 **끓어야**겠다.

누루딩딩-허다 ㉞ **누르뎡뎡-하다** ㉞
‘**누루-(黃)+--뎡뎡/딩딩+허+-다**. 사물
의 빛깔이 고르지 않게 누런빛이 나다.
『저 **냥반** 얼굴이 **누루딩딩헌** 게 **암만**
봐두 황달 걸렸네 **벼**.

누루수름-허다 ㉞ **누르스름-하다** ㉞
㉞ ‘**누루꾸름허다**’. 『바랜 **것차람** **때깔**
이 왜 이렇기 누루수름허다?』**옷이 누루
수름헌** 게 **암체두** **짧으야** **쓰겠구면**.

누르딩딩-허다 ㉞ **누르뎡뎡-하다** ㉞
(자) 고르지 않게 누르께하다. (작은말)
노르뎡뎡허다. 『**위쨌** **빛깔이** **고르덜** **않
구 누르딩딩허다?**

누릿-누릿[-릴-릴] ㉞ **누릇-누릇** ㉞
사물의 군데군데가 매우 누르스름한 모
양. ㉞**노릿노릿**. ㉞**누릿누릿-허다**. 『**넙
덜** **눈은** **다 누릿누릿헌디** **저** **눈이** **베
덜은** **왜** **흐얏다?** **저** **눈은** **춘수답이**
닝께 **암체두** **냉헬** **입은** **모양이**
구면.

누비-퍼대 ㉞ **누비-포대기** ㉞ **얇게**
숨을 **넣은** **뒤** **누벼서** **만든** **포대기**. ㉞**누
비퍼대**. ㉞**홀퍼대기**. **홀퍼대**. ※‘**누비퍼
대**’가 **줄어든**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누비퍼
대**’가 선택되어 쓰임. 『**메****누리헌디** **애**
가 **들어섰**넣디 **누비퍼대**라두 **준비**
해 **놔야**
잖겠넣?

눈-갓[-깁] ㉞ **눈-가** ㉞ ‘**눈(眼)+**갓**(邊
→**눈갓**)**. 눈의 가장자리로, 양쪽의 눈꼬
리 부분. ㉞**눈가**생이. 『**눈갓**이 **주름**
이 **오**로로 **허니** **자****네헌디**두 **시월(歲月)**
이 **가**긴 **가**년구면./**눈갓**이 **왜** **통**
통 **분** **겨?**
또 **싸**운 **겨?**

눈 : -뎡이[-뎡-] ㉞ **눈 : -덩이** ㉞
㉞ ‘**눈덩이**’.

눈 : -덩이[-뎡-] ㉞ **눈 : -덩이** ㉞
눈이 뭉쳐진 덩이. 『**눈**사람을 **맹글**
라 **믄** **눈덩**일 **굴**리야지, **삽**이루 **떠**서니 **어
느** **시월**이 **큰** **눈덩**일 **맹**근다?



눈-몽티기 ㉾ 눈-몽치 ㉿ ㉿ ‘눈몽팅이’.

눈-몽팅이 ㉾ 눈-몽치 ㉿ ㉿ ‘눈몽팅이’. ㉿ 눈몽팅인 머더라 방안이루 들구 오능 겨?

눈-몽티기 ㉾ 눈-몽치 ㉿ ‘눈(雪)+몽턱(切塊)+이(접사)’. ㉿ ‘눈몽팅이’. ㉿ 눈몽티길 밀구 땡기년 것 보닝게 눈사람을 맹글 모양이구먼.

눈-몽팅이 ㉾ 눈-몽치 ㉿ ‘눈(雪)+몽턱(切塊)+이(접사)→눈몽팅이’ 눈몽팅이’. 눈을 몽쳐 만든 덩어리. ㉿ 눈몽팅이. 눈몽티기. 눈몽테기. ㉿ 손 시러닝게 장갑이 래두 찌구 눈몽팅일 맹길거라.

누렇다[-타] ㉾ 누렇다 ㉿ 익은 곡식이나 나뭇잎처럼 누르거나, 핏기 없이 누르께하다. ㉿ 누렇다. (작은말)노랗다. 뇌랗다. ㉿ 눈밭 곡석덜이 누렇게 분해가년 걸 보닝게 갈두 짙어가너먼.

누 : 레-지다 ㉾ 누 : 레-지다 ㉿(자) 빛깔이 누렇게 되다. ㉿ 누레지다. 누러지다. ㉿ 노래지다. 뇌래지다. ㉿ 하얀 옷을 누레지더락 입구 땡기른 오편다니?

누리끼리-허다 ㉾ 누리끼리-허다 ㉿ 사물의 빛깔이 누른 듯하다. ㉿ 누리끼리허다. (작은말)노리끼리허다. 뇌리끼리허다. ㉿ 얼굴이 누리끼리헌 것이 암만히두 그 사람 큰 분났내 벼.

누비-피대 ㉾ 누비-포대기 ㉿ ㉿ ‘누

비피대’.

넙히다[누피-] ㉾ 넙히다 ㉿(타) ‘넙-(臥)+-히(접사)+-다→넙히다>넙히다’. 넙게 하다. ㉿ 애를 뺏듯이 넙히야지. 그 령기 넙히른 오치긴다?/애가 졸려서니 칭얼대년 거닝게 넙히덜 말구 구침어두 장관 업구 올려주야겠다.

느덜-거리다 ㉾ 너덜-거리다 ㉿(자) 여러 가닥으로 늘어져 흔들거리다. ㉿ 현수막이 바람이 찢어져 느덜거린다.

느덜-대다 ㉾ 너덜-대다 ㉿(자) ㉿ ‘느덜거리다’.

느덜-느덜 ㉾ 너덜-너덜 ㉿ 여러 가닥이 늘어져 흔들리는 모양. ㉿ 심발 뒷꿈치가 느덜느덜 다 닳아번졌다.

느덜느덜-허다 ㉾ 너덜너덜-허다 ㉿(자) 어떤 사물의 여러 가닥이 늘어져 흔들리다. ㉿ 개가 물어뜯어서니 새 운동화가 느덜느덜해졌다.

느 : -놓다[-노타] ㉾ 넣어 놓다 ㉿(타) ‘놓-(擲)+-어+놓-(放)+-다’. 어떤 사물을, 어느 공간 속에 있도록 놓다. ㉿ 그건 워따 느놓구 쥘일 찾는 규? 그리기, 잘 느논다구 느논 게 응 생각이 나덜 않너먼.

느 : -두다 ㉾ 넣어 두다 ㉿(타) ‘놓-(擲)+-어+두-(置)+-다’. 어떤 사물을, 어느 공간 속에 있도록 하다. ㉿ 버리기 아까워서니 귀작이다 느둔 건디 쓸 디

가 생겼구먼./그 펜진 자네가 점 오따
잘 느두게.

느릿느릿 :-허다[-신-시 : 터-] **㉞**
느릿느릿-하다/느긋느긋-하다 **㉞** **㉞**
'느릿허다'. **㉞** 이 사람아, 하늘이 무너
지남? 땅이 꺼지능 겨? 그렇기 급허게
히봤자 숨만 차능 겨. 팔다리 피구 기
지개두 써보구, 숨두 고르매 느릿느릿
허게 일덜 허. 그계 오래 일허년 요령
이여./말허년 것두 느릿느릿허구 생각
허년 것두 느릿느릿허니 속 몰르년 넘
덜은 으유(餘裕)러서 좋다지면 말유. 맨
날 옆이서 츠다보년 나는 속이서 천불
이 나유.

느지막-히[-매키] **㉞** 느지막-이 **㉞**
'느지막히+-이(접사)'. 일반적인 시간보
다 매우 늦게. **㉞** 느지막히 은은 자석인
디 왜 안 구엽졌남?/일 바쁘덜 앓으닝
께 아부진 느지막히 나오셔두 되유.

-는감 **㉞** -는가 **㉞**(종결) (구어체에서)
'있다/없다'와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물
을 때 쓰는 어미. **㉞**-는가. **㉞**'-는가와
'-는감'의 차이점: '-는가'는 상대방 외에
화자 자신에게 물음을 던질 때도 쓸 수 있
지만, '-는감'은 상대에게 물을 때에만 쓸
수 있다. **㉞**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감?(X) **㉞**가진 게 그것배끼 읊는
감?/시방두 노렐 허는감?/으르신은 잘

기시는감?

-는다다 **㉞** -는다고 하다가 **㉞**(연결)
㉞ '-나다다'. **㉞** 땅을 짚는다다 독헌터
다쳤유.

-는다다가 **㉞** -는다고 하다가 **㉞**(연
결) **㉞** '-나다다'. **㉞** 닭을 잡는다다가
닭장만 부신 겨?

-는다다가니 **㉞** -는다고 하다가 **㉞**
(연결) **㉞** '-나다다가니'. **㉞** 나물을 삶
는다다가니 워덜 간다?

-는다다간 **㉞** -는다고 하다가는 **㉞**
(연결) **㉞** '-나다다가니'. **㉞** 공부를 현
다다간 왜 그만둔 겨?

-는다면¹ **㉞** -는다면 **㉞**(연결) **㉞** '-
는다면¹'.

-는다면² **㉞** -는다고 하면 (구문) **㉞**
'-는다면²'.

-는다문¹ **㉞** -는다면 **㉞**(연결) **㉞** '-
는다문¹'.

-는다문² **㉞** -는다고 하면 (구문) **㉞**
'-는다문²'.

-는다문¹ **㉞** -는다면 **㉞**(연결)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㉞**-나다문. -
나다문. -나다문. -나다문. -넌
다문. -넌다문. -넌다문. **㉞**그 사람이 죽
는다문 지가 뭇 낙이루 산대유?/늑가
내 일을 가리막는다문 나두 가만있던



- 않을 겨.
- 는다문**² ㅁ -는다고 하면 (구문) ‘-는다구 허믄’이 줄어든 말. ㉸-는다문. -는다면. -는다믄. -는다문. -는다면. -는다면. ㉹너 혼자만 집이 남는다믄 우리가 편히 놀러갈 수 있겠냐?
- 는다**¹ ㅁ -는대 ㅁ(종결) ㉸ ‘-는다’. ㉹이 늦은 시간이 누가 날 찾는다?
- 는다**² ㅁ -는대 (구문) ‘-는다구 혀’, 또는 ‘-는다구 혀’의 준말. ㉸ ‘-는다’. ㉹그 낭반두 뜰 날이 머잖았내 벼. 요 짐은 죽두 못 먹는다.
- 는다유** ㅁ -는대요 ㅁ(종결) ㉸ ‘-는다유’가 줄어든 말로, 쓰임 빈도는 낮다. ㉹아줌닌 그걸 오티기 알게 됐는다?/그 사램을 쳐보두 앓구 워치키 아는다유?
- 는다유** ㅁ -는데요 ㅁ(종결) ㉸ ‘-는다유’의 이형태. ㉹아줌닌 그걸 오티기 알게 됐는다유?
- 늘쿠다** ㅁ 늘리다/넓히다 ㉸(타) 공간이나 크기를 늘어나게 하다. ㉸늘리다. ㉸넓히다. ㉹올업닌 맨날 बात 늘룬다고 (넓힌다고) 뜨징이(火田)만 허구 있유./ 살

- 림살이 늘쿠년(늘리는) 게 말차람 쉽다남?
- 니** ㅁ 에 ㅁ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부사격 조사. ㉸ ‘이’의 이형태. ㉹어제니 느이집이 먼 일 있었어?(어제 너의 집에 무슨 일 있었니?)/어제니 너 오디 있었어?(어제 너 어디 있었어?) 어제니 난 쫓일 집이만 있었넌디, 왜 그러?
- 니는** ㅁ 에는 ㅁ ㉸ ‘이는’의 이형태. 시간을 나타내며,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는다. ㉹어제니는 참 일헐 맘 안 나더면./먹을 때니는 판청부리믄 못 쓰는 겨./졸릴 때니는 점 서가맨서 니 히야지.
- 니라**¹ ㅁ -니라 ㅁ(종결) ‘가다/오다’ 동사에서,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라. ㉹핵겨 잘 땡여오니라./중간이서 놀덜 말구 후딱 집이루 오니라./장판만 집이 땡여가니라.
- 니라**² ㅁ -느라 ㅁ ㉸ ‘-니라’. ㉹증신음이 오니라 꺾막혔구면유./뺏일 허니라 놀러갈 새가 읍어.
- 닌** ㅁ 엔 ㅁ ㉸ ‘니는’의 준말. ㉹어제닌 뵈허구 지냈남?



-다다 ㉸ -다고 하다가 ㉸(연결) ㉸
 ‘-ㄴ다다’. ㉸ 그 일을 혼쳐 다 **헨다다**
 저렇기 몸살이 나베린 규.

-다다가 ㉸ -다고 하다가 ㉸(연결) ㉸
 ‘-ㄴ다다’. ㉸ 공볼 **헨다다가** 애덜이 불
 르닝께 백이루 톡 터나갔유.

-다다가니 ㉸ -다고 하다가는 ㉸(연
 결) ㉸ ‘-ㄴ다다가니’. ㉸ 그걸 혼쳐 다
 먹졌다다가니 냉기긴 왜 냉긴다?/일을
 잘 히보졌다다가니 왜 맴이 틀어진 겨?

-다다간 ㉸ -는다고 하다가는 ㉸(연
 결) ㉸ ‘-ㄴ다다가니’. ㉸ 핵겨를 멩기
 다다간 왜 안 멩기는 겨?

단-쑤수 ㉸ 단-쑤수 ㉸ ‘단쑤갱이’.
 ㉸ 이전인 주전부리가 원체 구였으닝께
 단쑤수만 혀두 환장했지.

단쑤-갱이 ㉸ 단-쑤수 ㉸ <식물> ‘달
 -(甘) +-ㄴ+쑤수(黍)+-갱이(접사)’. 단맛
 이 나는, 벳과에 속한 한해살이풀. ㉸ 단

쑤수. ㉸ **단쑤갱이**는 이삭이 패야 벳 먹
 능 겨. 다 크두 앓은 **단쑤갱이** 비려서니
 맛이 읍다닝께.

단출-허다 ㉸ 단출-하다 ㉸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홀가분하거나, 차림이 복잡
 하지 아니하다. ㉸ 애덜 다 커 나가 사닝
 께 인전 서방이랑 **단출허게** 살유./이건
 음식상이 **단출헌** 게 아니구 찬이 읍년
 것이여.

달래 ㉸ 다르게/달리 ㉸ ‘달르-(異)+
 애(접사)→달래)달리’. ①(다르게). 일의 진
 행이나 상황이 같지 않게. ㉸ 가두 양복
 을 채려입으닝께 사람이 **달래** 보이더
 면./**달래** 불라두 **달래** 볼 수가 읍어, 그
 놈은. ②(달리) 다른 까닭이 있어서. 다
 른 뜻이 있어서. ㉸ 달리. ㉸ **암만히두 달
 래** 빼죽헌 방법이 떠올르덜 앓더면./내
달래 그런 것이 아녀./**달래** 현 말두 아
 닌디 왜덜 오헬 혀구 그런다?/내가 **달
 래** 화를 낸 게 아녀.



달치근-허다 ㄱ 달착지근-하다 ㄴ 음식이 단맛이 조금 있다. (큰말)달치근허다. ㄷ 달치근허다. 달착지근허다. 들착지근허다. ㄹ 물집치가 너머 **달치근허니** 맛이 선허덜 앓구먼.

달치다 ㄱ ㄴ 너무 달아 입안이 타고, 뱃속에 뜨거운 기운이 있다. ㄹ 꿀을 뱃수갈 퍼먹었더니 입이 **달쳐** 못 전디겠어. 너머 **달쳐서니** 뱃속까장 얼얼허구 똑 죽겼구먼.

달큰-허다 ㄱ 달착지근-하다 ㄴ 음식이 단맛이 조금 있다. (큰말)달큰허다. ㄷ 달치근허다. 달착지근허다. 들착지근허다. ㄹ 무수 맛이 **달큰허구** 선허구먼./이게 뉘 음료수간디 이렇기 **달큰허니** 맛 있다?

답 : ㄱ 다음 ㄴ 어떤 차례의 뒤. 이어지는 일이나 결과 따위. ㄷ 댐. ㄹ **답이** 또 보자구. **답이**는 멀 또 봐? **답이**구 시방이구 인전 다시 볼 일 앓다낭께.

대갈-빼기 ㄱ 대가리 ㄴ '대갈(頭)+-빼기(접사)'. ①동물의 머리, 특히 어류의 머리를 이르는 말. ㄷ 대강뱅이. 대강빼기. ㄹ 생선 **대갈빼기**는 버리덜 말구 봉다리다 담어. 집이 가서니 고이 주게./소를 잡을 적이는 도치로 **대갈빼기**를 내리찍능 겨. 정이루 돌을 찍듯이 한방이 씨러떠리던 저지. ②사람의 머리를 비속되게 이르는 말. ㄷ 대강뱅이. 대강빼기. 대갈뺨. 대갈통. ㄹ 이눔이 오디다 가니 **대갈빼기**를 쳐들구 대드능 겨?

대강-빼기[-빼-] ㄱ 대강이 ㄴ '대강(頭)+-빼기(접사)'. '동물의 머리나, 사물의 위쪽을 속되게 이르는 말. ㄷ 대강뱅이. ㄷ 대가리. 대갈빼기. ㄹ 그거 먹두 못허던 **대강빼기**는 왜 냅두능 겨? 얼릉 그 **대강빼기**허구 콩댕이 찢러 냅빠려.

대강-뱅이 ㄱ 대강이 ㄴ '대강(頭)+-뱅이(접사)'. ㄷ '대강빼기'. ㄹ 갑자키 날이 취서니 무수 **대강뱅이**가 다 얼어뻘졌어. 그냥께 얼릉 뽑어서니 **대강뱅이**는 찢러 냅부리구 뭉뻘이만 신문지다 싸놔./송악헌 늠털은 낮이루 **대강뱅이**를 뎡정 쳐뻘지야 혀. 그리야 미서워서 그런 늠털이 슬치덜 못허지.

대꼬바리 ㄱ 담뱃-대 ㄴ 긴 담뱃대에서, 담배를 담는 대통을 포함한 쇠뿔이 부분. ㄹ 그 냥반 풍이 와서니 고개가 **대꼬바리**마냥 꼬부러졌더면./아랫똥 양반네는 지가 양반이란 거 표내너라구 노상 **대꼬바리** 장죽을 등이다 꽃구 뎡겼잖여. <구전 끝말잇기 동요> 야야 야 무싯디(대) 담뱃대, 대대 **대꼬바리** 대장군, 군군 구두 신고 재지 마, 마마 말래 밀이 숨었네, 내내 냇가이서 춤을 추다가, 가가 가재헌터 물려서, 서서 서서방네 갔더니, 니니 니만저만 허더랴.

대-바구리 ㄱ 대-바구니 ㄴ 대쪽을 걸어 만든 바구니. ㄹ 그 무건 메쭈당이를 **대바구리**다 담어노른 오면 **대바구리**가 성허졌냐?/삶은 보리쌀은 **대바구리**다

퍼놓거라.

대번-이 ㅍ 대번-에 ㅍ 대번(單番)+이 (조사). 그 자리에서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한 번에 딱. ㉠단박이. 단번(單番)이. ㉡그 사람은 질눈이 참 밝아. 춤 가 보던 질두 **대번이** 찾더라니까./허년 짓을 딱 보니까 건달패라던 걸 **대번이** 알겠더라구.

대-조랭이 ㅍ 대 조 : 리(-笊籬) ㅍ 대로 엮어 만든 조리. ㉠'조랭이'

댄님 ㅍ 대님 ㅍ '다님→댓님/댄님'. 한복 바지의 발목 부분을 매는 끈. ㉡**댄님**을 끈내가 처매뎛 읊으른 오터긴다? 요즘 시상이 **댄님**을 위치키 매던 뉘 상관어래유? 이눔아, **댄님**을 암채기 매더라두 야중이 풀러지겐 매야힐 것 아녀.

댐 : ㅍ 다음 ㅍ ㉠'담'. ※뒤에 'ㅣ'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역행동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남. (예)담+이→댐이(다음에). 담+이는→댐이는(다음에는). 담+이두→댐이두(다음에도). ㉡이번이 **댐**이마지매이여. **댐**버턴 봐주덜 못허네./**댐**이두 그럴 거문 다신 날 찾덜 말어.

-더먼¹ ㅍ -더데 ㅍ(연결) 이전에 경험한 사실이 뒤에 내용과 대립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더디. ㉡애덜 잘 크더면 뉘 걱정어여?/벨일 아니더면 고여니 소문만 크게 난 거였더라구./사램이 걸은 멀쩡허더면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더먼² ㅍ -더구먼 ㅍ(종결) '-더구먼'

의 준말. 이전에 알게 된 사실을 느낌과 함께 상대에게 전달하는 감탄형종결어미. ㉡그 집안두 풀이 말이 아니더면./잘 지내구 있으니까 걱정허덜 말라구 존헤달라더면./그 낭반 처볼수루기 괜찮더면.

-더먼유 ㅍ -더군오 ㅍ(종결) '-더먼(감탄형어미)+요(보조사)'. ㉠'더면'. ㉡잘덜 지내구 있더먼유./뉘 일인진 물르겠구 암튼간이 무지 바쁘더먼유.

-던¹ ㅍ -든 ㅍ(연결) ㉠'-던지'가 줄어든 말.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것을 나열할 때 쓰는 어미. ㉡-든. ㉢-건. -거나. ㉣공불 허던 일을 허던니 맘대로 혀./가덜이 워덜 가던 나허구 뉘 상관어라?

던² ㅍ 든 ㅍ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선택에 차이가 없는 것을 나열할 때 쓰는 보조사. ㉤든. 이던. 이든. ㉥던지. ㉦누구던 우릴 근대리든 가만 안 둘겨./뵙이 나갈 땐 그제 핵겨던 워디던 말허구 나가거라.

-던감 ㅍ -던가 ㅍ(종결) '-더(회상)+-ㄴ감(의문형종결어미)'. 지난날의 일의 상황을 돌아보며 물음을 던질 때 쓰는 종결어미. ㉧-던가. ㉨그 사람이 자네 동네에 살엇던감?/그 낭반은 으전허시던감?/나는 친구두 아니던감?

-던디¹ ㅍ -던데 ㅍ(연결) ① ㉩'-더면¹'. ㉪그게 모냐은 읊던디 맛은 기백



히더라구./잔치 음식이냐구 먹잘 것두
 읍던디 손님은 많더라구. ② 뒷말을 하
 기 위해, 그와 연관된 과거의 일을 회
 상하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거가 참 볼만 하던디 하냥 가보덜 앓을
 터?/가는 많이 늦겼다던디 우덜이 먼침
 시작허든 워떠까?』

-던디² ㉠ -던데 ㉡(종결) 청자의 반응
 을 기대하며, 이전의 어떤 사실에 느낌
 을 드러내는 감탄형어미. 『그 낭반 보
 기버던은 지법이던디?/자네 아덜은 혼
 처 밧이서 일허던디?』

-던지¹ ㉠ -든지 ㉡(연결)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것을 나열할
 때 쓰는 어미. ㉢-든지. ㉣-거나. -건.
 『허던지 말던지 뇌 맘대루 히어./느이
 가 놀던지 자던지 난 몰러.』

던지² ㉠ 든지 ㉡ 모음으로 끝나는 체
 언 뒤에서, 선택에 차이가 없는 것을
 나열할 때 쓰는 보조사. ㉢든지. 이던지.
 이든지. ㉣던. 『원제던지 은락만 혀,
 내가 득달같이 달려올 테니께./한 시던
 지 두 시던지 난 상관없어.』

덜치근-허다 ㉠ 달착지근-하다 ㉡
 『달착지근하다』의 큰말. 『감주가 덜치
 근헌 게 사탕가루를 안 놓내 벼.』

덜큰-허다 ㉠ 달착지근-하다 ㉡ 『
 달큰하다』의 큰말. 『미숫가루 점 덜큰
 허게 한 사발 타오너라.』

덧¹[덜] ㉠ 덧 ㉡ '활용 형태: 덧마(덧던
 마녕. 덧에[더세]. 덧을[더슬]. 덧이[더시].
 덧이루[더시루].' ① 짐승이 다니는 길목
 에 설치하고, 먹이 따위로 꼬여 잡는
 도구. ㉢차귀. 차구. 차기. 올무. 올개미.
 짝새. 짝쇠. 짜구. 짜기. 『덧이루[더시
 루] 산증성을 잡다./요샌 지 잡을 일두
 읍을 텃디 먼 덧을[더슬] 사능 겨? 지
 잡을 게 아니구 꿩이 잡을 덧이여[더시
 여]. 도둑 꿩이덜이 하두 집안을 흐집
 어 대서니 말여. ※'덧'과 '차귀': '덧'은
 '차귀'에 비해 사용 빈도가 크게 낮다. ② 남
 을 헐뜯거나 모함하는 꾀. 『그 낭반은
 농사처를 왜 그렇기 싸게 판 겨? 왜 팔
 앓겼어? 다 읍자(業者)덜이 쳐논 덧이
 [더시] 걸린 겨지.』

덧²[덜] ㉠ 덧 ㉡ 그런 것 같기도 하
 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 ㉢덧. 『즘
 슨을 먹긴 먹었던디 오째 먹은 덧 만
 덧 허네.』

도승-허다 ㉠ ㉡ 생김새나 성품, 행동
 따위가 다른 누구를 꼭 닮다. ㉢빼닮다.
 빼다. 『자는 지 아배 도승혔어. 올매나
 도승혔던지 자만 보구 있으른 자 애배
 어렸을 적을 보넌 것 같으다닝께. 낮작
 만 도승헌 게 아니구 허넌 짓두 똑 지
 아배여.』

도시르다 ㉠ 도스르다/다듬다 ㉡ '러
 불규칙동사'. ①(도스르다) 마음을 다잡다.
 『너머 복잡허게만 생각덜 말구 마음을』

도실러 봐. ②(다듬다) 물건의 모서리 부분이나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매만지다. ㉹도실르다. ㉺서까래 끄트머리가 너머 거칠으니까 대패로 점 도실러 봐./웃을 깎을라든 지대루 깎으야지. 낮이루 웃가락을 잘 도실르란 말여.

도실르다 ㉹ 도스르다/다듬다 ㉹ ㉺ '도시르다'. ㉺각괘목 웅이 백힌 디는 점 도실르야 쓰겼여.

도자 ㉹ 불도저(bulldozer) ㉹ ㉺ '불도자'를 줄여 이르는 말. ㉺사람 땀 사서 쓸 심(힘)이든 도자 하나 불러. 도자루 들이대든 한 식경이 끝날 일인디 사람 사서 가래질 헐라봐(하려고 해봐). 그제 돈 손해구 시간 손해라니까.

독 : -밭[-뵤] ㉹ 돌 : -밭 ㉹ ㉺ '독밭'. ㉺독밭인 신발을 신구 땡이야지.

독 : 자갈-밭[-짜-반] ㉹ 돌 : -밭 ㉹ ㉺ '독자갈밭'.

독 : -확[도 : 확] ㉹ 돌 : -확 ㉹ ㉺ '확절구'. ㉺아니, 저 좋은 독확을 구수루 쓰능겨? 이, 독확이 너머 커서니 쓰기가 그려. 저기 나무절구가 또 있잖남?

돈-데미[-띠-] ㉹ 돈-데미 ㉹ ㉺ '돈데미'. ㉺돈데미가 나헌티 앵길지 안 앵길지는 두구 봐야쥬.

돈 : -버러지[-뵤-] ㉹ 그리마 ㉹ ㉺ '돈벌레'. ㉺날이 구지닝께 돈버러지가 방이까장 들왔구면.

돈 : -벌레[-뵤-] ㉹ 그리마 ㉹ '돈벌거지'돈버러지'돈벌레. <돈> 여러 쌍의 다리와 긴 더듬이가 있는, 그리맛과의 절지동물. ㉹돈버러지. ㉺얏, 돈벌레 잡아라. 저거 잡어서 호랑이 놓구 땡기든 돈 생긴다./돈벌레를 손이루 잡으니까 다리가 다 쏘어져서 발발 떨더라구.

돈구다[-꾸-] ㉹ 돈우다 ㉹(타) ① ㉺ '돈다'. ㉺뵤덜라구 들구 토방을 돈구는겨? ②어떤 기운이나 감정이 생겨나게 하다. ㉺옆이서 승질 돈구덜 말구 가만이 있어라이. ③정도를 높게 하다. ㉺노랏 지대루 부를라든 목청버터 돈구더락 히여. ④입맛을 살아나게 하다. ㉺밤맛 돈구년 딘 쎄콍헌 슴배만헌 것이 읍어.

돈다[-따] ㉹ 돈우다 ㉹(타)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 높아지게 하다. ㉹돈우다. 돈구다. ※'돈우다/돈구다': '돈우다'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비해, '돈다'는 뜻이 제한적이다. ㉺등잔불이 어두니 심지 점 돈어라./토방이 너머 낮은 것 같잖남? 쎄끔 더 돈으야졌지?

돌루다 ㉹ 게우다 ㉹(타) 어린아이가 젖이나 우유 따위의 음식을 먹었다가 도로 토하다. ㉹돌르다. ㉹게:다. 괴:다. 괴:우다. 게우다. 토하다. ㉺애가 자꾸 돌룬다매 왜 녁혀놓구 있는겨? 아뉴, 업구땡겨두 잔딩이다가 연신 돌러유./먹은 길 다 돌렀이니 이걸 워편다?/암만



히두 뵤 봉인개 벼. 저렁기 헛게육질을
해대가닌 먹은 것 다 **돌러** 뵤진다낭께?

돌르다 [표] 게우다 [동] ⇨ ‘돌루다’.

돌-백기[-끼] [표] 돌-잔치 [동] 처음 맞
는 어린아이의 생일을 맞아 베푸는 잔
치. 『암만 그리두 이우지 **돌백기** 허넨
디 기냥 갈 수야 있남?/행편이 어려워
애 **돌백기**두 못허구 지났다.

동넛-질[-넛질] [표] 마을-길 [동] 동네
로 가는 길, 또는 동네 안에 나 있는
길. ⑤말:질. 『**동넛질** 닦넨다구 바쁜
일품을 한 나절이나 까먹었어. 그리두
추석 쇠러 자석덜 오넨디 동넛질을 안
닦을 순 읍잖어.

두란 [표] 뜰 [동] ⇨ ‘뚜란’.

두러-눅다[-따] [표] 드러-눅다 [동]
(자) ‘드러눅다’의 이형태. 자리에 편히
눅거나, 병으로 몸져눅다. ⑤드러눅다.
⑤둔누다. ※‘드러눅다’와 ‘두러눅다’는 변별
력 없이 쓰임. 『비두 와쌌구 다 구찮유.
지는 **두러눠** 잠이나 잘 튜./그 장돌뱅
이가 웬일루다가니 코빼기두 안 뵤대
유? 코빼기나마나 그 친구 병원이 드러
눈 제가 발써 스무날두 넘었어.

두릿-두릿[-린-린] [표] 두리번-두리
번 [동] 고개와 몸을 움직이며 여기저기
를 휘둘러보는 모양. 『**릿**을 찾너라 두
릿두릿 마당을 훑으구 있다?/넙이 집은
왜 **두릿두릿** 찌웃그리구 있네? [동(타)

두릿두릿-허다. 『**답**장을 냉겨다 보
매 **두릿두릿**허더니 내가 츠다보낭께 실
그머니 가더면유.

두릿-거리다[-린꺼-] [표] 두리번-거
리다 [동(타)] 고개와 몸을 움직이며 여
기저기를 휘둘러보다. 『그렁기 **두릿거**
리매 누굴 찾넨가?

독-생이[-생-] [표] [동] ⇨ ‘뚝생이’.

독-싱이[-생-] [표] [동] ⇨ ‘뚝생이’.

둔-누다 [표] 드러-눅다 [동(자)] ⇨ ‘두
러눅다’의 준말. 『피곤헛 탕게 싸게 방
이 들어가 **눈눠라**./넙덜은 바빠 죽겼넨
디 쥬일 방안이 **눈눠**만 있으믄 워쩨냐?

둥굴리다 [표] 굴리다 [동(타)] ‘둥굴-(ㄹ)
+-리-(접사)+-다→둥굴리다>딩굴리다(전
설모음화)’. ①눈덩이나 사물 따위가 굴
러가도록 마구 힘을 가하다. 『그 큰
통낭굴 머더라 지구 갈라구나? 그러덜
말구 찬찬히 **둥굴려**서 윙기더락 혀./공
일날이라고 놀믄 뤄휴. 성헌 몸뵤이 **둥**
굴려서 한 푼이락두 불어야쥬. ②어떤
사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아무렇게나
내쳐두다. ⑤딩굴리다. 『그 구연 걸 암
디나 **둥굴리**믄 워칙여? 그렁기 막 **둥굴**
리덜 말구 잘 싸서 실겉같은 디 올려놔
뒤라.

동수리 [표] [동] (둥글고 큰 열매란 뜻에서)
재래종 감이 아닌, 육종된 큰 감의 종
류를 일컬음. ⑤동수리감. 동시리. 『**동**

수리긴 현디 원체 많이 매달리닝께 알이 점 잘구면./등수리가 참 탐시럽게두 매달렸구면.

등수리-감 [표] [등] [수리] '등수리'.

등시리 [표] [등] [시리] '등수리'.

등어리 [표] 등우리 [등] 새, 병아리 따위를 가둬 기르거나, 닭이나 오리 따위가 알을 낳거나 짓들이기 위해 짚이나 나무 따위로 엮어 만든 집. [표] 닥이 알을 품고 굴러쌌넨디 암만히두 등어리다가 닥알[다갈] 여나무 개 느뇌야졌유.

뒤-뚜란 [표] 뒤틀 [뒤] '뒤(後)+뚜란(庭)'. 집 뒤쪽에 있는 빈 터. [표] 뒤란. [표] 뒤겘. [표] 안뚜란. [표] 꽃을 뒤뚜란이다 심으믄 누가 본다? 물르넨 소리 말어. 화려허던 안허두 뒤뚜란 꽃이 더 아늑헌 겨.

뒤-란 [표] 뒤겘/뒤틀 [뒤] '뒤뚜란'. [표] 장광은 뒤란이 있어. 가서 지랑물 점 담어 와.(장독대는 뒤틀에 있어. 가서 간장 좀 담어 와라.)

뒤-서끄다[디-] [표] 뒤-섞다 [뒤] (타) 서로 엉겨 분간할 수 없도록 마구 합치다. [표] 뒤섞다. 뒤섞다. [표] 뿔어진 배람 박이다 발을 거닝께 회 점 잘 뒤서끄터 락 혀./쇠죽이 끓으믄 뒤서끄야닝께 갈 꾸린 여따 놓구 가라.

뒤-섞으다[디-] [표] 뒤-섞다 [뒤] '뒤서끄다'

들-안지다 [표] 들-앉다 [들] ①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앉거나, 나오지 않고 안에 처박히다. [표] 정일 방안이 들안져 뭇 궁상을 떨구 있능 규? ②지위를 차지하거나, 자리를 잡다. [표] 나안지다. [표] 씨앗이 안방이 들안졌이니 본치는 인저 끈 냉이 떨어진 땡기 신세여.

등마루-뼈 [표] 등골-뼈 [등] '등마리 뼈'가 표준어화한 말.

등마리-뼈 [표] 등골-뼈 [등] '등(背)+마리(宗)+뼈(骨)→등마리뼈/등마리뼈> 등마루뼈'. 척추동물의 등마루를 이루는 뼈. [표] 등배기뼈. 등배기뼈. 등마리뼈. 등마루뼈. [표] 등마리뼈루 감자탕 잘 허넨 집이 있넨디 이따 겨서 만나지?

등마리-뼈 [표] 등골-뼈 [등] '등마리 뼈'.

등배기-뼈 [표] 등골-뼈 [등] '등(背)+박(釘)+-이(접사)+뼈(骨)'. 척추동물의 등마루를 이루는 뼈. [표] 등배기뼈. 등마리뼈. 등마리뼈. 등마루뼈. ※1970년대 이전에는 많이 쓰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는 듣기 힘든 말이 되었고 대신 '등마리뼈, 등마루뼈'가 선택되어 쓰이고 있다. [표] 우리 돼지 점 잡어줘. 머리허구 등백이뼈는 자네 덜이 개져가 먹구./이게 웬 겨라? 저 낭반이 혼삿집이 돼질 잡어주구 읍어은 등백이뼈구면유.

등배기-뼈 [표] 등골-뼈 [등] '등백이뼈'.

등짐-장사[-짐-] [표] 등짐-장수 [등]



예전에 일용잡화를 지게나 등에 지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 ㉠황애장사. ㉡짐장사. ㉢등짐장사허구 황애장사가 똑같든 않지. 황애장산 참빗이나 섹경, 바늘 곁이 께끄만 곁 여러 개지 들구 멍기 구, 등짐장산 독이나 체갈이 크다런 곁 지구 멍기매 파년 거잖어.

디립다[-따] ㉣ 들입다 ㉤ 마구. 아주 세차게. ㉥들입다. ㉦딜이. ㉧살살 구실 러두 선찮은 아를 디립다 몰어부치믄 오티기유?/디립다 쫓어멍기기만 헨다 구 머가 되능 게 아니잖어.

디미 ㉨ 더미 ㉩ '데미'.

딜이⁻¹ ㉪ 들이- ㉫ 동사의 어간 앞에 붙어, '마구, 세차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들이. ㉭딜이꽃다. 딜이붓다. 딜이쫓다. 딜이치다.

딜이² ㉮ 들이 ㉯ '디립다'. ㉺딜이 일만 땀글어 놓으믄 그 뒷감당을 오티 길라구려?

딜이-꽃다[-꽃따] ㉻ 들이-꽃다 ㉼ (타) 세차게 박아 세우거나, 내던져 거 꾸러지게 하다. ㉽들이꽃다. ㉾메말른 밧이다 디리꽃기만 허문 오전다?

딜이-쫓다[-따] ㉿ 들이-쫓다 ㊀(타) 병이나 자루 안에 들어있는 액체나 알갱이 따위를 세차게 나오게 하다. ㊁들이쫓다. ㊂인석이 방바당이다 세겨를 딜이쫓구는 오디루 내뻗구면.

딜이-치다¹ ㊃ 들이-치다 ㊄(자) 손 발로 마구 치거나, 들이닥치며 세차게 공격하다. ㊅들이치다. ㊆술 먹구 딜이쳐서니 방문이 다 부서졌다./땅크(탱크)루 미섭게 딜이치넨디 당헐 재간이 있었간?

딜이-치다² ㊇ 들이-치다 ㊈(자) 눈이나 비, 햇살 따위가 세차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다. ㊉들이치다. ㊊비가 들구 말래루다 딜이치넨디 암만허두 채양을 헤 달야겠어.

딜입다[-따] ㊋ 들입다 ㊌ '디립다'.

딩굴리다 ㊍ 굴리다 ㊎ '둥굴리다'.

따다 ㊏ 열다 ㊐ 봉해진 것을 벗기거나, 잠긴 것을 열쇠 따위로 열다. ㊑병 따깽이를 따다./문을 따고 들어가다./잠긴 자물통을 열대루 딸라구 허다.

따뜻-허다[-따터-] ㊒ 따듯-하다 ㊓ '뒹뒹 허다/쑤쑤 허다-따뜻허다/따뜻허다'.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따뜻허다. ㊕해가 나니 날이 따뜻허구면.

따러서 ㊔ 따라서 ㊕ '그렇기 때문에'의 뜻으로, 이유나 근거가 되는 앞 내용을 받아 결과 문장으로 이어주는 말. ㊖너만 손해본 게 아니라 나두 손해 봤단 말여. 따러서 우털찌리 싸우넨 건 아니란 말이지.

따박-따박¹ ㊗ 또박-또박 ㊘ '표준어

화 과정: 따박따박)또박또박. ①조리 있고 똑바르게 말을 하거나, 글씨를 쓰는 모양. ㉠또박또박. 『으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대꿀허닝께 니가 미운털이 백인 겨./째끄만 게 따박따박 글씨를 잘 쓰너면. ②차례나 규칙에 맞춰 정확히 따르는 모양. 『아나운서란 양반이 따박따박 표준말로 문넌디 사투리루 답허기가 응 으색허더면./매달 따박따박 연금이 나온다매 뉘 걱정이랴?

따박-따박² ㉠ 또박-또박 ㉡ 조금 가볍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발소리. ㉢ 떠백떠백. 『저기 따박따박 걸어가던 게 누구랴?

딱쟁이[-쟁-] ㉠ 딱지 ㉡ '딱징이'.

딱징이[-쟁-] ㉠ 딱지 ㉡ '딱쟁이→딱징이/딱쟁이'. 상처가 말라붙어 생긴 살갓의 껍질. 또는 무엇을 싸고 있는 딱딱한 껍데기. ㉢딱쟁이. 딱지. 『딱징이를 떼다./딱징이가 지다./간난쟁이가 딱징이를 들구 뜯어싸서니 상채기가 낫을 새가 읍유.

땅-꼬맹이 ㉠ 꼬마 ㉡ '땅(唐?)+꼬맹이(小人)'. 몸집과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땅꼬맹이 털이 오로로 물러댕기던디 뉘집 애털이랴?

때 : 다 ㉠ 때우다 ㉡ '표준어화 과정: 새다/때:다)때우다'. '활용형태: 때:게, 때

:구, 때:는, 때:니, 때:라, 때:서' 깨지거나 구멍 난 곳을 다른 재료를 써 메우거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여 채우다. ㉢때우다. ㉣땀허다. 땀질허다. 『쓰두 못헐 냄비는 뉘덜랴구 때닝 겨?/해다갈(해가 질 때까지) 때가장 뉘 일로 시간을 때지?/부조(扶助)헐 돈은 읍구, 오편대유? 몸이루 때야쥬.

땡기다² ㉠ 땡기다 ㉡(자) 살갓이나 근육 따위가 땡땡하게 멍치다. 『자구 일났더니 뉘뉘막 막 땡기너면./산일 올러갔다 왔더니 오곰이 쑤시고 종아리가 땡겨 죽겼어.

떠-내부리다 ㉠ ㉡ '떠넙부리다'. 『빳물 친 꼬치장 걸떠쟁이는 떠내부리구 성헌 것이나 가마솥이다 새루 끓이야졌다.

떠-넙부리다[-뿌-] ㉠ ㉡ '뜨-(淨)+어+내-(出)+ㅅ(사잇소리/첨가음)+부리/버리-(棄)+-다'. 무엇인가를 손이나 도구로 떠서 아무렇게나 밖으로 버리다. ㉢떠내부리다. 『큰물 지닝께 꼬치장이 곱새기가 허영게 쫓어. 얼릉 밥주걱 개지구 가서니 것 짐 죄다 떠넙뿌려랴./아깨운 멀국을 왜 떠넙볼구 있대유? 멀국을 떠넙부리던 게 아니구 곶이 있던 거쿰을 떠넙부리던 겨.

떠더-박질르다[-쫄-] ㉠ 떠다-박지르다 ㉡(타) 상대가 넘어지도록 세계 밀어제치다. 『왜 죄 읍년 애를 떠더박



질르구 그런대유?

떠벅-떠벅 [표] 뚜벅-뚜벅 [문] 조금 무겁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발소리. [음] 딱딱딱딱. 『그 낭만 떠벅떠벅 구들 신구 새벽 나절이 오딜 가더면.

떼-밀다 [표] 떠-밀다 [동(타)] '떠밀다' <떼밀다(전설모음화)'. ①뒤에서 등에 힘을 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쥐뿔이나 개뿔이나 얹어치나 떼치나, 떠밀다 큰 오뎡구 떼밀다 큰 위뎡다?/저 높이 냅대 떼미던 통이 자뻘질 뻘혔다냥께. ②일이나 책임을 억지로 넘기다. [음] 떠다밀다. ※'떼밀다'에 비해 '떠밀다'의 쓰임 빈도가 좀 더 높으나, 서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다. 『넌 일을 왜 자헌터 떼미니?

떼-밀리다 [표] 떠-밀리다 [동(자)] ①뒤에서 오는 힘에 앞으로 나아가게 되다. 『물살이 세닝께 떼밀리덜 앓게 돌이 손 잡구 건너가라. ②일이나 책임을 억지로 넘겨받다. [음] 떠밀리다. 『난 허기 싫다구 했넌디 자덜헌터 떼밀려서니 허게 된 규.

떠 :-가다 [표] 뛰어-가다 [동(자)](타) 어느 곳으로 빨리 가거나, 어느 곳을 빨리 지나가다. 『차 시간 늦겠다. 얼릉 떠가라./오딜 그리 떠가능가?

떠 :-나오다 [표] 뛰어-나오다 [동(자)](타) 어느 곳에서 밖으로 달려 나오거나, 어느 곳을 재빨리 벗어나다. 『일

바쁘디 떠나오덜 앓구 왜덜 꿈지럭거리구만 있다?

떠 :-내다 [표] 떼어-내다 [동]'떠:내다' <떼내다'. 붙어 있는 것을 떨어뜨리거나 갈라놓다. 『배람박이 붙은 지저분헌 것덜 점 다 떠내거라./배차 벌거지덜이 올마나 많던지 그거 떠내다가니 일을 점 충였어.

떠 :-넘다[-따] [표] 뛰어-넘다 [동(타)] 몸을 솟구쳐 장애물을 넘어가다. 『자네 도둑놈인가? 왜 넘어 집 독담붙은 떠넘구 그러능 겨?

떠 :-내리다 [표] 뛰어-내리다 [동(자)] 높은 곳에서 몸을 솟구쳐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우염허닝께 떠내릴 생강 말구 새닥다리 타구 내려와.

떠 :-놀다 [표] 뛰-놀다 [동(자)] 여기저기를 뛰면서 놀다. 『그만 떠놀구 밥 먹어라./떠놀더래두 숙제는 허구 떠놀어라.

떠 :-놀다 [표] 떼어-놀다 [동]'떠:놀다' <떼놀다'. ①경쟁 상대를 앞질러 가다. 『이번 운동회서 지가 친구덜을 다 떠놀구 일등을 했유./가가 맨날 나버더 공볼 잘 했넌디, 이번인 섬을 잘 쳐서 내가 가를 떠났어. ②사람이나 사물의 간격을 떨어뜨리거나, 갈라놓다. 『저두 놀이 맨날 붙어댕기맨서 말썽만 시피니 인전 하냥 뎡기덜 못허게 떠놔야 겠어./바람 점 통허게 메주뎡이를 떠놔

야졌다. ③ 발걸음을 옮기다. 『애를 두 구 가진 가야졌넌디 발걸음을 떠눌 수가 있어야지.

떠 : -들다 ㅍ 뒤어-들다 ㅎ(자) 몸을 빨리 움직여 들어오거나, 남의 일에 끼어들다. 『술 먹구는 물이 떠드넌 거 아녀. 클난다닝께./자넨 자네 일이나 허지, 녀미 일인 왜 떠들어 말을 맹기능 겨?

떠 : -먹기[-끼] ㅍ 떼어-먹기 ㅎ 남의 재물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거나, 중간에서 가로채 자기 것으로 함. ㉠ 멍가먹기. 『녀미 돈 떠먹기두 아무나 허남? 누구차람 사기꾼 같덜 았으른 못허넌 짓이여.

떠 : -먹다 ㅍ 떼어-먹다 ㅎ '떠:먹다' 떼먹다.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거나, 남의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다. 『늑이 내 돈 떠먹구 올마나 잘 사나 두구 보자이./높은 늑덜이 위셔 다 떠먹으른 심 았넌 우덜은 뭇 먹구 살라능 겨?

떠 : -올르다 ㅍ 뒤어-오르다 ㅎ(자/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풍갑이 너머 떠올러셔 요센 일꾼 쓰기두 겁나.

땨 : ㅍ 땨 ㅎ '뛰-(躡)+-엄(접사)→뛰엄'땨:'. ① 몸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일. ㉡ 땨: -뛰기. 『땨두 못 뛰넌 늑이 먼 줄넘기를 헨다구 줄을 찾넌 겨? ② 몸을 솟구쳐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

㉢ 땨: -박질. 『애가 정일 마당서 땨를 놓더니 말래서 잠이 들었구면./미션 것 하나 았다구 큰소리 팡팡 치더니 질 먼 침 땨를 놓더니.

땨 : -뛰기[-따-] ㅍ 땨-뛰기 ㅎ '뛰-(躡)+-엄(접사)+뛰-(躡)+-기(접사)→뛰엄뛰기'땨:뛰기. 몸을 솟구쳐 뛰는 일이나, 그러한 운동. ㉣ 땨뛰엄뛰기. ㅎ(자) 땨: 뛰기-허다. 『땨뛰기는 배깁이서 허넌 겨지, 집안이서 땨뛰기허른 안 되능 겨.

땨 : 박-질[-짖] ㅍ 땨박-질 ㅎ '뛰-(躡)+-엄(접사)+박(撲)+-질(접사)→뛰엄박질'땨:박질. 급하게 달려가는 일. ㉤ 땨뛰엄박질. 『맨날 땨박질만 허구 공분 온재헐 겨? 땨박질만 잘 허른 머허나구. ㅎ(자) 땨박질-허다.

땨 : -틀 ㅍ 땨-틀 ㅎ <운동> '표준어화 과정: 땨:틀'땨:틀[땨:틀]'. 기계 체조의 한 갈래인 운동의 이름. 또는 땨틀 운동에서, 뛰어넘도록 만들어 놓은 대(臺). 『치육 시간이 땨틀을 허다가니 애가 다쳤다. 많이 다쳤남? 땨틀이다 코를 박어셔니 코피가 터졌다너면.

땨 -싸배기 ㅍ 땨-싸개 ㅎ '땨(糞)+싸-(排出)+-배기(접사)'. 땨를 못 가리는 아이. 또는 그런 아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자는 핵겨서 땨 썼유. 그러서 별명이 땨싸배기라닝께유.

땨 -오줌 ㅍ 땨-오줌 ㅎ ㉦ '오줌땨'.

땨 -차미 ㅍ 개땨-참외 ㅎ 길가나 들에

저절로 자라난 참외의 열매. 『갈 장마 두 끝났는데 웬 차미래유? 이, 패밭 밑 이서 판 **퐁차미**여.

퐁-퍼대 ㅍ 퐁 포대기 ㅍ 『퐁퍼대기』의 줄임말. 『덮어줄 게 그렇기두 읊었남? 애헌터 **퐁퍼대**를 덮어 주게?

퐁-퍼대기 ㅍ 퐁 포대기 ㅍ 퐁이 묻은 포대기, 오줌퐁을 가리지 못하는 간난이에게 쓰는 포대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 ㉷퐁퍼대. 『이 **퐁퍼대**기 짐 빨 어라.

뚜란 ㅍ 틀 ㅍ 집안에 있는 빈터. 담장 안에 있는 작은 마당을 이르는 말. ㉷뚜란. ㉷안뚜란. 뒤뚜란. 뒤란. 『**뚜란**이다 뉘 호박을 심넨대유? 기냥 부루나 심어 서니 뜯어 잡슈.

뚝-생이[-쌩-] ㅍ 뚝 언저리 ㅍ 『뚝/뚝(堤)+생이(접사)→뚝생이/뚝생이』뚝생이/뚝생이. 뚝의 위쪽이나 그 언저리. ㉷뚝생이. (여린말)뚝생이. 뚝생이. 『즈수지 **뚝생이**루 쑥 뜯넨다구 나갔유./이렇기 가물 적어 방죽 **뚝생이** 짐 고치야졌어.

뚝-싱이[-쌩-] ㅍ 뚝 언저리 ㅍ 『뚝생이』. 『우엽허닝게 개우장 **뚝싱**인 올러스덜 말어라.

뽕엄 ㅍ 뽕 ㅍ 『뽕:』의 원말.

뽕엄-뽕기[-뽕-] ㅍ 뽕-뽕기 ㅍ 『뽕뽕기』의 원말.

뽕엄박-질[-질] ㅍ 뽕엄박-질 ㅍ 『뽕:박질』의 원말.

뜨란 ㅍ 틀 ㅍ 『뚜란』.

뜨물 ㅍ 진딧물 ㅍ <동물> 『뜨물(?)뜨물/뜨물[뜨물/뜨물]. 진딧물과에 속한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뜨물. 뜨물. 『무궁화 잎새기에 **뜨물**이 썩까맣게 찢어. 무궁화야 약 치덜 앓으른 맨날 **뜨물** 공장인디 뉘 놀랜다?

뜨물-약[-낙] ㅍ 진딧물 약 ㅍ <농업> 채소나 곡식의 잎에 붙은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 치는 약. ㉷뜨물약. 『열무다가 **뜨물약** 친 제가 올마 안 됐이니 시방 뜯어 먹으른 안 되야.

뜨쟁이 ㅍ 떠중이 ㅍ 『뜨-(浮)+쟁이(접사)→뜨쟁이』뜨쟁이(전설모음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뜨쟁이. 『장거리에 나가닝게 손덜은 읊구 맨 **뜨쟁이** 장사꾼덜만 슬쳐대더면./자네겜은 **뜨쟁이**헌턴 돈 못 맥겨.

뜨쟁이 ㅍ ㅍ 화: 전(火田). 『뜨쟁이』

뜨쟁이-밭[-밭] ㅍ ㅍ 화: 전(火田) 『뜨쟁이밭』.

뜨쟁이-허다 ㅍ ㅍ 화: 전-하다 『뜨쟁이허다』

뜨징이¹ ㅍ ㅍ 『뜨-(抄)+잉이(접사)→뜨징이(구개음화)』뜨쟁이/뜨징이(전설모음

화)'. 산비탈, 언덕배기에 나무나 풀을 떼내거나 베고 농사지를 밭을 일구는 일. ㉟뜨쟁이. 화근(火田). 『엄니는 산고랑을 타구 얹어 뜨징이를 허넌 게 여름철의 일과였다.

뜨징이² ㉟ 떠중이 ㉟ ≒ '뜨쟁이'. 『공사판이 벌이지닝께 토백이버덤 뜨징이덜이 더 많이.

뜨징이-밧[-받] ㉟ ㉟ 뜨쟁이로 일군 밭. ㉟뜨쟁이. 화근(火田). 『여름내 일군 뜨징이밧이 엄니는 뽕낭구를 밧개 심어 놔다./멧해를 애써 만든 뜨징이밧을 산 권이 뺏어갔다구 엄니는 못내 스러워 혀다.

뜨징이-허다 ㉟ ㉟ 산비탈, 언덕배기에 나무나 풀을 떼내거나 베거나 태우고 농사지를 밭을 일구다. ㉟뜨쟁이허다. 『여름내 뜨징이허넌 일은 고됐지만 엄니는 한 뽕씩 늘어나넌 밭을 보매 하얗게 웃었다.

뜨물 ㉟ 진딧물 ㉟<동물> ≒ '뜨물'.

뜨물-약[-낙] ㉟ 진딧물 약 ㉟ ≒ '뜨물약'. 『먹넌 너무새헌틴 뜸물약 함부루 치믈 안 되야.

뜯 : 다[뜯 : 따] ㉟ ㉟ ㉟ '활용 형태: 뜯게[뜯:계]. 뜯구[뜯:꾸]. 뜯어[뜯:버]. 뜯으니[뜯브니/뜯부니]'. 텅텅한 덜 익은 감의 맛이 있거나, 하는 언행이 못마땅하다 『왜 뜯은 뽕감을 먹구 있던 겨? 뜯덜 얹언 듀. 셋바닥이 흐연허구면 안 뜯킨 뭐가 안 뜯냐?

뜯 : 부다 ㉟ ㉟ ㉟ '활용 형태: 뜯부게[뜯:부계]. 뜯부구[뜯:부꾸]. 뜯베[뜯:버]. 뜯부니[뜯:부니]'. ≒ '뜯다'보다 쓰임 빈도가 낮다. 『왜 뜯분 뽕감을 먹구 있던 겨? 뜯부덜 얹언 듀. 셋바닥이 흐연허구면 안 뜯부킨 뭐가 안 뜯부냐?

띵가-먹다[-따] ㉟ ㉟ 떼어-먹다 ㉟(타) ≒ '띵겨-먹다'. 『진 핵겨 앞에서 애덜 코 묻은 돈 띵가먹구 살유. 이, 문방구를 허넌구면./노인 회장이란 놈이 띵가먹을 게 읍어서니 해필 동네 콩로당 지름감을 띵가먹은 겨?

띵가-먹기[-끼] ㉟ ㉟ 떼어-먹기 ㉟ 남의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기가 가짐. ㉟띵먹기. 『아니, 벼룩이 간을 내 먹지. 오치기 날품 파넌 풍감을 띵가먹넌다?



-**르라** ㉞ -러/-려고 ㉞(연결) ㉞ '-라구!'. ㉞아깨버텀 **갈라** ㉞ ㉞넌디 ㉞들구 비가 와서니 ㉞인지 ㉞출발㉞했대유.

-**르라거나** ㉞ -려고 하거나 (구문) ㉞ '-라거나'. ㉞비가 **올라거나** 바람이 불믄 **빨래버텀** ㉞ 걷어나라.

-**르라거던¹** ㉞ -러거든 ㉞(연결) ㉞ '-르라거든'. ㉞농사가 잘 **될라거든** 나헌티 ㉞ 은락혀.

-**르라거던²** ㉞ -러거든 (구문) ㉞ '-르라거든²'. ㉞판을 **벌릴라거던** 지대루 벌리아지, ㉞이게 뭐랴?

-**르라거든¹** ㉞ -러거든 ㉞(연결) ㉞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붙어, '가상의 어떤 일이 실현될 경우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㉞-르라거던. ㉞-올라거든. ㉞-올라거던. ㉞비가 **올라거든** 점 많이 오지, ㉞팽이 오쥬 마냥 ㉞이게 뭐랴./시간을 맞추지 못**할라거든** 아예 오덜 말어.

-**르라거든²** ㉞ -러거든 (구문) ㉞ '-르라구 허거든'이 줄어든 말. ㉞의도와 가정, 조건 따위를 나타내는 말. ㉞늦잖게 **갈라거든** 스둘러 준비히라./**놀라거든** 마당이나 쓸구 놀어라.

-**르라걸래** ㉞ -러기에 (구문) ㉞ '-르라구 허걸래'가 줄어든 말. ㉞-올라걸래. ㉞-라걸래. ㉞자꾸만 집이 **갈라걸래** 가냥 보내줬어./날이 **취날라걸래** 방이루 덜 였지.(날씨가 추워지러기에 방으로 들여놓았지.)

-**르라구나** ㉞ -려고 하니 (구문) ㉞ '-라구나'. ㉞그렇기 **고상허구두** 그 일을 또 **헐라구나?**

-**르라구는** ㉞ -려고는 (구문) ㉞ '-르라구(의도형연결어미)+는(보조사)'. ㉞-올라구는. ㉞공부를 **헐라구는** ㉞허넌디 잘 안 내 베틀.

-**르라너먼** ㉞ -러는군 (구문) ㉞ '-르라

구 허년구면'이 줄어든 말. ㉮-올라너면.
『그새 날이 깔라너면./또 비가 올라너
면.(또 비가 오려는군.)

-르라년가¹ ㉮ -러는가 (구문) ㉮ '-
라년가¹. 『또 갈(그애를) 혼꾸떡낼라년
가?

-르라년감 ㉮ -러는가 (구문) ㉮ '-
라년감¹. 『또 혼처 갈라년감?

-르라년개[-년-/년-] ㉮ -러는가 (구
문) (받침이 없는 어간 뒤에서, '-개 바다'
의 형태로 쓰여) '-르라구 허년가→-르
라구 허년개'의 준말. ㉮-올라년개. ※표
준어 '-러는가 보다'에 대응하는 충청말 '-
르라년가 보다'가 모음동화(전설모음화)를 거
치면서 '-르라년개 바다'의 형태가 됨. 『
워딜 또 나갈라년개 바다.(어딜 또 나가
러는가 보다.)/암만히두 그걸 헐라년개
바다.(아무래도 그것을 하려는가 보다.)

-르라년디 ㉮ -러는데 (구문) ㉮ '-
라년디'. 『공부를 헐라년디 배깁이서
친구가 자꾸 불른다./비가 올라년디 워
딜 갈라구 허능가?

-르라년지 ㉮ -러는지 (구문) ㉮ '-
라년지'.

-르라네¹ ㉮ -러네 (구문) ㉮ '-라네'.
의지 서술. 『나는 집이나 갈라네.

-르라네² ㉮ -러는군 (구문) ㉮ '-라
네². 감탄. 『자가 또 혼처 갈라네.

-르라네³ ㉮ -러니 (구문) ㉮ '-라네³.

핀잔, 힐책. 『정일 먹구 잠만 잘라네?/
그러구 공분 원체 헐라네?

-르라는가¹ ㉮ -러는가 (구문) ㉮ '-
라년가¹. 『그저 귀경만 헐라는가?

-르라두 ㉮ -르러도 (구문) ㉮ '-라두².
『집 백이라두 나가 불라두 손주눔 땀
이 나갈 수가 읍당께./장사를 헐라두
밑천이 있으야 허지.

-르라치면 ㉮ -르라치면 ㉮(연결) ㉮
'-르라치면'. 『지가 장이만 갈라치면
애가 들구 따라나서유.

-르라치문 ㉮ -르라치면 ㉮(연결) ㉮
'-르라치문'. 『뭇 일만 헐라치문 그 늠
이 발거리를 해쌌던 통이 지가 환장허
겼유.

-르라치믄 ㉮ -르라치면 ㉮(연결) (모
음이나 '르'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이나, 선
어말어미의 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뒤
에 오는 내용에 대한 조건이 됨을 나타
내는 연결어미. ㉮-올라치믄. -르라치문.
-올라치문. -르라치면. -올라치면. 『저
사람은 내가 뭇 말만 헐라치믄 푹 썬들
어서 채떠리네. 흐흐. 저 사람이 자네헌
티 뭇 욱하심정이 있년개 비구면.

-르랑사리 ㉮ -는커녕 ㉮(모음으로 끝
나는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
어떤 사실에 대하여 부정의 뜻을 강조
하는 보조사. ㉮-일랑사리. 『돈을 불길
랑사리 쓰지나 말라구 그러./큰 사골랑



사리 작은 사고두 읊었구면./그 약 먹
구 붕이 낫길랑사리 더 심혀졌다낭께.

-**래서야** ㅁ -려서야 (구문) ‘-라고
혀서야(-라구 히서야)’가 줄어든 말. (모
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시’ 뒤에 붙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건으로, 그리하면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올래서야.
-래서야. ㉡그것 것을 서루 차지**혀**래서
야 쓰겼넌가?/wing하문 서루 양보히야
지 성제간이 싸**올**래서야 쓰남?

-**래야** ㅁ -려야 (구문) ‘-라고 혀서
야(-라구 히서야)’가 줄어든 말. (모음으
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
으시’ 뒤에 붙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올래야. -래야.
㉡당사자가 읊으니 떼를 **쓸**래야 쓸 수
두 읊겼네./비가 그리 와쌌넌디 **말**릴래
야 말릴 디가 워뎃겼유?/일두 지가 **혀**
래야 허닌 거지. 시킨다구 안혀 일을
허겼남?

-**러려** ㅁ -르려 ㅁ(중결) ㉠ ‘-올려’.
㉡난 집이나 **갈**려./너 집이루 **갈**려?

-**러류** ㅁ -르래요 ㅁ(중결) ㉠ ‘-올류’.
㉡지는 쇠물이나 **쫄**류./또 쇠죽 **쫄**실류?

라 ㅁ 가 ㅁ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 ㉠가.
※주격조사 ‘가’와 ‘라’: ‘가’가 주체와 대상
따위에 두루 쓰이는 반면, ‘라’는 쓰임이 제
한적이다. 예) 네가 먹었구나.(○)→네라

먹었구나.(○)/가는 키가 크다.(○)→가
는 키라 크다.(X) ㉡그건 에미가 읊어
온 겨.→그건 에미라 읊어온 겨./고이
밥을 개라 다 먹었어./가라 무르구 그
런 거낭께 한 번만 봐줘.

-**라거나** ㅁ -려거나 (구문) ‘-라구(의
도형어미)+히-(爲)+-거나(연결어미)→
라구 허거나’가 줄어든 말. ㉠-르라거
나. -올라거나. ㉡그 낭반이 **올**라거나
그러문 얼릉 대문을 걸어**빠**려.

-**라갈래** ㅁ -러기에 (구문) ‘-라구 허
갈래’가 줄어든 말. ㉠-르라갈래. -올라
갈래. ㉡작은애가 생활비를 보내 **달**라**갈**
래 시방 은행 갔다 오닌 일이유.

라구⁴ ㅁ 라고 ㅁ ①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방가워’**라구** 말은 허더면 진
짜 방가운 것 같던 **않**였어. ②대상을 탐
탁지 않게 가리키거나, 부정의 뜻을 더
할 때 쓰는 보조사. ㉠이라구. ㉡지까짓
게 부자**라구** 재봤자 올마나 부자**겼**어?/
내가 촌**것**이라구 깐보닝 겨, 시방?

-**라구나** ㅁ -려나 ㅁ ‘-라구 허는가’의
준말. ‘하계체’에서, 상대에게 어떤 일
이나 행동에 대하여 의사를 물을 때 쓰
는 말. ㉡자네가 그 일을 **말**을**라**구나?/
벌써 일을 나**갈**라구나?/인전 위디루 **갈**
라구나?

-**라구나** ㅁ -러고 하니 (구문) ‘-라구
(의도형어미)+히-(爲)+-나(의문형어미)

→-라구 허냐'가 줄어든 말. ㉠-르라구냐. -올라구냐. ㉡-라구니². 『아적 찾시간(차가 오는 시간) 멀었ندی 벌써 떠날라구냐?/줍전이 먹구 또 먹을라구냐?』

-라너니 ㉢ -라느니 ㉣(연결) 둘 이상의 말을 나열할 때 쓰는 연결어미. ㉤-라느니. -너니. -느니. -오라너니. -오라느니. 『가현틴 허라너니 말라너니 그런 말 허덜 말어.』

-라너면 ㉥ -러는군 (구문) '-라구 허너면'이 줄어든 말. ㉦-르라너면. -올라너면. 『밀린 일 땀이 오늘두 밤을 썰라너면.(새우려는군)』

-라너면유 ㉧ -러는군유 (구문) '-라구 허너면유'가 줄어든 말. 『자가 또 그 일을 시작할라너면유.(저 애가 또 그 일을 시작하려는군유.)』

-라년 ㉨ -라는 (구문) '-라구 허년'이 줄어든 말. ㉩-오라년. -라는. -오라는. 『또 일을 허라년 소린감?/나더러 저걸 먹으라년 겨?/자가 시방 뭐라년 겨?/글 초보은(結草報恩)이라년 말 들어봤지? 그 게 '사람은 은혜 잊어먹으믄 못 쓰는 거다.'라년 말이어./그 사장이라년 낭반이 자넬 점 보자던디?』

-라년가¹[-/-녕-] ㉪ -러는가 (구문) '-라구 허년가가 줄어든 말.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을 때 쓰는 말. ㉫-라는가. -르라년가. -르라는가. -올라년가. -올라는가. ㉬-라년감. -

르라년감. -올라년감. 『자넬 그 일을 또 할라년가?/그렇기 먹구두 또 먹을라년가?』

-라년가²[-/-녕-] ㉭ -라는가 (구문) '-라구 허년가가 줄어든 말.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할 때 쓰는 말. ㉮-라는가. -오라년가. ㉯-라년감. -오라년감. 『가가 뭐라년가?/ 오늘두 일을 가라년가?/그걸 꼭 찾으라년가?』

-라년가³[-/-녕-] ㉮ -라는가 (구문) ㉯ '-라년개'. 『또 산이 가라년가 비네(또 산에 가라는가 보네.)/얼릉 오라년가 비다.(얼른 오라는가 보다.)』

-라년감¹ ㉯ -러는가 (구문) '-라구 허년감'이 줄어든 말. ㉺ '-라년가'에 비해 은근하거나 완곡하게 물을 때 쓰는 말. ㉻-르라년감. -올라년감. ㉼-라년가. -르라년가. -올라년가. 『널두 또 나갈라년감?/그 빚을 꼭 받을라년감?』

-라년감²[-/-녕-] ㉺ -라는가 (구문) ㉻ '-라년감²'. 『일은 기속 허라년감?』

-라년개[-/-녕-] ㉻ -라는가 (구문) (반침이 없는 어간 뒤에서, '-개 비다'의 형태로 쓰여) '-라구 허년가→라구 허년개'의 준말. 다른 사람이 시킨 내용을 추측하여 이르는 말. ㉼ '-오라년개'. 『또 산이 가라년개 비네(또 산에 가라는가 보네.)/얼릉 오라년개 비다.(얼른 오라는가 보다.)』

-라년디 ㉽ -러는데 (구문) '-라구(의



도형어미)+히-(爲)+-넌디(연결어미)→
라구 허넌디'가 줄어든 말. 욕망, 상태
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 ㉮-르라넌디. -
올라넌디 ㉫ 막 나갈라넌디 니가 온 겨./
배 고파서 밥 헐라넌디 쌀이 읏네.

-라넌지 ㉫ -러는지 (구문) '-라구(의
도형어미)+히-(爲)+-넌지(연결어미)→
라구 허넌지'가 줄어든 말. 추측, 의문,
의심 따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르
라넌디. -올라넌디 ㉫ 비가 올라넌지 바
람이 부네./그걸루 뭘 헐라넌지 몰러두
매음이 개운치 않여./밥을 먹올라넌지
들구 뽕일 드나들더면.

-라넌 겨¹ ㉫ -라는 거야 (구문) '-라
구 허넌 겨여?→라넌 겨여?'가 줄어
든 말. 앞 내용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
는 말. ㉮-라넌 겨. -라능 겨. -래넌 겨.
-래넌 겨. -래능 겨. ㉫ 자가 시방 메라넌
겨?/그리서니 새벽까장 안 잘라넌 겨?

-라넌 겨² ㉫ -라는 거야 (구문) '-라
구 허넌 겨여.→라넌 겨여.'가 줄어든
말. 앞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말.
㉮-라넌 겨. -라능 겨. -래넌 겨. -래넌 겨.
-래능 겨. ㉫ 내 말은 인전 그만 점 두라
넌 겨./그러닝께 시방 너더러 이걸 먹
으라넌 겨.

-라넌 규¹ ㉫ -라는 거예요 (구문) '-
라구 허넌 것이유?→라넌 겨유?'가 줄
어든 말. 윗사람에게 앞 내용에 대한 의
문을 나타내는 말. ㉮-라넌 규. -라능 규.

-래넌 규. -래넌 규. -래능 규. ㉫ 쫓일
주무시구 또 주무실라넌 규?/나할라 그
일이다 끌어디릴라넌 규?

-라넌 규² ㉫ -라는 거예요 (구문) '-
라구 허넌 것이유.→라넌 겨유.'가 줄
어든 말. 윗사람에게 앞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말. ㉮-라넌 규. -라능 규.
-래넌 규. -래넌 규. -래능 규. ㉫ 지 말은
인전 그만두시라넌 규./배 터진다넌디
두 들구 맥일라넌 규. 글씨.

-라넌 겨¹ ㉫ -라는 거야 (구문) ㉮ '-
라넌 겨¹'가 변자음화한 발음 형태. ㉫
또 먹올라넌 겨?

-라넌 겨² ㉫ -라는 거야 (구문) ㉮ '-
라넌 겨²'가 변자음화한 발음 형태. ㉫
저걸 또 먹올라넌 겨.

-라넌 규¹ ㉫ -라는 거예요 (구문) '-
라넌 규¹'가 변자음화한 발음 형태. ㉫
위덜 가실라넌 규?

-라넌 규² ㉫ -라는 거예요 (구문) '-
라넌 규²'가 변자음화한 발음 형태. ㉫
나두 시방 가볼라넌 규.

-라네¹ ㉫ -러네 (구문) '-라구(의도형
어미)+히-(爲)+-네(평서형어미)→라구
허네.'가 줄어든 말.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힐 때 쓰는 말. ㉮-르라네. -
올라네. ㉫ 귀경은 자네덜이나 실컨 허
게. 나는 잠이나 잘라네./난 거긴 관심
끌라네.

-라네² ㉞ -러는군 (구문) ‘-라구(의도 형어미)+허-(爲)+-네(감탄형어미)→-라 구 허네.’가 줄어든 말.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보며 감탄의 뜻을 나타내 하는 말. ㉞-르라네. -올라네. ㉞저 낭만이 또 술 을 마실라네!/정일 먹구 또 먹올라네!

-라네³ ㉞ -러니 (구문) ‘-라구 허네?’ 가 줄어든 말. 상대의 의도를 물을 때 쓰는 말. ※1960대 이후 의문형어미 ‘-네’ 를 쓰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졌음. ㉞-르라 네. -올라네. ㉞일허다 말구 너두 내뻘 라네?(일하다 말고 너도 달아나려고 그러 니?)/너두 호차릴 맞올라네?(너도 회초 리를 맞으려고 하니?)

-라는가¹[-/-능-] ㉞ -러는가 (구문) ㉞ ‘-라년가’.

-라는가²[-/-능-] ㉞ -라는가 (구문) ㉞ ‘-라년개’.

-라능 겨¹ ㉞ -라는 거야 (구문) ㉞ ‘- 라년 겨’가 표준어를 닮아간 형태. ※ ‘-라년 겨’-라는 겨/-라능 겨.’ ㉞그걸루 다 뭘 할라능 겨?

-라능 겨² ㉞ -라는 거야 (구문) ㉞ ‘- 라년 겨’가 표준어를 닮아간 형태. ※ ‘-라년 겨’-라는 겨/-라능 겨.’ ㉞그걸루 다 머래두 짐 히 보라능 겨.

-라는 규¹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년 규’가 표준어를 닮아간 형태.

-라는 규²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년 규’가 표준어를 닮아간 형태.

-라는 규¹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년 규’가 표준어를 닮아간 형태. ※‘-라년 규’-라는 규/-라능 규.’ ㉞또 산일 올러갈라능 규?

-라는 규²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년 규’가 표준어를 닮아간 형태. ※‘- 라년 규’-라는 규/-라능 규.’ ㉞나두 추 직 짐 히볼라능 규.

-라니께¹ ㉞ -러니까 ㉞ ‘표준어화 과 정: -랑께)-라닝께/-라니께)-라니까’. 확 인, 강조,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어미. ㉞-라닝께. -랑께. ㉞나참, 그게 아니라니께./그건 요롱기 허년 거 라니께./어허, 그쪽이룬 가지 말라니께.

-라니께² ㉞ -러니까 (구문) ‘표준어화 과정: -랑께)-라닝께/-라니께)-라니까’. ‘-라구 허니께’가 줄어든 말. 의도를 행 하고자 하는 상황, 의도에 대한 근거, 예상 따위를 드러낼 때 쓰는 말. ㉞-라 닝께. -랑께. ㉞또 헐라니께 찢리던감?/ 혼쳐 먹올라니께 내 생각 난 겨?/나참, 그게 아니라니께 드꾸 그려쌍네.

-라닝께¹ ㉞ -러니까 ㉞ ‘-라니께’ 의 이형태. ㉞그건 요롱기 허년 겨라닝께.

-라닝께² ㉞ -러니까 (구문) ㉞ ‘-라니 께’의 이형태. ㉞넝가 허년 부탁이라닝 께 더는 말 앓겼지만 말여./비가 올라 닝께 자구 니얼 가더락 혀.



-라두¹ ㉞ -라도 ㉞(연결) 용언 '이다, 아니다'나 선어말어미 '-오시, -더' 뒤에 붙어, 가령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뜻으로 이어주는 말. ㉞-래두, -락두. ㉞그 일 아니라두 난 바빠 죽겠던 사람이여./오달 가더라도 근강버텨م 챙겨.

-라두² ㉞ -려도 (구문) '-르라우 혀두 (-르라우 헤두)'의 준말. 화자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면서 뒤 절의 내용은 그렇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 ㉞-올라두. ㉞-재두. ㉞집 뻐이라두 나가 불라두 손주눔 땀이 나갈 수가 읍당께./장사를 할라두 밑천이 있어야 허지.

라두³ ㉞ 라도 ㉞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①차선의 선택이나, 극단적인 것의 선택을 나타내는 보조사. ㉞래두, 락두, 이라두, 이래두, 이락두. ㉞증배고푸른 이 도마도라두 점 먹어봐./갈디 읍으른 거기라두 가봐. ②무엇이든 상관없음을 나타내거나, 앞말을 강조할 때 쓰는 보조사. ㉞래두, 락두, 이라두, 이래두, 이락두. ㉞월제라두 손이 필요허문 은락(連絡)혀./그런 일은 어른내라두 할 수 있는 겨.

-락두¹[-뚜] ㉞ -라도 ㉞ ㉞ '-라두'. ㉞그 사람 아니라두 지는 아술 것 읍유.(그 사람 아니라도 아쉬울 것 없어요.)/자네 바뿌더락두 장관 내점 보세.

락두² ㉞ 라도 ㉞ ㉞ '라두³'의 이형태. ㉞일을 시킬라든 호맹이라두 줘봐./

그런 일이라든 나락두 허덜 못혀.

-랑께¹ ㉞ -려니까 ㉞ ㉞ '-라니께¹'의 이형태. ㉞그건 요롱키 허닌 겨랑께.

-랑께² ㉞ -려니까 ㉞ ㉞ '-라니께²'의 이형태. ㉞슨상님이 사과의 뜻이루다 존헌 겨랑께 내 위텨 수 읍이 받녕 겨.

-래닌 겨¹ ㉞ -라는 거야 (구문) ㉞ '-라닌 겨¹'.

-래닌 겨² ㉞ -라는 거야 (구문) ㉞ '-라닌 겨²'.

-래녕 겨¹ ㉞ -라는 거야 (구문) ㉞ '-라닌 겨¹'. ㉞이걸 통째루 먹으래녕 겨?

-래녕 겨² ㉞ -라는 거야 (구문) ㉞ '-라닌 겨²'. ㉞그렇게 대충 봐달래녕 겨.

-래닌 규¹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닌 규¹'. ㉞나더러 거길 또 대너오래닌 규?

-래닌 규²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닌 규²'.

-래녕 규¹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닌 규¹'.

-래녕 규²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닌 규²'. ㉞지 말은 몸살나덜 앞게 으르신 몸버텨م 챙기래녕 규.

-래는 규¹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닌 규¹'가 표준어화한 형태.

-래는 규² ㉞ -라는 거예요 (구문) ㉞

‘-라년 규²’가 표준어화한 형태.

-래능 거¹ ㄷ -라는 거야 (구문) ㄷ ‘-라년 거¹’. ㄱ 야가 시방 내보구 머래능 거?

-래능 거² ㄷ -라는 거야 (구문) ㄷ ‘-라년 거²’. ㄱ 시방 야 말은 자네보구 잘 헤보래능 거.

-래능 규¹ ㄷ -라는 거예요 (구문) ㄷ ‘-라년 규¹’. ㄱ 줄려 죽겠다년 애를 옆이서 왜 들구 일쓸래능 규?

-래능 규² ㄷ -라는 거예요 (구문) ㄷ ‘-라년 규²’. ㄱ 줄려두 점 참으래능 규.

-래두¹ ㄷ -라도 ㄷ ㄷ ‘-라두¹’. ㄱ 아 무리 넘덜이 뭐래두 난 그 일 문휴(못해요)./얌만 돈이 많더래두 유세나 떨구 땡기년 사람은 방갑덜 앓유./고향이 아 니래두 정 붙이구 살다보든 다 살만헤 지능 거.

래두² ㄷ -라도 ㄷ ㄷ ‘라두²’. ㄱ 이거 래두 괜찮으든 갔다 써봐./그눔은 너래 두 벨수웁을 거여.

-래서야 ㄷ -려서야 (구문) ‘-라고 혀서야(-라구 히서야)’가 줄어든 말. (-르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건으로, 그리하면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ㄷ -르래서야. -래서야. ㄱ 그 구연 양복을 혼 못꼬쟁이다 걸래서야 쓰겠남?/그 큰 바웃독을 심이루 밀래서야 되겠어?

-래야 ㄷ -려야 (구문) ‘-라고 혀서야(-라구 히서야)’가 줄어든 말. (-르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ㄷ -을래야. -르래야. ㄱ 그건 너머 무거서니 저 울루다 달래야 달 수가 읍유./명석을 말래야 말 것두 읍구면유.



마끼 ㅍ 매끼 ㅁㅁ 끈이나 새끼줄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매끼. ㉺샷내끼를 시 **마끼**나 갖다가 오따 쓸라남?/정일 샷내끼 두 **마끼**두 못 꿇단 말여?

마냥 ㅍ 처럼 ㅁ 두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차람. 같이. 곁이. ㉺저눔**마냥** 뻥질그리며 말썽시피는 늑두 드물어. 으른 말 안 듣구 지름쟁이**마냥** 빠져댕기년 게 천상 시국지라닝께./쑤숫땡이 **마냥** 빼썸 말른 사람이 그 된일을 워티기 허겸다능 겨?

마늘-공 ㅍ 마늘-종 ㅁ '마늘(菹)+사+공(莖)'. 마늘의 대에서 솟아나오는 꽃줄기. ㉹마늘쫑. ㉺공주 이남이루 가문 **마늘쫑**더러 마늘쫑이라구두 현다더면./**마늘쫑**을 뽑어서니 짱아찌나 당굴까 헛더니 업니가 못 허게 허더라구. **마늘쫑**을 죄다 뽑어내른 엮어 말릴 때 대가 심이 읍다더면.

마직 ㅍ 만치 ㅁ (지시대명사 '이, 그, 저' 따위의 뒤에 붙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망큼. 맹큼. 맨치. 만치. 만침. ㉺거긴 읍목이라 차닝께 **이마직** 내려와./너머 붙어다리덜 말구 **저마직** 점 가라. 답답해 죽겸다.

말 : ㅍ 마을 ㅁ '마술→마실/말:'. 여러 집이 모여 있는 지역. ㉹동네. ㉺건넛**말**/건넛**말**[건넛**말**]. 새**말**. 골**말**. 아랫**말**. 웃**말**. 양짓**말**[양진**말**]. 음짓**말**[음진**말**]./말 앞이루 큰질이 난다넌디 자네 땅두 거 들어가남?

말-거머리 ㅍ 말-거머리 ㅁ '말금저리'.

말-금저리 ㅍ 말-거머리 ㅁ[동물] 몸집이 큰 거머릿과의 한 갈래. ㉹말**거머리**. ㉺우린 동네인 왜 **말금저리**가 읍대유? 큰 방죽이나 노상 권물이나 사년게 **말금저리**여. 산골 논이는 물이 말들

때가 많으께 말금저리가 살덜 못허지.

말지기 ㅍ 말지기 ㅊ '말(斗)+지기→말지기'말지기. 한 말 분량의 법씨를 뿌려 가꿀 만한 넓이의 땅. 되지기의 열 배가 되는, 200평 정도의 땅. ㉠말지기. ㉡되박지기/되지기. 섬지기/습지기. ㅍ 그 논은 댛 말지기나 된다? 다랭이가 여럿이닝께 암체두 서너 말지긴 되잖을까유?

말 : -질[-짚] ㅍ 마을-길 ㅊ ㉠ '동넷질'.

말-허자문[마러-] ㅍ 말 : -하자면 ㅊ ㉠ '말허자문'. ㅍ 그 사람이 말허자문 약방이 감초여. 톱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지.

말-허자문[마러-] ㅍ 말 : -하자면 ㅊ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말허자문. ㉡이틀테문. 개령(假令). ㅍ 그계 톱 그릉다년 게 아니구, 말허자문 그릉다년 거지.

말-허잡[마러-] ㅍ 말 : -하자면 ㅊ ㉠ '말허자문'의 줄임말. ㅍ 말허잡 그냥반이 내 성님겔은 사람이다 이거여.

망긔-망긔[-깁-깁] ㅍ 몽긔-몽긔 ㅊ ㉠ '몽긔몽긔'. ㅍ 망긔망긔 망설이지 말구 후딱 일어나.

망상-거리다 ㅍ 망설-이다 ㅊ(자) ㉠ '망상그리다'. ㅍ 후딱 쳐야 혀. 그렇기 고개 짜웃거리매 망상거럴 시간이 읏다 닙께.

망상-그리다 ㅍ 망설-이다 ㅊ(자) '망상그리다'망상거리다'. 마음속으로 궁리만 하고 어찌 할 바를 정하지 못하다. ㉠망상거리다. ㅍ 자는 맨날 망상그리기만 허구 뭘 지대루 허넌 게 읏구 먼./야, 이눔아. 그렇기 망상그리구 있다가 해 넘어간다이.

망상-망상 ㅍ 망설-망설 ㅊ 어찌해야 할 바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 모양. ㅍ 망상망상 머리는 굴리더면 그린다구 뽀죽헌 수가 나갓넌?

망상망상-허다 ㅍ 망설망설-하다 ㅊ(자) ㉠ '망상그리다'. ㅍ 저 촌방지축이 방안이 처백혀 망상망상허넌 게 암만히 두 뭇 일을 즈질렀능개 벼.

망월이 ㅍ 망월-긔(望月-) ㅊ<민속> ㉠ '망우리'.

맞은-짹 ㅍ 맞은-편 ㅊ 마주하고 있는 쪽.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반대편에 있는 곳. ㉠맞은편. 맞은편짹. ㅍ 개우장 근너 저 맞은짹인 누가 사능 겨?/산 맞은짹이루 쪽 가른 이티(배티, 梨時)유.

맞은편-짹 ㅍ 맞은편-짹 ㅊ ①마주하고 있는 쪽. ㉠맞은짹. 맞은편. ㅍ 그 맞은편짹이루 가른 질이 읏어. ②마주한 상대편이 있는 쪽. ㉠맞은편. ㅍ 넌 그짹편이루 들지 말구 저 맞은편짹이루 가.

맞은-바래기 ㅍ 맞은-바라기 ㅊ '맞-(對)+-은+바라-(見)+-기'. 앞쪽으로 바

라보이는 곳. ㉔맞은편. 맞은편쪽. ㉕저 산 맞은바래기루 가쁜 고사리가 참 많아./맞은바래기서 그 늪이 들구 흠쳐보넌디 되게 신경쓰이더면.

-매 ㉖ ㉗-며 ㉘(연결) (모음이나 ㄹ로 끝나 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뒤에 붙어) 앞뒤 절의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 ㉙-오매. ㉚ 매칠채 애가 책가방을 사내라구 짜드넌디 돈이 있어야쥬. 오늘 아침이두 올매 핵결 갔넌디 속상허 죽겼유./맨날 바뿌닝께 일허매 밥 먹넌 게 버릇이 뒀어./오매 가매 더러 만난 적은 있구먼유.

매기 ㉛ 맥(脈)/밑천 ㉜ ㉝'맥(脈)+이(조사)→매기'. 노름판에서의 돈 목숨. ㉞'맥'. ㉟매기가 끊졌이니 난 일어나겠네. /매기(맥이) 떨어졌으면 얼릉 털구 나와./이구, 큰 것 한 방이 매기가 달랑 달랑허너면./요게 매긴디 클났네.

맥(脈) ㉛ 맥(脈)/밑천 ㉜ (심장 박동에 의한 핏줄의 진동. 또는 '목숨'을 뜻하는 '맥'에서) '노름판에서의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맥'과 '매기': '목숨'을 뜻하는 '맥(脈)'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 '매기'가 된 것으로 본다. 충청도에서는 '맥이 읊다. 맥(이) 떨어지다. 맥이 끊어지다'와 '매기가 읊다. 매기가 떨어지다. 매기가 끊어지다.' 따위가 함께 쓰인다. 따라서 어형의 오분석(誤分析)에 의해 '맥이'를 '매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다. ㊱맥이 떨어지다.→매기가 떨어지다.(밑천이 바

닥나 노름의 숨이 끊어지다.)/맥이 끊어지다.→매기가 끊어지다.(밑천까지 모두 잃어 돈 목숨이 끊어지게 되다.)/맥이[매기] 달랑거리다.(밑천이 바닥에 이르러 노름 목숨이 위태롭게 되다.)

-맨서 ㉞ ㉟-면서 ㊱(연결)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뒤에 붙어) 앞뒤 절을 대등, 동시, 대립 따위로 이어주는 어미. ㊲-오맨서. ㊳-매. ㊴개넌 잠자맨서 멀 먹유./돼지마냥 살찌맨서두 맨날 먹어대서 큰일이유.

-맨서니 ㊵ ㊶-면서는 (구문) '-맨서(어미)+니(보조사)'. ※'니'는 보조사 '는'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체언 뒤에서는 '니'로 쓰이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㊷지두 물르맨서니 뭇 잘난 책이라?/시간이 뽕뽕 남넌다맨서니 왜 그 일은 허덜 않녕가?

맨질-거리다 ㊸ ㊹(자) '만질→맨질(전설모음화)+거리다'. 사물의 표면이나 살결 따위가 매끄러운 느낌이 나다. ㊺반들거리다. 반질거리다. 민들거리다. 맨들거리다. 만질만질하다. ㊻삭시 살글이 올매나 맨질거리구 곤 중을 물르겼어./농새 짓넌 사람 손바당이 왜 이렇기 맨질거리냐? 으네 방구석쟁이 틀어백혀 샅내끼만 봤넌디 그럼 이 손이 안 맨질거리구 배겨나남유?

맨질-맨질 ㊼ ㊽만질-만질 ㊾ 사물의 표면이 매끄러운 모양. ㊿맨들맨들. 민들민들. 반들반들. 반질반질. ㉑저 늪이 흑



장냥을 허더니 말래바다할라 맨질맨질
백질을 혀났구면. ㉮ 맨질맨질-허다.

맹큼 ㉮ 만큼 ㉮ ㉮ '망큼'. ㉮ 인정이
곤 눈껌맹큼두 읊다니께.

먹잘 것[-곶] ㉮ 먹을 것 (구문) '먹-
(食)+자시-(食)+-크(어미) 것'. '먹구 자
시구 헐 것'의 준말. ㉮ 채린 거냐구 먹
고 자시구 헐 것두 읊구면.→채린 거냐
구 먹잘 것두 읊구면.(차린 음식이 변변
치 않음을 불만스럽게 이를 때 쓰는 말)

-면 ㉮ -면 ㉮(연결) ㉮ '-면'. ㉮ 일을
그리 허면 못써.

멀국-짐치[-짬-] ㉮ 물-김치 ㉮ 무나
배추를 절여 국물을 많이 넣고 심심하
게 담근 김치. ㉮물짐치. ㉮ 멀국짐치는
쓰년 사람이나 쓰구 우털은 가냥 물짐
치라구 혀.

멀렁-허다 ㉮ 물렁-하다 ㉮ 어떤 물
체가 매우 연한 느낌이 있거나, 사람의
성정이 약하고 무르다. ㉮말강허다. 물경
허다. 말랑허다. 물렁허다. ㉮ 금방 찌넌
거니께 멀렁헐 겨. 그러닝께 굳기 즈이
얼릉 먹어./니가 그렇게 멀렁감차람 멀
렁허닝께 넘달이 깐보구 그러닝 겨.

멀경-허다 ㉮ 물경-하다 ㉮ 어떤 물
체가 가벼운 힘에도 뭉개지거나 터질
정도로 물렁하다. ㉮말강허다. 물경허다.
말랑허다. 멀렁허다. 물렁허다. ㉮ 다 굳들
않아서니 멀경헌 것을 가냥 쌓아올리믄

오쩨다?

멀크덩멀크덩-허다 ㉮ 물경물경-하
다 ㉮ ㉮ '멀경멀경허다'보다 큰말.

멋-읊이[머듬씨] ㉮ 멋-없이 ㉮ ㉮
'멋읊이'.

멋-읊다[머듬따] ㉮ 멋-없다 ㉮ 격에
어울리지 않아 매력이 없다. ㉮ 년 오티
기 된 게 옷을 사두 꼭 멋읊년 것만 골
라 산다니?/년 그런 멋읊년 늬이 오디
가 좋아서 좇어멍기능 겨?

멋-읊이[머듬씨] ㉮ 멋-없이 ㉮ 격에
어울리지 않아 매력이 없게. ㉮ 저 사람
은 삐쩍 말러 쟁쟁허니 멋읊이 키만 크
단 말여./돈두 있구 멀쟁허니 생겨서니
왜 그렇기 멋읊이 사능가?

멍우 ㉮ 머위 ㉮ ㉮ '멍위'.

멍웃-대[-온때] ㉮ 머웃-대 ㉮ ㉮ '멍
웃대'. ㉮ 멍웃대를 머더라 그렇기 많이 벼
왔다?

멍윗 : -대[-우인때] ㉮ 머윗-대 ㉮ 머
위의 앞을 떠받치고 있는 줄기. ㉮멍웃
대. ㉮ 뒤란이 멍윗대가 유산(雨傘)차람
퍼났넌디 암체두 벼서 이우지덜헌티 돌
리아겼여.

메 ㉮ 뭐 대 ㉮ '뻬'. ㉮ 그러, 그 사람
이 너보구 메라 그런 겨? 아뉴. 메라
허던 안 헛지면 지 맴이 점 편털 았유.

메라구러다 ㉮ 뭐라고 하다 (구문) '무

엇이라구 허다→뻬라구 허다)메라구려다'. ♣자가 지금 메라구려넌 겨? 메라구려긴 멀 메라구류? 으르신은 인전 볼 것 읍응께 집이 가서 애나 보라능 거쥬.

메루치 ㅍ 멸치 ㅍ(동물) 멸치과에 속한 바닷물고기. ㅍ멜치. ♣아니 내가 소유? 상이 맨 푸성거리만 잔뜩허구 하다 못허서 메루치 콩덩이이라도 점 있어야 밥을 먹을 것 아뉴?

메루치-젓[젓] ㅍ 멸치-젓 ㅍ 멸치로 담근 젓갈. ㅍ멜치젓. ♣아니 저 낭반이 새우젓두 구연디 먼 메루치젓 타령이랴?

메물 ㅍ 메밀 ㅍ(식물) '피물'메물. ㅍ'모밀'. ♣메물루다가 밥을 히먹던 사람 두 있긴 있었지. 메물을 갈어서 곱겍데를 백기구, 알맹이만 매이다 갈어 가루를 멥길었어. 가루는 치루 쳐서 묵 같은 걸 멥길어 먹었구, 거친 것은 물이 당겼다가 밥을 허넌디 그제 메물밥이여.

메물-꽃[-꽃] ㅍ 메밀-꽃 ㅍ 메밀의 꽃. ㅍ모밀꽃.

메물-밥 ㅍ 메밀-밥 ㅍ 메밀을 찜거나 빵아 곱질을 벗겨내고 지은 밥. ㅍ모밀밥. ㅍ'메물'.

메-벼 ㅍ 메-벼 ㅍ(식물)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멥쌀이 나는 벼. ♣메베나마나 논이 읍넌 걸 오편 심겼는가?

메칠 ㅍ 며칠 ㅍ '며칠→르칠)메칠'. 여러 날이나, 한 달 가운데의 어느 날. ♣

거기 갔다가 메칠이나 묵을 규?/오늘이 음력어루 메칠이쥬?

멘 : 목 ㅍ 면 : 목(面目) ㅍ ㅍ'은목'. ♣인전 그 낭반 볼 멘목두 읍구 맴만 심란허구면.

멜치 ㅍ 멸치 ㅍ(동물) ㅍ'메루치'.

멥매기 ㅍ 멥매기 ㅍ(동물) 제비와 비슷하게 생긴, 칼셋과에 속한 새. ♣이 전이는 멥매기가 집안이 들와 집두 짓구 그렸넌디 말여. 요짐은 멥매기를 통 못 보겼구면. 그려, 지비덜허구 썩여 허갈릴 적인 목가심이 누런 털이 있니 저건 멥매기구나 헛넌디 말여.

멥심 ㅍ 멥심(銘心) ㅍ ㅍ'은심'. ♣내 말 멥심허구 담버턴 조심혀.

멥심-보감 ㅍ 멥심-보감(明心寶鑑) ㅍ ㅍ'은심보감'.

며 : -패다 ㅍ 메-치다 ㅍ(타) ㅍ'메패다'.

며-꾸리 ㅍ 며-서리/며-둥구미 ㅍ ㅍ'메꾸리'.

모밀 ㅍ 메밀 ㅍ(식물) '모뿤→모밀)피밀/피물?'. 마디풀과에 속한 한해살이풀. 또는 그 열매. ㅍ메물. 피물. 피밀. ※'모밀'과 '메물': 예전에는 '피물', '메물'이 많이 쓰였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밀', '모밀'에 비해 사용 빈도가 어퍼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모밀은 판 작물이 잘 안 되던 독자갈 밧이다 심겼어. 메말러두 모밀



은 잘 자러닝께, 곡석으루 잘 치두 았
 했넌디, 빠서니 가를 내서 묵두 쭈구
 죽두 썬 먹구 껌데는 버갯닛이루 놓지.

모밀-꽃[-꽃] ㉠ 메밀-꽃 ㉡ 메밀의
 꽃. ㉢메물꽃. 피물꽃. 피밀꽃. ㉣ **모밀꽃**
 은 비알뵤이 피문 뵤기는 좋앗지. 곡석
 으룬 벨루였구.

모새-밭[-밭] ㉠ 모래-밭 ㉡ '모
 새밭'. ㉢ 또 **모새밭**이서[모새바시서] 장
 냥질이구먼.

모십 ㉠ 모습 ㉡ '모습→모십(전설모음화).
 곁에 드러난 모양이 흔적. ㉢ 허넌 짓이
 나 **모십**이나 똑 지 애비구먼./이전허군
모십이 응 판판이구먼.

모-잡이 ㉠ 모-잡이 ㉡ 모내기를 할
 때 모를 찌거나 나르지 았고, 오직 꽃
 아 심기만 하는 일꾼. ㉢ 모꾼. ㉣ **다랭이**
 논이 호락질을 허넌디 모 찌넌 사람이
 워뵤구 **모잡이**가 워뵤졌어?/**모잡이**가 부
 족허닝께 급헌 대루 모버텨 썬넌 게
 설헐 겨.

모저리 ㉠ 모조리 ㉡ '몽조리'. ㉢
 뭇 쓰넌 것덜은 **모저리** 내다 베렸유.

모-차람 ㉠ 모-처럼 ㉡ 버르고 별러
 서, 아주 오랜만에. ㉢ **모차람** 온 손님
 을 그렇기 내쫓이문 오쩨냐? **모차람**이
 나 마나 저 낭반은 손님두 아누.

목-갈리다[-갈-] ㉠ 목에 걸리다 ㉡
 (자)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생선 가시

나 마른 가루 따위가 걸리다. ㉢ **목갈렸**
 을 적인 밥을 떠서 가냥 생켜봐. 그럼
목갈린 까시가 밥을 타구 내려가능 겨./
 왜 썬썬 그런다? 잉? 침 생키다 **목갈렸**
 다구? 나윈, 침 생키다가 침이 **목갈렸**
 다는 사람은 침 보너면./생선 까시헌터
목갈린 모양이루 목이 뜨끔뜨끔헌 게
 암체두 내가 고퍰 들린 모양이여.

목-괭이[-괭-] ㉠ 괭이 ㉡ <농업> 괭
 이의 날이 두껍고, 날 끝이 사자 모양
 으로 된 괭이. ㉢ **괭**(鑿)을 파야넌디 **목**
괭이가 있어야졌유. 마사토라 **꼭괭이**나
목괭이 아니문 어림두 읍겼구먼유.

목-쟁이[-쟁-] ㉠ 목 ㉡ '목(頸)+-쟁
 이(所, 접사)'. 옆으로 빠져나갈 수 았는
 좁은 통로나 중요한 지점을 나타내는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목. ㉣ **길목**
쟁이(길목), **손목쟁이**(손목), **발목쟁이**(발
 목)./그러닝께 그 꾸부러진 **목쟁이**를 돌
 어스다가니 재수없게 그놈허구 딱 맞딱
 피린 겨.

몸살-허다 ㉠ 몸살 차살 허다/고생-
 허다 ㉡(자) ①어떤 일을 하고 싶은 욕
 망이 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았아 끄
 끄 았거나 애를 태우다. ㉢ **큰놈**이 도회
 지루 뜨구 싶다구 날마두 **몸살허넌디** 이
 를 오쩨냐? ②(다른 곳에 옮겨 심은 나무
 나 작물)새 뿌리를 내리고 새잎을 틈
 우기까지 기존의 잎이나 줄기가 시들며
 고생하다. ㉣ **고춍**모던 뵤던 **뵤**이다 내

다 심으믄 한 사날 **몹살허녕** 겨. 고겔
 푹 숙였다가니 널 아침이믄 고겔 들구
 또 한낮이믄 고겔 숙이구 그렇기 메칠
몹살허구 나믄 더 **뺏뺏**허게 일어스녕 겨.

몽그르다 ㉾ 몽글게 하다 ㉿(타) '몽
 글-(實穀)+-르(접사)+-다'. 추수할 때, 곡
 식의 까끄라기나 허섭스레기를 없애고
 깨끗한 낱알로 정리하다. ㉿도리깨루
 떨은 콩은 죽가래루 모대서 잘 **몽그르**
야 허. 날이 저물었으니까 **몽그르**년 거
 는 날 허더락 허주. 그럼 바심허다 만
 저 콩덜은 뻗방석이루 잘 덮어놔야 쓰
 겠네.

되기 ㉾ 모기 ㉿ '모괴→되기/모기'.
 <동물> 동물의 피를 빠는, 모깃과의 곤
 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모기. 모기.
 ㉿되기덜두 사램 가려 문다니께. 그러.
 자네차람 씻지 않년 사람 용케 알아채
 년 게 **되기**여.

되물 ㉾ 메밀 ㉿(식물) ㉿ '모밀'.

되밀 ㉾ 메밀 ㉿(식물) ㉿ '모밀'.

무쟁이 ㉾ 묵정이 ㉿ '표준어화 과정: 묵
 -(舊)+-영이(접사)→무쟁이'무쟁이/무쟁
 이'. 오래 묵은 것. ㉿무쟁이. ㉿칙끈냉
 일 보구 딱 **무쟁이**인 중 알었유./즈런 **무**
쟁이 캐너라구 월매나 심들었다?

무쟁이-논 ㉾ 묵정-논 ㉿ 여러 해 농
 사를 짓지 않아 거칠어진 논. ㉿아사리
 논. 묵쟁이논. ㉿거긴 이전버텀 물이 말

른 **무쟁이**논이라 아무두 농사 못 겨.

무쟁이-밭[-밭] ㉾ 묵정-밭 ㉿ 여러
 해 농사를 짓지 않아 거칠어진 밭. ㉿아
 사리밭. 묵쟁이밭. ㉿쓰두 못허년 **무쟁이**
밭을 뒤더러 은을라구 현다?

무쟁이 ㉾ 묵정이 ㉿ ㉿ '무쟁이'. ㉿이
 런 **무쟁이** 마를 오서 캬다? 이진 **무쟁**
 이가 아니구요, 심어서 5년 켜 **구**.

무르팍 ㉾ 무릎/무르팍 ㉿ 넓적다리
 정강이의 사이에 있는 관절의 앞부분.
 ㉿무릎. 무릎. ㉿**무르팍**이루 겨맹기년디
 오면 바지가 성허겠냐, 이눔어!

무릅 ㉾ 무릎 ㉿ '무릅이[무르비], 무릎
 을[무르블], 무릅이루[무르비루]'. ㉿ '무
 르팍'. ㉿**무릅**은[무르빈] 오티가다 깨챘다?
 배람박이다 **무릅**을[무르블] 직쫘대유(짓
 쫘았대요).

묵쟁이[-쟁-] ㉾ 묵정이 ㉿ ㉿ '무쟁
 이'. ㉿창고 안이 녹실은 **묵쟁이** 은장덜
 만 가득허구면.

-문 ㉾ -면 ㉿(연결) ㉿ '-문'. ㉿밥을
 먹었으믄 **깨라두**(뚜쟁이러도) 점 들어노
 야지(떨어놓아야지).

물-부게 ㉾ 동태(凍太) ㉿(동물) 마
 른 명태인 '부게'에 대하여, 말리지 않
 은 '명태'를 가리키는 말. '생태(生太)를
 포함하는 말이나, 생선이 귀했던 예전
 에 주로 '동태(凍太)를 이르던 말. ㉿물
 북어. ㉿부게. 북어. ㉿**물부게**를 더더라



그렇기 잔뜩 사온다? 이, 널모리가 우리 짓날(갯날)이여. 지꾼(契-)덜 경거니 할라구 물부게를 사오년 겨.

물-복어 ㅁ 동태(凍太) ㅁ <동물> ㅁ '물부게'.

물탕 ㅁ 물장구/물 튀기기 ㅁ 손이나 발 따위로 물을 쳐서 튀어 오르게 하는 것. ㉠물탕치기. ㅁ 진필서 물탕을 치구 노님께 옷을 후질르능 겨./차그럽다던디 왜 들구 물탕을 차능 겨?/후염두 못 치닝 게 물탕만 디립다(들입다) 쳐 대너면.

물탕-치기 ㅁ 물장구/물 튀기기 ㅁ 손이나 발 따위로 물을 쳐서 튀어오르게 하는 것. ㅁ 저 애는 후염은 못 치구 물탕치기만 허너면.

몽긔-몽긔[-긴-긴] ㅁ 몽긔-몽긔 ㅁ 움직이는 시늉만 하면서 머뭇거리거나, 몸을 비비적거리는 모양. (작은말)망긔망긔. ㅁ 몽긔몽긔 이불만 짓이기덜 말구 얼릉 나가 시수혀. ㅁ(자/타) 몽긔몽긔-허다.

몽긔-거리다[-긴꺼-] ㅁ 몽긔-거리다 ㅁ(자/타) 움직이는 시늉만 하며 머뭇거리거나, 몸을 비비적거리다. ㉠몽긔대다. ㅁ 참 다 먹었으면 몽긔거리지 말구 얼른 인나 일덜 혀.

몽긔-대다[-긴때-] ㅁ 몽긔-대다 ㅁ ㅁ '몽긔거리다'. ㅁ 저누 무 자숙, 몽긔대다가 또 차 놓치겼구면.

몽테기 ㅁ 몽텅이 ㅁ ㅁ '몽티기'. ㅁ 그렇기 몽테기루 싸덜 말구 하나씩 이뿌게 싸란 말여.

몽텅이 ㅁ 몽텅이 ㅁ ㅁ '몽텅이'. ㅁ 접착이 가서니 심문지(新聞紙) 한 몽텅이만 집어 오너라.

몽티기 ㅁ 몽텅이 ㅁ 한데 몽쳐진 큼직한 덩어리. ㉠몽텅이. 몽텅이. ㅁ 뭇사탕을 몽티기루 사게지구 왔다?/뭇 멧몽티기만 저다 발이다 내아겼어.

몽팅이 ㅁ 몽텅이 ㅁ '몽텅(切塊)+--이 (접사)→몽텅이>몽텅이>몽팅이(전설모음화)'. 한데 몽쳐진 큼직한 덩이. ㉠몽텅이. ㅁ 돼지 잡넌덜 갔넌디 말여. 그 낭반이 뭇 생각을 했넌디 나헌터 넓적다리살을 몽팅이루 떼서 싸주더라구.

물-즙성[문썸-] ㅁ 물-즙성 ㅁ 물(陸地)에 사는 짐승. ㅁ 눈이 많이 오른 먹을 게 다 눈이 문히니게 물즙성덜이 많이 굶어죽지.

물-짐성[문썸-] ㅁ 물-짐성 ㅁ ㅁ '물즙성'.

-믄 ㅁ -면 ㅁ(연결)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또는 선어말어미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믄. -면. ㅁ 먹을 겨른 빨랑 먹어./우덜은 바빨 것 읍으닝게 놀맨서 촌촌히 허믄 되여./증 배 고프른 무수라두 뱃겨

먹어.(정 배가 고프면 무라도 벗겨 먹어라.)
-먼서 ㉠ -먼서 ㉡(연결) ㉢ '-맨서'의
 이형태. 쓰임 빈도는 낮다.

미련 곰탕이 ㉠ ㉡ '행동이 굼뜨고 생
 각이 모자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저 미련 곰탕이가 고집은 있네./
 너같은 미련 곰탕이는 차루 실어다 준
 대두 도움이 안 되야.

미련 곰파다 ㉠ ㉡ '미련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골몰하다'에서, '어리석은 사
 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매달려 헛
 되어 애쓰는 짓'을 이르는 말. ㉢ 아니,
 되두 앓을 일이다 미련 곰파년 짓을 왜
 헐라능 규?/이눔아, 미련 곰파지 말구
 니 아배 말대루 혀.

민들-거리다 ㉠ ㉡(자) '맨들→민들(고
 모음화)+거리다. 사물의 표면이나 살결
 따위가 보드랍고 미끄러운 느낌이 나
 다. ㉢ 맨들거리다. ㉣ 맨질거리다. ㉤ 저 사
 람 얼굴이 왜 저렇기 민들거리냐? 저게
 땀인 겨, 지름긴 겨?

민들-민들 ㉠ ㉡ 부드러우면서 미끄
 러운 모양. ㉢ 맨들맨들. ㉣ 맨질맨질. ㉤
 민들민들-허다. ㉥ 지름병을 앓았나, 방
 바닥이 왜 이렇게 민들민들허니 미끼럽
 다?

민-화토 [-/-하] ㉠ 민-화투(-花鬪)
 ㉡ 화투놀이 가운데 기본이 되는 놀이.
 ㉢ 민화토를 뭘 재미무 현다? 아녀, 그

리두 동전내기허년 늙은이덜헌턴 질 꼬
 시구 재미난 것이 민화토여.

밀-대[-때] ㉠ 밀-짚 ㉡ 난알을 떨고
 난 뒤에 남은 밀의 줄기. ㉢ 밀짚. ㉣ 보
 릿대야 그렇지만, 구연 밀대를 아국징
 이다 때년 사람이 오셨다?

밀땀-방석[-땀땀-] ㉠ 밀짚 방석(方
 席) ㉡ '밀(麩)+대(莖)+사+방석(方席)→밀
 땀방석'밀땀방석(변자음화). 추수하고 남
 은 호미의 마른 줄기를 엮어 만든 넓은
 자리. 멍석과 비슷하지만, 곡식을 넣기
 위함 도구가 아니라 여럿이 올라가 앉
 을 수 있는 자리이다. ㉢ 밀땀방석. ㉣ 날
 더우니께 밀땀방석 깔구 마당서니 저녁
 먹자./여름인 그늘낭구 밀이다 밀땀방
 석을 축허니 깔어놓구 낮잠 자년 게 최
 고 피서지.

밀땀-방석[-땀땀-] ㉠ 밀짚 방석(方
 席) ㉡ ㉢ '밀땀방석'.

밀-천대 ㉠ 밀 서리 ㉡ '밀(小麥)+천대
 (火熟). 여름철 남의 밭의 밀 이삭을 따
 다가 구워 먹는 일. ㉢ 콩천대는 흔했지
 먼 밀천대야 흔했남? 밀은 구영께(귀하
 니까) 이삭 맺 개 따다가 귀 먹년 정도
 였지.

밋등[민똥-] ㉠ 밀동 ㉡ ㉢ '밀똥'. ㉣
 나뭇가지쟁일 치너라 고상할 것 읍이
 가냥 밋등을 싹뚝 찢러뼈려.

밀등[민똥-] ㉠ 밀동 ㉡ 식물의 뿌리 부



분이나, 사물의 아랫부분을 이르는 말.
 ㉠ 밋동. 밋동. 밋동. ㉡ 밋동어리. 밋동어리. 밋동어리. 밋동어리. ※ '밋동'과 '밋동': 예 산말은 양성모음 'ㄱ, ㄴ'과 음성모음 'ㄱ, ㄴ'의 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짐. '그러-그랴, 하-혀, 까장-꺼정, 같이-겉이, 꼬부러-꾸부러'처럼 '밋동-밋동'도 변별력 없이 어우러져 쓰임. ㉢ '무수 밋동이 왜 이렇게 선잖냐? 내가 딱 보니까 너머 늦게 심어서니 밋동이 들 실은 거구먼.

밋동-어리[밋동-] ㉠ 밋동-어리 ㉡
 ㉢ '밋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밋-바닥[밋빠-] ㉠ 밋-바닥 ㉡ ㉢ '밋바당'.

밋-바당[밋빠-] ㉠ 밋-바당 ㉡ ㉢ '밋바당'.

밋-바당[밋빠-] ㉠ 밋-바당 ㉡ '밋바당/밋바당/밋바당/밋바당'. ① 사물의 바닥을 이루는 부분. ㉢ 새암이 원체 짙은 게 밋바당이 봐두 않냐면. ② 계층의 맨 아래나,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빗대어 이르는 말. ㉢ 암꺼두 읊넌 밋바당 생활이란 게 오죽허겠냐?

밋동-어리[밋동-] ㉠ 밋동-어리 ㉡
 ㉢ '밋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므칠 ㉠ 며칠 ㉡ ㉢ '메칠'. ㉢ 이 사람이, 일 시작헌지 므칠이나 뵈다구 벌써 지겹대는 거?

믈 : **모** ㉠ ㉡ 면 : 모(面貌) ㉢ ① 얼굴의

모양. ㉢ 그 총각 **믈**모가 얼마나 뛰어나던지 보년 이주매덜마두 다 사우 삼구 싶다구 현다. ② 사물의 모습이나 상태. ㉢ 증치인덜의 **믈**모라년 게 앞이선 멧있구 뒤루 가른 다 구린 거.

믈 : **목** ㉠ ㉡ 면 : 목(面目) ㉢ 낮이나 체면. ㉣ 멘목. ㉢ 사둔 **믈**목이 읊어서니 은락두 못 디렸유./나두 **믈**목이 있넌디 짚 자리 못짚 자리 가리두 앵구 막 찾아 멧기매 내 사증 점 봐달랄 손 없잖은가?

믈 : **민** ㉠ ㉡ 면 : 민(面民) ㉢ 면내의 주민. ㉢ **믈**민 치육대회를 현다넌디 하냥 가보덜 앵겠냐? **믈**민을 위한 노래자랑두 허구 증신두 술두 풍짜라던디.

믈밀-허다[-미러-] ㉠ ㉡ 면밀-허다(綿密-) ㉢ 세밀하고 빈틈이 없다. ㉢ **믈**밀허게 살펴보라군 헛넌디 암체두 자네가 가봐야 쓰겼구먼.

믈 : **믈-이** ㉠ ㉡ 면 : 면-이 ㉢ ① 여러 면에 있어서. 제각기. ㉢ **믈**믈이 살펴봤넌디 벨 이상은 읊구면유. ② 행정구역인, 각 면마다. ㉢ 지가 **믈**믈이 다 멧여 봤지면 이 **믈**사람덜차람 인심 좋은 디는 못 봤네유.

믈 : **박** ㉠ ㉡ 면 : 박(面駁) ㉢ 얼굴을 맞대고 꾸짖어 나무라는 것. ㉢ 참, 으르신두 입장 바꿔 생각히 보슈. 그렇기 대놓구 **믈**박을 주시믈 저 친구는 뭐가 되겠냐구유?

문 : -벽 [문] 면 : 벽(面壁) [문] <불교> '문벽'은벽'. 벽을 보고 좌선함. [문]문벽. 『문벽은 아무나 허냐? 너같은 지식은 벽 앞이 안지자마자 벽이다 머리 박구 코골 겨.

문 : 봉 [문] 면봉(綿棒) [문] 끝에 솜을 말아 붙인 작고 가느다란 막대. 『귀 후 비개가 읊으니까 귀 개러우문 **문봉**을 갖다가 후비겨라.

문 : -벽 [문] 면 : 벽(面壁) [문] <불교> 『문벽'.

문 : 식 [문] 면 : 식(面識) [문]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관계. 『그 사람은 통 **문식**이 읊년 사람이다 나를 오티기 알구 찾는다?

문 : 식-범 [문] 면 : 식-범(面識犯) [문] <법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인 사건의 범인. 『승폭력이라년 게 본래 **문식범**의 짓인 겨. 가차운 사람이 더 미서운 사상이라년께.

문 : 식-범 [문] 면 : 식-범(面識犯) [문] 『문식-범'.

문 : 역 [문] 면 : 역(免疫) [문] 『문역'.

『문역이 생겨서니 난 주사 안 맞어두 된다.

문 : 옥 [문] 면 : 역(免疫) [문] '문옥'은역'.

①<의학> 몸속에 들어온 병원(病原)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된 상태. 또는 그런 작용. ②갈

은 일이 되풀이됨에 따라 그것에 무디 어지는 것. 『그 녀석이 혼나는 일인 **문옥**이 되서 앵간해서는 시긋두 앵혀. [문] (자) 문 : 옥-되다.

문 : 역-력 [-영-] [문] 면 : 역-력(免疫力) [문] 『문역력'.

문 : 옥-록 [-응-] [문] 면 : 역-력(免疫力) [문] <의학> '문역록'은역력'.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항하는 능력. [문]문역력. 『예방주사를 맞아야 **문역록**이 생겨 **문**이 안 걸리지.

문 : 접 [문] 면 : 접(面接) [문] 『문접'.

문 : 즘 [문] 면 : 접(面接) [문] '문즘'은접'. ①서로 마주 만나봄. ② 『문즘 시업'. 『문즘 보년 날 **문**이 나서 재수 옴 붙었다년께. 그리서 **문즘**을 보긴 본겨? [문] (자) 문즘-허다. 『문즘허려 가년디 지왕이문 깨갓이 허구 가야 좋지.

문 : 접-시험 [-씨-] [문] 면 : 접-시험(面接試驗) [문] 『문접시험'.

문 : 즘-시험 [-씨-] [문] 면 : 접-시험(面接試驗) [문] 직접 대면하여 상대의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 [문]문접시험. 『입사 서류두 통과됐구유. 필기시험두 합격(合格)했이년께 인전 **문**즘시험만 보문 된대유.

문 : 허-짱 [문] 면 : 허-증(免許證) [문] 『문허짱'. 『가게문 닫으



섯으면 폐업신골(閉業申告-) 허시구 **문허짱**은 반납허슈.

문 : 흐-짱 [므느-] **ㅍ** 면 : 허-증(免許證) **ㅇ** <법률> '문:흐(免許)+증(證)-문:흐짱'문: 허짱. 행정 기관이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 ㉔므너짱. 문허짱, **ㅍ문허짱**은 술허다넌디 추직을 못허구 있다. 그리기 **문허짱**이란 것이 쓰기 나뉘이지 많이만 갖구 있다구 다 좋은 건 아니래잖어.

문 : 회 **ㅍ** 면 : 회(面會) **ㅇ**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 찾아가 어떤 사람을 만나 봄. **ㅍ문회**는 잘 허구 왔남? 이, **문회**를 허긴 했넌디 그 냥반 얼굴이 안 되서니 맘이 걸려. **ㅇ** 문 : 회-허다.

문 : 회-소 **ㅍ** 면 : 회-소(面會所) **ㅇ** '문회실'.

문 : 회-실 **ㅍ** 면 : 회-실(面會室) **ㅇ** 면회하는 사람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방. ㉔문회소. **ㅍ** 가막소 **문회실**인 다신 가구 싶덜 앓구먼.

문경지수 **ㅍ** 명경지수(明鏡止水) **ㅇ** 거울과 같이 맑고 고요한 물. 또는 허욕이 없이 깨끗한 마음. **ㅍ** 내 맘이 시방 **문경지수**여. 글 읍넌 물이닝께 들구 술 먹자넌 소린 말어.

문궁 **ㅍ** 명경(明鏡) **ㅇ** '문궁>문경. 맑고 깨끗한 거울. **ㅍ** 개울물이 월매나 맑은지 **문궁**이 따루 읍다닝께.

문궁지수 **ㅍ** 명경지수(明鏡止水) **ㅇ** '문경지수'.

문당 **ㅍ** 명당(明堂) **ㅇ** '문당/명당'명당. ①씩 좋은 자리. **ㅍ** 더위 죽넌 중 알었넌디, 요기가 선현 게 **문당**이구먼. ㉔명당. 명당. ②<민속>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밋자리나 집터. **ㅍ** 남연군 밋자리가 **문당**이라 허넌디, 가야산 자락 대부분이 **문당**이란 얘기두 있어.

문당-자리[-짜-] **ㅍ** 명당-자리(明堂-) **ㅇ** <민속> '문당'.

문 : 령[-녕] **ㅍ** 명 : 령(命令) **ㅇ** '문릉'.

문 : 령-서[-녕-] **ㅍ** 명 : 령-서(命令書) **ㅇ** '문릉스'. **ㅍ** 홍성 법원(法院)서 출석 **문릉서**가 나왔구먼.

문령-어[-녕-] **ㅍ** 명 : 령-어(命令語) **ㅇ** <컴퓨터> 컴퓨터에 연산이나 일정한 동작을 실행시키는 기계어.

문 : 령-형[-녕-] **ㅍ** 명령-형(命令形) **ㅇ** <언어>'문릉릉>문령형'. 요구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의 활용 형태. **ㅍ** **문령형**은 무엇을 해라 허넌 식이루 시키넌 뜻을 나타내넌 모양을 뜻허넌 겨.

문 : 룡[-능] **ㅍ** 명 : 령(命令) **ㅇ** '문릉>문령>명령'. ①군이나 조직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킴. **ㅍ** 니가 뉘디 저 애덜헌터 이러라

저러라 **용룡**을 하는 거? ②〈법률〉 행정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에 부과하는 구체적인 처분. ②면 문제가 있으니까 굳이서 공사 중지 **용룡**을 떨어졌잖지. **용**(자) 용 : 용-하다.

용 : **용-문**[-능-] **용** 명 : 령-문(命文) **용** ①명령의 내용을 담은 글. ②〈언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문장. **용** 이리라 저러라 듣기 안 좋으니까 **용룡문**일랑 쓰달 말어.

용 : **용-스**[-능-] **용** 명 : 령-서(命書) **용**〈법률〉 명령의 내용을 적어 명령의 대상에게 보내는 문서.

용 : **용-형**[-능-] **용** 명령-형(命令形) **용**〈언어〉 **용** '용령형'.

용망 **용** 명망(名望) **용** 널리 알려진 이름과 덕망. **용** 요새는 **용망**이 점 있다 싶은 사람덜은 다 증치판이 떠드던 시상이여, 손거루 뺏히던 건디 그럼 **용망** 읍년 사람이 오티기 증치판일 찌웃거리겠는가?

용망-가 **용** 명망-가(名望家) **용** 덕망이 있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용** **용망가**덜이 많이 나와야 우리 예산두 빛을 볼 텐디 말어.

용문¹ **용** 명문(名文) **용** 글로 지어진 조문(條文).

용문² **용** 명문(名門) **용** 이름 있는 집안이나 학교. **용** 그 집이 이전이는 참 **용**

문 집안이루 소문두 났었던디 시방은 다 헛 거여./한일고등해겨니 공주사대부고니 허던 디가 **용문**이라구는 허더면.

용문-가 **용** 명문-가(名文家) **용**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훌륭한이름난 집안. **용** 옛날이는 권세를 누린 집안이 **용문가**였지만, 암만허두 요즘은 돈 많은 집안이 **용문가**같구면.

용심 **용** 명심(銘心) **용** '표준어화 과정: 명심/명심'명심'. 어떤 말이나 일을 가슴 깊이 새겨둠. **용**명심. **용** 내 말을 백번 곱씹구 **용심** 또 **용심**히서 담버텨는 이런 일 읍더락 허라이. **용**(타) 명심-하다.

용심-보감 **용** 명심-보감(明心寶鑑) **용** 고려 충렬왕 때 추적(秋適)이 중국 고전의 명구들을 모아 편찬한 어린이용 인격 수양서. **용**명심보감. 명심보감. **용** **용심보감**, **용심보감** 허넌디 말여. 자네 한문이나 읽을 중 알매 그런 소릴 허녕겨? 옛날 책이나 한문이지 요즘 **용심보감**은 진문 아래이다 은문이루 다 풀어 놔서 나두 읽을 수 있어, 이 사람아.

용-재상 **용** 명-재상(名宰相) **용** 정사를 잘 돌보아 이름 높은 재상. **용**명재상. **용** 조선시대 충백리요, **용재상** 허른 황희 정승허구 맹사성 정승 아닌감? 온양 지나다보든 큰질 오른편짜이루 맹씨 행단이라고 있잖어. 거가 **용재상** 맹사성이 검은소 타구 맹기매 살던 집이여.

용저 **용** 명저(名著) **용** '표준어화 과정:



몽즈)몽저)명저. 훌륭한 저술이나, 빼어난 저서. 『사사삼경(四書三經)허문 동양의 몽즈』인디 요새는 통 얘기두 읊어.

몽조 ㄱ ㅍ 명조(明朝) ㄱ ①명나라 조정. ② ㄹ '몽조체'.

몽조-체 ㄱ ㅍ 명조-체(明朝體) ㄱ 명나라 때의 서풍을 따른, 글씨체의 한 갈래. ㄹ몽조. 『본문은 고딕체루 허문 너머 딱딱허닝께 부드런 몽조체루 허지.』

몽 : 태 ㄱ ㅍ 명태(明太) ㄱ <동물> 대구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의 이름. ㄹ명태. 『동태두 구연 집안이 먼 몽태 타 흥유? 몽태던 동태던 밥상이 비린 것이 점 있으야 밥을 먹던지 허잖어.』

몽 : 태-국 ㄱ ㅍ 명태-국(明太-) ㄱ ㄹ '몽태국'.

몽 : 태-국 [-태국/-택국] ㄱ ㅍ 명태-국(明太-) ㄱ '몽태+ㅅ+국>몽태국(몽태국)' 몽태국(변자음화). 명태를 넣어 끓인 국. ㄹ몽 : 태국.

몽 : -허다 ㄱ ㅍ 명 : -하다(命-) ㄱ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거나, 어떤 직위를 맡도록 하다. ㄹ명허다. 『윗사람이 몽헌 거닝께 허긴 허네티 응 허구 싶던 얹언 일이어.』

몽함 ㄱ ㅍ 명함(名銜) ㄱ 조그만 종이에 이름, 직업, 연락처 따위를 적은 것. ㄹ맹함. 명함. 『아무래두 몽함을 하나 박으야겠어. 몽함은 파서 뒤틀허라우?』

몽함-판 ㄱ ㅍ 명함-판(名銜判) ㄱ 명함만한 크기의 사진판. ㄹ맹함판. 명함판. 『차는 몽함판 사진을 오따 쓸라구 뻘겨? 그리기. 추지헌 직장이 인사기록카드가 먼가이다 붙인다너면유.』

몽화¹ ㄱ ㅍ 명화(名花) ㄱ ①아름다운 꽃. ②이름난 기생. ㄹ명화.

몽화² ㄱ ㅍ 명화(名畵) ㄱ ①훌륭하기로 이름난 그림. 『몽화란 게 무지 비싸다던디 내가 봐선 뭐가 뒤진 통 몰르겠더라구.』 ②훌륭하기로 이름난 영화. ㄹ명화. 『이전이 흑백텔레비서 공일날 밤 마두 허던 몽화 극장 있잖어. 그것 시방두 허남?』

몽화-집 ㄱ ㅍ 명화-집(名畵集) ㄱ 여러 명화를 사진으로 찍어서 만든 책. ㄹ명화집.

몽확 ㄱ ㅍ 명확(明確) ㄱ 분명하고 확실함. ㄹ(자) 명확하다. 『핵심을 몽확허게 짚긴 헛네티 그제 증답은 아니구먼./사진이 흐릿허니 몽확허덜 얹어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구먼.』

몽확-승 [-승] ㄱ ㅍ 명확-성(明確性) ㄱ '표준어화 과정 : 몽확승>몽확성' 명확성. 분명하고 확실한 성질. ㄹ몽확성.

몽확-성 [-성] ㄱ ㅍ 명확-성(明確性) ㄱ ㄹ '몽확승'.



-ㅂ슈 ㅍ -ㅂ시오 ㅅ(중결) ‘-ㅂ시유’의 준말. ‘-시’로 끝나는 어간이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 뒤에 붙어, 특별히 높여야 할 자리에서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슈. ※특별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상대에게 정중함을 표할 때 쓰는 말로,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진지 잡수**십슈**.(진지를 잡수십시오.)/어여 드**십슈**.(어서 드십시오.)/하냥 가**십슈**.(함께 가십시오.)/조심하**십슈**.(조심하십시오.)

-ㅂ시유 ㅍ -ㅂ시오 ㅅ(중결) ‘-ㅂ시유’의 본말. ㉢진지 잡수**십시유**.(진지를 잡수십시오.)/어여 드**십시유**.(어서 드십시오.)/하냥 가**십시유**.(함께 가십시오.)/조심하**십시유**.(조심하십시오.)

바른-짹 ㅍ 오른-쪽 ㅅ(중결) 오른손을 옆으로 들었을 때,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 우측(右側). ㉣**바른짹** 발을 내밀어 봐라./공을 잘 적인 **바른짹**이루 차야 히여.

바셔-지다 ㅍ 바셔-지다 ㅅ(자) ‘부셔지다’의 작은말. ㉤이삿집을 증리허다 보니 아깐 **줍시덜**이 다 **바셔졌더면**.

바시다 ㅍ 바수다 ㅅ(타) 무엇을 잘게 깨거나, 쓸 수 없도록 망가뜨리다. (큰)부시다. ㉥큰 **흑덩이허구** 자갈덜은 도치루 **바시아** 쓰겼어.

바시락 ㅍ 바스락 ㅅ(타) 마른 낙엽이나 검불 따위를 밟거나, 그릇 따위를 건드릴 때 나는 작은 소리. ㉦**바스락**. (센말)ㅂ**시락**. ㅂ**스락**. ㉧귀이서니 자꾸만 **바시락** 소리가 나넌디 이게 뭘 일이라?

바시락바시락-허다 ㅍ 바스락바스락-하다 ㅅ(타) ‘바시락거리다’. ㉨술꺼럭이 **바시락바시락허니** 잘 말렸구면./간밤이 문뻐이서 **바시락바시락허넌** 작은 소리가 들리넌디 그게 큰 소리버더 더 신경쓰이더면.

바탕 ㅍ 마당/터 ㅅ(타) 넓은 마당(場)이나

터(基). ㉠ 놀바탕./실바탕/좁은 디서 놀
덜 말구 즈짜 넓은 바탕이 가서 놀어라.

반닥-거리다[-꺼-] ㉡ 반득-거리다
㉢ '번떡거리다'의 여린말. ㉠ 오치기
뛰었는지 유리창이 참 반닥거리더면.
눈 밝은 새덜두 부집게 뛰어났더랑께.

반닥-반닥 ㉡ 반득-반득 ㉢ '번떡
번떡'의 작은말. ㉠ 방안이 반닥반닥 빛
이 나년 게 똑 신흔방 같구면.

반닥반닥-허다 ㉡ 반득-반득허다 ㉢
'번떡번떡허다'의 작은말.

반딱-거리다[-꺼-] ㉡ 반뜯-거리다
㉢ '번떡거리다'의 작은말. ㉠ 수석이
래나 뭐래나? 독멩이가 반딱거리긴 허
더면 그걸 방안이다 덜여놓구 늘 츠다
보매 살더라구./식기를 반딱거리게 다
뛰어나.

반딱-반딱 ㉡ 반뜯-반뜯 ㉢ '번떡
번떡'의 작은말. ㉠ 내 구슬은 반딱반딱
빛나년디 니 꺾 그렇덜 앓잖여. 그님께
내께 좋은 겨./그눔 참, 눈이서 반딱반
딱 윤이 나년 게 아주 푹푹허게두 생겼
구나.

반딱반딱-허다[-따커-] ㉡ 반뜯반뜯
-허다 ㉢ '번떡번떡허다'의 작은말.
㉠ 저 봐, 지름 걸레루 흠쳤더니 말랩바
닥이 반딱반딱허잖여.

반딱-이다 ㉡ 반뜯이다 ㉢ '번떡거
리다'. ㉠ 저 반딱이년 게 뵈이라?

반 : -비례 ㉡ 반 : -비례(反比例) ㉢
<수학> 한쪽이 커질 때 다른 한쪽이 같
은 비율로 작아지는 관계. ㉢(자) 반 :
비례-허다.

발낀 ㉡ 발끈 ㉢ '발끈→발낀(전설모음
화)'. 작은 일에도 쉽게 성을 내는 모양.
㉢ 발끈. (큰말)불낀. ㉠ 지랑은 상관두 읍
년 일이구면, 왜 쩌들어서 발낀 승을
내구 지랄이라. ㉢(자) 발낀-허다. ㉠
지까짓 게 발낀혀 봤자 뵈 수 있남?

발낀-발낀 ㉡ 발끈-발끈 ㉢ 일의 크
기나 때를 가리지 못하고 쉽게 성을 내
는 모양. ㉢ 발끈발끈. (큰말)불낀불낀. ㉢
(자) 발낀발낀-허다. ㉠ 그 사람이 발
낀발낀허긴 혀두 뵈심은 읍어.(그 사람
이 화를 잘 내긴 하지만 오래 가지 앓아.)

밤-마실 ㉡ 밤-마을 ㉢ 밤에 이웃으로
놀러 다니는 일. ㉠ 쩡일 일허구 곤헨
텐디 밤마실은 머더라 나가년 겨?

밥-고래[-꼬-] ㉡ ㉢ '밥(食)+고래
(喰)'. ①식도로 내려간 음식물이 모이
는 소화기관. ㉠ 우리 애는 밥고래가 원
체 커서니 고봉밥두 무지라./더 먹군
싶은디 밥고래가 차서 더 못 먹졌유.
②밥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우리 식구덜은 다 밥고래
덜이라 쌀 한 가마가 눈깜짝이여.

밥-뚜껍이 ㉡ 그릇-뚜껍 ㉢ '밥(食)+
뚜껍(函蓋)+이(조사)'. 밥그릇을 덮는 뚜

깅. ㉠밥따갱이. ㉡사발뚜갱이. 주발갱. 밥 주발갱. 그릇따갱이. ㉢살강이 그릇이 잔 뜯히구먼 왜 밥뚜갱이다 밥을 푸녕 겨?/ 승질난다구 밥뚜갱일 집어편지던 높이여, 저 높이.

밥주발-개[-जू-] ㉣ 밥그릇-뚜갱 ㉤ '밥(食)+주발(周鉢)+개(函蓋)'. 밥그릇을 덮는 뚜껑. ㉥주발개. 밥뚜갱이. ㉦**밥주발개**는 오따 두구 사발뚜갱이를 덮어났다./**밥주발개**를 개져오랑게 왜 밥주걱을 개져오능 겨?

밥-찌끼 ㉧ 밥-찌꺼기 ㉨ 먹고 남은 밥이나 음식물. ㉩**밥찌끼**나마나 먹을 거라군 죽찌끼두 읍더면.

밭-가생이[밭까-] ㉪ 밭-둑 ㉫ ①밭의 가장자리. ㉬**밭가생이**서 뵈허냐? 야, **밭가생이**에 서리콩을 심구 있구먼유. ②밭둑. ㉭**밭가생이**. ㉮**밭가생인** 올리스덜 말어라.

밭-메[반-] ㉯ 밭 메벼 ㉺ '밭메베'가 줄어든 말. 밭에 심어 가꾸는 메벼. ㉻ 밭메. ㉼논이 읍으닝게 쌀기콩을 못허잖유. 그리서니 기냥 **밭메**를 점 심어봤유.

밭-모갱이[반-] ㉽ 밭-모둥이 ㉾ 밭의 모서리를 이루는 귀둥이. ㉿밭모갱이. ㊀이번 큰물루 **밭모갱이**가 썰려나갔넌디 이를 워쩐다? 큰일이여. **밭모갱이**가 아주 개우장이 뵈다닝게.

밭-베[밭베] ㊁ 밭-벼 ㊂ 밭에 심어

가꾸는 벼. ㊃밭베. ㊄호맹이루 밭을 파서 **벳베**를 심긴 뵈넌디, 날이 가물어서니 씨알이 쉰 개두 안 붙은 것 같유.

밭-찰[밭-] ㊃ 밭 찰벼 ㊄ '밭찰베'가 줄어든 말. 밭에 심어 가꾸는 찰벼. ㊅밭찰. ㊆자네 **밭찰** 농사가 잘 뵈대매? 물 나년 **밭**이다 손바당맹끔 심근 **밭찰**이 잘 되든 머더졌유?

방덩이 ㊇ 엉덩이 ㊈ '방덩이'. ㊉다큰 여자가 그렇기 **방덩이**가 무거서니 오티기 시집갈라구려?

방덩이 ㊇ 엉덩이 ㊈ 앉으면 바닥에 닿는, 허리 아래 뒤쪽의 살이 많은 부분. ㊉방덩이. ㊊궁덩이. ㊋궁덩이. ㊌응덩이. ㊍우리 할망구는 **방덩이**가 너머 무거. 생긴 것두 오리 **방덩이**디 일 바쁠 적이두 통 움직이덜 안헐라구 현다닝게.

밭-가생이[밭까-] ㉪ 밭-둑 ㉫ '밭가생이'.

밭-메[반-] ㉯ 밭 메벼 ㉺ '밭메'.

밭-모갱이[반-] ㉽ 밭-모둥이 ㉾ '밭모갱이'.

밭-베[밭베] ㊁ 밭-벼 ㊂ '밭베'.

밭-찰[밭-] ㊃ 밭 찰벼 ㊄ '밭찰'.

배¹ ㊃ 바 ㊄(관형어의 뒤에서)앞서 말한 내용이나, 일의 방법, 일의 형편 따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㊅그 일은 내 알 **배** 아녀./지왕 헐 **배**라든 죽을 심

을 다쳐 봐./갑자기 일을 당허님께 내가 오쩔 배를 물러서니 장관 실수한 거.

배² ㉠ 봐/보군 ㉡ ㉢ ㉣ ‘보-(推測)+-아(어미)→배/벼’. (-가/-나) 따위의 의문형종결 어미 뒤에 붙어서 ①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의 뜻을 더해 주는 말. ㉡ ‘느이 아배가 응 은짚은가 배.(너의 아버지가 영 인 짚은가 봐.)/자가 벌써 배가 고프는가 배. ㉢ 벼. ② 추측의 뜻을 담아 가벼운 놀람이나 의아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저렇게 께끄만 길 좋아허닌 사람두 있는가 배./그 낭반이 그런 일두 헐 중 아는가 배.(그 양반이 그런 일도 할 줄 아는가 보군.)

배 : 다 ㉠ 배우다 ㉡ 경험이나 공부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얻다. ㉢ 배우다. 배오다. ㉣ 고등가까장 멍기구 빨만큼 뻘다던 낭반이 위치기 증우두 물론다?/핵겨 가서니 배라던 건 배덜 앓구 못된 것만 배 왔구면.

뱃-창세기[뱃-] ㉠ 배-창자(-腸子) ㉡ ‘배(腹)+ㅅ+창세기(腸)’. 뱃속에 있는, 큰창자와 작은창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배창세기. ㉣ 어제밤 곱란이 나서니 뱃창세기가 끊어지는 중 알었어./월매나 웃었넌지 뱃창세기가 다 얼얼허다 닝께.

버더¹ ㉠ 보다 ㉡ 차이가 있는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부사격조사. ㉢ 버더. ㉣ 밥버더 좋은 건 읍녕 겨./암체두 너

버더야 내가 낫지.

버더² ㉠ 보다 ㉡ 이전의 것이 비해 한층 더. ㉢ 이참이 버더 나은 것이루 하나 장만히 봐./멩년(明年)인 버더 낫어 지겠지./이것은 너머 짝은디, 버더 큰 것 짐 읍남?

버덤 ㉠ 보다 ㉡ ㉢ ‘버더¹’에 첨가음 ‘ㄱ’이 붙은 형태. ㉣ 밥버덤 좋은 건 읍는 겨./암체두 너버덤이야 내가 낫지.

버떡 ㉠ 빨리 ㉡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센말)퍼떡. 퍼떡. ㉢ 빨랑. 싸게. 후딱. ※방언 ‘버떡/퍼떡’과 표준어 ‘퍼떡’: 근원이 같은 말이 지역적 차이로 의미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으른 들오시믄 버떡 일나는 겨./그겐 일두 버떡 못 끝 내구 뵈허능 겨?

버떡-버떡 ㉠ 빨리-빨리 ㉡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고 빠르게. ㉢ 퍼떡퍼떡. ㉣ 빨랑빨랑. 싸게싸게. 후딱후딱. ㉤ 버떡버떡 일은 안 허구 뵈덜 헌다?

버라지 ㉠ 버러지 ㉡ ㉢ ‘벌러지’보다 쓰임 빈도가 크게 낮다. ㉣ 버라지두 근다리믄 꿈틀대넌디 넌 벨두 읍냐?

버러지 ㉠ 버러지 ㉡ ㉢ ‘벌러지’보다 쓰임 빈도가 크게 낮다. ㉣ 즈런 버러지 만두 못헌 늡을 뵈냐?

버리적-거리다[-꺼-] ㉠ 버르적-거리다 ㉡(자)(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과 팔다리를 휘저으며 크게

움직이다. ㉠버르적거리다. 버르적대다. 버리적대다. ㉡버부적거리다. 『애 울음소리가 나서니 떠가보니까 애가 무슨구덩이에 빠져 버리적거리구 있더라. 근디 어른내가 오티기다 무슨구덩이에 빠진 거랴?/심들구 우염철수루기 급허게 날 뛰문 못 쓰능 겨. 올무이 걸린 퇴깅이가 버리적거리문 모가지만 더 옥죄는 거라니까.

버리적-대다[-때-] ㉢ 버르적-대다 ㉣ 『버리적거리다』. 『외두 않년 일이 매달려 버리적대덜 말구 얼릉 포기혀.

버리적-버리적[-/-빠-] ㉤ 버르적-버르적 ㉥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과 팔다리를 휘저으며 크게 움직이는 모양. ㉦버르적버르적. ㉧버부적버부적. 『버리적버리적 팔다리를 후돌르긴 허던면 황소만헌 그눔헌티 깔렸넌디 빠져나올 재간이 있남? ㉨(자) 버리적버리적-허다.

버부적-거리다[-꺼-] ㉩ 버르적-거리다 ㉪(자) ①팔다리를 크고 느리게 움직이다. 『시방 그렇기 버부적거리구 있을 때가 아녀. ②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다. ㉫버리적거리다. 버르적거리다. 『그게 버부적거리매 심만 쓴다구 해글될 문제가 아녀.

버부적-대다[-때-] ㉬ 버르적-대다 ㉭ 『버부적거리다』. 『어려운 일인 중은 알지만, 허넌 디까장은 버부적대

봐야쥬.

버부적-버부적[-/-빠-] ㉮ 버르적-버르적 ㉯ ①팔다리를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 ②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모양. ㉺버리적버리적. 버르적버르적. 『지판이는 버부적버부적 애를 쓰긴 허넌디 그게 그리 만만 허간?

버부적버부적-허다[-빠부저커-] ㉰ 버르적버르적-하다 ㉱ 『버부적거리다』. 『저 사람은 맨날 허릿마다 시간을 매났유. 버부적버부적허넌디 지가 환장헌다냥께유.

버시력 ㉲ 버스력 ㉳ 마른 낙엽이나 김볼 따위를 밟거나, 그릇 따위를 건드릴 때 나는 소리. ㉴버스력. (센말)ㅼ시력. ㅼ스력. (작은말)ㅼ시락. ㅼ스락. 『한 밤중이 뵙이서 들구 ㅼ시력 소리가 나서니 나가 보니까 도둑고이가 생선 보 새기를 훔구 있더라니까.

버시력버시력-허다 ㉴ 버스력버스력-하다 ㉵ 『버시력거리다』. 『접착서 ㅼ시력ㅼ시력허넌 소리가 들렸넌디 이게 뵙 소리랴?

번덕-거리다[-꺼-] ㉶ 번덕-거리다 ㉷ 『번떡거리다』의 여린말.

번덕-번덕 ㉸ 번덕-번덕 ㉹ 『번떡번떡』의 여린말.

번덕번덕-허다[-떠커-] ㉺ 번덕번덕



-하다 **㉮** **㉮** '번덕번덕하다'.

번덕-이다 **㉮** 번득-이다 **㉮** **㉮** '번덕거리다'.

번덕-허다[-더커-] **㉮** 번득-하다 **㉮** **㉮** '번덕허다'의 여린말.

번덕 **㉮** 번득 **㉮** ①물체에 반사된 큰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잠깐 나타나는 모양. **㉮**번득 **㉮** 뒤서니 **번덕** 불이 솟구더니 올라나 놀랐는지 그 바람이 내 심장이 툭 떨어졌다냥께. 애눔덜이 짚동가리다 세겨를 뿌리구 갑자기 불을 질른 건디 말여. 내 떨어진 심장 찾너라구 한 식경은 해맸다냥께. ②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번득 **㉮** 내 저걸 보구 하자냥께 **번덕** 떠오른 게 있구면.

번덕-거리다[-꺼-] **㉮** 번득-거리다 **㉮**(자) '번덕거리다'번덕거리다. 물체에 반사된 큰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잠깐씩 나타나다. **㉮**반닥거리다. 반딱거리다. 뽀닥거리다. 뽀딱거리다. 번덕거리다. 번덕거리다. 번덕거리다. 번덕거리다. 번득거리다. 번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뽀득거리다. **㉮** 먼 불빛이 저렁기 시끄러께 **번덕거리녕** 겨? 이, 무한츰른(無限川邊)이서 불꽃놀이를 허녕개 베틀./월매나 갈 어제졌는지 낫날이 다 **번덕거리네**.

번덕-번덕 **㉮** 번득-번득 **㉮** 물체에 반사된 큰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잠깐

씩 나타나는 모양. **㉮**반닥반닥. 반딱반딱. 뽀닥뽀닥. 뽀딱뽀딱. 번덕번덕. 번덕번덕. 뽀덕뽀덕. 뽀딱뽀딱. 번득번득. 번득번득. 뽀득뽀득. 뽀딱뽀딱. **㉮** 올라나 지름질을 히서 자봉들을 띄웠는지 **번덕번덕** 광이 막 나더라구.

번덕번덕-허다[-더커-] **㉮** 번득번득-하다 **㉮** 물체에 반사된 큰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자주 나타나다. **㉮**반닥반닥허다. 반딱반딱허다. 뽀닥뽀닥허다. 뽀딱뽀딱허다. 번덕번덕허다. 번덕번덕허다. 뽀덕뽀덕허다. 뽀딱뽀딱허다. 번득번득허다. 번득번득허다. 뽀득뽀득허다. 뽀딱뽀딱허다. 번득번득허다. 번득번득허다. 뽀득뽀득허다. 뽀딱뽀딱허다. **㉮** 젊은 것이 대머리가 훌쩍 백겨져서니 승허께 **번덕번덕허더면**./그 사람 양복을 짝 빼 입으녕께 사람이 달리되더면. 그러, 촌것두 때 빠구 광 내른 도싯눔 못잡께 **번덕번덕허니** 되능 겨.

번덕-이다 **㉮** 번득-이다 **㉮** **㉮** '번덕거리다'.

번덕-허다[-더커-] **㉮** 번득-하다 **㉮** ①물체에 반사된 큰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잠깐 나타나다. **㉮**번득허다. **㉮** 넓다 배람박이다 부집었더니 올라나 씨게 부집었는지 마빱이서 **번덕허구** 불이 다 일더라냥께. ②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다. **㉮**번득허다. **㉮** 뺏날 메칠을 고민허넌디 **번덕허니** 자네 생각이 나더면. 올라쿠나 허구 그 질루 내 자

네한테 달려온 거.

벌가지 ㅍ 벌리지 ㅊ '벌리지'의 옛말. ㅍ 저게 새루 나온 품종 파래서나 심거 봤넌디유. 벌가지덜이 찌덜 않아서 좋더면유.

벌리지 ㅍ 벌리지 ㅊ<동물> '표준어화 과정: 벌거지/벌가지>벌리지/버리지/벼라지>벌레'. 날거나 기어다니는 무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벌가지. 벌리지. 버리지. 벼라지. ㅍ 오디서 이릉기 많은 벌리지덜이 들어왔다?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예산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벌리지'다. 그렇지만 더 예전으로 거슬러갈수록 '벌거지, 벌가지'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것을 보면 '벌리지' 이전에는 '벌거지, 벌가지'가 일반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리다³ ㅍ 버리다 ㅊ(타) '버리다>베리다(전설모음화)'.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내던지거나 돌아보지 아니하다. ㉠버리다. 번지다. 뻘지다. ㅍ 난 조강지처 베리구 잘 사넌 사내 못 봤네./못쓸 것은 골러서니 내다가 베려.

벽보[-뽕] ㅍ 벽보(壁報) ㅊ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써 벽이나 게시판 따위에 붙여놓은 종이. ㉠벽보. ㅍ 베람박마두 벽보 촌진 걸 보니 또 슌겨출이구먼.

벼: ㅍ 봐 (구문) '비-(推測, 認識)+어(종결어미)→벼'가 줄어든 말. ㅍ '비다'.

ㅍ 인전 다 먹은개 벼.(이젠 다 먹었나 봐.)/또 워덜 가네 벼.(또 어디를 가나 봐.)/비가 오긴 올래나 벼.(비가 오기는 오려나 봐.)

보도롬 ㅍ 보드라움 ㅊ '보드랍-(柔)+움→보드라롬?>보도라움>보도롬/보도롬'. 부드러움. 거칠지 아니하고 연하거나 순함. ㉠부드롬. ㅍ 그 여자 보도롬이란 게 장냥이 아녀. 월매나 보드런지 웃넌 낮허구 말허넌 것이다가 손짓허구 몸짓까장 그게 보도롬 자체라니께.

보도롬-허다 ㅍ 보드랍다 ㅊ 보드랍고 연하다. ㅍ '보도롬'. ㅍ 촌이 알상허구 보도롬허니 치맛감이룬 와파네.

보드럽다[-따] ㅍ 보드랍다 ㅊ '활용 형태: 보드러게. 보드러꾸. 보드러꾸나. 보드러니. 보드럽더랴. 보드러. 보드러서'. ㉠보드럽다. ㅍ '부드럽다'보다 느낌이 작은 말. ㅍ 보드럽기루야 목화솜허구 애덜 살글만헌 것이 오닷겼남?/날마두 일허넌 손인디 워치기 보드렐 새가 있졌유?

보자 ㅍ 보(裸) ㅊ ①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해 만든 네모진 천. ㉠보재기. ㅍ 보자를 갖다가 이것을 싸놓거라. ②가위바위보를 할 때, 손가락을 모두 편 동작. ㉠주먹. 가새. ㅍ 보자를 낼 디서 가새를 냈구먼./넌 보자배끼 낼 중을 물르니?

보징 ㅍ 보증(保證) ㅊ 사람이나 물건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함. ㅊ(타) 보징-허다. ㅍ ㅊ 그 사람은 내가

보장할 테니까 믿구 한 번 써 봐.

보장-금 ㉠ 보증-금(保證金) ㉡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에게 미리 건네는 돈. ㉢ 이 사람이야, 자네가 다만 뭇 폰이래두 보장금을 냈으믄 내가 딴 사람허구 기약을 했겠나?/근물 권이 보장금을 빼주지 않아서 이사두 못허구 있유.

보장-서 ㉠ 보증-서(保證書) ㉡ 인물이나 채무에 대하여 그 신용을 책임지고 증명하겠다고 기록한 문서. ㉢ 다른 물건은 몰러두 금반지나 시계 같은 걸 살 적인 보장서를 꼭 받아야 혀.

보장-스다 ㉠ 보증-서다(保證-) ㉡ (자) 인물이나 채무에 대하여 그 신용을 책임지고 증명하다. ㉢ 아무나헌티 막 보증스구 그러믄 클나./아이엠에폰가 뭐가 그때이 잘못 보장셨다가 자살헌 사람이 오디 한둘이었남?

보장-인 ㉠ 보증-인(保證人) ㉡ 인물이나 채무에 대하여 그 신용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사람. ㉢ 우리 딸래미가 회사 금리루 추직을 헐라넌디 보장인을 세라 했다너면, 그리서 지 삼춘을 찾어가 보장인이 되달랬더니 그걸 그절허더라. 내찰, 우리 딸래미가 회삿돈 떼먹을 애두 아니구 슬사 떼떡넌다구 히두 그 책임은 내가 지닌 거지, 암체믄 내가 동상헌티 물으라 허겠남?

복-조랭이[-쫐-] ㉠ 복-조리(福筴籠) ㉡〈민속〉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설날 새벽에 부엌이나 방벽에 걸어 놓는 조리. ㉢ 복조랭이를 머더라 그리 거녕 겨? 복조랭이 많이 건다구 복이 많이 들어온다남?

본-모습 ㉠ 본-모습(本-) ㉡ 본디 그대로의 생김새. ㉢ 증체(正體). ㉣ 저 사람 본모습이 사기꾼이여.

본토-백이 ㉠ 본토-박이(本土-) ㉡ ㉢ '토백이'. 조상들로부터 대를 이어 일정한 곳에서 살아온 사람. ㉣ 토백이. ㉤ 그리두 본토백이는 김씨덜이여. 중시 조버텀 네려운 종손이 이 동네 살잖어.

볼-때기 ㉠ 볼 ㉡ 뺨의 가운데 부분. ※예산지방에서는 '볼'이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으로 '볼때기'가 쓰임. 따라서 표준어의 경우처럼 '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아남. ㉢ 성님, 볼때기가 빨가니 뵈넌디 누구헌티 쥐 터졌유? 예끼, 이 사람, 그제 아니구 아까침 산이 갔다가 별헌티 볼때기를 찌더니 그려.

볼-텅이 ㉠ 볼-통이 ㉡ ㉢ '볼텅이'. ㉣ 넘덜이 뺨어먹을께미 한 입이 처놓더니 저 볼텅이 점 보라. 으이구, 볼텅이가 찢어지게 처놓구서니 혼저 쳐머게 되서 좋댄다.

볼-팅이 ㉠ 볼-통이 ㉡ '볼(頰)+-통이/텅이(접사)→볼통이/볼텅이'볼텅이'. '볼'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볼텅이. ㉣ 자 볼텅이가 왜 저렇다? 물르겠어. 아까침버텀 뭉가 맘이 안 드넌지 볼텅이가 잔뜩 뵈

더라구.

봄-배차[-배-] ㉠ 봄-배추 ㉡ 봄철
에 심어서 먹는 배추. ㉢ **봄배차**는 공이
가 스기 전이 얼른 따야 쓰능 겨./**봄배**
찬 속이 차기 즈이 뽑어 먹으야 허능
거지.

봇짐-장사[본짐-] ㉠ 봇짐-장수 ㉡
예전에, 일용잡화를 보따리에 담아 이
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 ㉢ **황애장사**. 등
짐장사. 보따리장사. ㉣ **이전**이 **봇짐장사**
현 사람이 한돌인가? 농사치는 읍구 그
러문 아주매덜이 봇짐장사루 많이덜 나
섰잖어. 울읍니두 즐만 되든 **봇짐장사**
혔어. 생선을 떠다가니 동네마두 들어
댕기매 팔었지.

봉냥 ㉠ 복령(茯苓) ㉡ ≒ '봉냥'.

봉두리 ㉠ 봉우리 ㉡ '표준어화 과정:
봉(峯)+두리(頂)→봉두리/봉어리/봉우리.'
산의 꼭대기. ㉢ **산봉두리**. 산봉어리. ㉣ **안**
락산 **봉두리** 너머서 오소리굴을 봤다너
면. 그리서 창 들구 그리 몰려덜 갔어.

빙변 ㉠ 봉변(逢變) ㉡ '빙=빙변'. 뜻
밖의 사고나 창피스런 일을 당함. ㉢ **년**
벨두 읍다냐? 그집서 그런 **빙변**을 당허
구두 또 찾아간 겨?

빙븐 ㉠ 봉변(逢變) ㉡ ≒ '빙변'. ㉢
아니, 술 처먹은 개는 왜 근대려서니
그런 **개빙변**을 당한다?

부게 ㉠ 북어(北魚) ㉡ '북어(北魚)→북

에>부게'. 바짝 말린 명태. ㉢ **북어**. ※'북
어'에서 온 말이지만, 언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부게'라 정리한다. ㉣ **사람**이 월
매나 고상을 헛넌지 **빼**작 말른 게 마른
부게버더 더허더라구./**고사상**이 올릴 **부**
게를 워편 늬이 집어갔다?

부게-꼭 ㉠ 북엇-국(北魚-) ㉡ '북어
(北魚)+ㅅ+국(羹)→북엇국(전설모음화)>부
객국/부게꼭(변자음화)'. 마른 북어를 뜯어
끓인 국. ㉢ **술** 먹은 답날 **부게꼭**이라두
은어 먹을라든 마누라헌티 잘 히야 혀.

부게-포 ㉠ 북어-포(北魚脯) ㉡ 북어
를 저며 양념을 발라 말린 것. ㉢ **양념**
을 잘히 말리닝게 **부게포**두 먹을 만허
더면.

부켓-대가리[-겐때-] ㉠ 북어 머리
㉡ 마른 명태의 머리. ㉢ **밥상** 경거니가
맨 풀잎새기 뿐이구면. 허다못허 **부켓**
대가리나 메루치 **공맹**이라두 점 있어야
밥을 먹지.

부두럽다 ㉠ ㉡ '활용형태: 부두러게.
부두러꾸. 부두러꾸나. 부두러니. 부두럽더
락. 부두러. 부두러서'. ①스치거나 만지
는 느낌이 연하거나 곱다. ㉢ **부두럽다**.
㉣ **오쩌문** 살결이 요롱기 **뽕양구 부두럽**
다?/이저 **출사냐구** 너머 **부드러**서니 쓰
덜 무더졌넌두. ②빛깔이나 성질, 태도
따위가 온화하다. ㉢ **부두럽다**. ㉣ **우리** 작
은 조카는 맴이 월매나 **부두러**는지 몰러./
그렇기 **부두러** 끈내긴 쓰덜 못혀.

부두름 ㉮ 부드러움 ㉮ '부드럽-(柔)+-음→부드러움?)부드림/부두름/부드름. 부드러움. 거칠지 아니하고 연하거나 순함. ㉮보도름. ㉮사람이 부두름하니 승격(性格)이 그렇기 좋을 수가 없어. 승질이 부두름이나 마나 그런 물러터진 감몰링일 데려와 오따 쓰졌는가?

부두름-허다 ㉮ 부드러다 ㉮ 부드럽고 연하다. ㉮'부두름. ㉮두부가 점 부두름허야넌디 너머 딱딱허구면, 암만허두 갠수를 너머 쫘내 벼./승격두 부두름허구 행실두 웬만허니께 그만허문 뵘어./이불감이 부두름헌 게 감촉이 좋구면.

부루 ㉮ 상추 ㉮<식물> 채소로 널리 재배되는,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우리 부루가 참 잘 뵘구면, 자네두 우리 부루 점 뜯어다 먹어봐.

부루-쌈 ㉮ 상추-쌈 ㉮ 쌈을 싸 먹는 상추 잎. ㉮과기 구넌디 부루쌈이 읍으믄 오티기여?

부룻-잎[-룬닙] ㉮ 상춧-잎 ㉮ 상추의 잎새. ㉮내 얼릉 밭이 가서 부룻잎 뵘 주먹 따 오께.

부비다 ㉮ 비비다 ㉮ '표준어화 과정: 부비다)비비다'. (타) 두 물체를 맞대어 문지르거나 꼬다. ㉮뺨 점 그만 부벼유. 애 얼굴 다 닳겼유./손만 부비구 있덜 말구 오티기 된 일이지 말을 히봐. (자) 좁은 틈바구니를 비집다. ㉮비비다. ㉮

그 좁은 틈 왜 부비구 들어갈라능 겨?

부비적-거리다[-꺼-] ㉮ 비비적-거리다 ㉮ '표준어화 과정: 부비적거리다)비비적거리다. (타) 두 물체를 맞대어 문지르거나 꼬다. ㉮부비적거리기만 허구 샷내끼두 꼬두 못허매 뵘 쫘을 이릉기 많이 추렸다? (자) 좁은 틈바구니를 비집다. ㉮비비적거리다. ㉮부비적대다. 비비적대다. ㉮좁어터진 방구석에서 부비적거리지덜 말구 얼릉 백이루 나오슈.

부비적-대다[-때-] ㉮ 비비적-대다 ㉮ ㉮'부비적거리다'.

부치기다 ㉮ 부 : 추기다 ㉮(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어찌하라고 들쭈시다. ㉮노이가 가헌티 불량냥을 허라구 들구 부치겼다매? (타) 무엇을 하도록 들쭈시거나, 정도가 심해지도록 하다. ㉮부치키다. ㉮우덜이 부치기긴 멀 부치겨유? 지덜은 가를 부치긴 적 읍구유. 불량냥은 지 혼쳐 히놓구서니 미서우닝께 우덜을 끌어덜이는 규.

부치키다 ㉮ 부 : 추기다 ㉮ ㉮'부치기다'. ㉮행여락두 공부허넌 알 부치켜 설래미 끝구 나갈 생각은 허덜 말어라이.

부품-허다 ㉮ ㉮'부품-(膨脹)+-ㅁ+허--+-다'. 부피가 부풀어 올라 넉넉하게 큰 듯하다. ㉮이불요가 부품허니 올 즐긴 춤지 않게 지내졌구면./잠바가 부품헌 것이 중핵겨 갈 때까장 입어두 되졌구나.

복새[-새] ㉾ 노을 ㉾ '붉-(赤)+새(新, 東)→복새>복새'. 아침저녁에 피어나는 노을. ※해가 떠오르기에 앞서 새벽하늘이 붉게 물드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었다가, 의미가 확장되어 저녁노을을 포함하는 말로 정착.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소멸의 길에 접어들어, 2015년 현재 이 말을 기억하는 이는 많으나 쓰는 사람은 없음. ㉾ 아줌니, 복새라구 알유? 복새? 하늘이 빨갱게 물드던 노을 말유. 이전이 그걸 복새라구 했다매유. 이, 그렇지. 하늘이 빨갱게 피던 걸 복새 핀다구 했지. 복새 피면 날이 맑넌다구 했구.

북에 ㉾ 북어(北魚) ㉾ '부계'.

분질르다 ㉾ 분지르다 ㉾(타)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분지르다. (강한말)뽕질르다. ㉾부러터리다. ㉾ 꼬추를 따랬더니 가징이만 분질르구 멩겼구먼.

불-개야미 ㉾ 불-개미 ㉾(동물) 머리와 배가 노란빛과 붉은빛을 띤 개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불개미. ㉾ 고여니 술꺼려 굶넌다가 불개미덜헌티 잔뜩 물리기만 했어.

불-구녕[-꾸-] ㉾ 불-구멍 ㉾ '불구녕'.

불-구녕[-꾸-] ㉾ 불-구멍 ㉾ '불(火)+굴(穴)+-억/영(접사)→불구멍/불구녕/불구녕'. 불이나 불길이가 나가는 구멍. 또는 불을 조절하는 공기 구멍. ㉾불구녕. 불구멍. ㉾ 구락징이 불구녕을 열어노른

방이 쉬 식넌다닝께.

불-구덕[-꾸-] ㉾ 불-구덩이 ㉾ '불구덩이'. ㉾ 그렇기 뒤적그려싸든 불구덕이 쉬 끄진단 말여.

불-구덩[-꾸-] ㉾ 불-구덩이 ㉾ '불구덩이'. ㉾ 지 발루 이 불구녕을 참여왔단 말이지?

불-구덩이[-꾸-] ㉾ 불-구덩이 ㉾ '불구덩이'.

불-구덩이[-꾸-] ㉾ 불-구덩이 ㉾ ①세차게 타오르는 불 속. ㉾ 담배칸이 가서 불구덩이가 잘 있넌지 보구 와. 속탄이 잘 안 타든 불구덩이를 쭈서서 불구녕 점 내구. ②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 이눔아, 그 일을 허겼다는 건 색유 뿌리구 불구덩이루 떠들겠다능 겨.

불-구멍[-꾸-] ㉾ 불-구멍 ㉾ '불구녕'. ㉾ 이전인 불구멍이라구 했넌디, 요새는 불구녕이라구덜 쓰잖어.

불깃-불깃[-긴-뽕긴] ㉾ 불긋-불긋 ㉾ 불그스름한 빛깔들이 섞여 어우러져 있는 모양. ㉾울깃불깃. 뽕깃뽕깃. ㉾ 멩게라넌 게 불깃불깃 징글맞게두 생겼던 그려. ㉾ 불깃불깃-허다.

불-강통 ㉾ 불 강통 ㉾ 정월 대보름 날 밤에, 짐승의 마른 똥이나 나무토막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철사를 매달아 빙빙 돌려 불꽃이 일렁이도록 만들어진 강통. 쥐불놀이 할 때의 놀이도구. ㉾지



불. ㉠ 불깡통 삼-편을 갈라서 불깡통을 던지며 승패를 겨루는 놀이./불깡통 던지기-불깡통을 머리 위로 돌리다가 가장 멀리 날아가도록 던진 이가 이기는 놀이.

불-꽃[-곧] ㉡ 불-꽃 ㉢ 불길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금속끼리 부딪쳐 일어나는 불빛. ㉠장적이 선창은가 왜 이렇기 불꽃이[불꼬시] 개갈 안 난다?

불끈 ㉡ 불끈 ㉢ '불끈→불끈(전설모음화)'. 무엇이 불쑥 솟아오르는 모양, 또는 주먹을 꽉 지거나, 왈각 성을 내는 모양. ㉢불끈. (작은말)발끈. ㉠승질이 불끈 치미넌디 도저히 참덜 못허졌터라 구./주먹을 불끈 쥐구 다시혀 봐. ㉡(자) 불끈-허다. ㉠승질이 급허구 불끈허넌 승미가 흠이긴 허지면 일 하난 톱 부러지넌 칭구여.

불끈-불끈 ㉡ 불끈-불끈 ㉢ 물체나 기운이 불쑥 솟아오르는 모양이나, 왈각 성을 내는 모양. ㉢불끈불끈. (작은말)발끈발끈. ㉠그렇기 심 읊으른 배암 한 솟 과먹지 그려? 불끈불끈 심 솟넌딘 배암이 와따라매? ㉡(자) 불끈불끈-허다. ㉠자넌 암디서나 불끈불끈허넌 그 승미가 토사(吐瀉/일이 어그러짐)여.

불-내[-래] ㉡ ㉢ 땀갈이 불연소하면서 나오는 연기나, 거기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 ㉠방고래나 터졌나 왜 이렇기 방이서 불내가 난다?/괴기는 알불이

다 구야지, 타넌 불이다 기냥 구믄 불내 나서 못 먹여./아니 불내가 오치기 솟내가 된다? 솟내는 솟이서 나넌 내구, 불내는 타넌 불이서 나넌 낸겨. 근디 이걸 생불이다 군겨? 왜 이렇기 불내가 나는겨?

불-두덩이[-뚜-] ㉡ 불-두덩 ㉢ '불(率/陰義)+두덩(阜)+-이(조사)'. 생식기 언저리에 불룩한 부분. ㉠또 말썽시피믄 그뎌 인두루다 니 불두덩일 확 지저뻔질겨. 이 사람이, 말점 가려혀. 인두루 불두덩이를 지저노믄 자네 손주눔만 병신(病身)되는겨.

불-덩이[-땡-] ㉡ 불-덩이 ㉢ '표준어화 과정: 불덩이>불뎡이>불덩이'. 타는 물체에 일렁이는 불의 덩어리. 또는 뜨겁게 달구어진 물체나, 걱정적인 마음을 빗대어 이르는 말. ㉢불뎡이. ㉠불덩이가 남었나 구락징이 점 덜여다 봐라./몸이 불덩이매 왜 약을 안 먹는겨?/시방 내 속이 불덩이께 근덜덜 말어.

불-뎡이[-땡-] ㉡ 불-덩이 ㉢ '불덩이'.

불도자 ㉡ 불도저(bulldozer) ㉢ ①흙을 밀어내거나 땅을 다지는, 토목공사용 특장차. ㉢도자. ②앞뒤 재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저 칭구 벨뎡이 불도자여. 한 번 시작한 것은 톱오좁 가리덜 앓구 밀어붙인다냥께.

불-빛[-빔] ㉠ 불-빛 ㉡ 표준어화 과정:

불빛>불빔. ①전등이나 등불 따위에서 나오는 빛. ㉠보안등인가 먼가 그 불빛 램이 근처이 빛 곡석덜이 통 여물덜 얹 이여. 불빔이[불빔시] 있으믄 들째니 방 콩이니 그런 건 안 되닝께 거긴 무수나 배차를 갈어 먹어. ②불의 빛깔.

불-기둥[-/-짜-] ㉠ 불-기둥 ㉡ 기둥 모양으로 치솟는 불길. ㉠헛간이서 냅 다 불지둥이 솟년다년디 참 미섭더면.

불-기운[-짜-] ㉠ 불-기운(-氣運) ㉡ 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운. ㉠불지운이 왜 이렇기 약허다?/불지운이라두 은어 쫄라믄 나무 점 주서와.

불-질[-찐] ㉠ 불-질 ㉡ 타고르는 불꽃. ㉠어린 것이 그 사나운 불질인 왜 떠들었다? 지 할매가 안이 있다구 구허러 떠들었다. 할매는 뒷문이루 빠져나왔년디 그걸 물르구 불질 속이서 할매 찾다가 죽은 거여. 예구, 인전 저 할매 손주 읍이 혼져서 오티기 산다?

불새[복새] ㉠ 노을 ㉡ ㉢ '복새'.

붕 : **냥** ㉠ 복령(茯苓) ㉡<식물>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담자균류 구멍장이버섯과에 속한 버섯. ㉢붕냥. ㉠쇠꼬챙이루다가니 죽은 술냥구 밑일 푸욱 쫄러보믄 기냥 흠허군 달브게 붕냥 있년 자리는 슬멧허니 쑥 들어간다닝께. 말은 충산유순디 붕냥 송곳질은 아무나

허년 중 아남?

뷰 : ㉠ 봐오 (구문) '비유'의 준말. '비-(推測)+-어(종결어미)+유(보조사)→비유>뷰'. ㉢'비다'. ㉠가는 오늘두 쫄일 놀구만 있내 뷰./공부허구 있내 뷰./밥을 먹내 뷰./일이 곧 끝날래나 뷰.

븐잡-시럽다[-따] ㉠ 번잡-스럽다 (煩雜-) ㉡ 마구 뒤섞여 어지럽고 너저분하다. ㉠들구 **븐잡시럽** 일들만 치닝께 골차퍼 죽겼어.

비 : **다**⁴ ㉠ 비우다 ㉡(타) '비-(空)+-이(사동접사)+-다→비이다)비:다(동음생략). 텅 비게 하다. ㉠월마나 배고꿨으믄 고봉밥을 순식간이 **빌까**?/널 즘스뉘 때 시간 점 **벼** 뒤./너머 욕심부리덜 말구 맘을 **벼** 봐.

비들-비들 ㉠ 부들-부들 ㉡ '부들부들>비들비들(전설모음화). ①물기가 많은 무나 배춧잎 따위가 어느 정도 시들거나 말라가면서 거친 느낌이 부드러워지는 모양. ㉠랩모가 **비들비들** 시드년 것보닝께 물을 더 흠싰 주야졌어./시근치가 **비들비들** 말른 게 상상허덜 앓구면. ②닿는 느낌이 부드러운 모양. ㉢부들부들.

비들비들-허다 ㉠ 부들부들-허다 ㉡ ①채소 잎사귀의 물기가 어느 정도 말라 거친 느낌이 가시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씨레기덜이 **비들비들허게** 말라가너면. ②사물에 닿는 느낌이 거칠지 아니하고 부드럽다. ㉢부들부들허

다. ㉑ 농살 안 짓구 펜대만 굴리닝께 그렇기 손이 여자마냥 **비들비들**헌 겨.

비 : 레 ㉑ 비 : 레(比例) ㉒ 어떤 수량이 한쪽이 늘고 주는 것에 대하여 다른 쪽도 같은 비율로 늘고 줄어듦. ㉑ **비레**가 되게 맞추야지, 그렇기 **능감**땡 감 맞추믄 암것두 안 되어. ㉒(자/타) 비 : 레-하다.

비스끄름 ㉑ 비스름하게 ㉒ ㉓ '비스무리'.

비스끄름-하다 ㉑ 비스름-하다 ㉒ ㉓ '비저드름하다'. ㉑ 재떨 성제는 얼굴만 **비스끄름**혀지 노년 것 보믄 승질은 응 판판이유.

비스드름 ㉑ 비스름하게 ㉒ ㉓ '비스무리'.

비스드름-하다 ㉑ 비스름-하다 ㉒ ㉓ '비저드름하다'. ㉑ **비스드름**혀게 맹 길긴 헛구면 암만히두 저것만은 못혀.

비스무리 ㉑ 비스름하게 ㉒ 거의 비슷하게. ㉑ **비스끄름**, **비저드름**, **비스드름**. ㉑ 느널 돌인 **비스무리** 닳어서니 얼핏보믄 누가누군 중 몰르겼구면. 아니, 지가 **비스무리** 닳긴 누굴 닳유?

비스무리-하다 ㉑ 비스름-하다 ㉒ '비슷-(似)+-무리-(접사)+허-(접사)+-다'. ㉓ '비저드름하다'. ㉑ 생긴 게 다덜 **비스무리**허닝께 어둔 디선 통 분간헐 수 읍유.

비저드름 ㉑ 비스름하게 ㉒ ㉓ '비스무리'.

비저드름-하다¹ ㉑ 비스름-하다 ㉒ '비젓-(似)+-드름-(접사)+허-(접사)+-다'. 모양이나 성격 따위가 비슷한 듯하다. ㉑ **비스드름**하다. **비스무리**하다. **비스끄름**하다. **엇비젓**하다. **비젓**하다. ㉑ **과실** 맥 같이 **비저드름**헌 것이 그제 그거 같구면. 아녀. 때같은 **비저드름**히두 맛은 응 판판이여.

비저드름-하다² ㉑ 비스듬-하다 ㉒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㉑ **비스듬**하다. ㉑ **낭긔**짐이 **비저드름**혀게 찌올어서니 한쪽 어깨가 으서지능 중 알었유.

빛¹[빔] ㉑ **빛** ㉒ '빛→빔/빛'. ①<물리> 가시광선(可視光線)과 자외선, 적외선을 통틀어 이르는 말. ㉑ **빛**. ㉑ **빛**이 [비시] 너머 밝으닝께 눈이 시구면. ② 빛에서 나오는 빛깔이나 사물의 광택. ㉑ **명지**(明紬)라 그런지 **빛**이[비시] 참 곱두 허네./월매나 증성 달여 씻쳤넌지 그럭덜이 새것차람 **빛**이[비시] 나너면. ③사람의 태도나 사물의 분위기. ㉑ **그냥**반 얼굴이 늘 걱정시런 **빛**이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면.

빛²[빔] ㉑ **빛** ㉒ '빔[비슬], 빔이[비시], 빔이루[비시루]'. 남에게 갚아야 할 빌린 돈. 또는 남에게 받은 은혜나 피해. ㉑ **빛**. ㉑ **빔**을[비슬] 준 게 있넌디 이 사람이 통 갚을 생각을 앓너면./너머

오상 좋아허덜 말어. 쓸 때는 좋지만
돌어스른 다 **빳이**[비시]여./**빳이**[비시] 점
남엇넨디 워치기 갇으야 혈 질 물르겠
어./자네헌티 신세진 **빳이**[비시] 많엇넨
디 바뿌다니 이참이 일어나 점 도와주께.

빳-나다[빈-] **ㅁ** **빳-나다** **㉠**(자) ①
빳이 밝게 비추다. **ㅁ** 예즌인 밤마두 블
덜이 **빳나구** 그렸넨디 시방은 블기경허
기두 심들어. ②윤이 나가나 돋보이다.
㉠**빳나다**. **ㅁ** 암만 구연 것이라두 혼처
가심이 담구만 있으른 **빳나덜** 얹넨 **븡**
이여. 좋은 것일수록기 넘덜헌티 **븡**주
구 나누야 더 **빳난다**닝께.

빳-보징[빈븡-] **ㅁ** **빳-보증** **㉠** **빳**을
얻은 사람이 약속한 기한에 **빳** 갇음을
제삼자가 보증하는 것. **ㅁ** **빳보징**은 함
부루 스능 게 아니여. **빳보징** 잘못 섰다
가니 넘이 **빳** 떠안구 고상허넨 이가 한
둘이 아니잖여.

빳-잔치[빈짠-] **ㅁ** **빳-잔치** **㉠** **빳**진
사람이 집이나 물품 따위로 **빳**돈 대신
집이나 가재도구를 내놓는 일. **ㅁ** 그간
내가 산 술이 월맨디 탁배기 **빳** 잔이루
빳잔치가 가당헌 겨? **㉠**(자) **빳잔치**-
허다. **ㅁ** 그 친구 **빳잔치**허구 고향 뜬
뒤루다가닌 통 소식이 읊으닝께 워치기
지내넨지는 내 알 수 읊지.

빳-쟁이[빈쟁-] **ㅁ** **빳-쟁이** **㉠** ①**빳**
을 준 사람을 **빳**잡아 이르는 말. **ㅁ** 그
일 있구 나서니 **빳쟁이**덜헌티 **빳**겨멍인

지 **빳**써 10년이여. ②**빳**을 많이 진 사
람을 **빳**잡아 이르는 말. **ㅁ** 그 근물 넘
어간 지 오라여. 걸만 번지르르허지 순
빳쟁이라닝께.

븡-지다[빈찌-] **ㅁ** **븡-지다** **㉠**(자)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신세
를 지다. **ㅁ** **븡**진 것이 올마나 되간 **빳**
이 다 넘어갇다? 난 넘헌티 **븡**지구는
못 사넨 사람이여.

븡보[-븡] **ㅁ** **븡보**(壁報) **㉠** **ㅁ** '븡보'.

븡:-간호 **ㅁ** **븡:-간호**(病看護) **㉠**
ㅁ '븡간호'.

븡:-간호 **ㅁ** **븡:-간호**(病看護) **㉠**
'표준어화 과정: **븡간호**)**븡간호**'. 아픈 사
람을 시중하며 보살핌. **㉠**병구완. **븡간호**.
㉠븡수발. **븡구완**. **간병**. **ㅁ** **븡간호**란 게
븡든 사렘버덜 더 심든 겨. 하루이틀두
아니구 멀쩡헌 육신 두고 **븡**원이 **간**혀
시중들라든 그게 보통 고상인갇? **㉠**
(자)(타) **븡:-간호**-허다.

븡:-구완 **ㅁ** **븡:-구완**(病求患) **㉠**
아픈 사람을 시중하며 보살핌. **㉠**병구
완. **㉠**븡수발. **븡간호**. **븡간호**. **간병**. **㉠**
(자)(타) **븡:-구완**-허다. **ㅁ** 친증어매
븡구완헌다구 갇다넨디 원제 올 중 물
른다.

븡:-수발 **ㅁ** **븡:-수발**(病-) **㉠** 아
픈 사람을 시중하며 보살핌. **㉠**병구완.
㉠븡구완. **븡간호**. **븡간호**. **간병**. **ㅁ** 시어



매 **붕수발**이다 시아배 **붕수발**까장 십년인디, 그 고상이 장허다구 이번이 도지사가 효부상을 네렸더니면, **툇(자)**(타) **붕** : 갠호-허다.

붕 : 신 **툇** 병 : 신(病身) **툇** ①병으로 몸이 기형이 되거나 성치 못한 사람. **ㄱ** 중풍이루 몸 한 짝이 **붕신**이 되었다. ②모자란 사람을 얹잡아 일컫는 말. **ㄱ** **붕신**같은 늙이 못된 짓만 골라 허네./ **붕신**이 육갑을 떨유.

붕 : 실 **툇** 병 : 실(病室) **툇**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 놓은 방. **ㄱ** 가난한 집이 **붕실**이 따루 있겠년감?

빠꿈-살이 **툇** 소꿈-장난 **툇** 살림살이 흥내를 내며 노는 아이들의 놀이. **툇** 소꿈살이. 소꿈장냥. **ㄱ** 애덜이나 허년 **빠꿈** 살일 챙피허게 왜 들구 허자녕 겨?

빠 : 다 **툇** 빵 : 다 **툇**(타) '활용형태: 빠:게. 빠:갓다. 빠:구. 빠:니. 빠:더락'. '빵다'에서 'ㅎ'이 약화된 형태. 짓쪼어 가루를 만들다. **툇** 빵:다. **툇** 빠수다. 빵구다. ※'빠다'와 '빵다': 두 말이 함께 쓰이는데, '빠다'가 주로 쓰인다. **ㄱ** 애가 꼬춧가를[꼬춧가를] **빠다**가 오디루 내뻬다.→애가 꼬춧가를 **빵다**가[빠타가] 오디루 내뻬다./이걸 다 **빠터락** 닌 머혔나?

빠시락 **툇** 빠스락 **툇** **툇** '바시락'의 센말.

빠시락-거리다[-꺼-] **툇** 빠스락-거

리다 **툇** **툇** '바시락거리다'의 센말.

빠시락-대다[-때-] **툇** 빠스락-대다 **툇** **툇** '바시락거리다'.

빠시락-빠시락 **툇** 빠스락-빠스락 **툇** **툇** '바시락바시락'의 센말.

빠시락빠시락-허다[-라커-] **툇** 빠스락빠스락-하다 **툇** **툇** '바시락거리다'.

뻐딱-거리다[-꺼-] **툇** 뻐떡거리다 **툇** **툇** '뻐떡거리다'. **ㄱ** 별덜은 **뻐딱거리**구 뻐꼭새는 울어섰년디 께꺼머리 노총각이 밤새 뉘 짓을 허겼어? 보나마나 **뻐** 현 것 아니겠남?

뻐딱-뻐딱 **툇** 뻐떡뻐떡 **툇** **툇** '뻐떡뻐떡'. **ㄱ** 양은 그럭이 좋긴 좋은 겨. **뻐딱** **뻐딱** 빗이 나년 게 녹두 안 실년다닝께.

뻐딱뻐딱-허다[-따커-] **툇** 뻐떡뻐떡-하다 **툇** **툇** '뻐떡뻐떡허다'. **ㄱ** **뻐딱뻐** **뻐** 딱허년 게 다 좋은 게 아니여. 뉘기좋은 떡이 좋긴 허지만 다 맛있년 건 아니거든.

뻐뉘-뻐뉘[-뜰-뜰] **툇** 반뉘-반뉘 **툇** 여러 물체가 가지런하고 곧게 서있는 모양이나, 생김새가 말끔한 모양. (여린 말)반뉘반뉘. **ㄱ** **뻐뉘뻐뉘** 말뚝을 이쁘게 두 박었네. **툇** 뻐뉘뻐뉘-허다. **ㄱ** 나무덜이 **뻐뉘뻐뉘**허니 참 좋구먼.

빨가-지다 **툇** 빨개-지다 **툇** '빨강-(赤)-아+지-(爲)+다→빨가지다)빨개지다'. 빛같이 붉게 되다. **ㄱ** 난 술 한 잔만 먹

어두 얼굴이 빨가져서니 술은 입이 대 두 못하여.

빨갛-빨갛[-긴-긴] [표] 빨갛-빨갛 [문] '빨갛빨갛(전설모음화)'. 사물의 군데군데가 매우 빨그스름한 모양. [동] 빨갛빨갛. [유] 빨갛빨갛. [회] 빨갛빨갛-허다. [예] 얼굴이 빨갛빨갛허니 좁쌀같은 열꽃이 피나넌디 큰일이구먼.

빵구다 [표] 빵 : 다 [동(타) 공이로 짓짚어 으깨지게 하다. [유] 빠수다. 빠:다. 빵다. [예] 메주콩을 빵구구 있으면./꽤는 온제 빵굴 겨?/애를 그렇기 들구 빵구믄 오쩨다?(절굿공이로 절구질을 하듯, 아이를 자꾸 들었다 놔다 하면 어떻게 한대?)

뽕 : 다[뽕 : 다] [표] 빼앗다 [동(타) '빼앗다'가 줄어 굳어진 말. 남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남의 일이나 권리 따위를 강제로 차지하다. [예] 근근이 붙여먹는 땅을 뽕을라구 그 사람이 지주헌터 붙어서니 벨 짓을 다헌다닝께./쓰두 못힐 동상 것은 뽕어서니 오쩨라구 헌다니?

뽕시력 [표] 버스력 [문] '뽕시력'의 센말.

뽕시력-거리다[-꺼-] [표] 버스력-거리다 [동] '뽕시력거리다'의 센말.

뽕시력-대다[-때-] [표] 버스력-대다 [동] '뽕시력거리다'. [예] 쫓길 뽕시력대더니 지우 멩근 게 지젯작대기 하나유?

뽕시력-뽕시력 [표] 버스력-버스력 [문] '뽕시력'의 센말. [예] 그 낭반은 맨날 뽕시력뽕시력 소리만 요런허지 지대루 멩길 중 아넌 것은 하나투 읍당께.

뽕시력뽕시력-허다[-러커-] [표] 버스력버스력-허다 [동] '뽕시력거리다'. [예] 뽕시력뽕시력허매 요란은 떨더면 뽕멩기넌 것인 중은 통 몰르겼어.

뽕떡-거리다[-꺼-] [표] 뽕떡-거리다 [동] '뽕떡거리다'. [예] 새 집이라 뽕떡거리긴 허너면 장농은 개빌 안 헛구먼.

뽕떡-뽕떡 [표] 뽕떡-뽕떡 [문] '뽕떡뽕떡'의 강한 말.

뽕떡뽕떡-허다[-더커-] [표] 뽕떡뽕떡-허다 [동] '뽕떡뽕떡허다'의 강한 말. [예] 저건 걸이만 뽕떡뽕떡허지 속은 그게 아녀. 뒤집어보딜 안헛두 다 아넌 수가 있어.

뽕 : 데기 [표] 번데기 [문] 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 고치 안에 들어있는 몸. '번데기'의 센말. [예] 뽕데기를 귀 먹넌다구 뽕꼬치를 막 잘르믄 오티기허냐?

뽕 : 디기 [표] 번데기 [문] '뽕데기'.

뽕떡-거리다[-꺼-] [표] 뽕떡-거리다 [동] '뽕떡거리다'의 강한 말.

뽕떡-뽕떡 [표] 뽕떡-뽕떡 [문] '뽕떡뽕떡'의 강한 말. [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매 뽕떡뽕떡 번개가 친다넌디 올매



나 미섭던지 깔짐 지구 막 뽕다닝께.

뽕뽕뽕뽕-하다 [뽕뽕-] ㉠ 뽕뽕뽕뽕-하다 ㉡ '뽕뽕뽕뽕하다'의 강한 말. ㉢ 새집이라 그런지 집안이 다 뽕뽕뽕뽕하니 광이 나너면.

뽕뽕-하다 [-/뽕-] ㉠ 뽕뽕하다 ㉡ '뽕뽕하다'.

뽕긋-뽕긋 [-긋-긋] ㉠ 뽕긋-뽕긋 ㉡ 사물의 군데군데가 매우 뽕그스름한 모양. ㉢ 뽕긋뽕긋. ㉣ 뽕긋뽕긋. ㉤ 뽕긋뽕긋-하다. ㉥ 10월이 되니까 오돌나무 잎사귀들이 뽕긋뽕긋 단풍 들었구먼 그라.

뽕-빠지다 ㉠ 빠-빠지다 ㉡ '빠(骨)+ㅅ+빠지-(陷)+-다→뽕빠지다(변자음화)'. ㉢ '뽕빠지다'.

뽕뽕-하다 [-/뽕-] ㉠ 뽕뽕하다 ㉡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없이 태연하다. ㉢ 뽕뽕하다. ㉣ 뽕뽕허기가 낫작이다 지름질을 흰 늪이여, 저늪이.

뽕족-뽕족 ㉠ 뽕족-뽕족 ㉡ 끝이 가늘고 날카로운 여러 물체의 모양. ㉢ 뽕족뽕족. ㉣ 흐얀 꽃봉어리가 뽕족뽕족 돌넌 걸 보니까 목련이 곧 필라내 벼.

뽕족-하다 [-조커-] ㉠ 뽕족-하다 ㉡ ① 끝이 가늘고 날카롭다. ㉢ 송곳이나구 녹이 썬서니 뽕족허두 앓구 못쓰겼구먼. ② 신통하고 특별하다. ㉣ 뽕족하다. ㉥ 너라구 뽕족헌 수가 있겠냐? 뽕족헌 수는 읍지면서두 그 일을 지가 해글

힐 수는 있구먼유.

뽕족-뽕족 ㉠ 뽕족-뽕족 ㉡ '뽕족뽕족'. ㉢ 씻나라이 인전 뽕족뽕족 싸이 트기 시작했구먼.

뽕족-하다 [-조커-/뽕조커-] ㉠ 뽕족-하다 ㉡ '뽕족하다'. ㉢ 턱이 뽕족허니 말론 게 고상이 여간 심허덜 앓은 개 벼.

뽕시력 ㉠ 뽕시력 ㉡ '부시력'의 센말.

뽕시력-거리다 [-꺼-] ㉠ 뽕시력-거리다 ㉡ '부시력거리다'의 센말. ㉢ 과자를 혼저 처먹을 거문 뽕시력거리지나 말어, 이눔아. 뇌가 그러문 뇌 동상은 월매나 먹구 싶겠냐?

뽕시력-대다 [-때-] ㉠ 뽕시력-대다 ㉡ '부시력거리다'. ㉢ 잠잘라넌디 머리말이서 그렇기 뽕시력대문 오쨌대유?

뽕시력-뽕시력 ㉠ 뽕시력-뽕시력 ㉡ '부시력부시력'의 센말.

뽕시력뽕시력-하다 [-러커-] ㉠ 뽕시력뽕시력-하다 ㉡ '부시력거리다'.

뽕지르다 ㉠ 뽕지르다 ㉡ (타) ㉢ '뽕질르다'. ㉣ 한 번만 더 사내눔덜허구 싸댕기문 다리몽당일 뽕지를 텅게 그런 중알어.

뽕긋-뽕긋 [-긋-긋] ㉠ 뽕긋-뽕긋 ㉡ 빨간 빛깔들이 섞여 어우러져 있는 모

양. ㉠불깃불깃. ㉡뽑깃뽑깃-허다. ㉢ 집 앞이 설희가 뽑깃뽑깃허니 잘 익었구먼.

뽑-딱지 ㉣ 뽑-따구/화-딱지 ㉤ ‘뽑때기’가 ‘골을 부림’의 뜻을 포함하는 반면, ‘뽑딱지’는 ‘화를 냄, 성질을 부림’의 뜻으로 쓰인다. ㉥ 지가 잘못허구 나 헌티 뒤집어썩넌디 올마나 뽑딱지가 나 야지. 구정물을 퍼다가니 얼굴이다가 확 썩져썩졌지.

뽑-때기 ㉦ 뽑-따구 ㉧ 화를 내거나 골을 부리는 짓. ㉨뽑딱지. ㉩년 왜 뽑때기가 난 겨? 진 뽑때기 안 났유. 뽑때기가 났다구 입이 십 리는 빨쳤넌디 뭇 안 났다는 겨?

빼 : 다 ㉪ 뿌리다 ㉫(타) ‘썩리다/썩:타 →빼:타>빼:다’. ㉬썩앗을 훌어지게 심

다. ㉭빼타. ㉮눔다. 파중허다. ㉯ 배차씨는 그새 다 뻥 겨? 야, 배차씨 한 두럭 빼넌디 뭐 다 빼구 말구가 오깃대유? ㉺작은 텅어리나 알갱이 따위를 훌어지게 던지거나 끼었다. ㉻빼타. 뿌리다. ㉼썩:다. 썩지다. ㉽뭇 낸다더니 벌써 다 뻥남? 다 빼긴 뭇 다 빼. 급자키 썩내기가 오년 통이 뭇이구 나발이구 암것두 뭇 냈어.

빼 : 타 ㉾ 뿌리다 ㊱(타) ‘빼:다’의 옛 형태. ※1970년대 이전에는 ‘빼타가/빼터락’ 따위의 형태로 농촌에서 종종 쓰이던 말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사라져 갔다. ㊲시방 밧이다가 비를 빼타가니 급헌 일이 있대서 자네헌티 달려오년 질이여./내 저 뭇을 다 빼터락 넌 연태 뭇허구 있었던 겨?





사-갈리다[-/삭갈-] ㉞ 헛-갈리다/쉬-갈리다 ㉞(자) ‘허/서(虛)+ㅅ+가르-(分)+-이(접사)+-다→섯갈리다)사갈리다/사갈리다)허갈리다/세갈리다(구개음화, 모음교체, 번자음화, 전설모음화).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 ㉞헤갈리다(헛갈리다/헛갈리다). 세갈리다(셋갈리다/셋갈리다). 허갈리다(헛갈리다/헛갈리다). ㉞어제 뻔 것 인디두 **사갈려서**니 통 몰르겠네./옆당이 붙어서 들구 정신 **사갈리게** 허덜 말구 지발 짝짝이루 점 가라이./아년 길 목쟁이두 밤이 땡길라믄 막 **사갈리**구 그려.

사-룩 ㉞ 옷 ㉞(민속) ㉞ ‘사룻’의 변이 형태로 두루 쓰인다. ㉞또 사룩이구면, 뭇 사룩이 은달어 나온다?/사룩이믄 저 두동무닐 잡을 수 있겠구면.

사-룻[-룬] ㉞ 옷 ㉞(민속) ‘사(四)+ㄴ+옷(衾)→사룻(유음화)사룩’. 옷놀이에

서, 네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옷. 네 개의 옷가락이 모두 젖혀져 옷이 나오는 일. ㉞사룩. ㉞**사룻만** 나오믄 즈 말을 잡을 수 있구면./**사룻**을 못 내믄 우린 지는 겨./**사룻** 못 낼 거믄 걸이라두 내봐.

사룻-이여 ㉞ 옷 나와라 (구문) 옷을 늘 때, 옷가락이 모두 젖혀지는 옷이 나오길 바라면서 외치는 소리. ㉞사룩이여. ㉞**사룻이여**. 에이, 또 개가 나왔구면.

사발-깨 ㉞ 사발-뚜껑 ㉞ 사기로 만든 그릇의 뚜껑. ㉞사발뚜껑이. 사발뚜껑. ㉞그 할아배가 **사발깨**를 집어던져서 지손주 이마뺨을 깨쳤다.

사발-뚜껑이 ㉞ 사발-뚜껑 ㉞ ‘사발(沙鉢)+뚜껑(函蓋)+이(조사)’. 사기로 된 그릇을 덮는 뚜껑. ㉞사발깨. ㉞밥뚜껑이. 그릇뚜껑이. 주발깨. 밥주발깨. ㉞나무 그릇두 읍년 집이 와서 **사발뚜껑**일 찾으면 오쩨대유?

사빈 ㅉ 사-부인(査夫人) ㅉ 사돈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인 '사부인'의 준말. ㉸안사돈. ㅉ 왜 떡국이라? 낮이 사빈이 땡겨갔유. 내달이 짝은애기(작은며느리) 산달이잖유.

산-날 ㅉ 산-등성이/산-마루 ㅉ '산(山)+날(刃)'. 하늘과 맞닿은 산의 등성이. ㉸산날맹이. 날맹이. 날망. 산등생이. 등생이. 산등배기. 등배기.

산-날맹이 ㅉ 산-마루 ㅉ '산(山)+날(刃)+망(望?)+이(조사)'. 하늘과 맞닿은 산의 등성이. ㉸산날. 날맹이. 날망. 산등생이. 등생이. 산등배기. 등배기. ㅉ 저 흥헌 산날맹이 뉘더러 올라간다?/광득산(廣德山) 산날맹이를 타고 넘어가든 큰 의(全義面)가 나오잖유?

산-봉두리[-뽕-] ㅉ 산-봉우리(山峰-) ㅉ 산의 꼭대기. 산의 정상(頂上). ㉸산봉어리. ㅉ 안락산 봉두리 너머서 오 소리굴을 봤다더면, 그리서 창 들구 그 리 몰려덜 갔어.

산-지슬기[-찌-] ㅉ 산-기슭 ㅉ '산지슭'. ㅉ 그 산지슬기는 머더라 갔다? 줘이 산지슬길 머더러 가겠슈? 낭구허러 간 겨쑤.

산-지슭[-찌슭] ㅉ 산-기슭 ㅉ 산비탈의 아랫부분. ㉸산지슬기. ㅉ 여름출 산지슭은 아사리슭이라 우염혀. 산이 올라갈라든 산지슭이루 드가지 말구 등배기를 타구 올라가.

살메시 ㅉ 살며시 ㅉ 남들 모르게 넌 지시. 은근히. ㉸살므시. ㅉ 암만 친혀두 그렇지, 아실 때마두 그러닝께 살메시 짜징이 나더면.

살므시 ㅉ 살며시 ㅉ '살메시'.

상-모갱이 ㅉ 상-모서리 ㅉ '상(床)+모(隅/楞)+-갱이(접사)'. 사각형의 상에서, 모가난 네 귀퉁이. ㉸상모탱이. ㅉ 상모갱이에 안지든 복 날러가. 그러닝께 상목갱이 앓지 말구 바로 안져.

상-모탱이[-/뭉-] ㅉ 상-모서리 ㅉ '상모갱이'. ㅉ 잔칫집이 사람덜 우글거리니께 상모탱이라두 차지힐라든 얼릉 가야혀.

상-채림 ㅉ 상-차림 ㅉ 상에 음식을 진설하는 일. 또는 음식이 차려진 상. ㉸상차림. ㅉ 시골 동네서닌 잔칫집 상채림이 늘 입방아이 올르닝 겨. 그러닝께 손님 상채림인 하찮은 음식 한 가지두 다 마음쓰야 혀.

새 : 다 ㅉ 새우다 ㅉ(타) '새-(新/徹夜)+-이(접사)+-다->새이다)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날이 밝도록 밤을 지새우다. ㉸지새다. ㅉ 또 밤 쟈 겨?(또 밤을 세운 거야?)/뻗날 밤을 새매 공불허더니 지여이 몸살이 난 계구면.(며칠 밤을 새우며 공부를 하더니 기어이 몸살이 난 것이로구면.)

새 : -뜸 ㅉ 새-마을 ㅉ '새(東/新)+뜸



(里). ㄹ새말.

새롭다[-따] ㄹ새롭다 ㄹ이전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전과 달리 생생하거나 산뜻하다. ㄹ새롭다. ㄹ특별히 새린 것두 아니구먼 웬 호들갑이라?/새롭게 떠나던 저 꽃잎새 짐 봐./죽을 틈을 앓다가 일어나니까 시상이 다 새롭구 이쁘게 보여.

새 : -말 ㄹ새-마을 ㄹ새(東/新)+말(里). '이전의 마을에 대하여, 새로 생긴 마을'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 ㄹ신리(新里, 신촌(新村), 새터, 새뜸, 새실. ※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수많은 '새말, 새뜸, 새터, 새실' 따위의 지명이 '신리(新里, 신촌(新村))'으로 바뀌었다.

새발-고사리 ㄹ새(鳥)+발(足)+고사리(巖). 어느 정도 자라, 머리 부분이 새의 발처럼 세 갈래로 패어난 고사리. 식용으로 가능하지만 나물로서의 질이 떨어지는 고사리. ㄹ오박고사리. ㄹ양달루만 찾아댕겨서 그런가 새발고사리만 잔뜩 꺾었어. 새발고사리나마나 짧아 널으믄 다 그눔이 그눔이여.

새 : -실 ㄹ새-마을 ㄹ새(東/新)+실(谷). ㄹ새말.

새양 ㄹ생강(生薑) ㄹ(식물) '싱강'싱강/싱양→생강/새양. 생강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매운 맛이 나는 뿌리는 향신료, 건위제(健胃劑) 따위로 쓰임. ㄹ생강. ㄹ예산서는 생강이라고덜 뵈지. 이

전인 새양이라고 뵈년지 몰러두 우덜은 다 생강라고 뵈어. 나는 새양이라고 뵈년디. 우덜 어렸을 적이는 생강이라고 두 뵈구, 새양이라고두 썼어. 난 지금 두 더러 쓰구 있구. 생강 고지인 스산(瑞山)서는 지금두 쓰년 사람 많어.

새양지 ㄹ생 : 쥐 ㄹ(동물) '싱강'새양(生薑)+쥐(鼠)→새양쥐'새양지(모음동화). 생강처럼 몽푹하고 조그마한 몸집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쥐과의 한 갈래. ㄹ몸집만 새양지차람 쩌그만 게 아니라 눈치두 새양지구먼./새양지마냥 방구석이 처백혀있덜 말구 싸게 나와 봐.

새-차구 ㄹ새-덧/새 창애 ㄹ새차귀. ㄹ즈네 새차구를 들구멍기더면 그려, 참새는 뭇 마리나 잡은 겨?

새-차귀[-구이] ㄹ새-덧/새 창애 ㄹ새(鳥)+차(羈)+귀(접사)→새차귀[새차구이]새차구/새차기. 먹이로 멧새나 평 따위를 피어서 채어 잡는 도구. ㄹ새차구. 새차기. ㄹ평 잡년 새차귀[새차구이]믄 몰러두 참새나 잡년 새차귀[새차구이]를 머더라 멧글구 있다? 이건 애덜 장냥감 새차귀[새차구이]여. 작은애가 하쫈러대서니 멧그년 중이구먼.

새 : -터 ㄹ새-마을 ㄹ새(東/新)+터(基). ㄹ새말.

생-가심 ㄹ생-가슴(生-) ㄹ공연한 근심으로 상하는 마음. ㄹ그까장 것이루다 생가심 꿩이덜 말구 툄툄 털어번져.

생-겨란 ㅍ 생-계란(生鷄卵) ㅍ '날다갈'.

생 : -메기 ㅍ 샳-메기 ㅍ <농업> '샳(給料)+메기(無食賃)→생메기(전설모음화)'. 참이나 끼니를 제공받지 않고 품삯만 받고 해주는 일. 일품에 끼니 값이 얹혀 품삯이 높은 일. ㉠샳메기[상:메기]. ㅍ 그 아줌니 무지 독휴. 일을 댕겨두 밥 싸들구 생메기만 댕긴다낭게유./장보기두 심들구 음식 댕글기두 어렵구 기냥 생메기루 품을 사야졌유.

생-목심[-썸] ㅍ 생-목숨(生-) ㅍ 살아있는 목숨. ㅍ 저더러 총각 말여. 엇즈녁이 생목심을 나무이 매달았다. 그리기, 오티기든 생목심을 끊는다?

생-불 ㅍ 불 ㅍ '생(生)+불(火)'. (다 타지 않았거나, 꺼지지 않고) 지금 타고 있는 불. ㉠알불. ㅍ 생불이다 감자를 구든 불내 나서 오티기 먹을라구 그린다?

생키다 ㅍ 삼키다 ㅍ(타) ①무엇을 목구멍으로 넘기다. ㉠뵙키다. ㅍ 입맛이 읍어두 몸 생각히서 억지루락두 뻗술 때 생켜 봐. ②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다. ㅍ 님이 어떤 돈 꿀꺽 생키구 지가 발 뵙구 자겼남?

삭 ㅍ 삭 ㅍ '삭→삭(고모음화)'. 거침없이 마구, 아예. ㉠삭. (센말)썩. 썩. ㅍ 그런 못된 늙덜은 몽당이루 삭 잡아 죽치야 혀./그 늙이 하나투 냉기덜 앓구 삭 개져가변졌유.

서 ㅍ 에서 ㅍ '에서'의 준말. ㅍ 이 가지 말구 운동장서 놀자./가발 공장서 불이 났대유.

서-깔리다 ㅍ 섞-갈리다 ㅍ(자) '섞-(混)+가르-(分)+-이(접사)+-다→섞갈리다>서깔리다>세깔리다(전설모음화)'. 여러가지가 뒤섞여 뚜렷하지 아니하다. ㉠섞갈리다. 세갈리다. ㅍ 방콕허구 독이 서 깔려서니 통 분간을 못허졌네.

서끄-다 ㅍ 섞다 ㅍ(타) '섞다→서끄다>서끄다'. 한데 합치거나, 무엇을 더하다. ㉠섞으다. 섞다. ㅍ 이봐, 그렇기 막 서끄든 못쓴다낭게 그러네./풀이 되닝게 압체두 물을 더 서끄야졌지? 서끄터락두 많이 서끄야졌구면유.

서드르다 ㅍ ㅍ '서들다'의 원말. ㅍ (보채다)아가 위디가 아픈지 업어줘두 들구 서드르기만 허네티, 이를 워전대유? (서두르다)급혈수루기 서드르든 못쓰능겨.

서들다 ㅍ 보채다/서두르다 ㅍ(자) ①아이가 무엇이 못마땅하여 짜증을 내며 마구 보채다. ㉠서드르다. ㉠보채다. 짜들다. 짜다. ㅍ 아가 위디가 아픈지 업어줘두 들구 서들기만 허네티, 이를 워전대유? ②어떤 일을 급히 하려고 바빠움직이다. ㉠서들다. 서드르다. ㅍ 이 사람이 뭐가 급허다구 이리 서든다? 그렇기 서든다구 일이 빨랑 끝나네티 게 아녀.

-서래미 ㅍ -설랑은 ㅍ(연결) '설



래미'에서 'ㄹ'이 떨어진 형태. 『집안이 루 폭탄이 떨어져서래미 배람박이 다 부서진 겨. 방안이루 파편이 막 날러들어서래미 울 할아부지가 죽을 뻔혔다니께.

서버더 ㅍ 에서보다 ㅈ 어떤 장소와 견주어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이르는 부사격 조사. ㄹ '이서버더'. 『백이 나오니께 애가 집서버더 밥을 더 먹너구먼.

서버덤 ㅍ 에서보다 ㅈ ㄹ '이서버더'. 『돈 부년 것은 고향서버덤 도회지가 낫쥬.

서버터 ㅍ 서부터 ㅈ ㄹ '이서버더'. 『여서버터가 우덜 동네여.

서버텀 ㅍ 서부터 ㅈ ㄹ '이서버더' 『아침서버텀 아직까장 놀구만 있었다 닝께유./증신을 먹구서버텀 시작할 겨래유.

섞-갈리다 [섞갈-] ㅍ 섞-갈리다 ㅈ (자) ㄹ '서갈리다'의 원말.

섞으-다 ㅍ 섞다 ㅈ ㄹ '서끄다' 『지맘대루 섞으게 냅뒤.

-설래미 ㅍ -설랑은 ㅈ ㄹ '-서+-ㄹ래미'. 앞뒤 구절이 까닭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결어미. ㄹ-서래미. 설래미. -설래미니. ㄹ-서니. -서리. 『그리설래미(그래설랑은) 내가 혼꾸녕을 했지. 밥을 잘 은어 먹구설래미(먹고설랑은) 서리지두 못 되주냐구.

-설래미니 ㅍ -설랑은 ㅈ ㄹ '-설래미'. ※예산 서부지역에서 당진, 서산지역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진다. 『밤잠을 푹 자구설래미니(자고설랑은) 아츠이 일나보닝께 이터러가 시끌시끌헌 겨. 먼일이 생겼녕가 궁궁히설래미니(궁궁해설랑은) 옷을 대충 걸치구 떠가봤지.

성냥-골 [-골] ㅍ 성냥 머리 ㅈ '성냥(石硫黃)+골(頭/腦)→성냥골'성냥골'. ①유황이나 파라핀 따위의 발화물질이 발라져 있는, 성냥개비의 끝부분. ㄹ성냥골. 『성냥골이 누져서니 불이 안 썬지네. ② ㄹ '성냥개비'. 『성냥골이 뿔 개 안 남았네.

성냥-골 [-골] ㅍ 성냥 머리 ㅈ ㄹ '성냥골'이 표준어화한 형태. 『성냥골이 다 부서져서 썬지덜 않혀.

성성 ㅍ 송송 ㅈ 무나 배추 따위의 채소를 듬성듬성 크게 썰거나, 그것이 썰리는 모양. ㄹ송송. (작)송송. 『그렇기 송송 썬든 여느 천년[천련]이 끝넨다? 깎디기 헐 무수닝께 빨랑빨랑 성성 썬구 말어./죽 짚일 호박이닝께 그렇기 성성 썬문 안 더.

세겨-값 ㅍ 석유 값 ㅈ '세겨(石油)+ㅈ+값(價)→세겨값'세겨값(변자음화). ㄹ '세겨꿈'. 『아파트갈덜 앓구 개인집인 세겨값이[세겨까비] 많이 들어가. 난방이 들되서 그렇다넨디 줌만[증만] 되믄 세겨값이[세겨까비] 질 미스럽다닝께.

세겨-곰 ㄱㅁ 석유 값 ㄱㅁ '세겨(石油)+스+곰(價格)→세겨곰(변자음화)'. 시세에 따른 석유의 가격. ㄱㅁ세겨값. 세규곰. ㄱㅁ워치기 된 게 **세겨곰**은 올을 중만 알구 네릴 증은 물론다?

세겨-통 ㄱㅁ 석유-통 ㄱㅁ 석유를 담은 통. ㄱㅁ**세겨통** 들구 나스 거 보닝께 세겨 받으러 가넌 모양이구먼.

세규-값 ㄱㅁ 석유 값 ㄱㅁ '세겨곰'.

세규-곰 ㄱㅁ 석유 값 ㄱㅁ '세겨곰'.

세-갈리다¹ ㄱㅁ 헛-갈리다 ㄱㅁ(자) ㄱㅁ '사갈리다'. ㄱㅁ금방 허던 일두 **깜막깜막** 허구 순서가 **세갈리구** 그러넌 걸 보문 내 증신배기두 다 늘었는게 벼.

세-갈리다² ㄱㅁ 쉬-갈리다 ㄱㅁ(자) ㄱㅁ '서갈리다'.

세 : -놓다[-노타] ㄱㅁ 세워-놓다 ㄱㅁ(타) '서-(立)+-이(접사)+-어+놓-(放)+-다→세놓다(축약, 탈락)'. 곧게 서게 한 다음 일정한 곳에 두다. ㄱㅁ들 말렸이니께 **벳토맬 세놓지** 말어.(아직 털 말랐으니 **벳**단을 세워놓지 말아라.)

세 : 다 ㄱㅁ 세우다 ㄱㅁ(타) '스/서-(立)+-이(접사)+-다→세:다'. 서게 하다. ㄱㅁ**숫**돌이 **칼을** 갈어서니 날 **점 세라**./무르팍을 **세구** 얹어라./고집을 **세지** 말어라./바지를 **대려서** 주름을 **세야졌어**./대문 앞이다 차를 **세문** 오쩨냐?/꼬춤말뚝을 **세야졌다**.

세면 ㄱㅁ시멘트(cement) ㄱㅁ '쎄면'.

세모-다랴다[-라타] ㄱㅁ 세모-지다 ㄱㅁ '세모(三角形)+다랴-(접사)+-다'. 생김새가 세모나다. ※표준어의 일부 형용사의 어근에만 붙는 접사 '-다랴다'가 예산말에서는 일부 명사 뒤에도 붙어 쓰인다. ㄱㅁ네모다란 것을 반이루 **접어서** **잘르**는 **세모다랴게** 되는 거./얼굴이 **세모다란** 것이 **빼짝** 여엿더라구.

세 : -지다 ㄱㅁ 세워 지다 ㄱㅁ(자) '스/서-(立)+-이(접사)+-어+지-(被)+-다'. 사물이 서게 되거나, 건축물, 설계 따위가 이루어지다. ㄱㅁ**깃대**가 **세지다**./**지질**루 계획이 **세지다**./고칭 근물(高層建物)이 **세지다**.

섹-갈리다[-갈-] ㄱㅁ 헛-갈리다 ㄱㅁ(자) ㄱㅁ '사갈리다'.

쎄-갈리다[섹갈-] ㄱㅁ 쉬-갈리다 ㄱㅁ(자) ㄱㅁ '서갈리다'.

소곰 ㄱㅁ 소곰 ㄱㅁ **짤맛**이 나는 흰 빛깔의 고체. ㄱㅁ**국이** 왜 **이렇기** 싱겁다? **요새 소곰** 값이 **비싼** 모양이구먼.

소곰-국 ㄱㅁ 소곰-국 ㄱㅁ 소곰을 넣어서 끓인 국. 또는 매우 짤 국을 **빳대어** 이르는 말. ㄱㅁ**괴기국**을 **끓이**넌 **중** 알엇더니, **맛을** **봉게** **소곰국**이구먼./**웁**넌 **사람**들은 **소곰국**두 **구연** **시즐**이 **있엇어**. **요즘**같이 **먹을** 게 **늘쳐**나넌 **시상**은 **꿈**이두 **뵈**털 **얹엇지**.



소금-끼 ㉠ 소금-기(-氣) ㉡ 소금 맛처럼 짠 기운. ㉢간끼(-氣). ㉣바다에 빠졌던 옷이 말르니까 소금기루 버석거리니면./바닷모새라 소금기가 많아서니 쓰달 못힐 겨.

소금-물 ㉠ 소금-물 ㉡ 소금을 녹인 물. 또는 소금이 녹아있는 물. ㉣떨국이 순 소금물이구먼./이 사람이. 배차 절인 소금물을 빗이다 버리른 워찌?

소금-밥[-뺨] ㉠ 소금-밥 ㉡ 소금으로 간하여 몽친 주먹밥. ㉣일정 때 징용 가서니 소금밥을 더러 먹어왔지. 그 게 밥이다 소금뿌린 건디 경거니가 읍으니까 그런 겨.

소금-밭[-밭] ㉠ 소금-밭 ㉡ 바닷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기 위해 논이나 밭처럼 꾸며놓은 곳. ㉢음즌. 음전(鹽田). ㉣예산인 소금밭이 읍지. 바닷물이 들와야 소금밭이 있을 것 아닝감?

소금-장사 ㉠ 소금-장수 ㉡ 소금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전이 소금이 구열 적인 소금장사가 소금 가마닐 지구 땀이매 팔기두 헛어.

소리개 ㉠ 솔개 ㉡ ㉢'솔개미'.

소시라-치다 ㉠ 소스라-치다 ㉡ 갑자기 놀라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여 몸을 움찔 떨며 움직이다. ㉢소스라치다. ㉣월매나 놀랬으른 소시라쳐 기절까장 헛겼어./그눔 땀이 다덜 소시라쳐 기급

을 헛다닝께.

소 : 영 ㉠ 소 : 용(所用) ㉡ 무엇에 쓰이는 바. 쓰이는 곳. ㉢소용. 쇠영. ㉣인진 틀렸어. 다 소영이 읍년 짓이라닝께./차 시간 넘었넌디 떠가는 게 먼 소영이나구./밭써 늦었어. 니가 나스다히두 아무 소영 읍을 것라닝께.

소 : 영-없다 ㉠ 소 : 용-없다(所用-) ㉡ 쓸데가 없거나, 이로울 것이 없다. ㉢소용없다. ㉣당장은 소영읍어 봐두 야중이 쓸 디가 있을 거니까 헛간이다 느뉘.

소 : 영-없이 ㉠ 소 : 용-없이(所用-) ㉡ 쓸모가 없거나, 이로울 것이 없이. ㉢소용없이. ㉣내가 이러구 있년 것이 다 소영읍이 봐구 미련 파년 짓 같지? 근디 뭐래두 애스다 보문 온쟁가 다 쓸모가 있녕 겨.

소 : 용 ㉠ 소 : 용(所用) ㉡ ㉢'소영'의 이형태. ㉣암만 싸다구 히두 소용이 당년 물건을 사와야지. 싸다구 소용두 읍년 물건을 이렇기 달이른 오쩨다?

소 : 용-없다 ㉠ 소 : 용-없다(所用-) ㉡ ㉢'소영없다'의 이형태. ㉣헤보두 앓구 소용읍다구 허들 말구 헤보기나 허구 그런 말을 혀.

소 : 용-없이 ㉠ 소 : 용-없이(所用-) ㉡ ㉢'소영없이'의 이형태. ㉣그 동안 애쓴 것이 다 소용읍이 뵈어. 다 물거름이 뵈다닝께.

소청 ㅁ 소창 ㅁ 이불의 안감 따위로 쓰이는 얇고 부드러운 천. ㉠소창. ㅍ이 불 소청이 참 보드럽구먼./지저길 땀길 라구 소청 점 끊어왔다.

소창-보[-ㅂ] ㅁ 소창 보자기 ㅁ 소창으로 만든 보자기. ㉠소창보. ㅍ동통장을 땀길라구 짧은 종콩을 소창보이 싸서 대바구리다가 느꼈다.

속-겹땀이 ㅁ 속-겹질 ㅁ 밤이나 호두 처럼, 겹겹질 안에 겹으로 있는 겹질. ㉠속겹줄.

속-겹줄 ㅁ 속-겹질 ㅁ 겹겹질 속에 들어있는 얇은 겹질. ㉠속겹땀이. 속겹데. ㉡겹겹줄. ㅍ호도는 기냥 먹어두 되지면 밤은 속겹줄 안 벗겨 먹으면 너머 뜯어야.

속-저[-저] ㅁ 속-겨 ㅁ 곡식의 알갱이에서 나온 고운 겨. ㅍ방아를 찼넌디 속저이 웬 싸래기가 이렇기 많다? 그러기, 싸래기 아까워서래두 속저를 체루 쳐야 쓰겼구먼.

속-차 ㅁ 속의 것 ㅁ 차곡차곡 쌓여있는 물건들 가운데 속에 있는 것. ㉠겹차. ㅍ아니 즐짐치를 속차버터 빼면 오치기여? 그러구 속차를 뺏으면 겹차는 잘 눌러놔야 짐치가 상허덜 않녕 겨.

솔개미 ㅁ 솔개 ㅁ<동물> 매목 수릿과에 속한 새. ㉠소리개. ㅍ어제니 솔개미가 저더러집 땀아리를 두 마리나 채갔다. 그러닝께 달기장이 닥덜 내놓지 마라.

쇠-딱쟁이[-쟁-] ㅁ 쇠-딱지 ㅁ ㉠'쇠딱징이'.

쇠-딱징이[-쟁-] ㅁ 쇠-딱지 ㅁ ㅍ준어화 과정: 쇠딱징이/쇠딱쟁이>쇠딱지'. 아이들의 머리에 덕지덕지 눌러 붙은 때. ㉠쇠딱쟁이. ㅍ이눔아, 머리 점 겹구 땀겨라. 쇠딱징이가 새집을 졌잖어. 아이참, 이견 쇠딱징이가 아니구 부시림이 난 규.

쇠 : -뺨다구[-따-] ㅁ 쇠 : -뺨다귀 ㅁ ①'쇠뺨'를 속 되게 이르는 말. ㉠쇠뺨대기. ②별반 쓸모가 없는 사람을 비유하여 속되게 이르는 말. ㅍ즈런 쇠뺨다구같은 놈 같으니라구.

쇠 : -뺨대기[-때-] ㅁ 쇠 : -뺨다귀 ㅁ ㉠'쇠뺨다구'. ㅍ젊은 사람 몸이 그리 부실히서 오티간다? 육간(肉間)이 가 설래미 쇠뺨대기라두 사다가 폭 과괘여야 쓰겼구먼.

쇠 : 영 ㅁ 소 : 용(所用) ㅁ ㉠'소영'이 전설모음화한 형태. ㅍ쇠영두 읏넌 곳이다 신경쓰덜 말어.

쇠 : 영-읏다[-읏따] ㅁ 소 : 용-없다 (所用-) ㅁ ㉠'소영읏다'의 이형태. ㅍ안만 갈쳐두 쇠영읏유. 쇠 귀다 정 윗 기라녕께유.

쇠 : 영-읏이[-읏씨] ㅁ 소 : 용-없이 (所用-) ㅁ ㉠'소영읏이'의 이형태. ㅍ허던 일이 소용읏이 되긴 했지만 덕



분이 큰 증험을 은었어.

쇠-조랭이 ㉠ 쇠 조 : 리(箄籬) ㉡ 쇠 철사로 엮어 만든 조리. ㉢ ‘조랭이’

쇠임-수 ㉠ 속임-수(-數) ㉡ 남을 속이는 짓이나 그런 계략. ㉢ 속임수. ㉣ 손장냥이나 허구 **쇠임수**나 쓰던 그 사람은 우리 일이 엮을 생각 말어.

쇠-대[철대] ㉠ 열 : -쇠 ㉡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데 사용하는 쇠붙이. ㉢ 열대. 열대. ㉣ 자물통. 자물쇠. ㉤ 갈출나눔께 시골마두 도둑놈덜이 슬치구 멍긴다. 그렇게 광 **쇠대**는 잘 챙기야 혀.

수구리다 ㉠ 수그리다 ㉡ 고개나 몸을 아래로 기울여 굽하다. ㉢ 고개를 수구리덜 말구 번쩍 들어봐./인살 헐 때 닌 고개만 깨딱 허덜 말구 허리두 점수구리야 공손해 보이는 겨.

순-잡기[-끼] ㉠ 순-지르기 ㉡ ‘순(筍)+잡-(執)+-기’. ㉢ ‘순잡기’.

순-집기[-끼] ㉠ 순-지르기 ㉡ ‘순(筍)+집-(拮)+-기’. <농업> 식물의 원줄기에서 나오는, 필요치 않은 결순을 따내는 일. ㉢ 순잡기. ㉣ 올힌 **순집기**를 안혔더니 수박이 크덜 못허구 다 주먹만 허구먼.

순-집다[-따] ㉠ 순-지르다 ㉡(자) ‘순(筍)+집-(拮)+-다’. <농업> 식물의 원줄기에서 나오는, 필요치 않은 결순을 따내는 일. ㉢ 참외두 **순집년** 기술이 필

요혀. 꺾어서 두시 마디 지나 **순집은** 열매기가 즉게 열리구, 너머 질게 **순집은** 열매기가 또 잘어진다당께.

숨-맥히다[-매키-] ㉠ 숨-막히다 ㉡(자) ①숨이 차거나, 복부, 가슴 부위에 충격을 받아 숨 쉬기가 어렵다. ㉢ 그렇기 이불을 뒤집어 씌면 애가 **숨맥히잖**어. ②긴장감이나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다. ㉣ 두 낭반이 말두 앓혀매 노력보기만 허넌디 옆 있다가[여핀따가] 내가 **숨맥혀** 죽년 중 알았다당께.

숫[술] ㉠ 숫 ㉡ 탈것이 불에 타고 남은 덩어리. ㉢ 숫. ㉣ 이전인 저 비얇이 숫쟁이덜이 **숫을[수술]** 구매 살었다. 그러서 시방두 **숫구덩이골[수꾸덩이골]**이라구 허잖어./장적 지핀 구락징이에 **숫이[수시]** 한 개두 남덜 앓었네. 누가 **숫을[수술]** 다 떠갔다?

숫-구덩이[술-꾸-/수꾸-] ㉠ 숫-가마 ㉡ 숫을 구워내기 위해 마련된 구덩이. ㉢ 숫구덩이. ㉣ 가막고깬 넘어가든 **숫구덩이**가 있었어. 근자까장 **숫구덩이**서 영기가 평평 숫어오르곤 했지.

숫-덩이[술땡-] ㉠ 숫-덩이 ㉡ 숫으로 이루어진 덩이. ㉢ 숫덩이. ㉣ **숫덩이** 허믄 참낭구 **숫덩이**지. 빨겅게 달어오르던 참낭구 **숫덩이**는 보년 것만 이루어두 황홀혀.

승내 ㉠ 흥내 ㉡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일. 『성관이가 개그 맨 **송내**를 내서 애덜이 다 웃었다.

송내-내다 ㄱ 흥내-내다 ㄱ(타) 남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다. 『님이 **송내 내덜** 말구 지 식이루 애쓰년 게 좋은 거.

송내-쟁이 ㄱ 흥내-쟁이 ㄱ 흥내를 잘 내는 사람. 『**송내**를 잘 내년 사람을 많이 봤이면 그 사람만한 **송내쟁이** 줘봤어.

송넛-말[-냄-] ㄱ 흥내-말 ㄱ 어떤 사물의 소리나 모양, 동작을 나타내는 말. 의태어와 의성어. 『**송내말**을 쓰면 글이 참 짹있어진다.

송녀 ㄱ 흥녀 ㄱ 성질이 모질거나, 굳은 여자.

송조 ㄱ 흥조(凶兆) ㄱ 불길한 조짐. ㉠송쪼. ㉡길조. 길쪼. 『동네 사람덜이 자꾸 죽어나가년 것은 **송조**여. 뭘 대책을 세긴 세야년디 말여. 허다못해 푸닥거리라두 히보야 쓰잖겄남?

송쪼 ㄱ 흥조(凶兆) ㄱ 『송조』. ※ ‘송조→송쪼(유추/강음화)’: ‘송조’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은 아니되, ‘길조[길쪼]’의 상대어로 인식되고 쓰인다. 그런 까닭으로 ‘길조[길쪼]’의 [-쪼] 발음과 관련하여 [송쪼]로 발음되는 비율이 높다. 『송조가 맞는 거, **송쪼**가 맞는 거? ‘길쪼’의 반대니께 ‘**송쪼**’가 맞겠지. ‘일쪼(-兆), 알쪼(-兆)’ 헐 적이두 다 ‘쪼’라구 허잖어.

송-질 ㄱ 흥-질(凶-) ㄱ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짓. 『님 **송질**이나 허구댕기년 것허군 만날 일 없어.

송-허물 ㄱ 흥-허물(凶-) ㄱ 『송허물』. 『너머 넘 옥허덜 말어. 님이 **송허물** 잡을라다 지 **송허물** 짹히년 거.

송-흐물 ㄱ 흥-허물(凶-) ㄱ 『송흐물』 송허물. 흥이나 허물이 될 만한 일. ㉠송허물. 『시상이 **송흐물** 하나투 읊년 사람이 오디 있겄남?

숯-구덩이[숯-꾸-/수꾸-] ㄱ 숯-가마 ㄱ 『숯구덩이』.

숯-덩이[숯땡-] ㄱ 숯-덩이 ㄱ 『숯덩이』.

शल : -바탕[-빠-] ㄱ ശ : -터 ㄱ ശ 만한 장소. 『조 모켄이 돌아스른 **शल바탕**이 있으닝께, 다리 아파두 쪼만 더 가서 쉬자./저기 그늘낭구 밑이 **शल바탕**이 있어. 저서 장관 섰다 가자.

-슈 ㄱ -세오/-버시오 ㄱ(종결) ‘-시우/-시유’의 준말. (해요체에서) 의문, 명령, 권유의 뜻을 전할 때 쓰는 종결어미. ㉠-시우/-시유. ㉡-버슈. ※충남 말에서는 표준어와 달리 ‘하십시오(하십슈)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돈 점 부시우?→돈 점 부시유?→돈 점 부슈?(돈 좀 버시오?/돈 좀 버십니까?)/잘 지냈슈?(잘 지내셨나요?/잘 지내셨습니까?)/시방 오디 가슈?(지금 어디 가시나요?/지금 어



디 가십니까?)/진지 잡수슈.→진 잡수.
(길고 높게-진지를 잡수십시오./짧고 낮게-진지를 잡숫고 계십니다.)/잘 지내슈.(낮게-잘 지내세요./잘 지내십시오.)/잘 지내슈?(높게-잘 지내시나요?/잘 지내십니까?)/지랑 가슈.(낮게-저랑 가지지요./저랑 가십시오.)/지랑 가슈?(높게-저랑 가시나요?/저랑 가십니까?)

스낭-당 ㅍ 서낭-당(城隍堂) ㅍ<민속> 서낭신을 모신 집. ㉠당집(堂-). ㅍ 비 오년 밤이 스낭당이 머더러 간 겨?

스낭-신 ㅍ 서낭-신(城隍神) ㅍ<민속> 토지와 마을을 지켜 준다는 신.

스두르다 ㅍ 서두르다 ㅍ(자)(타) ‘스두르다/스둘르다→서두르다/서둘르다’. 어떤 일을 급히 하려고 몸을 재게 놀리다. ㉠스둘르다. ㅍ 그렇기 스두르다구 안 될 일이 된다남? 급현 일두 아남게 스둘르덜 말구 찬찬히 돌어보매덜 혀.

스렴 ㅍ 설염(舌炎) ㅍ ‘표준어화 과정: 슬음[스름]>슬염[스렴/슬렴]>설염[서렴/설렴]’. 혀끝이나 혀의 가장자리에 흰빛, 또는 회백색의 염증. ㉠스름. 슬음. 슬염. ㅍ 봉원일 갔더니 스렴이 심허다구 약을 주더라. 근디 스렴이 뭐라? 썬바닥이 갈려지구 부리킨 것을 스렴이라 허녕 겨.

스름 ㅍ 설염(舌炎) ㅍ ㅍ ‘스렴’.

스 : 민-문학 ㅍ 서 : 민-문학(庶民文學)

學) ㅍ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과 풍습을 그린 문학. ㉠귀족[귀이족]문학. ㅍ 요짐이야 스민문학이란 말을 안 쓰구 민중문학이라고 허잖는가?

스 : 민-용 [-용] ㅍ 서 : 민-용(庶民用) ㅍ<문학> 서민들이 사용하는 물건. ㅍ 스민용 주택을 많이 저서 주택난을 해결(解決)헌다더니 집값은 왜 그렇기 올러만 가능 겨?

스 : 민-적 ㅍ 서 : 민-적(庶民的) ㅍ ㅍ ‘스민적’.

스 : 민-즉 ㅍ 서 : 민-적(庶民的) ㅍ 서민과 같은. ㉠스민적. ㅍ 요짐 층치허년 낭반덜은 스민즉 증스(情緒)라는 걸 통 물론단 말여.

스성-거리다 ㅍ 서성-거리다 ㅍ(자) ㅍ ‘스성그리다’

스성-그리다 ㅍ 서성-거리다 ㅍ(자) ‘표준어화 과정: 스성그리다>스성거리다>서성거리다’. 한곳에 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 ㉠스성거리다. 서성거리다. ㅍ 글잖어두 증신 사나 운디 왜 자꾸 스성그거리능 겨? 그렇기 스성그려 봤자 벨수가 생기년 것두 아 니잖여.

스성-대다 ㅍ 서성-대다 ㅍ(자) ㅍ ‘스성거리다’. ㅍ 문지방 닳겠다 이눔아, 그만 스성대구 얌즌히 점 있어라.

스성-스성 ㅍ 서성-서성 ㅍ 자꾸 주

- 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스성스성 울타리를 돌매 왜 넘어집인 냉겨다 본다?』
- 스성-이다** ㉸ 서성-이다 ㉸(자) 한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 ㉸서성이다. 『집백이서 스성이는 사람이 누구래유?』
- 스 : 술-격** [-격/-격] ㉸ 서 : 술-격(敍述格) ㉸(언어)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것. ㉸서술격. 『스술어의 자격(資格)을 부여하는 말이는 스술격조사가 있다.』
- 스 : 술-부** ㉸ 서 : 술-부(敍述部) ㉸(언어) 서술어 단독이나 서술어에 딸린 목적어, 보어와 부속 성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서술부. 『주오부와 스술부가 어울려서 문장이 된다.』
- 스 : 술-어** ㉸ 서 : 술-어(敍述語) ㉸ '표준화 과정: 스술(으)스술어' 서술어. 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 『스술어랑 주어는 문장의 뼈대가 된다.』
- 스 : 술-절** ㉸ 서 : 술-절(敍述節) ㉸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 ㉸스술절.
- 스 : 술-허다** ㉸ 서 : 술-하다(敍述-) ㉸(타)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글로 쓰다. 『지 생각두 스술허지 못허던 녀석이 뉘 넘어 글을 흥

[訶]헌다구 허능 겨?

- 스 : 술-형** ㉸ 서 : 술-형(敍述形) ㉸ '표준어화 과정: 스술(으)스술형' 서술형.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형태. 『교과부는 학상달 평가이서 단답형을 지양허구 스술형 문제를 늘려가겠다구 발표했다.』
- 스 : 식** ㉸ 서 : 식(書式) ㉸ 서류를 꾸미는 일정한 방식. ㉸서식. 『스식이 다라구 혈 순 읍지면 그리두 지 이력스디 최소현 알아보겐 쓰알 것 아닌감?』
- 스 : 식-지** ㉸ 서 : 식-지(棲息地) ㉸ 동물이 깃들어 사는 곳. ㉸서식지. 『무분별(無分別)헌 개발 증책이루 증성달의 스식지가 빨르게 사라지구 있다.』
- 스 : 식-허다** ㉸ 서 : 식-하다(棲息-) ㉸(자) 동물이 깃들어 살아간다. ㉸서식하다. 『예당즈수지이 기존의 생물 말구 여섯 종의 동식물이 더 스식허구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 스재** ㉸ 서재(書齋) ㉸ 서적을 갖추어 두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
- 스적** ㉸ 서적(書籍) ㉸ 책을 일컫는 말. 『고스적(古書籍), 중고스적(中古書籍), 스적상(書籍商), 신간스적(新刊書籍).』
- 스지** ㉸ 서지(書誌) ㉸ ①책이나 문서의 형식, 체제, 성립, 전래 따위에 관한 사실, 또는 그것을 기술한 것. 『도스관 스키 목록 점 가져와 봐. 스키 목록은 왜유? 요집 책이 많이 읍어진 것 같

어서 스지 목록 점 불라구려. ②어떤 인물이나 제목 따위에 관한 문헌 목록.

스지-학 ㉠ 서지-학(書誌學) ㉡ 도서(圖書)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문헌학(文獻學).

스천 ㉠ 서천(西天) ㉡ ≡ ‘스촌’.

스촌 ㉠ 서천(西天) ㉡ ‘표준화 과정: 스촌>스천/서촌>서천. 서쪽 하늘. ㉢동천(東天). ㉣스촌이 해다가넌디 여태까장 머더너라구 안 오구 있다?

스 : 한 ㉠ 서한(書翰) ㉡ ≡ ‘뜯지’. ㉢6·25동란 죽이 1·4후퇴를 허던 동상이 인쁜(人便)이루다가 스한을 한 통 보냈더라구. 쓴 날짜를 보닝께 두 달이 지났드라닝께. 그 난리 통이 보냈이니 말허자든 그 스한이 도중이서 술헌 우 여곡줄 끝이 나헌티 들어온 겨.

스한-집 ㉠ 서한-집(書翰集) ㉡ 편지를 모아서 엮은 책.

스행 ㉠ 서행(西行) ㉡ 서쪽으로 감.

스화 ㉠ 서화(書畫) ㉡ 글씨와 그림. ㉢매는(每年) 갈마두 문화원에서 스화 큰시회를 허잖어. 추사백일장이서 입상헌 스화를 걸어놓구 사람덜헌티 귀경시킨단 말이지.

스간[-간] ㉠ 석간(石澗) ㉡ 돌이 많은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 ㉢스간수(石間水).

스간[-간] ㉠ 석간(夕刊) ㉡ ‘스간신문’의 준말. ㉢스간은 우쁜(郵便)배달부이 의혀여 다음 말 오즌이 다갈 쯤이서야 내 손이 들어왔다.

스간-수[-간-] ㉠ 석간-수(石間水) ㉡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 ㉢향촌사 옆의 옷샘약수는 스간수루 가물이두 물 줄기가 끊치지 않넌다.

스불[-불] ㉠ 석불(石佛) ㉡ 돌로 만든 부처. 돌부처.

스-빙고[-빙-] ㉠ 석-빙고(石氷庫) ㉡ 옛 시대에 얼음을 넣어 보관하던 창고.

스벽 ㉠ 석벽(石壁) ㉡ ①돌로 쌓은 벽이나 담. ②바람벽같이 깎아지른 듯한 언덕의 바위. ㉢스벽. 석벽.

스별 ㉠ 석별(惜別) ㉡ 서로 애뜻하게 이별함. 또는 그런 이별. ㉢스별. ㉣(자) 스별-허다.

스블-은[-빨쁜] ㉠ 석별-연(惜別宴) ㉡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여 베푸는 연회. ㉢스별연. ㉣저 집 아들이 동티 뭐라나 풍화유지군(平和維持軍)이루 뻬헝가게 뵈다구 스블은을 은다.

스실[-실] ㉠ 석실(石室) ㉡ 옛 무덤안의 돌로 된 방. ㉢석실.

스실-분[-실-] ㉠ 석실-분(石室墳) ㉡ 돌로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 만든 무덤. 돌방무덤.

속양 ㉾ 석양(夕陽) ㉿ ①저녁 햇살이 나 저물어가는 해. ②해가 질 무렵. ㉿ 속양 나들이 오딜 그리 바빠 가능 겨?

속양-늘 ㉾ 석양-녁(夕陽-) ㉿ 해질 무렵. ㉿속양녁. ㉿속양늘 공기가 스스스 현 걸 보니 여름두 다 갔내 벼.

속양-별[-별] ㉾ 석양-별(夕陽-) ㉿ 해질 무렵의 햇별. ㉿속양별이 한 뺨두 안 남았으니까 스들러 들어가자구.

속양-빛[-빔] ㉾ 석양-빛(夕陽-) ㉿ 해질 무렵의 햇빛. ㉿은제 봐두 속양빛은 참 슯다니까.

속탄 ㉾ 석탄(石炭) ㉿ 태고 때의 식물 질이 땅속에 묻혀 지압과 지열을 받아 생긴, 불 잘 붙는 퇴적암. ㉿속탄.

속탄-광 ㉾ 석탄-광(石炭鑛) ㉿ 석탄을 캐내는 광산. ㉿속탄광. ㉿대촌의 속탄광이 문을 닫자 거서 일허던 많은 예산 사람덜이 일자리를 잃고 돌아왔다.

속탄-기 ㉾ 석탄-기(石炭紀) ㉿<지리> 고생대의 데본기와 페름기의 중간에 있었던 지질시대. ㉿속탄기. ㉿속탄기는 그대(巨大)현 양치식물이 번성허었던 3억년(三億年) 즈의 지질 시대를 일컬는다.

속탄-재[-재] ㉾ 석탄-재(石炭-) ㉿ 석탄이 타고 남은 재. ㉿속탄재.

속탄-층 ㉾ 석탄-층(石炭層) ㉿ 땅속에 석탄이 묻혀 있는 층. ㉿속탄층.

손: 거 ㉾ 선거(選舉) ㉿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임할 사람이나 어느 단체에서 절차에 따라 임원을 투표하여 뽑는 일. ㉿요점은 이장, 반장두 다 주민덜 손이루 직접 손겨루 뽑잖어.

손: 거-구 ㉾ 선: 거-구(選舉區) ㉿ <정치>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 ㉿소손겨구제루 바꿨이니까 인전 이등은 소용없는 겨. 손겨구구 나발이구 압디 서나 나와서 뺨허믄 그만 아난감?

손: 거-권[-권] ㉾ 선: 거-권(選舉權) ㉿<법률> 선거에 나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조합장 손겨어는 조합원이 아니믄 손겨권을 주지 못유. 증 투표허구 싶으시믄 조합원이루 등록허시라 닝께유.

손: 거-법[-법] ㉾ 선: 거-법(選舉法) ㉿<법률>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요점은 이진차람 돈 같은 걸 막 받으믄 못써. 손겨법이 강히져서 걸리믄 수십 배루 게워내야 험다잖어.

손: 거-인 ㉾ 선: 거-인(選舉人) ㉿ <법률>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유권자. 손겨자. ㉿너두 으른이 되믄 손겨인이 될 수 있능 겨.

손: 거-전 ㉾ 선: 거-전(選舉戰) ㉿ 손겨즌.



손 : 거-존 ㉠ 선 : 거-전(選舉戰) ㉡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벌이는 경쟁. ㉢ 손거전. ㉣ 손거존이 아무리 치열 허든 뿔혀. 밀어줄 사람이 보덜 않넌디.

손 : 거-출 ㉠ 선 : 거-철(選舉-) ㉡ 선거일을 전후한 얼마 동안의 기간. ㉢ 대손(大選)인가 먼가 허넌 손거출이 다가오낭께 온 나라가 시끄럽구면.

손 : 깃-날 [-건날] ㉠ 선 : 거-일(選舉日) ㉡ '손거(選舉)+사+날(日)'. 선거를 하는 날. ㉢ 손거일(選舉日). ㉣ 오늘이 구장 손깃날인디 동네 초상이 나빠렸이니 이걸 오티기야 쓴다?

손물¹ ㉠ 선물(先物) ㉡ <경제> 정해진 시기에 물건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 종목.

손 : 물² ㉠ 선 : 물(贖物) ㉡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 또는 그 물건. ㉢ 엄니 생신 손물을 준비헌겨? 먼 손물을 히야 헐지 물러서 아직 이어. ㉣(타) 손 : 물-허다.

손물-그래 ㉠ 선물-거래(先物去來) ㉡ <경제> 장래의 일정한 기일에 현품을 인수·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 약정을 맺는 거래. ㉢ 주식 시장이 손물그래가 늘어나구 있다넌디 그 손물 거래란 게 문제가 짐 있다.

손 : 민 ㉠ 선 : 민(選民) ㉡ ① <기독교>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민

족,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르는 말. ②한 사회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잘 사는 소수의 사람.

손 : 민-사상 ㉠ 선 : 민-사상(選民思想) ㉡ '손민의식'.

손 : 민-의식 ㉠ 선 : 민-의식(選民意識) ㉡ ① <기독교>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우월감. ㉢ 이방인(異邦人)이란 유대인의 손민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②한 사회에서 특별한 혜택(惠澤)을 받고 잘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우월감. ㉣ 일부 부자덜이 손민의식이 빠져 가난헌 이를 읊수이 보넌 일이 있다구 헌다.

손봉 ㉠ 선봉(先鋒) ㉡ 무리의 맨 앞쪽. 또는 무리의 앞자리에 선 사람. ㉢ 손봉의 일꾼입네 말루는 누군 못혀? 헛소리허덜 말구 일즉일즉 나오기나 허라구 그려.

손봉-군 ㉠ 선봉-군(先鋒軍) ㉡ 앞서서 나가는 군대. ㉢ 그닝께 그계 갑오는(甲午年) 구월 그믐날이었어. 박인호 대증주(大接主)의 기포릉릉(起包命命)이 따러 고덕과 덕산 동학도덜이 손봉군이 되서니 태안이루 진극(進擊)을 시작혔단 말이지.

손봉-대 ㉠ 선봉-대(先鋒隊) ㉡ 맨 앞에 서는 대열이나 부대. ㉢ 시월 초하루 새벽이 동학도의 손봉대가 스산(瑞

山) 운산별이 당도했어.

순봉-대장 ㉾ 선봉-대장(先鋒隊長)

㉿ 선봉대를 지휘하는 장수.

순봉-장 ㉾ 선봉-장(先鋒長) ㉿ ㉿
'순봉대장'.

순심¹ ㉾ 선심(禪心) ㉿ <불교> 선정(禪定)의 마음. 대상에 집중하여 고요한 마음 상태.

순심² ㉾ 선심(線審) ㉿ '순심판'의 준말. 운동 경기에서, 규칙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보조 심판원. ㉿ 그는 프로 야구 경기의 순심이루 발탁되었다.

순 : 심³ ㉾ 선 : 심(善心) ㉿ ① 선량한 마음이나,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 ㉿ 넘어 젓 개지구 순심 쓰년 책 허덜 말어./지 먹을 건 냉기구 순심을 쓰야지. ㉿ 뻘쓰까장 다 내주믄 오탁허는겨? ② <불교> 스스로와 남에게 부끄러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보리심(菩提心).

순인¹ ㉾ 선인(先人) ㉿ ① ㉿ '순친(先親)'. ② 전대(前代)의 사람. ㉿ 순인덜의 발자치를 더듬다.

순인² ㉾ 선인(船人) ㉿ 뱃사람, 또는 뱃사공.

순 : 인³ ㉾ 선 : 인(善人) ㉿ 선량한 사람. ㉿ 악인(惡人).

순임¹ ㉾ 선임(先任) ㉿ 어떤 임무나

직무 따위를 먼저 맡음. 또는 그런 사람. ㉿ 순임자. ㉿ 순임 하사가 널 점 보자니께 얼릉 가봐./순임을 잘못 만나 자네가 음챙히 심들겠구면.

순 : 임² ㉾ 선 : 임(選任) ㉿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 ㉿ (자) 순 : 임-되다. ㉿ (타) 순 : 임-허다. ㉿ 누구를 순임허면 게 좋으까?

순은-허다 ㉾ 선연-하다(鮮然-) ㉿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 억그제 일차람 순은헌디 그게 밭써 10는 준일이 뵈구면.

순은-히 ㉾ 선연-히(鮮然-) ㉿ 생생하고 뚜렷하게.

순장 ㉾ 선장(船長) ㉿ 배의 항해와 배안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는 선원들의 우두머리. ㉿ 괴깁배 한 측 사터니 큰 배 순장이나 된드끼 그들먹그린다당께.

순장-실 ㉾ 선장-실(船長室) ㉿ 배안에 선장이 거처하는 방. ㉿ 이 배이 순장실이 오딘감? 저짜편이 순장실이라구 써져 있잖여.

순저 ㉾ 선저(船底) ㉿ 배의 바닥. ㉿ 순저에 물이 새년 것 같은디, 수리를 히야쓰지 앓겠남?

순적 ㉾ 선적(船積) ㉿ 배에 짐을 싣는 것. ㉿ 순적 수속은 다 밝은겨? ㉿ (자) 선적-되다. ㉿ (타) 순적-허다. ㉿ 필요헌 것덜 다 순적했으믄 슬슬 떠



나보자기.

손적-물[-정-] ㉠ 선적-물(船積物) ㉡ 배에 실은 물건. ㉢ 수출용 손적물이 배마두 까득 찼다.

손제¹ ㉠ 선제(先制) ㉡ 선수를 쳐 제압함. ㉢ 상대가 많을 땐 기습즉이루 손제 공격을 하던 게 상책이여.

손제² ㉠ 선제(先帝) ㉡ 선대(先代)의 황제. ㉢ 손제의 유지를 받들다.

손착 ㉠ 선착(先着) ㉡ ①남보다 일찍 다다름. ㉢ 약속대루 내가 손착이닝께 내 허잔대루 허능 겨, 알겠지? ②'손착수(先着手), 손착편(先着鞭)'의 준말. ㉣ (자) 손착-허다.

손-착수[-쑤] ㉠ 선-착수(先着手) ㉡ 어떤 일에 남들보다 앞서 손대는 것.

손착-순[-쑤] ㉠ 선착-순(先着順) ㉡ 먼저 와 이르는 순서. ㉢ 예산도서관에서 독스(讀書)의 달을 맞이하여 손착순이루 50명의 어린이에게 책을 나눠줬다.

손착-장[-짱] ㉠ 선착-장(船着場) ㉡ 배가 와서 닿는 곳. '나루터'로 순화. ㉢ 동짓달 손착장은 텅 빈 채 찬 바람만 불구 있었다.

손 : 탄 ㉠ 선 : 탄(選炭) ㉡ 캐낸 탄을 가려 정탄(精炭)으로 만드는 일. ㉢ 옛날이 대천탄광에서 일할 적이 스탄작업(選炭作業) 참 많이 했넌디. 그땐 기계

가 자주 고장나서 안 좋은 스탄(石炭)을 손이루다가니 골러내기두 헛다닝께. ㉣ (자) 손 : 탄-허다.

손 : 탄-장 ㉠ 선 : 탄-장(選炭場) ㉡ 석탄 원광(原鑛)을 정탄과 버력으로 분리하는 곳.

손풍-적 ㉠ 선풍-적(旋風的) ㉡ 돌발적으로 일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또는 그런 것. ㉢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손풍적인 인기를 누리구 있다.

손풍-즉 ㉠ 선풍-적(旋風的) ㉡ '손풍적'.

손후-평 ㉠ 선후-평(選後評) ㉡ '손후평'.

손후-평 ㉠ 선후-평(選後評) ㉡ 문예 작품을 골라서 뽑은 다음 그 경과 및 작품에 대하여 내리는 평. ㉣ 손후평. ㉤ 신춘문예 손후평이라던 게 매해 그룽구 그룽터니 올히는 참 색달르더라구.

슬득[-떡-] ㉠ 설득(說得) ㉡ 상대편이 이쪽 편에 생각에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 설득. ㉤ 조근조근히 슬득을 해야지, 그렇기 우격다짐을 허먼 애가 말을 헐 수가 있남?

슬득-력[-떡녁] ㉠ 설득-력(說得力) ㉡ 상대편이 이쪽 편에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 ㉣ 슬득력. ㉤ 이래 비두

내가 한 슬득력 허잖어. 딱 가서니 멧
마디 허닝께 고분고분 따리오더라구.

슬득-륙[-똥륙] ㉞ 설득-력(說得力) ㉞ '슬득력'.

슬메시 ㉞ 슬머시 ㉞ '표준어화 과정:
슬르시/슬메시>슬머시'. 주위에서 알아채
지 못하도록 넌지시. ㉞슬르시. 슬머시.
『그놈이 슬메시 넘어 뒤나 캐구 멧기
년 넘어.

슬멧-허다[-메터-] ㉞ ㉞ '슬룻/슬멧
허다>슬멧허다'. 걸으로 드러내지 아니하
여,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다. ㉞슬멧허
다. 슬멧허다. ㉞은밀허다. 『그걸 줄라른
슬멧허게 주야지, 넘덜 눈 많은 디서 불
쑥 내밀른 내 치른(體面)이 뭐가 된다?

슬멧-허다[-머터-] ㉞ ㉞ '슬멧
허다'. 『지판이는 날 생각허서 슬멧허
니 내미년 건디, 그 물건갈두 얹언 걸
받잠두 아니구 안 받잠두 아니구 참 그
렇더면.

슬르시 ㉞ 슬머시 ㉞ '슬메시'.

슬룻-허다[-머터-] ㉞ ㉞ '슬멧
허다'. 『새약시가 걸음걸이두 슬룻현
게 보통 조신현 게 아녀.

슬사[-싸] ㉞ 설사(泄瀉) ㉞ 액체 상
태의 변, 또는 액체 상태로 나오는 변.
『배가 아프구 슬사가 나서 병원일 갔
더니 장늑(腸炎)이라구 입원을 허라대.
㉞(자) 슬사-허다.

슬사-병[-싸-] ㉞ 설사-병(泄瀉病) ㉞ '슬사똥'.

슬사-똥[-싸똥] ㉞ 설사-병(泄瀉病) ㉞ '슬사똥>슬사똥'. 설사를 하는 병.
『슬사똥이 났다구 암 거두 안 먹으면
오칙허니?

슬사-약[-싸-] ㉞ 설사-약(泄瀉藥) ㉞ 설사를 멧게 하는 약. 『폭음(暴飲)
이루 생긴 슬사똥이닝께 슬사약만 먹덜
말구 술버텨 쟁겨.

슬염 ㉞ 설염(舌炎) ㉞ '스럼'.

슬음 ㉞ 설염(舌炎) ㉞ '스럼'.

습유-산음 ㉞ 섬유-산음(纖維産業) ㉞ '표준어화 과정: 습유산음>습유산음>섬
유산음'. 생물체의 섬유로 실, 직물 따위
를 만드는 산업. 『증상도(慶尙道)이서
먼 습유산음을 육성헌다매? 이이, 그계
메디컬습유라나 머라나 허년 걸 이용헌
츄단 습유산음이라.

습유-소 ㉞ 섬유-소(纖維素) ㉞ ①
<화학> 고등 식물이나 조류의 세포막
섬유의 주성분이 되는 다당류의 하나.
셀룰로오스. ②<생물> 피가 굳을 때 피
브리노겐에 트롬빈이 작용하여 생기는
섬유 같은 단백질. 피브린. ㉞섬유소. 『
괴기는 기냥 먹지 말구 상추나 침지에
싸 먹어. 나무새를 안 먹으면 몸 속이
습유소가 부족헤지능 겨.

습유-질 ㉞ 섬유-질(纖維質) ㉞ 섬유



로 이루어진 물질. ㉔섬유질. ㉕의사가 허낸 말이 술이나 괴기는 피허구 습유질을 많이 습취(攝取)하야 현다너면.

습정[-쯩] ㉔ 섭정(攝政) ㉕ '습증'.

습증[-쯩] ㉔ 섭정(攝政) ㉕ '표준어화 과정: 습증>습정>섭정'.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 또는 임금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㉔습정. ㉕어린 고종(高宗)을 대신해서니 대원군이 습증을 헛잖어. ㉕(자)(타) 습증-허다.

승 : 도 ㉔ 성 : 도(聖徒) ㉕ ①<기독교> 기독교 신도를 높여 이르는 말. ㉕ 승도달 집안이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②<가톨릭> 순교자 가운데 교황청에서 인정한 사람. ㉕성도.

승 : 도 ㉔ 성 : 도(性度) ㉕ 성품(性品) 과 도량(度量).

승 : -도덕 ㉔ 성 : -도덕(性道德) ㉕ 남녀 사이의 성(性)에 관한 윤리 규범. ㉕승도덕이 상실된 현대(現代) 사회서 승범죄가 늘어나구 있다.

승 : 명 ㉔ 성 : 명(姓名) ㉕ '승똥'.

승 : 똥 ㉔ 성 : 명(姓名) ㉕ '표준어화 과정: 승똥>승명>성명'. 성과 이름. ㉕승명. ㉕인저 문스(文書)이다 주소랑 승똥만 써놓으은 되여.

승 : 벽 ㉔ 성벽(城壁) ㉕ '승북>승벽>성벽'. 성의 둘레를 이루는 담벼락. ㉕

승북. 성벽. ㉕산성리(山城里)라구 히서 산성이란 디를 찾아가 봤넌디, 말루만 승이지 승벽두 읍구 이름뿐이더라구. 그리두 임존성은 승벽이 멀쩡혀.

승 : 북 ㉔ 성벽(城壁) ㉕ '승벽'.

승 : 심 ㉔ 성 : 심(聖心) ㉕ ①거룩한 마음. ②<가톨릭>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마음.

승심 ㉔ 성심(誠心) ㉕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

승심-껏[-껏] ㉔ 성심-껏(誠心) ㉕ '승심껏'.

승심-끗[-끗] ㉔ 성심-껏(誠心) ㉕ 참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여. ㉕승심껏. ㉕맥겨만 주신다믄 승심끗 일히볼 것이구면유./승심껏 히두 봐줄까 말까 현디 농감땡감히서 일을 망쳐났단 말이지?

승의[-의/-이] ㉔ 성의(誠意) ㉕ 참되고 정성스런 뜻. ㉕사람 승의를 무시허믄 안 되능 겨. 승의두 물러주구 그러면 내가 섭혀지.

승의-껏[-의껏/-이껏] ㉔ 성의-껏(誠意) ㉕ '승의껏'.

승의-끗[-의끗/-이끗] ㉔ 성의-껏(誠意-) ㉕ '표준어화 과정: 승의껏>승의껏/성의껏>성의껏'. 정성스런 마음을 다하여. ㉕지는 승의껏 현다구 헛구면유. 그리 승의껏 헛넌디두 일이 글러버렸이

니 이를 오티기안대유?

승 : 인 ㅍ 성 : 인(聖人) ㉠ ①지혜와 덕이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승자(聖者)). ㅍ 승인두 지 그름을 물을 때가 있다. ㉢ 조금 실수한 건 왕간허른 봐주구 그려. ㉣(가톨릭)교황청에서 일정한 의식에 의하여 성덕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포한 사람. ㅍ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의 방한 이후 우리나라 승인은 총103인이 되었다.

승인-병[-병] ㅍ 성인-병(成人病) ㉠ ㅍ '승인병'.

승인-병[-병] ㅍ 성인-병(成人病) ㉠ <의학> 중년 이후에 문제되는 병의 총칭. ㉡(승인병). ㅍ 승인병의 주원인이 살찌는 거라. 인전 식탐두 줄이구 운동두 허구 그리야겠어.

승 : 인-품 ㅍ 성 : 인-품(聖人品) ㉠ <가톨릭> 시성식(諡聖式)을 통하여 교회가 성인으로 정한 지위.

승 : 자 ㅍ 성 : 자(聖者) ㉠ ①성인(聖人). ㉡(가톨릭)<기독교> 거룩한 신도나 순교자를 이르는 말. ㉢(불교) 모든 번뇌를 끊고 바른 이치를 깨달은 사람.

승 : 자-신손 ㅍ 성 : 자-신손(聖子神孫) ㉠ 성군(聖君)의 자손. 또는 임금의 자손을 높여 이르는 말.

승 : 지¹ ㅍ 성 : 지(聖志) ㉠ ①성인(聖人)의 뜻. ㉡임금의 뜻. ㉢(성지(聖旨)).

ㅍ 승지를 받들어 행하다.

승 : 지² ㅍ 성 : 지(聖地) ㉠ 종교적인 유적이 있는 곳. ㅍ 승지를 순례하다.

승 : 지-순례[-술-] ㅍ 성 : 지-순례(聖地巡禮) ㉠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거나 신의 가호를 구하기 위하여, 성지로 찾아가 참배하는 일. ㉡(승지순배(聖地巡拜)). ㅍ 승지순례를 댜겨오다.

시-누 ㅍ 시-누이(媿-) ㉠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ㅍ 조실부모한 집안이루 시집와서니 어린 시누덜 지가 다 컸유. 시집두 지 손이루 다 보내구 인전 막넛 시누[망넛씨누] 하나 남았유.

시 : 다⁵ ㅍ 세 : 다 ㉠ ㅍ '씨다'의 여린말. ㅍ 남자가 심만 시뎀 단감?/생선 까시가 너머 셔서 먹기가 참 그렇구 먼./지운이 장사라넛디 그 신 늬을 워치기 당헐라구려?

시뎀잡다[-짤타] ㅍ 시뎀잡다 ㉠ 볼 품이 없고 시원하지 않다. ㅍ 시뎀잡은 물건 개지구 뎀 자랑이라?/시뎀잡게 헐라든 애제이 허덜 말어라.

시시-각객[-객] ㅍ 시시-각각(時時刻刻) ㉠ '시시각각→시시각객(전설모음화)'. 하나하나로 구분되어 흐르는 시각. ㉡(시시각각). ㅍ 한번 일이 꼬이닝게 시시각객이루 일이 터지넛디 증신이 하나투 읍었어.

시-아빠 ㅍ 시-아비(媿-) ㉠ '시아버'



지'를, 시부모 또래 이상의 연배를 가진 어른이나, 시어머니가 낮잡아 이르는 말. ㉠시어매. ㉡'느이 시아배 진지는 채 려디렸냐?/느이 남편이나 시아배나 소 갈배기가 똑같이 뵈뵈이어야.

시-어매 ㉢ 시-어머니(媿-) ㉣ 시부모 이상의 연배를 가진 어른이나, 시어머니인 자신이 '시어머니'를 헐하게 이르는 말. ※'시에미'와 '시어매': 두 말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자신을 일컫거나, 시어머니인 자신이나 남의 시어머니를 훗하게 이룰 때 쓴다. 요즘은 '시에미'가 주로 쓰이지만 예전에는 흔히 '시어매'를 썼다. ㉤'느이 시어매는 오딜 간 겨?/그리기 그 집안인 시어매란 게 메누리헌티 꼭 쩌혀서니 쩌쩌 매매 산다. 시상이 배끼닝께 시어매가 메누리 눈치보던 일이 많구먼, 요짐 메누리덜이 시어매를 시어매루 보거나 허남? 시어매헌티 애나 켜달라구 허년 게 일이지.

시-엄니 ㉥ 시-어머니(媿-) ㉦ 남편의 어머니. ㉧시어매. ㉨우리 시엄니 비우 맞추기 참 심들구먼유. 자네가 참어, 곱구 달른 시엄니겠어? 다 쓰구 시닝께 시엄니라 허녕 겨.

시-에미 ㉩ 시-어머니(媿-) ㉪ ①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자신을 일컫는 말. ㉫시엄니. 시어매. ㉬메놀아가, 이 시에미가 일 점 그들어 주까? ②'시엄니'를 훗하게 이르는 말. ㉭시어매. ㉮그 집 시에미는 승질이 올매나 까탈시런

중 물르다닝께.

-시우 ㉯ -세요/-하시오 ㉺(종결) ㉻ '-슈'. ㉼시방 오디를 가시우?→시방 오디 가슈?(지금 어디 가시나요?/지금 어디 가십니까?)/진지 잡수시우.→진 잡슈.(진지를 잡수십시오./진지를 잡숫고 계십니다.)

시욱지[-찌] ㉽ 시궁-취 ㉿ '시국지'. ㊀저 말만 시피던 시욱지 땀이 속터져 죽겼네./시욱지 시욱지 허두 저런 시욱진 츠 봐.

-시유 ㊁ -세요/-하시오 ㊂(종결) ㊃ '-슈'. ㊄잘 지내시유.→잘 지내슈.(잘 지내세요./잘 지내십시오.)/지랑 가시유.→지랑 가슈.(저랑 가지지요./저랑 가십시오.)

시절(時節) ㊅ ㊆ 지나는 절기나 하루의 때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을 가볍게 놀려 이르는 말. ㊇시절때기. 시절탱이. 열간이. 모지리. ㊈이 늙이 시절차람 밥때두 놓치구 오딜 쏘맹 긴다? 시절이 달래 시절이겠어? 때를 물르닝께 시절이지./플망헌 동무덜 옆이 두구 왜 저런 시절허구 노니?

시절-때기 ㊉ ㊊ '시절(時節)+-때기(접사). ㊋ '시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저집 메누리 지 친중야배 지사두 물르던 시절때기라.

시절-탱이 ㊍ ㊎ '시절(時節)+-탱이(접사). ㊏ '시절'을 더 낮잡아 이르는 말. ㊐'즈런 시절탱이를 봤나?

식근[-근] ㉠ 식견(識見) ㉡ 사물을 구분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 ㉢ 근식(見識). ㉣ 그 낭만이 글두 물르구 뻔 것은 읊어두 지법 식근이 있어.

식혀[시켜] ㉠ 식혜(食醴) ㉡ '감주'. ㉢ 식혀랑 감주랑 위티기 달른 겨? 달르긴 멀 달라? 감주는 감주구 식혀두 감주지.

-실 ㉠ 골/마을 ㉡ '골(谷)'을 뜻하는 옛말에서, '산과 이어진 마을이나,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나타내는 접미사. ㉢ 골. 뜸. 달. ㉣ 곰실. 밤실(栗谷). 감실(柿谷). 당실. 장복실 따위.

실:-꾸레미 ㉠ 실 꾸레미 ㉡ '실꾸리'.

실:-꾸리 ㉠ 실 꾸레미 ㉡ 실을 감아 둥글게 뭉쳐놓은 덩이. ㉢ 실패. 실꾸레미. 실꾸리미. ㉣ 야가 실꾸리를 오퍼 쳐박어 논 겨? 암만 찾아두 이느무 실꾸리가 오딜 갔나 뵈덜 없네.

실:-꾸리미 ㉠ 실 꾸레미 ㉡ '실꾸리'.

실:-오래기 ㉠ 실:-오라기 ㉡ 한 가닥으로 된 실. ㉢ 훌창이불을 뜯었더니 실오래기가 한 짐일세그러./암만 집안이라 히두 실오래기는 글치구 땡겨라, 이눔아.

실지 ㉠ 실제(實際)/실지(實地) ㉡ 사실의 경우, 또는 사실의 형편. ※'실제'

든 '실지'든 발음이 [실지]로 같기 때문에 두 단어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 실지루다가 그런 일이 있었남? 실지는 그런 일이 읊었유./그게 실지라구 곧이들리던 않더면.

심: ㉠ 셈: ㉡ '해-(分別,算)+-ㅁ→ㅗ' ㉢ '셈?'심'. 수를 세거나 따지는 일. 또는 사물을 헤아리는 슬기. ㉣ 심이 왜 그렇다? 돈을 받았으믄 물건을 내노야 헐 것 아녀? 그러. 그렇기 심이 흐리믄 못쓰능 겨./그 사람은 심이 빨르니계 우리가 말 안 히두 다 알아서 헐 겨. ㉤ (타) 심:-허다.

심그다 ㉠ 심다 ㉡(타) '심-(植)+으(매개모음)+-다→심그다/심구다>심오다/심다'. ①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속에 묻다. ㉢ 거다 먼 낭굴 심그는가? 밤낭굴 심근다구 심긴 헐넌디 잘 자덜라나 물르겠네. ②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다. ㉣ 효허년 땀을 심근다구 떠들긴 허더면 먼 소릴진 물르겠어. ③어떤 사람을 어느 곳에 어떤 의도로 자리잡게 하다. ㉤ 심구다. 심다. 심오다. ㉣ 지 사람을 심겨 뵈다구 암 극정 말라구 허더면.

심:-법[-뻘] ㉠ 셈:-법 ㉡ 수를 따지는 법, 또는 이익득실을 따지는 법. ㉢ 심뻘. ㉣ 받을 건 받구 줄 건 주믄 되는 건디 뵈 심법이 그리 요상헌 겨? 뵈건 아뉴. 기냥 일이 점 복잡허니계 심



뵤두 그만침 어지런 규.

심 : -뵤[-뵤] [표] 셤 : -뵤 [뵤] ㉮ '심뵤'. ㉮중핵겨까장 뵤겼따매 그런 심뵤두 물르느감?

심 : -속[-속] [표] 셤 : -속 [뵤]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사실. ㉮저 어뵤 터진놈이 지 손해 보넨 심속두 물르구 헤헤거리니면.

심-적계[-계] [표] 힘차게 [뵤] '심(力)+-적(접사)+-계(어미)'. 힘을 주어 세차게. ㉮그렇기 깔짜그리뵤 말구 심적계 점일을 히보란 말여./거참, 그 사람 도치질 한 번 심적계 허닝구면.

심-적다[-따] [표] 힘-차다 [뵤(자)] 기운이 세고 넘치다. ㉮심적다. ㉮심적어 보넨 사람은 읍구 맨 비실이뵤만 뵤니면.

심-적다[-따] [표] 힘-차다 [뵤(자)] ㉮ '심적다'의 셤말.

싯 : -두리[싯뚜-] [표] 세-뚜리 [뵤] '시(三)+ㅅ+두르-(周)+-이(접사)'. 하나를 셋으로 나누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누는 뵤. ㉮독이다가니 진장을 당겨뵤이닝께 누이뵤이 틈내 와서니 싯두리루 노나가. 업니, 진장 한 독을 오티기 싯두리루 노는대유?

싸그리 [표] 깡그리 [뵤] '삭/씩(皆/全體)+-으리(접사)'.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씩. 몽창. 모조리/몽조리/모저리. 냉김없이. 죄다. ㉮야가 하나두 안 냉기구 싸

그리 처뵤졌네./즈런 못뵤 뵤뵤은 싸그리 가막소이 처박어 누야 혀.

쌩(:)뵤이 [표] 생짜(生-) [뵤] ㉮ '쌩뵤이'.

쌩(:)뵤이 [표] 생짜(生-) [뵤] '쌩(生)+-뵤이(접사)→쌩뵤이/쌩뵤이'. 뵤 익은 과실이나 채소 따위를 일컫는 말. ㉮쌩뵤이. ㉮날것. 쌩짜. 쌩것. ㉮진장짐치가 아적들 익어서니 쌩뵤이유./익두 얇은 쌩뵤이를 오치기 먹으라고 낸 겨라?

쌩-뵤 [표] 뵤 [뵤] ㉮ '쌩뵤'의 셤말.

쌩-짜 [표] 생짜(生-) [뵤] '쌩(生)+-짜(접사)'. 뵤 익은 과실, 채소나 익히지 않은 먹을겨리. ㉮날것. 쌩뵤이. 쌩뵤이. 쌩것. ㉮이거 우린 감인 중 알엇더니 순 쌩짜구면.

씩 [표] 싯 [뵤] '씩→씩(고모음화)'. 거침없이 마구, 남김없이 모두. ㉮씩. (여린말) 삭. 삭. ㉮잡초뵤은 씩 처내뵤려라./정일 그거 하나 씩 치우뵤 못핳남?

쌩판 [표] 생판 [뵤] (매우 생소하거나, 서로 관계없이) 전혀. ㉮쌩판 달븐 물건을 개져와서니 내보구 워쩌래능 겨?/쌩판 물르넨 츠지두 아니구 이번인 뵤주지 그려.

쌩 : 다 [표] 세 : 다 [뵤] ㉮ '씨다'. ㉮바람이 너머 쌩게 불으니 비니루는 야중이 싯야졌어.

쌩면 [표] 시멘트(cement) [뵤] 토목이나 건축 재료로 쓰이는 접합제. ㉮회. 세면.

썰면. 『차거운 썰면 바닥인 앓덜 말어.
썰멘 [표] 시멘트(cement) [문] 『썰
 면』. 『썰멘 한 포 개지구 그걸 다 밟르
 겠남?

썩-소리[-쏘-] [표] 상-수리(橡-) [문] 『썩(橡)+수리/소리(實)』. 참나뭇과의 상수리(썩소리)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음]상수리. [음]도토리. 신갱이. 『썩소리는 상수리여. 이전이는 그렇기 쓰닌 사람덜이 있었지.

썩소리-감[-쏘-] [표] [문] (상수리처럼 아주 작은 감이란 뜻으로) 육종되지 않은 야생의 재래종 감. 『요즘이야 썩소리감이 있남? 이전인 더러 있었넌디 썩소리감은 먹두 못허넌 겨.

썩수리[-썩-] [표] 상수리 [문] 『썩소리』.

쏟 : -개미 [표] [문] '쏘' : -(蟻)+-르+개미(蟻). <동물> 주로 집안의 방바닥이나 흙벽 사이를 뚫고 살며, 사람을 쏘듯이 무는 작은 크기의 개미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다가 따끔히서 깜짝 놀래 일나보닝께 방바닥이 쏘개미덜이 겨땡기더라구./말렛장 밑이 쏘개미덜이 월매나 많은 중 물러.

쓰레-박 [표] 쓰레-밭기 [문] '쓸(掃)+에(접사)+박(匏)'. 쓰레기를 쓸어 담는 그릇. 『빚자락허구 쓰레박 점 가좌라./암만 더워두 그렇지, 이 사람아. 쓰레박이루 부채질을 허문 오쩌는가?

쓰레빠 [표] 슬리퍼(slipper) [문] 『쓰리빠』.

쓰리빠 [표] 슬리퍼(slipper) [문] '슬리퍼(slipper)의 일본어식 발음'. 발의 앞쪽만 꺾게 되어 있고 뒤축이 없는 신. '슬리퍼', 또는 '실내화'로 순화. 『드린 쓰리빠 끌구 땡기덜 말구 운동화락두 하나 사 신어.

쓰배기 [표] 쓰배귀 [문] 『쓰배』.

쓰배 [표] 쓰배귀 [문] <식물> 식용하는 들나물로,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음]쓰배기. 쓰배기. 『오서 이렇기 쓰배나물을 많이 뜯은 겨?

쓰배기 [표] [문] 『쓰배』. 『쓰배기를 무쳤넌디 물이 안 당겼더니 점 쓰구면유. 괜찮여. 싹싹헌 게 쓰배기가 지맛나니께 좋기만 허구면.

씨 : 다¹ [표] 끼우다 [문] (타) '쓰-(用)+이(접사)+다→씨:다)씨:다'. 무엇인가에 쓰이도록 하다. 어떤 사람을 여럿이 하는 놀이나 일에 함께 하도록 하다. [음]끼주다. 찌주다. 『이 사람두 우리편이다 씨까? 그 사람은 거덜이잖어. 우리편이 씨나 마난디 왜 들구 못 써서니 안달헌다?

씨 : 다² [표] 세 : 다 [문] (자) '표준어화 과정: 시:다/씨:다)세:다/씨:다'. ①힘이나 기세 따위가 강하다. 『꺼적문 아니닝께 문 점 씨게 단구 와./큰물 쳐서 물살

이 씨닝께 조심히서 근느더락 혀. ②정도가 심하거나, 운수 따위가 나쁘다. ㉠ 씨:다. ㉡ 그 사람 고집이 원체 씨서니 오티기 해볼 재간이 읍어./지집 팔자 뽕박 팔자라구, 이것두 다 지 팔자가 썩 소관이유.

씨라구-죽 ㉢ 시래기-죽 ㉣ 시래기(씨라구)를 삶아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하여 쓴 국. ㉤ 씨래기죽. ㉥ 이 사람이 씨라구죽만 먹구 왔나 왜 이렇기 심을 못 쓰능 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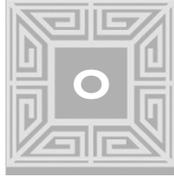
씨래기-죽 ㉦ 시래기-죽 ㉧ '씨라구죽'. ㉨ 밥 때 뒷으른 밥을 주야지. 허다못헤 씨래기죽이래두 맥여가맨서 일을 시키얏 것 아닌가 배.

씨부랄 ㉩ 씹을 할 ㉪ 기분이 몹시 상했을 때 내뱉는 비속어. '씹(陰部)+을+하

/허-(爲)+-르→씨부랄/씨부럴'. ㉫ 씨부럴. ㉬ 육시랄. 육시럴. ㉭ 어이 씨부랄, 아침버텀 재수읏넌 일이 벌어졌군!/씨부랄! 일이 드렵게두 꼬였네. ㉮ 알맙고 더러움을 나타내는 비속어. ㉯ 씨부럴. ㉺ 저 씨부랄 개새끼기가 누굴 보구 짓넌다?/저 못된 씨부랄 새끼기는 왜 들구 우리 집일 찌웃거린다?/야이, 씨부랄 늙아!/얼라, 즈런 씨부랄 넌 점 보게?

씨부럴 ㉻ 씹을 할 ㉼ '씨부랄'. ㉽ 저 좃만한 씨부럴 것덜이 누굴 뵙겨다 보넌 겨?

씨앗 ㉾ 시앗 ㉿ '식/식(新)+앗/가시?(妻)→식앗/시앗'씨앗(경음화)'. 남편이 새로 들인 첩. ㊀ 시앗. ㊁ 씨앗넌 잡넌다구 갔다가니 뽕대 머리끄댕이만 쩍히구 왔다녀면./돌부처두 씨앗을 보문 돌안진다넌 말이 있잖여.



-아 ㅁ -애 ㅁ(중결) ‘ㅎ’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사실의 서술을 뜻하는 중결어미. ㉠-어³. ※(표준어-불규칙활용)파랑-+-아→파래. (충청말-규칙활용)파랑-+-아→파라./노랑-+-아→노라./빨강-+-아→빨가. 까맣-+-아→까마. ㅍ가 얼굴은 너머 까마./그 사람은 원래 얼굴이 점 노라./밤질이 무지 깡까마. 그닝께 나가덜 말어.

아궁지 ㅁ 아궁이 ㅁ ‘악(口/穴)+-웅(접사)+-지(접사)’. 방고래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아궁쟁이. 아궁징이. ㉡구락쟁이. 구락징이. ㅍ아궁지다 군 불은 지퍼는 겨?/아궁지서 불 안 나오 게 잘 살펴보구 있어.

아국-쟁이[-쟁-] ㅁ 아궁이 ㅁ ㉠ ‘아국징이’. ㅍ아국쟁이가 맥혔이니 고 무래루 재점 퍼 내거라./아국쟁이 불어 서니 불장냥허덜 말구 나가 놀어라.

아국-징이[-쟁-] ㅁ 아궁이 ㅁ ‘악

(口/穴)+-옥(접사)+-지(접사)+-앵이(접사)→아국쟁이)아국징이’. 고래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 ‘아궁지’. ㅍ아국징이 가서 불 점 보구 오너라./아국징이 루 불 지피러 간 지가 온젠디 연태 안 온다?

아깟[-깟] ㅁ 아까의 ㅁ ‘아까(方今前)+ㅅ’. (의존명사의 앞에서) 한참 전의. 앞서의. ㉠아깟 ㅍ아깟 짓은 죄다 냅비 리구 온 겨?/아깟 일은 참 미안하게 됴어.

아깨 ㅁ 아까 ‘표준어화 과정: 아깨>아까. ㅁ 한참 전에. ㅍ아깨 본 만야책(漫畫冊)을 또 보능 겨?/느이가 아깨 나 헌티 머라 헌 겨?/아깨 준다구 허구서니 깜막 못 좇어. ㅁ 한참 전. ㅍ아까 내가 점 미안혔어./이번이두 아깨차람 실수허문 가냥 안 둔다어.

아깨-침 ㅁ 아까-쯤 ㅁ ㉠ ‘아까침’이 전설모음화한 형태. ㅍ아깨침이두 일렀구먼서두 사람이 그러든 못 쓰단 말이어.

아깟[-깟] ㉠ 아가의 ㉡ '아깟'이 전설모음화한 형태. ㉢ 아깟 차는 암만 히두 쓰덜 못허겄더면.

아닌-말 ㉠ 거짓-말/아니할 말 ㉡ '아니-(否)+-ㄴ(어미)+말(言)'. ①실제 사실과 다르게 지어낸 말. ㉢그짓말. 그짓 부렁. 허언(虛言). ㉣참말. 증말(正-). ㉤ 들구 **아닌말**을 저내른 넘덜이 옥혀./그건 **아닌말**잉께 너머 새겨들덜 말어. ② '아니할 말'이 줄어든 말로, 헤서는 안 될 말이나 못할 말. ㉤이 사람이, **아닌 말**루다가니 그런 일이 진짜루 생긴다문 위떡헐라구려?

아래-차 ㉠ ㉡ 차곡차곡 쌓여있는 물건들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 ㉢웃차. 우이차. ㉣그렇기 **아래차**를 빼니께 다 무너지잖어. 오채포 다 무너지질 것이라 한 번이 무너지라구 역부러 **아래차**버텀 ㉣ 규.

아랫-말 : [-랜-] ㉠ 아랫-마을 ㉡ '아래(下)+ㅅ+말(里)'. 윗마을에 대하여, 아래쪽에 자리한 마을. ㉢하리(下里). ㉣웃말. 상리(上里). ㉤ **아랫말**이 원제 멩겨 온 겨?

아랫-입설[-랜 입설] ㉠ 아랫-입술 ㉡ 입의 아래쪽에 있는 입술. ㉢웃입설. 윗입설. 우잇입설. ㉣올마나 씨게 넘어졌 걸래 **아랫입설**이 다 깨졌다?

아매 ㉠ 아마 ㉡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큰. ㉢아마. ㉣야가 이리 늦는 걸 보른 **아매**두 뉘 일이 냐네 벼./그날이 **아매** 자네 귀빠진 날이었지?

아무-스럽다[-따] ㉠ 아 : 무렇다 ㉡ '아무스럽다'.

아무-스렇다[-러타] ㉠ 아 : 무렇다 ㉡ '아무스럽다'. ㉢당사자가 **아무스렇**두[아무스러투] 았다넌디 왜 들구 그런다?

아무시렁-허다 ㉠ 아무려-하다 ㉡ '암시렁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허구두 **아무시렁**허들 았다문 그계 더 이상헌 겨.

아무-시렇다[-러타] ㉠ 아 : 무렇다 ㉡ '아모/아무(某)+스렁-(접사)+-다-아무스렇다)아무스렇다)아무시렇다'.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하여)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아무스렇다. 아무스렵다. 아무시렵다. 암스렇다. 암스렵다. 암시렇다. 암시렵다. ㉣암시렁허다. *'아무스렇다'와 '아무스렵다': 두 말이 함께 쓰이지만, 쓰임 빈도로 볼 때 '아무스렇다'가 월등히 높다. 충청말에서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말 '-스렁-'이 '-스렵-'과 형태나 뜻이 비슷하므로, 유추현상이 일어나 '아무스렵다/아무시렵다'로 쓰는 사람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 **아무시렁**두 았구먼 고여니 사람 놀랬켰구먼./그뻬 점 놀랬지면 시방은 **아무시렁**두 았유.

아번-님 ㉠ 아버지 ㉡ '아분님'.

『성님, 돌아오던 **아변님** 칠순은 오턱히
실 규?

아분-님 ㉠ 아버님 ㉡ ‘아버지(父)+스
+님(접사)→아분님’아변님’. ㉢ ‘아버지’
를 높여 이르는 말. 『**아분님**, 얼릉 저
녁 진 잡슈./자네 **아분님**은 모시적삼을
채려 입구 워덜 그렇기 나맹기시능 겨?

아습다[-따] ㉠ 아쉽다 ㉡ 무엇이 모
자라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거나
섭섭하다. 『음식이 모지라 **아습긴** 허
지면 오쩌. 헐 수 읍지./막판이 그르친
일이 **아쉽서니** 요새 잠두 못 잔다.

아스다 ㉠ ㉡(자) ‘불완전활용: 아서, 아
서라, 아스라구, 아스라넌, 아스라믄, 아스
라닝께, 아스야지.’ 하거나 하려던 행동을
멈추거나, 험하거나 소중한 것을 함부
로 건드리거나 다루지 말라는 뜻을 나
타낼 때 쓰는 말. ※표준어에서는 ‘아서,
아서라’의 형태로만 쓰여 감탄사로 분류하지
만, 예산말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활용형이
남아 있어 불완전 동사로 정리한다. 『**아
서**, 글루 가믄 우염혀/**아서라**, 그러다간
클란다./지가 **아스라구** 멧 번이나 야글
혔넌디두 그여 일을 쳤구먼유./**아스라
넌** 디구 들구 헤쌌더니 꺾내 일을 쳤구
면./인석이 **아스라닝께** 더허구 자빠졌
군. 이눔아 **아스라믄** **아스야지** 왜 말을
안 듣는 겨?

아안 ㉠ 아니 ㉡ ‘안:’, 『어머니,
용돈 필요하시죠? **아안**, 난 개용돈 같

은 거 필요없어야.

아이고매 ㉠ 아이고 ㉡ 놀람, 반가움,
탄식 따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아이
고, 아이구, 워매, 오매. 『**아이고매**, 저
게 웬일이라?(놀람)./아이고매, 이게 누
구여?(반가움)./아이고매, 저눔이 또 일
을 쳤이니 이를 우쩨냐?(아이고, 저 녀석
이 또 일을 저질렀으니 이를 어떻게 한대?
-탄식)

아즉 ㉠ 아직 ㉡ ‘아적’.

악다구리[-따-] ㉠ 악다구니 ㉡ 악
을 써가며 욕설을 퍼붓는 짓. 『**악다구
릴** 허다가 목이 서서니 말두 못헨대유.
한 나절 **악다구릴** 헤쌌넌디 그 목이 배
기겠남?/디립다 **악다구릴** 허두 눈 하나
씨끗 않더면.

안-뚜란 ㉠ 앞-뜰 ㉡ ‘안(前/內)+뚜란
(庭)’. 집의 앞쪽에 있는 뜰. ㉢뒤뚜란.
뒤란. 『좁어 터진 **안뚜란**이다 낭구를
이렇기 싸노믄 오쩨냐?

안 : [-/아안] ㉠ 아니 ㉡ ‘아나→안:(음
운탈락)’. 연배가 비슷하거나 낮은 상대
방의 물음에 부정의 뜻으로 답하는 말.
㉢아안. 『즘슨은 먹은 규? **안**, 아적 못
먹었어./널 또 보기루 했유? **안**. 에이,
또 볼 거잖유? 아녀. 인젠 볼 일 읍어
졌어.

안적 ㉠ 아직 ㉡ ‘아적’. 『날 썰라
문 **안적** 멀었응께 더 자./해가 중천인



디 안적까장 일나두 았혔유./안적 한 나절두 안 뒸유.

안죽 ㅍ 아직 ㅅ ㅅ '아적'.

알-바닥 ㅍ ㅁ '알바당>알바닥'. ① 아무 것도 깐 것이 없는 바닥. ㅍ 재는 알바닥이 주잖어서 뒸허구 있다? 뒸래두 깔구 았이야지 알바닥이 그러구 있으믄 오쩌냐? ②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을 빗대어 이르는 말. ㅁ 알바당. ㅁ 날바닥/날바당. ㅁ 맨바닥/맨바당. 알땅. 밑바닥/뒸바당. ㅍ 알바닥이서 애써봤자 다 허당이여.(아무 것도 없이 애써본다 해도 그건 모두 보람 없는 일이야.) ㅁ 알바닥이 헤딩허다. 알바닥이 머릴 박다. -맨땅에 머리 박기.

알-바당 ㅍ ㅁ '알바닥' 이전의 말. ㅍ ㅁ 알바당을 깔구 았다.(아무것도 지닌 재산이 없다)/알바당이 머릴 박다. -맨땅에 머리 박기. 맨땅에 헤딩허기.

알이켜 주다 ㅍ 알러 주다/가르쳐 주다 (구문) 모르는 것이나 잊은 것 따위를 깨우쳐 알게 하다. ㅁ 알이키다. 알으키다. 일르다. 일러 주다. 가르쳐 주다. ㅍ 동상헌티 공부를 잘 알이켜 줘라./느이집 가년 동넛질 점 알이켜 줘.

알이키다 ㅍ 알리다/알려-주다 ㅁ (타) '알(識)-+이/으(매개모음)-+키(접사)-+다→알이키다/알으키다'. (주로 보조용언 '주다' 앞에서) 모르는 것이나 잊은 것 따위를 깨우쳐 알게 하다. ㅁ 알으키다.

ㅁ 알이켜주다. 일르다. ㅍ 질을 잘 몰르것 같어서니 알이켜 보내긴 했넌디 응 걸리너면./알이켜주던 헛넌디 잘 갖녕가는 몰르졌유.

암 : 만 ㅍ 아 : 무렵 ㅁ 강하게 긍정을 표시할 때 쓰는 말. ㅁ 암. ㅍ 암만. 느덜 말이 백번 옳구면./암만, 그렇기만 되믄 올마나 좋겠냐?

암 : -스렵다[-따] ㅍ 아 : 무렵다 ㅁ '아무시렵다'.

암 : -스렵다[-러타] ㅍ 아 : 무렵다 ㅁ '아무시렵다'. ㅍ 암스렵두[암스러투] 았다군 허넌디 그리두 난 걱정이 되너면.

암 : 시령 ㅍ 아무렇지도 ㅁ '아모/아무(某)+스령-(접사)-+ㅇ/영(접사)→암스령>암시령'. (부정 형용사와 호응하여) 어느 것도 전혀. ㅍ 술을 그렇기 먹구두 암시령 았은 겨? 암시령 았긴 머가 암시령 았여. 발써 두간을 두 번씩이나 땡겨 왔구면./암시령 았은 디끼 았어는 있더면 암체두 속은 썩까말 겨.

암 : 시령투 ㅍ 아무렇지도 (구문) '암시령허-+지(어미)+두(보조사)→암시령허지두>암시령허두가 줄어든 말. ㅁ 암시령두. ㅍ 난 암시령투 았여. 또 그러다구 히두 난 또 암시령두 았을 겨구.

암 : 시령-허다 ㅍ 아무러-하다 ㅁ '아무(某)-+시령(접사)+허-(접사)-+다→아무시령허다>암:시령허다'.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아 무시렇다. ㉡아무스럽다. 아무시렇다. 아무시럽다. 아무시렵다. 암스럽다. 암시렇다. 암시럽다. 암시렵다. 『난 그것 허군 상관웁스께 암시령허덜 않여./우덜헌틴 암시령헌 문제두 읍으니까 썰디읍넌 걱 정일랑 접작 말뚝이다 붙들어 매뒤.

암 : -시렇다[-타] ㉠ 아 : 무렇다 ㉡ 『아무시렇다』가 줄어든 말로 쓰임 빈도가 높다. 『본인은 암시령두 았다 구 헌다구 그제 암시령두 았얼 수가 있 냥가? 암스령두 았긴 뭘 암스령두 았 유. 말만 그러지, 시방 이불 쓰구 드러 뵈유.

암 : 채-기 ㉠ 아무렇게 ㉡ 『아무(某)+라(조사)+ㅎ-(爲)+-기(접사)』. 되는 대로 막. 『암채기라두 일만 끝내믄 되능 겨./암채기루 허믄 야중이 욱 먹을 짓 같은디.

암 : 채기-나 ㉠ 아무렇게나 ㉡ 『암치기나』. 『암채기라두 허기만 허믄 되 녁 겨쥬? 암채기 허던 니 맘대루 히여.

암 : 채두 ㉠ 아무래도 ㉡ 『아무(某)+라(조사)+ㅎ-(爲)+-여(어미)+도(조사)』. 아무 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이리저리 하 여 보아도. 『암채두 그 일은 자네가 나스야 쓰겼구믄. 암채두 허본 사람이 낫덜 았겼남?

암 : 채-믄 ㉠ 아무려면 ㉡ 의문문에 서, ①있기 어려운 경우나 상태를 가정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암채믄 그런 일이 있겼나? ②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반어적으로 쓰는 말. 『암채믄 개가 너한테 지겼어?

암 : 치기 ㉠ 아무렇게 ㉡ 『암채기』. 『암치기 허두 넌 날 못 이겨.

암 : 치기-나 ㉠ 아무렇게나 ㉡ 『암채기(大綱)+나(조사)→암채기나』암치기나(전설모음화). 되는 대로 막. 성의 없이 대충대충. 『암치기나 니 맘대루만 허봐./암치기나 허두 너버덤은 낫을 겨.

앞-전[압전] ㉠ ㉡ 사람이나 사물의 앞자리나, 겉으로 드러난 앞면. ㉢뒗전. 『이스방은 왜 잘 알두 못허매 들구 앞전이 나스는 겨?/이 사람아, 기경을 헐라믄 앞전이루 가야지, 그 보두 았넌 뒗전서 뒗허녕 겨?/우염헌 일인 즐대루 앞전이 나스덜 말어라이.

애리다 ㉠ 아리다 ㉡ 『았-(痛)+-이 --+다→알하다/아리다』애리다(전설모음화). 허끝을 찌르는 듯이 아프거나, 상처가 난 살갓이 쓰리고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아리다. 『하늘 본 감자를 깨물엇더니 무지 애리네./상채기에 물이 다닝께 무지 애리구믄./너만 보믄 나는 맴이 애려.

야² ㉠ ㉡ 인칭대명사 뒤에서, 그 사람의 소유물을 뜻하는 말. ㉢해. ㉣차. ㉤것. ※인칭대명사 뒤에서는 ‘해’보다는 ‘야’를 많이 쓴다. 『느이 해는 잘 크넌디



우리 해는 왜 이렇다?→느이 야는 잘 크넌디 우리 야는 왜 이렇다?/저집 차만 팔어주들 말구 우리 야두 점 팔어줘./우리 야는 응 선참은디 자네집 베는 잘 자렸구먼. 자네네 농사가 하두 선참어서 그렇지 내 야두 배랑 좋은 건 아녀.

-야겠다 ㉠ -아야겠다/-어야겠다 (구문) ㉡ '-으야겠다'. ㉢ 저것은 느이가 처야겠다.(저것은 너희가 치워야겠다.)/저 침대인 내나 자야겠다.(저 침대에는 나나 자야겠다.)/예구 피곤해. 장판 뉘서 셔야겠다.(아유 피곤해. 잠깐 누워서 쉬어야겠다.)

-야구 ㉠ -어야 하고 (구문) '-(으)야 허구'가 줄어든 말. ㉢ 년 이걸 히야구 난 저걸 히야여.(년 이것을 해야 하고 난 저것을 해야 해.)/년 살을 빼야구 난 살이 썩야여.(년 살을 빼야 하고 난 살이 썩야 해.)

야 : 그 ㉠ 이야기 ㉡ '이야그'의 준말. ㉢ 이 야근 즐대 입백이루 끄내문 안 되야이./존 야그긴 헨디 우덜찌리 가능힐름가 물르졌네.

야 : 그-꽃[-곧] ㉠ 이야기-꽃 ㉡ 재미있게 진행되는 이야기나, 이야기가 벌어진 판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애기꽃. ㉣ 자덜이 뉘 야그꽃을[야그꼬슬] 피너라 밤때두 무른다?

야 : 굿-거리[-근꺼/-극꺼-] ㉠ 이야깃-거리 ㉡ 이야기가 될 만한 재료. ㉢ 애깃거리. ㉣ 동네방네 야긱거리가 되

구 싶던 앓으른 당장 집어쳐./이 사렘야, 그게 뉘 존 야긱거리라구 나볼대구 댕기능가?

야 : 기 ㉠ 이야기 ㉡ '이야그'.

야매(夜賣) ㉠ ㉡ 불법적으로 몰래 이루어지는 거래. ㉢ 반갑두 안 되서 좋아했더니 야매라 그렇가 응 틀니가 선참어./야매루 구헌 물건인디 이겨라두 필요허다든 내 싸게 주께. ㉣(자)(타)야매-허다.

-야지¹ ㉠ -어(여)야지 ㉡(연결)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상반됨을 나타내거나, 앞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말. ㉢ -으야지. -이야지. ㉣ -으야. -야. ㉤ 연장은 살살 다루야지 그렇덜 앓으른 탈이 나능 겨./그걸 니가 허야지 내가 허졌나?/잘 먹구 키가 크야지 운동두 잘 허녕 겨.

-야지² ㉠ -어(여)야지/-야지 ㉡(종결)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①(평서형) 혼잣말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상대에게 주위를 환기시킬 때 쓰는 말. ㉢ 난 일 끝냈으닝께 폭 시야지.(다른 사람은 일을 못 끝냈지만, 나는 일을 끝냈으니까 폭 쉬어야지.)/너두 인전 추직을 히야지.(너도 이제 취직을 해야지.) ②(의문형) 상대의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으야지. -이야지. ㉣ 다덜 가넌디 너두 가야지?/인전 우덜

두 슬슬 일을 시작해야지?/니가 언니님
께 동생을 돌봐 주어야지?

아치 ㅍ 얄게 ㅁ ㅅ '얄이'가 구개음화
된 발음 형태. ㅍ 무숫구덩일 왜 이렇기
아치 파는 거?

야티 ㅍ 얄게 ㅁ ㅅ '얄이'. ㅍ 씨라굴
너머 야티 달어서니 땅이 끌리닌구면.

-왔다 ㅍ -아야겠다/-어야겠다 (구
문) '-으야(의도)+-ㅁ(미래의지)+-다(종
결)'.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
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1인칭 화자가
가까운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의지를 나
타낼 때 쓰는 말. ㅅ '-으왔다'. ㅍ 나는
집이나 가왔다(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는 집에 가야겠다). 난 빵을 사왔다(나는
빵을 사야겠다). 나는 쇠물이나 쭈왔다
(나는 소죽을 쭈야겠다)./집이 가서니 밥
이나 허왔다(집에 가서 밥이나 해야겠다).

양달 ㅍ 양지 마을 ㅁ ㅅ '양짓말'.

양달-말 : ㅍ 양지 마을 ㅁ ㅅ '양짓말'.

양식 ㅍ 양식(糧食) ㅁ 살아가는데 필
요한 먹을거리. ㅁ 식량[성냥]. ㅍ 두지에
끄니 이을 양식두 읍다맨서니 참 태평
두 허네유. 그렇기 나돌어명길 틈이 있
으면 오디 가서니 양식 점 구해 봐유.

양-아배 ㅍ 양-아버지(養-) ㅁ 양자
가 되어 모시는 아버지, 또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ㅁ 친아배. 친애미. ㅍ 그
사람은 참말루 텐 효자여(그 사람은 정말

로 태생적으로 효자야). 양아배가 그렇기
못되게 굴었넌디두 지극증성이루 모신
다닝께.

양 : 양[-냥] ㅍ 용용 ㅁ 아이들이 양
손의 엄지손가락을 양 볼에 대고 굴리
면서 상대방을 약 올릴 때 쓰는 말. ㅍ
양양 죽겼지?

양-어매 ㅍ 양-어머니(養-) ㅁ 양자
가 되어 모시는 어머니, 또는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ㅁ 친어매. 친애미. ㅍ 그
사람이 시방 피시고 사년 노인네는 친
어매가 아니라 양어매여. 그 노인네가
누가 버린 애를 업덩이루 데려다 컸으
닝께.

양중 ㅍ 나중 ㅁ ㅅ '야중'보다 쓰임
빈도가 낮다. ㅍ 너 내 말 안 듣다가닌
양중이 가심 친다어.

양-지기 ㅍ 양-재기(洋瓷器) ㅁ '양재
기'양지기(전설모음화). 안팎에 유리질의
유약을 발라 만든 자기(瓷器)란 뜻이지
만, 보통은 양은그릇이나 알루미늄그릇
을 가리킨다. ㅁ 양재기. ㅍ 다 찌그러진
양지길 뿔허러 찾넌다?/암난 그릇이 읍
어두 그렇지. 밥을 양지기다 퍼내닌 사
람이 오뎠다? /이놈이나 그놈이나, 양
재기나 양지기나 다 똑같은 놈인디 뿔
그렇기 따져싼다?

양지-똥 ㅍ 양지 마을 ㅁ ㅅ '양짓말'.

양짓-말 : [-진-] ㅍ 양지 마을 ㅁ

‘양지(陽地)+ㅅ+말(里)’. 음짓말에 대하여,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자리한 마을. ☞양지뜸. 양달. 양달말. ☞음짓말. 음지뜸. 음달. 음달말.

양: -짝 **ㅁ** 양: -쪽(兩-) **ㅇ** 둘로 갈라진 편이나, 두 방향. ♣ 양쪽 집안이다 반대허넌디 둘만 좋아허다구 혼사가 이뤄지겠어?/정일 꿩이질을 헛터니 양쪽 팔이 떨어질라구려.

얕이[-/야치] **ㅁ** 얕게 **ㅁ** ‘얕-(淺)+이(접사)→얕이’. 위에서 아래까지의 길이가 낮거나 짧게. 수준이나 정도가 낮게. ☞야티. 야치. ☞을이. 열이. 으티. 여티. ♣ 그렇기 얕이[야티/야치] 문으른 씨앗이 백이루 터나는 수가 있어./사램이 생각을 그렇기 얕이 허니께 일이 글러지는 겨.

-어¹ **ㅁ** -아/-어 **ㅁ**(연결)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①시간의 선후 관계나 일의 원인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어미. ♣ 찬물이다 밥 말어 먹으른 속 안 좋아진다./그 통나무는 짤러 뿔이 쓸라능가? ②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어미. ※충청말에서는 연결어미 ‘-아/-어’는 모음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만 선택되어 쓰인다. 단, ‘보+아→봐, 곱+아→고와/고야’처럼 두 모음이 한 모음으로 축약되거나, ‘가+아→가, 자+아→자’처럼 동음생략이 되는 경우엔 ‘-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 너헌티 대우 받아 워따 쓰겼네?/심껏 빨어 봐./이것두 잡어 봐./자

꾸 올른 호랭이가 잡어 간다.

-어² **ㅁ** -어/아 **ㅁ**(종결) 비격식의 구어체에서, 어떤 일에 대한 서술, 물음, 명령, 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충청말에서는 종결어미 ‘-아/-어’는 모음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만 선택되어 쓰인다. 단, 두 모음이 한 모음으로 축약되거나, 동음생략이 되는 경우엔 ‘-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 이 줄을 잡어. 이 줄을 잡어?/가지 말구 나랑 같이 놀어. 너랑 머허구 놀어?/누구 찾아? 아니어. 압두 안 찾아./거긴 사람덜 많어. 진짜 많어?

-어³ **ㅁ** -애 **ㅁ**(종결) ‘ㅎ’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사실의 서술을 뜻하는 종결어미. ☞-아. ※(표준어-불규칙활용)퍼렇+→어→퍼래. (충청말-규칙활용)퍼렇+→러→퍼러./누렇+→어→누러./빨ջ/빨ջ+→어→빨겨/빨겨. 꺼땡+→어→꺼며. ♣ 가 얼굴은 너머 허여./이것은 왜 이렇기 빨겨?/이 골목쟁이는 너머 쟁겨며.

어뒤-나다 **ㅁ** 어두워-지다 **ㅁ**(자) ‘어둡-(暗)+-어+나-(出)+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나오다. ☞어뒤지다. ♣ 날 어뒤나니께 대충 세농구 밥 먹으러 가자./야가 어뒤나넌디 저녁두 안 먹구 오딜 갔다?

어뒤-지다 **ㅁ** 어두워-지다 **ㅁ**(자) ‘어둡-(暗)+-어+지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나오다. ☞어뒤나다. ♣ 날두 어뒤졌넌디 뭘 일을 더허겼다는 겨?/어뒤지거 존이진 일나겼유(어두워지기 전에 저는 일어나

가야겠어요.)

언 : 내 ㉠ 어린-애 ㉡ 나이가 아주 적은 아이. ㉢ ‘어른내’의 준말. ㉣ **『언내**를 데리꾸 산일 가믄 오티기냐?/언내가 우너면, 싸게 방이 들어가 봐.

얼그름-허다 ㉠ 얼큰-하다 ㉡ ㉢ ‘얼크름허다’보다 여린말. ㉣ **『꼬치장을 잔뜩 풀어서니 얼그름허게 끓여** 봐.

얼미-지다 ㉠ 거칠다/설피다/성기다 ㉡(자) ‘얼미(希,臙)+지-(피동접사)+다 →얼미지다>얼미지다’. 성미나 행동이 성글고 거칠다. ㉣ **『저 얼미진** 늬이 또 일을 치구 있구먼./그렇기 **얼미진** 짓이나 허구 땡기년 늬을 어니 누군덜 뵈기겠남?

얼크름-허다 ㉠ 얼큰-하다 ㉡ ‘표준어화 과정: 을크름하다/얼크름하다/얼크름하다>얼큰하다’. ①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꽤 맵다. ㉢을크름하다. 얼그름허다. 얼근허다. 얼큼하다. 매크하다. 칼큼하다. ㉣ **『매운탕은 얼크름허야** 지맛인 겨, **꼬춧가루를 푹푹 퍼 부야** 칼큼혀진다당께. ②어느 정도 취하여 정신이 어렴풋하다. ㉢얼큰허다. 얼근/을근허다. 얼큼하다. ㉣ **『술이 얼크름허니** 올르닝께 추위가 행결 늬너면.

얼큼-허다 ㉠ 얼큰-하다 ㉡ ㉢ ‘얼크름허다’. ㉣ **『물괴기를 얼큼허게** 지저냈더니 그제 막걸리 안주문 그만이더면.

업딩이[-똥-] ㉠ 업등이 ㉡ ㉢ ‘업딩이’.

업딩이[-똥-] ㉠ 업등이 ㉡ ‘업-(負)+동(童)+-이→업똥이>업딩이/업똥이’. 밖에 버려지거나, 우연히 얻게 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이르는 말. ㉢업똥이. ㉣개구녕반이. ㉣ **『고아원**이서 아를 하나 데려왔넌디 **업딩이** 티 안 뉼라구 이사혔잖어. 가가 이번이 결혼허넌디 가는 시방두 지가 **업딩인** 것 물르닝께 넘덜헌턴 암말 말어.

업어-치다 ㉠ 업어 치다/메-치다 ㉡(타) 무엇을 등에 올렸다가 바닥으로 힘껏 내리치다. ㉢메치다. 메패다. 며패다. 트패다. ※무엇을 등에 업은 다음에 내리치는 구분된 동작이 아니라, ‘메치다/메패다’처럼 하나의 말로 인식되어 쓰이는 까닭에 한 단어(합성어)로 기록한다.

엇-배기 [연뻘-] ㉠ ㉡ ‘엇(謔)+배기(접사)’. 이쪽이나 저쪽의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떠있는 사람. ㉣ **『저 냥반은** 말루만 농사꾼이지 농살 짓넌 것두 아녀. 순 **엇배기**라닝께./걸치레만 멀썩허지 직장두 읍넌 저런 **엇배기**가 넌 뭐가 좋다년 저?/그런 **엇배기**덜헌티 술이나 은어먹넌 츠지라니, 너두 신세 겠구나.

에리(えり) ㉠ 옷-깃 ㉡ ㉢ ‘옥깃’.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말.

-어 ㉠ -야 ㉡(종결)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 진술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 **『흔떡은** 뭐구 가래떡은 뭐여?



쓴 것은 흔떡이구 쓸덜 얹언 것은 가래
떡이여. 그러구 가래떡두 호야렇게 흔
떡이여.

여나무 ㅍ 여남은 ㅍ 열(+)+남-
(餘)+-은→여나무/여라문(ㄹ탈락)여나무/
여라무(ㄹ탈락). 열이 좀 넘는. ㉹여라무.
※'여나문(여남은)'이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
올 때, 관형사형 어미 '은'의 끝소리 'ㄹ'이
탈락한다. ㅍ말뚝은 여나무 개문 충분철
겨./술을 여나무 통이나 받아 놓구 잔
치를 은다너면.

여나문 ㅍ 여남은 ㅍ 열(+)+남-
(餘)+-은→여나문/여라문. 열이 좀 넘는.
㉹여라문. ㅍ사람은 여나문인디 나스는
높은 하나투 읍더라구.

여니 ㅍ 여느 ㅍ 너느→여느)여니/여
니. 다른 일상의. 그 밖의 일반적인. ㅍ
그 낭반 여니 날 같으믄 발써 왔을 텐
디 뭘 일이 있네 비네./여니 때 같으믄
지가 그러지 않유./맨날 빈둥거리매 노
는 사람을 여니 지집이 좋아라 허겼유?

여 : -따 ㅍ 여기-에다가 (구문) '여기
(此所)+이다가(조사)→여기다가)여따
가'가 줄어든 말. ㉹으따. ㅍ그 드런 물
을 여따 버리믄 워터겨?/야까침 호맹일
여따 났넌디 이게 워디루 갔다?

여 : -따가 ㅍ 여기-에다가 (구문) ㅍ
'여따'. ㅍ여따가니 뭘 감춰둔 규?

여라무 ㅍ 여남은 ㅍ '여나무'의

이형태.

여라문 ㅍ 여남은 ㅍ '여나문'의
이형태.

여(:)루 ㅍ 여기로/여리로 ㅍ(구문)
'여기/여리+루→여기루/여리루'가 줄어
든 말. ㉹열루. ㅍ여루 가던 저루 가던
난 상관 안힐 겨./누가 여루 갔다구 현
겨?/그리 가덜 말구 여루 와.

여-벌 ㅍ 여-벌(餘-) ㅍ '여(餘)+벌
(衣). ('입고 남는 옷'의 뜻에서) 함께 일하
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얹잡
아 빗대어 이르는 말. ㉹허당. ㅍ그 여
벌은 워따 뉘버리지 워더러 데꾸 땡기
는 규?/그 사람은 여벌이렇게 신경 쓸
것 읍어./여벌두 여벌 나름이지, 똥다
두 못쓸 그 여벌을 왜 써줄라구 안달을
허는가?

여북 ㅍ 여북/오죽 ㅍ 정도가 매우.
얼마나. ㉹오죽. ㅍ그리 되믄 여북이나
 좋겠나?/자가 여북 고똥으믄 코까장 골
매 자갔나?

여북-허다[-부커-] ㅍ 여북-허다/오
죽-허다 ㅍ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
황이 좋지 않다. ㉹오죽허다. ㅍ행편이
여북허문 술지검지를 은어먹졌나?/너
헌티까장 잔소릴 허넌 내 속은 여북허
졌나?

여차저차-허다 ㅍ 여차여차-허다(如
此如此-) ㅍ '으차즈차허다'.

여티 ㅍ 열게 ㅁ ㅍ '을이'. ㅍ 여티 칠
혀서니 속때가 안 겠구면(연하게 칠을 해
서 속의 때가 지워지질 않았군).

역-구레[-꾸-] ㅍ 옆-구리 ㅁ '뇨/넙
(側)+구레(脛)→넙구레>옆구레(두음법칙)>
역구레(변자음화)>역구리(상승모음화)'. 가
슴과 등 사이의 부분. ㅍ역구리. ㅍ역구
레가 아퍼서니 봉원일 가서 사진을 찍
으니까 대장이 뜬이 차서 그렇다. 오른
편쪽 역구레가 못 전디게 아퍼서니 맹
장인 중 알구 난 밤새 고민했다니까.

엮으다 ㅍ 엮다 ㅁ(타) ①물건을 죽
엮어매어 묶다. ㅍ 씨라구를 엮으넌 게
뉘 심들다구 그려? ②여러 가닥의 짚이
나 끈을 이용해 어떤 물건을 만들다.
ㅍ워치기 된 게 맵방석을 다 엮으터라
넌 샷내끼 한 타렐 못 꼬는 겨? ③이야
기나 글 따위를 맞추어 짜다. ㅍ속다.
ㅍ자는 야기를 잘 엮어두 내너면.

연-거퍼 ㅍ 연-거푸(連-) ㅁ 여러 번
을 잇달아. ㅍ거퍼. 연신. 연짱. 연짱이루.
ㅍ씨름은 델 자가 읍다구 큰 소리 허더
니 연거퍼 나가떨어지더면.

연짱 ㅍ 연방(連方) ㅁ 자꾸 잇달아.
계속하여. ㅍ거퍼. 연거퍼. 연신. 연짱이
루. ㅍ그렇기 연짱 손을 내미넌디 누가
좋어라 허겠남?

연짱-이루 ㅍ 연방-으로(連方-) ㅁ
ㅍ'연짱'. ㅍ디립다 연짱이루 들이대긴

허더면 그게 될 일인감?

열 : -대[-때] ㅍ 열 : -쇠 ㅁ '솟
대'. ㅍ맘 먹구 템비넌 도독눔덜이 열대
읍다구 기냥 가남유?

염생이-뿔 ㅍ 염소-뿔 ㅁ 염소의 머
리 위에 솟아난 뿔.

염생이-띠 ㅍ 양-띠 ㅁ 양해에 태어
난 사람의 띠. ㅍ양띠. ※일반 백성들이
'염생이띠'라 쓴 것에 비해, 일부 식자들은
'양띠'라 하기도 했음. ㅍ도회지 가문 염
생이띠를 양띠라구 허구 잔내비띠를 원
생이띠라구 현다더면, 편버더야 떡이
낫다구 우덜헌턴 양띠버더야 염생이띠
가 낫지.

열심-허다[-쌈-] ㅍ 열심히 하다 ㅁ
(타) '을심/열심(熱心)+허-(접사)+-다'.
마음을 다해 힘쓰다. ㅍ을심허다. ㅍ뉘
던지 열심허넌 다 되능 겨./잘은 못 허
두 열심허넌 걸 보몬 기특허.

엮-짹 ㅍ 이-쪽 ㅁ '여(此)+짝?(隻/方)
→엮짹>여짹'. 저쪽에 마주한 가까운 곳
이나 방향. ㅍ여짹. ㅍ엮짹이서 장냥허
덜 말구 접짹이루 가서 놀거라./엮짹인
우엮허닝게 절루덜 가자./엮짹서 들구
그러닝게 접짹서두 머라 허닝 거잖여.
똑같이 대거리허덜 말구 엮짹서 좀 양
보히여.

였슈[열슈] ㅍ 엮소 ㅁ '여(此)+잇-
(有)+-유(높임보조사)'. 상대에게 무엇을



건넌 때 쓰는, ‘하오체’의 말. 『옛슈, 이거나 열릉 받으슈./누가 그런 큰 돈을 옛슈, 허구 갖다 바치겠나?/저 사람 또 옛슈, 허구 일당을 노름판이 꼬나박었군.

옛-지름[옛찌-] ㉠ 옛-기름 ㉡ ‘옛(麵)+길금(麥芽)→옛질금’옛지름’. 꺾보리를 싹을 틔운 뒤 말린 것. ㉢옛질금. 『요새 누가 옛지름을 질르구 빵구 그런다구 꺾보릴 찾유? 가냥 마트 가서 옛지름가를 사오면 되던 두.

옛지름-가루[옛찌-까-] ㉠ 옛기름-가루 ㉡ 옛기름을 땀물에 갈아 만든 가루. ㉢옛질금가루. 『감줄 허야닝께 옛지름가루 점 앞집 가서 은어와라. 그냥 설탕이루 허쥬. 아녀, 그리두 옛지름가루가 점 들어가야 맛이 난 겨.

옛지름-물[옛찌-] ㉠ 옛기름-물 ㉡ 옛기름가루를 우려낸 물. ㉢옛질금물.

옛질금-가루[옛찹-까-] ㉠ 옛기름-가루 ㉡ ‘옛지름가루’ 이전의 말.

옛질금-물[옛찹-] ㉠ 옛기름-물 ㉡ ‘옛지름물’ 이전의 말. 『이전인 옛질금물이라구덜 썼넌디 시방이야 다털 옛지름물이라구 허지.

옛-질금[옛찹-] ㉠ 옛-기름 ㉡ ‘옛지름’ 이전의 말. 『허는 황홀했다/옛질금의 달콤함에/유년의 미각이 녹아 버렸다(주영길, ‘옛제이’).

영: ㉠ 이영 ㉡ ‘이영→영:’영:’. 초가지붕이나 돌담을 일 때 쓰는, 벗짚으로 엮은 물건. ㉢영:’. ㉣나래. 『독담불이 일 영은 양쪽이루 매야 쓰능 겨./영 엮기 구찮어서 올힌 지붕 안 해일기루 헛어.

열이 ㉠ 열게 ㉡ ‘을이’. 『고랑을 너머 열이 파서 물이 잘 안 빠지게 생겼어.

옆-눈[염-] ㉠ 곁-눈 ㉡ ‘절눈’.

옆눈-질[염-] ㉠ 곁눈-질 ㉡ ‘절눈질’. 『그 간신곁은 눈이 자꾸 옆눈질루 츠다보넌디 기분이 얼마나 나쁘야지.

옆-구레[엮꾸-] ㉠ 옆-구리 ㉡ ‘역구레’. 『그눔이 냅다 옆구레를 쥐박넌 통이 숨막혀 죽던 중 알었구면.

예겨-보다 ㉠ 여겨-보다 ㉡ 관심을 두고 요모조모를 살펴보다. ㉢으겨보다. 여겨보다. ㉣눈으겨보다. 눈에겨보다. 『메누리감이라구 히서 옆이서 예겨봤넌디 인물두 그만허구 큰 흠은 못 찾았더면.

예기다 ㉠ 여기다 ㉡(자) ‘네기다→네기다?’예기다.’ 마음속으로 무엇이 어떠어떠하다고 생각하다. ㉢으기다. 『일 못허던 사람이루 예기구 느덜은 아예 제쳐논 겨./지가 돈 점 있다구 우덜은 사람같이 예기두 않넌다니께.

오가 ㉠ 외가(外家) ㉡ ‘오이갓집’. 『가는 오할매가 아프다구 오가일 갔어.

오갓-집[-갓찹] ㉠ 외갓-집(外家-)

○ **○** ‘오이갓집’. **○** 울엄니 고향이 금상도잖어. 그리서 난 오갓집을 자주 못 댕겼지.

○ **○** 오고러-들다 **○** 오고라-들다 **○**(자) 물체가 안쪽으로 주름이 지면서 쪼그라 들어간다. **○**오고러들다. (큰말)우구러들다. **○** 나팔꽃이 한낮이 되닝께 다 오고러들었구면.

○ **○** 오고러-뜨리다 **○** 오고라-뜨리다 **○**(타) **○** ‘오고러떠리다’. **○** 왜 멀쩡한 것을 오고러떠리는가?

○ **○** 오고러-띠리다 **○** 오고라-뜨리다 **○**(타) 물체를 안쪽으로 쭈그러 작아지게 하다. (큰말)우구러띠리다.

○ **○** 오고러-지다 **○** 오고라지다 **○**(자) 물체가 안쪽으로 주름이 지면서 쪼그라 지다. (큰말)우구러지다. **○** 재는 왜 또 오고러져 구석쟁이 처백혀 있능 겨?

○ **○** 오고러-트리다 **○** 오고라-뜨리다 **○**(타) **○** ‘오고러떠리다’.

○ **○** 오고러-티리다 **○** 오고라-뜨리다 **○**(타) **○** ‘오고러떠리다’. **○** 성헌 냄빌 왜 오고러티리능 규?

○ **○** 오고리다 **○** 오고리다 **○**(타) 몸을 작게 움츠리거나, 물체를 안쪽으로 쭈그러 작아지게 하다. **○**오고리다. (큰말)우구리다. 우구리다. **○** 야가 넘어 집이 온 것두 아닌디 왜 이렇기 오고리구 잔다?

○ **○** 오골-거리다 **○** 오골-거리다 **○**(자)

좁은 곳에 벌레나 작은 것들이 떼로 모여 움직이다. (큰말)우골거리다. **○** 뒷간이 구디기덜이 오골거리넌디 이를 오쩨다? 오쩌긴, 담배잎새기 하나 따다 톱독이 느냐. 그럼 구디기덜 싹 죽을 겨.

○ **○** 오골다 **○** 오고라-지다 **○**(자) **○** ‘오고러지다’. **○** 그 냄비가 오골긴 헛어 두 냄버리긴 아깁잖유.

○ **○** 오골-오골¹ **○** 오골-오골 **○** 일정 공간에 벌레나 사람 따위가 떼로 모여 움직이는 모양. **○**오골오골. (큰말)우골우골. **○**(자) 오골오골-허다. **○** 괴길 잡넌 다구 톱병을 품었더니 잔챙이덜만 오골 오골허더면.

○ **○** 오골-오골² **○** 오골-오골 **○** 여러 곳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쭈그러져 주름이 접힌 모양. **○**오골오골. (큰말)우골우골. **○**(자) 오골오골-허다. **○** 이렇기 오골 오골 쭈그러진 옷을 오티기 입으라구 내는 겨?

○ **○** 오골-오골³ **○** 오골-오골 **○** 그릇 속의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오골오골. (큰말)우골우골. **○** 물을 껌끔만 놓구 오골오골 끓으믄 내려놔.

○ **○** 오골-쪼골 **○** 오골-쪼골 **○** 여기저기가 안쪽으로 쪼그러져 작게 주름진 모양. (큰말)우골쪼골. **○**오골쪼골. **○** 옷이 오골쪼골 주름이 가서니 다덤이질을 히두 퍼지덜 않네. **○** 오골쪼골-허다.

○ **○** 오곰 **○** 오곰 **○** **○** ‘오곰다리’. **○** 그



냥반을 보니까 잘못두 읊넌디 오곰이
저리구 막 떨리더먼.

오곰-다리 ㉸ 오곰 ㉸ ‘오곰(脚)+다리
(脚)’. 무릎 관절의 안쪽, 허벅지와 종아
리 사이의 오목한 부분. ㉸오곰. 오곰패
기. 오곰팽이. ※‘오곰다리’와 ‘오곰’: 충청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와 관련해서는
‘오곰다리’라 쓰지만, 비유어나 관공구에서
는 ‘오곰’도 많이 쓴다. 예)오곰다릴 걸다.→
오곰을 걸다/오곰다릴 박다.→오곰을 박다./
오곰다리아, 날 살려라.→오곰아, 날 살려
라./오곰다릴 못 추다(퍼다).→오곰을 못 추
다(퍼다). ㉸그렇기 불흔허게 안졌지(앉
아 있지) 말구 오곰다리 점 쪽 피구 앉
어./워째 오곰다릴 절구 있다?

오곰-패기 ㉸ 오곰 ㉸ ‘오곰다리’
를 훌하게 이르는 말. ㉸한 나절 쭈구
리구 담배를 엮었더니 오곰패기가 저리
구 퍼지덜 없네.

오곰-팽이 ㉸ 오곰 ㉸ ‘오곰다리’
를 훌하게 이르는 말. ㉸야, 오곰팽이
점 오므려. 오디다가 씻두 얇은 드린
발을 뵈대는 거?

오글다 ㉸ 오그라-지다 ㉸(자) ㉸
‘오고러지다’. ㉸바싹 오글은 게 누가
밟은 모냥이여.

오로로 ㉸ 오르르 ㉸ 조그만 동물이
나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거나,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모양. ㉸우루루. ㉸잎
새기에 버리지덜이 오로로 붙어있넌디

징그러서 혼났어.

오모리다 ㉸ 오므리다 ㉸ 입이나 몸,
입구 따위를 조그려 작게 만들거나, 안
으로 한테 모으다. (큰말)우무리다. ㉸입
을 오모리지 말구 딱 벌려./손이 뭐가
들었간 오모리구 퍼들 앉았다?

오이가 ㉸ 외가(外家) ㉸ ‘오이갓
집’. ㉸그 사람 오이가가 합덕이랬지?

오이갓-집[-갓집-] ㉸ 외갓-집(外家
-) ㉸ 어머니의 친정집. ㉸오이가. 오가.
오갓집. ㉸오이갓집이 한 동네님께 애덜
이 맨날 거가 살어.

오 : -당숙모 ㉸ 외-당숙모(外堂叔母)
㉸ ‘오이(外)+당숙모(堂叔母)→오당숙모’.
어머니의 사촌 남자 형제의 아내.

오돌-도돌 ㉸ 오톨-도톨 ㉸ 사물의
면이 여기저기 울룩불룩하게 부푼 모양
이나, 그러한 느낌. ㉸오돌도돌-허다.
㉸이 탱자는 오돌도돌헌 게 오진 재끄
만 굴차람 생겼다이?/오돌낭굴 근대렸
더니 팔뚝이 오돌도돌허니 물집이 잔뜩
돋았어.

오라다 ㉸ 오래다 ㉸ 지나간 동안이
길다. ㉸아가 집 떠난 지 오라디 통 소
식이 읊네. 너머 걱정허덜 말어. 오라
지 앉어서니 존 소식이 올 거구먼./느
덜이 얼굴 맞댄 지두 꽤 오라지?

오라-잡다 ㉸ 오래지 않다 ㉸ ‘오라-
(久)+-지+아니(不)+하-(爲)+-다→오라지

않다>오라잡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아니하다. ♣ 이 일은 **오라잡어서** 끝날 거니께 조금만 지둘러. 장관 나갔더니 온다구 했이닝께 **오라잡어** 돌아올 거.

오르막-질[-질] ㉠ 오르막-길 ㉡ 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비탈진 길. ㉠내리막질. ♣ 여서버텀 **오르막** 질이니까 점 췌다 가자. ②약했던 기세가 높아지는 단계를 빗대어 이르는 말.

오매¹ ㉠ 어머/어마 ㉡ 예기치 못한 일로 놀라거나 당황하여 내는 소리. ㉢ 오매나. 어매나. ♣ **오매?** 넌 갑자기 오디서 터나온 겨?/오매? 나점 봐. 렌지 위다 냄비를 올려논 걸 깜빡혔네.

오 : 매² ㉠ 어머/우와 ㉡ 놀라 크게 감탄하거나,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는 말. ㉢오매. 워매. 워미. ♣ **오매**, 배같이 바람 부넌 것점 봐우./오매, 오편대우? 우리 비닐하우스 다 날라가뻘졌우./오매, 뭇 비가 이렇기 쏟아진다?

오매나 ㉠ 어머니나 ㉡ ≒ '오매'. ♣ **오매나?** 넌 일 안 나가구 연태 뒗허구 있었던 겨?

오박-고사리[-꼬-] ㉠ ㉡ '오박(食實)+ 고사리(藟)'. 잎줄기가 굵고 탐스런 고사리. ㉢새발고사리. ♣즈 산지장날(山祭堂稜線)을 지나닝께 **오박고사리**덜이 참 많드라구. 고사리밭을 지나맨서 그늘낭 무 밑이루 **오박고사리**가 촌지더라닝께.

오박-지다[-찌-] ㉠ ㉡(자) '오박(食

實)+지-(原狀態)+-다.' 식물의 잎줄기나 열매 따위가 실하거나 탐스럽다. ♣ 이렇기 **오박진** 고사릴 오서 꺾었다?/팁밭이 기꾼 시근치가 참 **오박지구면**,/앵두가 참 **오박지게두** 매달렸구면. ※'오박지다'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방언에 '오방지다'가 있다. 이를 국어사전에서는 '옹골지다'라고 풀이하는데 이는 바르지 않다. '옹골지다'는 충청지방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두 말의 뜻과 쓰임이 달라 구분하여 쓰인다. 말의 형태도 전혀 다르므로 동일한 말이 될 수 없다. ♣재는 참 **옹골지게두** 생겼구면.(○)→재는 참 **오박지게두** 생겼구면.(X)

오상 ㉠ 외 : 상 ㉡ 값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일. ♣도맷집허구 **오상**을 뒗더니 물건 달이기가 점 췌혀졌어. 근디 **오상** 너머 좋아허덜 말어. 그게 다 빗이라닝께. ㉢(자) 오상-허다.

오상-값[-값] ㉠ 외 : 상-값 ㉡ 외상으로 거래하여 나중에 받거나 줘야 할 돈. ♣**오상값**이[오상까비] 올라 되두 앓더면 왜 갚덜 앓구 욱을 먹는 겨?

오상-질 ㉠ 외 : 상-질 ㉡ ≒ '오상'을 낫잡아 이르는 말. ♣아니 돈두 못 버넌 늬이 **오상질**이나 허문 워편다? 돈을 못 버니께 **오상질**이지 돈 잘 불넌 **오상질**을 허졌는가?

오손 ㉠ 외 : 손(外孫) ㉡ 딸이 낳은 자식.

오-손녀 ㉠ 외 : -손녀(外孫女) ㉡ 딸이 낳은 딸. ♣그 냥반은 친손녀버덜

오손넬 더 강군다니께. 원체 딸을 이빠
했이니께 오손녀까장 이쁜개 비지.

오-손자 ㅍ 외 : -손자(外孫子) ㅍ 딸
이 낳은 아들. ㅍ 다 같은 손자인디 오
손자라구 달브졌남? 그렇긴 현디 난 외
손잘 자주 보털 얹으니께 암만히두 친
손자버딤은 못혀.

오-손주 ㅍ 외 : -손(外孫) ㅍ 외손자
와 외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오-숙 ㅍ 외 : -숙(外叔) ㅍ 어머니의
남자 형제. ㅍ 오삼촌.

오실-오실 ㅍ 오슬오슬 ㅍ 무섭거나
추운 기운으로 몸이 자꾸 움츠러드는
모양. (큰)오실오실하다. ㅍ 옷을 껴입었
넌디두 오실오실 춘 거 보냐께 암만히
두 내가 고틈 든 모냐이여. ㅍ 오실오
실-하다.

오 : -야털 ㅍ 외-아들 ㅍ '표준어화 과
정: 오이(唯-)→야털(子)→오야털(축약)→
야털/외야털/외야들>외야털'. 다른 자식
없이 하나뿐인 아들. 또는 다른 남자
동기가 없는 아들. ㅍ 오야들. 외야털. 외
야들. ㅍ 저 근넛집 오넵(五男)이가 오야
털이여. 위[우에]루다 지집애만 느인디
애가 들자마자 오넵이라구 이름을 쳐놓
고 고사를 지냈지. 그 뒤로 더 못 낳으
닝께 가가 오야털이 되구 말은 겨.

오 : -야들 ㅍ 외-아들 ㅍ '오야털'.

오여-안지다 ㅍ 외어-앓다 ㅍ '오여

(歪/左)+안지다(坐)'. 상대를 마주하지 않
고 등져 돌아왔다. ㅍ 사람을 불러놓고
왜 오여안진 겨?/그렇기 오여안지 말
구 바로 안져라.

오이-곁 ㅍ 외-곁 ㅍ '표준어화 과정:
오이곁>오이곁/외곁>외곁'. 포개지지 않
은 하나의 켜. ㅍ 오이곁. ㅍ 오이곁 적삼
은 속이 비쳐서니 입구 땡기기인 못혀.

오이-고집 ㅍ 외-고집(-固執) ㅍ '오
'고집'.

오-고집 ㅍ 외-고집(-固執) ㅍ 용통
성 없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성질.
ㅍ 오이고집. ㅍ 저렇게 오고집만 피넌디
누가 좋아허졌남?

오고집-쟁이[-쟁-] ㅍ 외고집-쟁이
ㅍ 용통성 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ㅍ 넵이 말은 귀듯으루두 들털 않
넌 오고집쟁인디 사람털이 상대나 허간?

오이-글 ㅍ 외-곁 ㅍ '오이곁'.

오즘 ㅍ 오즘 ㅍ 몸속의 노폐물로, 신
장에서 만들어져 방광을 거쳐 몸 밖으
로 배출되는 액체. ㅍ 일 바빠 죽겼넌디
왜 이렇기 오즘이 매렵다? 일허기 싫으
믄 일허기 싫다구 혀. 왜 죄윳넌 오즘
은 핏게 대구 그려.

오즘-독[-뚝] ㅍ 오즘-독 ㅍ 오즘을
모아두는 항아리. ㅍ 워편 얼미진 늬이
오즘독을 깨쳐냈다? 비가 와서니 오즘
독이 늬치넌디 오티기 점 해 봐유.

오즘-똥 ㅍ 오즘-똥 ㅊ 오즘과 똥.
 ㉮똥오즘. ㉮**속똥오즘** 묵 개리다.→
즘똥 묵 개리다(주변 상황을 분별하지 못
 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다).

오즘-발[-빨] ㅍ 오즘-발 ㅊ 내뺀는
 오즘의 줄기. ㉮술 먹었으면 곱게 집이
 나 가지, 왜 찌린내 나게 녀의 집 담배
 락이다 **오즘발**을 세냐구.

오즘-싸개 ㅍ 오즘-싸개 ㅊ 오즘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오즘싸개**현턴
 감꼭질 쌀머 백이른 좋다던디. 그계 아
 니구, 병원(病院)일 가닝께 콩팥이 안
 좋아서 그렇대유.

오즘-장군[-짱-] ㅍ 오즘-장군 ㅊ
 오즘독에 모이놓은 오즘을 담아, 논밭
 에 나르는 통. ㉮**오즘장군**을 지구 가다
 가니 밧둑이 자빠져서 오즘이루 먹을
 감었어.

오중어 ㅍ 오징어 ㅊ<동물> '오중어'오
 중어. 식용하는, 오징엇과에 속한 연체
 동물. ㉮오중어. 쓰르메/쓰리메(X). ㉮그
 냥반, **오중어** 축제라나 뉘라나, 울릉도
 까장 **오중어** 먹으러 갔유, 글씨.

오중어 ㅍ 오징어 ㅊ '오중어'.

오지-그룩[-/-고-] ㅍ 오지-그릇 ㅊ
 붉은 진흙으로 구워 만들고, 오깃물을
 입혀 다시 구운 질그릇. ㉮**오지그룩**은
 이전이야 흔했지면 시방이야 많이 쓰남?

옥-깃[-깁] ㅍ 옷-깃 ㅊ '옷(衣服)+깃

(襟)→**옷깃**옥깃(번자음화). 저고리나 양
 복의 목둘레에 둘러댄 부분. ㉮에리(え
 り), 카라(collar). ㉮바람이 차닝께 **옥깃**
 을 여미구 멍겨라./**옥깃**을 너머 세른 동
 정이 터나서 뵈기 싫은 겨.

옴데-옴데 ㅍ 옴기-종기 ㅊ 사물이나
 사람이 무리지어 몸을 붙이고 모여 있
 는 모양. ㉮우리 아가 즘슨 때가 녀었
 닌디 오딜 갔다? 저더러집 안마당이 **옴**
데옴데 모여서니 놀구 있던디유./뉘장
 독이 파리가 들어가서니 떼를 깔겼나
 봐유. 구디기덜이 **옴데옴데** 꼬물거러매
 원통 진을 치구 있유.

옴목 ㅍ 오목 ㅊ 물체의 가운데 부분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간 모양. ㉮옴목.
 ㉮저 새닥은 애헌티 왜 분유를 뵈인다?
 이, 젓이 구수젓이라. 젓꼭지가 **옴목** 들
 여가 있어서 애가 빨들 못한다너면.

옴목-허다 ㅍ 오목-하다 ㅊ 물체의
 가운데 부분이 안으로 깊이 들어간 듯
 하다. ㉮옴목허다. ㉮그룩이 **옴목허니** 참
 이쁘구면./그렇기 넓게 파덜 말구 **옴목**
 허게 파야 히어.

옷-채림[올-] ㅍ 옷-채림 ㅊ 옷을 갖
 춰 입은 모양새. ㉮옷차림. ㉮**옷채림**을
 보믄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언가 배. **옷**
채림이 새뜩허구 화장이 진허문 살림은
 못힐 으잔 겨./밤낫 밧고랑이 주잖어
 호맹이질이나 허넌 지같은 것이 **옷채림**
 이 신경쓸 새가 오닷겼유?



지 아남?

왕겨-오다 ㅍ ㄹ겨-오다 ㅍ(자) 무엇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오다. ㅍ이 남구는 산이서 **왕겨온** 겨여. ㅍ(타) 무엇을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오다. ㅍ그걸 **왕겨오너**라구 근력 점 썼겼구먼.

왕 : 기다 ㅍ ㄹ기다 ㅍ(타) '변화과정: 옮기다> 옮기다>왕기다(변자음화)>웅기다'. 무엇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다. ㅍ웅기다. ㅍ즈번이 우리 집 장광 **왕기다가**니 깨쳐먹은 장독이 한돌이 아니여. 그러닝께 장광 **왕긴다**년 소린 나헌티 허덜 말어.

요 : -따 ㅍ ㄹ기-에다가 (구문) '요기(此所)+이다가(조사)→요기다가'요파가'가 줄어든 말. ㅍ**요따** 농구 갈 테닝께 그런 중 아슈./돌 디가 **웁**어서니 **요따** 논 겨?

요 : 따-가 ㅍ ㄹ기-에다가 (구문) ㅍ'요따'. ㅍ**요따**가니 누가 씨래길 버렸다?

요-퍼대 ㅍ ㄹ-포대기 ㅍ ㅍ'요퍼대기'의 줄임말로 '원말'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ㅍ방이 찬디 이 **요퍼대**라두 깔광어라.

요-퍼대기 ㅍ ㄹ-포대기 ㅍ ㅍ 덮을 수도 있고 까는 것으로도 쓸 수 있는 포대기. ㅍ**요퍼대**. ㅍ옆이다 이불 두구 왜

요퍼대길 둘루구 잔다?

웁-짝 ㅍ ㄹ-쪽 ㅍ '요(此近)+짝(隻/方)→웁짝'요짝'. 조쪽에 마주한 가까운 곳. ㅍ**요짝**. ㅍ**웁짝**이 먼 문제라능 겨? **웁짝**인 멀쩡허닝께 그쪽을 다시 살펴봐.

우 ㅍ 위 ㅍ '웅→우'. ㅍ'우이'의 이형태. *'위'가 '우'로 발현되는 조건 ①뒤에 복합어를 이루는 형태소가 올 경우 '우'와 '위[우이]'가 함께 쓰임. ㅍ**웃더깁**이/우이더깁이. 웃더깁/우이더깁. 웃목/우잇목. 웃사람/우잇사람. 웃웃/우잇웃. 웃입설/우잇입설. 웃집/우잇집. 웃차/우잇차. 웃편짝/우잇편짝. 웃퐁/우잇퐁 따위. ②뒤에 'ㅣ'모음이 올 경우 동음생략. ㅍ**우인**(偉人,爲人). **우인**즌(偉人傳). **우이**(위+이). **우여**다(爲+허다→우허다)우여다 따위.

우구러-들다 ㅍ ㄹ그러-들다 ㅍ(자) 물체가 안쪽으로 주름이 지면서 쪼그라들어간다. ㅍ**우그러**들다. (작은말)오그러들다. ㅍ쓰두 못허게 **우구러**든 걸 왜 부진부진 필라구 그런다?

우구러-뜨리다 ㅍ ㄹ그러-뜨리다 ㅍ(타) ㅍ'우구러떠리다'.

우구러-띠리다 ㅍ ㄹ그러-뜨리다 ㅍ(타) 물체를 안쪽으로 쪼그려 작아지게 하다. (작은말)오그러띠리다. ㅍ애 장낭감을 손뽀준다더니 **우구러**떠려서 더 못쓰게 멩길어 낫구먼.

우구러-지다 ㅍ ㄹ그러지다 ㅍ(자) 물체가 안쪽으로 주름이 지면서 쪼그라



지다. (작은말)오고려지다. ㉠자가 양은그
 릫을 밟아서니 피두 못허게 **우구러졌유**.

우구러-트리다 ㉠ 우그러-뜨리다 ㉡
 (타) ㉢ ‘우구러떠리다’.

우구러-티리다 ㉠ 우그러-뜨리다 ㉡
 (타) ㉢ ‘우구러떠리다’.

우구리다 ㉠ 오그리다 ㉡(타) 몸을
 작게 움츠리거나, 물체를 안쪽으로 쭈
 그려 작아지게 하다. (작은말)오고리다. ㉠
 그렇기 쌍판때기를 **우구리구** 노려보든
 워쩔 건디?

우굴-거리다 ㉠ 우글-거리다 ㉡(자)
 일정 공간에 별레나 작은 것들이 때로
 모여 움직이다. (작은말)오골거리다. ㉠
 장거리에 사람덜은 **우굴거리**던디 사년
 사람은 읍구 맨 장삿꾼뿐이랑께.

우굴다 ㉠ 우그러-지다 ㉡(자) ㉢ ‘우
 구러지다’. ㉠이 물건은 너머 **우글어서**
 쓰덜 못 허겠네.

우글다 ㉠ 우그러-지다 ㉡(자) ㉢ ‘우
 구러지다’. ㉠ **우근** 바께쓰는 오따 쓸라능
 겨?

우굴-우굴¹ ㉠ 우글-우글 ㉡ 좁은 곳
 에 별레나 사람 따위가 때로 모여 움직
 이는 모양. ㉢우굴우굴. (작은말)오골오골.
 ㉡(자) **우굴우굴-허다**. ㉠저 밥집인
 사람덜이 **우굴우굴허**더면 이집인 왜 이
 령게 한가허다?

우굴-우굴² ㉠ 우글-우글 ㉡ 여러 곳

이 안쪽으로 우뚝하게 쭈그러져 주름이
 접힌 모양. ㉢우굴우굴. ㉣우굴쭈굴. (작
 은말)오골오골. ㉠세타(스웨터)가 왜 **우굴
 우굴** 울은 겨? 애가 몰르구 따신 몰루
 빨아서 그류. ㉡(자) **우굴우굴-허다**.

우굴-쭈굴 ㉠ 우글-쭈글 ㉡ 여기저기
 가 안쪽으로 쭈그러져 크게 주름진 모
 양. (작은말)오골쭈골. ㉢우굴우굴. ㉠ **우
 굴쭈굴** 찌그리진 것을 왜 버리지 않는
 겨? ㉡ **우굴쭈굴-허다**.

우루루 ㉠ 우르르 ㉡ ①사람이나 동
 물 따위가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모양.
 ㉢오로로. ㉠사람덜이 **우루루** 몰려가던
 디 뭇 기경거리 생겼남? ②쌓아놓은 물
 건이 무너져 내리는 모양이나, 그 소리.
 ㉠담배락이 **우루루** 무너지던디 캄싹했
 으믄 다칠 뻔했어. ③폭포수나 우렛소리.

우이 ㉠ 위 ㉡ ‘웅→우/우이’. 어느 기
 준보다 높거나 앞선 위치. ㉢우. ※‘위
 라고 쓰되, 이중모음 [우이]로 발음한다. 예
 전으로 갈수록 ‘우’의 쓰임이 많고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위[우이]’가 많아지는데, 이
 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로 예측된
 다. ㉠즈기 **웃편짜[웁편짜]**이루 올라가
 봐. (예전)→저기 **위편짜[우이편짜]**이루
 올라가 봐./저기 **위편[우이편]**으루 올라
 가봐. (현재) // 저놈이 **웃사람[웁싸람]**두
 못 알아 보더면. (예전)→저놈이 **위사람
 [우인싸람]**두 알아보지 못 허더면. (현재)

우이-차 ㉠ 위의 것 ㉡ ‘우이(上)+차
 (者)’. ㉢ ‘**웃차**’. ㉠ **우이차**는 성허니께

놔두고 아래차만 내다버려라. **우이차**도 성허덜 앓은 것 같은디? **우이차**는 걸껌 대만 벳겨내든 되닝께 넌 허라년 대루만 히여.

우허다[-여-] ㉠ 위-하다(爲-) ㉡ (타) '위-(爲)+허-(접사)+-다→위허다>우허다(모음동화)'. ①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다. ②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잘 되게 하다. ㉠ 다 자네를 **우혀여** 허년 말이닝께 고깝게 든던 말이어./넌을 **우혀년** 허년 일이 오디 말차람 쉬운 일인갑?

울긋-불긋[-긴-빨긴] ㉠ 울긋-불긋 ㉡ ㉢ 불그스름한 여러 빛깔들이 섞여 어우러져 있는 모양. ㉣불긋불긋. ㉤ 울긋불긋-허다. ㉠ 췌기헌티 췌 디가 **울긋불긋**허게 터나서 근다리문 무지 따깝네./웃이 **울긋불긋**허니 너머 새뜩허구먼.

울멍-울멍 ㉠ 울멍-울멍 ㉡ 울상이 되어, 금방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모양. ㉢울멍울멍. ㉠ 자는 백허문 **울멍울멍** 눈물을 짜년 통이 내가 암말두 못헌 다닝께.

울멍울멍-허다 ㉠ 울멍울멍-허다 ㉡ (자) 곧 울음이 터뜨릴 듯한 모습을 하다. ㉢울멍울멍허다. ㉠ 지 아부지헌티 야단 점 맞엇다구 서운히서 **울멍울멍**허구 있는 규.

울멍-이다 ㉠ 울멍-이다 ㉡(자) 울상이 되어 울음을 터뜨릴 듯하다. ㉢울멍이다. ㉠ 그렇기 **울멍**이지만 말구 속 선

히 말을 점 히 봐.

움묵 ㉠ 우묵 ㉡ ㉢ '움묵'의 큰말. ㉠ 그 낭반 눈이 계심치레허구 **움묵** 들어간 게 꼭 병자(病者)갓더면.

움묵-허다 ㉠ 우묵-하다 ㉡ ㉢ '움묵허다'의 큰말. ㉠ 마당 갖이 **움묵**허게 패엿던디 왜 그렇다?

움적 ㉠ 움적 ㉡ 뒤에 오는 부정어와 호응하여, 몸의 어느 부분을 크게 움직이는 모양. (센말)움적. ㉠ 독덩이가 월매나 큰 지 밀어두 **움적**두 앓더라구.

움적-거리다[-꺼-] ㉠ 움적-거리다 ㉡(자)(타) 몸이나 몸의 어느 부분을 크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움적이다. 움적대다. ㉠ 구석쟁이서 뭇 그릉기 입을 **움적거리**매 먹녕 겨?/사람덜이 다 츠다보구 있으닝께 **움적거리**덜 말구 가만 점 있어.

움적-대다[-때-] ㉠ 움적-대다 ㉡ ㉢ '움적거리다'.

움적-움적 ㉠ 움적-움적 ㉡ ①음식을 넣고 입을 크게 우물거리는 모양. ㉠ 아까침버터 **움적움적** 뭇 그렇기 먹구 앓다? ②몸이나 몸의 어느 부분을 자꾸 크게 움직이는 모양. (큰말)움적움적. ㉠ 그 늙은이 **움적움적** 문백이 들어맹기기는 허더면 시상 오라 버티던 못헐 것 같어. ㉡(자/타) **움적움적-허다**. ㉠ 그 사람은 벨종이여. 글씨 그 큰 떡을 입



이다 능구 **움적움적**허더니 대번이 꿀떡 생겨버리더라구./좁 전이 증신이 나서 니 입을 **움적움적**허긴 허넌디 뭘 말인지 통 못 알아들었유./**움적움적**허넌 걸 보닝께 지등뿌리기가 다 썩은 모양이여.

움적-이다 ㅍ 움적-거리다 ㄷ '움적(動作/擬態)+-이(접사)+-다'. ㅁ '움적거리다'. ㅍ 아프다구 뉘만 있덜 말구 **움적**여 문백이라두 나가봐./몸이 천근이지면 워터진다? 심들어두 먹구 살라믄 **움적**여서니 일 나가야지./해가 스산이 걸렸이니 싸게싸게 **움적**여야 혀.

웃 : -말 : [운 : -] ㅍ 웃-마을 ㅁ '우이/위(上)+ㅅ+말(里)→우잇말/웃말'. 아랫마을에 대하여, 위쪽에 자리한 마을. ㅁ 상리(上里). ㅁ 아랫말. 하리(下里). ㅍ **웃말** 이는 왜 간 겨? 뭘 일 냇대남?

웃-입설 [운닙셀] ㅍ 웃-입술 ㅁ 입의 위쪽에 있는 입술. ㅁ 웃입설. 우잇입설. ㅁ 아랫입설. ㅍ **웃입설**은 왜 깨진 겨? 누구랑 씹허다가 쥐터진 겨?

웃-차[운-] ㅍ ㅁ '우이(上)+ㅅ+차(者)→우잇차)웃차'. 차곡차곡 쌓여있는 물건들 가운데 위에 있는 것. ㅁ 웃차. ㅁ 아랫차. ㅍ 오째 과실이 **웃차**는 크더랑구 좋은디 속차는 왜 모냐이루 작구 호실하다.

워나기 ㅍ 워낙 ㅁ '원(原/元)+-악(접사)+이(부사격조사)→워낙이/워나기)워내기(전설모음화)'. ① 생겨난 처음부터. ㅍ

태날 때버텀 **워나기** 우악시리 생겨논께 넘덜이 다 꺼류(꺼려요). ② 몹시 두드러지게. ㅁ 워낙. 워나기. 워내기. ㅁ 원체. 원판. ㅍ **워나기** 급작스럽게 일이 터져논께 누구랑 으는(議論)헐 틈두 읊었유.

워낙-이 ㅍ 워낙 ㅁ ㅁ '워나기'.

워내기 ㅍ 워낙 ㅁ ㅁ '워나기'가 전설모음화 형태. ㅍ 그 사람이 **워내기** 승허게 허구 땡기닝께 이우시간이두 뜨문 뜨문헌다.

워느 ㅍ 어느 ㅁ ① 의문문에서, 여럿 가운데 대상이 되는, 또는 막연한 수량이나 정도의. ㅍ **워느** 색깔을 좋아허능가?/**워느** 정도나 필요헌 겨? ② 평서문에서, 불명확한 대상이나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대상의. ㅁ 워니. ㅍ **워느** 날이던 난 상관읏응께 암계나 날이나 잡어./니 갖구 싶은 것 있으믄 말혀. **워느** 것이던 내가 다 사주께.

워느-새 ㅍ 어느-새 ㅁ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ㅁ 워니새. ㅍ **워느새** 날이 어뵈졌구면./자넨 안 늙을 것 같더니, **워느새** 머리에 허연 꽃이 퍼났구면.

워니 ㅍ 어느 ㅁ ㅁ '워느'. ㅍ 자네 생일이 **워니** 적어랬지?/그 사람을 워니 날 만나기루 헌 겨?

워니-새 ㅍ 어느-새 ㅁ ㅁ '워느새'. ㅍ 장관 잠이 든 것 같은디 **워니새** 날이

쌌구면.

원 : 미 ㅍ 어머/우와 ㅁ '오매'.
 ㅍ 위미, 가헌티 그런 일이 있었구면.

원-가쟁이 ㅍ 원-가지(原-) ㅁ '원가쟁이'. ㅍ 원가쟁인 왜 근다려서 낭구를 못 쓰게 망길었다니?

원-가징이 ㅍ 원-가지(原-) ㅁ 원줄기에서 벌어 나온 굵은 가지. 또는 중심이 되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 ㅁ 원가쟁이. ㅍ 원가징인 냅두고 옆이루 난가징이만 쳐내더락 혀./원가징이를 뽑어내야지 잔가징이만 잡어덜이른 빛 현다?

원궁 ㅍ 원경(遠景) ㅁ 멀리 보이는 풍경, 또는 멀리서 바라다보는 풍경. ㅁ 근궁(近景). ㅍ 원궁은 그럴 듯헌디 가차이 가문 벨 것 읍어.

웬-만침 ㅍ 웬-만치 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또는 보통은 넘은 정도로. ㅁ 웬만치. 웬만큼. 웬만큼. ㅍ 웬만침 헛으닝께 점 섰다 혀지./큰소리 두 웬만침 헛구면, 인전 그만 혀.

원-뿌리기 ㅍ 원-뿌리(原/元-) ㅁ '원뿌리기'

원-뿌리기 ㅍ 원-뿌리(原/元-) ㅁ <식물> 식물의 주축이 되는 뿌리. ㅁ 고동뿌리기. ㅍ 원뿌리기를 잘르문 안 되닝께 절뿌리기만 끊어내더락 혀.

원-지등¹ ㅍ 원-기등(圓-) ㅁ <수학> 둥글게 이루어진 곡면체.

원-지등² ㅍ 원-기등(原-) ㅁ <건축>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곳에 세운 기둥. ㅍ 원지등만 냉기구 다 뜯어고치너라 돈을 무지 덜였다너면. 그럴 거문 새로 짓지 원지등은 머더라 냉겼다?/원지등은 근대리지 말구 그 주쁜(周邊)이만 손을 봐.

윷 : -입설 [우인납설] ㅍ 윷-입술 ㅁ '웃입설'의 원말.

-유¹ ㅍ -아요/-어요 ㅁ(종결) '-어(종결어미)+요(높임보조사)→-어유'가 줄어든 말. 설명, 의문, 명령,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말. ※구어체 충청말에서 보조사 '유'가 나올 경우, 선행하는 종결어미 '아/어'는 예외 없이 생략된다. 예) 진지 잡수시어유.(X)→진지 잡수시유.(O)→진지 잡수슈./그러니께 지 말대루 혀어유.(X)→그러니께 지 말대루 혀유.→그러니께 지 말대루 휴.(O)/잘 지냈어유?(X)→잘 지냈유?(O)

유² ㅍ 요 ㅁ 어미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 ㅁ '-유¹'. ㅍ 일은 지대루 헛어유?(X)→일은 지대루 헛유? 일은 지대루 헛유?/애가 문젤 잘 맞췄어유?(X)→애가 문젤 잘 맞췄유?

육시렬 [-씨-] ㅍ 육시렬 ㅁ '육시(戮屍)를 헐'이 줄어서 된 말. 몹시 못마땅할 때 쓰는 욕설. ㅁ 육시렬. ㅍ 육시렬(육

사람), 아침부터 재수 옴 붙었군.

육신[-싯] ㉞ 육순(六旬) ㉟ 육순→육
신/육신(전설모음화). 나이 예순 살을 이
르는 말. 『나이만 육신이른 뒗혀. 허
년 짓은 맨날 애덜인디./이전 육신이른
늙은이 대접 받았지만 지금은 경로당이
두 출입 못허년 애덜이여.

-으까 ㉞ -을까 ㉟(종결) 자음으로 끝
나는 어간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내거
나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때 쓰는 어
미. ㉟ '-까'. 『이 늦은 시간이 야가
워딜 갔으까?/수박이래두 짜개 먹으까?/
구찮던 파리덜이나 다 때려잡으까?/배
고픈디 감자라두 까먹으까?/먹으까 마
까?/이걸 취패까 말으까?

-으까유 ㉞ -을까요 ㉟(종결) '-으(매
개모음)+-까(종결어미)+유(높임보조사)'.
㉟ '- 까유'. 『이것두 먹으까유?/소화
두 시킬 점 동네 한 바쿠 돌으까유?

-으께 ㉞ -을께 ㉟(종결) 자음으로 끝
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서,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나 약
속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㉟-께.
『나두 너랑 먹으께./그 나쁜 녀은 내
가 톱 잡으께./이참이 술허구 담뱃 끊
으께.

-으께유 ㉞ -을까요 ㉟(종결) '-으(매
개모음)+-께(종결어미)+유(높임보조사)'.
㉟ '-으께'를 높여 이르는 말. 『잘 먹
으께유./감자 무게 점 달으께유./말래를

뺨으께유.

으등-그리다 ㉞ 으등-거리다 ㉟(자)

①힘을 주어 몸을 오그리며 우기거나
애를 쓰다. 『그르게 엉아덜헌티 으등
그리매 자꾸 뎀비니께 은어터지지./춘
디서 으등그리매 떨덜 말구 얼릉 들와.
②기를 쓰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이를
악물다. 『으등그리구 인상써봤자 너만
손해여.

-으라너니 ㉞ -으라느니 ㉟ ㉟ '-라
너니'. 『놓으라너니 잡으라너니 말여.
당신이 뉘디 우덜 노넨디 찌들어 창관
허녕 져?

-으라년 ㉞ -라는 (구문) ㉟ '-라년'.

-으라년가¹[-/-녕-] ㉞ -으라는가
(구문) ㉟ '-라년가²'. 『우덜보구 이걸
먹으라년가?

-으라년가²[-/-녕-] ㉞ -으라는가
(구문) ㉟ '-으라년개'. 『우덜보구 얼
른 먹으라년가 벼.(우리에게 얼른 먹으라
는가 봐.)

-으라년감[-/-녕-] ㉞ -으라는가
(구문) ㉟ '-라년감²'. 『나보구 그걸
믿으라년감?

-으라년개[-/-녕-] ㉞ -으라는가
(구문) (받침이 있는 어간 뒤에서, '-개 비
다'의 형태로 쓰여) '-라구 허년가→-라
구 허년개'의 준말. 다른 사람이 시킨
내용을 추측하여 이르는 말. ㉟-으라는

개. -라년개. -라는개. ※표준어 '-으라는
가 보다'에 대응하는 충청말 '-으라년가 보
다'가 모음동화(전설모음화)를 거치면서 '-
으라년개 바다'의 형태가 됨. ♣ 너더러 먹
으라년개 바다.(너에게 먹으라는가 보다.)/
저 닭을 잡으라년개 바다.(저 닭을 잡으
라는가 보다.)

-으라는개 [-/-능-] ㄷ -으라는가
(구문) ㄷ '-으라년개'

으 : 로 ㄷ 어로(漁撈) ㄷ 물고기나 수
산물 따위를 잡거나 거두어들이는 일.

으 : 록 ㄷ 어 : 록(語錄) ㄷ 학자나
위인들의 말을 간추려 모은 기록.

으 : 뢰 ㄷ 어뢰(魚雷) ㄷ 물고기 모양
으로 생긴 대(對)함선 공격용 수뢰. ♣
촌안함이 스해상서 북한의 으뢰 공격이
루 침몰했다매? 그러, 그 으뢰루 우리
군인덜이 마흔여섯 명이나 죽었다.

으 : 뢰-정 ㄷ 어뢰-정(魚雷艇) ㄷ 어
뢰를 주공격 무기로 하는 해군 함정.

으 : 룡 ㄷ 어룡(魚龍) ㄷ ①물고기와
용. ②<동물>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
에, 물에 살던 공룡의 한 종류.

으 : 류 ㄷ 어류(魚類) ㄷ<동물> 몸은
거의 유선형으로 비늘과 지느러미, 부
레가 있어 물속을 헤엄치며 아가미로
호흡하는 척추동물의 한 갈래. ㄷ물고기
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땀이 으
류를 먹던 사람이 사라졌다. 동해 바다

가 원통 오염됐을지두 몰르다년디 누가
요즘 으류를 상이 올리겄넵?

-으매¹ ㄷ -으며 ㄷ(연결) (자음으로 끝
나는 어간이나 선어말 뒤에 붙어) 앞뒤 절
의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 ㄷ-매. ♣말래
를 뚫으매 글을 읽는 겨?/자가 밥을 먹
으매 먼 짓을 허구 있다?

으 : 매² ㄷ 우와 ㄷ ㄷ '-오매²'. ♣으
매, 뭇 일이 요롱기 꼬여번졌대나?/으매,
환장허겄구면, 넌 왜 내가 뭇점 혈라구
만 허문 따러댕기매 속을 썩이는 겨?

-으맨서 ㄷ -으면서 ㄷ (자음으로 끝나
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뒤에 붙어) 앞뒤
절을 대등, 동시, 대립 따위로 이어주
는 어미. ㄷ-맨서. ㄷ-으매. ♣날마두
괜팬 놀으맨서 왜 시간은 읏다나?/요샌
일철이라 내가 원체 바쁘다 봉께 먹으
맨서 일허구 그러.

-으맨서니 ㄷ -으면서는 (구문) ㄷ
'-맨서니'. ♣너두 많이 있으맨서니 왜
넘이 짓은 뺏을라구 허녕 겨?

으 : 물 ㄷ 어물(魚物) ㄷ 생선이나 생
선을 가공하여 말린 것. ♣귀헌 손님이
닝께 으물이래도 장만히서 상을 보라.

으물-전 ㄷ 어물-전(魚物塵) ㄷ '표준
어화 과정: 으물즌>으물전/어물즌>어물전'.
어물(魚物)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 ㄷ으
물즌. ♣으물전이 가서니 자반 고등아

한 손만 사와라./으물전 앞이 고이새끼
이마냥 왜 들구 찌웃그리는 겨?

으물-즌 ㉠ 어물-전(魚物塵) ㉡ ㄷ '으물전'. ㉢ 날이 굿으님께 장거리 으물
즌달이 벌써 출시를 허넌구먼.

으몽-시럽다[--따] ㉠ 음흥-스럽다(陰
凶-) ㉡ '음흥(陰凶)+--스럽--+--다→음흥
스럽다>으몽시럽다(단모음화/전설모음화)'.
겉은 부드러운 듯하나 속이 엉큼하고
흉악한 데가 있다. ㉢ 음흥시럽다. ㉣ **으몽
시럽게**시리 뒤서 일 시피덜 말구 불만
있으믄 떳떳이 나서서 말허란 말여.

으몽-허다 ㉠ 음흥-하다(陰凶-) ㉡
'음흥(陰凶)+허--+--다→음흥허다>으몽허다
(단모음화)'. 겉은 부드러운 듯하나 속이
엉큼하고 흉악하다. ㉢ 음흥허다. ㉣ **저
으몽헌** 늙이 왜 우리 아를 찾아싼다?/
저 늙이 동네 우험네 허맨서니 뒤루다
가닌 **으몽허게** 돈을 떼먹었다너먼.

으붓-아배[--부다-] ㉠ 의붓-애비 ㉡
어머니가 개가하여 얻은 아버지. ㉢ 기부
(繼父). 양아배(養-). 으붓애비. ㉣ **그 사람
은 으붓아배**라두 애덜헌디 그렇기 잘철
수가 읍어. 친아배버더 더 잘헌다닝께.

으붓-어매 ㉠ 의붓-어미 ㉡ 아버지가
재혼하여 얻은 어머니. ㉢ 기모(繼母). 양
어매(養-). 으붓어미. ㉣ **으붓어매**라구 다
뭇된 것은 아녀. 그집 보믄 **으붓어매**라
두 으집짚은 어매버덤 훨씩 나.

으식-으식 ㉠ 으씩-으씩 ㉡ 출거나
무서움으로 몸이 움츠러드는 모양. (센)
으씩으씩. ㉢ **날이** 춥두 앓언디 몸이 왜
이렇기 **으식으식** 떨린다? ㉣ 으식으식
-허다.

으씩-으씩 ㉠ 으씩-으씩 ㉡ ㄷ '으식
으식'의 센말. ㉢ **비가** 오더니 **으씩으씩**
날이 춥나너먼.

-으야겠다 ㉠ -아(어)야겠다 (구문)
'-으야 하겠다'의 준말. (자음으로 끝나
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1인
칭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
㉢ -야겠다. ㉣ -았다. -으았다. ㉤ **암만히
두 년 호차리** 점 **맞으야**겠다.(아무래도
너는 회초리로 좀 맞아야겠다.-화자의 생
각)/**암두 안 먹넌다**니께 **저 떡은** 내나
먹으야겠다.(아무도 안 먹겠다고 하니 저
떡은 내가 먹어야겠다.-화자의 의지)

-으야구 ㉠ -어야 하고 (구문) ㉡ '-
야구'. ㉢ **넌 먹으야구** 난 굶으야 혀.(넌
먹어야 하고 난 굶어야 해.)

으 : 조 ㉠ 어 : 조(語調) ㉡ 말이 주
는 분위기. 말의 가락이나 억양. ㉢ 좋은
말이긴 헌디, 어째 **으조**가 께림칙허니
걸리네.

으 : 조-사 ㉠ 어 : 조-사(語助辭) ㉡
<언어> 실질적인 뜻이 없이 다른 글자
를 보조하여 주는 한문의 토. ㉢ **한문의**

오조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문장(漢文章)의 문맥을 살필 수가 없다.

으 : 족 ㅍ 어 : 족(語族) ㅍ <언어> 계 통상 하나로 묶이는 언어의 갈래. ㅍ 인도-유럽 으족, 알타이 으족, 셈 으족, 중국-티베트 으족 따위.

으존 ㅍ 의존(依存) ㅍ 다른 것에 기댐. ㅍ 의존. ㅍ (자) 으존-허다 ㅍ 아프다구 너머 약이다만 으존허덜 말구 바람두 씨구 운동두 허구 그려./어리다문 부모헌티 으존힐 수도 있긴 허겠지. 근디 다 커서니 추직두 못 허구 부모헌티 으존허구 있음은 모양새가 나졌남?

으존-도 ㅍ 의존 ㅍ 다른 것에 기대는 정도. ㅍ 의존도. ㅍ 우리나라란 자원 으존도가 너머 높다. 출강이니 세겨니 다 외국이서 덜여오녕 거잖어.

으 : 주 ㅍ 어 : 주(御酒) ㅍ 임금어 신하에게 내리는 술.

으 : 족 ㅍ 어족(魚粥) ㅍ 물고기의 살을 주재료로 하여 양념을 풀어서 쓴 죽. ㅍ 예당즈수지에 가른 으족을 파년집이 으렛 있어.

으 : 폐 ㅍ 어 : 폐(語弊) ㅍ ①말의 폐단이나 결점. ㅍ 돈이든 다 된다던 그 말은 으폐가 있구면유. ②남의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말.

으 : 포 ㅍ 어포(魚脯) ㅍ 생선을 얇게 저미고 양념을 한 뒤 말려 만든 포. ㅍ

어포. ㅍ 으포를 생이루 먹을라니 비린내가 나더니, 귀먹으니 감칠맛이 아주 기맥히구면.

으 : 필 ㅍ 어 : 필(御筆) ㅍ 임금이 손수 쓴 글씨.

으 : 학 ㅍ 어 : 학(語學) ㅍ 어떤 나라의 언어, 특히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 ㅍ 으학을 존공헌다던 소릴 듣긴 들었넌디, 구체즉이루다가니 먼 나라 말을 공부허던 겨?

으 : 학-은수 [-항는-] ㅍ 어 : 학-연수(語學研修) ㅍ 외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현지로 가서 배우는 학습 방법. ㅍ 영얼 배울라구 외국이루 으학은수를 떠나던 사람덜이 무측 많다더면.

옥장 [-짱] ㅍ 역장(億丈) ㅍ ①아주 높은 것이나 그런 높이. ②가슴이나 마음. ㅍ 너 땀이 내가 옥장이 무너져야./ (관용어) 옥장이 무너지다-깊은 슬픔이나 절망 따위로 가슴과 마음이 몹시 괴롭다.

-은감 ㅍ -은가 ㅍ (중결) ‘르’과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물을 때 쓰는 어미. ㅍ ‘-는감’. ㅍ 식구덜은 많은감?/그게 옳은감?/집이 멀은감?

-은디¹ ㅍ -은데 ㅍ (연결) (서술격조사나 형용사에서) 뒤에 오는 절에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앞서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 ㉠-디. ㉡-넌디. -는디. ㉢ 그 사람은 맘은 좋은디 실속이 얕어./ 날두 좋은디 철렵이나 가까?/농사두 안 좋은디 금까장 떨어졌이니 이를 오쩨냐?(농사도 잘 안 되었는데, 가격까지 떨어졌으니 이를 어쩨대?)

-은디² ㉣ -은대 ㉤(중결) (서술격조사 '이다'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서) ①뜻밖의 사실에 대해 놀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야, 이것 참 좋은디./암만히두 질을 잘못든 것 같은디. ②상대에게 어떤 사실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넌디. -는디. -디. ㉧ 이곳은 생각 했던 것버덤 넓은디?/넌 뭇을 알구 싶 은디?

은론[을-] ㉨ 언론(言論) ㉩ 여러 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 은론 보도가 매체마다 달르니까 뭇 믿으야 헐 지 몰르졌구먼./우리나라 은론 출판이 자유롭지 못하다넌디.

은론-계[을-계/을-계] ㉫ 언론-계(言論界) ㉬ 신문, 방송, 통신 따위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 ㉭ 오공(五共) 적인 은론계 통합을 헐다구 난리를 꿔잖어. 그뻔 일도일사(一道一社) 오쩌구 허서 은론계가 개박살이 났었지.

은론-사[을-] ㉮ 언론-사(言論社) ㉯ 신문, 방송국 따위의, 언론을 담당하는

회사. ㉺ 그 친구 은론사이 땡긴다구 뻐기던디 오진 사이비 기자같다냥게.

은론-인[을-] ㉻ 언론-인(言論人) ㉼ 언론 기관에 관계하여 언론으로써 업(業)을 삼는 사람.

-올라 ㉽ -으러 ㉾(연결) ㉿ '-올라구'. ㊀ 먹올라 히두 애덜이 눈이 뻘혀 못 먹었유.

-올라거나 ㊁ -으려고 하니 (구문) ㊂ '-라거나'. ㊃ 또 뻘올라거나 허문 그뻔 내 그눔을 가냥 안 돌 거.

-올라거던¹ ㊄ -으러거든 ㊅ ㊆ '-올라거든¹' ㊇ 날이 안 좋올라거든 일찍 들어오너라.

-올라거던² ㊈ -으러거든 (구문) ㊉ '-올라거든²' ㊀ 돈을 벌올라거든 넘덜 버덤 부지런히야 헐다.

-올라년개 ㊁ -으러는가 (구문) (받침이 있는 어간 뒤에서, '-개 비다'의 형태로 쓰여) '-올라구 허년가→-올라구 허년개'의 준말. ㊂ -라년개. ※표준어 '-러는가 보다'에 대응하는 충청말 '-라년가 보다'가 모음동화(전설모음화)를 거치면서 '-라년개 비다'의 형태가 됨. ㊃ 널 잡올라년개 비다.(널 잡으려나 보다.)/십이 하나두 읍년 것이 암체두 내가 죽올라년개 비다.(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내가 죽으려나 보다.)

-올라넌디 ㊄ -으러는데 (구문) ㊅

‘-라넨디’. 『시방 밥 먹을라넨디 왜 들 구 불러싼다?/풀을 뽑을라넨디 이눔으 호미덜이 다 오디로 내뻘다?』

-을라넨지 ㅉ -으러는지 (구문) ㄷ ‘-라넨지’. 『퇴깅이를 잡을라넨지 올 무를 매더면.』

-을라네¹ ㅉ -으러네 (구문) ㄷ ‘-라네¹’.

-을라네² ㅉ -으러는군 (구문) ㄷ ‘-라네²’.

-을라네³ ㅉ -러니 (구문) ㄷ ‘-라네³’. 『밥은 워니 때 먹을라네?/논이 피를 잡긴 잡을라네?(논의 잡초를 뽑긴 뽑으려고 하는 거니?)』

-을라는가¹ ㅉ -으러는가 (구문) ㄷ ‘-라넨가?’. 『그 사람을 또 믿을라는가?』

-을라두 ㅉ -으러도 (구문) ㄷ ‘-라두²’. 『뵈트 점 먹을라두 먹을 게 읍네./짚세기를 삼을라두 짚이 있으야능 겨. 땅두 읍이 뵈 농사를 헐다능가?』

-을라치믄 ㅉ -을라치면 ㅁ(연결)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한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말. ㄷ-르라치믄. -르라치믄. -을라치믄. -을라치면. 『그 사진을 보구 있을라치믄 들구 어릴 적 업니 생각이 나더면유. 그러서니 아예 사진깅구서 네려뵈졌유.』

-을래서야 ㅉ -으러서야 (구문) ‘-을라고 혀서야(-을라구 히서야)’가 줄어든 말.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건으로, 그리하면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ㄷ-르래서야. -래서야. 『베룩이 간을 내먹구 말지 그깅 것을 꺾을래서야 쓰냐?/넌이 것을 날루 먹을래서야 도리가 아니지.』

-을래야 ㅉ -으러야 (구문) ‘-을라고 혀서야(-을라구 히서야)’가 줄어든 말.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ㄷ-르래야. -래야. 『음석을 이렇기 허문 먹을래야 먹을 수가 읍지./그 늠이 원체 빨러서니 잡을래야 잡을 수가 읍었유.』

을 : 르다² ㅉ 어 : 르다/상어놀이-하다 ㄷ(타) ①올거나 보채는 아이를 달래다. ㄷ얼르다. 『자꾸 올리덜 말구 애를 점 잘 올려 봐./그 친구 점 잘 올려서니 우리편이루 끌구 와. 그 사람이 애덜인감유, 올르게?』 ②출상(出喪) 전날 밤에 풍악을 올리면서, 빈 상여를 메고 상주(喪主)의 아픈 마음을 달래다. 『오늘 밤 생여 올른다넨디 안 가볼 텐감? 요즘 누가 생여 올리? 저 건너 양반댁이 초상났잖어. 옛 풍습대룬 아너두 집앞에서 생여 올른다.』

을씬 ㅉ 열씬 ㅁ 무엇이 눈앞에 잠깐



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을씬. ㉡담버턴 우리집이 을씬두 허덜 말거라./꼴 뵈기싫으니까 눈앞이 을씬거리덜 말어.

을씬-거리다 ㉠ ㉡을씬-거리다 ㉢ 무엇이 잇따라 눈앞에 나타났다 없어지다. ㉣을씬거리다. ㉤일 방해되게 왜 자꾸 을씬거리는감?/집 떠난 애가 자꾸 을씬거리매 눈이 밝히더면.

을씬-을씬 ㉠ ㉡을씬-을씬 ㉢ 무엇이 잇따라 눈앞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모양. ㉣을씬을씬. ㉤야가 왜 일허넌디 을씬을씬 증신웁게 현다? ㉥(자) 을씬을씬-허다.

을크름-허다 ㉠ ㉡을크-허다 ㉢ '얼크름허다'. ㉣술맛이 을크름허니 암만 허두 신 것 같구면.

음달 ㉠ ㉡음달/음지 마을 ㉢ ①햇살이 잘 들지 아니하여 그늘진 곳. ㉣양달. ② '음짓말'. ㉤음달서 사람덜이 그러넌디 큰(面)이 큰 일이 생겼다너면유.

음달-말 : ㉠ ㉡음달 마을 ㉢ '음짓말'. ㉣해다갔넌디 음달말인 뒤더러 가녕 겨?(해가 췌는데 음달마을엔 무엇하러 가는가?)

음웅-시럽다[-따] ㉠ ㉡음흥-스럽다 (陰凶-) ㉢ '으몽허다'.

음웅-허다 ㉠ ㉡음흥-허다(陰凶-) ㉢ '으몽허다'.

음지-뜸 ㉠ ㉡음지 마을 ㉢ '음짓말'.

음짓-말 : [-진-] ㉠ ㉡음지 마을 ㉢ '음지(陰地)+ㅅ+말(里)'. 양짓말에 대하여, 햇살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자리한 마을. ㉣음지뜸. 음달. 음달말. ㉤양짓말. 양달. 양달말. ㉥음짓말이 뉘 일 생겼남? 왜유? 아까침이 사람덜이 음짓말루 몰려가결래 말어. 암일 읍는 겨?

읍 : **수이-보다**[-쑤-] ㉠ ㉡없신-여기다 ㉢(타) '읍신여기다' ㉣목심 달린 것을 읍수이보문 별 받는 겨.

읍 : **시-보다**[-씨-] ㉠ ㉡업신-여기다 ㉢(타) '읍신여기다' ㉣그 놈이 나를 암만 읍이봐두 그럴 순 읍는 겨.

이² ㉠ ㉡에 ㉢ 체언 뒤에 붙어, 장소나 시간, 원인이나 대상, 비교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우리 집이 하냥 가자./이 시간이 웬일루 날 보자는 가?/그럼 야중이 또 보자./그 밥이 그 나몰이여./또 배탈 땀이 핵겨 빠진 겨?

이나-따나 ㉠ ㉡이나-저나 ㉢ '그나 따나'. ㉣이나따나 이 사람은 왜 연테 안 오능 겨?

이는 ㉠ ㉡에는 ㉢ '이(격조사)+는(보조사)'. 주로 시간이나 장소 따위를 강조하는 조사. ㉣은인. ㉤. 니는. 닌. ㉥우리 논이는 피가 하나두 읍넌디 자네 논이는 왜 이런 겨?/밥 먹을 적이는 떠들맨서 먹넌

게 아니며./지 판이는 해볼라구 현 건
디 그리웠유.

이던 ㅍ 든 ㅈ ㅈ ㅈ '던'. ㅍ 밥이던 술이
던 암 꺼나 상관없유.

이던지 ㅍ 든지 ㅈ ㅈ '던지'. ㅍ 집이
던지 유치원이던지 우리 애를 봐줄 사
람만 있으믄 되유.

이루² ㅍ 이것으로 (구문) '이것이루→
이결루'의 준말. ㅍ 이루 한 번 혀 봐.(이
것으로 한 번 해 봐.)/이루두 안 되믄 오
짜야 쓴다?(이것으로도 안 되면 어떡해야
한 대?)

이루다 ㅍ 이것으로다가 (구문) '이것
이루다→이결루다'의 준말. 이것으로.
이것으로다. ㅍ 이루다 혀보다가두 안
되믄 위쩔 수 없넌 거지.(이것으로다가
해 보다가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를 ㅍ -에를 ㅈ '이(處所)+를(對象)'.
서술어의 움직임이 미치는 장소를 대상
화하여 이르는 부사격 조사. ㅈ일. ㅍ 집
이를 간다구 나갔넌디유./밭고랑이를 그
렇기 떠댕기믄 오쩌냐?

이를-테문 ㅍ 이를-테면 ㅍ 예를 들
어 말하면. ㅈ '이를테면'. ㅍ 이를테문 그
렇다는 거지. 실지루 그러문 큰일나게?

이빨 [-/입-] ㅍ 이 ㅈ '이(齒)+ㅅ+발
(根?/牙?)→잇발?) 입발/이빨(변자음화)'.
①음식물을 씹는데 쓰는, 척추동물의 기
관. ㅈ이. ㅍ (속)이빨 빠진 호랭이./입

넘이 붓구 이빨이 혼넝겨려서니 뭇 먹
구 싫어두 통 먹을 수가 없어. ②모양
이 치아와 닮은 사물을 빗대어 이르는
말. ㅈ이. ㅍ 독을 쳐쌍더니 도치 이빨이
다 나갔구면./그뚝니빨이 부러져서 대
장간일 점 땡겨오넌 질이여. ③'달변(達
辯)이나 과장된 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 ㅍ 이빨을 까다(이야기를 과장되게 늘
어놓다). 이빨이 씨다(말씀씨가 뛰어나다).

이서 ㅍ 에서 ㅈ 처소, 출발점, 근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ㅈ
서. 이서니. ㅍ 앞이서 얼쩡거리덜 말구
나가 놀어라./ 집이서 가자./운동장이서
놀자./그건 지가 책이서 본 애긴디유.

이서니 ㅍ 에서 ㅈ '이서'의 이형
태. ㅍ 산이서니 여태까장 낭구를 혀구
있었던 겨?/느이가 밤중까장 안 와서
집이서니 식구덜이 월매나 걱정헌 중
알어?

이서니는 ㅍ 에서는 ㅈ '이서니(처소)+
는(差異/對照)'. ㅈ '이서닌'의 이형태. ㅍ
집이서니는 지가 잘 지내구 있넌 중 알쥬.

이서닌 ㅍ 에서는 ㅈ '이서(處所)+는(보
조사)'. 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차이나 대조, 강조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 ㅈ이선. 이서니는. ㅍ 집백이서닌
필필 날러댕기던 늑인디 집안이만 있을
래니 월매나 갑깝혀졌유?

이서버더 ㅍ 에서보다 ㅈ '이(處所)+서
(始發)+버더(比較)'. 어떤 장소와 견주어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이르는 부사격 조사. ㉮이서버텀. 서버터. 서버텀. ㉮백이 나오니께 애가 집이서버터 밥을 더 먹년구먼./암체두 피약벳이서버터 그늘이서 일허년 게 낫쥬.

이서버텀 ㉮ 에서보다 ㉮ ㉮ '이서버터'의 이형태. ㉮ 일허기는 공장이서버텀 집이서 허년 게 낫쥬.

이서버터 ㉮ 에서부터 ㉮ '이(處所)+서(始發)+버터(始發)'.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그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이서버터. 서버터. 서버텀. ㉮ 서울이서버터 충청도까장은 삼백 리 질이여./집이서버터 찾아보자.

이서버텀 ㉮ 에서부터 ㉮ ㉮ '이서버터'의 이형태. ㉮ 즈짜이서버텀 입짜까장이 즈부 다 하춘부지여.

이선 ㉮ 에선 ㉮ ㉮ '이서년'의 준말. ㉮ 그집이선 아직 암것두 물르쥬./회사이선 암 말두 안 했유.

이설랑 ㉮ 에설랑 ㉮ '이서(處所)+르랑(特定對象)'. 특정한 장소를 이룰 때 쓰는 부사격 조사. ㉮이서년. ㉮ 지발 백이설랑 나대덜 말어라./핵져이설랑 손상님 말쌈 잘 듣구 많이 배야 혀.

이슬-갱이 ㉮ 이슬-비 ㉮ '이슬(露)+갱이(접사)'. 이슬처럼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갱이. ㉮ 비가 온대서 좌좌 쏘어질라나 했더니 이슬갱이만 오다 마

네. 그리기 말유. 지병두 적시덜 못허년 이슬갱이는 오나마난디 자꾸 가물기만 히서니 클났네유.

이슴 ㉮ 이음 ㉮ '잇/이스-(續)+음(접사)'. 떨어져 있는 두 물건을 이어서 합침. 또는 그런 부분. ㉮이음.

이슴-매 ㉮ 이음-매 ㉮ '잇/이스-(繼)+-ㅁ(어미)+-매(접사)→이슴매'이음매'. 두 물체를 맞대어 붙인 모양새. ㉮이음매. ㉮이음새. ㉮ 그 사람 재주가 참 용허긴 용허구먼. 여봐, **이슴매**를 표두 안 나게 붙였잖어./싱크대 바닥을 대리석이루 허믄 이음매가 읍구, 나무판이루 허믄 이음매가 있는 겨. 근디 이전인 이음새를 **이슴매**라구 헛잖남? 이, 그전인 다 **이슴매**라구 헛지. 근디 요새 누가 **이슴새**라구 허남? 표준말 쓰년 시상이닝께 다덜 이음매라구 바꿨지.

이실-갱이 ㉮ 이슬-비 ㉮ ㉮ '이슬갱이'. ㉮ 이실갱이에 옷 젖년다구 헛어. 이눔아. 나쁜 손버릇은 애즈녁이 배덜 말으야 혀.

이야 ㉮ 에야 ㉮ '에(격조사)+야(보조사)'. 장소, 시간, 상황의 범주 따위를 나타낼 때 쓰는 조사. ㉮이는. 인. ㉮ 그 집 **택이야** 벨일 읍쥬./그 시간**이야** 한가허긴 현디./그럴 **바이야** 애초이 그만 두슈./내가 아년 **데미야** 가냥 둘 수 있남?

이야그 ㉮ 이야기 ㉮ '니야그→이야그'야:그/이야기>야:기/얘기'. 줄거리가 있는

말이나, 마음속의 생각을 풀어내는 말.
 ㉮야그. 야기. 이야기. 얘기. ㉮서루 송괸
 히닌 이야근 그만 혀./그 옛날이야그가
 참 재미나구먼./내가 그집 사증 이야글
 듣던 횃넌디 말여. ㉮(자)(타) 이야그
 -허다.

이야기 ㉮ 이야기 ㉮ ㉮ '이야그'. ㉮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기 된 거구먼./재
 미난 이야기는 많은디 말여. 팬입이루
 헐라닝께 보파리가 잘 안 풀리지너면.

이야기-꽃[-꽃] ㉮ 이야기-꽃 ㉮ ㉮
 '야그꽃'.

이야기-꾼[-꾼] ㉮ 이야기-꾼 ㉮ ㉮
 '야그꾼'.

이야기-책 ㉮ 이야기-책 ㉮ ㉮ '이야
 그책'.

이야깃-거리[-기꺼/-긱꺼-] ㉮ 이야
 깃-거리 ㉮ ㉮ '야긱거리'.

이왈-저왈 ㉮ 이러쿵-저러쿵 ㉮ '이
 (此)+왈(曰)+저(彼)+왈(曰)'. '이러하다, 저
 러하다' 여러 말을 늘어놓는 모양. ㉮이
 왈저왈 말덜만 많지 딱히 나스넌 사람
 은 읍더라구./그 일루다설래미니 이왈
 저왈 소문은 무성허지면 믿을 만헌 것
 은 읍유.

이왈저왈-허다 ㉮ 이러쿵저러쿵-하
 다 ㉮(자) 어떤 것에 대하여, 이러하고
 저러하다고 여러 말을 늘어놓다. ㉮
 이 일이라구 함부루 이왈저왈허든 못

쓰능 규.

이왕-이든 ㉮ 이왕-이면(已往-) ㉮
 ㉮ '지왕이든'.

이자 ㉮ 이제 ㉮ ㉮ '이저'. ㉮ 이자버
 턴 스사루 나서질 겨.(이제부터 차차 나
 야질 거야./우덜만 남은 것 걸은디 이자
 오티기허지?)

이자-서 ㉮ 이제-서 ㉮ ㉮ '인저서'.

이자-서야 ㉮ 이제-서야 ㉮ ㉮ '인저
 서야'.

이저-서 ㉮ 이제-서 ㉮ ㉮ '인저서'.

이저-서야 ㉮ 이제-서야 ㉮ ㉮ '인저
 서야'.

이전 ㉮ 이젠 (구문) '이저는'의 준말.
 ㉮인전. ㉮올마 즈껴정은 문백 출입을
 횃넌디 이전 일어스두 못헌다. 그럼 이
 전 슬슬 초상칠 준비만 남엇겠네.

인 ㉮ 엔 ㉮ ㉮ '이는'의 준말. ㉮ 핵겨
 인 왜 일찍 가넌 겨?/가 얼글인 표가
 안 나던디?

인자-서 ㉮ 이제-서 ㉮ ㉮ '인저서'.

인자-서야 ㉮ 이제-서야 ㉮ ㉮ '인저
 서야'.

인저-서 ㉮ 이제-서 ㉮ '인저(此時)+서
 (조사)'. 이제 겨우. 이때에 이르러서야
 막. ㉮이저서. 인저서. 이자서. 인자서. ㉮
 이저서야. 인저서야. 이자서야. 인자서야.



『배차씨를 인저서 뿌려서니 짐장은 워니 천년[철련이] 험라능가?/뱃가죽[백까죽이] 등이 붙은 제가 온젠디 인저서 참을 내온다?

인저-서야 ㉠ 이제-서야 ㉡ ㉢ ‘인저(此時)+서야(조사)’. 이제 겨우. 이때에 이르러서야 막. ㉣ 이저서야. 이자서야. 인자서야. ㉤ 이저서. 인저서. 이자서. 인자서. 『정일 바뻐넌디 인저서야 숨점 돌리게 생겼네./뺨스 떠난 지가 온젠디 인저서야 그걸 생각허문 뫼헌다?

일 ㉦ 예를 ㉧ ㉨ ‘이름’의 준말. 『집 일 가라넌디 왜 안 가구 있능 겨?/논일 간다구 나갔넌디 늦너면.

일-깨다 ㉩ 일-깨우다 ㉪(타) ‘이르- (謂)+깨-(覺)+-이-(접사)+-다→일깨다’. 가르치거나 일러주어 깨닫게 하다. 『야가 스투러서니 실수헌 것이닝께 느이가 점 일깨 줘.

일번 ㉫ 바로 ㉬ 어떤 상태나 상황이 일어나거나 끝나자마자 바로. 『진 저녁만 먹으른 일번 운동허러 나가유. 그럭허덜 았으른 밤새 몸이 무거서 전디 덜 못휴./햅겨 끝나른 탄 디루 새덜 말구 일번 집이루 와야 험다이./왜 이렇기 늦었다? 미안혀. 일 끷내구 일번 온건디 그렇기 되뻬졌구면.

잃어-빠리다 ㉭ 잃어-버리다 ㉮(타) ‘일허버리다→잃어빠리다/잃어뿌리다/잃어뻬지다’. ①어떤 물건을 분실하거나, 상

실하게 되다. 『고여니 내기를 험다가니 돈만 다 일허빠렸어./구연 물건을 잃어빠렸어니 이를 오쩨냐? ②어떤 관계나 기능을 상실하다. 『고향 떠난 제가 하 오라닝께 인전 고향 친구덜 다 잃어빠렸어./사읍이 실패험다구 용기까장 잃어빠리른 안 되야.

잃어-뻬지다 ㉯ 잃어-버리다 ㉮(타) ㉰ ‘잃어빠리다’. 『지왕 잃어뻬진 거닝께 얼릉 잇아뿌려. 들구 곱썰구 있어봤자 속만 터지능 겨.

잃어-뿌리다 ㉱ 잃어-버리다 ㉮(타) ㉰ ‘잃어빠리다’. 『호박 잃어뿌린 할매 마냥 뫼라구 자꾸 중얼거려 썰는 겨?

입-갓[-깁] ㉲ 입-가 ㉳ ‘입(口)+갓(邊)→입갓’입갓. 입의 가장자리. ㉴입가생이. 『입갓이 뫼가 그렇기 묻은 겨?/그 냥반 입갓이루 침을 질질 흘리매 먹넌디 하냥 밥 못 먹겼더면.

입-가생이[-까-] ㉴ 입-가 ㉳ ‘입(口)+갓(邊)+-잉이/앵이(접사)’. ㉵ ‘입갓’.

입설[-썰] ㉶ 입술 ㉷ ‘입(口)+시울(脣/圍)→입설?’입설. 입의 위와 아래에 도도록하게 붙어 있는 살. 『튼 입설을 셋바닥이루 들구 근다리른 더 트는 겨./지 잡어먹은 겨? 뻬경게 입설이다 먼 루즈를 그리 칠헌 겨?

입설-도장[-썰-] ㉸ 입술-도장(-圖章) ㉹ 연지를 바른 여자의 입술 자국. 또

는 '입맞춤'을 빗대어 이르는 말. 『입설도장을 찍다.(키스하다. 내 짝이 될 사람임을 확인하여 두다)/입설도장은 확실히 찍은 거? 머여? 지 여자라매 연태 입설도장두 안 찍구 뵈 혀다?』

입설-발매[-셀] ㅍ 입-발림 ㉠ '입설(脣)+발매(發賣)'.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대를 꺾어내기 위해 듣기 좋게 늘어놓는 말. ㉡입설발림. 『자네 말 알아들었응께 입설발매힌 그만 혀./술 한 잔두 못 사년 놨이 입설발매룬 말술을 낸다닝께.』

입설-발림[-셀] ㅍ 입-발림 ㉠ 『입설발매'. 『저 놨이 또 누굴 꼬실라구 입설발림을 헐다?』

입-짹 ㅍ 이-쪽 ㉠ '이(此)+짹?(隻/方)→입짹'이짹'. 저쪽에 마주한 가까운 쪽. 또는 그 곳에 있는 사람. ㉡이짹. 『내 동 접짹이서 놀다가니 밥때되닝께 입짹이루 오능 겨? 입짹이루 와봤자 자네 줄 밥은 읍넌디.』

입짹-접짹 ㅍ 이쪽-저쪽 ㉠ '이(此)+짹?(隻/方)+저(彼)+짹(隻/方)→입짹접짹'.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과 조금 떨어진 곳. ㉡이짹저짹. 『입짹접짹 찌웃대지 말구 얼른 가란 말여.』

입끼 ㅍ 이끼 ㉠<식물> 잎과 줄기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포자(孢子)에 의하여 번식하는 원시 식물을 일컫는 말. ㉡이끼. 『장마가 오래 가닝께 삼터

이 맨 잉끼만 찌년구면./왜정때닌 농약이 읍으닝께 논이 잉끼가 찌문 피농허구 그렸여.』

잇아-떡다[-따] ㅍ 잇어-버리다 ㉠ (타) ㉡ '잇어번지다'. 『잇아떡을 것이 따루 있지, 시상이 지 부모성제두 잇아 떡는가?』

잇아-버리다 ㅍ 잇어-버리다 ㉠(타) ㉡ '잇어번지다'. 『그 일은 잇아버린 제 오라구면.』

잇아-번지다 ㅍ 잇어-버리다 ㉠(타)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해 내지 못하다. ㉡ '잇어번지다'. 『잇아번질 게 따루 있지. 그런 걸 잇아번지른 오터긴다?』

잇아-베리다 ㅍ 잇어-버리다 ㉠(타) '잇아버리다'가 전설모음화한 형태. ㉡ '잇어번지다'. 『지난 것덜은 다 잇아베리자구 끄넌 야긴디 내가 고여니 자네 아픈 디를 근덜였구면.』

잇아-부리다 ㅍ 잇어-버리다 ㉠(타) ㉡ '잇어번지다'. 『동상 밥 숙제 봐주넌 것 잇아부리덜 말구 집 잘 보구 있어라이.』

잇아-빠리다 ㅍ 잇어-버리다 ㉠(타) '잇아버리다'의 센말. ㉡ '잇어번지다'. 『그 일은 잇아빠리자구 헐수루기 더 떠오르너면.』

잇아-뻘지다 ㅍ 잇어-버리다 ㉠(타) '잇아번지다'의 센말. ㉡ '잇어번지다.'



『뭐, 그런 건 잊아빠리구 말 거두 아뉴.
잊아-빠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잊아빠리다’의 센말. ㉞ ‘잊어번지다’.
 『시상 일이 내 맘대루 되닌 게 오덧겼
 어? 난 그런 일 잊어빠리진지 오리어.

잊아-뿌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잊아부리다’의 센말. ㉞ ‘잊어번지다’.
 『뭇 것을 잊아뿌렸간 이 난리를 피구
 자빠진 겨?

잊어-먹다[-따] ㉞ 잊어-버리다 ㉞(타)
 ㉞ ‘잊어번지다’. 『백이서 쏘댕이
 다 잊어먹은 것을 왜 집안이서 찾는 겨?

잊어-번지다 ㉞ 잊어-버리다/잃어-
 버리다 ㉞(타) ①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해 내지 못하다. ㉞잊어번지다. 잊어
 빠리다. 잊아빠리다. 잊어버리다. 잊아버리
 다. 잊어빠리다. 잊아빠리다. 잊어베리다.
 잊아베리다. 잊어빠리다. 잊아빠리다. 잊어
 부리다. 잊아부리다. 잊어뿌리다. 잊아뿌리
 다. 잊어먹다. 잊아먹다. ㉞까먹다. 『내가
 급헌 일을 깜막 잊어번졌네. 그 나이에
 노망든 겨? 깜막깜막 잊어번지게./지난
 일은 다 잊어번지구 새루 시작할라구 혀.
 ②가지고 있던 물건을 흘리거나, 어디
 에 둔 지를 몰라서 없어지게 되다. ㉞
 ‘잃어빠리다’. 『뭇 잊어번지구 여 와서
 니 찾는 겨?/그 물건을 시장갔다 잊어
 번진 겨?

잊어-베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잊어버리다’가 전설모음화한 형태. ㉞

‘잊어번지다’. 『아깻 일은 잊어베리구
 술이나 한 잔 허자구.

잊어-부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㉞ ‘잊어번지다’. 『뭇 중요한 사람두
 아닌디 잊어부리구 말구가 워뒸어?

잊어-빠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잊어빠리다’의 센말. ㉞ ‘잊어번지다’.
 『그런 중요한 것을 잊어빠리믄 오쩌자
 능가?

잊어-빠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㉞ ‘잊어번지다’의 센말. 『이번인 잊어
 빠리디럴 말구 잘 챙겨뒤.

잊어-빠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잊어빠리다’의 센말. ㉞ ‘잊어번지다’.
 『저 늙이 여자이 증신이 팔리더니 지
 일두 잊어빠리된 모양이구먼.

잊어-뿌리다 ㉞ 잊어-버리다 ㉞(타)
 ‘잊어부리다’의 센말. ㉞ ‘잊어번지다’.
 『이 사람이 시킨 심부름은 잊어뿌리구
 지 일만 보구 왔구먼.

으가 ㉞ 여가(餘暇) ㉞ 남는 시간. 바
 빠지 않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으가 손용(餘暇善用)/으가를 질기다./
 내달이 으가를 내서 놀러가기로 했닌디
 자네두 하냥 가지? 으가라구? 숨 쉴 짬
 두 읍이 일허닌 걸 보면서 시방 날 놀
 리는 겨?

으각 ㉞ 여각(餘閣) ㉞〈역사〉 조선시
 대, 포구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숙박,

화물의 보관과 운송 따위를 맡아보던 업소. 『으각이 안 될라만 나귀만 편다.

으간 ㉾ 여간(如干) ㉿ 『표준어화 과정: 으간』여간. 일상으로 보아 넘길 만한 수준이나 정도로. ㉿여간. 『사람이 으간 까닥시런 게 아녀. 맞아. 보매버던 으간은 넘더라구.(겉보기보다는 보통이 넘더라고.)

으간-내기 ㉾ 여간-내기(如干-) ㉿ 보통 정도의 사람. 만만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 ㉿보통내기. 『등치는 쩌꼬마두 씨름 허닌 것을 보니께 으간 내기가 아니더면.

으간-허다 ㉾ 여간-하다(如干-) ㉿ 그저 그런 수준이거나, 어지간한 정도다. ㉿여간허다. 『으간허신 포기혈 낭반이 아녀./일이 으간허문 내가 이려겄남?

으객 ㉾ 여객(旅客)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사람. ㉿여객.

으객-선[-선] ㉾ 여객-선(旅客船) ㉿ 『표준어화 과정: 으객선』으객선』여객선. 여행하는 이를 태워 나르는 배. ㉿으객선. 여객선. 『호화 으객선./으객선을 이용허다.

으객-승[-승] ㉾ 여객-선(旅客船) ㉿ 『표준어화 과정: 으객선』으객선.

은 : 건[-건] ㉾ 여 : 건(興件) ㉿ 『표준어화 과정: 은근』은건』여건. 주어진 상

황이나 조건. ㉿은근. 여건. 『은건이나 마나 난 벨 생각 읍다니께. 그리 은건이 좋믄(조믄) 나더라 허랄 것 읍이 자네가 허문 쓰잖어.

은걸 ㉾ 여걸(女傑) ㉿ 날래고 기개가 넘치는 여자. ㉿여걸. 『남자두 못허닌 일을 거뜰허게 츠리허닌 걸 보믄 은걸은 은걸이여./군의원 손거이서 아습게 낙승허긴 헛지면 그 사람 참 은걸이여.

은겨-보다 ㉾ 여겨-보다 ㉿ 『예겨보다』.

은경 ㉾ 여경(女警) ㉿ 『표준어화 과정: 은금/은경』여경.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여자. ㉿은금. 『그집 막내가 은경 섬을 처서 합격을 허다. 순경 섬이 아니라 금사(警査)루 발령날 거라더면.

은고 ㉾ 여고(女高) ㉿ 『교육』 ‘은자고등학교’의 준말. 여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 ㉿여고. ㉿남고. 『이진인 예산여고가 실과여중이엇넨디, 시방은 중핵겨허구 고등핵겨가 갈러졌잖어.

은고-상 ㉾ 여고-생(女高生) ㉿ 『은고생』. 『그 은고상이 공분 잘헛넨디, 집안이 어려니께 대학을 못 갔지.

은고-생 ㉾ 여고-생(女高生) ㉿ 『표준어화 과정: 은고상/은고생』여고생.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여고생. 『요새는 은고생덜두 댜댜를 배서 피구 댜긴다.

은공 ㉾ 여공(女工) ㉿ 제조업 공장에



서 일하는 여자. ㉹여공. ㉺이전이 은공
덜이 그 고상을 했으니께 나라가 이망
큼이나 발즌을 현 겨.

은 : 과 ㉺ 여 : 과(濾過) ㉺ 액체 속의
입자를 거름종이로 걸러내는 일. 또는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 내는 일. ㉹여과.
㉺ 정수기 은과 장치가 고장 나서 수도
물이 안 좋았던 거랴./그 애긴 은과 읍
이 받아들어야 혀. 고여니 오해허문 안
된단 말여. ㉺(자) 여 : 과-되다. ㉺
(타) 여 : 과-허다.

은 : 과-기 ㉺ 여 : 과-기(濾過器) ㉺
액체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구. ㉹
여과기.

은 : 과-지 ㉺ 여 : 과-지(濾過紙) ㉺
액체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종이. ㉹
거름종이. 여과지.

은관 ㉺ 여관(旅館) ㉺ 대가를 받고,
손님이 묵을 수 있도록 방을 빌려주는
집. ㉹은관집. 은인숙. ㉺돈 덜이매 은관
이 묵을 게 뭐 있다? 빈 방 많으닝께
우리집이루 와.

은관-방[-방] ㉺ 여관-방(旅館房) ㉺
여관에서, 손님이 묵을 수 있도록 빌려
주는 방. ㉹여관방.

은-교사 ㉺ 여-교사(女教師) ㉺<교
육>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자 선생. ㉹
은선생. 은순생. 은순상. 은선상. 여교사.

은-교수 ㉺ 여-교수(女教授) ㉺<교

육> 여자 교수. ㉹여교수.

은구 ㉺ 여구(麗句) ㉺ 곱게 꾸며진 글
귀. ㉹여구. ㉺미사여구(美辭麗句).

은군 ㉺ 여군(女軍) ㉺(군사) 여자 군
인. 또는 여자로 조직된 군대. ㉹여군.
㉺그집 딸래미가 부사관이루 있넌디 은
군두 혈만 허다.

은권¹[-권] ㉺ 여권(女權) ㉺ 여자가
지니는 법률적, 사회적 권리. ㉺은권신
장(女權伸張).

은권²[-권] ㉺ 여권(旅券) ㉺ 외국 여
행에 쓰이는 여행증명서. ㉺은권을 신
칭허다./은권이 발급되다.

은 : 권³[-권] ㉺ 여 : 권(輿圖) ㉺ 정
권을 잡은 정당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
㉹야권(野圈). ㉺이전버터 여긴 은당표
가 많으닝께은권 인사덜만 슬치는 겨.
야권인 후보두 읍다니께.

은 : 근[-근] ㉺ 여 : 건(興件) ㉺ ㉹
'은건'. ㉺글씨, 은근(은권이 안 되넌
걸 나더러 오쩌라능가?

은 : 기² ㉺ 여기(餘技) ㉺ 전문 직업
으로서의 일이 아닌, 취미로 하는 일.
그 재주. ㉺아이고 으르신, 대패 쓰넌
솜씨가 장냥이 아니구면유. 뭘, 가냥
으기루 점 히보는 겨여.

은기다 ㉺ 여기다 ㉺(자) '넉기다/느기
다?→은기다'. ㉹'예기다'. ㉺사람을 걸

만 보구 친히 **은기**문 못 쓰는 거.

은기-저기 [표준어화 과정: 은기즈기] <은기저기> <여기저기>. 딱히 정해지지 않은 여러 곳. ㉠은기즈기. ㉡이렇기 문쳐댕길 게 아니구 **은기저기**루 흘러져서니 찾아보자구.

은기-즈기 [표준어화 과정: 은기저기]. ㉢은기즈기 흔혀터진 물건을 뒤더라 집안어루 끌어덜인다?

은경 [표준어화 과정: 은경].

은끼 [표준어화 과정: 옛귀/웃귀?→은끼(변자음화/단모음화)] <여끼>. 주로 개울가나 습지에 자라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 ㉣여끼. ㉤갈두 안 되던 **은끼**는 뒤더라 비는가? 퇴비 증산혈라구 비는 규. 허긴, **은끼**가 땀이룬 최고지. 한 나 절만 벼다 부리는 자네네 땀데미 산 되겠네.

은념 [표준어화 과정: 은념] <여념>. 관심 밖의 다른 생각. ㉥은념. ㉦일철이 놀러갈 **은념**이 오덧는가? 나 같은 그릴 **은념**이 호미질을 한 번 더허겠네.

은념 [표준어화 과정: 은념].

은단 [표준어화 과정: 은단] <군단> 흔히 2개 연대로 구성되는 군대 편성 단위. ㉧은단장(旅團長). 기갑**은단**(機甲旅團).

은-달다 [-따] [표준어화 과정: 은달다].

창이나 문 따위를 열고 닫고 하다. ㉨날 차니께 들구 창 **은닫지** 말어라.

은닫-이 [-다치] [표준어화 과정: 은닫이]. ㉩아래나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방식이나, 그런 방식의 문이나 창. ㉪**은닫이**문. **은닫이**창./가깝방두 아닌디 문을 왜 **은닫이**루 헐란다?

은-닫히다 [-다치-] [표준어화 과정: 은닫히다]. ㉫미닫이가 잘 **은닫히**덜 아닌디 손을 점 봐야겠어.

은:담 [표준어화 과정: 은담] <여담>. 주요 화제와 관계없이 덧붙여지는 이야기. ㉬**은담**은 그만허구 허던 얘기루 들어가지./기냥 **은담**이니께 새겨들던 말어.

은:당 [표준어화 과정: 은당] <정당>. ㉭**은당**이 너머 지멋대루 허니께 이번 선거이 뒤집힌 거잖어.

은대 [표준어화 과정: 은대] <여대>. ㉮**은대**이 다니는 대학교. ㉯서울서 **은대**를 나온 여자라닌디 생각버덤 승격이 수더분 허더라구.

은:독¹ [표준어화 과정: 은독] <여행>. ㉺**은독**으로 생긴 피로. ㉻메칠 들어댕기매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은독**이 잘 안 풀리네.

은:독² [표준어화 과정: 은독] <독기>. ㉼**은독**이 풀리지 않은 독기나, 그런 요소. ㉽**은독**이 풀릴라닌디 독기는 녹였지면 **은독**이 풀릴라닌 시간이 점 걸릴 거라.



으-따 ㅁ 여기-에다가 (구문) ㅁ '여 따'. ㅁ **으따** 둔 호행이가 워디루 내뻘다?

으러 ㅁ 여러 ㅁ 수효가 많은. ㅁ **으러** 번 쳐봐두 그 사람 속을 무르겼어./으러 일 겪어봤지면 이번 같은 경우는 내 생전 흠이어.

으러-모로 ㅁ 여러-모로 ㅁ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ㅁ **으러모로** 애는 쓰더면 신통튼 얹언 모양이어.

으러-분 ㅁ 여러-분 ㅁ 여러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 ㅁ **으러분**덜두 알다시피 이번 일은 증말 급휴. 그러니께 바쁘구 심들어두 **으러분**덜이 존부 나서 주시야유.

으럿[-러] ㅁ 여럿 ㅁ 한둘이 아닌 많은 수의 사람이나 물건. ㅁ **물**건은 **으럿** 인디 쓸 만한 것은 하나두 없네.

으 : 력 ㅁ 여력(餘力) ㅁ '표준어화 과정: 으룩>으럭>여력'. 어떤 일에 쏟고 남은 힘. ㅁ **으력**. ㅁ **으력이** 있으면 돈 점 돌려주게. **으력**이 되믄야 당은히 빌려 디리넨디 요새 지두 짹짹하네유.

으 : 로 ㅁ 여로(旅路) ㅁ 나그네가 가는 길. ㅁ **으행**질. **으정**.

으 : 론 ㅁ 여 : 론(輿論) ㅁ 일반 대중들의 공동된 의견. ㅁ **으론**조사(輿論調査). **으론**화(輿論化). **으론** 조작(輿論造作).

으류 ㅁ 여류(女流) ㅁ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여자. ㅁ **으류** 작가(女流作家), **으류** 시인(女流詩人), **으류** 문인(女流文人), **으류** 화가(女流畫家) 따위.

으리다 ㅁ 여리다 ㅁ ① 사물의 성질이 부드럽거나 무르다. ㅁ **피**부가 오찌믄 이렇기 곱구 **으리다**?/끓을 땀 끓으야넨디, 자넨 땀이 너머 **으러**서 탈이어. ② **빛**깔이나 소리 따위가 열거나 약하다. ㅁ **으리다**. ㅁ **색**이 점 **으린** 것 같구먼. **물**감을 더 타야졌어.

으 : 룩 ㅁ 여력(餘力) ㅁ '으력'.

으 : 망 ㅁ 여망(餘望) ㅁ 앞으로의 바람. 남은 희망. ㅁ **손**주눔 장개가넨 거나 보구 죽넨 게 내 **으망**이어.

으명 ㅁ 여명(黎明) ㅁ '표준어화 과정: 으름>으명>여명'. 동이 틀 무렵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 ㅁ **으름**. ㅁ **으명**기(黎明期). **으명**이 밝어오다.

으물다 ㅁ 여물다 ㅁ (자) 식물의 씨앗이 들어차 단단하게 잘 익다. ㅁ **으물**다. ㅁ **으영**글다. ㅁ **곡**석이 참 잘 **으물**었구먼. ㅁ **으**옹골차고 아무지다. ㅁ **으물**다. ㅁ **으영**글다. ㅁ **일**을 험라믄 점 **으물**게 허거라.

으반장 ㅁ 여반장(如反掌) ㅁ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움. ㅁ **나**헌티 그런 일점은 **으반장**이어. 일두 아니라니께.

으-배우 ㅁ 여-배우(女俳優) ㅁ 여자 배우. ㅁ **나** 텔레비를 안 보니께 배우덜은 통 몰러. **남**자 배우두 무르넨디 **으**

배우를 위치기 알겠어?

은백 ㉠ 여백(餘白) ㉡ 쓰고 남은 빈 자리. ㉢ 이렇기 촌촌하게 심으믄 못써. 곡석두 **은백**이 점 있어야 크게 자라던 거란 말여.

은-보쇼 ㉠ 여보쇼 ㉡ 가까이 있는 상대를 부르는 말. ㉢ 여보쇼. 여보슈. ㉣ **여보쇼**. 상관 읍넌 일이 자꾸 찌들덜 말구 맥 갈 질이나 어여 가슈./**여보쇼**. 장판 나 점 보슈.

은복 ㉠ 여복(女福) ㉡ 여자들이 잘 따르는 복. ㉢ 장개를 시 번 간 게 무신 **은복**인가? 그건 **은복**이 아니라 집안 콩가루 맹그넌 **은난**(女難)인 겨.

은-봐라 ㉠ 여-봐라 ㉡ 가까이 있는 상대를 부를 때 쓰는 반말. ㉢ 여봐라. ㉣ **은봐라**. 게 아무두 읍느냐?

은:부 ㉠ 여:부(與否) ㉡ 그러함과 그렇지 아니함. 또는 그릇되거나 그러할 여지. ㉢ 그것인지 아닌지 **은부**는 확인혀 봐야잖는감? 그 사람이 험 말인디 **은부**가 워디 있겠는가?

은분 ㉠ 여분(餘分) ㉡ 차고 남은 나머지. 또는 필요한 부분을 제하고 남은 분량. ㉢ 여분. ㉣ **은분**을 점 챙겨놔던디 자네 쓸 디 있으믄 가져가시게./내 것 두 무지라던디 넘 줄 **은분**이 워디 있겠는가?

은비 ㉠ 여비(旅費) ㉡ 여행하는데 필

요한 돈. ㉢ 노자. 노잣돈. ㉣ 몇넌 만이 온 조칸디 **은비**두 못 챙겨줬어.

은-비서 ㉠ 여-비서(女秘書) ㉡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보좌하며, 기밀문서나 사무를 맡아보는 여자. ㉢ 여비서. ㉣ 사장 **은비서**가 됐다구 허더니 알구 보닝께 짜끄만 점방이 **은리**(經理)루 추지험 거더면.

은사 ㉠ 여사(女史) ㉡ 명망 있는 여자나, 결혼한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은색 ㉠ 여색(女色) ㉡ 여자의 아름다운 자태나, 여자와의 육체관계. ㉢ 술이나 좋아허구 **은색**이나 밝히던 늑헌티 누가 딸을 주겠다?

은:생 ㉠ 여:생(餘生) ㉡ 죽기까지 남아 있는 삶. ㉢ 마누라 죽구 혼저 남었으니 그 낭만 **은생**두 깍깝하게 됐어.

은-선상 ㉠ 여-선생(女先生) ㉡ '표준 어화 과정: 은순상/은선상'은선생' 여자 교원. ㉢ 은선생.

은-선생 ㉠ 여-선생(女先生) ㉡ '은선상'. ㉢ 요새 **은선생**이 남자 선생덜 보덜 많다. 내 손주 핵교도 **은선생**이 교감 교장 다 험다더면.

은성 ㉠ 여성(女性) ㉡ 성(性)적인 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 여성. ㉣ **은성**잡지(女性雜誌). **은성**고객(女性顧客).

은:세 ㉠ 여세(餘勢) ㉡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남은 기세. ㉢ 여:세. ㉣

지왕 내친 질이니 여서 멈출 게 아니구
은세를 잇어가야지.

은 : 수 ㅍ 여수(麗水) ㅁ<지명> 전라
남도의 남동쪽에 있는 시 이름. ㉮여수.

은승 ㅍ 여승(女僧) ㅁ<불교> 여자 스
님. ㉮여승.

은승-당 ㅍ 여승-당(女僧堂) ㅁ<불
교> 여승들이 기거하는 절. ㉮은승방.
㉮수덕사이 가문 근승암(見性庵)이라고
있던디 그게 은승당루 유명하다.

은식 ㅍ 여식(女息) ㅁ 여자로 태어난
자식. ㉮딸. ㉮그 양반이 은식만 돌인디
큰 은식이 아적두 시집을 못 갔다너면.

은신 ㅍ 여신(女神) ㅁ 여성을 띤 신.
㉮지혜의 은신./미의 은신./행운의 은
신이 함께하다.

은-신도 ㅍ 여-신도(女信徒) ㅁ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여자. ㉮예배당일 가
던 절일 가던 신도는 은신도가 많은 뱀
이여.

은신-상 ㅍ 여신-상(女神像) ㅁ 여신
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한 모형.
㉮여신상. ㉮자유의 은신상.

은심 ㅍ 여심(女心) ㅁ 여자의 마음.
㉮실바람이두 사랑거리던 게 은심이라
잖여. 속 꿩이될 말구 백이라두 데꾸
나가봐.

은 : 야 ㅍ 여 : 야(興野) ㅁ 여당과 야

당. ㉮지덜 잇속 쟁기던 딘 은야가 한통
속이여.

은염-집[-짚] ㅍ 여염-집(閭閻-) ㅁ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

은왕 ㅍ 여왕(女王) ㅁ 여자 임금. 또
는 어느 분야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여자를 이르는 말. ㉮여왕. ㉮우리집이
선 마누라가 은왕이지. 내나 애털이나
마누라 앞에선 꿈쩍 못혀.

은의-봉[-이-/의-] ㅍ 여의봉(如意
棒) ㅁ 마음대로 크기가 조절된다 전해
지는 막대기. ㉮성냥개비가 은의봉이
냐? 귀다가 꽃구 다니게.

은-의사 ㅍ 여-의사(女醫師) ㅁ 여자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은의사가 아
니니께 응 그려.

은의-주 ㅍ 여의-주(如意珠) ㅁ 뜻대
로 조화를 부릴 수 있다는, 용의 턱 아
래에 있는 구슬. ㉮은의주라두 은엇남?
돈 읍다던 자네가 뭘 조화루다 땅을 산
겨?

은의-참다[-이찬타-/의찬타-] ㅍ
여의-참다(如意-) ㅁ '은의허지 아니허
다'가 줄어든 말. 일이 뜻처럼 되지 아니
하다. ㉮히봐서 은의참으믄 손을 떼두
되니께 큰 부담은 읍유.

은의-허다[-이-/의-] ㅍ 여의-하
다(如意-) ㅁ 일이 뜻대로 되다. ㉮일
이 은의칠 못히서 늦어지너면유. 은의

털 얇으믄 때려쳐. 느이가 뭐가 아쉬
그 일이 매달리넨 겨?

은인 ㅁ 여인(女人) ㅁ 여자 어른을
이르는 말.

은인-네 ㅁ 여인-네(女人-) ㅁ '은인
(女人)+네(複數/접사)'. 여인들을 두루 이
르는 말. ㅁ 그러니께 그 말 저내가 좋
아허넨 **은인네**들 말을 믿구 해딱거린
겨?

은인-상 ㅁ 여인-상(女人像) ㅁ 본받
을 만한 여인의 모습. ㅁ 내가 그리넨
은인상이 이런 것이여. 아따, 그니께
그건 니 꿈이서나 이뤄질 상이여.

은인숙 ㅁ 여인숙(旅人宿) ㅁ 여행하
는 이들이 묵어갈 수 있는, 여관보다 작
은 규모의 숙박업소. ㅁ 돈 애깁디구 지저
분헌 **은인숙**인 들지 말어. 그 시골 구석
이 **은인숙**이라두 있으믄 대행(多幸)이쥬.

은일-허다 ㅁ 여일-허다(如--) ㅁ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ㅁ **은**자는
정조 남자는 지조, 한번 땀 먹었으믄 **은**
일허게 밀구 나가넨 것이 진짜 남자여.

은자 ㅁ 여자(女子) ㅁ 여성으로 태어
난 사람. ㅁ **은**자헌티 했다고 찢찢 찌구
만 있으믄 워쩌냐? 시상이 썩구썩 게
은자구 늘린 게 **은**자여. 그니께 땀 새
루 먹구 심내여.

은장 ㅁ 여장(女裝) ㅁ 남자가 여자처
럼 옷을 차려 입음.

은:장 ㅁ 여장(旅裝) ㅁ 여행에 필요
한 옷가지나, 여행자의 옷차림. ㅁ **은**장
을 꾸리다. **은**장을 풀다.

은-장부 ㅁ 여-장부(女丈夫) ㅁ 굳세
고 씩씩한 여자. ㅁ 생긴 건 곱상허두 그
집 메누리가 **은**장부여. 안안꽤이루 살
림 건사허구 애덜 시똥 대학까장 보냈
잖여.

은전 ㅁ 여전(如前) ㅁ '표준어화 과정:
은즌>은전>여전'. 앞서와 같이 한결같게.
늘 변함없이. ㅁ 은즌. 여전. ㅁ 간 너겔덜
않여. **은**전 공부백이 물른다니께./**은**전
일은 허넨디 원체 손이 느려터져 노니
께 개같이 안나.

은전-허다 ㅁ 여전-허다(如前) ㅁ 앞
서와 같다. 변함없이 한결같다. ㅁ 은즌
허다. 여전허다. ㅁ 부친 **은**환은 오떠신
감? **은**전쥬./자넨 시방두 **은**전인감? 지
야 맨날 그렇쥬.

은전-히[-저니] ㅁ 여전-히(如前-)
ㅁ 앞서와 같이. ㅁ 은즌히. 여전히. ㅁ **은**
함없이. 행결같이. ㅁ **은**전히 들까부넨 게
저 늬이 암만허두 혼꾸녕이 들난 모냥
이여.

은:정 ㅁ 여정(旅程) ㅁ '표준어화 과
정: 은즌>은정>여정'. 여행하면서 거쳐 가
는 곳이나, 여행의 과정. ㅁ 은즌. ㅁ 오
늘 **은**정은 끝났구, 니얼 **은**정은 오치기
되남?

으제 ㉠ 여제(女帝) ㉡ 여자 임금. 여자 황제(女子皇帝).

으-종 ㉠ 여-종(女-) ㉡ 종살이를 하는 여자. ㉢ 이전이 식모를 두구 **으종** 부리덜 허던 사람두 즉잖았어. 지가 월급 준다구 상즌 행세를 헨 거지.

으 : 죄 ㉠ 여죄(餘罪) ㉡ 드러난 죄와는 다른 죄. ㉢ 암튼시간이 **으죄**를 밝힐 라믄 이눔을 후딱 잡어달이야 헨 턴디 말여.

으 : 주 ㉠ 여주(驪州) ㉡<지명> 경기도 남동쪽, 한강 중류 분지에 있는 시(市)의 이름. ㉢ 이 사람이, 쌀 허믄 **으**주허구 이촌(利川)이잖여. 거서 난 쌀루진 밥이 진짜 이밥이라니께.

으-주인 ㉠ 여-주인(女主人) ㉡ 여자 주인.

으중 ㉠ 여중(女中) ㉡<교육> '으자중 학교'를 줄여 이르는 말. ㉢ 자네 손주딸이 이번이 **으중**이 들어갔다매? 아니 그럼 우리 손주딸이 **으중**이루 가지, 남중이루 갈 중 알었유?

으중-생 ㉠ 여중-생(女中生) ㉡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으즌 ㉠ 여전(如前) ㉡ '으전'.

으즌-허다 ㉠ 여전-허다(如前) ㉡ '으전허다'의 이전 말. ㉢ 시골 고향이야 **으즌허지**. 으른덜 피시구 맨날 농사 짓

구 그러매 살어.

으즌-히[-즈니] ㉠ 여전-히(如前-) ㉡ '으전히'의 이전 말. ㉢ 구름만 찌구 **으즌히** 비는 안 오너면.

으 : 증 ㉠ 여정(旅程) ㉡ '으정'의 이전 말. ㉢ 가야헨 **으증**이 질으니께 얼릉 출발허자구.

으지 ㉠ 여지(餘地) ㉡ 어떤 일에 대한 기회나 여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그에 대한 기대 따위. ㉢ 여지. ㉣ 나헌티두 생각헨 **으지**는 점 냉겨 주야지. 내 말은 들어보두 앓구 그렇기 무수 찢르드끼 매중허문 못 쓰는 겨. **으지**나마나 일이 뻔헌디 더 들어볼 게 워닷대유?

으지-읏다[-읏따] ㉠ 여지-읏다(餘地-) ㉡ 어찌해볼 수단이 없다. ㉢ **으지-읏**이. ㉣ 인전 가헌티 **으지읏**이 걸린 겨. 코뚜레 읏인 거라닝께.

으진¹ ㉠ 여진(女眞) ㉡<역사> 10세기 이후 만주 동북쪽에 살던 통구스계의 민족. 10세기 이전 숙신(肅愼), 읏루(挹婁), 물길(勿吉), 말갈(靺鞨) 따위로 불리다가 뒷날 만주족(滿洲族)으로 이어짐. ㉢ **으진**족. ㉣ **피**놈.

으 : 진² ㉠ 여진(餘震) ㉡<지리> ① 앞서 일어난 지진에 뒤따라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지진. ② 어떤 사건이 뒤에 오는 일에 미치는 힘. ㉢ **쏘**내기 **피**혔다구

좋아할 것이 못더. 앞이루 이게 오면 은
진을 물고 올지 난 그계 더 겁난다니께.

은질 ㉠ 여질(女姪) ㉡ 조카딸. ㉢ 질
느. 질녀.

은쭈다 ㉠ 여쭈다 ㉡(타) ‘열/을-(啓, 奏)+-쭈-(恭遜)+-다→은쭈다)여쭈다/여
쭈다. ①‘묻다’의 높임말. ㉢은쭈다. ㉣
뭇 점 은쭈 게 있어서니 찾아왔던디유.
②윗사람에게 공손히 말하다. ㉢은쭈다.
㉣내 그 낭반헌틴 멘목이 읊어서니 직
접 말썸디리기가 그러니께 자네가 대신
점 은쭈 주게.

은쭈다 ㉠ 여쭈다 ㉡(타) ㉢ ‘은쭈다’
보다 쓰임 빈도가 낮다. ㉣너 시방 그
계 으르신헌터 은쭈년 겨? 싸우자구 댜
비년 겨?

은차여차-허다 ㉠ 여차여차-하다(如
此如此-) ㉡ ㉢ ‘은차은차허다’.

은차은차-허다 ㉠ 여차여차-하다(如
此如此-) ㉡ ‘표준어화 과정: 은차은차허
다)은차여차허다)여차여차허다’. 어떤 상황
이 이리하고 이리하다. ㉢은차여차허다.
은차즈차허다. 은차저차허다. ㉣자세하게
얘기할 것은 못 되고 암튼시간이 은차
은차혀서 우덜이 여까장 온 겨.

은차즈차-허다 ㉠ 여차여차-하다(如
此如此-) ㉡ ‘여차(如此)’의 ‘여’를 우리말
로 해석하여 만들어진 말. 이리하고 저리
하다. ㉢은차은차허다. 은차여차허다. 여차

저차허다. ㉣그러니께 은차즈차혀서 일
이 꼬였년디 우덜이 썬들 게 못 되니께
창관허덜 말자구.

은차-허다 ㉠ 여차-하다(如此-) ㉡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그러지
다. ㉣은차허든 터야 헐 것이니께 준비
덜 단단히 허구 있어./은차허든 주먹버
텨 내질러는 늬이니께 조심덜 하.

은체 ㉠ 여체(女體) ㉡ 여자의 몸.

은:치 ㉠ 여치 ㉡ 메뚜기목 여치과의
곤충. ㉣집안이루 은치가 날르던 걸
보니께 여름두 다 갔구먼.

은타 ㉠ 여타(餘他) ㉡ 그 밖의 다른
것. ㉣은타의 것은 신경쓰덜 말구 니
헐 일만 을심허문 더.

은탕 ㉠ 여탕(女湯) ㉡ 여자들만 이용
할 수 있는 목욕탕. ㉣핵겨갈 나이가
된 사내애를 왜 은탕이루 데리꼬 온다?

은티 ㉠ 열게 ㉡ ㉢ ‘을이’. ㉣년 뒀던
지 은티 생각허던 게 토사(吐瀉)어.

은파 ㉠ 여파(餘波) ㉡ ①큰 물결 뒤
에 따르는 작은 물결. ②앞선 일이 뒤
에 오는 일에 미치는 힘. ㉣피농(被農)
의 은파가 클 텐디, 잘 전덜라라 물르
겠네. 은파야 점 가겼지면 벨일이야 있
을라구.

은포 ㉠ 여포(呂布) ㉡<인명> 중국 후
한 말기의 장수(?~198). ㉣은포(呂布)



나가신다. 포장(包將) 받아라. 히히, 으
포가 궁(宮)을 두구 너머 널뛰면 못 쓰
넌디. 초순(貂蟬)이나 찌구 놀지 뭐더러
장(將)을 불른다? 어따, 명군장군이다.
내 상장(象將) 받아라.

육다[~따] [표] 엮다 [동] (타) [동] '엮이다'.
『응을 **육어** 보긴 현 겨?/요즘 시상이
누가 신년다구 짚세길 **육구** 자빠졌다?

육이다 [표] 엮이다 [동] '육다'의 피동.
줄지어 매이거나, 관계를 맺게 되다.
『자넨 그 일이 짜들덜 말어. 내가 그
늬훤티 **육어**서니 그 고상헌 걸 생각허
문 시방두 가심이 벌렁거린다당께.

은 : 장 [표] 연장 [동] '표준어화 과정: 은
:장>연(:)장'. 어떤 일을 할 때, 손에 쥐
고 쓰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동]
:장. 『목수헌티 **은장**이 목심버덤 중허
다구 허더면, 지 **은장**두 못 챙기년 목
수가 뭘 목수랴?

을 : -대[~때] [표] 열 : -쇠 [동] '표준어
화 과정: 을대>열대>열쇠'. 『'쇠대'와 함
께 두루 쓰인다. 『**을대**를 오따 두구
찾는 겨? 그러기유. **을대**를 자물통이다
꼬져든 것 같은디 오디루 도망갔내유.

을심-허다[~쌌-] [표] 열심히 하다 [동]
(타) '열심히하다'. 『농사두 장사두 **을심**
허덜 앓으른 피롱(被農, 농사를 망치는)허
년 뱍이여.

을 : 다[을 : 따] [표] 엮 : 다[열 : 따]

[동] 빗칼이 연하거나, 두께가 얇거나,
밀도가 질지 아니하다. [동]을브다. 엮:
대[열 : 따]. 『**을**옷을 헤입을 건디 **을**
집 **을**지 앓을라나?/되배지가 너머 **을**
어서니 들구 찢어져 **을**너면.

을전 [표] 소금-밭 [동] [동] '소금밭'.

을즌 [표] 소금-밭 [동] '을즌>을전'. [동]
'소금밭'. 『**을즌**은 스산이나 태안이 가
른 흔혀. 바닷갯이 가른 논차람 물 괴
논 게 **을즌**이잖어.

을 : 2 [표] 이엿 [동] [동] '엿'. 『아니, 시
골이 살맨서니 **을** 못 유년 사람두 있네
그랴./**을**을 월매나 유을라구 벵토매를
저렇기 싸났다?

을이[~으치] [표] 열게 [부] '을-(薄,
淺)+-이(접사)→을이>열이'. 진하지 아니
하고 묽게. 깊이가 작게. [동]열이. 으티. 여
티. [동]알이. 야티. 야치. 『색깔이 너머 진
허잖은감? 점 **을이** 칠허야겠어./감자구
딩일 그렇기 **을이** 허문 **을** 못나.(감자구
덩이를 그렇게 얇게 파면 겨울을 나지 못해.)

을-눈[음-] [표] 곁-눈 [동] [동] '곁-눈'.
『사람을 쳐다볼 적인 **을눈**이루 보녕 게
아녀.

을눈-질[음-] [표] 곁눈-질 [동] [동] '곁
눈-질'. 『**을눈질** 좋아허문 사팔뚝기 되
능 겨.



자 : 冫 저 冫 𠂇 '더/다→저/자'저/자'.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저. ※'방향과 사람, 사물'을 두루 지시하는 '저'에 비하여 '방향'을 지시할 때만 쓰인다. (예)저 사람 (○)→자 사람(X). 저 음식(○)→자 음식(X). ㉮우리 자 위루 올라가 보자./자 아래로 내려가든 워디가 나오까?

자그매 冫 적당히 冫 '작-(小)+-음(어미)+-에(접사)'. 정도가 적다 싶게.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밥 점 자그매 쳐먹어. 그러다 짜구나겠다, 이눔아./육십 점 자그매 부러. 그러다간 탈나년 수가 있다낭께.

자 : 기 冫 저기 冫 '더과→저:과/자:과?'저:기/자:기.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 ㉮저기. 자기. ㉮아깨 보니깁 자기루 가던디 가는 머더라 찾아맹긴가?/자기 있던 게 니이 어매 아녀?

자 : 발-없다[-음따] 冫 자 : 발-없다 冫 언행이 진득함이 없이 가볍다. ㉮자 발없년 녀석들이 나대년 통이 열받어 혼났네.

자 : 발-없이[-음씨] 冫 자 : 발-없이 冫 언행이 진득함이 없이 가볍게. ㉮자 발없이 나대지덜 말어.

자봉 冫 재봉-틀(裁縫-) 冫 바느질을 하는 기계. ㉮자봉틀. ㉮울 엄니가 시집을 적이 질 구여게 모셔온 게 이 자봉이랴. 울 엄니가 시집온 게 육이오가 나던 해낭께 이 자봉이 인전 서른 살이 넘은 겨.

자봉-사 冫 재봉-사(裁縫師) 冫 옷을 재단하고 짓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느이 삼촌이 유명헌 양복즘서 자봉사루 일헌다매? 자봉사는 맞넌디, 인전 독립히서 양복즘을 새루 채렸어.

자봉-실 冫 재봉-실(裁縫-) 冫 재봉

들로 바느질할 때 이용되는 실. 『자봉을 돌릴래면 자봉실을 쓰야지. 이렇게 굵은 무명실은 쓰들 못혀.』

자봉-질 ㉠ 재봉 일 ㉡ 재봉틀을 이용해 옷을 짓거나 꿰매는 일. 『지집애가 자봉질두 배지 았구 위치키 시집은 갈라구 허능 겨? ㉢(타) 자봉질-허다. 『자봉질헌다구 슬치더니 성헌 옷을 입두 못허게 뉘벼 뵘구면.』

자봉-틀 ㉠ 재봉-틀(裁縫-) ㉡ 『자봉』. 『아까침이 혼 자봉틀을 산다구 멍기년 사람이 있던디 그건 뵘허러 살라구런다? 이, 요집인 고장난 자봉틀두 골동품이 된대내 벼.』

자스다 ㉠ 잣 : 다 ㉡ 『잣다』.

자양 ㉠ 자 : 행(再行) ㉡ 혼인식을 마치고 신랑이 처음으로 신부 집을 찾아감. 『그 친군 처가 으른덜이 다 들어가서 츠형네루 자양을 간다. ㉢ 자양-허다.』

자양-가다 ㉠ 자 : 행-하다 ㉡ 신랑측의 입장에서, 혼인식을 마친 신랑이 처음으로 신부 집을 찾아감. ㉢ 자양오다. 『이게 자양가서 개저은 채반음석인감?』

자양-오다 ㉠ 자 : 행-하다 ㉡ 신부측의 입장에서, 혼인식을 마치고 신랑이 처음으로 신부 집을 찾아옴. ㉢ 자양가다. 『그집 신랑이 자양온다던디 부지땡이라두 준비 하야년 것 아닌감?』

자죽 ㉠ 흔적/자국 ㉡ 접촉이나 상처의 흔적으로 남은 자취. ㉢ 자국. 흔적(痕迹). 『옷을 대충 빨았더니 피 묻은 자죽이 들 빠졌구면. ※'자국'이 구개음화로 변형된 형태. 쓰임 빈도는 '자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자국'의 뜻보다는 대개 '흔적'의 뜻으로 쓰인다.』

자 : -짜 ㉠ 저-쪽 ㉡ 『즈짜』. 『자짜이서 혼처 고상허덜 말구 입짜이루 오라구 점 즘혀.』

자 : -쪽 ㉠ 저-쪽 ㉡ 『즈짜』. 『그냥반 자쪽이루 막 떠가던디 뵘 급헌 일이 생겼내 벼.』

자칫-허문 ㉠ 자칫-하면 ㉡ 『깨막허문』.

작기-장[-깨-] ㉠ 잡기-장(雜記帳) ㉡ '잡기장-작기장(변자음화)'. 공부한 학과목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공책. 또는 잡다한 여러 가지를 기록할 수 있는 공책. ㉢ 공책. 『할머닌 공책을 왜 작기장이라고 해요? 이, 예전인 공책을 작기장이라구덜 헛어.』

작년-그러끼[장-] ㉠ ㉡ 그그러끼 ㉢ 『그그러끼』. 『그 냥반이 군의원 된 게 작년그러끼닝게 임기가 아적 이년 더 남은 겨.』

잔술-배기[-빼-] ㉠ 잔-소리 ㉡ '잔-(小)+-ㄴ(어미)+소리(言)+-배기(접사)'. '잔소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내 잔』

술배기가 그렇기두 듣기 싫다던감?/잔 술배기는 그만허구 일덜 시작허지.

잘어-터지다 ㉸ 자잘-하다 ㉸ '잘-(小)+-어-+터지-(裂)+-다'. 아주 잘다. ㉸ '날알갱이덜이 너머 잘어터져서니 워따 쓰두 못허겄어.

잡다[-따] ㉸ ㉸(타) '잡-(執)+-다'. ㉸ '집다'. ㉸ '비가 와서니 차미순 잡을라든 점 바쁘게 생겼어.

잡-시럽다[-따] ㉸ ㉸ 잡-스럽다(雜-) ㉸ 상스럽고 너저분하다. ㉸ '그런 잡시럽 일을 왜 나헌티 시긴다?

잡어-주다 ㉸ ㉸(타) '잡-(執)+-어+주-(與)+-다'. ㉸ '집어주다'. ㉸ '느이 아부진 도마도순 잡어준다구 빛이 나갔어.

잡 : -짜 ㉸ ㉸ 저-쪽 ㉸ ㉸ '즈짜'. ㉸ '잡짜'이서 뭇덜 허구 있다? 자세한 물르겄구 잡짜이 뭇일이 나긴 님내 부.

жат : 다[жат : 따] ㉸ ㉸ ㉸(타) ㉸(규칙) 'жат게/자스게. жат구/자스구. жათ으니/자스니. жათ어라/자서라'. 물레나 방적기 따위로 실을 뽑아내다. ㉸ 자스다. ㉸ '물레루 실을 жат는다./멧지실을 жათ어 타래를 멧글다.

장개 ㉸ 장가(杖家) ㉸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일. ㉸ '장개 들을라든 얼릉 돈 모아야 허여. 넌 돈이 읍어서 장겔 못가년 게 아널 건디?

장개-가다 ㉸ 장가-가다(杖家-) ㉸ ㉸ '장개들다'. ㉸ '넌 장개갈 밀천두 읍넌 늬이 밤낫 놀기만 허른 오티기냐?

장개-들다 ㉸ 장가-들다(杖家-) ㉸ 남자가 혼인하여 여자의 지아비가 되다. ㉸ '이늬야, 장개들러 가년 늬이 불알 떼 놓구 가냐? 뭇 소리래유? 먼 소리긴, 낭구허러 가년 늬이 낫을 빠치구 가닝게 허년 소리지.

장간 ㉸ 잠간 ㉸ ㉸ '장관'이 표준어화한 형태.

장관 ㉸ 잠간(暫間) ㉸(문) '잠간(暫間)> 잠간(?)장관'장관'. 매우 짧은 동안. 짧은 시간. ㉸ 장간. ㉸ '장관만 지들러. 장관 땡겨울 디가 있으닝게.

장관-장관 ㉸ 잠간-잠간(暫間-) ㉸(문) 잠깐씩 여러 번 거듭되는 모양. ㉸ '직장 땡기너라구 많이년 못허구 장관장관씩 운동을 허군 있지.

장 : 려[-녀] ㉸ 장 : 리(長利) ㉸ 예전에,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한 해 50%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것. 보통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 쓰고 가을에 1.5배로 갚는 빚을 말함. ㉸ '큰애 나이가 많으니 오쩌. 혼처 생겼을 적이 장려래두 써 장개보내야지. 그렇긴 헌디 그 많은 장려를 쓰구 우리가 오티기 전딘대유.

장 : 려-빚[-녀빚] ㉸ 장 : 리-빚(長

利-) ㉞ '장려'. ㉞ 이 사람아. 죽을 만큼이 아니믄 장려빚은[장녀비신] 내덜 말어. 오죽했으면 과부 땡빚은 써두 장려빚은[장녀비신] 쓰지 말라닌 말이 있겠나?

장 : 러-쌀[-녀-] ㉞ 장 : 리-쌀(長利-) ㉞ 가을에 50% 이자를 쳐서 돌려받기로 하고 봄에 빌려주는 쌀이나, 그렇게 값기로 하고 빌려오는 쌀. ㉞ 보리쌀 장려같은 것은 읍었유? 이전이 장려쌀은 있어두 보리쌀 장려는 읍었어. 장려는 쌀루 놓는 빚인 겨./읍년 사람이 장려쌀을 내 먹으면 같이 그걸 오ტი기 값었대유? 읍년 사람덜은 품이루 값었지. 농사두 겨 주구 머슴차람 그집 일을 해줬어.

장사 ㉞ 장수 ㉞ 이득을 얻고자 물건을 파는 사람. ㉞ 쌀술배기 첫 머리에 가믄 장돌뱅이 장사가 있어. 그 사람은 멀 파닌 장사여?

재 : -두다 ㉞ 재어 두다 ㉞(타) '재-(畜)+두-(置)+-다'. 물건을 창고나 헛간 따위에 오래도록 쌓아두다. ㉞쟁이다. 쟁여 두다. ㉞ 그 아깨운 걸 재두기만 허문 워쩡다?/광이다 재뿔다가 썩히덜 말구 넘덜헌티 노나주거라.

쟁끼 ㉞ 장끼 ㉞(동물) 수컷 꿩을 이르는 말. ㉞까토리.

자 : 기 ㉞ 저기 ㉞ '자기'. ㉞ 시방 까장 자기서 일허구 있었던 겨?

저 : 가 ㉞ 저기가 (구문) '저기(彼所)+가(조사)→저기가'가 줄어든 말. ㉞ 저가 가막손감? 이, 저가 우리 큰애가 교도관이루 근무허닌 디여.

저 : -가다 ㉞ 기어-가다 ㉞(자) '저-(伏)+-어+가-(去)+-다→저:가다'저:가다'. 기어서 가거나, 아주 천천히 가다. ㉞겨가다. ㉞ 개야미덜이 줄져 저가닌 걸 보닝게 날이 또 구질 모양이여.

저누다 ㉞ 겨누다 ㉞(타) '견후대[근후대]: 근누다'저누다/꼬누다/꼬누다'. 활이나 총 따위로 목표물을 향해 방향과 거리를 잡다. ㉞꼬누다. 꼬누다. 끈:다[끈:때]. 저:냥허다. 근:냥허다. ㉞ 그 늪이 날 저누구 있다가니 꼬타리를 잡은 거라닝게.

저 : -대니다 ㉞ 기어 다니다 ㉞(자) ㉞ '겨대기다'. ㉞ 그렇기 저대니덜 말구 싸계싸계 움직여.

저 : -댕기다 ㉞ 기어 다니다 ㉞(자) ㉞ '겨대기다'. ㉞ 저댕기닌 것 보닝게 곧 일어스겠네.

저 : -들다 ㉞ 기어-들다 ㉞(자) '저-(伏)+-어+들-(入)+-다→저:들다'저:들다'. 기듯이 몰래 들어오거나, 몸에 파고들다. ㉞저들다. ㉞ 애가 품이루 저드닌 것 보닝게 배 고포게 벼./짱일 워서 놀다가니 밤때 되닝게 저들어 오너면.

저-따 ㉞ 저기-에다가 (구문) ㉞ '즈따'. ㉞ 저따 뉘뿔다가니 야중이 필요헐 따'. ㉞ 저따 뉘뿔다가니 야중이 필요헐

때 갖다 써.

저-따가 [표] 저기-에다가 (구문) [음] '즈따'. 『저따가 버리른 탈이 날 근디.

저루기 [표] 겨루기 [음] [음] '크루기'. 『씨름이나구 저쌌기만 허맨서니 저루기는 뭐다라 맨날 허구 자빠진 겨?

저루다 [표] 겨루다 [음] [음] '크루다'. 『저루기 헐 게 읍어서니 구덕 파길 현겨? 그러구 저루길 했으믄 조용히 끝나야지, 지구 나서니 왜 아푸다매 나자빠지능 겨?

저릅-대[-때] [표] 겨릅-대 [음] 껍질을 벗긴 삼의 줄기. [음]크릅대. 『자가 저릅대는 머더라 꺾어 들구 땡긴다? 이, 화살 땡긴다구 아까침버터 저릅대를 노래 허더면.

저승-질[-찢] [표] 저승-길 [음]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 『질눈이 어둡서니 집백이두 못 나간 냥반인디 저승질은 잘 찾아갈라나 몰르겄어. 그리기, 저승 사자가 인도허닌 저승질이닝께 그러지야 앓겼지면 질눈이 참 어둡긴 어뤘지.

저 : -올르다 [표] 기어-오르다 [음](자/타) 기듯이 높은 곳에 오르거나, 윗사람에게 버릇없이 대들다. [음]겨올르다. 『해 다 가너면 산인 뭐다라 저올르간다?/저렇기 으른헌티 저올르닌 늙은 혼구먹을 내야지.

저-절루 [표] 저-절로 [음] [음] '제절로'.

『저절루 크닌 작물이닝께 너머 손대덜 말어.

적 [표] 격(隔) [음] 사이가 멀어지거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리. 『민을 만허지 앓으믄 적을 두구 가차이 허덜 말어라./이우지간이 적을 두문 워쩌자능겨? 인전 앓간허덜 헛이니 화해덜 혀.

적세지감[-쌔-] [표] 격세지감(隔世之感) [음] [음] '극세지감'.

쥐다[적따] [표] 쥐다 [음](타) '졌다/긋다 →긋다/긋으다' 쥐다/쥐으다(구개음화)'. ①어떤 일을 당하여 치르다. 『그 일이 월매나 우염헌지 쥐어 보덜 앓은 사람은 몰르능 겨./우리 할머닌 윈갓 븐(變)을 많이 쥐었어. 동학허닌 집안이라 갑오독변(甲午毒變)이 꺾겨땡기구, 시집와서닌 나라 뺏기닌 일 쥐었어. 일정(日政) 다 쥐구 해방뤘다구 좋어라 허다가니 용니오가 터져서 큰아들을 잃었지. ②함께 지내며 사귀어보다. [음]쥐으다. 긋으다. 긋다. [음]쳐: 보다. 『오치기 쥐어 보두 앓닌 사람을 그룽기 잘 안대유? 당사자 읍닌 뒤꾸녕이서 그룽기 흙담허문 못 쓰능 규.

쥐으다 [표] 쥐다 [음] [음] '쥐다'. 『가가 그 큰일을 쥐으맨서두 나헌티 말을 안 존헌 겨, 글씨, 어이구, 가가 그일 쥐으매 혼쳐 감당허너라 월매나 심들었으까이.

전원 [표] 견원(犬猿) [음] [음] '근원'. 『전원지간두 느이 성제(兄弟)버턴 사이가



났겠다.

전원지간 ㉠ 견원지간(犬猿之間) ㉡ 개와 고양이의 사이란 뜻에서, 매우 좋지 않는 관계를 빗대어 이르는 말. ㉢원지간. ㉣글쎄 저 집안 형제(兄弟)는 조상 지사두 따루 모신다. 그리기 **전원지간**두 저렇든 앓을 켜디 사람 성제(兄弟) 쨌리 오찌 저런다?

전주다 ㉠ 견주다 ㉡ '근주다'전주다(구개음화).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대어보고 그 차이를 비교하다. ㉢근주다. ㉣**전** 쨌 보나 마나 글과는 뻗헌 거여. 심이 루야 누가 그 사람허구 **전**줄 수 있겠어?

절그덕 ㉠ 절거덕 ㉡ 단단한 물건이 서로 들러붙거나 부딪치거나 소리. (센말)절그덕.

절그덕-거리다[-꺼-] ㉠ 절거덕-거리다 ㉡(자) 단단한 물건이 서로 들러붙거나 부딪치거나 소리가 잇달아 나다. (센말)절그덕거리다. ㉣**절그덕거리**년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애가 대문 빗장이 매맱기뒀구 있더면.

절그덕-절그덕 ㉠ 절거덕-절거덕 ㉡ '절그덕'.

절단-코[-탄-] ㉠ 결단-코(決斷-) ㉡ 어떤 경우라도 거어이. ㉢글단코. ㉣**절단코** 그런 일은 생기덜 앓을 거닝께 너머 극정허덜 말어라이.

절판 ㉠ 결판 ㉡ 고칠 수 없도록 망그

러진 상태. ㉣자봉들이 **절판**이 나서 못 쓰게 뒀유.

절판-나다 ㉠ 결판-나다 ㉡ ①물건이 망가져 손쓸 수 없게 되다. ㉣자봉들이 **절판**났으면 고치야 될 것 아니며. 완즌이 **절판**난 걸 오티기 고친대유? ②폭삭 망하다.

절판-내다 ㉠ 결단-내다 ㉡ ①물건을 완전히 못 쓰게 망가뜨리다. ㉣너 또 속 썩이른 니 장양감덜 죄다 **절판**내 버릴 겨. ②상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히다.

절박 ㉠ 결박(結縛) ㉡ '글박'. ㉣그 못된 놈이 순경헌티 **절박** 당허구 끌러가맨서두 히죽히죽 웃더라구.

절선[-썩] ㉠ 결선(決選) ㉡ '글선'. ㉣지왕 허닌 것 이참이 **절선**까장 히뼈려. 아녀, **절선**은 양중이 헐 겨. 급헌진 저짜인디 내가 왜 **절선**을 스둔다냐?

점-백이 ㉠ 점-박이(點-) ㉡ '표준어 화 과정: 즘백이>점백이>점박이'. 얼굴이나 몸에 큰 점이 있는 사람. 또는 점무늬가 있는 동물을 이르는 말. ㉢즘백이. ㉣**점백이**. ㉣**그** 이상하게 생긴 **점백이** 가이 는 오서 주서왔다? 원, 무식허긴. 이진 **점백이**가 아니라 그 유명한 뽀인티라던 사냥개여.

점손 ㉠ 겸손(謙遜) ㉡ '금손: 점손(구개음화/단모음화)'.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

추는 태도. ㉞금손. ㉞(자) 점손-허다.
 『사람이 점손할 중두 알아야지. 배가
 고개를 푹푹이 쳐들구 있으믄 빈 쪽징
 이잖여.

젊은-이 ㉞ 젊은-이 ㉞ 혈기가 왕성
 한 젊은 사람. ㉞젊은애. 『넌모리든 환
 갑인디 내가 이 동네서 질 젊은이여. 젊
 운이덜은 죄다 뜨구 시골은 인전 늙은
 이덜만 남어 지키구 있는 거지.

접 : 다[-따] ㉞ 겹 : 다 ㉞ 정도가 심
 하여 버터내기가 어렵다.

접-웃 [저본] ㉞ 겹-웃 ㉞ 숨을 넣지
 않고 거죽과 안을 겹쳐 만든 웃. ㉞금
 웃. ㉞홀웃. 『한줌이(한겨울애) 접웃이
 나 홀웃이나 출기는 일반이지.

접-짜 ㉞ 저-쪽 ㉞ '즈짜'. 『접짜
 이서 아까버텀 급하게 자널 찾던디 뭔
 일 난 모양이여. 그닝께 얼름 접짜이루
 가 봐./입짜은 우리 아덜이구 접짜은
 우리 손주여.

접-치기 ㉞ 겹-치기 ㉞ 둘 이상의 일
 을 한꺼번에 함. 또는 둘 이상의 일이
 중첩되게 함. 『일을 접치기루 말으믄
 워티간다? 접치기래두 접짜 일은 장관
 끝나넨 경께 그거 끝나구 스들르믄 되
 유. 그리두 접치기는 너머 약은 수 같은
 디?

젓 : -대 [젓 : 때] ㉞ ㉞ '젓:대'.
 『옛이 응겨불지 았더락 젓대루 젓구

있어라.

젓-섬 [젓섬] ㉞ 것-섬 ㉞ 겨를 담는,
 또는 담은 섬. ㉞젓가마.

정끼 ㉞ 경기(驚氣) ㉞〈한의학〉 어린
 아이가 풍(風)으로 인하여 갑자기 의식
 을 잃고 경련이 일으키는 병증. ㉞공끼.
 『애가 정끼를 허넨디두 냇두넨 부모가
 오딴냐? ㉞(자) 정끼-허다.

정쟁 ㉞ 경증(驚症) ㉞ 말이나 나귀
 따위의 짐승이 깜짝깜짝 자주 놀라는
 증세. 『소가 깜짝깜짝 놀라매 정쟁을
 허넨디 이를 오쩨다?

절-가쟁이 [절까-] ㉞ 결-가지 ㉞ '표
 준어화 과정: 글(側)+가지(枝)+-영어(접사)
 →글가쟁이(전설모음화)글가쟁이/절가쟁이
 /절가쟁이>글가지/절가지. 식물의 원줄기
 에서 옆으로 나온 작은 가지. 또는 일이
 나 현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비유. ㉞절가쟁이. 글가쟁이. 글가쟁이. 글
 가지. 절가지. 『낭구가 들구 마당이루
 뻗치너면. 절가쟁이를 점 쳐주야겠어./
 회 허다 말구 왜덜 얘기가 절가쟁이루
 만 새능 겨?

절-가징이 [절까-] ㉞ 결-가지 ㉞
 '절-가쟁이'. 『나무를 뻗듯하게 지를
 라믄 밭이 있넨 절가징이는 쳐주야 혀.

절-가지 [절까-] ㉞ 결-가지 ㉞
 '절-가쟁이'. 『즘이 절가질 안 쳐줬더
 니 가지덜이 막 엉겨붙었어.



절-눈[전-] ㉠ **결-눈** ㉡ '글눈→절눈 (구개음화)'. 얼굴은 돌리지 않고 눈동자만 **결**으로 하여 힐끗 쳐다보는 눈. ㉢ **옆눈**. ㉣ **윤눈**. ㉤ **불러두 절눈**이루 힐끗 허구본 책두 안허더면./츠다볼라든 똑피기 츠다보야지, 왜 죄진 놈마냥 **절눈**이루 츠다보능 겨?

절눈-질[전-] ㉠ **결눈-질** ㉡ '글눈질→절눈질(구개음화)'. 똑바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결눈**으로 힐끗 바라보거나, 눈치로 넌지시 알려주는 짓. ㉢ **글눈질**. ㉣ **옆눈질**. ㉤ **윤눈질**. ㉥ **암만 절눈질을** 히싸두 그 눈치없던 사람이 알아채달 못허더라구. ㉦(자/타) **절눈질-허다**. ㉧ **넘의 것 절눈질허지** 말구 니 일이나 신경써.

절눈 팔다[전-] ㉠ **결눈 팔다** (구문) 주의할 곳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판전을 피우다. ㉢ **근눈 팔다**. ㉣ **옆눈 팔다**. 판전 피다. ㉤ **들구 절눈 팔덜** 말구 허던 일이나 히여.

절-다리[전따-] ㉠ **결-다리** ㉡ '글다리→절다리(구개음화)'. 일의 본질이 되지 못하는, 부수적인 것. ㉢ **글다리**. ㉣ **그 사람은 절다리**여. 그러니까 고여니 그 낭반 좃어댕기매 **맘** 쓰덜 말어. **절다리** 잡구 빼약빼약 해봤자 **절다리**가 어매닭 되던 앓넌다낭께.

절-두리[전뚜-] ㉠ **결-두리** ㉡ '글/절(側)+두리(飲食)→절두리'. ㉢ '접밥'.

절-밥[전뺨] ㉠ **결-두리** ㉡ ㉢ '접밥'.

접-밥[-뺨] ㉠ **결-두리** ㉡ '글/절(側)+밥(食)→접밥' 접밥(변자음화).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 ㉢ **절밥**. ㉣ **절두리**. 참. 새참. ㉤ **농삿일이 접밥** 먹넌 재미두 읊으른 오쩨냐?/진진 해이 모꾼덜 시장허겄다. 싸게 **접밥** 내가자.

절-들이다[전뜨리-] ㉠ **결-들이다** ㉡ '글들이다→절들이다(구개음화)'. ㉢ **절들이다**(전설모음화). 어떤 음식에 다른 음식을 어울리게 내놓다. 또는 이미 하는 일에 다른 일을 만들어 함께 하다. ㉣ **절들이다**. **글들이다**. ㉤ **감자를** 먹을 땐 동치미를 **절들이야** 지격인다./콩 떨 적이 팻까장 **절들이서** 다 떨어뻬졌유.

절-딜이다[전띠리-] ㉠ **결-들이다** ㉡ ㉢ '절-들이다'. ㉣ **바쁜 손이**닝께 술상 밥상 따루 **딜이지** 말구 **절딜이서** 딜여가.

절-따르다[전-] ㉠ **결-따르다** ㉡(자/타) ①어떤 현상이 뒤이어 따라 일어나다. ②어떤 사람을 곁에서 따르다. ㉢ **글따르다**. ㉣ **할머니** 혼쳐 가시게 말구 느이가 **접** **절따르매** 살피디려라.

절-땀 ㉠ **절-땀** ㉡ '절(側,腋)+땀(汗)'.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 ㉣ **여름이**든 난 **절땀** 땀이 문제여. **냄새**두 나구 **심들**구면.

절-방[전뺨] ㉠ **결-방(-房)** ㉡ ㉢ '접방'의 원말.

절방-살이[전뺨-] ㉠ **셋방-살이(-房**

-) ㉠ ㉡ '접방살이'의 원말.

절 : -불[전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㟒 㟓 㟔 㟕 㟖 㟗 㟘 㟙 㟚 㟛 㟜 㟝 㟞 㟟 㟠 㟡 㟢 㟣 㟤 㟥 㟦 㟧 㟨 㟩 㟪 㟫 㟬 㟭 㟮 㟯 㟰 㟱 㟲 㟳 㟴 㟵 㟶 㟷 㟸 㟹 㟺 㟻 㟼 㟽 㟾 㟿 㠀 㠁 㠂 㠃 㠄 㠅 㠆 㠇 㠈 㠉 㠊 㠋 㠌 㠍 㠎 㠏 㠐 㠑 㠒 㠓 㠔 㠕 㠖 㠗 㠘 㠙 㠚 㠛 㠜 㠝 㠞 㠟 㠠 㠡 㠢 㠣 㠤 㠥 㠦 㠧 㠨 㠩 㠪 㠫 㠬 㠭 㠮 㠯 㠰 㠱 㠲 㠳 㠴 㠵 㠶 㠷 㠸 㠹 㠺 㠻 㠼 㠽 㠾 㠿 㡀 㡁 㡂 㡃 㡄 㡅 㡆 㡇 㡈 㡉 㡊 㡋 㡌 㡍 㡎 㡏 㡐 㡑 㡒 㡓 㡔 㡕 㡖 㡗 㡘 㡙 㡚 㡛 㡜 㡝 㡞 㡟 㡠 㡡 㡢 㡣 㡤 㡥 㡦 㡧 㡨 㡩 㡪 㡫 㡬 㡭 㡮 㡯 㡰 㡱 㡲 㡳 㡴 㡵 㡶 㡷 㡸 㡹 㡺 㡻 㡼 㡽 㡾 㡿 㢀 㢁 㢂 㢃 㢄 㢅 㢆 㢇 㢈 㢉 㢊 㢋 㢌 㢍 㢎 㢏 㢐 㢑 㢒 㢓 㢔 㢕 㢖 㢗 㢘 㢙 㢚 㢛 㢜 㢝 㢞 㢟 㢠 㢡 㢢 㢣 㢤 㢥 㢦 㢧 㢨 㢩 㢪 㢫 㢬 㢭 㢮 㢯 㢰 㢱 㢲 㢳 㢴 㢵 㢶 㢷 㢸 㢹 㢺 㢻 㢼 㢽 㢾 㢿 㣀 㣁 㣂 㣃 㣄 㣅 㣆 㣇 㣈 㣉 㣊 㣋 㣌 㣍 㣎 㣏 㣐 㣑 㣒 㣓 㣔 㣕 㣖 㣗 㣘 㣙 㣚 㣛 㣜 㣝 㣞 㣟 㣠 㣡 㣢 㣣 㣤 㣥 㣦 㣧 㣨 㣩 㣪 㣫 㣬 㣭 㣮 㣯 㣰 㣱 㣲 㣳 㣴 㣵 㣶 㣷 㣸 㣹 㣺 㣻 㣼 㣽 㣾 㣿 㤀 㤁 㤂 㤃 㤄 㤅 㤆 㤇 㤈 㤉 㤊 㤋 㤌 㤍 㤎 㤏 㤐 㤑 㤒 㤓 㤔 㤕 㤖 㤗 㤘 㤙 㤚 㤛 㤜 㤝 㤞 㤟 㤠 㤡 㤢 㤣 㤤 㤥 㤦 㤧 㤨 㤩 㤪 㤫 㤬 㤭 㤮 㤯 㤰 㤱 㤲 㤳 㤴 㤵 㤶 㤷 㤸 㤹 㤺 㤻 㤼 㤽 㤾 㤿 㥀 㥁 㥂 㥃 㥄 㥅 㥆 㥇 㥈 㥉 㥊 㥋 㥌 㥍 㥎 㥏 㥐 㥑 㥒 㥓 㥔 㥕 㥖 㥗 㥘 㥙 㥚 㥛 㥜 㥝 㥞 㥟 㥠 㥡 㥢 㥣 㥤 㥥 㥦 㥧 㥨 㥩 㥪 㥫 㥬 㥭 㥮 㥯 㥰 㥱 㥲 㥳 㥴 㥵 㥶 㥷 㥸 㥹 㥺 㥻 㥼 㥽 㥾 㥿 㦀 㦁 㦂 㦃 㦄 㦅 㦆 㦇 㦈 㦉 㦊 㦋 㦌 㦍 㦎 㦏 㦐 㦑 㦒 㦓 㦔 㦕 㦖 㦗 㦘 㦙 㦚 㦛 㦜 㦝 㦞 㦟 㦠 㦡 㦢 㦣 㦤 㦥 㦦 㦧 㦨 㦩 㦪 㦫 㦬 㦭 㦮 㦯 㦰 㦱 㦲 㦳 㦴 㦵 㦶 㦷 㦸 㦹 㦺 㦻 㦼 㦽 㦾 㦿 㧀 㧁 㧂 㧃 㧄 㧅 㧆 㧇 㧈 㧉 㧊 㧋 㧌 㧍 㧎 㧏 㧐 㧑 㧒 㧓 㧔 㧕 㧖 㧗 㧘 㧙 㧚 㧛 㧜 㧝 㧞 㧟 㧠 㧡 㧢 㧣 㧤 㧥 㧦 㧧 㧨 㧩 㧪 㧫 㧬 㧭 㧮 㧯 㧰 㧱 㧲 㧳 㧴 㧵 㧶 㧷 㧸 㧹 㧺 㧻 㧼 㧽 㧾 㧿 㨀 㨁 㨂 㨃 㨄 㨅 㨆 㨇 㨈 㨉 㨊 㨋 㨌 㨍 㨎 㨏 㨐 㨑 㨒 㨓 㨔 㨕 㨖 㨗 㨘 㨙 㨚 㨛 㨜 㨝 㨞 㨟 㨠 㨡 㨢 㨣 㨤 㨥 㨦 㨧 㨨 㨩 㨪 㨫 㨬 㨭 㨮 㨯 㨰 㨱 㨲 㨳 㨴 㨵 㨶 㨷 㨸 㨹 㨺 㨻 㨼 㨽 㨾 㨿 㩀 㩁 㩂 㩃 㩄 㩅 㩆 㩇 㩈 㩉 㩊 㩋 㩌 㩍 㩎 㩏 㩐 㩑 㩒 㩓 㩔 㩕 㩖 㩗 㩘 㩙 㩚 㩛 㩜 㩝 㩞 㩟 㩠 㩡 㩢 㩣 㩤 㩥 㩦 㩧 㩨 㩩 㩪 㩫 㩬 㩭 㩮 㩯 㩰 㩱 㩲 㩳 㩴 㩵 㩶 㩷 㩸 㩹 㩺 㩻 㩼 㩽 㩾 㩿 㪀 㪁 㪂 㪃 㪄 㪅 㪆 㪇 㪈 㪉 㪊 㪋 㪌 㪍 㪎 㪏 㪐 㪑 㪒 㪓 㪔 㪕 㪖 㪗 㪘 㪙 㪚 㪛 㪜 㪝 㪞 㪟 㪠 㪡 㪢 㪣 㪤 㪥 㪦 㪧 㪨 㪩 㪪 㪫 㪬 㪭 㪮 㪯 㪰 㪱 㪲 㪳 㪴 㪵 㪶 㪷 㪸 㪹 㪺 㪻 㪼 㪽 㪾 㪿 㫀 㫁 㫂 㫃 㫄 㫅 㫆 㫇 㫈 㫉 㫊 㫋 㫌 㫍 㫎 㫏 㫐 㫑 㫒 㫓 㫔 㫕 㫖 㫗 㫘 㫙 㫚 㫛 㫜 㫝 㫞 㫟 㫠 㫡 㫢 㫣 㫤 㫥 㫦 㫧 㫨 㫩 㫪 㫫 㫬 㫭 㫮 㫯 㫰 㫱 㫲 㫳 㫴 㫵 㫶 㫷 㫸 㫹 㫺 㫻 㫼 㫽 㫾 㫿 㬀 㬁 㬂 㬃 㬄 㬅 㬆 㬇 㬈 㬉 㬊 㬋 㬌 㬍 㬎 㬏 㬐 㬑 㬒 㬓 㬔 㬕 㬖 㬗 㬘 㬙 㬚 㬛 㬜 㬝 㬞 㬟 㬠 㬡 㬢 㬣 㬤 㬥 㬦 㬧 㬨 㬩 㬪 㬫 㬬 㬭 㬮 㬯 㬰 㬱 㬲 㬳 㬴 㬵 㬶 㬷 㬸 㬹 㬺 㬻 㬼 㬽 㬾 㬿 㭀 㭁 㭂 㭃 㭄 㭅 㭆 㭇 㭈 㭉 㭊 㭋 㭌 㭍 㭎 㭏 㭐 㭑 㭒 㭓 㭔 㭕 㭖 㭗 㭘 㭙 㭚 㭛 㭜 㭝 㭞 㭟 㭠 㭡 㭢 㭣 㭤 㭥 㭦 㭧 㭨 㭩 㭪 㭫 㭬 㭭 㭮 㭯 㭰 㭱 㭲 㭳 㭴 㭵 㭶 㭷 㭸 㭹 㭺 㭻 㭼 㭽 㭾 㭿 㮀 㮁 㮂 㮃 㮄 㮅 㮆 㮇 㮈 㮉 㮊 㮋 㮌 㮍 㮎 㮏 㮐 㮑 㮒 㮓 㮔 㮕 㮖 㮗 㮘 㮙 㮚 㮛 㮜 㮝 㮞 㮟 㮠 㮡 㮢 㮣 㮤 㮥 㮦 㮧 㮨 㮩 㮪 㮫 㮬 㮭 㮮 㮯 㮰 㮱 㮲 㮳 㮴 㮵 㮶 㮷 㮸 㮹 㮺 㮻 㮼 㮽 㮾 㮿 㯀 㯁 㯂 㯃 㯄 㯅 㯆 㯇 㯈 㯉 㯊 㯋 㯌 㯍 㯎 㯏 㯐 㯑 㯒 㯓 㯔 㯕 㯖 㯗 㯘 㯙 㯚 㯛 㯜 㯝 㯞 㯟 㯠 㯡 㯢 㯣 㯤 㯥 㯦 㯧 㯨 㯩 㯪 㯫 㯬 㯭 㯮 㯯 㯰 㯱 㯲 㯳 㯴 㯵 㯶 㯷 㯸 㯹 㯺 㯻 㯼 㯽 㯾 㯿 㰀 㰁 㰂 㰃 㰄 㰅 㰆 㰇 㰈 㰉 㰊 㰋 㰌 㰍 㰎 㰏 㰐 㰑 㰒 㰓 㰔 㰕 㰖 㰗 㰘 㰙 㰚 㰛 㰜 㰝 㰞 㰟 㰠 㰡 㰢 㰣 㰤 㰥 㰦 㰧 㰨 㰩 㰪 㰫 㰬 㰭 㰮 㰯 㰰 㰱 㰲 㰳 㰴 㰵 㰶 㰷 㰸 㰹 㰺 㰻 㰼 㰽 㰾 㰿 㱀 㱁 㱂 㱃 㱄 㱅 㱆 㱇 㱈 㱉 㱊 㱋 㱌 㱍 㱎 㱏 㱐 㱑 㱒 㱓 㱔 㱕 㱖 㱗 㱘 㱙 㱚 㱛 㱜 㱝 㱞 㱟 㱠 㱡 㱢 㱣 㱤 㱥 㱦 㱧 㱨 㱩 㱪 㱫 㱬 㱭 㱮 㱯 㱰 㱱 㱲 㱳 㱴 㱵 㱶 㱷 㱸 㱹 㱺 㱻 㱼 㱽 㱾 㱿 㲀 㲁 㲂 㲃 㲄 㲅 㲆 㲇 㲈 㲉 㲊 㲋 㲌 㲍 㲎 㲏 㲐 㲑 㲒 㲓 㲔 㲕 㲖 㲗 㲘 㲙 㲚 㲛 㲜 㲝 㲞 㲟 㲠 㲡 㲢 㲣 㲤 㲥 㲦 㲧 㲨 㲩 㲪 㲫 㲬 㲭 㲮 㲯 㲰 㲱 㲲 㲳 㲴 㲵 㲶 㲷 㲸 㲹 㲺 㲻 㲼 㲽 㲾 㲿 㳀 㳁 㳂 㳃 㳄 㳅 㳆 㳇 㳈 㳉 㳊 㳋 㳌 㳍 㳎 㳏 㳐 㳑 㳒 㳓 㳔 㳕 㳖 㳗 㳘 㳙 㳚 㳛 㳜 㳝 㳞 㳟 㳠 㳡 㳢 㳣 㳤 㳥 㳦 㳧 㳨 㳩 㳪 㳫 㳬 㳭 㳮 㳯 㳰 㳱 㳲 㳳 㳴 㳵 㳶 㳷 㳸 㳹 㳺 㳻 㳼 㳽 㳾 㳿 㴀 㴁 㴂 㴃 㴄 㴅 㴆 㴇 㴈 㴉 㴊 㴋 㴌 㴍 㴎 㴏 㴐 㴑 㴒 㴓 㴔 㴕 㴖 㴗 㴘 㴙 㴚 㴛 㴜 㴝 㴞 㴟 㴠 㴡 㴢 㴣 㴤 㴥 㴦 㴧 㴨 㴩 㴪 㴫 㴬 㴭 㴮 㴯 㴰 㴱 㴲 㴳 㴴 㴵 㴶 㴷 㴸 㴹 㴺 㴻 㴼 㴽 㴾 㴿 㵀 㵁 㵂 㵃 㵄 㵅 㵆 㵇 㵈 㵉 㵊 㵋 㵌 㵍 㵎 㵏 㵐 㵑 㵒 㵓 㵔 㵕 㵖 㵗 㵘 㵙 㵚 㵛 㵜 㵝 㵞 㵟 㵠 㵡 㵢 㵣 㵤 㵥 㵦 㵧 㵨 㵩 㵪 㵫 㵬 㵭 㵮 㵯 㵰 㵱 㵲 㵳 㵴 㵵 㵶 㵷 㵸 㵹 㵺 㵻 㵼 㵽 㵾 㵿 㶀 㶁 㶂 㶃 㶄 㶅 㶆 㶇 㶈 㶉 㶊 㶋 㶌 㶍 㶎 㶏 㶐 㶑 㶒 㶓 㶔 㶕 㶖 㶗 㶘 㶙 㶚 㶛 㶜 㶝 㶞 㶟 㶠 㶡 㶢 㶣 㶤 㶥 㶦 㶧 㶨 㶩 㶪 㶫 㶬 㶭 㶮 㶯 㶰 㶱 㶲 㶳 㶴 㶵 㶶 㶷 㶸 㶹 㶺 㶻 㶼 㶽 㶾 㶿 㷀 㷁 㷂 㷃 㷄 㷅 㷆 㷇 㷈 㷉 㷊 㷋 㷌 㷍 㷎 㷏 㷐 㷑 㷒 㷓 㷔 㷕 㷖 㷗 㷘 㷙 㷚 㷛 㷜 㷝 㷞 㷟 㷠 㷡 㷢 㷣 㷤 㷥 㷦 㷧 㷨 㷩 㷪 㷫 㷬 㷭 㷮 㷯 㷰 㷱 㷲 㷳 㷴 㷵 㷶 㷷 㷸 㷹 㷺 㷻 㷼 㷽 㷾 㷿 㸀 㸁 㸂 㸃 㸄 㸅 㸆 㸇 㸈 㸉 㸊 㸋 㸌 㸍 㸎 㸏 㸐 㸑 㸒 㸓 㸔 㸕 㸖 㸗 㸘 㸙 㸚 㸛 㸜 㸝 㸞 㸟 㸠 㸡 㸢 㸣 㸤 㸥 㸦 㸧 㸨 㸩 㸪 㸫 㸬 㸭 㸮 㸯 㸰 㸱 㸲 㸳 㸴 㸵 㸶 㸷 㸸 㸹 㸺 㸻 㸼 㸽 㸾 㸿 㹀 㹁 㹂 㹃 㹄 㹅 㹆 㹇 㹈 㹉 㹊 㹋 㹌 㹍 㹎 㹏 㹐 㹑 㹒 㹓 㹔 㹕 㹖 㹗 㹘 㹙 㹚 㹛 㹜 㹝 㹞 㹟 㹠 㹡 㹢 㹣 㹤 㹥 㹦 㹧 㹨 㹩 㹪 㹫 㹬 㹭 㹮 㹯 㹰 㹱 㹲 㹳 㹴 㹵 㹶 㹷 㹸 㹹 㹺 㹻 㹼 㹽 㹾 㹿 㺀 㺁 㺂 㺃 㺄 㺅 㺆 㺇 㺈 㺉 㺊 㺋 㺌 㺍 㺎 㺏 㺐 㺑 㺒 㺓 㺔 㺕 㺖 㺗 㺘 㺙 㺚 㺛 㺜 㺝 㺞 㺟 㺠 㺡 㺢 㺣 㺤 㺥 㺦 㺧 㺨 㺩 㺪 㺫 㺬 㺭 㺮 㺯 㺰 㺱 㺲 㺳 㺴 㺵 㺶 㺷 㺸 㺹 㺺 㺻 㺼 㺽 㺾 㺿 㻀 㻁 㻂 㻃 㻄 㻅 㻆 㻇 㻈 㻉 㻊 㻋 㻌 㻍 㻎 㻏 㻐 㻑 㻒 㻓 㻔 㻕 㻖 㻗 㻘 㻙 㻚 㻛 㻜 㻝 㻞 㻟 㻠 㻡 㻢 㻣 㻤 㻥 㻦 㻧 㻨 㻩 㻪 㻫 㻬 㻭 㻮 㻯 㻰 㻱 㻲 㻳 㻴 㻵 㻶 㻷 㻸 㻹 㻺 㻻 㻼 㻽 㻾 㻿 㼀 㼁 㼂 㼃 㼄 㼅 㼆 㼇 㼈 㼉 㼊 㼋 㼌 㼍 㼎 㼏 㼐 㼑 㼒 㼓 㼔 㼕 㼖 㼗 㼘 㼙 㼚 㼛 㼜 㼝 㼞 㼟 㼠 㼡 㼢 㼣 㼤 㼥 㼦 㼧 㼨 㼩 㼪 㼫 㼬 㼭 㼮 㼯 㼰 㼱 㼲 㼳 㼴 㼵 㼶 㼷 㼸 㼹 㼺 㼻 㼼 㼽 㼾 㼿 㽀 㽁 㽂 㽃 㽄 㽅 㽆 㽇 㽈 㽉 㽊 㽋 㽌 㽍 㽎 㽏 㽐 㽑 㽒 㽓 㽔 㽕 㽖 㽗 㽘 㽙 㽚 㽛 㽜 㽝 㽞 㽟 㽠 㽡 㽢 㽣 㽤 㽥 㽦 㽧 㽨 㽩 㽪 㽫 㽬 㽭 㽮 㽯 㽰 㽱 㽲 㽳 㽴 㽵 㽶 㽷 㽸 㽹 㽺 㽻 㽼 㽽 㽾 㽿 㿀 㿁 㿂 㿃 㿄 㿅 㿆 㿇 㿈 㿉 㿊 㿋 㿌 㿍 㿎 㿏 㿐 㿑 㿒 㿓 㿔 㿕

조 : 래미-질 [쫘 조 : 리-질(笊籬-)]
 [쫘] ⇨ '조랭이질'.

조 : 랭이 [쫘 조 : 리(笊籬) [쫘] '조릭(笊籬)+ㅇ(첨가음)+-이(접사)'. 때나무나 싸리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쌀을 이는 도구. [쫘]조래미. ※'조랭이'와 '조래미': '조랭이'의 쓰임 빈도가 높지만, 변별력이 없이 함께 쓰임. [쫘]이즌이는 황애장수털이 조랭이 팔러두 많이 땡겼으면 시방이야 누가 조랭이 쓰남? 우리 어렸을 적인 대조랭이랑 쇠조랭이를 많이 썼지만, 독 골르던 기계 나오구 나선 조랭이 귀경 통 못혔어.

조 : 랭이-질 [쫘 조 : 리-질(笊籬-)]
 [쫘] ①곡식 알갱이를 물에 담근 뒤에 조리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내는 일. [쫘]여서는 기냥 조랭이질을 헨다구덜 허지, 조래미질이러구는 잘 안 혀. ②마구 일렁거리거나 흔들림을 빗대어 이르는 말. [쫘]애를 들구 그렇기 조랭이질을 허다 다치른 워쩨라구려?

조선-것[-꺼] [쫘 [쫘] '조선(朝鮮)+ㅅ+ㅈ(者)'. ①(두 낱말)우리나라(朝鮮)의 것.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 [쫘]일정 때닌 조선 것 다 뻗겼어. 땅 뻗어가구 말 뻗어가구, 야중인 존장헌다구 소도방버팁 낯수갈, 낯저범, 낯요강까장 조선 것은 남아난 게 읍다녕께. ②(복합어) ①의 뜻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의 온갖 것'을 이르는 말. [쫘]넘덜헌티 조선

것 다 퍼주른 우린 뭘 먹구 산대유?/그가게인 읍넌 게 읍더면, 조선것이 다 있더랑께./여가 씨레기장이유? 쓰두 못헐 조선것 다 덜어노른 집안이 뭐가 되남유?

조스다 [쫘 쫘다 [쫘(타) ⇨ '쫘다'.

쫘-차람 [쫘 쫘-처럼 [쫘] 어지간해서 는. 전혀. [쫘]쫘체. [쫘]뭘 일이 있긴 있던 모냥인디 쫘차람 입을 열들 았으니 알 수가 읍지./그집 애가 장사를 헨다군 허넌 모냥인디 쫘차람 돈은 안 되나 봐유.

쫘쫘-허다[-쫘퍼-] [쫘 비 : -쫘다/옹색-하다(壅塞-) [쫘] ⇨ '쫘쫘허다'. [쫘]이렇기 쫘쫘헌디 모여서니 뭇덜 허구 있는가?

쫘-딱 [쫘 조-쪽 [쫘] '조(彼)+딱?(隻/方)→쫘딱)쫘딱'. 요쪽에 마주한 조금 떨어진 곳. [쫘]쫘쪽. [쫘]쫘딱이 자리가 하나났구면, 얼릉 가서 안저라./쫘딱이 가서니 먹구 싶은 거 집어 먹어.

쫘-대가리 [쫘대-] [쫘 쫘 [쫘] '쫘(男根)+대가리(頭)'. ⇨ '쫘대감지'.

쫘-대감지 [쫘대-] [쫘 쫘 [쫘] '쫘(男根)+대가리(頭)+-암지(접사)'. 남자 성인의 성기를 가리키는 비속어. [쫘]쫘대가리. [쫘]송악헌 늑덜은 쫘대감지를 뻗어뻗어야 혀.

쫘-물 [쫘-] [쫘 정액(精液) [쫘]〈의학〉 ⇨ '정액'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죄 : ㉠ 모두 ㉡ 빠짐없이. 남김없이.
㉢죄다. ㉣ 좋은 것은 죄 골러가구 찌끄
래기만 냉겼 냐구면./오전 중이루 버러
지 먹은 것덜은 죄 골러내더락 혀./청
솔 여럿이 허랏더니 죄 내빼구 너만 남
은 겨?

주먹 ㉠ 바위 ㉡ 가위바위보를 할 때,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동작. ㉢보자.
가새. ㉣ 주먹이루 이기믄 열 발짝 가구,
가새루 이기믄 두 발짝 가는 겨./쟈가
주먹을 낼 거 걸으믄 넌 보자를 내믄
되여.

주물르다 ㉠ 주무르다 ㉡(타) 손으로
무엇을 만지작거리거나, 무엇을 제 마
음대로 다루다. ㉣ 떡 주물르듯 혀다.(무
엇을 마음먹은 대로 다루다.)/그러다가니
애를 주물러 터치겼구면.

주발-깨 ㉠ 주발-뚜껑 ㉡ '밥주발
깨'. ㉣ 승질 드런 노랭이가 던져두 푹
사발뚜껑이 냅두구 주발깨를 던진다닝께.

주춧-돌 [-추뚝/출뚝] ㉠ 주춧-돌 ㉡
〈건축〉 '주춧(礎)+사+돌(石)→주춧돌'. 건
물의 기둥 밑에 괴는 돌. ㉣ 신암이 화
순옹주 증려문 뒤인 주춧돌만 서 있던
디 복원은 온제 현다?

줄-검데기 ㉠ ㉡ '줄검데기'. ㉣
줄검데긴 뱃겼으믄 버러야지 꺾다(겨기
다가) 싸노믄 오쩨다?

줄-꺾데기 ㉠ ㉡ 줄기의 꺾질 ㉢ '줄

검데기'.

중-도막 [-또-] ㉠ 가운데 도막 ㉡
동강이 여럿 이어져 있는 것에서, 가운
데나 그쯤에 있는 동강. ㉢중토막. ㉣ 끝
차는 놔두구 중도막만 빼내믄 쓰겼구
면. 중도막버듬은 앞차를 빼내넌 게 더
나슬 건디유?

중-토막 ㉠ 가운데 도막 ㉡ '중도막'.

즈-것 [-걸] ㉠ 저-것 ㉡ '더것(彼者)→
즈곳>즈그/즈것/지것'. ①(지시) 말을 주
고 받는 이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 ㉢즈그, 즈곳. ㉣
즈것이 뭇이랏?/뵈기싫다넌디 왜 들구 즈
것을 집안이루 끌어덜인디니? ②(인칭)
'저 사람'을 낮잡아 이르거나, 어린 아
이를 가볍게 이르는 말. ㉢즈그, 즈곳.
※'즈그'의 쓰임 빈도는 낮은 편이고, '즈것'
의 쓰임 빈도가 높다. ㉣ 즈것덜이 농깁이
뵈넌 게 읍넌 모양이구면, 아닌 말루 말
여. 즈것덜이 멀 안 다구 나스난 말여.
나스길./난 즈것덜만 보믄 이뻐 죽겼어.

즈 : 공 ㉠ 저 : 공(低空) ㉡ 지면이나
수면에 가까운 낮은 하늘. ㉢고공(高空)
㉣ 제트기 편대가 즈공이루 날어간다.

즈 : 공-비행 ㉠ 저 : 공-비행(低空飛
行) ㉡ 항공기가 아주 낮게 나는 일. ㉣
농업용 비행기가 즈공비행이루 날러땡
기매 들판이다가 농약을 살포허였다.

즈 : 공-폭격 [-격] ㉠ 저 : 공-폭격

㉠ 폭격기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아니하도록 낮게 날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

즈그 ㉡ 저-것/저희 ㉢ ㉣ '즈것'. ※ 1960년대 이전에도 '즈그'가 단독형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 현재는 대부분 '즈이'로 교체되었고, '즈그덜, 즈그네'처럼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가 남아 쓰이고 있다. ㉠ '즈그가 뭐디 나헌티 머라 허녕겨?'→'즈이가 뭐디 나헌티 머라 허녕겨?'/즈그가 며 형 게 있다구 여 와서니 짜웃그린다? 즈그두 멘목이 읊으니까 그러년 게지, 며.

즈그-네 ㉡ 저희-네 ㉢ ㉣ '즈이덜'. ㉠ '조용헌 거 보니까 즈그네가 암체두 쫓리년 게 있는게 며./즈그네두 심드니까 우덜헌티 부탁허녕 거 아니겠남?

즈그-덜 ㉡ 저것-들 ㉢ ㉣ '즈이덜'. ㉠ '즈그덜이 뭐디 넘어 집안 일이 짜들라구 허능 겨?'/즈그덜두 다 생각이 있어 허녕 일일 테니까 스들덜 말구 점넙뒤 봐.

즈긱[-긱] ㉡ 저-것 ㉢ ㉣ '즈것'.

즈 : -내¹ ㉡ 겨우-내 ㉢ '즐(冬)+-내(접사)→즐:내'즈:내. 겨울의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 '즈내 답답하게 방구석 이만 기시덜 말구 운동이락두 점 허구 그리보슈./즈내 사내기만 봤더니 손바당이 맨질맨질히졌어./자네 조분님은 즈내 꿩안이 지내셨는가?

즈 : 당 ㉡ 저 : 당(抵當) ㉢ ㉣ ①맞서서 겨룸. ②볼모로 삼음. ③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힘. ㉠ '판 즈당이 있으면 농사처를 담보로 했겠는가? 암치기히두 땅을 즈당이로 내년 건 농부로서 헐 일이 아닌 겨.'

즈 : 당-권[-권] ㉡ 저 : 당-권(抵當權) ㉢ <법률>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무자에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은행이 늘 즈당권 1순위라잖어. 얼릉 확증일자라두 받으뒤.'

즈 : 당권-자[-권자] ㉡ 저 : 당권-자(抵當權者) ㉢ <법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아 두고 있는 사람.

즈 : 당-물 ㉡ 저 : 당-물(抵當物) ㉢ <법률>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물건.

즈-따 ㉡ 저기-에다가 (구문) '즈기/저기(彼所)+이다가(조사)→즈기다가/저기다가'즈따가/저따가가 줄어든 말. ㉠ '입짝 밧둑이다 심구문 그늘찌니까 그냥구는 즈따 심으터락 혀./비가 올 것 같으니 즈따 냅버려뒤두 괜찮겠유?'

즈-따가 ㉡ 저기-에다가 (구문) ㉣ '즈따'. ㉠ '즈따가 두구서니 왜 들구 탄 소리랴?'

즈리다 ㉡ 저리다 ㉢ '즈리다'저리다'.



①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둔해지고 아리다. ㉔저리다. ㉑애헌티 팔버개를 오라 해줬더니 팔이 다 **즈리네**. /쫄구리 구 얹어 일허다 보문 다리가 **즈려** 못 일어나졌어. ②몸이나 마음이 몹시 아프다. ㉔저리다. ㉑느이만 보문 난 가심 한짝이 **즈려와** 이눔덜야.

즈 : 변 ㉑ ㅈ : 변(底邊) ㉑ '표준화 과정: ㅈ:븐>ㅈ:변>ㅈ:변'. ①어떤 대상의 아랫부분. '밑바닥'으로 순화. ②한 분야의 밑바탕을 이루는 부분. ㉔즈븐. ㉑먼 일을 벌릴라든 먼침 **즈변버터** 가꿔놔야 쓰능 겨.

즈 : 븐 ㉑ ㅈ : 변(底邊) ㉑ '즈변'.

즈 : 속 ㉑ ㅈ : 속(低速) ㉑ 느린 속도. ㉔즈속도. ㉑눈이 올 땐 **즈속이루** 촌촌히 운전히야 되능 겨.

즈 : -속도 [-도] ㉑ ㅈ : -속도(低速度) ㉑ 느린 속도. ㉔즈속.

즈 : 속-성 [-속성] ㉑ ㅈ : -속성(低俗性) ㉑ 품위가 낮고 속된 성질.

즈 : 술 ㉑ ㅈ : 술(著述) ㉑ 글이나 책을 쓰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이나 책. ㉑(타) ㅈ : 술-허다. ㉑그리두 **즈술헌** 것이 뭇 권이나 되야 상신을 허던지 말던지 험 것 아녀.

즈 : 술-가 ㉑ ㅈ : 술-가(著述家) ㉑ 글이나 책 따위를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㉑책 한 권 내구 **즈술가입네**

떠드는 건 뭇 경우어.

즈 : 술-자 [-짜] ㉑ ㅈ : -술-자(著述者) ㉑ 글이나 책을 쓴 사람. 지은이.

즈스다 ㉑ ㅈ : 다 ㉑(타) ㉑ '젓:다'.

즈 : 습 ㉑ ㅈ : 습(低濕) ㉑ 땅이 낮고 축축함. ㉔즈습지.

즈 : 음 ㉑ ㅈ : 음(低音) ㉑ 낮은 소리. ㉔저음. ㉑가는 목소리가 참 **즈음**이여. 먼 소리여? 개 목소린 **즈음**이 아니라 허스킨 겨. 쉰 목소리란 말여.

즈 : 음-계 [-계/-계] ㉑ ㅈ : 음-계(低音階) ㉑ 낮은 음들로 이루어진 음계.

즈 : 음-부 ㉑ ㅈ : 음-부(低音部) ㉑ 낮은음에 속하는 성부(聲部)나 음부(音部).

즈이 ㉑ ㅈ희 ㉑ '더(自)+희(접사)→즈희>즈이'. ①(1인칭) '우리'를 낮추어 이르는 말. ㉑나머지 일은 **즈이덜**이 다 알아서 험 탕계 으르신덜은 그만 돌아가 쉬슈. ②(3인칭) 앞서 이야기한 그 사람들. ㉔즈히. ㉔즈그. ㉑**즈이**가 뭇 잘헌 게 있다구 큰 소릴 치너난 말여.

즈 : 작 ㉑ ㅈ : 작(著作) ㉑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음. 또는 그 책이나 작품. ㉑**즈작**같은 소리 허구 자빠졌네. 가의 **즈작**이라고 헤봐야 같잖은 시집 한 권 뿐인디 뭇 그려.

즈 : 작-권 [-권] ㉑ ㅈ : 작-권(著作權) ㉑<법률>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

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그렇기 넘어 글을 베끼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던 일이닝께 조심혀.

즈 : 작권-법 [-권법] ㉠ 저 : 작권-법 (著作權法) ㉡ <법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법률.

즈 : 작권-자 [권-] ㉠ 저 : 작권-자 (著作權者) ㉡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즈 : 작-물 [-장-] ㉠ 저 : 작-물(著作物) ㉡ 사상이나 연구 결과, 문예 작품 따위를 책으로 펴낸 것.

즈 : 작-자 [-짜] ㉠ 저 : 작-자(著作者) ㉡ 글이나 책을 지은 사람.

즈 : 장 ㉠ 저 : 장(貯藏) ㉡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함. ¶과실이나 곡물은 즈장 기간이 지가끔 달르다.

즈 : 장-고 ㉠ 저장-고(貯藏庫) ㉡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하여 두는 창고. ¶사과 즈장고가 모잘려서 이참이 한 동 더 짓기루 했네.

즈 : 장-량 [-량] ㉠ 저 : 장-량(貯藏量) ㉡ 간수하고 있는 물건의 양이나 간수할 수 있는 용량. ¶시방 남아있던 즈장량이 오찌 되년감? 물건을 다 빼서 니 인전 거진 창고가 뵈구먼유.

즈 : 장-미 ㉠ 저 : 장-미(貯藏米) ㉡

<경제> 쌀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나 개인이 저장하는 쌀. ¶증부 즈장미가 넘쳐서니 베매상을 줄인 다니 큰일났구먼.

즈 : 장-법 [-법] ㉠ 저 : 장-법(貯藏法) ㉡ '즈장법'.

즈 : 장-법 [-법] ㉠ 저 : 방-법(貯藏法) ㉡ 물건을 상하지 아니하게 간수하는 방법. ¶요즘은 즈장법이 발달해서 멧 달 뒤두 사과가 싱싱하다니께유.

즈 : 장-실 ㉠ 저 : 장-실(貯藏室) ㉡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하는 데 쓰는 방.

즈 : 장-품 ㉠ 저 : 장-품(貯藏品) ㉡ 저장하는 물품. 또는 저장하는 생산품.

즈절루 ㉠ 저절로 ㉡ '제절로'.

즈-참 ㉠ 관심 밖 ㉡ '저참'.

즈치다 ㉠ 젓히다 ㉡(타) '제치다'

즈 : 항 ㉠ 저 : 항(抵抗) ㉡ ①어떤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 ¶즈항 세력이 출흔(出現)허다. ② <경제> 주가의 오름세가 매도 세력에 의하여 견제되는 일. ¶즈항-기. 즈기-즈항. ③<물리>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즈 : 항-허다. ¶간양리 풀푸장 근슬이는 주민덜이 만만찮게 즈항허구 있유.

즈 : 항-감 ㉠ 저 : 항-감(抵抗感) ㉡



①육체적, 정신적으로 저항당하는 느낌. ②어떤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고 싶은 기분. 『암체두 그런 일이는 **즈항감이** **웁잖어** 있지.

즈 : 항-계 ㄷ 저 : 항-계(抵抗計) ㄷ <전기> **웁(Ω)**을 단위로 하여 회로의 전기 저항을 재는 계기.

즈 : 항-력[-녁] ㄷ 저 : 항-력(抵抗力) ㄷ 질병이나 병원균 따위를 견뎌내는 힘. ㄷ**즈항력**. 『몸이 약헌 노인네 **덜은** **즈항력이** 약허서 감기두 폐렴(肺炎)되던 겨.

즈 : 항-력[-늑] ㄷ 저 : 항-력(抵抗力) ㄷ ㄷ**즈항력**.

즈 : 항-선 ㄷ 저 : 항-선(抵抗線) ㄷ ①강한 적에, 일단 후퇴한 뒤에 반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의 공격을 막는 전선. ②<경제> 주가의 상승이 저항을 받는 지수선

즈 : 항-운동 ㄷ 저 : 항-운동(抵抗運動) ㄷ 정치적인 압력이나 외국의 지배 따위에 맞서 싸우는 민중 운동. 『1980년대 민중들의 **즈항운동**이루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큰 **진즌(進展)**을 이뤘다.

즈 : 항-체 ㄷ 저 : 항-체(抵抗體) ㄷ <물리> 저항기나 저항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즉글 ㄷ **즉결**(卽決) ㄷ 그 자리에서 결정함, 『**즉글** **츠분**. **즉글** 재판.

즉절[-썰] ㄷ **적절**(適切) ㄷ '표준어화 과정: **즉즐>즉절>적절**. 꼭 알맞음. ㄷ**즉즐**. ㄷ **즉절-허다**. 『너머 무리허덜 말구 **즉절허게** 운동량을 조졸혀, 사흘헐 운동을 하루이 다히 봐, 그 몸이 배기 나?

즉절-성[-썩] ㄷ **적절-성**(適切性) ㄷ '즉즐>즉절성'. 꼭 알맞은 성질. ㄷ**즉즐승**.

즉접[-쩍] ㄷ **직접**(直接) ㄷ '즉접>직접'.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넙**덜 시키지 말구 **느이가** **즉접** 가거라./이건 내가 **즉접** 농사진 겨여. ㄷ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관계.

즉정-가[-정까] ㄷ **적정-가**(適正價) ㄷ 원가를 알맞게 계산하여 정한 값. ㄷ**즉증가**. 『**즉정가**라던 게 있넝디, 그렇게 값을 후려치믄 우덜은 뭘 먹구 살란 것이여?

즉정-성[-썩썩] ㄷ **적정-성**(適正性) ㄷ 알맞고 바른 특성. ㄷ**즉증승**. 『제도란 게 다 그 나라마두 **즉정성**을 고려허서 맹글어진 것 아닌것넝? 근디 왜 자꾸 서양 것만 따러갈라구 허넝지 물르 겠다넝께.

즉정-허다[-정-] ㄷ **적정-허다**(適正-) ㄷ '표준어화 과정: **즉증허다>즉정허다>적정허다**. 바르고 알맞은 정도. ㄷ**즉증허다**. 『시세두 **즉정허구** 요집 같은믄 배차 농사두 지을 맛 나지, 암.

즉절[-찢] ㉞ 적절(適切) ㉞ '즉절'.

즉절-성[-펼성] ㉞ 적절-성(適切性) ㉞ '즉절성'.

즉증-가[-쯔까] ㉞ 적정-가(適正價) ㉞ '즉증가'.

즉증-승[-쯔쌩] ㉞ 적정-성(適正性) ㉞ '즉적성'.

즉증-허다[-쯔-] ㉞ 적정-하다(適正-) ㉞ '즉정허다'.

즉혈[즈결] ㉞ 적혈(赤血) ㉞ 붉은 피. ㉞ 즉출.

즉-혈구[즈결-] ㉞ 적혈구(赤血球) ㉞ '즉출구'즉혈구.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붉은색의 고형 성분. ㉞ 즉출구.

즉-출구[즈출-] ㉞ 적혈구(赤血球) ㉞ '즉혈구'.

즌갈² ㉞ 전갈(全蠍) ㉞ <동물> 전갈목 전갈과의 절지동물. ㉞ 누가 그림을 보여주길래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가재구나 했더니, 그게 즈갈이란 놈이라더라. 그러구 그 즈갈이란 게 가재랑 일가가 아니구 그미랑 일가라.

즌갈-자리 ㉞ 전갈-자리(全蠍-) ㉞ <친분> 궁수자리의 서쪽에 있는 'S'자 모양의 별자리.

즌갈-과[-과] ㉞ 전갈-과(全蠍科) ㉞ <동물> 거미강 전갈목의 한 과. ㉞ 전갈과.

즌 : 격[-격] ㉞ 전 : 격(電擊) ㉞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침. ㉞ 즈극. ㉞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자마자 사측(社側)은 공장을 즈격 폐쇄하였다.

즌 : 격-적[-격쩍] ㉞ 전 : 격-적(電擊的) ㉞ '표준어화 과정: 즈극적[즌꼭쩍]> 즈격적[즌격쩍]> 전격적[전격쩍]'.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또는 그런 것. ㉞ 즈극적. ㉞ 즈격적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는 즈격적이루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다.

즌 : 격-전[-격쩐] ㉞ 전 : 격-전(電擊戰) ㉞ <군사> 적의 저항을 급속히 분쇄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기동과 기습을 최대한 활용하는 싸움. ㉞ 즈극전.

즌 : 고 ㉞ 전 : 고(戰鼓) ㉞ 예전에, 전투할 때에 치던 북.

즌 : 골 ㉞ 전 : 골 ㉞ 잘게 썬 고기에 양념, 채소, 버섯, 해물 따위에 국물을 부어 끓인 음식. ㉞ 입맛 읊으른 버섯 즈골이 오따까? 내가 선하게 즈골 잘 허던 집 아니다.

즌 : 동 ㉞ 전 : 동(電動) ㉞ 전기로 움직이는 것. 또는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것. ㉞ 즈동 모다(motor)를 구헐라든 오디루 가야 한다?

즌 : 동-기 ㉞ 전 : 동-기(電動機) ㉞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



계. 『**존동기**를 고쳐준대더니 고치길랑 사리 아주 절단을 냈구먼.

존 : 략[즐-] ㉠ 전 : 략(戰略) ㉡ ①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나 책략. 『**존략**이 관현 고전(古典)이라 문 육도허구 삼략, 손오봉서를 최고루 친다닝께. ②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책략. 『**사**은 **존략**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남? **존략**을 다시 한 번 금토(檢討)히 보자구.

존 : 략가[즐-까] ㉠ 전 : 략-가(戰略家) ㉡ 전략을 세우는 데 능한 사람. 『**존쟁**시가 아니래두 **존략가**는 필요헌겨. 봐, 오디던지 기확실이란 디가 있잖남? 거서 일허던 사람덜이 시방의 **존략간**겨.

존 : 략-산업[즐-싸넵] ㉠ 전 : 략-산업(戰略産業) ㉡ '표준어화 과정: 존략산업<존략산업>전략산업'.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

존령[즐-] ㉠ 전령(傳令) ㉡ ① 명령이나 훈령, 고시. 또는 그것을 전하여 보냄. 『**존령**을 내리다. **존령**을 받다. ② 명령을 전하는 사람. ㉢존릉.

존령-병[즐-] ㉠ 전령-병(傳令兵) ㉡ '존릉병<존령병'. 부대와 부대 사이의 명령이나 문서 전달을 맡은 병사. ㉢존릉병.

존매-청 ㉠ 전매-청(專賣廳) ㉡<법

률> 예전에, 담배나 인삼 따위를 전매하는 사무를 맡아보던 행정 기관. 『**자네** 생일이 **존매청**이 땡긴다매?

존문¹ ㉠ 전문(專門) ㉡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또는 그런 분야. 『**그** 집은 **칼국수**만 **존문**이루 허네티 맛이 참 기땡차.

존문-가 ㉠ 전문-가(專門家) ㉡ 어떤 분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존문가**두 아닌 **높**이 **뻘**디기 **앞**이서 **주름**잡구 있구먼.

존문-의 ㉠ 전문-의(專門醫) ㉡<의학> 의학의 일정한 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자꾸** **뵈** **키우**덜 **말구** **얼릉** **존문의**헌티 **가**봐./**요**짐은 **외과** **존문의**가 **즉**어서니 **급**헌 **수술** **환자**덜두 **수술**을 **지**때 **못** **받**넨 **증**우가 **많**다.

존문-적 ㉠ 전문-적(專門的) ㉡ '전문적<전문적>'. 어떤 분야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요**새 **존문적** 지식 **웁**으면 **취**직두 **심**들다. ㉢ 어떤 분야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일을 잘하는 것. ㉣**존문적**. 『**지**가 **존문적**이루 **나**스믈 **못** **허**넨 **거** **하**나두 **웁**유.

존문-점 ㉠ 전문-점(專門店) ㉡ '표준어화 과정: 존문점<전문점>전문점'. 일정한 종류의 상품만을 파는 소매점. 『**크**피 **존문점**이라구는 **했**넨디 **홍**차두 **팔**구 **인**삼차두 **판**다닝께. **그러**닝께 **그**게 **말**루만 **존문**점인 **겨**.

전문-죽 ㉸ 전문-적(專門的) ㉸ ㉸ '전문적'

전문-점 ㉸ 전문-점(專門店) ㉸ ㉸ '전문점'

전문-직 ㉸ 전문-직(專門職) ㉸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 의사, 변호사[브노사]나 약사 **전문직**이 종사하던 사람덜이 시금을 더 때먹는다.

전문-화 ㉸ 전문-화(專門化) ㉸ 전문적으로 됨. 또는 전문적이 되게 함. ㉸ (자) 전문화-하다. ㉸ (피) 전문화-되다. ㉸ 사회의 으러 분야가 **전문화되**면서니 이즌의 것덜이 기냥 읍어진 겨.

준반-전 ㉸ 전반-전(前半戰) ㉸ ㉸ '준반준'. ㉸ 후반준인 우덜이 유리헐 테 닝께 **준반전**만 위치기 버팅겨 보자구.

준반-준 ㉸ 전반-전(前半戰) ㉸ '준반준'준반전. 운동 경기에서, 경기 시간을 둘로 나누었을 때에 앞부분의 경기. ㉸ **준반전**. ㉸ **준반준**인 우덜이 고전했지면 후반준 달를 겨.

존 : 별 ㉸ 전 : 별(餞別) ㉸ ㉸ '즌블'.

존 : 별-금 ㉸ 전 : 별-금(餞別金) ㉸ ㉸ '즌블금'. ㉸ **높은 양반헌**티 주년 돈은 **즌블금**이 아니구 야중이 잘 봐달란 뇌물인 겨.

존 : 별-사[-싸] ㉸ 전 : 별-사(餞別辭) ㉸ ㉸ '즌블사'.

존 : 별-식 ㉸ 전 : 별-식(餞別式) ㉸ ㉸ '즌블식'.

존 : 별-연[-련] ㉸ 전 : 별-연(餞別宴) ㉸ ㉸ '즌블은'.

존 : 별-주[-주] ㉸ 전 : 별-주(餞別酒) ㉸ ㉸ '즌블주'.

존 : 블 ㉸ 전 : 별(餞別) ㉸ 잔치를 베풀어 작별함. ㉸ **즌:블**. ㉸ **애를 멀리 떠나보내**면서니 **즌블**두 못 해준 게 한이 네유. ㉸ (타) **즌 : 블-허**다.

존 : 블-금 ㉸ 전 : 별-금(餞別金) ㉸ 잔치를 베풀며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 ㉸ **즌:블금**. ㉸ **즌블**두 못히 쫓넌디 **즌블금**을 오티기 **즌했**겼유.

존 : 블-사[-싸] ㉸ 전 : 별-사(餞別辭) ㉸ 잔치를 베풀며 작별할 때에 하는 인사말. ㉸ **즌:블사**.

존 : 블-식 ㉸ 전 : 별-식(餞別式) ㉸ 잔치를 베풀며 작별할 때에 행하는 의식. ㉸ **즌:블식**. ㉸ **요즘** 같은 시상이 먼 **즌블식**이라? 멀찍이 가넌 것두 아니구 앞서지믄 코 닿을 디디 **즌블식**이 며 필요허냐구.

존 : 블-연[-련] ㉸ 전 : 별-연(餞別宴) ㉸ 작별할 때에 베푸는 잔치. ㉸ **즌:블연**. ㉸ **외국**이루 나가믄 온제 올 중두 물르넌 **냥반**인디, 우덜이 **즌블은**이래두 매련해주야 쓰덜 **않**겠넌?

존 : 블-주[-주] ㉸ 전 : 별-주(餞別酒) ㉸ ㉸ '즌블주'



酒) ㉠ 잔치를 베풀며 작별할 때에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나누는 술. ㉡ 존:별주. ㉢ **존블**주는 뒷구유. 지난 번이 빌려간 돈이나 갚으슈. 그건 야중이 얘기허구 우리 사이에 그리두 **존블**주는 한잔 해야잖여.

존성¹ ㉠ 전성(全盛) ㉡ '존성'전성.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함.

존성-기 ㉠ 전성-기(全盛期) ㉡ 형세나 세력 따위가 가장 왕성한 시기. ㉢ 저 스수두 한참 **존성기** 적인 한 가락했넌디 말여. 아따, 왕눈이 **존성기** 읍던 사람이 오닷겼여?

존성-시대 ㉠ 전성-시대(全盛時代) ㉡ 형세나 세력 따위가 가장 왕성한 시대. ㉢ 저 아줍니 혼저 여러 자석 키너라 술현 고상허더니, 인전 **존성시대**가 활짝 폼어. 애덜이 다 잘 되서 효도허닝께 그계 **존성시대** 아닝감?

존 : 시¹ ㉠ 전 : 시(展示) ㉡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임. ㉢ (타) 존시-허다. ㉣(자) 존시-되다. ㉤ 수덕사 슌미술관(禪美術館)이 **존시**된 작품이 몇 툐이나 되던가?

존 : 시-물 ㉠ 전 : 시-물(展示物) ㉡ 전시하여 놓은 물품.

존 : 시-장 ㉠ 전 : 시-장(展示場) ㉡ 물품을 차려 놓고 보이는 곳. ㉢ 예산 농산물 **존시장**이다 사과 몇 상자 갖다

났네유. **존시장**이 사람덜이 많이 덩여 갈 탱께 더러 팔릴라나 허구유.

존 : 시-품 ㉠ 존 : 시-품(展示品) ㉡ 전시할 수 있도록 벌여 놓은 물품.

존 : 사회[-회/-회] ㉠ 전 : 시-회(展示會) ㉡ 특정한 물건을 전시해 놓고 일반에게 보이는 모임.

존용-기 ㉠ 전용-기(專用機) ㉡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비행기. ㉢ **존용기**는 오따 두고 **존세기**를 쓴다는가?

존용-선 ㉠ 전용-선(專用船) ㉡ 특정한 화물만을 실어 나르도록 만든 화물선.

존용-실 ㉠ 전용-실(專用室) ㉡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쓰는 방.

존용-어 ㉠ 전용-어(專用語) ㉡ 일정한 계층이나 부문에서만 쓰는 말. ㉢ 존문어(專門語).

존용-차 ㉠ 전용-차(專用車) ㉡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는 차. ㉢ 이건 장애우 **존용차**루 일반인은 타지 못허게 뒷구면유.

존위 ㉠ 전위(前衛) ㉡ ①전방의 호위(護衛). ②<예술> 예술 운동에서,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창작을 시도하는 그룹.

존위-대 ㉠ 전위-대(前衛隊) ㉡<군사> 본대의 맨 앞에서 경계·수색과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

존위-예술 ㉠ 전위-예술(前衛藝術) ㉡ <예술> 이전의 것을 배격하고 새로운 표현 수법을 시도하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 직장은 안 덩기구 존위예술이래나 머래나 헨다구 깡속그리기만 하니 걱정은 참 걱정이여.

존 : 입 ㉠ 전 : 입(轉入) ㉡ 거주지나 학교 따위의 소속을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 옴. ㉢ <자> 존 : 입-허다. ㉣ <피> 존 : 입-되다. ㉤ 요짐 존입허넌 사람은 옴구 맨 존출허넌 사람만 있다닝께. 존 입 인구를 늘려보라구 위서 자꾸 쪼긴 허넌디 우덜이라구 뉘 수가 있간디?

존 : 입-상 [-쌍] ㉠ 전 : 입-생(轉入生) ㉡ ㉢ '존입생'.

존 : 입-생 [-생] ㉠ 전 : 입-생(轉入生) ㉡ '존입생'존입생. 다른 곳에서 전학하여 온 학생. ㉢ 존입상. ㉣ 저 핵겨가 애덜이 댓 안 되서 폐교될 뻔 했넌디 말여. 올마 존 귀농헌 집 애덜이 존입생 이루 들와서 죽을 뻔허다가 살아났다.

존 : 입-신고 [-썌-] ㉠ 전 : 입-신고(轉入申告) ㉡ <법률>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존 : 입-자 [-짜] ㉠ 전 : 입-자(轉入者) ㉡ 다른 곳으로부터 거주지를 옮겨 온 사람. ㉢ 사람 옴넌 동네이 존입자가 들오닝께 시끄러운 일두 점 생기너면.

존 : 자-공업 ㉠ 전 : 자-공업(電子工業) ㉡ <물리> 전기 기계 공업 가운데 전자 기기를 만드는 분야.

존 : -자기 ㉠ 전 : -자기(電磁氣) ㉡ <물리> 전기와 자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존 : 자기-장 ㉠ 전 : 자기-장(電磁氣場) ㉡ <물리> 전기 마당과 자기 마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존자기마당. 존 자장.

존 : 자기-학 ㉠ 존 : 자기-학(電磁氣學) ㉡ <물리> 전기적·자기적 현상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존-자동 ㉠ 전-자동(全自動) ㉡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작동함. ㉢ 시탁기가 존자동이라 편허긴 헨디 손빨래갈지는 않네유.

존 : 자-사전 ㉠ 전 : 자-사전(電子辭典) ㉡ <컴퓨터> ①사전의 내용을 기억 장치에 담은 전자 매체. ㉢ 요즘은 존자사전을 쓰닝께 스펙이서 사전덜이 통 나가덜 않넌디. ②컴퓨터 내부의 작업에 이용되는 사전.

존 : 자-석 ㉠ 전 : 자-석(電磁石) ㉡ <물리> 전류가 흐르면 자기화되고, 전류를 끊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시적 자석.

존 : 자-수첩 ㉠ 전 : 자-수첩(電子手帖) ㉡ <컴퓨터> 수치, 연산 외에 전화 번호, 주소, 스케줄 따위를 입력할 수



있는 조그만 휴대용 컴퓨터.

즌 : 자-우편[-편] **표** 전 : 자-우편 (電子郵便) **뜻** ①통신문을 팩시밀리를 통하여 속달로 배달하는 우편 방식. ② 컴퓨터의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글. **예**메일(mail).

즌 : 자-현 : 미경 **표** 전 : 자-현 : 미경 (電子顯微鏡) **뜻** '즌자흔미궁'.

즌 : 자-흔 : 미궁 **표** 전 : 자-현 : 미경 (電子顯微鏡) **뜻** <물리> '즌자흔미궁' 존자현미경. 전자류를 전자 렌즈에 집속시켜, 그 통로에 놓인 시료(試料)의 상(像)을 확대하는 장치. **예**존자현미경.

즌저리 **표** 진저리 **뜻** '줏(貌)+-어리(접사)→즌저리'즌저리'진저리'. 차가움, 무서움, 끔찍함을 느낄 때나 소변 뒤에 부르르 몸이 떨리는 것. **예**진저리. **예**즌절머리. 진절머리. **예**즌저리를 치다. 존저리를 놓다. 존저리를 허다.

즌절-머리 **표** 진절-머리 **뜻** '즌저리+머리→즌절머리'진절머리. '즌저리'의 속된 말. **예**진절머리. **예**원 사흘 밀것만 먹었더니 존절머리가 다 나네.

즌 : 차-병 **표** 전 : 차-병(戰車兵) **뜻** <군사> 전차를 운용하는 병사. **예**지가 이래뵈두 군이서 땡크를 물구멍기던 존차병이었유.

즌 : 차-뵈 **표** 전 : 차-병(戰車兵) **뜻** '즌차병'.

즌 : 차-즌 **표** 전 : 차-전(戰車戰) **뜻** <군사> 전차를 이용하는 전투.

즌 : 차-포 **표** 전 : 차-포(戰車砲) **뜻** <군사> 전차에 설치된 포.

즌철-역[-력] **표** 전 : 철-역(電鐵驛) **뜻** '표준어화 과정: 존출역[존출륙]→즌철역 [즌철력]전철역[전철력]. 전동차가 머물고 떠나는 역. **예**신창이 존철역이 생겨서니 서울서 순천향대해겨(順天鄉大學校) 땡이던 학생덜이 편히졌다.

즌 : 출 **표** 전 : 출(轉出) **뜻**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근무지를 옮김. **예**즌입은 즉구 존출이 많으니 예산 인구가 자꾸 주능 겨./이번이 읍이루 존출허게 뵈다매? **예**(자) 존 : 출-허다. 존 : 출-되다. **예**(타) 존 : 출-시키다.

즌 : 출-자[-짜] **표** 전 : 출-자(轉出者) **뜻**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근무지를 옮긴 사람. **예**다른 디루 왕겨가던 존출자가 누구누군 겨? 우리 부서인 존출자 읍유.

즌출-옥[-륙] **표** 전 : 철-역(電鐵驛) **뜻** '즌철역'

즌-치다 **표** 전(塵)을 벌이다 <동> ① 장사를 하기 위해 물건을 벌여놓거나 늘어놓다. **예**장사꾼덜이 존치구 서서 다 흘떠리넌디 재간이 있남? ②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나 모여 웅성거리다. **예**저더러릿집이 사람덜이 존치구 있던디 뵈

일 낫남? 동네 초상난 것을 연태 물렀
남? 아침 나절까장 멀쩡허던 노인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씨러졌다.

존형 ㉠ 전형(典型) ㉡ ㉢ '존흥'.

존형-적 ㉠ 전형-적(典型的) ㉡ ㉢
'존형적'.

존 : 환 ㉠ 전 : 환(轉換) ㉡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바꾸는 것. ㉢
기분 **존환**이나 허까 허구 나왔더니 갑
자기 웬 비랴? ㉣(자) 존 : 환-허다.
㉣(피) 존 : 환-되다. ㉢ 저짜이서는 오
여짜이루 **존환**하야 히유./인전 우덜두
인식을 **존환**하야 현다닝께.

존 : 환-기 ㉠ 전 : 환-기(轉換期) ㉡
사물이나 인식 따위의 상태가 바뀌는
시기. ㉢ 이쥬미 **존환**긴 거 같유. 안 되
던 일은 아싸리 접구, 다른 일을 찾으
야 헐 그런 **존환**기란 거쥬.

존 : 환-점[-점] ㉠ 전 : 환-점(轉換
點) ㉡ ㉢ '존환점'.

존 : 환-점[-점] ㉠ 전 : 환-점(轉換
點) ㉡ 방향이나 상태가 바뀌는 시점.
또는 바뀌는 고비. ㉣존환점. ㉢ 인전 일
이 **존환**점을 지났으닝께 심덜 내셔유./
암체두 이번 일은 내 인생의 **존환**점이
될 것 같으구먼.

존흥 ㉠ 전형(典型) ㉡ 무엇이 표준이
되는 틀이나, 어떤 부류의 본보기. ㉣존
형. ㉢ 자는 처자는 디는 도통혔구유. 일

허던 디는 쥬뵙이유. 아주 게으름뱅이
의 **존흥**이라닝께유.

존흥-죽 ㉠ 전형-적(典型的) ㉡ ㉢ '표
준어화 과정: 존흥죽>존형적>전형적'. 어느
부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또는 그러
한 것. ㉢ 저 낭만이 성공헌 **존흥**죽 귀
농인이여./저것이 **존흥**죽인 동양화의
멋이라는 거.

즐² ㉠ 절 ㉡ 무릎을 꿇고 몸을 엷드
려 공경의 뜻을 표하는 인사. ㉣절. ㉢ 으
른헌티 **즐**두 못허던 늙은 말 다혔잖
어. 이눔아, **즐**을 히야 **즐**감을 **즐** 것 아
니네? ㉣(자) **즐**-허다.

즐거덕 ㉠ 절거덕 ㉡ ㉢ '즐그덕'.

즐거덕-거리다[-꺼-] ㉠ 절거덕-거
리다 ㉣(자) ㉢ '즐그덕거리다'.

즐과 ㉠ 절과(節果) ㉡ 철에 따라 나
는 과실. ㉢ 이전 우덜 클 적하군 달려
서 **즐**과란 것두 따루 읍잖어.

즐그덕 ㉠ 절거덕 ㉡ '표준어화 과정:
즐그덕>즐그덕>즐거덕>절거덕'. 단단한 물
체가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즐
거덕. (큰말)즐크덕. 즐커덕. 즐크덕. 즐커
덕. ㉢ 옆이서 들구 **즐그덕** 소리를 내던
통이 잠이 다 달어났어.

즐그덕-거리다[-꺼-] ㉠ 절거덕-거
리다 ㉣(자) 단단한 물체가 서로 맞부
딪는 소리가 잇달아 나다. ㉣즐거덕거리
다. (큰말)즐크덕거리다. 즐커덕거리다. 즐크

덕거리다. 출커덕거리다. 『서르지는 밤 새 헐 겨? 그 즐그덕거리닌 소리 뺨이 증신 사나워 죽겼어.

즐도¹[-도] ㉠ 절도(節度) ㉡ 일이나 행동에 규범이 될 만한 정도. 『사람이 즐도가 있어야지 말여, 그렇기 즐도두 읍이 흐리멍텅허른 못 쓰능 겨.

즐도²[-도] ㉠ 절도(竊盜) ㉡ 남의 물건을 몰래 도둑질하는 것. ㉢(타) 즐도-허다.

즐도³[-도] ㉠ 절도(絕島) ㉡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먼 바다 속의 외딴 섬. 『저런 못된 친구는 바닷 속 즐도이다 가니 유배를 시켜뵈지야 혀.

즐도-범[-도-] ㉠ 절도-범(竊盜犯) ㉡<법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저놈은 임자가 있건 읍 건 뵈닌 건 다 지 꺾 중 안다닝께. 뵈닌 대루 죄다 집어가 뵈지는 상습 즐도범 이여.

즐도-죄[-도죄] ㉠ 절도-죄(竊盜罪) ㉡<법률> 남의 물건을 훔쳐 생기는 범죄.

즐루² ㉠ 저절로 ㉡ 『즈절루』의 준말. 『물이 즐루 흐르게 뵈뵈./물레방 안 근대리지 았여두 지가 즐루 돌어가 닝 규.

즐륜-허다 ㉠ 절륜-하다(絶倫-) ㉡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이전이 아랫집 이 살던 그 심이 즐륜허던 양반 아직도

살어 기신가? 말 말유. 칠순이 지났지만 아적두 짱짱휴. 지게 지구 떠댕긴다 닝께유.

즐망 ㉠ 절망(絶望) ㉡ 모든 희망이 끊어짐. ㉢(자) 즐망-허다. 『일이 점 잘못됐다고 너머 즐망은 허털 말어. 지는 즐망허구 자시구 헐 것두 읍유. 온젠 지가 일 잘 되서니 햇빛 쨍허매 살어본 적 있남유?

즐망-감 ㉠ 절망-감(絶望感) ㉡ 기대할 것이 없게 되어 희망을 포기한 느낌. 『그때닌 그 즐망감이란 게 그렇더라고유. 하늘이 노랑구 가슴은 숨두 못쉬게 억장은 무너져 오구. 그뵈 오티기 시월이 흘러간넌지 물류.

즐망-적 ㉠ 절망-적(絶望的) ㉡『즐망족』

즐망-족 ㉠ 절망-적(絶望的) ㉡『표준어화 과정: 즐망족<즐망적>절망적』. 앞으로 희망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또는 그러한 것. 『이번 구제역이루 그집 돼지털을 다 살츠분(殺處分)했다넌디 이를 오쩨냐? 축사가 비긴 헐넌디 증부서 보조금이 나와서니 새끼털을 다시 놓구 허서 그렇기 즐망족이진 았다네유.

즐약[즈락/즐락] ㉠ 절약(節約) ㉡ 물건이나 돈을 아껴 씀. 『그집 살림살이란 게 즐약을 허구 말구 헐 행편두 아니여. ㉢(타) 즐약-허다.

즐연 ㉠ 절연(絶緣) ㉡ '즐은'.

즐의[즈리] ㉠ 절의(節義) ㉡ 절개와 의리. ㉢ 우털같은 사램헌티야 **즐의**가 목심(목숨)같은감?

즐이다 ㉠ 절이다 ㉡(타) '절이다'즐이다. 채소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 간이 배도록 하다. ㉢절이다. ㉣진장 배차를 땃 포갱이나 **즐일라남?** 즌내 먹올라믄 즉어두 쉬운 포갱인 **즐이야쥬**.

즐이-짐치 ㉠ ㉡ 채소를 절여 양념에 무친 뒤 숙성시키지 않고 먹는 김치. ㉢겉절이 ㉣봄판이 **즐이짐치**믄 최고잖여. **즐이짐친** 썩썩 밥 비벼먹어두 쥬구, 입 안이 느믄 올마나 선헌디.

즐은 ㉠ 절연(絶緣) ㉡ '즐은'즐연. 가까이 하던 것과 관계를 끊음. ㉢즐연. ㉣(자) **즐은-허다**. ㉣시상과 **즐은허구** 절간이루 들어갔다구 속이 든 응어리카 장 끊어진다남?

즐전[-쯔] ㉠ 절전(節電) ㉡ '즐즌'.

즐정[-쯔] ㉠ 절정(絶頂) ㉡ 맨 꼭대기. 가장 높은 단계나 그러한 경지. ㉢즐즌. ㉣꼭대기 좋아허덜 말어. 거긴 더 올러갈 디두 읍구 돌어슬 디두 읍년 천 질 낭어덕이여. 빼끗허문 떨어질 수빼 끼 읍년 **즐정**인 겨.

즐제[-쯔] ㉠ 절제(節制) ㉡ 지나치지 않도록 삼가고 억누름. ㉣**즐제**를 잘 허년 참헌 츠자닝께 민구 일 맻겨두 될

규. ㉢ **즐제-허다**.

즐조[-쯔] ㉠ 절조(節操) ㉡ 절개와 지조. ㉢절조.

즐즌[-쯔] ㉠ 절전(節電) ㉡ '즐즌'즐전. 전기를 아껴 씬. ㉢즐즌. ㉣(자) **즐즌-허다**. ㉣즌기세 미서운 중 알구 **즐즌**허야 허.

즐즐-이 ㉠ 절절-이(節節-) ㉡ 글이나 말의 마디마디. ㉢절절이. ㉣구구즐즐. 구구즐즐이. ㉣**즐즐이** 옳은 말이긴 헌디 그게 말차람 되덜 양으닝께 문제지.

즐즐-허다 ㉠ 절절-하다(切切-) ㉡ 더없이 절실하고 지극하다. ㉢절절하다. ㉣**즐즐허게** 사증을 늘어놓넨디 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유.

즐증[-쯔] ㉠ 절정(絶頂) ㉡ '즐정'.

즐지¹[-쯔] ㉠ 절지(折枝) ㉡ 식물의 가지를 잘라냄. ㉢절지. 가지치기. ㉣(자) **즐지-허다**. ㉣**즐지**란 게 암제나 허년 것이 아니잖어. 순 난디 허문 나무 상헌다닝께.

즐지²[-쯔] ㉠ 절지(絶地) ㉡ 땅이 끊어진 곳, 외진 땅. ㉢절지. ㉣**그 즐지**이 가서 뭇 농살 짓겠다닝가? 거긴 오 두가두 심들구 살 디가 못 되여.

즐차 ㉠ 절차(節次) ㉡ 일의 순서나 차례. ㉣**일**이 어그리질 판인디 **즐차**를 따지믄 땃허?



즐차-탁마[-탕-] ㉠ 절차-탁마(切磋琢磨) ㉡ 옥을 갈고닦듯이 수양에 정진함. ㉢(자) 즐차탁마-허다. ㉣ 탁마독서회는 즐차탁마이서 따온 말이며, 책을 읽던 규수(閨秀)들의 모임이지.

즐찬 ㉠ 절찬(絶讚) ㉡ 더할 수 없는 칭찬. ㉢ 최고 존 물건(物件)이라고 즐찬을 해쌍던면 난 하나도 안 좋아보더라구. ㉣(자) 즐찬-허다.

즐찬-리[-니] ㉠ 절찬-리(絶讚裏/裡) ㉡ 더할 수 없는 칭찬 가운데. ㉢ 이 책이 서울 책방서 즐찬리에 팔린다는 책이라.

즐창 ㉠ 절창(絶唱) ㉡ '즐창>절창'. 아주 뛰어난 노래나,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 절창. ㉣ 그 사람 참 노래 잘혀, 목청이 울마나 좋은지 즐창이랑께. ㉤(자) 즐창-허다.

즐충 ㉠ 절충(折衷) ㉡ 충돌하는 의견을 조절하여 서로 어우러지게 함. ㉢ 지고집만 내세덜 말구 좋게 즐충을 히보자구. ㉣(자) 즐충-허다. ㉤ 아니, 즈 사람 말은 싯 들어주구 내 말은 하나 들어주던 게 즐충허던 거?

즐취[-취/-치] ㉠ 절취(竊取) ㉡ 남의 것을 몰래 훔쳐가지다. ㉢ 절취. ㉣ 권이 쓸지두 무를 것을 가냥 들구 가문 즐취지. 그건 도둑질이란 말여. ㉤(타) 즐취-허다.

즐치-부심 ㉠ 절치-부심(切齒腐心) ㉡ 이를 갈며 마음속에 분함을 품음. ㉢(자) 즐취부심-허다. ㉣ 그 사람 자넬 가냥 안 둔다구 즐취부심허매 끈구 있다. 그 자식은 지가 잘못히서 그런 걸 왜 나헌티 양심이라?

즐친-허다 ㉠ 절친-하다(切親-) ㉡ 더할 나위 없이 친분이 두텁다. ㉢ 자네 그 낭만허구 즐친혔다매? 야, 이우지 살매 자별혔주.

즐커덕 ㉠ 절커덕 ㉡ '즐크덕'.

즐커덕-거리다[-꺼-] ㉠ 절커덕-거리다 ㉡ '즐크덕거리다'.

즐커덕-즐커덕 ㉠ 절커덕-절커덕 ㉡ '즐크덕'.

즐크덕 ㉠ 절커덕 ㉡ '표준어화 과정: 즐크덕>즐크덕>즐커덕>절커덕'. 단단한 물체가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 즐커덕. (작은말)즐그덕, 즐겨덕, (큰말)즐크덕, 즐커덕. ㉣ 물르던 책허구 즐크덕 광문을 장귀뻘졌어. 그럼 아적까장 광이 감혀 있던 겨? 인전 두어 식경 지났이 닝께 또 실쩍 열어주야지.

즐크덕-거리다[-끄-] ㉠ 절커덕-거리다 ㉡(자) 단단한 물체가 서로 맞부딪는 소리가 잇달아 나다. ㉢ 즐크덕거리다. (작은말)즐그덕거리다. 즐겨덕거리다. (큰말)즐크덕거리다. 즐커덕거리다. ㉣ 저 낭만이 심이 남겨 도나? 왜 쟁기는 철크

턱거리매 끌구 땡긴다?

즐크덕-즐크덕 ㉠ 절크덕-절크덕 ㉡
 ㉢ ‘즐크덕’.

즐-터 ㉠ 절-터 ㉡ 절을 세울 곳이나, 절이 있었던 곳. ㉢ ‘즈기가 즐골이라난디 거기 즐터라두 남았남유? 즐터는 그너머이 있구, 즐골은 그루 가년 골짜이란 뜻유.

즐통-허다 ㉠ 절통-하다(切痛-) ㉡ 뼈에 사무치도록 아프다.

즐판 ㉠ 절판(絶版) ㉡ 출판한 책이 없거나, 다시 출판할 수 없게 됨. ㉢ (자) 즐판-허다. 즐판-되다. ㉣ 이런 책은 즐판되든 다시 못 구허닝게 얼릉 사나.

즐편[-/-편] ㉠ 절편(切-) ㉡ 떡살로 납작하고 네모나게 눌러 만든 떡. ㉢ ‘븐거럽게 허덜 말구 썩즐편이나 맹글라닝께 그려.

즐필 ㉠ 절필(絶筆) ㉡ 써오던 글쓰기를 그만둠. ㉢(자) 즐필-허다. ㉣ 그 사람 즐필헌지 오라라던디. 지대루 쓰두 못허닌 사람잉께 즐필이구 뭐구두 읊어.

즐하 ㉠ 절하(切下) ㉡〈경제〉 대외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낮춤. ㉢ 즐상(切上). ㉣(자) 즐하-되다. ㉤(타) 즐하-허다.

즐학 ㉠ 절학(絶學) ㉡ 전해지지 않는 학문, 또는 학문을 초월한 경지.

즐해 ㉠ 절해(絶海) ㉡ 물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즐해-고도 ㉠ 절해-고도(絶海孤島) ㉡ 물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떠있는 섬. ㉢ ‘추사가 기양살이허던 그때 지주도는 즐해고도였지. 한 번 들어가면 살어서 들어오기 심들다년 그런 습이었잖여.

즐행 ㉠ 절행(節行) ㉡ 지조와 신념을 실천하는 행실.

즐호 ㉠ 절호(絶好) ㉡ 시기나 계기가 더할 수 없이 좋음. ㉢ ‘모심기는 그때가 즐호였넌디 비가 더 올 중 알구 지둘르다가 못 심었어.

즐효 ㉠ 절효(節孝) ㉡ 절조와 효성. ㉢ ‘영조가 궁이 들오라구 히두 화순옹주는 뉘편을 따러갔잖여. 그 즐효가 김추사(金秋史)를 낸 건지두 몰리.

젊 : 다[즘 : 따] ㉠ 젊 : 다 ㉡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혈기가 넘치는 때에 있다. ㉢ ‘그 친군 걸늬어서 그렇지 실지는 젊어. 환갑두 안 지났다닝께./ 요즘 젊은 것덜은 인사를 헐 중 몰리. 기냥 고개만 깨딱 헌다닝께.

젊은-이[즐므니] ㉠ 젊은-이 ㉡ ‘젊은이>젊은이. 나이가 적어 원기가 왕성한 사람. ㉢ ‘요새 시골이 된 젊은이가 남아 있남? 저 친구가 청년 회장인디 환갑을 넘겼어.

즐 : -맞이[즘 : -] ㉠ 겨울-맞이 ㉡ 다가오는 겨울철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



하는 일. 『시골서니 **즐맛이**가 벨것 있
남유? 진장두 꾀냈구 인전 낭구나 점
히다 노몬 **즐맛이** 끝나쥬.

증 : -방학 [증 : 뺑-] ㉠ 겨울-방학
㉡ <교육> 겨울철에 일정 기간 학교 수
업을 쉬는 일. 『**즐방학**을 헛다구 밤낮
놀기만 허문 못써. 글 한자라두 더 읽
구 운동두 허구 그리야 **즐방학**이 알맹
이루 차녕 거.

증 : 강-뺑 [-뺑] ㉠ 점 : 강-법(漸降
法) ㉡ <문학> 크고 강한 것에서 점차
작고 약한 것으로 끌어내려, 뜻을 강조
하는 표현법.

증거 ㉠ 점거(占據) ㉡ 어느 곳을 차
지하고 자리 잡음. ㉢(자) 증거-되다.
㉣(타) 증거-허다.

증 : 검 [-/증-] ㉠ 점검(點檢) ㉡ '증
'증금'. 『니알모리가 잔칫날인디 뭐 빠
친 것 읍년지 **증검** 잘히 놔.

증 : 금 [-/증-] ㉠ 점검(點檢) ㉡ '표
준어어화 과정: 증금[증금]>증검[증검]>점검
[정검]. 빠짐없이 하나하나 살핌. ㉢증검.
증검. 『은장 손본 지가 오란디 암체두
증금을 히야 쓰덜 았겠남? 은장 쓸 일
벨루 읍유. 지가 그돏날(鋸刀-)나 줄루
쓱쓱 갈어노껴유. ㉣(타) 증금-허다.

증령 [-녕] ㉠ 점령(占領) ㉡ '증릉[증
릉]>증령[증녕]. 무력을 이용하여 어느
지역을 차지함. ㉢증릉. ㉣(타) 증령-허

다. ㉢(자) 증령-되다. 『느이 이모분
서울이 **증령**되기 증이 일루 피난왔던 거.
두어 달 여 살다가니 여름 나구 갔지.

증릉 [-능] ㉠ 점령(占領) ㉡ '증령'.

증막 ㉠ 점막(粘膜) ㉡ <생물> 소화관
과 기도, 생식 기관의 안벽을 덮고 있
는 조직.

증멸 ㉠ 점멸(點滅) ㉡ '증물>증멸'. 불
빛이나 등 따위가 켜졌다 꺼졌다 함. ㉢
증물. ㉣(자) 증멸-허다.

증멸-등 ㉠ 점멸-등(點滅燈) ㉡ 스위
치로 켜고 끌 수 있는 전등.

증묘 ㉠ 점묘(點描) ㉡ <미술> 점으로
그리는 미술 기법.

증-무늬 ㉠ 점-무늬(點-) ㉡ 점처럼
생긴 무늬. 『꺼뭇헌 **증무늬**가 있던 걸
보닝께 까치독사구먼.

증 : 방 [-방] ㉠ 점 : 방(店房) ㉡ 물
건을 파는 가게. ㉢점방.

증-백이 ㉠ 점-박이(點-) ㉡ '점
백이'. 『**증백이** 개 하날 끌구 땡기더
면. 뽀인터라나 뭐라나 사냥허년 개랴.

증병-거리다 ㉠ 점병-거리다 ㉡ '집
병거리다'

증성-술 ㉠ 점성-술(占星術) ㉡ 별자
리나 별의 운행을 통해 사람의 운세를
점치는 술법.

증수[-수] ㉠ 점수(點數) ㉡ 시험이 나 시험을 통해 얻은 성적을 나타내는 수. ㉢ 그 개갈나년 증수를 맞구두 밥이 목구녕이루 넘어가니?/애 응어(英語) 증수가 행편윽터넌디 이를 위쩨다?

증술 ㉠ 점술(占術) ㉡ 앞날의 운세나 길흉을 점치는 술법. ㉢ 그 낭반 장바닥이 뜻자릴 깔 것두 아니라매 증술은 배서 뒗헐라군다?

증술-가 ㉠ 점술-가(占術家) ㉡ 점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 사주나 보구 손금이나 보년 증술가란 게 점쟁이랑 뒗 달볼 게 있납?

증슨-거리[-꺼-] ㉠ 점심-거리(點心-) ㉡ '증신거리'.

증슨-때 ㉠ 점심-때 ㉡ '증신때'.

증슨-밥[-밥] ㉠ 점심-밥 ㉡ '증신밥'. ㉢ 헛된 디다 돈 쓰덜 말구 증슨밥은 싸갓구 멍겨.

증슨-상[-쌍] ㉠ 점심-상(點心床) ㉡ '증신상' ㉢ 먹을 게 읍어 보리감자만 놓터래두 증슨상은 채리아능 겨.

증슨-참 ㉠ 점심-참 ㉡ '증신참' ㉢ 그 짧은 증슨참이 오딜 갔다온대유?

증신-거리[-꺼-] ㉠ 점심-거리(點心-) ㉡ 점심으로 때울 음식. ㉢ 증슨거리. ㉣ 한 증이 증신거리가 감자배끼 더 있겠납? 동치미 멸국이나 선허문 최고지.

증신-때 ㉠ 점심-때 ㉡ '증슨때'증신때'. 점심을 먹을 한낮의 시간. ㉢ 증슨때. 증심때. ㉣ 증신때가 다 뒗넌디 야가 오딜갔다?/증신때 지난 제가 온젠디 인저 참을 내년 겨?

증신-밥[-밥] ㉠ 점심-밥 ㉡ '증슨밥'증신밥'. 점심때에 먹는 밥. ㉢ 증슨밥. 증심밥. ㉣ 생메기(삿메기)낭께 증신밥은 그렁구 참이나 어어먹을랑가 몰르겠네.

증신-상[-쌍] ㉠ 점심-상(點心床) ㉡ '증슨상'증신상'. 점심밥을 차려놓은 상. ㉢ 증슨상. 증심상. ㉣ 대충 때우년 게 증신인디, 바쁜 일철이 뒗 증신상을 내라능 규?

증신-참 ㉠ 점심-참 ㉡ '증슨참'증신참'. 점심 끼니를 먹는 시간. ㉢ 증슨참. 증심참. ㉣ 니얼 증신참이 우리집일 점 와줘.

증액 ㉠ 점액(粘液) ㉡ 끈적끈적한 액체.

증액-질[-질] ㉠ 점액-질(粘液質) ㉡ 차지고 끈적끈적한 성질.

증 : 잔 ㉠ 점 : 잔 ㉡ 의젓하고 진중한 태도. ㉢ 그 같잖언 양복을 빼입구서니 증잔을 뺨다넌디 참내 웃기두 없터면.

증 : 잔-허다[-/-자너-] ㉠ 점 : 잦다 ㉡ '젊-(年少)+-지+아니(否)+허-(爲)+다'. 태도나 언행이 진중하고 의젓하다. ㉢ 증잔다. ㉣ 얹즌헌 고이 부뚜맥이 먼침 올르구 증잔헌 가이 똥 먹넌대터니 저 사람 우덜이 잘못 뒗내 벼.



즘 : 잡-이[-자니] ㉠ 점 : 잡이 ㉡ ㉢
의젓하고 진중하게. ㉣ 으르덜 기시넌디
방정떨떨 말구 **즘잡이** 앓어 있어.

즘-쟁이 ㉠ 점-쟁이(占-) ㉡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 ㉢ 점쟁이. ㉣ **즘쟁이**마
두 말이 달븐디 **즘쟁이**덜 말을 위치기
민어?/그놈 참 **즘쟁**일세그려.

즘즘 ㉠ 점점(漸漸) ㉡ ㉢ ‘즘점’. ㉣
전석이 **즘즘** 못된 짓만 배너면.

즘 : 지 ㉠ 점 : 지(點指) ㉡ ‘즘지’점
지. 신령이 자식을 갖도록 함. ㉢ 점지.
㉣(타) **즘** : 지-허다. ㉤ 삼신할매가 웬
심술루 너겔은 **눔을 줌지**헤 쫓넌지 물
르겠다. 아주매, 그게 뭘 소리랴? 이눔
아, 니 어매 속점 작작 썩이란 말여.

즘 : 진 ㉠ 점 : 진(漸進) ㉡ 점점 앞
으로 나아감.

즘 : 진-적 ㉠ 점 : 진-적(漸進的) ㉡
㉢ ‘표준어화 과정: 줌진즉>즘진적>점진
적’.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또는 그러
한 것. ㉣ 줌진즉.

즘-찍다[-따] ㉠ 점-찍다(點-) ㉡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특정 대상으로 정
하다. ㉢ 점찍다. ㉣ ‘물건 하날 **즘찍어** 뒀
넌디 좋은 건질 물르겠네. 자네가 점
봐줘?/저 으잔 내가 **즘찍었**이게 행여락
두 근다릴 생각 말여.

즘 : 차-적 ㉠ 점 : 차-적(漸次的) ㉡
㉢ ‘표준어화 과정: 줌차즉>즘차적>점차적’.

순서에 따라 조금씩 진행되는, 또는 그
런 것. ㉣ 줌차즉. ㉤ ‘그런 일은 **즘차적**
이루 진행히야지, 서둔다구 좋은 게 아녀.

즘 : 칭-법[-뵘] ㉠ 점 : 칭-법(漸層
法) ㉡ <문학> 작고 약한 것에서 더 크
고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법. ㉢ 줌칭법.
즘층법. ㉣ 줌강법. 줌강법.

즘 : 칭-뵘[-뵘] ㉠ 점 : 칭-법(漸層
法) ㉡ ㉢ ‘즘칭뵘’.

즘-치다 ㉠ 점-치다(占-) ㉡(타) 앞
일의 길흉 따위를 점괘로 알아보거나,
앞날을 예측하여 판단하다. ㉣ ‘뻔히 안
될 일을 돈덜여 **즘치**다구 달려지겠남?

즘토 ㉠ 점토(粘土) ㉡ <지리> 알갱이
가 미세하고 차진 성질을 지닌 흙. ㉣
부뚜막을 손볼라믄 **즘토**를 점 구해와야
쓰겠넌디.

즘포 ㉠ 점포(店鋪) ㉡ 물건들을 늘어
놓고 파는 가게. ㉣ ‘이전이야 장거리에
즘포 하나만 가지믄 부자뻘지. 그뎌 장
사 안 되서 망허넌 **즘포**란 게 읍었어.

즘호 ㉠ 점호(點呼) ㉡ 하나하나 이름
을 불러 인원을 살핌. ㉣(타) **즘호**-허다.

즘 : 화 ㉠ 점 : 화(點火) ㉡ 불을 켜
거나 붙임. ㉣ ‘곤뢰[골뢰]가 **즘화**가 안
되유. **즘화** 장치가 고장난나 빈디 성냥
이루 붙여. ㉣(자/타) **즘** : 화-허다.
㉣(자) **즘** : 화-되다.

즘객[-객-] ㉠ 접객(接客) ㉡ 손님

맞음. ㉟(자) 줍객-허다.

줍객-업[-깨겅] ㉟ 접객-업(接客業) '줍객업>줍객업'. 손님을 맞아 대접하는 직업. ㉟줍객음. ㉟ 줍객업이란 게 본래 간두 벨두 빼놓구 허닌 장사라.

줍객-음[-깨겅] ㉟ 접객-업(接客業) ㉟ '줍객업'.

줍견[-견] ㉟ 접견(接見) ㉟ '표준어화 과정: 줍근>줍잔>접견'. 공식적으로 찾아온 손님을 만나봄. ㉟(자/타) 줍견-허다. ㉟ 주민대표가 찾아갔넌디 군수가 출장 중이라서 줍견을 못했다너면.

줍견-실[-견-] ㉟ 접견-실(接見室) 공식적으로 찾아온 손님을 만나는 방. ㉟ 해져가 크닝게 줍견실이라넌 것두 있더면. 교장실 옆이 붙었넌디 줍견실이 그럴 듯허더라구.

줍경[-경] ㉟ 접경(接境) ㉟ ㉟ '줍궁'.

줍골[-골] ㉟ 접골(接骨) ㉟ <의학> 굿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붙임. ㉟(타) 줍골-허다.

줍근[-근] ㉟ 접근(接近) ㉟ 무엇에 가까이 다가감. ㉟(자) 줍근-허다. ㉟ 그 집인 줍근혈 생각 말어. 고여니 갔다가 붕(病) 옮넌다닝께.

줍근[-근] ㉟ 접견(接見) ㉟ ㉟ '줍견'.

줍궁[-궁] ㉟ 접경(接境) ㉟ '표준어화 과정: 줍궁>줍경>접경'. 두 지역이 서로

맞닿은 곳. ㉟줍경.

줍대[-대] ㉟ 접대(接待) ㉟ 손님을 아 시중을 들. ㉟(타) 줍대-허다. ㉟ 아넌 동네 손님 줍대가 젤 중헌 겨. 대충 줍대허문 두구두구 말 난다닝께.

줍대-부[-때-] ㉟ 접대-부(接待婦) 손님을 맞이하고 시중드는 일을 하는 여자. ㉟ 줍대부 두구 물장사 헨다넌 게 아무나 허닝 게 아녀.

줍대-비[-때-] ㉟ 접대-비(接待費) 손님을 대접하는데 쓰는 돈. ㉟ 말이 좋아 줍대비지. 일 하나 딸라구 밥 사주구 술 사주구 돈봉투 달이미넌 게 줍대빈 겨.

줍도-구역[-도-] ㉟ 접도-구역(接道區域) ㉟ <법률> 도로 확장, 도로 보호, 도로 미관, 위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구역. ㉟ 거긴 줍도구역이라 집은 못 저.

줍두-사[-두-] ㉟ 접두-사(接頭辭) <언어> 어근(語根) 앞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接辭). ㉟줍미사.

줍목[줍-] ㉟ 접목(接木) ㉟ ① <농업> 나무를 접붙이거나, 접붙인 나무. ㉟ 암만히두 줍목이 잘못됐내 벼. ② 돌이상의 일이나 현상을 조화롭게 함. ㉟(자) 줍목-되다. ㉟(타) 줍목-허다. 줍목-시키다. ㉟ 줍목헌 디가 바람이 떨어져 빼렸네.

줍미-사[줍-] ㉟ 접미-사(接尾辭)

〈언어〉 어근 뒤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接辭). ㉠줍두사.

줍-바둑[-빠-] ㉠ 접-바둑 ㉡ 치수가 낮은 사람이 화점에 두 점 이상 미리 깔고 두는 바둑. ㉢ **줍바둑**두 안 되면서 왜 들구 맞바둑을 두잔다?

줍-붙이기[-부치-] ㉠ 접-붙이기(接-) ㉡ 〈농업〉 기르고자 하는 나무의 눈을 잘라 원나무에 접을 붙이는 것. ㉢ 수박 **줍붙이**길 히야 허넌디 호박묘가 접 무잘러서 걱정이어.

줍-붙이다[-부치-] ㉠ 접-붙이다(接-) ㉡ ① 〈농업〉 기르고자 하는 나무의 눈을 잘라 밑나무에 붙이다. ② 〈개나 소 따위의 가축을〉 교배시키다. ㉢ 오양간이 소가 오딜 갔다? 애아부지가 **줍붙인**다 구 아랫동네루 끌구 갔유.

줍사[-싸] ㉠ 접사(接辭) ㉡ 〈언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語根)의 앞이나 뒤에서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뀌주는 형태소.

줍선[-썬] ㉠ 접선(接線) ㉡ ≡ ‘줍슨’

줍속[-씩] ㉠ 접속(接續) ㉡ 맞대어 이음. ㉢ (자) **줍속**-허다. (자) **줍속**-되다.

줍속-어[-쏘어] ㉠ 접속-어(接續語) 〈언어〉 ‘줍속어’접속어. 낱말과 낱말,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말. ㉢ **줍속사**허구 **줍속언**

서루 달른 겨. **줍속언** 단어가 아니구 문장승분이라낭께.

줍수¹[-쑤] ㉠ 접수(接收) ㉡ 무엇을 받아 거두거나, 남의 것을 강압으로 인수함. ㉢ (타) **줍수**-허다. ㉣ 그쪽 사람 덜은 내가 다 **줍수**했으니께 신경 안 써 두 되어./여긴 우리가 **줍수**헌지 오라낭께 판디나 알아보슈.

줍수²[-쑤] ㉠ 접수(接受) ㉡ 돈이나 건을 받음. 또는 양식에 따라 신고나 신청을 받음. ㉢ **줍수**헌지 일은 자네가 점 맡어줘. 믿을 사람이 자네매끼 **줍수**다니께. ㉣ (타) **줍수**-허다. ㉤ (자) **줍수**-되다. ㉥ 원서는 잘 **줍수**했단디 아직 회사서 은락은 **줍수**.

줍수-증[-쑤쑤] ㉠ 접수-증(接受證) ㉡ ≡ ‘줍수쑤’.

줍수-쑤[-쑤-] ㉠ 접수-증(接受證) ㉡ ‘줍수쑤(줍수쑤)줍수증’접수증. 문서나 금품 따위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 ㉢ **줍수**쑤. ㉣ **줍수**쑤은 잘 받은 겨?

줍수-처[-쑤-] ㉠ 접수-처(接受處) ㉡ ‘줍수츠/줍수처’접수처. 문서나 금품 따위를 접수하는 곳. ㉢ **줍수**츠. ㉣ **줍수**츠가 문앞이 있덜 앗구 구석징이에 있어서 한참 **줍수**찾었다낭께.

줍슨[-썬] ㉠ 접선(接線) ㉡ ‘줍슨’줍선’접선. 어떤 목적을 지니고 누군가와 몰래 만남. ㉢ (자) **줍슨**-허다. ㉣ **줍슨**이

고조부는 동학이 실패허구 해월(海月) 손상을 피섯어. 보은서 줘주(接主)덜허구 **줍순허매** 스너 해 동안이나 송니산(俗離山)이 숨어 사섯지.

줍시[-씨] ㅍ 집시 ㅁ '덥시/툽시→줍시'. 음식을 담아낼 때 쓰는 얇고 납작한 그릇. ㅍ이 사람이, 읍년 집안에서 목을 냈으면 그걸루 고매운 일이지. **줍시다** 안 내구 양지기다 냈다구 뭐라문 오쩌능가?

줍시-꽃[-씨꽃] ㅍ 집시-꽃 ㅁ<식물> 여름에 납작한 집시 모양의 꽃을 피우는, 아욱과의 여러해살이풀. ㅁ집시꽃. ㅍ **줍시꽃**은 다 빨린 중 알엇더니 호얀 것두 있더면./**줍시꽃**은 씨가 떨어져 즈절루 번져나눔게 가꾸기두 쉽구 여름 내내 꽃기경을 할 수 있어서니 참 좋아.

줍신[-씬] ㅍ 집신(接神) ㅁ 신들린 사람이 몸속의 신을 맞아 서로 통합. ㅁ집신 ㅍ **신병(神病)**이루 멧 달 밥두 못 먹구 다 죽게 생겨서니 스거리헌티 맥겨 **줍신**을 시키기루 히다너면. ㅁ(자) **줍신**-허다.

줍다[-따] ㅍ 접다 ㅁ 넓거나 얇은 물건을 꺾어서 곱치게 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다. ㅁ접다. ㅍ **너머** 접쳐 **접으**른 놀러불어서 못써./시간두 늦었구 이만 **접구** 일어나지.

줍어-들다 ㅍ 접어-들다 ㅁ 일정한 때에 이르거나, 일정한 곳에 들어서다.

ㅁ접어들다. ㅍ **나이가** 사십 줄이 들어스눔게 몸이 예즌갈덜 앓구면./장거리루 **줍어드넨디** 웬 여자가 자꾸만 날 따라오녕 겨.

줍어-주다 ㅍ 접어-주다 ㅁ 낮거나 불리한 것에 어느 정도 너그럽게 대하여 주다. ㅁ접어주다. ㅍ **멧 수 줘어줘두** 안 되넨 건 안 되넨 겨./수 차이가 많으눔게 **속 줘을 줘어주녕** 걸룬 안될 겨.

줍영 ㅍ 접영(蝶泳) ㅁ<운동> 두 손을 뻗쳐 물을 끌어내리고 양발을 움직이며 나아가는 수영법. ㅁ줍영. ㅍ **간** 허리가 약히서니 **줍영**은 잘 못히여.

줍응 ㅍ 접영(蝶泳) ㅁ<운동> ㅁ '줍영'.

줍전[-전] ㅍ 접전(接戰) ㅁ '줍준'.

줍점[-점] ㅍ 접점(接點) ㅁ '줍준'.

줍종[-쫐] ㅍ 접종(接種) ㅁ<의학> 병의 예방이나 치료 따위를 위하여 사람이나 동식물에 병원균을 주사함. ㅁ(타) **줍종**-허다. ㅍ **예방 줘종**. **줍종법/줍종법**.

줍준[-쫐] ㅍ 접전(接戰) ㅁ '표준어화 과정: **줍준**ㅁ**줍전**ㅁ**접전**. ①**맞붙어 싸움**. ㅍ **갑오년**이 저 **관작**들이서 **줍준**이 일어났지. **일촌**(一村)의 **관군**이 **잠자넨** 동학군을 기습헌 겨. 새벽 내내 **줍준**이 **붙어졌넨디** **관군**덜이 **전디지** 못허구 **홍주성**이루 **찢겨**났어. ②**서로 힘이 비슷해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 ㅁ(자) **줍준**-허다.



줍증[-뜸] ㉸ 접점(接點) ㉸ '표준어화 과정: 줍증>줍점>접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맞닿는 부분. ㉸줍점. ㉸너허군 뉘 일을 히두 엇갈려, 통 줍증이 읍다닝께.

줍-짜 ㉸ 저-쪽 ㉸ '즈짜' ㉸그 물건 줍짜이루 쳐냈더니, 그거 필요한 건감? 줍짜서두 우릴 도와줄 것 같진 않구먼.

줍착 ㉸ 접착(接着) ㉸ 떨어지지 않게 달라붙음.

줍착-제[-찌] ㉸ 접착-제(接着劑) ㉸ 두 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물질.

줍촉 ㉸ 접촉(接觸) ㉸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두 물질이 맞닿음. ㉸병(病) 읍을께비 사람덜 줍촉을 피허구 있대유./줍촉 사고가 나서니 앞 밤바(bumper)가 다 나갔다. ㉸(자/타) 줍촉-허다.

줍촉-점[-점] ㉸ 접촉-점(接觸) ㉸ '줍촉증'.

줍촉-줍[-뜸] ㉸ 접촉-점 ㉸ '표준어화 과정: 줍촉증>줍촉점>접촉점'. 서로 맞닿거나 만나거나 점. ㉸줍촉점.

जू : 다[-따] ㉸ ㅈ : 다 ㉸(타) ㉸ 'जू : 다'.

जू : -대[जू : 때] ㉸ ㉸ 'जू/जू-(撈)+대(樵)'. 액체나 가루 따위가 고무 섞이도록 이리저리 돌리는 나무막대. ㉸जू

:대. ㉸두부 물이 끓으니께 얼른 जू대 ㅈ 개져 와라.

जू¹ ㉸ 정 ㉸ 돌을 쪼거나 다듬을 때 쓰는 쇠붙이. ㉸정. ㉸스수쟁이가 जू 단 소리 곧이들려두 जू가 돈 읍다년 소린 내가 뉘 믿어.

जू :² ㉸ 정 : ㉸ 끝끝내. 곧이. ㉸ जू 뉘 허겼으면 탄일 알아봐./जू가 जू 그 령기 나온다든 나두 생각이 있다이.

जू³ ㉸ 정(情) ㉸ 가슴에서 우러나는 따스한 마음. ㉸정. ㉸사랑이 식으면 जू 이래두 있어야지./जू 낭반이 저령기 말혈 적마두 내가 जू이 떨어진다닝께유.

जू :⁴ ㉸ 정 : (正)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정식의, 바른, 완전한, 똑같은' 따위의 뜻을 더해주는 접사. ㉸ जू회원. जू사원. जू북방(正北方). जू반대. जू사각형.

जू :⁵ ㉸ 정 : (鄭) ㉸ 우리나라 성의 하나. ㉸이 जू서방은 워딜 간 जू? 아까 침인 꼴두 뷁기 싫다더니 그 जू스방은 왜 찾넌다?

जू가 ㉸ 정가(政街) ㉸ 'जू가>정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 ㉸정가. ㉸ जू가의 그물(巨物)덜이 이 जू구석쟁인 워터러 온다?

जू : 가[-가] ㉸ 정 : 가(定價) ㉸ 사고파는 물건에 매겨진 값. ㉸그런 जू쟁이 장사꾼 물건헌티 뉘 जू가가 있어. 기냥 물건 받고 जू 돈이 금이지.

증 : 가-표[-까-] ㉠ 정 : 가-표(定價票) ㉡ 물건 값을 매겨놓은 표.

증 : 각 ㉠ 정 : 각(正刻) ㉡ 틀림이 없는 바로 그 시각. ㉢ 을두 시 **증각**이 꽃 내기루 헛넌디 늦어지너면.

증갈-허다 ㉠ 정갈-허다 ㉡ 모습이나 성품, 솜씨 따위가 깨끗하고 깔끔하다. ㉢ 행편이 어려워 표가 잘 안나서 그렇지 알고 보면 참 **증갈**한 사람이어. 살림 두 월매나 **증갈**현지 부뚜막이 몸디기 하나두 읍다닝께.

증감 ㉠ 정감(情感) ㉡ 포근하고 따스롭게 다가오는 느낌. ㉢ 그 낭반은 허우대만 멀쩡허지 **증감**이라곤 눈 씻구 찾아봐두 읍유.

증 : 감-록[-녹] ㉠ 정 : 감-록(鄭鑑錄) ㉡ 조선 중기 이후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책이름.

증강 ㉠ 정강(政綱) ㉡ 정치 단체가 내세우는 정책의 큰 틀.

증객 ㉠ 정객(政客) ㉡ 정치 활동을 직업으로 지닌 사람.

증거-장 ㉠ 정거-장(停車場) ㉡ ‘증그장’증거장. 버스나 열차 따위에, 사람이 타고 내거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곳. ㉢ 증그장. ㉣ 복잡한 증거장인 뭐더라 스성거리는 겨?/차 놓칠라, 얼릉 증거장이루 뛰자.

증검 ㉠ 점검(點檢) ㉡ ‘증검’증검(변자음화). ㉢ ‘증검’. ㉣ 동네 사람덜 다 나왔나 버스 뜨기 즈이 **증검** 점 히봐.

증 : 견 ㉠ 정견(政見) ㉡ ㉢ ‘증근’.

증결-허다 ㉠ 정결(淨潔) ㉡ ㉢ ‘증글허다’.

증-겹다[-따] ㉠ 정-겹다(情-) ㉡ ㉢ ‘증급다’. ㉣ 걸이룬 **증겹**게 맞넌 것 같더면 속은 위편지 몰르지.

증경¹ ㉠ 정경(政經) ㉡ ‘증경’증경. 정치와 경제. ㉢ 증경. ㉣ 증경 분리. **증경** 유착.

증경² ㉠ 정경(情景) ㉡ ‘증경’증경. ①정겨운 풍경. ㉢ 시골 **증경**이 참 그림 같구면. ②사람이 처한 모습. ㉢ 증경.

증경-부인 ㉠ 정경-부인(貞敬夫人) ㉡ <역사> ‘증경부인’증경부인. 조선 시대에 정일품이나 종일품인 관리의 아내에게 주던 작위. ㉢ 증경부인.

증계 ㉠ 정계(政界) ㉡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 너나읏이 **증계**이 떠드넌 것읏 보문 권력이 좋긴 존개 벼.

증 : 계-비 ㉠ 정 : 계-비(定界碑) ㉡ <역사>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하기 위하여, 조선 숙종 때 백두산에 세운 비석.

증 : 곡 ㉠ 정 : 곡(正鵠) ㉡ 과녁의 한 가운데. 또는 사물의 요체. ㉢ 되더락

증곡은 피혀서 찢러낸 게 예이(禮儀)여.
/증곡은 냅두고 맨 되잖은 소리덜만 허
너면.

증 : 공 ㉞ 정 : 공(正攻) ㉞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당하게 침. ㉞(타) 증 : 공
-허다.

증 : 공-법[-뺨] ㉞ 정공-법(正攻法)
㉞ ㉞ '증공법'.

증 : 공-뺨[-뺨] ㉞ 정공-법(正攻法)
㉞ '표준어화 과정: 증공뺨/증공법'정공
뺨.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당하게 공격
하는 전법. ㉞증공뺨. ㉞앞이서 안 되믄
옆두 치구 뒤두 칠 수 있넌디, 왜 미련
허게 증공뺨만 고집하는가?

증 : 과증-곡 ㉞ 정 : 과정-곡(鄭瓜亭
曲) ㉞(문학) 고려가요의 하나로 정서
(鄭絃)가 유배지에서 의종(毅宗)을 그리
며 지은 노래. ㉞과증(瓜亭)은 증서(鄭
絃)의 호닝께 증과증곡은 증서가 지은
노래다, 그런 뜻이여.

증 : 관 ㉞ 정 : 관(定款) ㉞(법률) 회
사나 법인, 조합 같은 단체의 목적과
조직 따위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칙
을 기록해 놓은 장부. ㉞우덜 모임두
증관을 맹길어야잖겠넌? 증관은 개뿔,
동네 친목회에 뭇 증관이여?

증관-수술 ㉞ 정관-수술(精管手術)
㉞(의학) 정자의 사출구를 막는 피임
수술.

증 : -교사 ㉞ 정 : -교사(正敎師) ㉞
(교육) 정부 부처에서 인정하는 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 또는 학교에 정식
으로 근무하는 교사. ㉞증교사 자격징
이 있으믄 뒤희, 발령이 나덜 않넌디./
그게 증교사루 추직된 게 아니구 임시
직이라. 계약직이래나 뒤희래나?

증 : -교수 ㉞ 정 : -교수(正敎授) ㉞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의 교수를 이르는 말.

증교-허다 ㉞ 정교-하다(精巧-) ㉞
숨씨나 기술, 구성 따위가 교묘하고 치
밀하다. ㉞버갯수(-繡)를 참 증교허게
두 뵈구면.

증구 ㉞ 정구(庭球) ㉞(운동) 바닥에
네트를 가로질러 치고 채로 공을 치고
받으며 겨루는 운동. ㉞정구.

증국 ㉞ 정국(政局) ㉞ 정치 사회가
돌아가는 형세나 형편. ㉞이전인 증국
이 하 어지러닝께 순겨철이믄 큰 씬이
블어지구 그렸어.

증권 ㉞ 정권(政權) ㉞ 정부를 구성하
여 나라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 ㉞증권
이 배껴야 좋다구덜 허긴 허더면 배껴
봤자 벨 것 있겠넌?

증 : 규 ㉞ 정 : 규(正規) ㉞ 정식으로
이루어진 규칙이나, 그 규정에 맞는 상
태. ㉞느이 삼춘은 증규 대학은 아니구
야간 대학교를 땡겼어. 그리두 그때닌

손상질두 허구 큰장두 허구 다 그렸지.

증 : 규-군 ㉠ 정 : 규-군(正規軍) ㉡ <군사> 국가 정부에 소속되어 체계화된 군대. ㉢비증규군. ㉣육이오 적이 증규군이구 비증규군이 오딧어. 기냥 의용군이다 뭐다 히서 막 끝구갔지.

증 : 규-직 ㉠ 정 : 규-직(正規職) ㉡ 회사나 단체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위나 직무. ㉢비증규직. ㉣요새는 취업난이 심히져서 증규직은 꿈두 못 꾀다.

증그-장 ㉠ 정거-장(停車場) ㉡ '증거장'. ㉢또 증그장까장 마증갈라남?

증 : 기 ㉠ 정 : 기(定期) ㉡ 정해진 기간이나 기한. ㉢증기적금. 증기예금. 증기 휴일. 증기 모임.

증기 ㉠ 정기(精氣) ㉡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기운. 또는 사물의 생기로운 기운. ㉢여가 차령의 증기가 스러있던 맥이여. 촌하 명당(明堂)이라구 서루덜 뗏자릴 쓴다닝께.

증 : 기-적 ㉠ 정 : 기-적(定期的) ㉡ '증기-적'. ㉢

증 : 기-즉 ㉠ 정 : 기-적(定期的) ㉡ '증기즉>증기적'.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또는 그러한 것. ㉢증기적. ㉣내달버텨 증기즉이루 모이기루 뿔응께 모이던 날짜 까잡숯덜 말유.

증 : 격 ㉠ 정 : 격(正格) ㉡ 격식이나

규칙에 맞는 것. ㉢븐극.

증 : 곧 ㉠ 정견(政見) ㉡ '증근>증견'. 정치에 관한 견해나 식견. ㉢증견. ㉣후보자덜이 증근 발폰가 뭐가 헨다구 차루 막 실어가구 그렸넌디 자넨 안 갔남?

증글-허다 ㉠ 정결(淨潔) ㉡ '증글허다>증결허다'. 성품이나 언행이 맑고 깨끗하다. ㉢증결허다. ㉣아랫동네이 참허구 증글헌 츠자가 하나 있넌디 말여. 워뎀? 내가 이참이 끈냉이 점 놔 보까?

증-굽다[-따] ㉠ 정-겹다(情-) ㉡ '표준어화 과정: 증(情)+-굽(접사)+-다→증굽다>증겹다>정겹다'. 따스한 마음이 넘칠 듯 다정하다. ㉢증겹다. ㉣사램이 월매나 싹싹허구 그렇기 증글 수가 읊어.

증금¹ ㉠ 정경(政經) ㉡ '증경¹'.

증금² ㉠ 정경(情景) ㉡ '증경²'.

증년 ㉠ 정년(停年) ㉡ '증는>증년'. 일하던 직장을 떠나도록 정해놓은 나이. ㉢증는. ㉣증년이 널모린디 인전 뵈헤 먹구 살아야 헐지 걱정이 태산이여.

증념 ㉠ 정념(情念) ㉡ '증눔>증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마구 일어나는 감정. ㉢증눔. ㉣산악 동반인이가 먼가 그 까다 읊넌 증념이 사로잡혀서니 직장두 때러 치구 산이만 올라간다.

증녕 ㉠ 정녕(丁寧) ㉡ 진실로 틀림없이. ㉢그 말이 증녕 사실인 거?



증녕-코 ㄱ ㄹ 정녕-코(丁寧-) ㄱ ㄹ '증녕(丁寧)+-코(접사)'. '정녕'을 강하게 이르는 말. ㄱ ㄹ **증녕코** 느이덜이 날 배신허겠다 그런 것이구먼.

증는 ㄱ ㄹ 정년(停年) ㄱ ㄹ '증년'. ㄱ ㄹ **증는** 퇴직./암만 봐두 **증는** 읍년 직업은 농사빼끼 읍년 것 같어.

증념 ㄱ ㄹ 정념(情念) ㄱ ㄹ '증념'.

증담 ㄱ ㄹ 정담(情談) ㄱ ㄹ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스한 대화. ㄱ ㄹ **방안이** 들이 들았어 뵈허냐? 뵈 **증담**이라두 나누냐?/**증담**두 아닌디 뵈 **이야기**가 이렇기 질다?

증 : 답 ㄱ ㄹ 정 : 답(正答) ㄱ ㄹ 바르게 한 답. ㄱ ㄹ 뵈 **섞지**가 요랑다? 문제마두 **증답** 사이루 비껴뎡기너먼.

증당¹ ㄱ ㄹ 정당(政黨) ㄱ ㄹ <정치>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만든 단체. ㄱ ㄹ **야당**이나 **은당**이나 **증당**이란 것덜은 싹 읍어지야 허./**잘났네** 허년 **냥반덜**은 **끄떡**만 허문 **증당**이란 걸 뎡그너먼.

증 : 당-화 ㄱ ㄹ 정 : 당-화(正當化) ㄱ ㄹ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꾸며냄. ㄱ ㄹ (자) 정 : 당화-되다. ㄱ ㄹ (자/타) 정 : 당화-허다. ㄱ ㄹ **그럴** 듯 허 말을 붙여뎡다고 자네 일이 **증당화** 되년 게 아녀.

증 : 대-허다 ㄱ ㄹ 정 : 대-허다(正大-)

ㄱ ㄹ 언행이나 마음씀씀이가 바르고 떳떳하다. ㄱ ㄹ **마음이 증대허**믄 뵈 눈치가 미덥지 않은 뵈이어.

증 : 독 ㄱ ㄹ 정 : 독(精讀-) ㄱ ㄹ 뜻을 탐구하며 깊이 읽음. ㄱ ㄹ (타) 정 : 독-허다. ㄱ ㄹ **교과**스는 **증독**허야지. **진성**진성 그제 뵈어? **시방** 만화책 읽냐?

증 : 돈 ㄱ ㄹ 정 : 돈(整頓) ㄱ ㄹ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아 가지런하게 하다. ㄱ ㄹ **한나절 증돈**을 허 게 이런 겨?/**집안**이 원체 **좁으**닝게 **증돈**을 허다구 허두 표가 안 나네유. ㄱ ㄹ (자) 정 : 돈-되다. ㄱ ㄹ (타) 정 : 돈-허다. ㄱ ㄹ **뵈**허구 **방** **점** **증돈**허구 나가게유.

증 : 동 ㄱ ㄹ 정 : 동(正東) ㄱ ㄹ 똑바른 동쪽. ㄱ ㄹ **창이 증동**이라 아침이믄 **빛**이 환허게 들와.

증-들다 ㄱ ㄹ 정-들다(情-) ㄱ ㄹ 정이 깊어지고 친숙해지다. ㄱ ㄹ **사람**새끼나 **짐**성새끼나 **정들**믄 **떼**기 어려운 뵈이어./**증들**자 이별이래더니 **너**랑의 **인연**두 요맹 큼인 모양이구나.

증-딜이다 ㄱ ㄹ 정-들이다(情-) ㄱ ㄹ 마음을 쏟아 정이 깊어지게 하다. ㄱ ㄹ **증딜**여 **지**른 **답**인디 **저**눔덜이 **진**두 물러봐.

증-떨어지다 ㄱ ㄹ 정-떨어지다(情-) ㄱ ㄹ 지니고 있던 정이 사라지고 싫어지는 마음이 들다. ㄱ ㄹ **저** 사람이 **내**동 **증**다가두 **저**러년 **것**을 보믄 **증떨**어져유.

증란[-난] ㉠ 정란(靖亂) ㉡ 난을 가라앉혀 나라를 평안하게 함. ㉢ 증란이란 건 늘 이긴 자의 편이여.

증략[-낙] ㉠ 정략(政略) ㉡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방책. ㉢ 증략이란 건 순수할 수가 없는 거. 순수한 증략이 있다든 그건 증략이 아니지.

증략-적[-낙적] ㉠ 정략-적(政略的) ㉡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방책을 목적으로 하는, 또는 그런 것. ㉢ 다 찌리찌리 뒹구는 사상이닝께, 증략적 결혼(結婚)이란 것두 그렇구 증략적 제휴니 머니 다 찌리찌리 즈덜 이익 보자넌 거여.

증략-족[-낙족] ㉠ 정략-적(政略的) ㉡ '증략-적'

증 : 량[-량] ㉠ 정 : 량(定量) ㉡ 정해진 분량, 또는 양을 헤아림. ㉢ 암만 봐두 증량이 못 되넌 것 같구면./더 준다구 존소리 들을 것도 아닝께 증량대루만 놓으.

증 : 렬[-렬] ㉠ 정 : 렬(整列) ㉡ 가지런하게 늘어세움. ㉢ 책상 증렬을 참 잘해냈구면. ㉣(타) 증 : 렬-허다. ㉤(자) 증 : 렬-되다.

증령[-녕] ㉠ 정령(精靈) ㉡〈민속〉자연물이나 사물에 깃들어 있는 신령스런 기운. ㉢ 증령-송배. 증령-신앙.

증 : 례[-례] ㉠ 정 : 례(定例) ㉡ 정

해진 규칙이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증 : 례-화[-례-] ㉠ 정 : 례-화(定例化) ㉡ 정해진 규칙이나 관례에 따르게 됨. 또는 그렇게 함. ㉢(타) 증 : 례화-허다. ㉣(자) 증 : 례화-되다. ㉤ 이미 증례화된 걸 왜 본잡시럽게 바꿀라구 한다?

증 : 례-회[-례-] ㉠ 정 : 례-회(定例會) ㉡ 정해진 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임.

증리[-/-니] ㉠ 정리(情理) ㉡ 사람의 정과 도리. ㉢ 그 동안의 증리루 이번은 봐주지면 담버턴 으림없는 증만 알아./이우지간 증리루 위치기 이럴 수가 있단나?

증 : 리[-/-니] ㉠ 정리(整理) ㉡ 흐트러진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함. ㉢ 집안 증리두 깨끗구 난 인전 마실이나 가야겠다. ㉣(타) 증 : 리-허다. ㉤(자) 증 : 리-되다. ㉥ 헛간 점 증리허라구 헛터니 구석쟁이 한쪽이다 다 몰어났구면.

증립[-니퍼-] ㉠ 정 : 립(定立) ㉡ 정하여 세움. ㉢(타) 증립-허다. 증립-시키다. ㉣(자) 증립-되다. ㉤ 법이 지대루 증립되야 나라두 돌아가넌 거.

증 : -말 ㉠ 정 : -말(正-) ㉡ 거짓 없이 진실한 것. 또는 그러한 말. ㉢ 참말.

『시방 현 말이 증말이어?/증말 요새차 람 바쁠 적이는 몸이 열이었으면 좋겠어.

증 : 말-루 ㄷ 정 : -말(正-) ㉠ ①틀림없이. 『그 사람이 증말루 약속을 지키까? ②말 그대로 거짓없이. ㉡참말루. 증말로. 『증말루 요즘 나는 사년 게 사년 게 아녀. 허년 일마두 실패허닝께 증말루 똑 죽구 싶다닝께.

증 : 면 ㄷ 정 : 면(正面) ㉠ 『증면.』
『들구 판짓허덜 말구 증면 점 츠다봐, 이눔아.

증 : 른 ㄷ 정 : 면(正面) ㉠ 『증른>증면.』 앞에서 바로 보이는, 마주하고 있는 면. ㉡증면. 『저건 증른이루 보믄 잘 안 보여./증른이루 공격(攻擧)허믄 우리편이 불리허당께.

증묘 ㄷ 정묘(丁卯) ㉠<민속> 천간지 지(天干地支)로 이루어진 육십갑자(六十甲子)의 네 번째. 『증묘생(丁卯生). 증묘년(丁卯年). 증묘호란(丁卯胡亂).

증무 ㄷ 정무(政務) ㉠ 행정 사무, 국가의 정치적 사무.

증 : 문 ㄷ 정 : 문(正門) ㉠ 건물의 앞쪽에 나 있어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 『근물만 썬지 아직 증문두 읍어./말이 증문이지 그것두 증문인감?

증물-화 ㄷ 정물-화(靜物畵) ㉠<미술>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서양화의 한 분야.

증미 ㄷ 정미(丁未) ㉠<민속> 천간지 지(天干地支)로 이루어진 육십갑자(六十甲子)의 마흔 번째. 『증미생(丁未生). 증미년(丁未年). 증미7조약(丁未七條約).

증미-소 ㄷ 정미-소(精米所) ㉠ '방앗간-증미소'. 전통식 기계로 곡식을 찧는 현대식 방앗간. 『요즘 방앗간이 오디 남았남? 증미소도 면대이 하나씩이나 있으까 마간다.

증밀 ㄷ 정밀(精密) ㉠ 빈틈이 없이 치밀하고 자세함. ㉡ 증밀-허다. 『증밀허게 살펴봤넌디두 까닭을 몰르겠더라.

증밀-도 [-도] ㄷ 정밀-도(精密度) ㉠ 세밀하고 정확한 정도. 『암만 증밀도를 높여두 불량품은 나오넌 뻬이여.

증박 ㄷ 정박(碇泊/碇泊) ㉠ 닻을 내리고 배가 머무름. 『정박지(-地). 증박장(-場). 증박선(船). ㉡(자) 증박-허다.

증 : 방-형 ㄷ 정 : 방-형(正方形) ㉠<수학>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증사각형.

증변 ㄷ 정변(政變) ㉠ '증른>증변'. 모반이나 반란 따위로 발생한 큰 정치 변동. ㉡증른. 『구십 평생이 증변두 많이 겪구 우덜은 살만침 살았어. 굶어 넘던 보릿고개두, 살만헌 요즘 시장두 다 보구.

증변 ㄷ 정변(政變) ㉠ 『증변.』

증보 ㄷ 정보(情報) ㉠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사실, 사물에 대한 자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보. ㉡시상이 증보덜은 넘쳐나넌디 쓸디웁넌 것덜만 많아진 것 같어.

증복 ㉠ 정복(征服) ㉡ '증복'정복. 다른 나라나 민족을 무력으로 굴복시킴, 또는 힘든 일을 이겨냄. ㉢증복 활동. 증복 존쟁. ㉣(타) 증복-허다. ㉤히말라야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증복허다.

증복-자[-짜] ㉠ 정복-자(征服者) ㉡ 다른 나라나 민족을 무력으로 굴복시킨 사람. ㉢정복자.

증부¹ ㉠ 정부(情夫) ㉡ 정을 나누며 사귀는 사내. ㉢ 좋게 얘기허서 증부구, 쉽게 얘기허문 그제 지등스방이여.

증부² ㉠ 정부(情婦) ㉡ 정을 나누며 사귀는 여자. ㉢ 동네방네 증부를 승켜 놓구 지집질 허닝 것두 자랑인감?

증부³ ㉠ 정부(政府) ㉡ 입법, 사법, 행정을 맡아보는 나라의 통치기관. ㉢ 증부-기관. 증부-조직. 증부군.

증부-미 ㉠ 정부-미(政府米) ㉡ 정부가 쌀값 조정이나 군량 비축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쌀. ㉢ 증부미가 싸닝께 먹닝 거지 맛 있어서 먹닝 사람두 있남유?

증 : 비 ㉠ 정 : 비(整備) ㉡ ①흐트러진 것을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 ㉢ 도로 증비가 시급헌디 군이 돈이 읍다. ②기계나 설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

록 살피고 손질함. ㉣ 자동차를 샀걸랑 증비나 점 허구 땡겨. ㉤(자) 증비-허다. ㉥입시 제도를 새루 증비헌다구는 허더면 그제 말차람 쉽간?

증 : 비-공 ㉠ 정 : 비-공(整備工) ㉡ 차나 비행기 따위의 기계가 잘 작동하도록 보살피거나, 고장난 곳을 손질하는 사람. ㉢증비사. ㉣그집 큰애가 흥성이 있던 자동차금사소이 증비공이루 추직을 헐다.

증 : -비례 ㉠ 정 : 비례(正比例) ㉡ <수학> 두 수가 같은 비율로 줄거나 늘는 관계. ㉢(자) 증 : 비례-허다. 증 : 비례-되다.

증 : 비-사 ㉠ 정 : 비-사(整備士) ㉡ 차나 비행기 따위의 기계가 잘 작동하도록 보살피거나 손질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기술자. ㉢증비공.

증사¹ ㉠ 정사(丁巳) ㉡ <민속> 천간지지(天干地支)로 이루어진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십네 번째. ㉢ 증사년(丁巳年). 증사생(丁巳生) 배암띠.

증사² ㉠ 정사(政事) ㉡ 정치적인 일이나 행정 사무. ㉢오원님, 증사이 바블틴디두 이렇기 찾아주시닝께 증말 고맙구먼유.

증사 ㉠ 정사(情死) ㉡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죽음. ㉢(자) 증사-허다.

증사 ㉠ 정사(情事) ㉡ 남녀의 육체적

사랑 행위. ㉠(자) 증사-허다. ㉡ 층층 남녀가 증사허던 것을 누가 뭐래남? 지 지집 두구 엉뚱헌 디다 씨뿌리구 땡기 년 걸 뭐래는 거지.

증:사 ㉢ 정:사(正史) ㉣ 사실에 근거한 정통 역사. ㉤야사(野史). 야승(野乘). ㉥삼국유사는 야사구, 증사는 삼국 사기여.

증:사 ㉦ 정:사(正邪) ㉧ 바른 것과 사악한 것. ㉨ 사상인 본래 증사란 것이 따로 읍능 겨. 바른 놈이 증이 아니라 심 썩 놈이 증이고, 약헌 것덜은 늘 사가 되능 겨.

증:-사각형[-가경] ㉩ 정-사각형(正四角形) ㉪<수학>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네모꼴.

증산 ㉫ 정산(精算) ㉬ 자세하고 세밀하게 계산함. ㉭ 우리 애는 은말 증산인가 먼가 험다구 맨날 늦게 퇴근혀. ㉮(타) 증산-허다. ㉯(자) 증산-되다. ㉺ 퇴직금은 미리 증산히서 다 탔더니만.

증상 ㉻ 정상(頂上) ㉼ 맨 꼭대기, 가장 높은 자리. ㉽ 개산(伽倻山) 증상서 바라보던 스해 바다가 참 일품이여./한미증상회담(韓美頂上會談).

증:상 ㉿ 정:상(情狀) ㊀ ①<법률>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정. ㊁초범이라구 증상이 참작되서 징역은 뜸혔다. ②처한 사정

과 형편.

증:상 ㊁ 정:상(正常) ㊂ 본디대로, 제대로 된 상태. ㊃열이 나구 막 그러던 게 재 몸이 시방 증상이 아난디?

증:상-가[-가] ㊄ 정:상-가(正常價) ㊅ 본디대로의 가격. ㊆물건을 팔라믄 증상가를 받으야지 다만 싸게 팔믄 우덜은 오쩌라는 거여?

증:상-급[-급] ㊇ 정:상-급(頂上級) ㊈ 지위나 서열에서 맨 위의 등급. ㊉증상급 회담. 증상급 기술자. 증상급 선수(選手).

증:상-인 ㊉ 정:상-인(正常人) ㊊ 몸과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증상인이 아녀. 막 짓어 대구 물어뜯던 개라닝께.

증:상-적 ㊌ 정:상-적(正常的) ㊍ ㉠ '증:상-적'.

증:상-즉 ㊎ 정:상-적(正常的) ㊏ ㉡ '표준어화 과정: 증상즉>증상적>정상적'. 제대로 된 상태의, 또는 그런 것. ㉢증상적. ㉣사람이 점 무지라닝께 그러지, 증장즉인 사람이믄 그러겄나?/성 동상이 싸워서니 법원까장 갔넌디 그게 오디 증상즉인 일인감? 그러닝께 인전 성이구 동상이구 증상즉 관계는 물 건너 간 겨.

증:상-화 ㊏ 정:상-화(正常化) ㊐ 제대로 된 상태로 됨. ㊑(자/타) 증:

상화-허다. ㉠(자) 증 : 상화-되다. ㉡이 상황을 증상화할라든 시간이 꽤 걸릴 거. 근디 증상화한다던 게 말아야 쉽지만 이 잘못된 것들을 위치기 되돌린단 말여?

증 : 색 ㉠ 정 : 색(正色) ㉡ 얼굴에 장난기가 없이 엄숙한 빛이 드러남. 또는 그런 얼굴빛. ㉠(자) 증 : 색-허다. ㉡ 웃자구 현 소린디 그렇기 증색을 허문 우쩨냐? 증색허지 않음? 내가 시방 자네 신소리에 웃으야 쓰겠남?

증서 ㉠ 정서(情緒) ㉡ '표준어화 과정: 증스>증서>정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감정이나 기분. ㉠증스. ㉡ 이전버더 살만은 헤졌네티 증서두 읍구 인심두 메말러졌어.

증서-적 ㉠ 정서-적(情緒的) ㉡ ㉠ '표준어화 과정: 증스>증서>정서적'. 여러 감정이나 기분을 불러 일으키는, 또는 그런 것. ㉠증스>증서. ㉡ 의사가 그러네티 스트레쓸 많이 받어서 그런 거랴. 증서적인 안증이 필요허다너면.

증 : 석 ㉠ 정 : 석(定石) ㉡ ①<운동> 바둑에서, 공격과 수비의 쌍방 최선으로 인정된 돌 놓은 방식. ㉡ 기본 증석두 몰르던 사람이 왜 흰 돌을 잡네티냐? ②통념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식. ㉡ 대패질두 증석이 있어. 대충 헛 것 같어두 그게 안 된다영께.

증 : 석-가[-까] ㉠ 정 : 석-가(鄭石

歌) ㉠<문학> 태평성대를 기리며,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가요.

증 : 설 ㉠ 정 : 설(定說) ㉡ '표준어화 과정: 증>설>증>설>정>설'. 여러 학설 가운데 지배적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설. ㉠증설. ㉡ 증설루 받아덜이다. 증설루 굳어지다.

증성 ㉠ 정성(精誠) ㉡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는 참된 마음. ㉠정성. ㉡ 느낌이 증성을 보이든 나두 생각해 보께.

증성-껏[-껏] ㉠ 정성-껏(精誠-) ㉡ 참된 마음을 지극하게. ㉠정성-껏. ㉡ 내가 부몬님을 스무 해가 넘더락 증성껏 뵈셨네티 느낌이 그렇기 공 썬 소릴 헤싸니 솔직히 참 섭허구나.

증세 ㉠ 정세(情勢) ㉡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상황. ㉡ 화장장이 들어온다구 동네 증세가 심상틀 앓여./국제 증세가 배끼닝께 요샌 증공허구두 가차워지잖 내 배(가까워지지 앓았나그려).

증세 ㉠ 정세(政勢) ㉡ 정치가 이루어지는 형편이나 동향. ㉡ 은평해즌이다 뭐다 왜 이렇기 증세가 어지럽다? 우리나라 증세가 원전 조용헌 적 있남?

증수¹ ㉠ 정수(精髓) ㉡ 뱃속에 있는 골수, 또는 사물을 이루는 핵심. ㉡ 술의 증수라 허문 뽀니헤두 막걸리지. 우덜헌턴 곡기가 들어간 술이 질이닝께 말여.

증수² ㉠ 정수(淨水) ㉡ 물을 맑게 걸러냄, 또는 그렇게 하여 생긴 물. ㉢ 요새는 화장실 물두 다 증수를 히서 내보내니까 갱굴물두 맑아졌어. ㉣(타) 증수-허다. ㉤(자) 증수-되다. ㉥ 보령댐물을 끌어다가 증수히서 수돗물로 쓴다던디 그게 뭘소리여?

증 : 수³[-수] ㉠ 정 : 수(整數) ㉡<수학> 자연수에 0과 음(-)의 수를 포함한 수.

증수-기 ㉠ 정수-기(淨水器) ㉡ 불순물을 걸러 물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 ㉢ 딸애가 증수기를 사서 달여놨던디 큰 짓새가 너머 나와.

증수리 ㉠ 정수리(頂-) ㉡ ㉢ '증수배기'. ㉣ 보나마나 너두 니 아배 닮아서니 대머리가 증수리까장 뱃겨질 겨.

증수-배기 ㉠ 정수리(頂-) ㉡ '증(頂)+수(頭?)+-박이(所, 접사)'. 솥구멍이 있는, 앞머리의 가운데 부분. ㉢ 증수리. ㉣ 애덜은 마빡은 때려두 증수배긴 때리든 못써.

증수-장 ㉠ 정수-장(淨水場) ㉡ 정수시설을 갖춰놓고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곳. ㉢ 증수장 시설이 노후히서 큰돈을 털어 손본다던.

증숙-허다¹[-수커-] ㉠ 정숙-하다(貞淑-) ㉡ 여자가, 행실이 곧고 마음씨가 맑다. ㉢ 님덜은 그 여자가 증숙허

다구덜 허더면 내가 볼 적인 그렇두 않은 것 같어.

증숙-허다²[-수커-] ㉠ 정숙-하다(靜淑-) ㉡ 품성이 곱고 맑다. ㉢ 여자가 말은 안 허구 가만히 앉어만 있으니까 그제 증숙헌 건지 말 못허던 바본지 알 수가 읍었유.

증숙-허다³[-수커-] ㉠ 정숙-하다(靜肅-) ㉡ 고요하고 엄숙하다. ㉢ 도스관은 책 읽던 디닝께 증숙허더락 허라.

증순-허다 ㉠ 정순-하다(貞純-) ㉡ 행실이 곧고 품성이 순수하다.

증스 ㉠ 정서(情緒) ㉡ ㉢ '증서'. ㉣ 가난히서 먹을 건 읍어두 증스는 예전이 더 풍부했던 것 같어.

증스-죽 ㉠ 정서-적(情緒的) ㉡ ㉢ '증서적'.

증 : 설 ㉠ 정 : 설(定說) ㉡ ㉢ '증:설'. ㉣ 그것이 증슬이던 가슬이던 간이 난 관심읏어.

증승 ㉠ 정승(政丞) ㉡<역사> 조선 시대, 의정부를 이끌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르는 말. ㉢ 저 길루 쪽 올라가면 맹증승이 살던 동네가 나와. 얼릉 올라가 봐. 혹시 아녕감? 증승이 소를 타구 마중나올 지.

증 : 시 ㉠ 정 : 시(正視) ㉡ 똑바로 쳐다봄. ㉢(타) 증 : 시-허다. ㉣ 판전 피

덜 말구 똑따기 증시혀.

증 : 시 ㄱ 정시(定時) ㄱ 정해진 시간
이나 날짜. ㄱ 지다리겠다구 히서 증시
에 맞춰 나왔넌디 다덜 워덜 갔다?

증 : 식¹ ㄱ 정 : 식(正式) ㄱ 일정한
격식이나 의식. ㄱ 내 증식으로 신청헐
테닝께 지대루 한 번 붙어 보자구이.

증 : 식² ㄱ 정 : 식(定食) ㄱ 음식 값
을 정해 놓고 파는 일정한 음식. 또는
정한 때에 먹는 밥. ㄱ 이 집 증식이 비
싸긴 히두 먹을 만은 혀다.

증신 ㄱ 정신(精神) ㄱ 영혼이나 마음.
ㄱ 이 사람이 증신이 있는 겨, 읍는 겨?

증신-력 ㄱ 정신-력(精神力) ㄱ '표준
어화 과정: 증신력>증신력>정신력'. 정신
을 지탱하는 힘. ㄱ 증신력이 그렇기 약
히서 뵈을 혀겄나?

증신-특 ㄱ 정신-력(精神力) ㄱ '증
'증신력'. ㄱ 증신특이루 버텨기넌 것두
한계가 있는 거구먼유. 고상이라곤 손
톱맹큼두 안 해본 친군디 증신특만 따
질 건 아니잖유.

증신-머리 ㄱ 정신머리(精神-) ㄱ
'정신'을 속되게 이르는 말. ㄱ 어따, 증
신머리는 오따 두고 땡기는가?

증신-배기[-배-] ㄱ 정신-머리 ㄱ
'정신'을 낮잡아 이르는 말. ㄱ 이눔아,
증신배기를 워따 팔어먹구 땡기는 겨?/

내가 그렇기 신신당불혔넌디 증신배길
워따 흘리고 그걸 까먹넌단 말여?

증신-병[-병] ㄱ 정신-병(精神病) ㄱ
정신 장애로 언행이 정상적이 아닌 병
적 상태. ㄱ 우울증두 증신병이유. 편히
쉬게만 헨다구 될 일이 아니구유. 병원
이 가서 약두 먹구 치료를 히야유.

증 : 실 ㄱ 정 : 실(正室) ㄱ 본집에 사
는 아내, 곧 첩(妾)에 대한 본처(本妻)를
이르는 말. ㄱ 침실. ㄱ 본처가 죽자마자
지가 증실이라매 바루 짐 싸들고 안방이
들았었다.

증안-수 ㄱ 정안-수(井華水) ㄱ <민
속> 조왕신에게 기도하거나 한약을 달
일 때 쓰는, 새벽에 길어낸 맑고 깨끗한
우물물. ㄱ 증화수(井華水). ㄱ 의용군이루
끌려간 둘째 살려보내달라구 장광(醬庫
房)이다 증안수 떠놓고 날매두 빌었지.
그러다 할매는 죽구, 그 아덜은 아적두
안 왔어.

증액¹ ㄱ 정액(精液) ㄱ <의학> 수컷의
생식기에서 만들어져 성기를 타고 방출
되는 물. ㄱ 씨물. (비속어)쫄물.

증 : 액² ㄱ 정 : 액(定額) ㄱ 일정한
게 정해진 금액. ㄱ 증액권(定額券). 증액
제(定額制)./난 증액을 반구 팔았넌디 뭐
가 문제란 말여?

증양 ㄱ 정양(靜養) ㄱ 조용한 곳에서
휴식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음. ㄱ(자)



증양-허다. ㉠가가 큰 수술을 허구 나서니 증양허러 내려온 거라. 여서 한참 지낼 거라너면.

증 : 언¹ ㉠ 정 : 언(正言) ㉠ 도리와 이치에 맞는 말.

증 : 언² ㉠ 정 : 언(定言) ㉠〈논리〉 어떤 명제나 주장, 판단을 조건 없이 확정하여 말하거나, 또는 그러한 말. ㉠(자) 증 : 언-하다. ㉠ 증언 판단. 증언 추리.

증 : 언-허다 ㉠ 정 : 언-하다(整然-) ㉠ ‘증은허다’증언허다. 가지런하다. ㉠ 증은허다. ㉠ 집안을 참 증연허게 증리했구먼.

증열[-널] ㉠ 정열(情熱) ㉠ ‘증을’증열. 불처럼 일어나는 감정. ㉠ 증을. ㉠ 젊은 사람이 증열이 불타야지, 그렇기 의욕이 약허문 오쩨냐?

증열-적[-널쩍] ㉠ 정열-적(情熱的) ㉠ 감정이 뜨겁게 일어나는, 또는 그러한 것. ㉠ 증열적이루 시작허든 헛년디 뜻차람 되년 앓내 벼.

증염 ㉠ 정염(情炎) ㉠ ‘증음’증염. 불처럼 일어나는 욕정. ㉠ 증음.

증예 ㉠ 정예(精銳) ㉠ 날래고 용맹스러움. 또는 여럿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 ㉠ 소수 증예루 멧멧을 손발헐 거라 허더면 잘 될릉기는 몰르겠네.

증예-군 ㉠ 정예-군(精銳軍) ㉠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 ㉠ 요집은 애덜두안 낳넌디 군인덜 줄이구 증예군을 육성허야 허.

증예-병 ㉠ 정예-군(精銳軍) ㉠ 날래고 용맹스러운 병사.

증예-화 ㉠ 정예-화(精銳化) ㉠ 날래고 용맹스럽게 됨. ㉠(타) 증예화-허다. (자) 증예화-되다. ㉠ 군을 증예화허다. 조직이 증예화되다.

증 : 오 ㉠ 정 : 오(正午) ㉠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낮 12시. ㉠ 증오가 넘었을 틈디 참이 왜 안 나온다?

증 : 오 ㉠ 정 : 오(正誤) ㉠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함. ㉠(타) 증 : 오-허다.

증 : 오-표 ㉠ 정 : 오-표(正誤表) ㉠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구문을 바로잡아 만든 표. ㉠ 책이 나왔넌디 틀린디가 많어서 증오표를 멧갈어 뒤이다가니 불이기루 헐유.

증 : 온 ㉠ 정 : 온(定溫) ㉠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 하우스 농사는 겨울이두 증온을 맞춰야 허잠유. 허닝게 날춰나른 기름감이 걱정되쥬.

증 : 온 동물 ㉠ 정 : 온 동물(定溫動物) ㉠〈동물〉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 ㉠ 온동물.

증욕 ㉠ 정욕(情慾) ㉠ 이성의 육체에

대한 욕망. ㉠승욕(性慾). ㉡증욕이 일년
않으믄 춘춘(青春)두 아니지.

증 : 원 ㉢ ㉣ 정 : 원(定員) ㉤ 어떤 규
정에 의해 정해진 인원. ㉥ 사람이 넘치
닝께 암체두 증원을 점 늘리아겠지?

증 : 원 ㉦ ㉧ 정원(庭園) ㉨ 집안 주변에
가꾼 꽃밭. ㉩ 그집 증원을 참 이쁘게
가꿨다면./농사질 땅떼기두 읍넌 집안
이 뉘 증원이여?

증원-사 ㉪ ㉫ 정원-사(庭園師) ㉬ 정원
의 꽃이나 수목을 가꾸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핵겨 소산디 올라나 화단을
잘 개꾸넌지 증원사가 따루 읍다닝께.

증원-수 ㉮ ㉯ 정원-수(庭園樹) ㉺ 정원
에 가꾸는 나무. ㉻ 증원수루 쓴다구 단
풍나물 점 구해달라더면.

증 : 원-제 ㉼ ㉽ 정 : 원-제(定員制) ㉽
참가자의 인원을 일정하게 정하여 행하
는 제도. ㉾ 회원을 증원제루 허넌디 다
차서니 들어갈 수가 읍다너면.

증월 ㉿ ㊀ 정월(正月) ㊁ 음력에서, 해
의 시작이 되는 1월. ㊂ 증월달. ㊃ 증월
초하룻날 게을르믄 일년 내내 게을름뱅
이 되닝 겨./증월두 다 가넌디 자네 꼬
춧씨는 뵈나(뵈렷나)?

증유¹ ㊄ ㊅ 정유(丁酉) ㊆ 천간지지(天干
地支)로 이루어진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서른네 번째. ㊇ 정유-재란(丁酉再亂)/
증유는(丁酉年) 달기띠.

증유² ㊈ ㊉ 정유(精油) ㊊〈화학〉 ‘증유
정유’. 원유를 정제한 석유. ㊋ 정유. ㊌
증유-산업(精油産業). 정유-소(精油所).

증육 ㊍ ㊎ 정육(精肉) ㊏ 뼈와 기름 따
위를 발라낸 살코기.

증육-점[-점] ㊐ ㊑ 정육-점(精肉店) ㊒
‘증육점’증육점. 돼지고기나 소고기 따
위를 파는 가게. ㊓ 푸주칸. ㊔ 증육점이
깨달린 피기덩이차람 왜 그렇기 축 늘
어져 있다?

증육-점[-점] ㊕ ㊖ 정육-점(精肉店) ㊗
‘증육점’. ㊘ 그집 아덜덜이 온양서
증육점을 헌다넌디 칼질 참 잘허더면.

증 : 음 ㊙ ㊚ 정 : 음(正音) ㊛〈언어〉 조
선조 4대 임금인 세종과 집현전의 학자
들이 1443년에 창제한 우리나라의 글
자. ㊜ 음:문(諺文). ㊝ 시:종(世宗)께서 창
제허신 증음 27자(正音二十七字).

증 : 음 ㊞ ㊟ 정읍(井邑) ㊠ 전라북도 남
부에 있는 행정지명.

증 : 음-사[-싸] ㊡ ㊢ 정읍-사(井邑詞)
㊣〈문학〉 행상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전하는 백제 유일
의 노래.

증의¹[-/이] ㊤ ㊥ 정의(情誼) ㊦ 사귀
며 쌓아온 정. ㊧ 이번은 지난 증의를 바
서 넘어가지면 자네가 또 그러문 못 쓰
능 겨.

증 : 의² ㊦ ㊧ 정 : 의(正義) ㊨ 사람이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 『증의 사회를 구현하다./증의가 사라지면 나라두 무너지는 거.』

증 : 의³ ㉠ 정 : 의(定義) ㉡ 낱말이나 사물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함. ㉢ (타) 증 : 의-하다. ㉣(자) 증 : 의-되다. 『산다년 게 한 마디루다 증의허긴 어렵지만 말여. 죽어두 넘헌틴 피해 안 가터락 애쓰년 게 사람 사년 도린 거.』

증 : 의-럽다[-의럽따/-이럽따] ㉠ 정 : 의-롭다(正義-) ㉡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바르다. 『사람이 증의럽덜 앓으믄 늘 떼뻬덜 못헌 뱀이여.』

증 : 이 ㉠ 정 : 히(正-) ㉡ ≒ ‘증히’.

증 : 이-월 ㉠ 정 : 이-월(正二月) ㉡ 음력으로, 1월과 2월. 『증이월두 다가 구 인전 슬슬 농삿일루 바빠나갓구면.』

증인 ㉠ 정인(情人) ㉡ 마음이 통하는 사람, 또는 남몰래 정을 나누는 남녀가 서로를 이르는 말. 『그 츠녀는 증인이 따로 있으닝께 고여니 맘쓰구 헛물키덜 말여.』

증 : 은-허다 ㉠ 정 : 연-하다(整然-) ㉡ ≒ ‘증연하다’. 『헛간이 물건덜 점 증은허게 해 나라.』

증을[-늘] ㉠ 정열(情熱) ㉡ ≒ ‘증열’. 『증을이 넘치년 것은 좋지만 주븐두 점 살필 증 알으야 혀.』

증음 ㉠ 정염(情炎) ㉡ ≒ ‘증염’.

증자 ㉠ 정자(精子) ㉡ <생물> 동물 수컷의 생식 세포. 『증자와 난자의 결합(結合).』

증 : 장 ㉠ 정 : 장(正裝) ㉡ 격식에 맞춰 차려 입은 옷. 또는 점잖게 차려입은 옷차림. 『글흔식장이 간다매 증장을 허야지, 잠바때기를 입구 나스믄 오쩨대유?』

증쟁 ㉠ 정쟁(政爭) ㉡ 정치관의 싸움. 또는 정당간의 다툼. 『국회의원덜이 나랏일은 안 보구 맨 증쟁만 일삼으닝께 사람덜이 국개의원이라구두 헌다.』

증적¹ ㉠ 정적(政敵) ㉡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 『이승만 박사가 여운형이니 김구니 허년 증적덜 다 해친 거. 말루는 깡패덜이 총이루 싸 직였다 허지면 알구 보믄 다 그런 거라닝께.』

증적² ㉠ 정적(靜寂) ㉡ ‘증즉>증적’. 야릇함이 배인 고요함. ㉢증즉. 『깡깡헌 증적이 홉싸여 숨어 있을라닝께 월마나 미서웠것어.』

증-적³[-쩍] ㉠ 정적(靜的) ㉡ ≒ ‘증즉>증적’. 움직임이 없는 고요의 상태. ㉢증즉. 『그림이 증적이라 생동감이 없구면.』

증전¹ ㉠ 정전(停電) ㉡ ‘증즌>증전’. 흐르던 전기가 일시 끊어짐. ㉢증즌. ㉣(자) 증전-되다. 『왜 갑자기 증전이 된다? 아까침이 증붓대 교체 공사루 뒤』

시간 **증준될** 거라구 구장이 방송했유.

증전² ㉠ 정전(停戰) ㉡ <군사> '증준' 증전. 싸움을 일시 중단함. ㉢ 증준. ㉣ (자) 증전-하다. 증전-되다. ㉤ 육니오 적이 증전 함이(合議)가 2년을 끄넌 통이 군인덜 참 많이 죽었어.

증-전기 ㉠ 정-전기(靜電氣) ㉡ '증준기'. ㉢ 증전기라구 무시허문 안 되어. 증전기 땀이 불이 나기두 험다너먼.

증절 ㉠ 정절(貞節) ㉡ '증줄'증절. 여자의 절개. ㉢ 증줄. ㉣ 요즘 시상인 증절 같은 애길 허문 시절이라구 허녕 겨.

증점[-점] ㉠ 정점(頂點) ㉡ '증증'증점. 맨 꼭대기. 또는 그러한 상태나 위치. ㉢ 증증. ㉣ 지리산의 증점은 천왕봉(天王峰)이구, 봉사봉(兵使峰)은 백두산의 증점이라닝께. 알두 못허매 아넌 책은 펍 허너먼.

증정¹ ㉠ 정정(訂正) ㉡ '증증¹'. ㉢ 문장 땀 개 증정한다구 이게 글이 되까?

증정² ㉠ 정정(政情) ㉡ '증증'증정. 정치계의 상황. ㉢ 증증. ㉣ 증정이 안정(安定)되야 스민덜두 땀 놓구 살 수 있넌 겨.

증 : 정-당당 ㉠ 정 : 정-당당(正正堂堂) ㉡ '증증당당'. ㉢ 실력이 있으면 증정당당허게 한 번 불어 보자구려.

증정-허다 ㉠ 정정-하다(亭亭-) ㉡

'표준어화 과정: 증증하다>증정하다>정정하다. 우뚝하고 굳세다. ㉢ 정정하다. ㉣ 그 낭반 지끔두 증정허시대유? 증정헌 게 뭐여? 소 잡어, 이 사람아.

증 : 족-수[-수] ㉠ 정 : 족-수(定足數) ㉡ <법률> 의사 진행과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증 : 좌 ㉠ 정 : 좌(正坐) ㉡ 바르게 앉음. ㉢ (자) 증 : 좌-하다. ㉣ 으르신덜이 죽 증좌허구 기신디 들어갔다가 나오닝께 지가 똑 벌 받구 나온 기분이유?

증중-동 ㉠ 정중-동(靜中動) ㉡ 고요한 가운데의 소리 없는 움직임. ㉢ 저게 증중동이여. 말두 읍이 벌이는 저 일은 저 두 낭반배끼 무르다닝께.

증 : 중-허다 ㉠ 정중-하다(鄭重-) ㉡ 태도나 기운이 점잖고 예의바르다. ㉢ 증중하게 부탁을 디러봤넌디 반응이 응 시부정참더면유.

증즉¹ ㉠ 정적(靜寂) ㉡ '증적²'.

증-즉²[-즉] ㉠ 정-적(靜的) ㉡ '증적³'. ㉢ 사람 승극(性格)이 너머 증즉이라 것도 어려워.

증준¹ ㉠ 정전(停電) ㉡ '증전¹'. ㉢ 한준이 존화허닝께 존부상대이 까치집 땀이 증준이 된 거래유.

증준² ㉠ 정전(停戰) ㉡ '증전²'.

증-준기 ㉠ 정-전기(靜電氣) ㉡ <물



리> '증근기>증전기'. 전하의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의 전기 현상을 이르는 말. ㉠증전기. ㉡난 증근기 땀이 속옷을 못 입어. 어쩔 땐 증근기루 껌껌껌 놀랜다닝께.

증절 ㉠ 정절(貞節) ㉡ ㉢ '증절'. ㉣ 으자는 증증이 있어야 허년 거구 남자는 지조가 있어야 허년 거여.

증증[-뜸] ㉠ 정점(頂點) ㉡ ㉢ '증점'. ㉣ 증증이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거가 오면지 알 수가 읍년 뻬이여.

증증¹ ㉠ 정정(訂正) ㉡ '증증>증정'. 글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음. ㉢증정. ㉣(타) 증증-허다. ㉤이거 사람 이름이 배껌구면, 증증해서 다시 뽑으야껌어.

증증² ㉠ 정정(政情) ㉡ ㉢ '증증²'.

증 : 증-당당 ㉠ 정 : 정-당당(正堂堂) ㉡ '증증당당>증정당당'. 바르고 떳떳함. ㉢증정당당. ㉣ 증 : 증당당-허다. ㉤그렇기 증증당당헌 늬이 왜 나스덜 못허구 뒤서 모사(謀事)를 트는 거?

증지 ㉠ 정지(停止) ㉡ 하던 일이나 움직임 따위가 멈추거나, 그것을 그치도록 함. ㉢증지. ㉣증지 신호를 무시허구 그렇기 달리든 오쩨라구려? ㉤(자/타) 증지-허다. ㉥(자) 증지-되다.

증진 ㉠ 정진(精進) ㉡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며 나아감. ㉢(자) 증진-허다. ㉣맨날 노년디만 증진허덜 말구 일을

그렇기 히보슈./년 딘 걱정 허덜 말구 공부이만 증진혀.

증차 ㉠ 정차(停車) ㉡ 차가 멈춤, 또는 차를 세움. ㉢증차두 허기 존이 내리든 우염혀. ㉣(자) 증차-허다. ㉤스들지 말구 증차허문 타디락 혀.

증 : 착 ㉠ 정 : 착(定着) ㉡ 어느 곳에 붙박여 살아감. 또는 어떤 현상이 사회에 수용됨. ㉢고향이 증착을 허구는 싯은 모냥인디 농사처가 읍으닝께 쉽덜 앓응개 뷰. ㉣(자) 증 : 착-허다. ㉤타지 사람이 늬이 동네서 증착허기가 오디 말차람 쉬웁감?

증 : 착-금[-금] ㉠ 정 : 착-민(定着金) ㉡ 어느 곳에 붙박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증착금 받은 건 오쩨 생각이여? 뻬 푼 되두 앓년 증착금 애진 끄내두 말어.

증 : 착-민[-창-] ㉠ 정 : 착-민(定着民) ㉡ 떠돌아다니지 앓고 어느 곳에 붙박여 살아가는 사람.

증 : 착-지[-찌] ㉠ 정 : 착-지(定着地) ㉡ 일정한 곳에 붙박여 살아가는 곳.

증착-촌 ㉠ 정착-촌(定着村) ㉡ 떠돌던 사람들이 모여 이룬 마을.

증찰 ㉠ 정찰(偵察) ㉡ ①더듬어 엿보고 살핌. ㉢저짜이 뵈을 꾸미구 있년지 물르닝께 자네가 증찰 점 허구 와. ②<군사>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적정이나 주변 지형을 살피는 일.
 圖(타) 증찰-허다.

증찰-기 圖 정찰-기(偵察機) 圖<군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기. ㉠비양기가 나트막허니 나년 걸 보닝께 증찰기구먼.

증찰-대[-대] 圖 정찰-대(偵察隊) 圖<군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증책 圖 정책(政策) 圖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도. ㉠스민 증책. 교육 증책. 경제 증책. 대북 증책. 증책을 맹글다. 증책을 세다.

증책-적 圖 정책-적(政策的) 圖增圖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도와 관련이 있는, 또는 그런 것. ㉠증책적 배려. 증책적 지원. 증책적이루 시행허다.

증처 圖 정처(定處) 圖 '증츠'증처. 정해진 곳. 머물러 사는 곳. ㉠증처. ㉠깨구리밥마냥 증처 없이 떠댕길 수만은 읍짚유. 지두 인전 장개들구 여 살 거구먼유.

증 : 초 圖 정 : 초(正初) 圖 정월 초순. 한 해의 첫 부분. ㉠이 사람이 왜 증초버텀 시비를 걸구 그랴?/증초이 재수읏년 일이 벌어지면 일 년이 재수읏는 겨.

증축 圖 정축(丁丑) 圖 천간지지(天干地支)로 이루어진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열네 번째. ㉠내가 증축생 소먼디 오째

서 범띠인 자네가 성인감?

증취[-취] 圖 정취(情趣) 圖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흥취. ㉠갈날 증취는 암체두 시골질 걸년 것이 지맛이지./오라 살다보니 이런 증취두 맛보년구먼.

증초 圖 정처(定處) 圖 ㉠'증처'.

증치-계 圖 정치-계(政治界) 圖 정치인과 그 조직이 움직이는 사회. ㉠그 낭반 증치계의 그물(巨物)이여. 이번이 대통령 후보루다 나올 거라구덜 험다닝께.

증치-권[-권] 圖 정치-권(政治權) 圖 나랏일을 하는 이들의 영역. ㉠증치권. ㉠그 야근 증치권서 떠돌긴 험다더면 우덜허군 응 상관 읏년 일이여.

증치-력 圖 정치-력(政治力) 圖 정치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힘. ㉠우덜이 맨날 끌러댕길 수만은 읍짚남? 군의원인 자네가 증치력 점 발휘허 봐.

증치-면 : 圖 정치-면(政治面) 圖 '표준어화 과정: 증치은/증치면/정치면'. 정치에 관한 분야. 또는 신문 따위에서 정치에 관련된 기사를 싣는 면. ㉠증치은.

증치-은 : 圖 정치-면(政治面) 圖 ㉠'증치면'.

증치-범 圖 정치-범(政治犯) 圖<법률> 국가 정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왜정 때 증치범이란 게 야중이 보닝께 다 독립투사였잖나 배. 시방두 그런 겨?

증치-부 ㉠ 정치-부(政治部) ㉡ 정치 관련 기사를 다루는 부서. 『사진기를 떡 매구 땡기매 지가 증치부 기자라구 빼기구 땡긴다던디, 그 증치부라던 게 뭐랴?

증치-판 ㉠ 정치-판(政治-) ㉡ 『증치권』. 『느털은 증치판이 발 달일 생각 아예 말어. 거 발 정그른 집안 망 현대잖여.

증치-학 ㉠ 정치-학(政治學) ㉡ 정치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

증 : 척¹ ㉠ 정 : 척(正則) ㉡ 바른 규칙.

증 : 척² ㉠ 정 : 척(定則) ㉡ 정해진 규칙.

증탐 ㉠ 정탐(偵探) ㉡ 몰래 살펴서 알아냄. ㉢(타) 증탐-허다. 『때리던 시어매버덤 말리던 시누가 더 믹갈맛다구, 일본 순사털버덤 증탐질허구 밀고 허던 조선 순사를 더 욱허구 그렸지.

증 : 통 ㉠ 정 : 통(正統) ㉡ 바른 계통, 또는 사물의 중요한 부분. 『그 냥반이 집안의 증통을 이서온 사램이라./ 증통이루 맞추닝께 산돼지두 한 방이 고꾸러지더면.

증 : 통-성[-성] ㉠ 정 : 통-성(正統性) ㉡(사회) 『증통승』증통성. 권력 지배를 승계하고 그 체제를 허용하게 하는 논리적인 근거. ㉢증통승. 『오면 권력이던지 증통성이 읍으른 피를 뿌리던 뱀이여. 자신이 읍으닝께 총칼루다가

증통성을 대신허던 거지.

증 : 통-승[-승] ㉠ 정 : 통-성(正統性) ㉡ 『증통성』.

증 : 통-파 ㉠ 정 : 통-파(正統派) ㉡ 어떤 학설이나 가르침 따위를 바르게 이어온 갈래. 『시상이 인정을 안허던 디 즈털이 암만 증통파라구 떠들믄 뵈헌다?

증 : 평 ㉠ 정 : 평(定評) ㉡ 『증평』. 『그집 물건이 증평이 났다구덜 허더면 나는 잘 몰르겠데, 이.

증표 ㉠ 정표(情表) ㉡ 『증표』정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물건. 『저 옥가락지가 지 어매가 냉기구 간 유일한 증표라.

증통-허다 ㉠ 정통-하다(精通-) ㉡ 어떤 사물에 관한 깊고 넓은 지식이나 이치를 알고 있다. 『판 것은 물러두 그짜이룬 증통헌 사람이여./그게 증통헌 소식통이루 즈혜온 얘기라.

증 : 평 ㉠ 정 : 평(定評) ㉡ 『표준어화 과정: 증·평』증·평』정·평. 세상 사람들이 두루 인정하는 평판. ㉢증평. 『풍장 치년 걸루는 이 바다서 증평이 난 냥반이여. 자네 실력허구는 땡 것이 아니라 닝께.

증학¹ ㉠ 정학(停學) ㉡(교육)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등교를 못하도록 하는

별. ㉠ **증학**을 당하다. **증학**을 시키다.
증학 츠분을 받다.

증 : 학² ㉠ 정 : 학(正學) ㉡ 올바른 학문.

증한 ㉠ 정한(情恨) ㉡ 사랑과 슬픔.
 사랑이 얽힌 슬픔. ㉠ 가슴이 백혀 떨어
 지털 앓으니까 **증한**이지, 잊구 자시구
 헐 것이든 그게 한이겠는감?

증 : 해 ㉠ 정 : 해(正解) ㉡ 바르게 풀
 이함. 또는 그런 풀이. ㉠ 한 사상 살어
 가넌디 **증해**라넌 게 워넌나? 그저 을심
 히 살어갈 뿐이지.

증 : -하다 ㉠ 정 : -하다(定-) ㉡(자/
 타) ①여럿 가운데 하나를 취하다. ㉠
 워치기 날은 증헌 겨? 그닝게 워니 날
 루 증헌 거냐구?/그 사람을 뽑어쓰기루
증혔다니 다행이구먼. ②그러하기로 마
 음을 굳히다. ㉠ ②몸이 안 좋아서 일은
 메칠 쉬기루 **증했어**.

증 : 혼 ㉠ 정 : 혼(定婚) ㉡ 남녀 집
 안이 혼인(婚姻)하기로 정함. ㉢ 혼약. ㉣
 파혼. ㉠ **증혼**을 했다가는 허지만 혼인
 두 안했넌디 오치기 합쳐 산다? ㉡(자)
 증 : 혼-하다. ㉠ **증혼허구** 혼삿날까장 잡
 었넌디 새약시가 교통사골 당했다너면.

증화¹ ㉠ 정화(精華) ㉡ 깨끗하고 훌
 륭한 알짜배기. ㉢ 증수(精髓). ㉠ 사랑의
 증화. 예술은 문화의 증화.

증화² ㉠ 정화(淨化) ㉡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맑게 함. ㉠ **증의사회구현**(正義
 社會具現)이니 사회 **증화**니 다 존 디 말
 여. 왜 죄 읍넌 사람까장 잡어 가난 말
 여. ㉡(타) 증화-하다. ㉠ 구정물 **증화
 현다**구 생수되지 안드끼 사람 못된 것
 은 가리쳐두 소영없어.

증화-수 ㉠ 정화-수(井華水) ㉡(민
 속) ㉢ '증안수'. ㉠ 애가 아프믄 의원일
 가야지, **증화수**만 떠놓구 빌어싸믄 뭇
 현다?

증화-조 ㉠ 정화-조(淨化槽) ㉡ 더러
 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가 달린
 통. ㉠ 집안이 좁어서 짜끄만 **증화**줄 쓰
 야졌유./**증화**줄 청소하셔 수돗물이 소
 독약 냄새가 났구먼.

증 : 확 ㉠ 정 : 확(正確) ㉡ 바르게
 꼭 맞음. ㉢ 증 : 확-하다. ㉠ 매사이 **증
 확**현 사람이닝게 믿어두 더. **증확**현 것
 은 아넌디 그 사람은 점 뻑뻑혀. 응 유
 도리(ゆとり)가 읍다닝께.

증(·)확-도[-도] ㉠ 정 : 확-도(正確
 度) ㉡ 바르게 꼭 맞는 정도. ㉠ 즈율이
 낱어선지 **증확도**가 안 나오너면.

증(·)확-성[-성] ㉠ 정 : 확-성(正確
 性) ㉡ ㉢ '증확성'.

증(·)확-승[-승] ㉠ 정 : 확-성(正確
 性) ㉡ '표준어화 과정: 증확승>증확성'.
 바르게 꼭 맞는 성질. ㉢ 증확성. ㉠ 사람
 이 **증확승**이 있어야지, 뭇 하나 맥길라

두 통 믿을 수가 읍당께.

증(:)확-히[-확키] ㉠ 정 : 확-히(正確-) ㉡ 바르고 꼭 맞게. ㉢ 그러, 지왕이 말 나온 짐이 **증확히** 한 번 따져보자구, 이.

증황 ㉠ 정황(情況) ㉡ 사물의 상태나, 일의 상황. ㉢ 이왕지사 **증황**이 그렇기 된 건디 따지구 자지구 헐 것두 읍유./그 사람 **증황**이 딱허긴 허더먼 우덜이 뭘 오치기 허겠냐?

증회¹ ㉠ 정회(情懷) ㉡ 가슴에 끓어오르는 애뜻한 마음. ㉢ 마음 속이 **증회**야 오찌지 못허겠지만 사증이 이런 걸 참지 았으른 워찌겠냐?

증회² ㉠ 정회(停會) ㉡ 회의를 잠시 멈춤. ㉢ 왜 갑자기 **증회**를 허구 그런다? 아, 회허년 사렘덜두 밥은 먹으얏 것 아닌가 배. ㉣(자) 증회-허다.

증 : 히[-이] ㉠ 정 : 히(正-) ㉡ 틀림없이, 꼭. ㉢증:이. ㉣증:(正) ㉤ 자네덜 생각이 **증히** 그렇다믄 내 말릴 수는 읍지. 근디 말여. **증히** 그 방법배끼 읍었는가?

지¹ ㉠ 쥐 ㉡ <동물> '쥐'지. 쥐과에 속한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머리를 이뿌게 점 째르지 오티기 지가 뜯어 먹은 것차람 째렀다?/㉣지 잡넌다다 장독 부신다.(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일을 빗대어 이르는 말.) ㉤이 잡넌다다

초가삼칸 태운다.

지² ㉠ 쥐 ㉡ <한의학> 몸의 어느 부분에 경련이나 마비가 일어나는 현상. ㉢ 찬 바람을 쐬서 그런가 요새 들어 얼굴이 자꾸 지가 나쌌네./후염치다다니 지나믄 클나니께 물이 들어갈 적인 쪽 운동을 허구 들어가더락 허.

지³ ㉠ 기(氣) ㉡ 육체적 정신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의 원천. ㉢지운(氣運). 지기(志氣). ㉣ 사람이 **지**를 점 피구 땡기야지. 저렇기 지가 죽어서니 우 찼다?/그리기 지가 애 **지**를 그렇기 직이문 못 쓴다구 헛잡유./지가 꺾이다./지가 살다./지를 쓰다.

지-것[-건] ㉠ ㉡ '더'지(自)+것(者)→지것'제것'. 당사자 자신의 물건. ㉢제것. ㉣그 사람이 **지것** 쟁길 중만 알지 통님 생각을 못허더먼. ㉤(인칭) 앞서 언급한 사람을 낮잡아 도로 이르는 말. ㉥제것. ㉦그 심든 일을 오티기 허겠다구 **지것**이 나셨다?

지것-덜[-겼덜] ㉠ ㉡(인칭) '더'지(自)+것(者)+덜(접사)→지것덜'제것덜'. 앞서 언급한 여러 사람을 낮잡아 도로 이르는 말. ㉢제것덜. ㉣지것덜이 지난 은공을 그리 잊으믄 못 쓰능 겨. **지것덜**이라구 왜 그 은공을 물르켰유. 다 사정이 있겠쥬.

지-구녁 ㉠ 쥐-구멍 ㉡ ㉢ '지구녕'.

『자네한테는 뜬목(面目)이 읊다니께. 지구벽이라두 있으믄 확 들어가구 싶구먼.

지-구녕 ㉠ 쥐-구멍 ㉡ ㉢ 쥐(鼠)+구무/굴(穴)+-영/억(접사)→쥐구멍/쥐구멍 지구녕/지구벽/지구벽. ① 쥐가 뚫어놓은 구멍, 또는 쥐가 드나드는 구멍. 『지구녕이두 벳들 날 있다. 우덜이라구 맨날 심들기만 허졌는가?/지구녕이 소구녕 되능 겨. 그 일은 더 커지기 존이 막으야 험다니께. ② 몸을 숨길 만한 최소한의 장소를 이르는 말. ㉢ 지구벽, 지구벽. 『그땐 올때나 쟁피허던지 지구녕이래두 있으믄 들어가갔더라님께.

지-구멍 ㉠ 쥐-구멍 ㉡ 『지구녕’.

지기¹ ㉠ 기(氣)/지기(志氣) ㉡ ①(방언) 육체적 정신적 힘의 원천. ㉢ 『지³』 『맨날 혼내기만 허님께 애가 지기를 못 피구 땡기능 규./그 친구 마누라한테 쟈서(쥐어잡혀서) 지기두 못 피구 살어. ②(표준어) 의지와 기개.

지기-피다 ㉠ 지기(志氣)를 펼치다 ㉡(자) 억눌린 마음에서 벗어나 자기의 기운을 충분히 펼치다. ㉢ 기/지(氣)를 피다. 『오젠간 우덜두 지기피구 살 날이 있을 겨./넘이집 살때 지기피기가 말차람 쉬운가?

지-꼬랑지 ㉠ 쥐-꼬리 ㉡ ① 쥐의 꼬리. ② 아주 작거나, 보잘 것 없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 『떡을 돌릴래믄 점

많이 돌리지 말여. 쟈꼬만 줍시다가 지꼬랑지맹금 개져오믄 이걸 누구 코이다 붙이래능 겨?/그 지꼬랑지만두 못헌 밀천이루 먼 장살 허겠다능 겨?

지 : -꾼 ㉠ 계원(契員) ㉡ 『지(契)+사+군→짓꾼 지꾼』 같은 계에 들어 있는 사람. ㉢ 지원. 『지꾼덜은 다 찬 겨? 먼 소리라? 지꾼덜 모대기가 그리 쉬운 중아남?

지끔 ㉠ 지금/즉금 ‘즉금(卽今)→지끔/지끔. ㉡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 ㉢ 시방. 『이런 일을 허기엔 지끔이 적기여. 그 러님께 지끔버터가 중요한 겨. ㉣ 바로 이때에. ㉤ 시방. 이저. 인저. 인전. 『그런 말을 지끔서 허문 먼 소영이란 말여./지끔이래두 늦지 않았으니까 얼릉 떠 가봐.

지느레미 ㉠ 지느러미 ㉡ 『날개미²’.

지-뎛[-뎛] ㉠ 쥐-뎛 ㉡ 『쥐뎛→지뎛(단모음화)’. 쥐의 몸통을 죄어 잡는 도구. ㉢ 지차귀. 지차구. 지차기. ※1970년대 이전엔 ‘지뎛’이란 말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주로 ‘지차귀’가 쓰였다. 『애가 지뎛을 노라님께 허간 가운데다 뵈구먼. 지뎛은 배람박이다 붙여놔야 지가 걸리는 겨./지약은 암만 놔두 치떡덜 앓년구먼. 암체두 지뎛 하나 사다 놔야졌어.

지동-나무 ㉠ ㉡ 기동으로 쓸 나무. 또는 이미 기동으로 쓰인 나무. 『나무가 크긴 허지면 후여져서니 지동나무루

쓰던 못 허졌어./집은 낡았어두 지동나
무가 튼튼허닝게 손을 점 보른 살 만허
졌구먼.

지 : 드랄다[-라타] ㅍ 기 : 다랄다
ㅇ '지: 다랄다'. ㅍ **지드란** 막대기
가 뭇 필요헌디 구헐 디 읍을라나?

지드막-허다[-마커-] ㅍ 길쓰막-하
다 ㅇ 막대기나 줄 따위가 넉넉히 긴
듯하다. ㅍ **노내끼 점 지드막허게** 뭇 가
닥 끊어 오너라.

지-띠 ㅍ 쥐-띠 ㅇ<민속> 쥐해(子年)
에 태어난 사람이 지닌 띠. ㅍ **지띠랑**
범띠는 밤이 태어나야 잘 산다. 그러구 지
띠는 바지런히서 재산을 잘 모다너면.

지랄-배기 ㅍ ㅇ '지랄(亂行)+배기(접
사). 분별없이 행동하며 까닭 없이 주
위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말썽쟁이.
똥방꾼. ㅍ 저 **지랄배기**가 뭐더라 또 왔
다?

지-메누리 ㅍ 쥐-며느리 ㅇ<동물> 동
글고 납작하며 쥐빛을 가진, 쥐며느릿
과에 속한 벌레. ㅍ **지메누리가** 풍고랏
게 몸을 말으닝게 말여. 애가 구술이라
구 얼릉 집어서닌 안 내놓더라구./장마
가 지구 나닝게 말래 밀이 **지메누리가**
술허게 생겼어.

지미¹ ㅍ 기미(幾微/機微) ㅇ 어떤 일
이나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느낌.
㉠짐새. 낚새. ㅍ **가가 공부 잘헐 지미**는

코딱쟁이만큼두 읍유./난 바빠죽겼년디
이 사람이 돌아갈 **지미**가 안 뵈너면.

지미² ㅍ 기미 ㅇ 얼굴에 거무스름하
게 끼어 있는 얼룩이나 작은 점. ㅍ 저
집 새닥 얼굴이 **지미**가 찢 것을 보닝게
안만허두 애가 섰네 벼.

지 : 보 ㅍ 계 : 보(系譜) ㅇ '기:
보'. ㅍ **본관두 물르년 늑헌티** 뭇 **지보**
를 따지는 겨?

기 : 보 ㅍ 계 : 보(系譜) ㅇ '기보'지보
(구개음화). 가문의 혈통과 역사를 기록
한 책. 또는 인맥이나 학풍, 사조 따위
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맥락. ㉠지:
보. ㅍ **말로만 양반 집안이지** 실상은 **기
보**두 읍년 집안이어./그러년 자넨 기호
학과 **기보**가 위찌되년 중 아남?

지-불 ㅍ 쥐-불 ㅇ<민속> 정월의 첫
쥐날, 또는 봄이 오기 전에 쥐나 해충
을 쫓기 위해 논둑이나 밭둑에 놓는
불. ㅍ **저더러집이 지불** 놓다 산불을 내
서니 벌금이 오백만 원이나 나왔다. 그
리기 바람 부년 날이 **지불** 노다간 큰일
난대닝계?

지불-쌈 ㅍ 쥐불-놀이 ㅇ '쥐불(鼠
火)+쌈(鬪)→지불쌈'. 줄을 매단 강통에
숯불을 담고, 그것을 돌리며 놀거나 편
을 갈라 승패를 가르는 놀이. ㉠불강통
놀이. 불강통돌리기.

지-불알 ㅍ 쥐-불 ㅇ '쥐의 불알'에

서, 아주 작은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
 『지불알만한 것덜이 뭘 안다구 아년
 체를 현다?/쥐불알만한 것이 워디 으른
 덜 말썸이 찌드는 거?』

지-뿔 ㄱ 지-뿔 ㄱ 『쥐(鼠)+ㅅ+불/불알
 (擧丸)→젯불』지뿔. ‘쥐의 불알’에서, 아
 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빗대어 이르
 는 말. ㉠지불알. 『내원, 지뿔 만한 것
 개주구 드럽게 자랑혀 찻녕구면. 그러년
 자넨 지뿔만한 것두 읍잖여./저눔은 지
 뿔두 읍으면서 있던 책은 고대광살이유.』

지:사 ㄱ 제 : 사(祭祀) ㄱ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
 성과 추모를 드리는 의식. 『지사버덤
 젯밥. 까그매두 물르년 지사.』

지:사-상[-쌍] ㄱ 제 : 사-상(祭祀
 床) ㄱ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벌여 놓
 는 상. 『지사상 채리년던 증성이 들어
 가야 혀. 그리야 조상님덜이 좋아하시지.』

지:사-장 ㄱ 제 : 사-장(祭司長) ㄱ
 ①제례나 주문(呪文)에 밝아 영험을 얻게
 하는 사람. ②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
 전에서 의식이나 전례를 맡아보는 사람.

지:삿-날[-산-] ㄱ 제 : 삿날(祭祀-)
 ㄱ ①제사를 지내는 날. 『오늘은 할머
 니 지삿날이라 일가덜이 한 자리에 모였
 다. ②죽을 정도로 혼쫓을 날 때를 빗
 대어 이르는 말. ㉠지일(祭日). 『너 잘
 만났다. 오늘이 니 지삿날인 중만 알아
 라이.』

지:삿-밥[-사빡/-삿빡] ㄱ 제 : 삿-
 밥(祭祀-) ㄱ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
 상에 차려놓는 밥. 또는 제사를 지내고
 물린 밥. ㉠젯밥. 『이 사람아, 지삿밥
 이라도 은어먹을라만 자식덜헌티 잘히
 야 허는 거.』

지-새깁이 ㄱ 쥐-새끼 ㄱ 『지새깁이.』

지-새깁이 ㄱ 쥐-새끼 ㄱ 『쥐(鼠)+새
 끼(子)+-앵이(접사)→지새깁이』지새깁이
 지새끼. ①<동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쥐. 『요 지새깁이덜이 또
 벧가마를 조서났구면./벧동가리 밋이
 눈두 못든 지새깁이덜이 움데움데 있던
 디 퇴비장이 묻어뻘졌어. 뿔장계 털두
 안 나서니 불쌍은 허더면 오쩨냐? ②
 ‘쥐’를 속되게 이르는 말. 『밤마두 천
 장이서 지새깁이덜이 뽕박질을 해대년
 통이 아주 죽겼어./지새깁이덜이 또 벧
 가마를 쓸어났구면. ③성품이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을 빗대어 비속하게 이르
 는 말. 『저 못된 지새깁이 역성은 머
 더라 드는가?』

지-새다 ㄱ 지-새우다 ㄱ(타) ‘지-
 (落)+새(新/徹夜)+-이(접사)+-다→지새
 다. 달이 져서 새벽이 오도록, 잠을 자
 지 않고 보낸다. ㉠새:다. 『몸 축가른
 오쩨라구 밤을 푹 지새 겨?』

지:수 ㄱ 계 : 수(季嫂) ㄱ ‘계수→기
 :수』지:수.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
 의 아내. ㉠기:수. 『지수 될 사람이 뻘

이 들으면 그만이지, 내 맴까장 뭐더라
신경쓰능 겨.

지 : 수-씨 ㉠ 계 : 수-씨(季嫂氏) ㉡
☞ ‘계:수’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 동
상이 많이 부족허두 지수씨가 점 참으슈.

지 : 시다 ㉠ 계시다 ㉡ ☞ ‘기시다’.
㉢ 개 할아배는 워디 지시냐? 개 할아배
가 오디 지신 줄 지가 오티기 알겼유?

지안 ㉠ 제안(提案) ㉡ 어떤 의견을
내세우거나, 내 세워진 안건. ㉢ 다털 지
잘났따구 한 마디씩 지안덜은 허더먼
증작 일을 허겼따구 나스년 사람은 읍
더라구. ㉣(자) 지안-되다. ㉤(자)(타)
지안-허다. ㉥ 내가 그렇기 깐 봤나?
내가 지안헐 땀 들은 체두 안 허더니
구장이 말허닝께 얼릉 받아덜이더라구.

지안-서 ㉠ 제안-서(提案書) ㉡ 논의
해야할 문제를 적은 문서. ㉢ 지안스. ㉣
그 일을 헐라든 동네 사람덜의 의견을
담은 지안서를 내야 한다. ㉤ ㉥ ㉦
지안서를 금도헌 담이 일을 시작헐 수
있다너면.

지안-스 ㉠ 제안-서(提案書) ㉡ ☞
‘지안서’.

지안-자 ㉠ 제안-서(提案書) ㉡ 논의
대상이 될 만한 안건을 낸 사람.

지-약 ㉠ 쥐-약 ㉡ ①밥이나 곡식 낱
알에 넣어 쥐가 먹고 죽게 하는 독약.
㉢ 60년대이 말여. 지약 먹구 죽은 지를

먹구서니 산꼬랑이 여수덜이 다 읍어졌
잖어./잘못허문 녀미 집 개 잡년 수가 있
이닝께 지약 놀 적인 이우지헌터 꼭 알
리더락 혀. ②어떤 사람이 지년 결정적
인 약점을 빗대어 이르는 말. ㉢ 그 양반
바람피다 마누라헌터 걸린 뒤루다가닌
바람 얘기만 나오든 질겅혀. 고계 쥐약
이여. 고 얘기만 허문 꼼작 못헌다닝께.

지악-시럽다[-씨-따] ㉠ 지악-스럽
다(至惡-) ㉡ 성격이나 태도가, 끈덕
지고 모질게 텨버드는 면이 있다. ㉢ 먹
을 걸 먹두 앓구 그룽기 지악시럽게 굴
더니 이번이 집을 장만헐다.

지역 ㉠ 기억(記憶) ㉡ ☞ ‘겨억’.

지역-력[-영녁] ㉠ 기억-력(記憶力)
㉡ ☞ ‘겨억력’.

지왕 ㉠ 기왕(既往) ㉡ 이미 지나가 버
린 시간. ㉢ 지왕의 일은 지왕의 일이구
인저버터가 중요한 겨./그건 지왕버터
문제가 있었던 건디. 인저 와서니 새삼
시럽게 구년 까답이 머라?/지왕이 일이
글러뿌렸넌디 몰 주서 담년 짓은 머더
라 헐다? ㉣ 상황이나 상태가 이미 그
렇게 되어 버린 바에. ㉤기왕. ㉥이왕(已
往) ㉦ 지왕 온 집이 밤이래두 한 술 뜨
구 기슈./지왕 말 나온 계제(階梯)이 나
두 한 마디 히야겼구면.

지왕-이든 ㉠ 기왕-이면(既往-) ㉡
‘표준어화 과정: 지왕이든>기왕이든>기왕
이면’.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된 바면. 또

는 무엇을 그리할 바면. ㉞기왕이른. ㉞이왕이른(已往-). ㉞지왕이른 다홍치마라 구 나헌티두 양주 한 번 따러봐./지왕이른 쓸 만헌 것을 주지. 쓰두 못헐 물건 을 머더라 슌물헌다?

지장 ㉞ 기장 ㉞(식물) 벚과에 속한 한해살이풀. 또는 그 열매.

지장-밥[-뽕] ㉞ 기장-밥 ㉞ 다른 곡 식에 기장을 섞어 지은 밥.

지저기 ㉞ 기저귀 ㉞ ㉞'지저구'.

지-절로 ㉞ 저-절로 ㉞ ㉞'제절로'. ㉞지절로 왔다 간 시절을 내가 뉘 심으 루다 되돌리겄남?

지-절루 ㉞ 저-절로 ㉞ ㉞'제절로'. ㉞손주놈을 츠다보구 있으믄 지절루다 웃음이 난다닝께.

지-죇[-죇] ㉞ 쥐-불알 ㉞ '쥐(鼠)+죇(性器)→지죇/지죇'. '매우 작거나 하찮은 것'을 속되게 빗대어 이르는 말. ㉞지불알. 지뽕. ㉞지죇 만헌 것이 오디 와서 꺼불구 있어./거 지죇만두 못헌 것을 왜 들구 댕긴다?

지죇-갈다[-죇갈따/-죇갈따] ㉞ 지죇-갈다 ㉞ 무엇이 하찮거나, 기분이 아주 안 좋다. ㉞그런 늑헌티 속으닝께 기분이 참 지죇갈구먼./그 지죇같은 물건을 오따 내놓는 겨?

지-집² ㉞ 제-집 ㉞ ①자기가 살고

있는 집. 또는 자기가 소유한 집. ㉞아니 지집 두구 넘어집이루 자러가년 까 닥이 뿔이라?/저 낭반은 술만 먹었다 허믄 지집두 못 찾년다닝께. ②'자신의 집'을 낮추어 겸손하게 이르는 말. ㉞지집은 좁어터져서니 부듯님을 뵈시구 싶 어두 뵈실 수가 읊다닝께유.

지 : 집-종[-쫘] ㉞ 계집-종 ㉞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여자. ㉞즈 녀석이 지 동상을 지집종 부러뵈 허너면.

지-차구 ㉞ 쥐-뎛/쥐 창애 ㉞ ㉞'지차귀'.

지-차귀[-구이] ㉞ 쥐-뎛/쥐 창애 ㉞ '쥐(鼠)+차(羈)+-귀(접사)→지차귀[지차구이]』지차구/지차기. 담 밑이나 벽 옆 따 위의 쥐의 동선에 놓아 쥐를 채어 잡는 도구. ㉞지차구. 지차기. ㉞애덜 지나년 딴 지차귀[지차구이] 놓덜 말어. 저더러 집이가 광이다 지차귀[지차구이] 뵈다가 니 애 발포락 뽕질겄대잖어.

지-차기 ㉞ 쥐-뎛/쥐 창애 ㉞ ㉞'지차귀'.

직-찌다 ㉞ 짓-짚다 ㉞(자) '짓+짚+-다→짓찌다』직찌다. 떨어지거나 내리치는 물건에 세게 부딪다. ㉞직찌다. ㉞베루꾸(블럭/벽돌)헌티 직찌서니 발둥이 다 으껴졌다.(벽돌한테 짓짚어서 발둥이 다 으껴졌다.)

진 : 3 ㉞ 주인(主人) ㉞ '주인(主人)→

권:>진:'. 물건의 임자나, 주장(主張)의 위치에 있는 사람. ㉠진: ㉡진두 읍년 집안일 뭐더라 들어갈라능 겨?/진은 오디 가구 객덜만 바글바글허너면.

진 : 공 ㉢ 주인-공(主人公) ㉣ 여럿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인물. ㉤오늘은 자네가 술갑 치르년 진공인디 오딜 내뺄라구려?/진공은 즐대 안 죽어. 생각히봐. 진공이 죽으면 연속극이 되겠년감?

진 : -낭반 ㉥ 주인-장(主人丈) ㉦ 집안의 남자 남자어른이나, 물건의 임자를 높여 이르는 말. ㉧진:장. ㉨'진:'. ㉩진낭반이 되서니 손님 치다 말구 오딜 간다구 그류?(주인이 되어서는 손님들 맞이하다 말고 어딜 가려고 그러세요?)

진 : 네 ㉪ 주인(主人) ㉫ 주인이 되는 당사자. ㉬진: 네. ㉭진네는 오디 가구 객덜만 진치구 있구면.

진디 ㉮ 진드기 ㉯<동물> 거미류 진드깃과에 속한 절지동물. ㉺소 배이 다닥다닥 붙은 저 진디 점 봐. 소 등 점 긁어주구 잘 강귀주야지. 저게 뭐랴?/저 가이가 풀밭이 쏨땡이더니 몸이다 진디를 붙어왔구면./일본허구 중국이선 진디헌터 물려설래미 사람덜이 여럿 죽었다.

진 : -여편네[-녀-] ㉻ 주인-아주머니 ㉼ '여자 주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진-여편네. ㉾그 진여편네란 것이 올마나 까탈을 피던지 욱지기가 다 나너면.

진 : -여편네[-네-] ㉿ 주인-아주머니 ㊀ '진:-여편네' ㊁손님이 왔던디두 이노무 진여편네는 코빠기두 안비치네.

진역 ㊂ 징역(懲役) ㊃<법률> 교도소에 죄인을 가두고 노동을 시키는 형벌. ㊄진역 살다-가막서 몇 년 진역 살구 나와서년 동네 땀어./진역 보내다-그런 못된 놈은 잡아다 진역을 보내야 혀.

진역-살이[-싸리] ㊄ 징역-살이(懲役-) ㊅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일. ㊆그 사람 진역살이 허구두 증신 못 채렸어. ㊇(자) 진역살이-허다. ㊈왜정 때년 진역살이헌 사람덜은 애국자였어.

진 : 장² ㊆ 주인-장(主人丈) ㊇ '진:낭반'. ㊈진장 기슈? 암두 읍나? 저기 사람이 오너면. 여보슈. 여 진장이 누구유? 여 진장은 왜 찾던디유?

진 : -집[-집] ㊉ 주인-집(主人-) ㊊ 주인이 살고 있는 집. 또는 집의 주인. ㊋진집은 이칭(二層)인감? 아뉴, 진은 여 안 살구 따루 살유.

진-쿠딩이 ㊌ 진창 ㊍ '진쿠렁'. ㊎그 진쿠딩인 왜 그렇게 쏨땡가능 겨?

진-쿠렁 ㊏ 진-구렁 ㊐ ① 질퍽질퍽한 수렁. ㊑진구렁. ㊒애덜이 갯가 진쿠렁이 빠져서니 큰일날 뻔혔다. 그 진쿠렁인 머더러 가서 그렀다? ②헤어나기

힘든 곤욕스런 상황. ㉸진쿠당이. ㉹ 거
긴 못된 놈덜만 바글그리는 진쿠령이
여. 그러닝께 넌 그 근처인 을씬두 허
덜 말어.

집다[-따] ㉸ ㉸(타)〈농업〉 식물의
원줄기에서 나오는, 필요치 않은 결순
을 따내다. ㉹집어주다. ㉹잡다. ㉹잡어주다.
㉹큰애야, 장마가 수억혈 적어 얼릉 꼬
촛순 점 ㉹집어라. 먼침번이 다 ㉹집었으닝
께 꼬촛순 ㉹집년 것은 극정 안 히두 되유.

집어-주다 ㉸ ㉸(타)〈농업〉 식물의 원
줄기에서 나오는, 필요치 않은 결순을
따내어주다. ㉹집다. ㉹잡다. ㉹잡어주다. ㉹
담뱃순을 너머 늦게 ㉹집어줘서니 올힌
근수(斤數)가 많이 줄었어./차미밭이 산
디미구면, 이 낭반은 차미순 안 ㉹집어주
구 워덜 쏘멍긴다?

집-퇴깁이 ㉸ ㉸ 집-토끼 ㉸ ㉸ ‘집퇴끼’.

집-퇴끼 ㉸ ㉸ 집-토끼 ㉸〈동물〉 집에서
기르는 토끼. ㉹산퇴끼. 산퇴깁이. ㉹잡
어 먹기야 ㉹집퇴끼가 산퇴끼버덤 낫지.
괴기맛두 ㉹집퇴끼가 낫구, 산퇴끼야 빼
만 욱시구 먹을 게 있남?

집-퇴깁이 ㉸ ㉸ 집-토끼 ㉸ ㉸ ‘집퇴끼’.

짓-짜다[질-] ㉸ ㉸ 짓-짚다 ㉸(자) ㉸
‘직짜다’.

질다[지타] ㉸ ㉸ 짓다[질따] ㉸ ‘활용형
태: 질게[지케]. 질구[지쿠]. 질넌[질넌]. 질
넌대[질넌대]. 질다개[지타개]. 질더러[지터

락]. 질덜[지덜]. 질어세[지어세]. 질으네[지
으네].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논밭을
가꾸 경영하다. ㉸짓다. ㉹※‘질대[지타]’와
‘짓대[질따]’: 표준어화 교육이 진행되기 이
전에는 대체로 ‘질다’가 쓰였는데, 1960대
이후 급격히 ‘짓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
다.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 ‘무엇을 만들
다, 농사를 경영하다’의 뜻으로 쓸 경우 ‘질
대[지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밖의
뜻으로 쓰이는 ‘미소를 짓다, 죄를 짓다, 매
듭을 짓다’ 따위는 ‘짓대[질따]’로 굳어졌다.
㉹밥을 ㉹질대[지타]./㉹집을 ㉹질대[지타]./오
다가 즈녁은 사먹었으닝께 밥일랑 ㉹질덜
[지덜] 말유./얼릉 밥버텀 ㉹질쥬[지쥬].

짜귀[-구이] ㉸ ㉸ 창애/뒷 ㉸ ㉸ ‘차귀’.

짜기[-구이] ㉸ ㉸ 창애/뒷 ㉸ ㉸ ‘차귀’.

짜 : -매다 ㉸ ㉸ 엮어 매다 ㉸(타) ‘짜-
(織)+-아+매-(繩)+-다’. 엮어서 구성하
다. ㉹욱다. ㉹엮다. ㉹흔제(編制)하다. ㉹흔성
(編成)하다. ㉹소제혈 디가 많으닝께 둘
씩 ㉹짜매서 허문 쓰겼구면, 싯씩 ㉹짜매
쉬울 텃디? 그러문 좋졌지면 사람이 모
지란다 싯씩 ㉹짜맬 수 있남?

짜 : -새[-새] ㉸ ㉸ 창애/쇠 뒷 ㉸ ‘차
○(綱)+쇠(金)→짜:쇠)짜:새’. 주로 산짐
승을 꺾어 잡는, 강하고 큰 쇠붙이로
만들어진 뒷. ㉸짜쇠. ※‘차귀’와 ‘짜새’:
‘차귀’가 짐승을 꺾어 잡는 도구를 두루 가
리키는데 비해, ‘짜새’는 노루나 산돼지, 곰
따위의 큰 산짐승을 잡는데 쓰는, 크고 강
한 뒷을 가리킬 때 쓴다. ㉹이 사람아, 산



질이 다 **짜새**를 놀라든 먼 표시를 해 놓던지 하야해. **짜새** 가냥 놓았다가니 사람 치든 클나능 겨.

짜 : -쇠[-쇠] ㉞ 창애/쇠 덧 ㉞ '짜새'. ㉞ 낭구허러 가닌 사람이 왜 가이는 델꾸 가서니 **짜쇠**에 걸리게 헌다? 나참, 눈먼 산돼지 잡넌다다 다리 뿌러진 가이갑 물어내게 생겼네.

짜다 ㉞ 짜증-내다 ㉞(자) 무엇이 언짢아 역정을 부리다. ㉞짜대다. 짜들다. ㉞일털은 앓허구 **짜구만** 있으믄 오터긴다? 우털이 시방 안 **짜게** 생겼유? 풍갯을 주야 즈덜두 먹구 살 거 아누?

짜-대다 ㉞ 짜증-내다 ㉞(자) '짜-(逆情)+대-(反復)+-다'. ㉞ '짜들다'. ㉞ **짜댄다**구 될 일두 아니구 가냥 잊어빠리구 말어라.

짜-들다 ㉞ 짜증-내다 ㉞(자) '짜-(逆情)+들-(擧)+-다'. 무엇이 언짢고 못마땅해 불만을 토로하다. ㉞짜다. 짜대다. ㉞자가 **짜들기만** 허구 말을 안 듣넌디 이를 워쩐다?/그만 점 **짜들어**. 너가 그렇게 **짜들**믄 될 일두 안 되여야.

짜리-몽땅 ㉞ 몽땅 ㉞ '짧-(短)+-이(접사)+몽땅(切塊)'. 조그맣게 잘린 도막같이 몸집이 몽톡하고 키가 작은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㉞보다보다 그런 **짜리몽땅**은 춤 보넌구먼.

짜리몽땅-허다 ㉞ 몽땅-하다 ㉞ '짧

-(短)+-이(접사)+몽땅(切塊)+하+--다'. ①사물이 잘리거나 닳아 몽톡하고 길이가 짧다. ②사람의 몸집이 조그맣게 잘린 도막같이 몽톡하고 키가 매우 작다. ㉞사람이나구 그리 **짜리몽땅**허서 오따 쓴다?

짜웅 ㉞ ㉞ 힘센 이에게 붙어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리는 짓. ㉞아부. ㉞이 미련헌 놈아. **짜웅**을 헐라든 심센 놈헌티 붙으야지. 지우 그런 놈헌티 파리마냥 손바당을 비빈 겨?

짜웅-허다 ㉞ ㉞(자) 힘센 이에게 붙어 비위를 맞춰주며 알랑거리다. ㉞아부 허다. ㉞못된 사람 같으니. 땅 쉼헌티 붙어댕기맨서니 알랑거리구 **짜웅허더**니 내 붙여먹던 눈을 채갈라구 그렸구먼./암만 그리두 그렇지. 그 일루다가니 **짜웅허구** 그렸겠남?

짜 : 새[-새] ㉞ 벼락-틀/곰-덧 ㉞ 노루나 산돼지, 곰 같은 큰 짐승을 잡기 위하여 설치하는 큰 덫. ㉞산돼지덜이 하두 밧을 파허치닝게 죽겼어. 그리서 시방 **짜새**를 놓구 오년 질이여. **짜새** 잘못 노른 사람 잡넌디? 우리 밧이 다 논 거닝게 **짜새**이 칠 사람은 나배끼 읍어.

짚름-허다 ㉞ 가득-하다 ㉞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가 그릇에 가득 차 살짝 넘치거나, 넘칠 듯하다. ㉞지름이 **짚름**허니 넘칠 것만 같구먼./지왕이 따러 줄 술이믄 잔이 **짚름**허게 따러주슈.

찜맹이 ㉸ 매듭실/매듭 ㉸ '찜맹이'.

짜끄말다[-마타] ㉸ 자끄말다 ㉸ '짜끄말다'의 여린말. ㉸ 그 짜끄만 걸 개져오른 오틱한다?

짜금 ㉸ 조금 ㉸ '짜끔'의 여린말.

짜금-씩 ㉸ 조금-씩 ㉸ '짜끔씩'.

짜금-씩 ㉸ 조금-씩 ㉸ '짜끔씩'.

짜금-씩 ㉸ 조금-씩 ㉸ '짜끔씩'.

짜끄만-허다[-/-마너-] ㉸ 조그마-하다 ㉸ '조끄만허다'. ㉸ 밤톨이나 구 짜끄만혀서 찌두 먹잘 것이 읍겼네.

짜끔-씩 ㉸ 조금-씩 ㉸ '작/작-(少)+-음(어미)+-씩(접사)'. ① 적은 양으로 계속. ㉸ 한꺼번이 무리허덜 말구 짜끔씩 나눠서니 히어. ② 많지 않은 양으로. ㉸ 짜끔씩, 짜끔씩, 짜끔씩, 짜끔씩, 짜끔씩, 짜끔씩, 짜끔씩. ㉸ 물건이 부족허서 그러닝게 짜끔씩 차례가 가더락두 이해덜 히어.

짜끔-씩 ㉸ 조금-씩 ㉸ '짜끔씩'. ㉸ 짜끔씩 노나줄 테닝게 맞이나 봐.

짜끔-씩 ㉸ 조금-씩 ㉸ '짜끔씩'. ㉸ 짜끔씩 활어먹덜 말구 후팍 먹구 일나 거라.

짜만-허다[-마너-] ㉸ 조그마-하다 ㉸ '짜끄만허다'가 줄어든 말. ㉸ 칭편은 짜만허게 맹글른 이쁘지면 응단은

짜만허른 먹잘 게 읍어.

짜맨-허다[-매너-] ㉸ 조그마-하다 ㉸ '조끄만허다'. ㉸ 조런 짜맨헌 게 오서 와서니 까불구 있다?

찢그덕 ㉸ 찢거덕 ㉸ 단단한 물건이 서로 들러붙거나 부딪치거나 소리. (여린말)찢그덕.

찢그덕-거리다[-꺼-] ㉸ 찢거덕-거리다 ㉸(자) 단단한 물건이 서로 들러붙거나 부딪치거나 소리가 잇달아 나다. (여린말)찢그덕거리다. ㉸ 쥘일 은장통을 들구 찢그덕거리더니 지우 그걸 맹그너라 그런 규?

찢그덕-찢그덕 ㉸ 찢거덕-찢거덕 ㉸ '찢그덕'. ㉸ 찢그덕찢그덕 가새질은 잘 허더면, 그거 잘히 봤자 옛장수배끼 못허넨 것 아닝감?

찢뚝-배기[-빼기] ㉸ 절름발이/절뚝발이 ㉸ 걸을 때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 ㉸ 절뚝발이, 절뚝발이. ㉸ 요즘이야 다리 저넨 사람덜을 듣기 좋게 얘기허 지면 이전이는 다 찢뚝배기라구 험지. 그렇덜 앓으른 다리똥신이라고 험구.

찢맹이 ㉸ 매듭실/매듭 ㉸ '찢맹이'.

찢-백이 ㉸ 점-박이(點-) ㉸ '점백이'. ㉸ 갠 인전 찢백이가 아녀. 서울 흥원(病院) 가서니 표두 안 나게 찢을 빼구 왔다너면.



점 : 푸 ㅼ 점프(jump) ㅼ 발을 모았다가 뛰여 오름. ㅼ 발을 모았다가 펼쩍 펴올르던 걸 미국말루다 **점푸**라구 허녕겨./저 높이 **점푸** 하난 기맥히게 잘 허너면. ㅼ(자) 점 : 푸-허다.

찌 : -안다[찌-따] ㅼ 꺾-안다 ㅼ(타) '끼/찌-(挾)+-어+안-(抱)+-다→찌안다'. ①두 팔로 끼고 감싸 안다. ㅼ 저 보따리에 뭐가 들었간 **찌안구** 내려놓덜 앓넌다?/사내덜찌리 **찌안구** 뿃허넌 것이랴? ②여러 일을 한꺼번에 떠맡다. ㅼ 그 많은 일을 **찌안구** 뒷감당은 오터길라구나?

찌고랑-바가지 ㅼ 찌그라진 바가지 ㅼ 제대로 여물지 앓은 박으로 만들어 모양이 일그러진 바가지. (큰말)쭈구렁바가지. ㅼ 바가지가 읍어서 **찌고랑바가지** 를 들고 오냐?

찌고랑-박 ㅼ 찌그랑-박 ㅼ 제대로 여물지 앓아 모양이 일그러진 박. (큰말)쭈구렁박.

찌고러-들다 ㅼ 찌그라-들다 ㅼ(자) 움츠러들어 부피가 작아지거나, 형세가 기울어 줄어들다. (큰말)쭈구러들다. ㅼ 오래 안 먹었더니 사과가 다 **찌고러들**었네.

찌고러-지다 ㅼ 찌그라-지다 ㅼ(자) 어떤 물체가 움츠러들어 아주 작아지다. (큰말)쭈구러지다. ㅼ 다 **찌그러진** 냄

비를 개져다가 오마 쓸라구려?

찌고리다 ㅼ 찌그리다 ㅼ(자/타) 다리를 굽혀 몸을 작게 움츠리거나, 물체에 힘을 가해 찌그라들게 하다. ㅼ(쭈)찌그리다. (큰말)쭈구리다. ㅼ **찌고리구** 앓어 일을 허문 오래 못혀.

찌고만-허다[-/-마너-] ㅼ 조그마-하다 ㅼ '작/족-(小)+-오마(접사)+-ㄴ+허-(爲)+-다→조고만허다'찌고만허다/쭈꼬만허다/쭈꼬만허다/쭈꼬만허다. 조금 작은 듯하다. ㅼ(쭈)쭈만허다. 쭈맨허다. 쭈만허다. 쭈맨허다. ㅼ 우리집 가이가 새끼 낳넌디 **쭈고만헌** 것이 올마나 구엽게 노넌지 물러.

찌고망다[-마타] ㅼ 조그망다 ㅼ(쭈) '조고망다'. ㅼ **쭈고망다구** 간보든 못 썬. 가가 등치가 **쭈고망지**면 승질은 참 대차다녕께.

쭈골-쭈골 ㅼ 쭈글-쭈글 ㅼ 구겨지고 찌그라들어 주름이 잡힌 모양. (큰말)쭈골쭈골. ㅼ 눈갓이(눈가에) **쭈골쭈골** 잔주름이 생기넌 것이 나두 늙내 벼. ㅼ(쭈)쭈골쭈골-허다.

쭈곰 ㅼ 조곰 ㅼ(쭈) '쭈곰'보다 여린말.

쭈곰-씩 ㅼ 조곰-씩 ㅼ(쭈) '쭈곰씩'.

쭈곰-쓱 ㅼ 조곰-쓱 ㅼ(쭈) '쭈곰쓱'.

쭈곰-씩 ㅼ 조곰-씩 ㅼ(쭈) '쭈곰씩'.

쪼꼬만-허다[-/마너-] ㉞ 쪼그마-하다 ㉟ ㉞ ‘쪼꼬만허다’. ㉞ 저 쪼꼬만 강아질 오서 났다? 저건 강아지가 아니구 애원근이여. 보매는 쪼꼬만허두 에 미개라닝께.

쪼꼬말다[-마타] ㉞ 쪼그말다 ㉟ ㉞ ‘쪼꼬말다’. ㉞ 난 큰 것버덤 쪼꼬만 게 좋아. 쪼꼬만 여름감자는 장조림이 딱 이구, 쪼꼬만 갈감자는 찌뽕기가 좋잖어.

쪼끔 ㉞ 조금 ㉟ 정도나 분량이 적게. ㉞쪼끔. ㉞ 그리기 심을 쪼끔 보태달라구 허녕 거 아뉴./난 쪼끔 있다가 집이 갈터. ㉞쪼끔 적은 정도나 짧은 동안. ㉞쪼끔. ㉞ 참을성이라곤 가이 코딱지만침두 읍넌 니가 뻗 쪼끔이나 가졌냐?

쪼끔-씩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쪼끔-쓱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쪼끔-씩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쪼달리다 ㉞ 쪼들리다 ㉟(자) 가난하여 가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다. ㉞쪼들리다. ㉞ 집안이 가게 쪼달리넌디 너까 장 사골 치구 뎡기문 오쩌냐?/카드 빚헌티 쪼달리다가니 보힘든 거 다 해약히서 갚았어.

쪼만-허다[-마너-] ㉞ 쪼그마-하다 ㉟ ㉞ ‘쪼꼬만허다’가 줄어든 말. ㉞ 쪼만헌 손주놈이 칭일 따라뎡기매 말을 시피넌디 구참어 죽넌 중 알았어.

쪼맨-허다[-매너-] ㉞ 쪼그마-하다 ㉟ ㉞ ‘쪼꼬만허다’. ㉞ 지왕이믄 큰 걸루 사지, 그 쪼맨헌 걸루 멀 헐라구려?

쪼 : 병 ㉞ 졸병(卒兵) ㉟ ‘졸병-쪼:병(강음화)’. 계급이 낮은 병사. 또는 상대를 낮잡아 이르는 말. ㉞쪼:짜.

쪼 : 짜 ㉞ 졸자(卒者)[졸짜] ㉟ ‘졸자[졸짜]-쪼:짜(강음화)’. 낮은 계급의 병사를 빗대어, 상대를 낮잡아 이르는 말. ㉞쪼:병. ㉞ 애덜이 다 지 쪼짜유. 그러? 그렇기 쪼짜덜 많으닝까 좋으냐?

쪼쪼-허다[-쪼퍼-] ㉞ 쪼쪼-하다/옹색-하다(雍塞-) ㉟ ‘쪼쪼허다’의 센말. ①장소가 꽤 쪼다. ㉞ 누가 회허넌 디를 이렇기 쪼쪼헌 디루 증혔다? ②아랑이 없고, 마음 씩씩이가 작다. (작)쪼쪼하다. ㉞ 사람이 뎡보를 그리 쪼쪼허게 쓰넌 안되지./먹을 걸 잔뜩 개지구 있어서니 쪼쪼만 달래넌디, 멀 그렇기 쪼쪼허게 군다니?

쪼끔 ㉞ 조금 ㉟ ㉞ ‘째끔’.

쪼끔-씩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쪼끔-쓱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쪼끔-씩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쪼끔 ㉞ 조금 ㉟ ㉞ ‘째끔’.

쪼끔-씩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쪼끔-쓱 ㉞ 조금-씩 ㉟ ㉞ ‘째끔씩’.



짜끔-씩 ㉸ 조금-씩 ㉸ ㉸ '짜끔씩'.

쭈구러-들다 ㉸ 쭈그러-들다 ㉸(자)
움츠러들어 부피가 작아지거나, 형세가
기울어 줄어든다. (작은말)쭈그러들다. ㉸
가세(家勢)두 쭈구러들라든 근잡을 수가
없넌 겨.

쭈구러-지다 ㉸ 쭈그러-지다 ㉸(자)
어떤 물체가 움츠러들어 아주 작아지
다. (작은말)쭈그러지다. ㉸ 호박이 얼었다
플리닝께 바루 쭈구러지니면./얼굴이 왜
그렇기 쭈구러진 겨? 뭇 일 있었납?

쭈구렁-바가지 ㉸ 쭈그러진 바가지 ㉸
제대로 여물지 않은 박으로 만들어 모
양이 일그러진 바가지. (작은말)쭈그랑바
가지. ㉸ 오만상을 쭈푸린 것이 천상(天
生) 쭈구렁바가지디러닝께.

쭈그렁-박 ㉸ 쭈그렁-박 ㉸ 제대로
여물지 않아 모양이 일그러진 박. (작은
말)쭈그랑박. ㉸ 여물두 얹언 쭈구렁박은
따서 워따 쓸라구려?

쭈구리다 ㉸ ㉸(자/타) 다리를 굽혀
몸을 작게 움츠리거나, 물체에 힘을 가
해 쭈그러들게 하다. (작은말)쭈고리다.
㉸ 진상차람 왜 얼굴은 쭈구리구 있능
겨?/넌 나스털 말구 저 구석쟁이에 쭈
구러져 있어.

쭈굴-쭈굴 ㉸ 쭈굴-쭈굴 ㉸ 구겨지고
쭈그러들어 주름이 잡힌 모양. (작은말)
쭈굴쭈굴. ㉸ 돈이 왜 이렇게 쭈굴쭈굴

꾸겨졌다? ㉸ 쭈굴쭈굴-허다. ㉸ 양복
이 쭈굴쭈굴헌 것이 암만히두 대리야지
기냥은 뭇 입을 것 같어.

쭈-검데기 ㉸ ㉸ 풀의 줄기에 붙은
겉껍질이나, 풀의 줄기에서 벗겨낸 얇
고 긴 껍질. ㉸쭈검덩이. 쭈검데기. 쭈검
데기. 쭈검데기. ㉸ 고구마 쭈검데기는 퇴
비장이다 냅버려라./짧은 명위는 쭈검
데기를 뱃겨내구 무치야는 겨.

찌꺼기 ㉸ 찌꺼기 ㉸ ㉸ '찌끼'. ㉸ 먹
두 뭇헐 찌꺼기를 버리덜 앓구 여 모서
든 까닥이 메랴?

찌끼 ㉸ 찌꺼기/찌끼 ㉸ '긫의/긫의+-
기?→긫긫?>긫기/찌끼'. 쓸모 있는 것을
골라낸 뒤에 남겨진 것. ㉸찌꺼기. ㉸찌
끄러지. 찌끄래기. 찌끄러기. 치러기. ㉸ 밥
찌끼. 묵찌끼. 술찌끼./남은 음식 찌끼
는 돼지 주계 구정물통이다 뵤라.

찌 : 드랄다[-라타] ㉸ 기 : 다랄다 ㉸
㉸ '지:다랄다'. ㉸ 고깃줄을 찌드랄게
늘려서 쫄매봐.

찌질-이 ㉸ ㉸ '찌질허-(不實)+-이(접
사). 하는 짓이 모자라서, 남들과 잘 어
울리지 못하는 사람. ㉸ 놀어두 저런 찌
질이덜허군 놀지 말라구 헛잖어. 추직
이 아직 안 되서 돈 읍이 놀구 있긴 헤
두 저 친구덜 찌질이 아뉴.

찌질-허다 ㉸ 지질-허다 ㉸ '지질허
다'의 센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보잘

것이 없고 변변치 못하다. ㉹지질하다.
 ㉸ **찌질**현 것은 골라서 내빼리구, 실현
 것덜만 개저온 규.

짚맹이 ㉸ 매듭실/매듭 ㉹ '짚매/짚매/
 짚매-(構縛)+-앵이(접사)→짚맹이/짚맹이/
 짚맹이. 서로 묶어 매는 끈. 또는 그렇
 게 묶어 맨 매듭. ㉹**짚맹이**. 짚맹이. ㉸
 오디 **짚맹이** 점 읍나 찾아봐라./**짚맹이**

가 잘못 났구면. 다시 매야 쓰겼어.

짚새 ㉸ 낚새 ㉹ 분명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위기나 눈
 치. ㉹**낚새**. ㉹**지미**. ㉸ **짚새**를 알아챘이
 야 허녕 건디 그땐 내가 눈치가 너머
 읍었어./**짚새**를 보닝께 딱 집히닌 디가
 있더라구.





차갑다[-따] ㉠ 차갑다 ㉡ '차그
렵다'. 『날이 차거운디 왜 내복두 안
입구 나온 거?/사람이 따신 맛이 있으
야넌디 그 사람은 너머 차겨서 싫어.

차구 ㉠ 창애/뒧 ㉡ '차귀'.

차구이 ㉠ 창애/뒧 ㉡ '차귀'의 충
청 발음. ※충청말에서 '귀'는 이중모음으
로 '구'와 '이'가 각각 소리남. 『차구이를
놓다./지차구이가 절단나다.

차귀[-구이] ㉠ 창애/뒧 ㉡ '차으+-
귀→차귀?>차귀[차구이]>차구/차기'. 들짐
승이나 산짐승을 피어서 잡는 사냥 도
구. ㉢차구. 차기. 짜귀. 짜기. ㉣짜새. 짝
쇠. 뒧. 올무. 올개미. 『밤마두 쪽지비털
이 달기장 옆댕이를 찌웃겨려싸서니 장
이서 차귀[차구이] 하나 사왔어. 닥 채갈
까미 불안히서 뒧 전디졌더라구. 근디
이느무 쪽지비가 차귀[차구이]에 걸릴라
나는 잘 몰르겠네.

차그렵다[-따] ㉠ 차갑다 ㉡ '차
그렵다'.

차그렵다[-따] ㉠ 차갑다 ㉡ '차-
(寒)+그렵-(접사)+-다→차그렵다>차그렵
다>차겁다. 온기가 없이 싸늘하다. ㉢차
겁다. 차그렵다. 『갈날이 왜 이렇기 차
그렵다?/차그렵구면 왜 물을 찌지구 그
런다?

차기 ㉠ 창애/뒧 ㉡ '차귀'.

차람 ㉠ 처럼 ㉡ 두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부
사격조사. ㉢마냥. 같이. 같이. 『지우
그런 사람헌티 파리차람 손바당을 비벧
다는가?/미련허게 소차람 일만헌다구
누가 상주남유? 이눔아, 그리두 너차람
뺨질거리매 실속웁는 늙버딤은 가가 백
번 낮어.

차례¹ ㉠ 차례(次例) ㉡ '차례>차례(次
第)→차례(단모음화)'. ①일의 순서나 항

목. ㉠ 싸우던 말구 돌아가매 차례대루 허자구. 이번인 느낌이 헐 차례여. ㉡ 수관형사 뒤에서, 일의 횡수를 나타내는 말. ㉠ 아니, 시 차례나 땡겨왔ندی 또 가라구유? 인전 다 끝나가닝께 참구 한 차례만 더 땡겨와.

차례² ㉠ 차례(茶禮) ㉡ 주로, 설이나 추석 따위의 명절날 오전이나 낮에 지내는 제사. ㉠ 차례는 지냈는가? 보먼 물러? 차례 끝났으닝께 생묘허러 가능 거잖여.

차례-차례 ㉠ 차례-차례(次例次例) ㉡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 문제를 풀적인 더꼭거리덜 말구 차례차례 풀으야 허닝 겨./차례차례 험다군 험넸디 빠진 것이나 읍녕가 걱정이네.

차례-상[-렐쌩] ㉠ 차례-상(茶禮床) ㉡ 주로, 설이나 추석 따위의 명절날에 다례 음식을 진설한 상. ㉠ 요짐이야 마트이 가문 다 있넸디 차례상 채리넸 게 뭐 대수겼어? 이 사람아, 암만 그리두 존이나 칭편 곁은 건 손이루 땡길어야 차례상이 증성이 깃드넸 겨.

차미 ㉠ 참외 ㉡ <식물> '참(眞)+외(瓜) → 참외'차미.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또는 그 열매. ㉠ 속 안 좋다매 웬 차미를 그렇기 먹어싼대유? 차미 뒤 개 먹은 거니 벨일 읍을 겨.

찰-귀[-기] ㉠ ㉡ '찰(粘)+ 귀(耳)'. 꼭 막혀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 ㉠가는

귀. ㉠ 찰귀를 먹다, 찰귀를 잡숫다.(귀가 꼭 막혀 아무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다.)/암만 귀에 대구 떠들어두 쇠영 읍을 겨. 그 낭반 찰귀를 잡쉬서니 통 못 듣넸다 닝께.

찰-베 ㉠ 찰-벼 ㉡ <식물>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찰쌀이 나는 벼. ㉠ 우리가 논이 월매나 된다구 찰베를 따루 심겼어.

참 ㉠ ㉡ 잊고 있던 사실을 문득 깨달았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 ※국어사전에 올라있어야 할 말로, 방언이라고 하긴 어렵다. ㉠ 참, 아까침이 나더러 뭐라구 했지?/참, 저 친구두 오디 가서 대접받긴 틀렸어.

참 : -거리[-꺼-] ㉠ 간식-거리(間食-) ㉡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간단한 먹을거리. ㉠ 진진 해이 참거리라두 짐장만하야지 았겼남?/참거리가 마땅찮은디 보리감자라두 찌까유?

참 : -나 ㉠ ㉡ '참내'. ㉠ 참나, 똥긴 늬이 승넨다더니 잘못은 지가 히눔구 왜 나헌티 뭐래는 겨?

참 : -나원 ㉠ ㉡ '참내'. ㉠ 참나원, 자네 시방 그걸 말이라구 내받는 겨?

참 : -내 ㉠ ㉡ 황당한 일을 당하여 어이없음이나 답답함, 놀람 따위를 나타내는 말. ㉠ 참나. 참내원. 참나원. 나참. 내참. 나참내. 내참내. 나원. 내원. 나원참. 내원참. ※각각 독립된 둘 이상의 낱말이



이어져 감탄을 뜻하는 구문의 형태로도 볼 수 있어, 방언이라기보다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말. 『참내, 시상이 뭐 이런 그지 같은 일두 있다?/참내, 오래 살다보니까 벨 일두 다 늙더면.

참 : -내원 ㅍ ㅊ ㅅ ‘참내’. 『참내원, 시상이 송악허니께 베라벨 일이 다 일어나더면.

창세기 ㅍ 창자(腸子) ㅁ<의학> 동물의 작은창자와 큰창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넌 쓸개두 창세기두 읍냐? 그 수모를 당허구 그집일 머더러 또 간 겨?/피는 내뼈리구 창세기랑 소금이루 깨끗이 씻어나라.

창창 ㅍ 찬찬 ㅁ 줄이나 끈 따위로 단단하게 동여맨 모양. ㉠창창. 친친. 『즈런 못된 놈은 오라줄루 창창 감어서니 가막소다 처놓야 허.

-채 ㅍ -째 ㅊ ‘모두, 까지’의 뜻을 더해주는 접사. 『통채. 뼈채. 그릇채. 뿌리기채/뿌리채 따위./부루는 앞새기만 따야지 뿌리기채루 뽑으믄 워쩐다?

채 : 다¹ ㅍ 채우다 ㅁ(타) ‘차-(槽)+-이(접사)+-다→채:다>채우다’. 수갑이나 차꼬 따위로 손이나 발을 묶거나 끼우다. ㉡채우다. 『그 개망나닐 형사가 수갑을 채서니 끌구 갔다.

채 : 다² ㅍ 채우다 ㅁ(타) ‘차-(滿)+-이(접사)+-다’. ‘표준어화 과정: 채:다>채

우다. 무엇을 일정한 공간에 가득하도록 만든다. ㉢채우다. 『그 사람 욕심 췌라문 아직 멀었어. 욕심이 하늘을 찢르넌디 그것 채닝 게 말차람 되졌넌감?

채 : 다³ ㅍ 차이다 ㅁ ‘채이다’가 줄어든 말. 『독부리헌티 채서니 정갱이가 깨졌다더면./자네 술나발 부넌 걸보닝께 또 으자덜헌티 췌구면. 그러, 난 여서 채구 저서 채구 맨날 으자덜헌티 채넌 게 업이여, 이눔아.

채이다 ㅍ 차이다 ㅁ(자) ‘차-(蹴)+-이(접사)+-다→차이다>채이다>채:다’. ① 무엇이 밭과 부딪치거나, 밭에 걸리다. 『지겟다리에 채여서니 낭구짐헌티 째쳤다더면. 클나넌 중 알었다. ②누군가의 신체에 다리가 걸리다. 『애가 말꼬랑지를 잡넌다나 말 뒹발질이 채일뻔 했다. ③상대에게 거절당하여 관계가 끊어지게 되다. 『채이긴 그 사람헌티 채이구서니 왜 어먼 사람헌티 뵈를 낸다?

채림 ㅍ 차림 ㅁ 의복이나 음식 따위를 갖추어 꾸미거나, 갖추어 낸 모양. 『뻔히 읍넌 살림인디 설 채림이라구 특별허것넌?/그지같은 채림을 허구 워딜 나가는 겨?/이눔아, 속웃 채림이루 워딜 쏘맹긴 겨?

채림-새 ㅍ 차림-새 ㅁ 옷이나 음식 따위를 갖추어 꾸며놓은 것. ㉣차림새. 『잔칫상이 채림새만 푸짐허지 베랑 먹

을 것은 읍구면./허구 멍기년 것은 멀
평허더면 채림새만 보구 사람 속을 오
타기 알겠어?

채림-표 ㅍ ㅍ 차림-표 ㅍ ㅍ 찻집이나 음
식점에서, 파는 종류와 그 가격을 적어
놓은 표. ㅍ차림표. ㅍ네스토랑인가라년
덜 갔더니 채림표를 봐두 머가 먼지 통
몰르겠더라구.

처남우-덥 ㅍ ㅍ 처남-덥(妻男宅) ㅍ ㅍ
'처남으덥'.

처남으-덥 ㅍ ㅍ 처남-덥(妻男宅) ㅍ '처
남(妻男)+의(조사)+덥(宅)'. 처남의 아내.
ㅍ처남우덥. ㅍ처남으덥. ㅍ처남우덥. ㅍ처남덥.
ㅍ처남으덥이 날 보구 인사두 읍이 막
땀가던디 뭘 일 있능 겨?

철크덕 ㅍ ㅍ 철커덕 ㅍ ㅍ '츨크덕'.

철크덕-거리다[-꺼-] ㅍ ㅍ 철커덕-거
리다 ㅍ(자) ㅍ '츨크덕거리다'. ㅍ시
끄러닝께 철크덕거리덜 짐 말어라.

철크덕-츨크덕 ㅍ ㅍ 철커덕-츨커덕 ㅍ ㅍ
'츨크덕'.

체른 ㅍ ㅍ 체면(體面) ㅍ ㅍ '치른'. ㅍ
내 코가 속 자나 빠졌년디 체른이구 낫
짜이구가 먼 상관이라?

체른-치레 ㅍ ㅍ 체면-치레(體面-) ㅍ ㅍ
'치면치레'. ㅍ체른치레넌 즉당히 허닝
규. 체른치레가 너머 과허문 피차이 부
담시런 거랑께유.

쳐 : -보다[-/쳐 :-] ㅍ ㅍ ㅍ(자) '치-
(經驗)+-어+보-(試驗/經驗)+-다→쳐:보
다>쳐:보다. 어떤 일을 직접 겪어보거
나,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경험하다.
ㅍ츨다. ㅍ츨다. ㅍ츨다. ㅍ츨다. ㅍ이눔아,
쳐보기나 허구 그런 그짓부령을 혀. 군
대 못 간 눅이 군대 야근 더 잘헌다더니
니짜이 똑 그렇구면./그 사람 꺾배긴 참
순해 뵈더니 쳐보닝께 그계 아니더라구.

초렌-베 ㅍ ㅍ 초련 ㅍ ㅍ 추수를 하기 전에
이삭을 베어다가 양식으로 쓰는 벼. ㅍ
초른. ㅍ이전지 조각인덜은 초렌베를 벼
다 먹을 수빼니 읍었어. 먹을 게 읍으니
오쩌겼어. 마름 몰래 초렌베를 벼다 먹
구는 야중이 정을 치년 사람두 많었지.

추잡-시럽다[-씨-따] ㅍ ㅍ 추잡-스럽
다(醜雜-) ㅍ ㅍ 언행이 상스럽고 지저분
하다. ㅍ술만 먹었다 허문 추잡시럽기
가 이만저만두 아녀.

추접-시럽다[-씨-따] ㅍ ㅍ 추접-스럽
다(醜雜-) ㅍ ㅍ '추잡시럽다'. ㅍ손두
안 띠구 흘리구 밥을 왜 그렇기 추접시
럽게 먹는 겨?

초남-덥[-덥] ㅍ ㅍ 처남-덥(妻男宅) ㅍ ㅍ
'처남으덥'.

초남우-덥 ㅍ ㅍ 처남-덥(妻男宅) ㅍ ㅍ
'처남으덥'.

초남으-덥 ㅍ ㅍ 처남-덥(妻男宅) ㅍ ㅍ
'처남으덥'.



출각 ㉾ 철각(鐵脚) ㉿ ①쇠갈이 튼튼하고 굳센 다리. ②교량, 탑 따위의 하부를 받치는 쇠로 만든 다리.

출갑 ㉾ 철갑(鐵甲) ㉿ ①쇠로 둘러싸운 것. ②쇠붙이를 겹에 붙여 지은 갑옷. ㊀출갑의(鐵甲衣). ㊁출갑을 두른 고목덜. 출갑순(鐵甲船). 출갑모(鐵甲帽).

출갑-선[-선] ㉾ 철갑-선(鐵甲船) ㉿ ㉾ '출갑순'.

출갑-순[-순] ㉾ 철갑-선(鐵甲船) ㉿ 철판으로 거죽을 싸서 만든 병선(兵船). ㊀출갑선. ㊁거북순은 세계(世界) 최초의 출갑순이다.

출광 ㉾ 철광(鐵鑛) ㉿ ㉾ '출광산'의 준말. ㊁안씨 아저씨가 젊어서니 출광을 캐매 살았더냐? 먼 소리아? 우리나라 출광이 나기나 허냐?

출-광산 ㉾ 철-광산(鐵鑛山) ㉿<광업> 철이 나는 광산. ㊁이북 말여. 그 무산인가 허던 디에 출광산이 있던디 무지 컸다.

출-광석 ㉾ 철-광석(鐵鑛石) ㉿<광업> 철을 포함하고 있는 광석. ㊁왜중 때 징용이루 끌려가서니 한 이태 동안 거서 출광석만 컸다너면.

출철 ㉾ 철철 ㉿ '표준어화 과정: 출출/출철'철철. 액체나 감정 따위가 흘러 넘치는 모양. ㊀출출. 철철. ㊁지왕 따를 술이든 출철 따라봐./삭은 코피가 출철

쏟어지넌디 습득 허더라구.

출출 ㉾ 철철 ㉿ ㉾ '출철'.

출커덕 ㉾ 철커덕 ㉿ ㉾ '출크덕'.

출커덕-거리다[-꺼-] ㉾ 철커덕-거리다 ㉿(자) ㉾ '출크덕거리다'.

출커덕-출커덕 ㉾ 철커덕-철커덕 ㉿ ㉾ '출크덕'.

출크덕 ㉾ 철커덕 ㉿ '표준어화 과정: 출크덕'출커덕/철크덕'철커덕'. 단단한 물체가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㊀철크덕. 출커덕. (작은말)즐그덕. 즐거덕. 즐크덕. 즐커덕. ㊁갑자기 철크덕 허넌디 간 떨어지넌 중 알었다닝께.

출크덕-거리다[-꺼-] ㉾ 철커덕-거리다 ㉿(자) 단단한 물체가 서로 맞부딪는 소리가 잇달아 나다. ㊀철크덕거리다. 출커덕거리다. (작은말)즐그덕거리다. 즐거덕거리다. 즐크덕거리다. 즐커덕거리다. ㊁갑자기 철크덕 허넌디 간 떨어지넌 중 알었다닝께.

출크덕-출크덕 ㉾ 철커덕-철커덕 ㉿ ㉾ '출크덕'.

치 : -대다 ㉾ 치대다/성가시게 하다 ㉿(타) '치:-[접사]+대-(着)+-다'. 마구 몸을 붙여대며 성가시게 하다. ㊁들구 나헌티 치대지 말구 저짜이루 가거라./나두 심들어 죽갔응께 지말 치대덜 점 말유.

치면 ㉾ 체면(體面) ㉿ '체른/치른'체면

/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몇몇한 입장이나 처지. ㉠차른. 체른. ㉡베룩이는 낫짜이 있구 사람은 치면이란 게 있능 겨.

치면-치레 ㉢ 체면-치레(體面-) ㉣ 체면을 세우기 위해 꾸미는 일. ㉤체른치레. ㉥치면치레는 헐 자리서 허슈. 그룽기 아무헌티나 치면치레 허다가니 집안 말어먹겼유.

치른 ㉦ 체면(體面) ㉧ ㉨'치면'. ㉩가 뵈거죽이 등이 가 붙었넌디 치른 채릴 증신이 워뎡겼어?

칙간[-간] ㉪ 측간(廁間) ㉫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 ㉬퐁독간. 뒤간. 두간. 븐소. ㉭이즌인 츠갓집허구 칙간은 멀수루기 좋다구 했넌디 말어. 요짐은 칙간이 다 집안이 들어앉었이니 인전 그게 다 훗말이여.

친-아배 ㉮ 친-아버지(親-) ㉯ 피를 나눠준 아버지. ㉺의붓아배. 으붓아배. 양아배(養-). 기부(繼父) ㉻어매만 친어매구 아배는 친아배 아녀. 그러닝게 승(姓)두 달브잖어.

친-애비 ㉼ 친-아버지(親-) ㉽ ㉾'친

아배'. ㉿친애비 아니랴겜베비 아덜덜이다 지 애비만 썩 뵈어. 지 애미 닳은 것은 읍다닝게.

친-어매 ㉿ 친-어머니(親-) 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㊁으붓어매. 으붓애미. 양어매(養-). 기모(繼母). ㊂친어매든 뵈혀. 좃어다 지른 업당이두 그버덤은 낫을 거구면.

친-에미 ㊃ 친-어머니(親-) ㊄ ㊅'친어매'. ㊆으붓애미가 다 켜 뵈넌디 인사두 읍이 지 친어미를 찾어가설래미 다신 찾아오두 않넌다.

칭암 ㊇ 층암(層巖) ㊈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높고 험한 바위.

칭암-졸북 ㊉ 층암-절벽(層巖絶壁) ㊊ '칭암졸북>칭암졸벽'. 여러 겹으로 험하게 쌓여있는 바위로 된 낭떠러지. ㊋논산이 있넌 대둔산일 가보닝게 산은 꺾끄만디 칭암졸벽이 장관이더면. 덕산이 있넌 개산이 올라가봐. 꼭대기 올라가든 거두 맨 칭암졸벽이여.

칭암-졸북 ㊌ 층암-절벽(層巖絶壁) ㊍ ㊎'칭암졸벽'.





카라(collar) ㅁ 옷-깃 ㅁ '옥깃'의 영어인 '칼라(collar)'의 방언.

칼끔-허다 ㅁ 맵고 개운하다 ㅁ '칼끔(辛味)+허+-다'. 입안이 개운해질 정도로 매운 맛이 있거나, 뒷맛이 없도록 맛이 강하다. ㅁ 장국이 칼끔허니 입맛이 점 도너면./으죽을 참 칼끔허기두 허구면. 워치기 끓이른 비린내가 하나두 안 날 수 있는 겨?/사람이 칼끔헌 맛이 점 있으야지, 그렇기 미적지근허 문 못 쓰능 겨.

케 ㅁ 켜 ㅁ '켜→계>케'. 겹쳐지거나 포개어진 물건의 층. ㅁ 케를 바르게 맹길 어야 떡이 이쁜 겨. ㅁ 포개어진 물건의 층을 세는 단위. ㅁ 시루떡을 두 케루 포개 줍시에 담었다./백돌을 열 케씩 맞춰 쌓았다.

케케-루 ㅁ 켜켜-루 ㅁ 여러 겹으로. 여러 층을 이루어. ㅁ 지저귀를 빨었으문 잘 개서니 케케루 싸놔야지, 이게 뭐

랴?/이야, 옷이 장냥이 아니게 많유. 옷장마두 케케루 쌓여 있유.

케케-이 ㅁ 켜켜-이 ㅁ 포개어진 물건의 층마다. ㅁ 케케이 다 늘라믄 고물이 철창이 들겼넌디유? 케케이 느보다가 무지라믄 백무리루 허지 뭐.

코-딱쟁이[-쟁-] ㅁ 코-딱지 ㅁ '코딱징이'.

코-딱징이[-쟁-] ㅁ 코-딱지 ㅁ '표준어화 과정: 코딱징이/코딱쟁이>코딱지'. 콧물과 먼지가 엉겨 말라붙은 것. 또는 보잘것없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 ㅁ 코딱징이. ㅁ 드런 코딱징일 파서 텅길 심이 있으믄 시수를 혀, 이눔아./코딱징이 만헌 빗이다가 뭘 허겠다구 그런다?

콩-천대 ㅁ ㅁ '콩(豆)+천대(火熟)'. 가을철 남의 콩대를 꺾어다 들판에서 불에 구워 먹는 일. ㅁ 콩서리. ※'서리'와 '천대': '서리'는 '장난삼아 남의 것을 훔쳐다 먹는 일'을 뜻하고, '천대'는 '장난삼아 남의

것을 훔쳐다 불에 구워먹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훔쳐다 구워 먹을 수 있는 '콩천대, 밀천대'는 있지만, 구워 먹지 못하는 참외, 수박 따위에는 '천대'가 아닌 '서리'를 붙여 쓴다. '참외서리, 수박서리, 닭서리'가 그런 예이다. 『충청말 연구한다더니 알고 보니까 허당이구먼, 대술 산골이 살었다매 콩서리두 안히 봤남? 그래, 콩천대를 몰르단 말여? 하하, 충청도 사람이 콩천대를 몰르닌 사람두 있나 배? 아 참내, 갈철이 넘이네 서리태를 꺾어다가니 귀먹년 것을 콩천대라 허닌 것

진짜 물류? 콩천대를 몰르민 밀천대두 몰르겼네?

괭이 𠩵 괭이 𠩵〈농업〉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도구. 𠩵괭이. 『뭇 찾는 겨? 𠩵이 찾는 겨? 억그저끼 뇌가 𠩵이 썼잖어. 오따 두구 찾는 겨?』

클르다 𠩵 끄르다 𠩵(타)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 𠩵끌르다. 『뭇을 적인 요령껏 뭇으야지, 이렇기 옹쳐매민 클르 수가 읍잖어?』



타동-타다 ㉟ ㉟(자) '타동(他洞)+타-(及)+-다. 낯선 곳에 기가 놀리고 주눅이 들다. ㉟자는 타동타서 옆동네두 혼치는 곳간다닝께.

탁-허다[타커-] ㉟ ㉟다 ㉟ '탁(拓?)+허다. 부모나 조부모를 틀에 박아낸 듯이 빼닮다. ㉟빼닮다. 도승허다. ㉟조눔허닌 짓을 보닝께 지 아베를 톱 탁했구먼./자가 지 헬애비 얼굴만 탁헌 것이 아니구 노름 좋아허닌 것두 탁혔다닝께./야는 오이가(外家)를 탁히서 얼굴이 뽀안히유.

터걸 ㉟ 터울 ㉟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사이의 나이 차이. ㉟터울. ㉟첫째허구 둘째가 한 살 터걸이다 보닝께 톱탁그리매 맨날 싸워 싸./나이 터걸이 있어닝께 작은애가 큰애헌터 꼬짝 못히지.

터 ㉟ 테야/-래 (구문) ㉟'터(의지, 예정, 추측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서술격조사)+-어(평서형종결어미)'가 줄어든 말. ㉟난 인저 핵겨 안 갈 터. 밥두 안 먹을 터./난 점짜이루 갈 터. ㉟'터(의존명사)+이(조사)+-어(의문형종결어미)'가 줄어든 말. ㉟니 핵겨 안 갈 터? 밥두 안 먹을 터?/거서 장판 쉬구 있을 터?

터 : -나다¹ ㉟ 트다/터서 나오다. ㉟(자) '트-(萌動)+-어+나-(出)+-다. 식물의 싹이나 순이 돌아나다. ㉟배차 싹이 그새 터난 겨?/터나는 순덜은 얼릉얼릉 잡어주야 혀.

터 : -나다² ㉟ 튀어-나오다 ㉟(자) '튀-(躐)+-어+나-(出)+-다→터:나오다>터:나다. 사물의 어느 면이 겉으로 비어져 나오다. ㉟터:나오다. ㉟꼬드락지가 왜 얼굴이 터났다? 왜 터나킨 왜 터났겼어? 시술 지대루 안 허닝께 간보구 터난 겨지./뭐가 들었겄래 호랑이 그렇기 불쑥허니 터난 겨?

터 : -나오다 ㄱ ㅍ 튀어-나오다 ㄷ(자)

①어떤 사물이 갑자기 나타난다. ㉠자넨 뭘 짓거리를 허다 니 **터나오는가?**/ 갑자기 **터나와서**니 험다넨 소리가 지우 그거여? ②어떤 행동이나 말이 불쑥 나오다. ㉡미안혀. 그제 나두 물르게 **터나온** 입방정이었다닝께. ③사물의 어느 면이 겉으로 비어져 나오다. ㉢'터:나다'.

토끼-땀 : ㄱ ㅍ 토끼-땀 ㄷ ㄷ '퇴끼땀' 이 표준어화한 형태.

토-백기 ㄱ ㅍ 토-박이(土-) ㄷ ㄷ '토백이'.

토-백이 ㄱ ㅍ 토-박이(土-) ㄷ '토(土)+박-(根,拓)+-이(접사)→토백이/토배기'. 일정한 곳에서 뿌리박고 대대로 살아온 사람. ㉣토배기. ㉤본토백이. ㉥자네만 **토백인**감? 여(이) 동네 **토백이**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구려.

퇴끼-땀 : ㄱ ㅍ 토끼-땀 ㄷ '퇴끼(兎)+땀(-躍)+-엄(접사)→퇴끼땀/퇴끼땀/토끼땀'. 손으로 귀를 잡고 쪼그려 앉아 뛰어가 는 땀. ㉦퇴끼땀. 토끼땀. ㉧**퇴끼땀**을 을 마나 험넨지 다리에 알아 뻘 거 같어.

퇴끼-땀[-땀] ㄱ ㅍ 토끼-땀 ㄷ ㄷ '퇴끼땀'이 표준어화한 형태.

투거리 ㄱ ㅍ 똑배기 ㄷ ㄷ 찌개나 장국처럼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쓰는 질그릇. ㉨투거리. **똑배기**. ㉩**투거리**를 왜 자꾸 **똑배기**라 허능 겨? 아, 이 사람아.

촌스럽게 그런 걸 뭘 따지고 그러? 뻘 사람덜이 **똑배기**다 허문 기냥 그렇게 비다 허녕 겨.

투거리 ㄱ ㅍ 똑배기 ㄷ ㄷ '투거리'. ㉪이전인 **똑배기**를 **투거리**라구 험넨디, 자네두 기억나지? 그러기? 우리 집안 이선 **투거리**라구 많이 썼넨디. 참내, **투거리**나 **투거리**나, 얹어치나 메치나.

투디리다 ㄱ ㅍ 투드리다 ㄷ ㄷ '두디리다'의 센말. ㉫콩을 **투디리**야 허넨디 이 느무 도리께가 워덜 간 겨?

투덜기다 ㄱ ㅍ 투들기다 ㄷ ㄷ '두덜기다'의 센말. ㉬도리께루 **투덜기**던지 허야지 답답허게 방맹이루 온제 그걸 다 현대유?

똑배기[-배-] ㄱ ㅍ 똑배기 ㄷ ㄷ 찌개나 장국처럼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쓰는 질그릇. ㉭투거리. 투거리. ㉮**똑배기** 깨 치넨 소리덜 집어치구 가냥 술이나 먹지.

통통-장 ㄱ ㅍ 청국-장(淸麩醬) ㄷ ㄷ '통통장'. ㉯(전래동요) **통통장**두 장이냐? 으빏애비두 애비냐? **통통장**이 장이든 으빏애비두 애비다.

팅팅 ㄱ ㅍ 통통 ㄷ ㄷ '팅팅'.

튜 ㄱ ㅍ 테요/-래요 (구문) '터(의지, 예정, 추측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어(평서형/의문형종결어미)+유(높임보조사)'가 줄어든 말로 ㉺'터'의 높임말. ㉻(평서문)난 인저 **햅겨**



안 갈 튜. 밥두 안 먹을 튜./지두 잡작
이루 갈 튜. ¶(의문문)집안이만 처백혀
기실 튜?/아침 진지 안 허실 튜?/거서
하냥 실 튜?

틱 : 다 ㅍ 틱우다 ㉮ '티:다'.

티깎다[-따] ㅍ 아니깎다 ㉮ 하는 말
이나 행동이 거슬리는 데가 있고 밍살
맞다. ㉮드럽다. 아니깎다. 메시깎다. ¶
돈 점 불었다고 되게 티깎게 구너면./
그렇기 드럽구 티껴우문 너두 나차람
되보지?/내 티껴서니 그 술 안 은어먹
구 말 겨.

티 : 다 ㅍ 틱우다 ㉮(타) '트-(萌
動)+-이+-다→틱:다'티:다. 식물의 씨
앗에서 싹이나 움이 나오게 하다. ㉮틱

:다. 틱우다. ¶ 날이 하 가무녕께 씨앗
덜이 싹을 티지 못허너면./그 꺾은
꼬추씨를 틱다구 아배가 방안이다 덜어
났유.

틱틱-거리다[-꺼-] ㅍ 툃툃-거리다

㉮ 상대의 말에 어기대며 쏘아 붙이다.
¶ 말을 안 듣구 틱틱거리걸래 아주 혼
꾸녕을 내졌어./그렇기 틱틱거리지만 말
구 끝까장 들어봐.

팅팅 ㅍ 툃툃 ㅍ '툃툃→팅팅/팅팅(전설

모음화). 물체의 어느 부분이 붓거나 부
풀어져 커진 모양. 또는 살이 쪼 몸이
퍼진 모양. ㉮툃툃. 툃팅. ¶ 국수가 툃팅
불렀이니 이를 오쩨다?/별헌티 췌서 볼
때기가 툃팅 뵈유.



판-백이 [판-박이(版-) 판] ①판으로 박아 내는 일. ②판으로 박아낸 것처럼 서로 닮은 사람. 『자는 천상(天生) 지 아배 판백이여. 이마뺨이다 주름살 몇 개만 그셔느른 배껴두 무를 겨.

팔뚝-시계 [-씨계] [팔손목-시계] 『팔뚝시계.』 『그 사람 설 가더니 돈 점 붙었내 벼. 크다런 팔뚝시계를 띄허니 차구 왔더랑께.

팔목-시계 [-씨계] [팔손목-시계] 팔목에 차는 시계. 『팔뚝시계. 손목시계.』 『시곶방이 가서 벽시계를 사구서니 말여. 짜끄만 팔목시계 하나만 들이루 달라구 떼를 썼다잖여. 뉘가? 뉘긴 뉘겼어? 그 잘난 우리집 시절이지.

팬팬 [판판이] 놀이 언제나. 매번. 『팬팬 놀기만 허다./팬팬 치백혀 잠만 자던 늬이 오늘은 웬일이랴?

팬팬-이 [판판이] 놀이 언제나. 놀이

판이나 내기 판에서 번번이. 『이길 것 차람 큰소릴 치더니 팬팬이 나가떨어지더면./터러 저주기두 히야지, 팬팬이 이기기만 허문 재미 읍잖여.

퍼대 [포대기] 『퍼대기』의 줄임말. 『퍼대루 애 점 덮어줘라.

퍼떡 [빨리] 『버떡』의 센말. 『눈이 바수거리루 쏟아졌이니 눈 치야겠다. 퍼떡 빗자락 들구 나와라./급허 죽겼넌디 퍼떡 안 나오구 머턴대유?

퍼떡-퍼떡 [빨리-빨리] 『버떡 버떡』의 센말. 『해 다 간다. 퍼떡퍼떡 끝내구 밥 먹으러 가자.

퍼뜩 [퍼뜩/빨리] ①(표준어) 순간적으로 갑자기. 『시술 했더니 퍼뜩 증신이 드너면.』 ②(방언) 아주 빠르게. 『버떡/퍼떡』이 표준어화 한 형태. 『퍼뜩 일은 안허구 웬 판전이라?

퍼 : 띠리다 [퍼 : 뜨리다] (타) '프

-(-杼?/伸?)+-어+-뜨리다(접사)+-다→퍼뜨리다) 퍼따리다(전설모음화). ㉞ ‘퍼치다’.
『그런 이상현 소리를 퍼따리구 땡기년 늪이 누구랴?』

펴 : 치다 ㅍ 펴 : 뜨리다 ㉞(타) ‘프-(-伸?)+-어+-치(접사)+-다’. 무엇을 널리 퍼지도록 하다. ㉞퍼따리다. 퍼뜨리다. 퍼티리다. 퍼트리다. 『그런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되니까 고여니 퍼치구 땡기덜 말어.』

펴 : 티리다 ㅍ 펴 : 뜨리다 ㉞(타) ㉞ ‘퍼치다’. 『장질부사니 하루겨리니 허년 것덜은 다 모기가 퍼티리년 뽕이여. 그러니까 모기헌티 물리지 않더락 조심혀.』

폐-놓다[-노타] ㅍ 펴-놓다 ㉞ 무엇을 넓게 벌려 놓다. ㉞뜨놓다. 퍼놓다. 『지도책은 폐놓구 뭘 찾능 겨?/책두 폐놓덜 앓구 먼 공불 헌다니?』

폐 : -결핵 ㅍ 폐 : -결핵(結核) ㉞〈의학〉 결핵균이 폐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전염성의 질병. ㉞폐병. 폐병.

펴지다 ㅍ 퍼지다 ㉞ ①접히거나 말린 것이 넓게 벌려지다. 『유산이 왜 이렇기 폐지덜 않넌다? ②구겨지거나 굵은 것이 반반하거나 곧게 되다. 『저 늪이 하 속을 썩이년 통이 내 얼굴이 주름살 폐질 날이 읍다니까. ③형편이나 상황이 호전되다. ㉞뜨지다. 퍼지다. 『가게 형편이 점 폐지문 내 자네헌티』

보나스두 주구 그럴 겨.

펼쳐-지다 ㅍ 펼쳐-지다 ㉞ 활짝 트인 상태로 넓게 드러나다. ㉞펼쳐치다. 『금오산이 올라가서니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래루다 크다런 장관을 깐 것 누런 들판이 짝 펼쳐졌더리구.』

펼치다 ㅍ 펼치다 ㉞(타) ①무엇을 넓게 벌려 놓다. 『이늪이 공불 허렸더니 책만 펼쳐 놓구 잠들었구면. ②무엇을 활짝 드러내 보이거나, 어떤 일을 널리 실현하다. ㉞펼치다. 『사람덜은 다 이룬구 싶은 꿈이 있지면 그걸 펼치구 이룬다년 게 오디 쉬은가?』

평 : 등 ㅍ 평등(平等) ㉞ 차별이 없이 한결같이 고름. 『말루는 평등평등 허지면, 시상은 늘 있던 사람덜 른(偏)이여. ㉞(자) 평 : 등-허다 『예나 시방이나 돈 읍구 백 읍년 사람덜헌티 평등헌 시상은 읍는 뱍이지.』

평 : 면 ㅍ 평면(平面) ㉞ 평평한 걸면. ㉞평: 른. 『거기 비루 평긴 디 점 평면이루다기니 판판허게 허란 말여.』

평-발 ㅍ 평-발(平-) ㉞ 발바닥이 오목하지 않고 평평한 발. ㉞평발. 『그 사람은 평발이라 뽕박질을 오래 못 혀. 평발이라고 히서 군인두 안 갔다니까.』

평온-허다 ㅍ 평온-하다(平穩-) ㉞ 탈 없이 평안하다. 『큰 일덜 다 치구 나니까 인자 땡이 평온혀./오째 우리』

집안은 **평온혈** 새가 읊다?

평지 ㉠ 평지(平地) ㉡ 고르고 평평한 땅. ㉢ 하우쭈를 셀라른 **평지**다 세야지, 웬 어덕이다 세능 겨?/산 밑이 **평지**가 있넌디 뜨징이라두 히서 쓰야졌어.

평지-풍파 ㉠ 평지-풍파(平地風波) ㉡ 평지에 이는 바람과 물결. 평온한 가운데 뜻밖으로 생기는 분쟁.

평탄 ㉠ 평탄(平坦) ㉡ ①바닥이 평평함. ②순조롭고 탈이 없이 되어 감. ㉢ 평탄-허다. ㉣ 질이 **평탄허니** 걸어맹기기에 좋구먼./사람 허년 일이 맨날 **평탄혈** 수만 있겠넌남?

평풍 ㉠ 병풍(屏風) ㉡ ㉢ '평풍'.

평화 ㉠ 평화(平和) ㉡ '표준어화 과정: 흥화/평화) 평화. 평안하고 화목함. 또는 그런 상태. ㉢ 흥화.

평화-롭다[-따] ㉠ 평화-롭다(平和-) ㉡ 갈등이 없이 화목하다. ㉢ 산읍씨 레기장인가 먼가가 들어온다구 이태째 동네가 **평화렐** 새가 읊어.

평화-적 ㉠ 평화-적(平和的) ㉡ 갈등이 없이 화목함. ㉢ 그리두 이우지간인디 웬만허문 **평화적**이루 해글허더락허. ㉣ 갈등이 없이 화목한. ㉤ 흥화적.

표-딱지(票-紙) ㉠ 딱지 ㉡ ①종잇조각이나,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우표, 명함, 차표, 상표, 카드 따위의

표를 이르는 말. ㉢ 자네네 대문이다 누가 **표딱지**를 붙여놓구 가넌디 그게 뭐랴? 이, 뭘 등기가 왔다구 우체국서 찾아가랴. ㉣ 두꺼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 만든 아이들의 장난감. ㉤ 너는 맨날 돈 갔다가니 **표딱지**만 사는 거지? 아뉴. 그 **표딱진** 친구덜헌티 다 판 규.

풀-떼기 ㉠ 풀-떼기 ㉡ ①쌀이 아닌 잡곡을 매에 갈아 물게 쏜 죽. ㉢ 예즌인 **풀떼기**두 읊어서 못 먹넌 집이 많었어. 저죽두 구연 집이 있었다닝께. ②(방언) 풀죽처럼 곡기가 되지 못하는, 질이 떨어지는 죽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매물죽두 죽인가? 그건 죽이 아니구 **풀떼긴** 거.

푸르딩딩-허다 ㉠ 푸르딩딩-하다 ㉡ '푸르-(靑/綠)+-땡땡/딩딩+허+-하다'. 사물의 빛깔이 고르지 않게 푸르빛이 나다. ㉢ 호박이 크긴 헌디 **푸르딩딩헌** 게 아적 들익었구먼./야가 찬 바람을 올마나 씨구 땡졌간 얼굴이 다 **푸르딩딩헌**게 얼어붙었다?

풀-섞[-섞] ㉠ 풀-섞 ㉡ '풀(草)+섞(煙草)'. 마른 풀이 쌓인 곳, 또는 풀이 조그맣게 우거진 곳. '풀숲'의 작은 말. ㉢ 왜 우염허게 **풀섞**인 들어간다?/풀섞이서 이슬 그만 털구 얼릉 일루 나와.

풍습 ㉠ 풍습(風習) ㉡ 과거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생활 전반의 걸친 풍속이나 습관. ㉢ 요짐 **풍습**이란 게 우덜



어렸을 적허군 많이 달리졌지. 시상이 배졌이니 풍십두 따러 배긴 겨.

피-고름 ㉠ 피-고름 ㉡ 피가 섞여 있는 붉은 고름. ㉢ 『중기가 올때나 짚었던 지 피고름을 종재기루 짜냈다.

피-보다 ㉠ 피해를 당하다 ㉡(자) '피(被)+보다' 명예나 금전상, 심리상의 손해를 당하다. ㉢ 『그 사기꾼헌터 피본 사램이 한둘이 아녀. 윈 동네 사람덜이 다 피봤다낭께.

핑겿-질이[-겐찌리] ㉠ 핑계 김에 ㉡ ㉢ '핑겿짐이'. ㉣ 『지두 겁이 나서 핑겿질이 현 말잉께 너머 꼬타리 잡덜 말유.

핑겿-짐이[-겐찌미] ㉠ 핑계 김에 ㉡ '핑계(辨明)+ㅅ+김/짐(契機)+이(조사)'. 변명하며 핑계 대는 것을 기회로 삼아. ㉢ 핑겿짐이. ㉣ 『핑소이두 그짐말을 밥 먹드끼 허년 늬인디, 그 늬이 핑겿짐이 허년 말을 위치기 믿겼어?

프-놓다[-노타] ㉠ 퍼-놓다 ㉡ ㉢ '페놓다'.

프지다 ㉠ 퍼지다 ㉡ ㉢ '페지다'.

픈 : 도-선 ㉠ 편도-선(扁桃腺) ㉡ ㉢ '픈도순'.

픈 : 도선-염[-념] ㉠ 편도선-염(扁桃腺炎) ㉡<의학> ㉢ '픈도순염'.

픈 : 도-순 ㉠ 편도-선(扁桃腺) ㉡<의학> '픈도순'픈도선'. 입 속의 양쪽 구석

에 평편하게 퍼져 있는 림프 소절. ㉢ 픈도선. ㉣ 『의사 선상이 허년 말이 요번 픈도순이 갈안지른 수술을 허라.

픈 : 도순-음[-눔] ㉠ 편도선-염(扁桃腺炎) ㉡<의학>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는 병. ㉢ 픈도선염. ㉣ 『저 사람은 즐기만 되는 픈도순음이루 여간 고상허는 게 아뉴.

펼쳐-지다 ㉠ 펼쳐-지다 ㉡ ㉢ '펼쳐지다'.

펼치다 ㉠ 펼치다 ㉡ ㉢ '펼치다'.

풍 : 등 ㉠ 평등(平等) ㉡ ㉢ '평등'.

풍 : 문 : ㉠ 평면(平面) ㉡ ㉢ '평면'. ㉣ 『대폐질은 풍문이 되더락 허야 되닝 겨.

풍-발 ㉠ 평-발(平-) ㉡ ㉢ '평발'.

풍생 ㉠ 평생(平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기간. ㉣ 『풍생 땅만 파구 산 내여. 이 나이에 뭇 호강을 허겼다구 고향을 뜨겼넌가?/그러, 넌 풍생술 처먹구 마누라 등골이나 빼맨서 살어라이.

풍온-허다 ㉠ 평온-하다(平穩-) ㉡ ㉢ '평온허다'.

풍지 ㉠ 평지(平地) ㉡ ㉢ '평지'. ㉣ 『풍지라 허서 가봤더니 맨 독자갈뿐이더먼.

풍탄 ㉠ 평탄(平坦) ㉡ ㉢ '평탄'.

풍화 ㉠ 평화(平和) ㉡ ㉢ '평화'.

평화-롭다[-따] ㉠ 평화-롭다(平和
-) ㉡ '평화롭다'.

평화-적 ㉠ 평화-적(平和的) ㉡
'평화적'.





하이고매 ㅍ 하이고 ㅊ '허이구'.
 ㅍ 하이고매, 고까짓 걸 누구 코이다 불
 이라능 겨?/하이고매, 당신 꼬라지 보
 든 지나던 개두 웃겼유.

하이구 ㅍ 하이고 ㅊ '허이구'.

한치 ㅍ 함께/같이 ㅍ '흔(同)+티(접
 사)→한티/한치'. 한 가지로 더불어. 여럿
 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티. ㉺하냥. 같
 이. ※'한치'와 '한티': 서산당진으로 이어진
 서부지역에서는 '한치'가 주로 쓰이는 반면,
 온양과 천안으로 이어진 동부산간지역에서
 는 '한티'의 빈도가 꽤 높게 나타남.('한치'는
 충남서남부 방언, '한티'는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 방언) ㅍ 둘이 한치 할라구?/한치
 자구두 친허덜 앓은감?/이번이 윈 식구
 덜이 뵈서 한치 지주도(濟州道)로 놀러
 갔다.

한-칭 ㅍ 한-층(-層) ㅍ '한(-)+층(層)
 →한칭(전설모음화). 한 단계 더. ㅍ 급짜
 이루 가든 짚이 흠히서 한칭 더 심들

텐디 워쩨냐? 한칭 심이라 들겼지면 대
 신 거루 가든 가잡짚유.

한티¹ ㅍ 함께/같이 ㅍ '한치'. ㅍ
 한티 그 일을 꾸몄남?/그것은 한티 현
 다구 달벼질 게 읍년 일여.

해-가다 ㅍ ㅎ(자) '해(日)+가(-去)+
 다.' 해가 서쪽으로 가다. 해가 저물어
 가다. ㉺저물다. ㅍ 해가년 중두 물르구
 놀기면 허든 워쩨년 겨?

해-다가다 ㅍ 저물다 ㅎ(자) '해(日)+
 다(皆)+가(-去)+다. 날이 저물다. 해가
 떨어져 어두워지다. ※'해가 지다, 해가
 다 가다'처럼 조사가 붙거나 분리되어 쓰이
 지 않고, 단독형으로 굳어진 합성어.' ㉺저
 물다. ㅍ 해다갔넌디(날이 어두워졌는데) 왜
 덜 아무두 안 온다? /일찍 오랬더니 해
 다가더락(날이 저물도록) 머허너라구 안
 온다?/일이 급허닝께 해다가두(밤이 되
 어도) 일은 끝내야 현다는구면유./저누
 무 자식, 피사리 점 허랬더니 피타리

‘허다못혀>허다못해. 아무리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다못해. ㉡일을 못허든 허다못혀 심부름이라두 허구 그리야 않겠남?/나오달 못허문 허다못혀 미리 은통(連通)은 느주알 것 아인가 배.

허발-대신 ㉠ 허발 귀신 ㉡ ‘허발(飡食)+대신(大神)’. ‘음식을 탐하는 큰 귀신’이란 뜻에서, 체면 없이 음식을 마구 먹어대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걸신(乞神). 걸귀(乞鬼). ㉣허발대신이 들다(乞神-들다. 乞鬼-들다)./이 사람 밥 먹던 걸 보니까 허발대신이 들었구먼./알구 봉계 이눔이 허발대신이구먼.

허부덕-거리다[-꺼-] ㉠ 허우적-거리다 ㉡(자)(타) ㉢ ‘허부적-거리다’의 이전 말. ㉣물이 빠져 허부덕거리던 늪 마냥 그만헌 일루 증신줄을 놓으른 오쩌냐?

허부덕-대다[-때-] ㉠ 허우적-대다 ㉡(자) ㉢ ‘허부적-거리다’.

허부덕-허부덕 ㉠ 허우적-허우적 ㉡ ㉢ ‘허부적-허부적’의 이전 말.

허부덕허부덕-허다 ㉠ 허우적허우적-하다 ㉡(자) ㉢ ‘허부적허부적-허다’의 이전 말.

허부적-거리다[-꺼-] ㉠ 허우적-거리다 ㉡(자)(타) ‘표준어화 과정: 허부덕거리다>허부적거리다>허우적거리다’. 물이나 구덩이 따위에서 빠져나오려고 팔다

리를 이리저리 내두르다. 또는 난관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다. ㉢허부덕거리다. ㉣허부적대다. ㉤물이 빠져 허부적거리리던 늪 건너주님께 보따리 내놓으라네./빗데미 빠져 허부적거리다 야반도주헌 사람을 내가 오딧년 중 오티기 알겠어.

허부적-대다[-때-] ㉠ 허우적-대다 ㉡(자) ㉢ ‘허부적거리다’. ㉣거 돈두안 되던 일이 빠져 허부적대덜 말어.

허부적-허부적 ㉠ 허우적-허우적 ㉡ ‘표준어화 과정: 허부덕허부덕>허부적허부적>허우적허우적’. 물이나 구덩이 따위에서 빠져나오려고 팔다리를 이리저리 내두르는 모양. 또는 난관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양. ㉢허부덕허부덕.

허부적허부적-허다 ㉠ 허우적허우적-하다 ㉡(자) ㉢ ‘허부적-허부적’.

허여멀건-허다 ㉠ 희여멀끔-하다 ㉡ ‘흐(白)+-영(접사)+-어+멀경-(潔淨)+-ㄴ(어미)+허(접사)+-다→허여멀건허다>허여멀건허다’. ①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이 하얗고 맑다. ㉣위째 짐치국물이 이렇기 허여멀건허다? ②얼굴빛이 건강치 못하여 혈색이 흐리다. ㉣가가 요짐 오디가 아픈지 얼굴이 허여멀건허니 안 좋아 보여.

허이고 ㉠ 하이고 ㉡ ㉢ ‘허이구’.

허이구 ㉠ 하이고 ㉡ 무엇이 대단치 않거나, 상대가 못 마땅하여 빈정거리

때 쓰는 말. ㉠하이고, 하이구, 하이고, 하이고매, 하이구매. ※'하이고'와 함께 쓰임 빈도가 높다. ㉡하이구, 그것을 자랑이라구 히쌌능 겨?/하이구, 오줌 묻은 녀미 앞지락 뛰어줄 생각 말구 똥 싼 니 속옷이나 빨어 입어, 이눔아.

하이구매 ㉠ 하이고 ㉡ ㉢ '하이구'. 하이구매, 지는 녀털버듬 월매나 잘 낫다구 저 지랄이라?

히집다[-따] ㉠ 헤집다 ㉡(타) '흐집다'히집다. 쌓여있는 것을 흠뜨리고 파헤치거나, 많이 쌓여있는 곳을 헤치고 들어가다. ㉢흐집다. ㉣히치다. ㉤답덜이 퇴비장을 다 히집구 있구면./누가 옷장을 다 히집었다? 히집긴 누가 히집었겠어? 집안이 옷장 히집을 사램이 하나빼니 더 있남?

히쩍공 ㉠ 허탕 ㉡ ㉢ '호쩌공'. ㉣그 일은 발써 히쩍공 새 올은 겨.

히쩍공-허다 ㉠ 허탕-치다 ㉡ ㉢ '호쩌공허다'. ㉣히쩍공할 것 뻔히 알면서 뭐더러 그 일은 시작한 겨?/파장이 뭇물건이 팔리겠어. 고여니 나가서 히쩍공허덜 말구 집이서 애나 봐.

헛-갈리다[-갈-] ㉠ 헛-갈리다 ㉡(자) ㉢ '사갈리다'.

힘데 ㉠ 허물 ㉡ ㉢ '힘데기'가 줄어든 말. ㉣공 차다가니 자빠져서 무르팍이 흘러넘 힘데가 벗겨졌어./보리감자 힘

데 갈 새가 읊어서니 가냥 찌구 말었유. 그닝계 힘데는 알아서 까 자슈./어제 쫓일 배갈일 쏘명기더니 등짝이 다 타서 힘데를 벗너면.

힘데기 ㉠ 허물 ㉡ '표준어화 과정: 형울>허울>힘울→허물/힘데기>허물/힘데'허물. ①<동물> 동물의 살가죽. 파충류나 곤충이 자라면서 벗겨내는 몸의 껍질, 척추동물의 표피, 사람의 살갓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힘데. 힘디기. ㉣허물. ㉤자 송꼬락이 왜 피 나능 겨? 문틈이 찌설래미 확 빼다가니 힘데기가 까졌대유./왜 뉘가 뽕을 안 먹구 가만 있대유? 많이 먹구 즐려서니 잠 자년 겨. 힘데기 벗구 잠 깨근 다시 뽕 먹구 크능 겨. ②<식물> 식물의 부드러운 표피. 과실에서 과육을 감싸고 있는 속껍질이나 연한 겉껍질, 풀줄기의 껍질 따위를 이르는 말. ㉢힘데. 힘디기. ㉣껍줄. 껍줄데기. 껍줄덩이. ㉤멍웃대를 벼왔으닝께 힘데기 벗기년 것은 니덜이 혀./성(싱아)을 힘데기두 안 벗기구 씹어먹으면 오쩌냐?

힘데 벗다 ㉠ 허물 벗다 (구문) 곤충이나 파충류 따위의 동물이 몸 껍질을 갈다. 살갓이 벗어지다.

힘디기 ㉠ 허물 ㉡ ㉢ '힘데기'. ㉣올마나 씨게 자빠졌걸래 힘디기가 그렇기 까졌다?

헛-갈리다[헛갈-] ㉠ 헛-갈리다 ㉡



(자) ㉞ ‘사칼리다’.

헛-게육질 [헛게-찜] ㉞ 헛-구역질
 ㉞ 음식을 게우지는 않고, 육지만 하는 일. ㉞ 육지기. ㉞ 먹은 것두 육이 정일 헛게육질을 히쨌넌디 걱정이유. ㉞ 헛게육질-하다.

헛 : 기다 ㉞ 헛 : 구다 ㉞ ‘흥구다’
 가 표준어화한 형태이나 현재는 쓰이지 않음. ㉞ 걸레를 물이 **헛간다구** 행주되
 년감?

호벽 ㉞ 홍역(紅疫) ㉞ <의학> ‘홍역→
 혼역’ 호벽’.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붉은 발진을 동반하는 급성 전염병. ㉞
 혼역. ㉞ 그 사람은 어려서니 **호벽**을 심
 허게 앓아서 얼굴이 엷은 겨./손주놈이
 워티거나 때를 쓰던지 애 보너라 한 나
 절 내내 **호벽**을 치렀어.

호-동고랴다 [-라타] ㉞ 회동그랴다
 ㉞ 놀라거나 두려움에 크게 뜨여 눈이
 아주 동그랴다. 또는 눈이 커서 매우
 동글다. (큰말)후동구랴다. ㉞ 금가락지 춤
 보남? 왜 그렇기 눈을 **호동고랴게** 뜨구
 츠다 보능 겨?/그 삭시 눈을 **호동고란**
 게 여간 이쁜 게 아녀.

호동고래 ㉞ 회동그래 ㉞ 놀라거나
 두려움에 눈이 크게 떠진 모양. (큰말)후
 동구래. ㉞ 왜 그러? 왜 눈을 **호동고래**
 뜨구 날 츠다보능 겨?

호동고래-지다 ㉞ 회동그래-지다 ㉞

놀라거나 두려움에 눈이 동그랴게 커지
 다. ㉞ 애가 뭘 봤간 이렇기 눈이 **호동**
고래져서니 떨구 있다?

호룽개 ㉞ 탈곡기 ㉞ ‘호룽기’.

호룽-기 ㉞ 탈곡기 ㉞ ‘호룽(擬聲)+-기
 (機)’. 해방 이후 보급된 수동식 회전 탈
 곡기. 1970년대 이후 전동식 탈곡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라져감. ㉞ 호룽개.
 와룽기. 와룽개. 개룽기. 개룽개. ※수동식
 탈곡기가 처음 나왔을 때 농촌에서는 탈곡
 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접사 ‘-개’를 붙인
 ‘호룽개, 와룽개, 개룽개’ 따위가 많이 쓰이
 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식 접사인 ‘-기
 (機)’를 붙여 쓰는 이름으로 바뀜. 여러 이
 름으로 불리었지만, 충청도에서는 ‘호룽개,
 호룽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㉞ 예전이 발
 루 밟어 돌리던 기계루 곡식을 털었잖
 어. 그 **호룽개루** 말여. 그걸 예산서닌
호룽개라구 했남? 우리 스산선 **와룽개**
라구 했넌디? 잉? 우리 계룽서는 **와룽**
기라구 했어. 그러? 그러닝께 그놈이
 예산서닌 호룽호룽 돌아가구, 스산, 공
 주서닌 와룽와룽 들어간 모냥일세. 그
 리기, 뉘집서닌 개룽개룽 허매 들어가
 기두 했다. 우리아버진 그걸 **왈구랑**이
라구 했다닝께. **왈구랑** 땡그랑 허매 돌
 어간다구 히서 말여.

호박-무리 [-방-] ㉞ 호박 시루떡 ㉞
 멍쌀가루에 호박고지를 함께 안쳐 시루
 에 쪄낸 떡. ㉞ 이진인 **호박무리** 더러
 히 먹었어. 가를 안칠 적이 물이 불린

호박고질 많이 느른 쌀이 죽어두 떡이 많아지디. 그제 호박무리구, 무수를 채 쓸어 느른 무시루떡이 되구 그렸어.

호쩌공 ㉠ 허탕 ㉡ '밤에 우는 서쪽새(소쩍새)의 울음 소리'에서, '이미 날이 저물었음', 또는 '애쓴 일이 보람 없이 끝남'을 빗대어 이르는 관용어. ㉢허쩌공. ㉣저긴 다 가구 인전 아무두 읊어. 그러니까 가봤자 호쩌공이여. 호쩌공을 허더락두 지는 가봐야 쓰겼구먼유.

호쩌공새 ㉠ 소쩍새 ㉡ ㉢ '서쪽새'의 다른 이름.

호쩌공새 울다 ㉠ 쾡새 울다 (구문) ㉡ '때가 이미 늦었음'을 뜻하는 관용어. ㉢쾡새 울다. 황새 울다. ㉣그 일은 벌써 틀어진 거. 호쩌공새 울었다니까.

호쩌공-허다 ㉠ 허탕-치다 ㉡ 애쓴 일이 보람 없이 끝나다. ㉢허쩌공허다. ※여름새인 소쩍새는 날이 저문 뒤에 울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운다. 이에 '호쩌공허다'는 소쩍새가 울고 있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음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나, 이미 날이 저물어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관용어가 된 것이다. ㉣버섯 나년 자릴 맡어놔년디 누가 다 따가서니 호쩌공허구 말었유. 그러구 호쩌공힐 중 알었으른 지가 거길 왜 갔겼유?

호차리 ㉠ 회초리(檜-) ㉡ '회(檜)+차리(枝/鞭)→회차리'호차리(모음탈락). 사람을 때리거나 짐승을 부릴 때 쓰는 가는

나뭇가지. ㉢회차리. ㉣저 늬이 호차리루 맞구두 양알거리네./이 사람아, 애덜헌티 호차리는 승질날 때 드는 게 아녀. 때려서니 득이 될 적이만 드년 게 호차린 거.

호차리-질 ㉠ 매-질 ㉡ 회초리로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때리는 짓. ㉣이 냥반이 누집 구연 자석헌티 호차리질인 거?/말 못허년 짐승이라두 호차리질은 함부루 허녕 게 아녀.

호-퍼대 ㉠ 홀 포대기 ㉡ ㉢ '홀퍼대기'.

호-퍼대기 ㉠ 홀 포대기 ㉡ ㉢ '홀퍼대기'.

흔역 ㉠ 흥역(紅疫) ㉡ ㉢ '호녀'.

흔저 ㉠ 혼자 ㉡ 자기 한 몸. ㉣다덜 떠나가구 지 흔저만 고향을 지키구 있유. ㉤다른 이와 떨어져 홀로. ㉣너 흔저 놀지 말구 하냥덜 놀어라./괘 맨 날 흔저 멍겨유.

흔젓-말[-전-/-점-] ㉠ 혼젓-말 ㉡ 남과 상관없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 ㉣흔젓말차람 머라구머라구 허긴 허더 먼 먼 소린지 지가 알게 뭐래유?

흔쳐 ㉠ 혼자 ㉡ ㉢ '흔저'의 이형태. ㉣흔쳐 심심허게 있덜 말구 일루와 하냥 놀자.

홀태 ㉠ 그네 ㉡(농업) 빗살처럼 촘촘히 싯날을 세우고, 그 사이에 곡식의 이삭을 한 주먹씩 넣고 훑어 낱알을 떨



어내는 농기구. 『벧마지기나 짓넌 사 램덜이야 흘태를 쓰남? 쟁일 흘태루 흘 트야 베 두어 섬 될까 말간디, 그건 농 사처 즉은 사람덜이 쓰녕 거여.

홍재 ㉠ 횡재(橫財) ㉡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음. 또는 뜻밖에 얻은 재물. 『질 가넌디 애가 울구 있어서 집을 찾 어줬넌디 말여. 그 집이서 고맙다구 큰 돈을 주더랴. 그러니 홍재두 그런 홍재 가 오뎠다? ㉢(자) 홍재-허다. 『등산 허다 산삼을 만나다니 자네 참 홍재했 구면.

홍꺈-수[-꺈수] ㉠ 횡재-수(橫財數) ㉡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게 되는 운 수. 『암만히두 내가 요새 홍꺈수가 걸 린 모양이여? 뭘 존 일 있남? 흐흐, 메 칠 존인 우리 염생이가 새끼일 싯 낳넌 디 말여. 어제넌 우리 소가 또 쌍덩일 낳단 말여.

흘-퍼대[흘-/호-] ㉠ 흘 포대기 ㉡ 『흘퍼대기』. 『애를 알루 업덜 말구 흘 퍼대라두 돌리, 이것야.

흘-퍼대기[흘-/호-] ㉠ 흘 포대기 ㉡ 안에 숨을 두지 않고 만든 포대기. ㉢호 퍼대기, 호퍼대. ㉣누비포대, 누비포대기, 누비포대. ㉤흘퍼대. 『날 취나넌디 애를 흘퍼대기에 업구 땡기문 위쩌냐?

화토 ㉠ 화투(花鬪) ㉡ 열두 달 풍경 이 그려진, 마흔여덟 장으로 이루어진 놀이도구. 『화토가 짝이 하나 비너면./

초상집이 있던 화토를 다 걷어왔더니 다섯 목이나 되더면.

화토-꾼 ㉠ 화투-꾼(花鬪-) ㉡ 화토 놀이를 즐기는 사람을 가볍게 이르는 말. 『오늘은 웬일이랴? 마실방이 화투 꾀덜이 출근을 안 했네./초상집이 화투 꾀덜 아니믄 누가 밤을 새주겠어?

화토-짝 ㉠ 화투-짝(花鬪-) ㉡ 화투 의 낱장. 『화토짝이 하나 비너면. 어 제두 친 것인디 그럴 리가 있남? 화투 짝을 새루 맞춰봐두 싸리 꺾테가 안 보 넌디?

화토-치다 ㉠ 화투-하다(花鬪-) ㉡ 화투놀이를 하다. 『노름판이 본색나대 끼 돈대기 화토치다 보믄 드런 승질덜 다 나온다닝께.

화토-판 ㉠ 화투-판(花鬪-) ㉡ 화투 놀이가 이루어지는 자리. 『화토판이 가리(かり)가 워뎠다? 매기 떨어졌으면 얼릉 일나. 스수덜 줄 싯다닝께.

화토-패 ㉠ 화투-패(花鬪牌) ㉡ 화투 하는 이의 손에 쥐어진 화투 낱장의 내 용. 『화토패 안 좋으면 망상대덜 말구 죽어. 그거 들구 치다가넌 쌍코피 터지 넌 건 일두 아니겼구면.

화툼-목[-툼-] ㉠ 화툼-목(花鬪-) ㉡ ‘화토(花鬪)+ㅅ+목(塊)→화툼목)화툼목(변 자음화)’. 마흔여덟 장으로 이루어진 한 덩이의 화투. 『스랍이다 느는 화툼목

이 오디루 내뻘다?/화톱목 하나 읊년
집안두 있긴 있나 비네.

화톱-장[~톱짱] ㅍ 화투-장(花鬪張) ㅁ
날날의 화투. ㅍ이 사람이, 지 화토나
신경쓰지 왜 넘어 화톱장은 넘겨다 본
다?/이 낭반이 화톱장 덮여다 보매 책
을 읽능 겨 뭐여? 꾸물떡거리지 말구
얼릉 쳐.

확-돌[~뜰] ㅍ 돌 : -확 ㅁ 절구로 쓰
이는 돌. 또는 돌로 만든 절구통. ㉠독
확. 독절구. ㅍ확돌이 무겁기만 허구 그
려서 쇠구수루 쓰닝께 그만이구면.

활딱 ㅍ 활딱/활짝 ㅁ '활딱'활짝. ①
(표준어-활짝) 남김없이 벗어지거나, 몽
땅 뒤집어지는 모양. ㉠홀딱. 홀떡. ㅍ집
안이 활딱 뒤집어지다./머리가 활딱 벗
겨지다. ②(방언-활짝) 사물이 한껏 열
리거나, 어떤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나
는 모양. ㉠활짝. ㅍ봄꽃덜이 활딱 퍼나
다./웃음꽃이 활딱 피다./창문을 활딱
열다./고상문이 활딱 열리다./큰놈이 추
직을 홧이니 인전 자네두 활딱 기 피구
살겼구면.

황새 울다 ㅍ 일이 틀어지다 (구문) ㉠
'평새 울다'에서 파생된 관용어. ㅍ그
낭반 손거판이 나가서 애만 썼지, 당순
되년 일은 오라 존이 황새 울었어./그
일은 평새 황새 다 울었이니 더 볼 것두
읏구면.

황애-장사 ㅍ 황아-장수 ㅁ<역사>
'황화(荒貨)+장사(商人)→황아장사'황애장
사(전설모음화). 예전에, 일용잡화를 등
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동네를 돌아다
니면서 팔던 장사치. ㉠등짐장사. 보짐장
사. ㅍ이진인 황애장사가 동네마두 돌
어댕겼넌디 말여. 황애장사가 어느집이
있다 허문 동네 사람덜이 죄다 몰려들
구 그랬지./황애장사 자마리 윙기덜(황
아장수 잠자리 윙기덜).

회² ㅍ 회(灰)/시멘트(cement) ㅁ ①
생석회와 소석회 따위를 이르는 말. ②
시멘트. ㉠'췌면'. ㅍ오년 질이 출물점
이 들러 회 한 포만 사와.

회차리 ㅍ 회초리(檜-) ㅁ ㉠'호차
리'보다 쓰임 빈도가 크게 낮다.

휩-포대[휩-/휩-] ㅍ 시멘트 포대 ㅁ
㉠'휩포대'. ㅍ쓰두 못휩 휩포대는 뭐
더러 주서온다?

휩-포대[휩-/휩-] ㅍ 시멘트 포대 ㅁ
'회(灰)+ㅅ+포대(包袋)→휩포대'휩포대(변
자음화). 휩가루나 시멘트를 담은 자루.
㉠휩포대. ㅍ회관 앞이 휩포대가 잔뜩
쌓였더면 웬 거라? 이, 동네 질닥우라
구 뜬이서 보내준 거라.

횡 : -허니 ㅍ 횡-하니 ㅁ ①막힌 것
이 뚫려 시원하게 (큰말)횡허니. ㅍ침을
맞았더니 속이 횡허니 뚫렸어. ②막힘
없이 매우 빠르게. ㅍ집이 점 횡허니



땡겨올 텡께 장판만 지둘러. ③어느 공간이 텡 비어 허전하께. (큰말)횡허니. ㉠애덜이 다 떠나닝께 집안이 횡허니 찬바람이 이닌구먼.

횡 : -허다 ㉠ ㉡ ㉢ ㉣(자) ㉤ ‘횡허다’의 작은말.

후-달리다 ㉠ ㉡ ㉢(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힘이 부칠 정도로 몹시 괴롭힘을 당하다. ㉣시달리다. ㉤ 그때 찰금저리 같은 놈헌티 올마나 후달렸넌지 시방까장 진저리가 나./짱일 밧 가너라 후달렸을 텐디 얼릉 씻구 점서라.

후둥구레 ㉠ ㉡ ㉢(자) 놀라거나 두려움에 눈이 크게 떠진 모양. (작은말) 호둥고래. ㉣ 눈을 후둥그레 뜨구서니 뭇보구 있는 겨?

후-둥구렇다[-러타] ㉠ ㉡ ㉢(자) 놀라거나 두려움에 크게 뜨여 눈이 아주 둥그렇다. (작은말)호둥고랏다. ㉣ 그 사람이 말여. 월매나 배가 고편넌지 눈을 후둥그렇게 뜨구 밥상을 반기더먼.

후둥구레-지다 ㉠ ㉡ ㉢(자) 놀라거나 두려움에 눈이 둥그렇게 커지다. (작은말)호둥고래지다. 호둥고라지다. ㉣ 장사꾼이 내 물건을 보더니 눈이 후둥구레져서 담박이 대들더라구.

후야 ㉠ ㉡ ㉢(자) ㉣ ‘후이하’. ㉤ 그 사람 후야인 소대장이 싯이라. 그

럼 중대장인 겨?

후여똥 ㉠ ㉡ ㉢(자)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중심을 잃고 갑작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지우똥. ㉤(자) 후여똥-허다. ㉥ 줌 전이 내가 술지게를 지구 오다가니 그만 허방다릴 쫘엇단 말여. 후여똥허구 술통이 짜올어지닌 디 허참, 잘못 똥똥 술잔치 거서 끝날 뻔혔다닝께.

후여똥-거리다 ㉠ ㉡ ㉢(자) ‘후여똥그리다’>후여똥거리다>히똥거리다.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반복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후여똥거리다. 히똥거리다. ㉤후여똥대다. 히똥대다. ㉥ 술 밧잔이 내가 취했내 벼. 왜 들구 내 몸이 후여똥그린다?

후여똥-그리다 ㉠ ㉡ ㉢(자) ㉣ ‘후여똥그리다’.

후여똥-대다 ㉠ ㉡ ㉢(자) ㉣ ‘후여똥그리다’.

후여똥-후여똥 ㉠ ㉡ ㉢(자)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반복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지우똥허다.

후여-잡다[-따] ㉠ ㉡ ㉢(자) ①어떤 물체를 구부러지도록 움켜쥐다. ㉣ 암만허두 그렇지, 오티기 다 큰애 머리채를 후여잡넌다? ②어떤 대상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거나 다루다. ㉣허:잡다. ㉤ 그 사람은 뻔 것은

웃어두 사람 **후여잡넌** 뭐가 있다닝께.

후여-지다 ㉠ 휘어-지다 ㉡(자) 무엇이 한쪽으로 구부러지다. ㉢상다리가 **후여지게** 채려놓구 실킨 먹어보녕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었넌디 말여./잠이 너머 열려서니 가쟁이가 다 **후여졌어**./인전 농지덜이 다 **증지증리**가 되서니 **후여진** 논둑같은 건 보덜 못혀.

후영청 ㉠ 휘영청 ㉡ 달빛이 환하게 밝은 모양. ㉢밤이 눈질을 걷넌디 **후영청** 보름달이 뜨닝게 시상이 그룽기 새 하얗 수가 읍더라구.

후영청-허다 ㉠ 휘영청-하다 ㉡ 달빛이 환하게 밝다. ㉢옛날인 **후영청허**니 달이 뜨른 그룽기두 시상이 보기 좋았넌디 말여. 요새는 밤이두 환허닝께 달이 뜨넌지 지넌지 통 멋이 읍어.

후이다 ㉠ 휘다 ㉡(자) 무엇이 한쪽으로 구부러지다. ㉢나이야구 뗏 되두 얹언 사람이 왜 허리가 **후인** 겨? 이 사람이, 허리가 **후이긴** 누가 **후여**? 지계질을 되게 했다가 허리가 아퍼서니 장관 꾸부리구 멍기는 거란 말여. ㉣(타) 힘을 주어 무엇을 구부러지게 하다. ㉤고뽕이 헐 노간지냥구닝께 잘 **후여**서 걸어 나./철근을 **후이야졌넌디** 이 사람은 오딜 갔다?

후이하 ㉠ 휘하(麾下) ㉡ '휘하[후이하]→후야(전설모음화/음운탈락)→이중모음

'귀'가 두 소리가 구분되어 남.' 대장기의 아래, 또는 그 지휘 아래에 딸린 사람. ㉢후야. ㉣내 **후이하**에 직원이 뗏이나 되넌 중 알어? 이래되두 내가 그 회사 즈무여.

후이호[-/-오] ㉠ 휘호(揮毫) ㉡ '휘호[후이호]→이중모음 '귀'가 두 소리로 구분되어 남.' '붓을 휘두르다'의 뜻에서, 붓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르는 말. ㉢이번이두 추사고택서 **후이호**대회가 열린다너면. 그러구 자암 김구선생 **후이호** 대회두 새루 생겼다.

후-저스다 ㉠ 휘-졌다 ㉡(타) ㉢ '후졌다'.

후적-거리다¹[-꺼-] ㉠ 휘정-거리다 ㉡(자) 팔다리를 앞뒤로 흔들다. ㉢휘적거리다. 히적거리다. ㉣뺨이 비오니까 **후적거리**매 쏘맹일 생각 말어라.

후적-거리다²[-꺼-] ㉠ 휘정-거리다 ㉡(타) ㉢ '후정거리다'. ㉣여럿이 먹넌 찌개디 그 드런 수갈루 **후적거리**른 오티기여?

후적-후적 ㉠ 휘적-휘적 ㉡ 팔다리를 앞뒤로 흔들며 걷는 모양. ㉢휘적휘적. 히적히적. ㉣날 저무넌디 **후적후적** 워딜 가넌가?

후-졌다[-전따] ㉠ 휘-졌다 ㉡(타) 마구 젓거나 이리저리 흔들다. ㉢으럿이 먹넌 찌개를 수갈루 자꾸 **후졌**으면



오티기여?/즈 녀석이 윈 쩡일 동네를 후젓구 땡이더니 피곤헌 모냥이구먼.

후정-거리다 ㉠ 휘정-거리다 ㉡(타) 손이나 발, 막대기 따위로 휘저어 물을 흐리게 하다. ㉢후적거리다. ㉣이눔아, 진흑탕을 후정거리구 땡이닝께 옷을 버리잖어./그 드린 웅딩인 머더라 들어가 서니 후정거리구 있냐?

후정-후정 ㉠ 휘정-휘정 ㉡ 손이나 발, 막대기 따위를 휘저어 물을 흐리는 모양. ㉢막대기루 후정후정 물 드럽히 델 말어.

후-지르다 ㉠ 휘-지르다 ㉡(타) ㉢ '후질르다'. ㉣너 또 옷 후지르구 싶어 서니 물장냥허넌 거지?

후청 ㉠ 휘청 ㉡ ①몸이 기우뚱하며 흔들리는 모양. ㉢독부리에 걸려서니 몸이 후청 허넌디 똑 얹어지넌 중 알았어. ②물체가 갑작스럽게 휘어지는 모양. ㉣비바람이 들이치닝께 차미막이 후청 허구 찌올더라구.

후청-거리다 ㉠ 휘청-거리다 ㉡(자) ①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흔들리다. ㉢산이 올라갈 적인 다리가 아퍼도 올라갔넌디 내려올 적인 다리가 후청거리서니 무지 혼났어. ②긴 물체가 휘어지며 흔들리다. ㉣그 후청거리넌 낭구인 머더러 올라갔다? ③어려움에 부딪혀 흔들리다. ㉣그 집 아들내미가 맨날 사고만 치구멍기닝께 그 뒤치

다꺼리 허다가니 집안이 다 후청거리넌다. ㉡(타)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어지게 다리를 흔들다. ㉢히청거리다. ㉣너 두 술 먹구 취형 겨? 왜 다리를 후청거리남?

후청-대다 ㉠ 휘청-대다 ㉡(자) ㉢ '후청거리다'.

후청-이다 ㉠ 휘청-이다 ㉡ ㉢ '후청거리다'.

후청-후청 ㉠ 휘청-휘청 ㉡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가 흔들리거나, 긴 물체가 흔들리며 휘어지는 모양. ㉢히청히청. ㉣그 사람 씨러질 드기 후청후청 돌어가넌디 말어. 올마나 상심이 컸으면 저럴까 싶은 게 맴이 정허더라구.

후청후청-허다 ㉠ 휘청휘청-허다 ㉡(자)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가 흔들리거나, 긴 물체가 휘어지며 흔들리다. ㉢히청히청허다. ㉣심드니께 다리가 후청후청허넌 것이 난 먼침 들어가 셔야 겠어./이 낭군 너머 후청후청히서 코뚜레루 쓰던 못허졌어.

후황-허다[-/-왕-] ㉠ 휘황-허다(輝煌-) ㉡ '휘황[후이황]허다→후황허다(모음탈락)'. 빛이 눈이 부시도록 밝다. ㉢후황찬란하다. ㉣달이 후황헌디 증깁불은 머더라 쓰녕 겨?/주요소덜은 즌기가 아깝두 않냐? 맨날 밤새 불을 후황히게 밝혀두넌 까닥이 뭐랴?

후황찬란-허다[-왕찰라너-] ㉠ 휘황

찬란-하다(輝煌燦爛) ㉠ 눈이 부시도록 밝고 환하다. ㉡ 후황하다. ㉢ 겉보매는 후황찬란하니 실속은 오떨라나 물르겼유./평평 불꽃을 싸 올리더니 참번쩍번쩍허구 후황찬란허더면.

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㟒 㟓 㟔 㟕 㟖 㟗 㟘 㟙 㟚 㟛 㟜 㟝 㟞 㟟 㟠 㟡 㟢 㟣 㟤 㟥 㟦 㟧 㟨 㟩 㟪 㟫 㟬 㟭 㟮 㟯 㟰 㟱 㟲 㟳 㟴 㟵 㟶 㟷 㟸 㟹 㟺 㟻 㟼 㟽 㟾 㟿 㠀 㠁 㠂 㠃 㠄 㠅 㠆 㠇 㠈 㠉 㠊 㠋 㠌 㠍 㠎 㠏 㠐 㠑 㠒 㠓 㠔 㠕 㠖 㠗 㠘 㠙 㠚 㠛 㠜 㠝 㠞 㠟 㠠 㠡 㠢 㠣 㠤 㠥 㠦 㠧 㠨 㠩 㠪 㠫 㠬 㠭 㠮 㠯 㠰 㠱 㠲 㠳 㠴 㠵 㠶 㠷 㠸 㠹 㠺 㠻 㠼 㠽 㠾 㠿 㡀 㡁 㡂 㡃 㡄 㡅 㡆 㡇 㡈 㡉 㡊 㡋 㡌 㡍 㡎 㡏 㡐 㡑 㡒 㡓 㡔 㡕 㡖 㡗 㡘 㡙 㡚 㡛 㡜 㡝 㡞 㡟 㡠 㡡 㡢 㡣 㡤 㡥 㡦 㡧 㡨 㡩 㡪 㡫 㡬 㡭 㡮 㡯 㡰 㡱 㡲 㡳 㡴 㡵 㡶 㡷 㡸 㡹 㡺 㡻 㡼 㡽 㡾 㡿 㢀 㢁 㢂 㢃 㢄 㢅 㢆 㢇 㢈 㢉 㢊 㢋 㢌 㢍 㢎 㢏 㢐 㢑 㢒 㢓 㢔 㢕 㢖 㢗 㢘 㢙 㢚 㢛 㢜 㢝 㢞 㢟 㢠 㢡 㢢 㢣 㢤 㢥 㢦 㢧 㢨 㢩 㢪 㢫 㢬 㢭 㢮 㢯 㢰 㢱 㢲 㢳 㢴 㢵 㢶 㢷 㢸 㢹 㢺 㢻 㢼 㢽 㢾 㢿 㣀 㣁 㣂 㣃 㣄 㣅 㣆 㣇 㣈 㣉 㣊 㣋 㣌 㣍 㣎 㣏 㣐 㣑 㣒 㣓 㣔 㣕 㣖 㣗 㣘 㣙 㣚 㣛 㣜 㣝 㣞 㣟 㣠 㣡 㣢 㣣 㣤 㣥 㣦 㣧 㣨 㣩 㣪 㣫 㣬 㣭 㣮 㣯 㣰 㣱 㣲 㣳 㣴 㣵 㣶 㣷 㣸 㣹 㣺 㣻 㣼 㣽 㣾 㣿 㤀 㤁 㤂 㤃 㤄 㤅 㤆 㤇 㤈 㤉 㤊 㤋 㤌 㤍 㤎 㤏 㤐 㤑 㤒 㤓 㤔 㤕 㤖 㤗 㤘 㤙 㤚 㤛 㤜 㤝 㤞 㤟 㤠 㤡 㤢 㤣 㤤 㤥 㤦 㤧 㤨 㤩 㤪 㤫 㤬 㤭 㤮 㤯 㤰 㤱 㤲 㤳 㤴 㤵 㤶 㤷 㤸 㤹 㤺 㤻 㤼 㤽 㤾 㤿 㥀 㥁 㥂 㥃 㥄 㥅 㥆 㥇 㥈 㥉 㥊 㥋 㥌 㥍 㥎 㥏 㥐 㥑 㥒 㥓 㥔 㥕 㥖 㥗 㥘 㥙 㥚 㥛 㥜 㥝 㥞 㥟 㥠 㥡 㥢 㥣 㥤 㥥 㥦 㥧 㥨 㥩 㥪 㥫 㥬 㥭 㥮 㥯 㥰 㥱 㥲 㥳 㥴 㥵 㥶 㥷 㥸 㥹 㥺 㥻 㥼 㥽 㥾 㥿 㦀 㦁 㦂 㦃 㦄 㦅 㦆 㦇 㦈 㦉 㦊 㦋 㦌 㦍 㦎 㦏 㦐 㦑 㦒 㦓 㦔 㦕 㦖 㦗 㦘 㦙 㦚 㦛 㦜 㦝 㦞 㦟 㦠 㦡 㦢 㦣 㦤 㦥 㦦 㦧 㦨 㦩 㦪 㦫 㦬 㦭 㦮 㦯 㦰 㦱 㦲 㦳 㦴 㦵 㦶 㦷 㦸 㦹 㦺 㦻 㦼 㦽 㦾 㦿 㧀 㧁 㧂 㧃 㧄 㧅 㧆 㧇 㧈 㧉 㧊 㧋 㧌 㧍 㧎 㧏 㧐 㧑 㧒 㧓 㧔 㧕 㧖 㧗 㧘 㧙 㧚 㧛 㧜 㧝 㧞 㧟 㧠 㧡 㧢 㧣 㧤 㧥 㧦 㧧 㧨 㧩 㧪 㧫 㧬 㧭 㧮 㧯 㧰 㧱 㧲 㧳 㧴 㧵 㧶 㧷 㧸 㧹 㧺 㧻 㧼 㧽 㧾 㧿 㨀 㨁 㨂 㨃 㨄 㨅 㨆 㨇 㨈 㨉 㨊 㨋 㨌 㨍 㨎 㨏 㨐 㨑 㨒 㨓 㨔 㨕 㨖 㨗 㨘 㨙 㨚 㨛 㨜 㨝 㨞 㨟 㨠 㨡 㨢 㨣 㨤 㨥 㨦 㨧 㨨 㨩 㨪 㨫 㨬 㨭 㨮 㨯 㨰 㨱 㨲 㨳 㨴 㨵 㨶 㨷 㨸 㨹 㨺 㨻 㨼 㨽 㨾 㨿 㩀 㩁 㩂 㩃 㩄 㩅 㩆 㩇 㩈 㩉 㩊 㩋 㩌 㩍 㩎 㩏 㩐 㩑 㩒 㩓 㩔 㩕 㩖 㩗 㩘 㩙 㩚 㩛 㩜 㩝 㩞 㩟 㩠 㩡 㩢 㩣 㩤 㩥 㩦 㩧 㩨 㩩 㩪 㩫 㩬 㩭 㩮 㩯 㩰 㩱 㩲 㩳 㩴 㩵 㩶 㩷 㩸 㩹 㩺 㩻 㩼 㩽 㩾 㩿 㪀 㪁 㪂 㪃 㪄 㪅 㪆 㪇 㪈 㪉 㪊 㪋 㪌 㪍 㪎 㪏 㪐 㪑 㪒 㪓 㪔 㪕 㪖 㪗 㪘 㪙 㪚 㪛 㪜 㪝 㪞 㪟 㪠 㪡 㪢 㪣 㪤 㪥 㪦 㪧 㪨 㪩 㪪 㪫 㪬 㪭 㪮 㪯 㪰 㪱 㪲 㪳 㪴 㪵 㪶 㪷 㪸 㪹 㪺 㪻 㪼 㪽 㪾 㪿 㫀 㫁 㫂 㫃 㫄 㫅 㫆 㫇 㫈 㫉 㫊 㫋 㫌 㫍 㫎 㫏 㫐 㫑 㫒 㫓 㫔 㫕 㫖 㫗 㫘 㫙 㫚 㫛 㫜 㫝 㫞 㫟 㫠 㫡 㫢 㫣 㫤 㫥 㫦 㫧 㫨 㫩 㫪 㫫 㫬 㫭 㫮 㫯 㫰 㫱 㫲 㫳 㫴 㫵 㫶 㫷 㫸 㫹 㫺 㫻 㫼 㫽 㫾 㫿 㬀 㬁 㬂 㬃 㬄 㬅 㬆 㬇 㬈 㬉 㬊 㬋 㬌 㬍 㬎 㬏 㬐 㬑 㬒 㬓 㬔 㬕 㬖 㬗 㬘 㬙 㬚 㬛 㬜 㬝 㬞 㬟 㬠 㬡 㬢 㬣 㬤 㬥 㬦 㬧 㬨 㬩 㬪 㬫 㬬 㬭 㬮 㬯 㬰 㬱 㬲 㬳 㬴 㬵 㬶 㬷 㬸 㬹 㬺 㬻 㬼 㬽 㬾 㬿 㭀 㭁 㭂 㭃 㭄 㭅 㭆 㭇 㭈 㭉 㭊 㭋 㭌 㭍 㭎 㭏 㭐 㭑 㭒 㭓 㭔 㭕 㭖 㭗 㭘 㭙 㭚 㭛 㭜 㭝 㭞 㭟 㭠 㭡 㭢 㭣 㭤 㭥 㭦 㭧 㭨 㭩 㭪 㭫 㭬 㭭 㭮 㭯 㭰 㭱 㭲 㭳 㭴 㭵 㭶 㭷 㭸 㭹 㭺 㭻 㭼 㭽 㭾 㭿 㮀 㮁 㮂 㮃 㮄 㮅 㮆 㮇 㮈 㮉 㮊 㮋 㮌 㮍 㮎 㮏 㮐 㮑 㮒 㮓 㮔 㮕 㮖 㮗 㮘 㮙 㮚 㮛 㮜 㮝 㮞 㮟 㮠 㮡 㮢 㮣 㮤 㮥 㮦 㮧 㮨 㮩 㮪 㮫 㮬 㮭 㮮 㮯 㮰 㮱 㮲 㮳 㮴 㮵 㮶 㮷 㮸 㮹 㮺 㮻 㮼 㮽 㮾 㮿 㯀 㯁 㯂 㯃 㯄 㯅 㯆 㯇 㯈 㯉 㯊 㯋 㯌 㯍 㯎 㯏 㯐 㯑 㯒 㯓 㯔 㯕 㯖 㯗 㯘 㯙 㯚 㯛 㯜 㯝 㯞 㯟 㯠 㯡 㯢 㯣 㯤 㯥 㯦 㯧 㯨 㯩 㯪 㯫 㯬 㯭 㯮 㯯 㯰 㯱 㯲 㯳 㯴 㯵 㯶 㯷 㯸 㯹 㯺 㯻 㯼 㯽 㯾 㯿 㰀 㰁 㰂 㰃 㰄 㰅 㰆 㰇 㰈 㰉 㰊 㰋 㰌 㰍 㰎 㰏 㰐 㰑 㰒 㰓 㰔 㰕 㰖 㰗 㰘 㰙 㰚 㰛 㰜 㰝 㰞 㰟 㰠 㰡 㰢 㰣 㰤 㰥 㰦 㰧 㰨 㰩 㰪 㰫 㰬 㰭 㰮 㰯 㰰 㰱 㰲 㰳 㰴 㰵 㰶 㰷 㰸 㰹 㰺 㰻 㰼 㰽 㰾 㰿 㱀 㱁 㱂 㱃 㱄 㱅 㱆 㱇 㱈 㱉 㱊 㱋 㱌 㱍 㱎 㱏 㱐 㱑 㱒 㱓 㱔 㱕 㱖 㱗 㱘 㱙 㱚 㱛 㱜 㱝 㱞 㱟 㱠 㱡 㱢 㱣 㱤 㱥 㱦 㱧 㱨 㱩 㱪 㱫 㱬 㱭 㱮 㱯 㱰 㱱 㱲 㱳 㱴 㱵 㱶 㱷 㱸 㱹 㱺 㱻 㱼 㱽 㱾 㱿 㲀 㲁 㲂 㲃 㲄 㲅 㲆 㲇 㲈 㲉 㲊 㲋 㲌 㲍 㲎 㲏 㲐 㲑 㲒 㲓 㲔 㲕 㲖 㲗 㲘 㲙 㲚 㲛 㲜 㲝 㲞 㲟 㲠 㲡 㲢 㲣 㲤 㲥 㲦 㲧 㲨 㲩 㲪 㲫 㲬 㲭 㲮 㲯 㲰 㲱 㲲 㲳 㲴 㲵 㲶 㲷 㲸 㲹 㲺 㲻 㲼 㲽 㲾 㲿 㳀 㳁 㳂 㳃 㳄 㳅 㳆 㳇 㳈 㳉 㳊 㳋 㳌 㳍 㳎 㳏 㳐 㳑 㳒 㳓 㳔 㳕 㳖 㳗 㳘 㳙 㳚 㳛 㳜 㳝 㳞 㳟 㳠 㳡 㳢 㳣 㳤 㳥 㳦 㳧 㳨 㳩 㳪 㳫 㳬 㳭 㳮 㳯 㳰 㳱 㳲 㳳 㳴 㳵 㳶 㳷 㳸 㳹 㳺 㳻 㳼 㳽 㳾 㳿 㴀 㴁 㴂 㴃 㴄 㴅 㴆 㴇 㴈 㴉 㴊 㴋 㴌 㴍 㴎 㴏 㴐 㴑 㴒 㴓 㴔 㴕 㴖 㴗 㴘 㴙 㴚 㴛 㴜 㴝 㴞 㴟 㴠 㴡 㴢 㴣 㴤 㴥 㴦 㴧 㴨 㴩 㴪 㴫 㴬 㴭 㴮 㴯 㴰 㴱 㴲 㴳 㴴 㴵 㴶 㴷 㴸 㴹 㴺 㴻 㴼 㴽 㴾 㴿 㵀 㵁 㵂 㵃 㵄 㵅 㵆 㵇 㵈 㵉 㵊 㵋 㵌 㵍 㵎 㵏 㵐 㵑 㵒 㵓 㵔 㵕 㵖 㵗 㵘 㵙 㵚 㵛 㵜 㵝 㵞 㵟 㵠 㵡 㵢 㵣 㵤 㵥 㵦 㵧 㵨 㵩 㵪 㵫 㵬 㵭 㵮 㵯 㵰 㵱 㵲 㵳 㵴 㵵 㵶 㵷 㵸 㵹 㵺 㵻 㵼 㵽 㵾 㵿 㶀 㶁 㶂 㶃 㶄 㶅 㶆 㶇 㶈 㶉 㶊 㶋 㶌 㶍 㶎 㶏 㶐 㶑 㶒 㶓 㶔 㶕 㶖 㶗 㶘 㶙 㶚 㶛 㶜 㶝 㶞 㶟 㶠 㶡 㶢 㶣 㶤 㶥 㶦 㶧 㶨 㶩 㶪 㶫 㶬 㶭 㶮 㶯 㶰 㶱 㶲 㶳 㶴 㶵 㶶 㶷 㶸 㶹 㶺 㶻 㶼 㶽 㶾 㶿 㷀 㷁 㷂 㷃 㷄 㷅 㷆 㷇 㷈 㷉 㷊 㷋 㷌 㷍 㷎 㷏 㷐 㷑 㷒 㷓 㷔 㷕 㷖 㷗 㷘 㷙 㷚 㷛 㷜 㷝 㷞 㷟 㷠 㷡 㷢 㷣 㷤 㷥 㷦 㷧 㷨 㷩 㷪 㷫 㷬 㷭 㷮 㷯 㷰 㷱 㷲 㷳 㷴 㷵 㷶 㷷 㷸 㷹 㷺 㷻 㷼 㷽 㷾 㷿 㸀 㸁 㸂 㸃 㸄 㸅 㸆 㸇 㸈 㸉 㸊 㸋 㸌 㸍 㸎 㸏 㸐 㸑 㸒 㸓 㸔 㸕 㸖 㸗 㸘 㸙 㸚 㸛 㸜 㸝 㸞 㸟 㸠 㸡 㸢 㸣 㸤 㸥 㸦 㸧 㸨 㸩 㸪 㸫 㸬 㸭 㸮 㸯 㸰 㸱 㸲 㸳 㸴 㸵 㸶 㸷 㸸 㸹 㸺 㸻 㸼 㸽 㸾 㸿 㹀 㹁 㹂 㹃 㹄 㹅 㹆 㹇 㹈 㹉 㹊 㹋 㹌 㹍 㹎 㹏 㹐 㹑 㹒 㹓 㹔 㹕 㹖 㹗 㹘 㹙 㹚 㹛 㹜 㹝 㹞 㹟 㹠 㹡 㹢 㹣 㹤 㹥 㹦 㹧 㹨 㹩 㹪 㹫 㹬 㹭 㹮 㹯 㹰 㹱 㹲 㹳 㹴 㹵 㹶 㹷 㹸 㹹 㹺 㹻 㹼 㹽 㹾 㹿 㺀 㺁 㺂 㺃 㺄 㺅 㺆 㺇 㺈 㺉 㺊 㺋 㺌 㺍 㺎 㺏 㺐 㺑 㺒 㺓 㺔 㺕 㺖 㺗 㺘 㺙 㺚 㺛 㺜 㺝 㺞 㺟 㺠 㺡 㺢 㺣 㺤 㺥 㺦 㺧 㺨 㺩 㺪 㺫 㺬 㺭 㺮 㺯 㺰 㺱 㺲 㺳 㺴 㺵 㺶 㺷 㺸 㺹 㺺 㺻 㺼 㺽 㺾 㺿 㻀 㻁 㻂 㻃 㻄 㻅 㻆 㻇 㻈 㻉 㻊 㻋 㻌 㻍 㻎 㻏 㻐 㻑 㻒 㻓 㻔 㻕 㻖 㻗 㻘 㻙 㻚 㻛 㻜 㻝 㻞 㻟 㻠 㻡 㻢 㻣 㻤 㻥 㻦 㻧 㻨 㻩 㻪 㻫 㻬 㻭 㻮 㻯 㻰 㻱 㻲 㻳 㻴 㻵 㻶 㻷 㻸 㻹 㻺 㻻 㻼 㻽 㻾 㻿 㼀 㼁 㼂 㼃 㼄 㼅 㼆 㼇 㼈 㼉 㼊 㼋 㼌 㼍 㼎 㼏 㼐 㼑 㼒 㼓 㼔 㼕 㼖 㼗 㼘 㼙 㼚 㼛 㼜 㼝 㼞 㼟 㼠 㼡 㼢 㼣 㼤 㼥 㼦 㼧 㼨 㼩 㼪 㼫 㼬 㼭 㼮 㼯 㼰 㼱 㼲 㼳 㼴 㼵 㼶 㼷 㼸 㼹 㼺 㼻 㼼 㼽 㼾 㼿 㽀 㽁 㽂 㽃 㽄 㽅 㽆 㽇 㽈 㽉 㽊 㽋 㽌 㽍 㽎 㽏 㽐 㽑 㽒 㽓 㽔 㽕 㽖 㽗 㽘 㽙 㽚 㽛 㽜 㽝 㽞 㽟 㽠 㽡 㽢 㽣 㽤 㽥 㽦 㽧 㽨 㽩 㽪 㽫 㽬 㽭 㽮 㽯 㽰 㽱 㽲 㽳 㽴 㽵 㽶 㽷 㽸 㽹 㽺 㽻 㽼 㽽 㽾 㽿 㿀 㿁 㿂 㿃 㿄

흑-냄새[흥-] ㉠ 흙-냄새 ㉡ ㉢ '흑내'. ㉣ 사람이 **흑냄새**를 맡고 살아가지. ㉤ 쉼펜이루 되배를 현 도시서니 워티기덜 산다?

흑-데미[-떼-] ㉠ 흙-데미 ㉡ 흙을 모아 큰 덩어리가 되도록 모아 쌓아 놓은 것. ㉢ 흑데미. ㉣ 큰물루 개우장독이 터져 밧이 산이 됐이니 이 **흑데미** 오치기야 옳다?

흑-디미[-띠-] ㉠ 흙-데미 ㉡ ㉢ '흑데미'. ㉣ 땅 파년 게 심든 중 알았더니 **흑디미** 치다가 해다가너면.

흑-딩이[-띵-] ㉠ 흙-딩이 ㉡ '흑딩이>흑딩이'. 흙이 엉겨 붙은 덩어리. ㉢ 흑딩이. ㉣ 흑을 싸게 개서니 지병이다 **흑딩이** 점 빨랑빨랑 올려.

흑-딩이[-띵-] ㉠ 흙-딩이 ㉡ ㉢ '흑딩이'. ㉣ 땅이 질으니까 **흑딩이**가 들구 삽날이 들러붙으너면.

흑-뭉데기[흥-] ㉠ 흙-먼지 ㉡ ㉢ '흑뭉지'. ㉣ 웬 놈으 차가 그렇기 빨랑 달리던지 **흑뭉데기** 흙뻑 뒤집어췌어.

흑-뭉디기[흥-] ㉠ 흙-먼지 ㉡ ㉢ '흑뭉지'. ㉣ 이 양반아, 논일을 허구 왔으믄 옷을 벗어놓구 들와야지, 그 **흑뭉디** 길 다 끌구 방이루 들오믄 오티기여?

흑-뭉지[흥-] ㉠ 흙-먼지 ㉡ '흙+먼지→흑먼지?>흑뭉지/흑뭉데기/흑뭉디기'. 바람에 날아오른 흙가루. ㉢ 흑먼지. 흑

뭉데기. 흑뭉디기. ㉣ 바람이 올마나 씨게 불었년지 말래가 원통 **흑뭉지** 투생이네.

흑-무데기[흥-] ㉠ 흙-무더기 ㉡ ㉢ '흑무디기'. ㉣ 그 **흑무데기** 오파 칠라남?

흑-무디기[흥-] ㉠ 흙-무더기 ㉡ 큰 덩어리로 쌓인 흙. ㉢ 흑무데기. ㉣ 이, 이 **흑무디기** 앞밭이다 늘 겨.

흑-뭉테기[흥-] ㉠ 흙-뭉텅이 ㉡ '흑뭉테기>흑뭉티기'. 큰 덩어리로 뭉쳐진 흙. ㉢ 흑뭉텅이. 흑뭉텅이. 흑뭉텅이. 흑뭉티기. ㉣ **흑뭉테기** 머더라 들구 땡기는 겨? 야, 핵교 미술 시간이 머 땡근다구 가져오래유.

흑-뭉텅이[흥-] ㉠ 흙-뭉텅이 ㉡ ㉢ '흑뭉테기'.

흑-뭉티기[흥-] ㉠ 흙-뭉텅이 ㉡ ㉢ '흑뭉테기'. ㉣ 남은 **흑뭉티기**는 배람박 갈리진 디다 발러뻐져.

흑-뭉팅이[흥-] ㉠ 흙-뭉텅이 ㉡ ㉢ '흑뭉테기'.

흑-바람[-빠-] ㉠ 흙-바람/황사 ㉡ ①흙먼지를 날리며 부는 바람. ②황사(黃砂). ㉣ **흑바람**이 네려서니 한 나절 빨래헌 것이 다 호췌공이 되뻐졌어.

흑-바탕[-빠-] ㉠ 흙-바탕 ㉡ 밑바탕이 흙으로 이루어진 것. ㉣ 저놈이 도치질을 왜 **흑바탕**이 허구 자뻐졌다?/질토투매락두 깔구 앉이지 왜 **흑바탕**이 안



저있대유?

흑-받이[-빠지] ㉞ 흑-받기 ㉞ 자전
거나 자동차의 바퀴 뒤에 덧대, 흙이
튀어 오르지 못하도록 한 장치. ㉞ 자징
거 **흑받이**가 떨어져서니 등이루 흑이 다
텠유.

흑-발[-빨] ㉞ 흑-발 ㉞ 흙이 묻은 발.
㉞ 기곳 흙쳐났넌디 **흑발**루 말래를 울로
믄(올라오면) 워직헌대유?

흑-밥[-뺨] ㉞ 흑-밥 ㉞ 호미나 괘이
따위로 한 번 떠서 올리는 흙. 또는 쟁
기질을 할 때 보습 옆으로 넘어가는 흙.
㉞ 여긴 두둑이 낮으니까 **흑밥** 점 밧 삽
주야졌어.

흑-배람박[-빠-뺨] ㉞ 흑-벽(-壁) ㉞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벽. ㉞ **흑배람박**
을 헐 황토닝께 곱게 쳐야 혀.

흑-벽돌[-뺨뿔] ㉞ 흑-벽돌(-壁-) ㉞
황토 찰흙으로 만든 벽돌. ㉞ **흑벽돌**을
찍구 있넌디 쏘내기가 쏘어지넌 통이
난리두 아녘어. 일은 일대루 품메구 찍
어는 **흑벽돌** 텠넌다구 다털 비만 흙뺨
맞었다닝께.

흑-일[흥닐] ㉞ 흑-일 ㉞ 흙을 다루
는 일. ㉞ **흑일**이 벨 것 아닝 거 같어두
헤본 사랴이나 허닝 겨. 초짜덜은 **흑일**
시키넌 일은 못 허구 옷만 후질르다구
허잖어. ㉞(자) **흑일**-허다.

흑-일꾼[흥닐-] ㉞ 흑-일꾼 ㉞ 흙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㉞ 오가이 있넌
항아리 공장인 **흑일**이 되서니 우리나라
사람은 버티덜 못 헌다. 그리서니 외국
인덜을 데려다 **흑일꾼**이루 쓰다너면.

흑-장냥[-짱-] ㉞ 흑-장냥(-作亂)
㉞ 흙을 가지고 하는 놀이. ㉞ 우덜 클
적인 **흑장냥** 만헌 놀이가 읍엇잖어. 비
오믄 비 맞이메 **흑장냥허구**, 큰물 진 뒤
인 개우장이 모여 **흑장냥덜** 허구 말여.
㉞(자) **흑장냥**-허다. ㉞ 옷을 다 후질
르구 온 거 보닝께 또 오디서 **흑장냥허**
다 왔구나.

흑-짐치[-짚-] ㉞ 흑-김치 ㉞ 씻지
아니한 가을무를 소금에 푹 절여 담근
김치.

흑-집[-짚] ㉞ 흑-집 ㉞ 흙으로 지은
집. ㉞ 요즘은 황토루다 **흑집**덜을 많이
짓넌다너면. 근디 **흑집**을 지믄 관리허
넌 디 돈이 월잖이 들어간다.

흑-차 ㉞ 흑-차(-車) ㉞ 흙을 실어 나
르는 차. ㉞ 산을 몽개놓구 **흑차**덜이 들
구 쏘댕이닝께 몸데기 때미 못 살졌어.

흑-칼 ㉞ 흑-손 ㉞ 벽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를 바르고 걸면은 매끄럽게 하는
도구. ㉞ 미쟁이두 **흑칼**이 손이 배야 헌
다. **흑칼**이 새 거믄 심이 많이 든다너면.

흑-탕 ㉞ 흑-탕(-湯) ㉞ 흙으로 흐려
진 물. ㉞ 그 드런 물인 왜 들어가서니
흑탕을 티기구 있넌 겨?

흑탕-물 ㅉ 흙탕-물(-湯-) ㅉ ㄷ '흑탕'. ㅉ 인척아. 옷 버린대구 흑탕물인 들어가덜 말라구 헛잖어.

흑탕-질[-질] ㅉ 흙탕-질(-湯-) ㅉ 흙탕물이 질편하게 깔린 길. ㅉ 눈이 녹으니까 질마두 원통 흑탕질이 됐구먼./ 장미출 흑탕질이 구둘 친구 나가년 낭반이 오딧유?

흑-투성이 ㅉ 흙-투성이 ㅉ ㄷ '흑투성이'가 표준어화한 말. ㅉ 아니, 그 흑투성이 옷을 입구 오덜 나갈라 그류?

흑-투성이 ㅉ 흙-투성이 ㅉ 무엇인가에 흙이 많이 묻은 모양. ㅉ 새벽버팀 위덜 쏘댕겼걸래 심발이 흑투성이랴?/흙탕물서 씨름을 헛나 웬 흑투성일 허구 오능 겨?

흔 : 납 ㅉ 현 : 납(獻納) ㅉ ①돈이나 금품을 바치는 것. ②임금에게 충언(忠言)을 올리는 일. ㅉ(타) 흔 : 납-허다. ㅉ 그 낭반 집안에서 대대루 내려오는 구헌 그루이라구 애지증지허더면 그걸 이번이 나라이다 흔납헛다너면.

흔 : 납-금[-금] ㅉ 현 : 납-금(獻納金) ㅉ 헌납하는 돈. ㅉ 흔납금이야 자발적 이루다가니 내년 돈인디 많다 죽다 따지는 건 뭇 이친 겨?

흔 : 납-품 ㅉ 현 : 납-품(獻納品) ㅉ 헌납하는 물건. ㅉ 높은 낭반헌티 바치년 흔납품이랑게 우덜같은 사람이야 은

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간?

흔 : 병 ㅉ 현 : 병(憲兵) ㅉ<군사> 행정, 군사 경찰의 구성을 하는 병과. 또는 그런 군인. ㅉ 내가 흔병대서 근무혈적인 어깨다가 심을 놓구 행세두 헛년디 말여.

흔 : 병-대 ㅉ 현 : 병-대(憲兵隊) ㅉ<군사> 헌병으로 구성된 군대조직. ㅉ 우리나라의 흔병제도는 1900년 대한지국의 수도이 슬치웠던 흔병대이서 출발허였다.

흙 : 상-구지다 ㅉ 험 : 상-굿다(險狀-) ㅉ '흙상구지다/흙상굿다'. ㄷ '흙상굿다' ㅉ 가가 지 애빌 닥어서니 점 흙상구지게 생기긴 헛지먼서두 행실은 큰 대인이구면.

흙씩 ㅉ 훨씩 ㅉ '흙(充)+-씩/씩(접사)→흙씩/흙씩. 사물 사이의 비교에서, 크기나 양, 정도 따위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게. ㄷ '훨씩/훨'보다 쓰임 빈도가 낮다. ㅉ 이것이 저것버팀 흙씩 나 베풀 않년디 왜 이렇기 비싸다?

흙씬 ㅉ 훨씬/훨씬 ㅉ '흙(充)+-씬(접사). ①'흙씬'흙씩.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게. ㅉ 훨씬 두덜겨 패다./쏘내기에 옷이 훨씬 젖다./훨씬 자고 일났더니 몸이 갹잔허네. ②'훨씬'훨씩. 두 사물의 비교에서, 크기나 양, 정도 따위가 넘칠 만큼 차이가 나게. ㄷ훨, 흙씩, 훨씩. ㅉ 느이 것버더 내 것이 훨씬 좋다./



누린 것이 비린 것버덤 **흠씬** 낫다./목수 일이야 그 사람이 **흠씬** 잘 하지.

흥 : 겁-떼기 ㅍ 형 : 겁 ㅊ ㅊ '흥겁'을 훌하게 이르는 말. ㅍ 그 혼허던 **흥 겁떼기**두 슬라닝게 안 뵈너면.

흥 : 구다 ㅍ 형 : 구다 ㅊ '표준어화 과정: 흥구다/흥기다>행구다/행기다>행구다'. 맑은 물에 넣거나 담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 ㅊ 흥기다. 행기다. 행구다. ㅍ 부루가 흑 문었이닝게 물이다 점 **흥귀라**.('흥기다, 흥구다' 는 기억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사라진 말이 되었다.)

흥 : 기다 ㅍ 형 : 구다 ㅊ '흥구다'가 고모음화한 형태. ㅍ 자식 자식 못난 자식, 오줌독에 빠질 자식/대꼭지로 건질 자식, 구정물이 **흥길** 자식/부뚜막이 말린 자식 강아지라 **훤**을 자식. <시집살이노래, 충남 예산. 대술면지 324쪽>

히끄무리 ㅍ 히끄무레 ㅊ '히끄무리하다'.

히끄무리-허다 ㅍ 히끄무레-하다 ㅊ '희끗(白)+-무레(접사)+허-(접사)+-다'. ① **빛깔이** 줌 **희다**. ㅊ **흐엿스름하다**. ㅍ 물건이 위째 **뽀양덜** **얹구** **히끄무리헌**

게 안 좋아 뵈너면. ② **불빛이나** 사물이 선명하지 아니하고 흐릿하다. ㅊ **흐릿하다**. ㅍ **간밤이** 저 산밧이 생여집 옆대일 지나넌디 말여. **히끄무리헌** 것이 갑자키 **씩허구** **터나와설래미** **털커덕** **허구** **간뎡이**가 **떨어지는** 중 **알었어**.

히똥-거리다 ㅍ 휘우똥-거리다 ㅊ (자) ㅊ '후여똥그리다'. ㅍ **즌을** 서둘러 **올렸더니** **낭구짐이** **들구** **히똥거리네**.

히똥-대다 ㅍ 휘우똥-대다 ㅊ(자) ㅊ '후여똥그리다'. ㅍ **이 사람이** 술 **취했나?** 왜 **이롱기** **몸을** **뭇** **가누구** **히똥댄다?**

히청-거리다 ㅍ 휘청-거리다 ㅊ '후청거리다'.

히청-대다 ㅍ 휘청-대다 ㅊ '후청대다'.

히청-이다 ㅍ 휘청-이다 ㅊ '후청거리다'.

히청-히청 ㅍ 휘청-휘청 ㅊ '히청히청'.

히청히청-허다 ㅍ 휘청휘청-하다 ㅊ (자) ㅊ '후청후청하다'.

충청남도 예산말 색인

(제1~2권에 실린 낱말)



충청남도 예산말 색인

(제1~2권에 실린 낱말)

ㄱ

가구-즘 ㉠ 가구-점(家具店)
 가 : -근물 ㉠ 가 : -건물(假建物)
 가까시루 ㉠ 가까스로
 가꾸루 ㉠ 거꾸로
 가 : -내 ㉠ 가으-내
 가느-장대 ㉠ 장-대(長-)
 -가니¹ ㉠ -기에
 -가니² ㉠ -나/-는가
 가떡-이나 ㉠ 가뜩-이나
 가랑-앞새[-넙새] ㉠ 가랑-앞
 가랭이 ㉠ 가랑이
 가러-막다[-따] ㉠ 가로-막다
 가러-맥히다[-매키-] ㉠ 가로-막히다
 가러-앉다[-안따] ㉠ 가라-앉다
 가로-저스다 ㉠ 가로-젓다
 가름마 ㉠ 가르마
 가름배 ㉠ 가르마
 가리마 ㉠ 가르마
 가리-쟁이 ㉠ 가랑이
 가리치다 ㉠ 가르치다
 가림마 ㉠ 가르마

가마-때기 ㉠ 가마니
 가막 ㉠ 감옥(監獄)
 가막-살이[-싸리] ㉠ 감옥-살이(監獄-)
 가막-소[-쓰] ㉠ 감옥-소(監獄所)
 가막-행[-마캥] ㉠ 감옥-행(監獄行)
 가맹-즘 ㉠ 가맹-점(加盟店)
 가물 ㉠ 가물/가뭇
 가물-쓰다 ㉠ 까물어-치다
 가물-키다 ㉠ 까물어-치다
 가 : 은 ㉠ 가 : 면(假面)
 가 : 응 ㉠ 가 : 명(假名)
 가 : 른 ㉠ 가 : 변(可變)
 가 : 른-승[-승] ㉠ 가 : 변-성(可變性)
 가 : 른-죽 ㉠ 가 : 변-적(可變的)
 가새 ㉠ 가위
 가새뽕-나무 ㉠ 가새-뽕
 가새-질 ㉠ 가위-질
 가셋-밥[-셋빔] ㉠ 가윗-밥
 가생이 ㉠ 가/가장자리
 가시나 ㉠ 계집-아이
 가시내 ㉠ 계집-아이
 가실 ㉠ 가을
 가심 ㉠ 가슴

가심-들레 ㉾ 가슴-들레
 가심-빼 ㉾ 가슴-빼
 가심-살[-쌀] ㉾ 가슴-살
 가심-얇이 ㉾ 가슴-얇이
 가심-팍 ㉾ 가슴-팍
 가심-패기 ㉾ 가슴-팍
 가운데 ㉾ 가운데
 가운데-발꼬락 ㉾ 가운데-발가락
 가운데-손꼬락[-/-송-] ㉾ 가운데-손
 가락
 가운데-송꼬락 ㉾ 가운데-손가락
 가 : 음 ㉾ 가:업(家業)
 가이 ㉾ 개
 가이-괴기 ㉾ 개:-고기
 가이-구녕 ㉾ 개:-구멍
 가이-구녕 ㉾ 개:-구멍
 가이-새끼 ㉾ 강아지
 가이-새끼이 ㉾ 강아지
 가 : -웁다[-이음따] ㉾ 가없다
 가재미 ㉾ 가자미
 가재미-눈 ㉾ 가자미-눈
 가쟁이 ㉾ 가지
 가쟁이-치기 ㉾ 가지-치기
 가제 그렇지 아니하여도
 가제-두 그렇지 않아도
 가즌 ㉾ 가전(家電)
 가즌 ㉾ 가전(家傳)
 가즌-지품 ㉾ 가전-제품(家電製品)
 가 : 존-체 ㉾ 가:전-체(假傳體)
 가 : 즐 ㉾ 가:절(佳節)
 가증 ㉾ 가정(家庭)
 가 : 증 ㉾ 가:정(假定)
 가증-교사 ㉾ 가정-교사(家庭教師)
 가증-교육 ㉾ 가정-교육(家庭教育)
 가증-방문 ㉾ 가정-방문(家庭訪問)

가증-뵈[-뵈] ㉾ 가정-법(假定法)
 가증-부 ㉾ 가정-부(家政婦)
 가증-불화 ㉾ 가정-불화(家庭不和)
 가증-집[-째] ㉾ 가정-집(家庭-)
 가증-통신 ㉾ 가정-통신(家庭通信)
 가지-색 ㉾ 보라색(-色)
 가지-쟁이 ㉾ 가지
 가징이 ㉾ 가지
 가징이-치기 ㉾ 가지-치기
 가차워-지다 ㉾ 가까워-지다
 가차이 ㉾ 가까이
 가차이-허다 ㉾ 가까이-하다
 가잡다[-따] ㉾ 가깝다
 가-초분 ㉾ 가-처분(假處分)
 가치 ㉾ 개비
 가트다 ㉾ 같다
 가프다 ㉾ 값다
 각 ㉾ 갑(匣)
 각갑-허다[-까퍼-] ㉾ 갑갑-하다/답답
 -하다
 각개-표 ㉾ 가새표/가위표(-標)
 각괘-목[-괘-] ㉾ 각목
 각굽-목[-꿈-] ㉾ 각목
 각-때기 ㉾ 갑(匣)
 -간¹ ㉾ -기에
 -간² ㉾ -나/-는가
 -간디¹ ㉾ 기에
 -간디² ㉾ -나/-는가
 -간디유 ㉾ -나요/-는가요
 간-땡이 ㉾ 간-덩이(肝-)
 간-땡이 ㉾ 간-덩이(肝-)
 간수-허다 ㉾ 간수-하다(看守-)
 간 : 슨 ㉾ 간:선(間選)
 간 : 슨-제 ㉾ 간:선-제(間選制)
 -간유[가뉴/간뉴] ㉾ -나요

간-초랭이 ㉾ 간추림
 간-허다 ㉾ 간-하다
 갈가리 ㉾ 피라미
 갈 : ㉾ 가을
 갈 : -겉이[-거지] ㉾ 가을-겉이
 갈 : -근이[-그지] ㉾ 가을-근이
 갈 : -꽃[-곧] ㉾ 가을-꽃
 갈 : -날[-랄] ㉾ 가을-날
 갈 : -늬 : ㉾ 가을-늬에
 갈 : -떡 ㉾ 가을 떡
 갈 : 량(-量) 헤아리다
 갈러-지다 ㉾ 갈라-지다
 갈르다 ㉾ 가르다
 갈리다 ㉾ 치이다
 갈 : -바람[-빠-] ㉾ 가을-바람
 갈 : -배차[-빼-] ㉾ 가을-배추
 갈 : -벨[-빨] ㉾ 가을-별
 갈 : -비[-삐] ㉾ 가을-비
 갈-앉히다[가란치-] ㉾ 갈-앉히다
 갈 : -일[-닐] ㉾ 가을-일
 갈-잎새[-닙새] ㉾ 떡갈-잎
 갈 : -장마[-짱-] ㉾ 가을-장마
 갈 : -출 ㉾ 가을-철
 갈 : 치다 ㉾ 가르치다
 감-물렁이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감
 감미-럽다[-따] ㉾ 감미-롭다(甘美-)
 감옥 ㉾ 감옥(監獄-)
 감악-살이[-싸리] ㉾ 감옥-살이(監獄-)
 감악-소[-쏘] ㉾ 감옥-소(監獄所)
 감악-행[-마꺽] ㉾ 감옥-행(監獄行)
 값-으치 ㉾ 값-어치
 감자(甘藷) ㉾ 고구마
 감추기-장냥 ㉾ 숨바꼭질
 갑자키[-짜-] ㉾ 갑자기
 갑잔-허다[-짤-] ㉾ 갑직-하다

갓 : [갈 :] ㉾ 가, 껍질
 갓 : -쩍이[갈째비] 끝 쪽을 잡는 사람
 강구다 보살피고 감싸다
 강귀-주다 보살피고 감싸주다
 강-밥 ㉾ 강냉이
 강밥-쟁이 ㉾ 빵튀기 장수
 강철 ㉾ 강철(鋼鐵)
 개가족-나무[-중-] ㉾ 가족-나무
 개가족-낭구[-중-] ㉾ 가족-나무
 개갈 ㉾
 개갈-나다 ㉾
 개갈-딱지 보기 좋은 형세
 개 : -괴기 ㉾ 개:-고기
 개 : -구녕 ㉾ 개:-구멍
 개 : -구녕 ㉾ 개:-구멍
 개구락지[-락지] ㉾ 개구리
 개굴-창 ㉾ 개울/개골창
 개금 ㉾ 개암
 개금-나무 ㉾ 개암-나무
 개금-낭구 ㉾ 개암-나무
 개기다 ㉾ 개개다
 개나리-벗짐[-벗짐] ㉾ 피나리-벗짐
 개념 ㉾ 개념(概念)
 개 : 니 ㉾ 괜-히
 개능¹ ㉾ 개념(概念)
 개 : 능² ㉾ 개:념(概念)
 개 : 동백-낭구 ㉾ 생강-나무(生薑-)
 개려-내다 ㉾ 가려-내다
 개려-잡다[-따] ㉾ 골라-잡다
 개리다¹ ㉾ 가리다
 개리다² ㉾ 가리다
 개 : 미-늬 ㉾ 개:미-누에
 개 : -바늘 ㉾ 도깨비-바늘
 개 : 발-쇠 : 발 ㉾ 개:발-새발
 개벼이 ㉾ 가벼이

개볍다[-따] ㉾ 가볍다
 개 : -복사[-싸] 개 복숭아
 개 : 복사-낭구[-싸-] 개 복숭아나무
 개-뺏[-뺏] ㉾ 개-뺏
 개뺏-낭구[-뺏-] ㉾ 개-뺏나무
 개뺏-허다 ㉾ 가뺏-하다
 개 : -새끼이 ㉾ 강아지/개새끼
 개 : -산 ㉾ 가야-산(伽倻山)
 개습-물[-습-] ㉾ 개숫-물
 개양-물 ㉾ 갡:(羹)/ 청수(淸水)
 개오돌-나무 ㉾ 개웃-나무
 개오돌-낭구 ㉾ 개웃-나무
 개와 ㉾ 기와
 개와-지붕 ㉾ 기와-지붕
 개와-집 ㉾ 기와-집
 개왓-장[-왓장] ㉾ 기왓-장(張)
 개용-돈[-똥] ㉾ 용돈(用-)
 개 : -자식 ㉾ 개-자식(-子息)
 개 : -자숙 ㉾ 개-자식(-子息)
 개 : -지름 ㉾ 개:-기름
 개 : -집 ㉾ 기와-집
 개호지[-/-오-] ㉾ 개호주
 개-후염 ㉾ 개-혜염
 갠-수 ㉾ 간-수(-水)
 갠참다[-찬타] ㉾ 괜참다
 갠잔-허다[갠잔-] ㉾ 갠직-하다
 갠-지 : 링이[갠찌-] ㉾ 갠-지: 링이
 갠고랑 ㉾ 개울
 갠구-장 ㉾ 개울
 갠굴 ㉾ 개울
 갠굴-갓[-관] ㉾ 개울-가
 갠굴-물 ㉾ 개울-물
 갠굴-창 ㉾ 개울
 갠기다¹ ㉾ 감기다
 갠기다² ㉾ 감기다

갠기다³ ㉾ 감기다
 갡 : -물 ㉾ 갡:(羹)/ 청수(淸水)
 갡-변 ㉾ 물-가/넷가
 갡변-독[-뚝] ㉾ 넷-독
 갡변-질[-짚] ㉾ 넷-길
 갡-른 ㉾ 물-가/넷가
 갡시니 ㉾ 간신히
 갡심이 ㉾ 간신히
 가 ㉾ 개
 가-네 그 아이네
 가-덜 ㉾ 개-들
 갡 : ㉾ 그냥
 가 ㉾ 개
 거 : ㉾ 거기
 거꾸루 ㉾ 거꾸로
 거께-핍 ㉾ 거기-좁
 거 : 두-줄미 ㉾ 거두-절미(去頭截尾)
 거두-후염 ㉾ 개구리-혜염
 거뒤-딜이다 ㉾ 거뒤-들이다
 거렁-뱅이 ㉾ 비렁-뱅이
 거뺏-허다 ㉾ 거뺏-하다
 거시름-돈 ㉾ 거스름-돈
 거시리다 ㉾ 거스르다
 거실러-올르다 거슬러-오르다
 거실르다 ㉾ 거스르다
 거실리다 ㉾ 거슬리다
 거이 ㉾ 거의
 거진 ㉾ 거의
 거진-거진 ㉾ 거의-거의
 거치장-시럽다[-따] ㉾ 거: 추장-시럽다.
 거품 ㉾ 거품
 걱정-까머리 ㉾ 걱정-거리
 걱정-꾸리기 ㉾ 걱정-꾸리기
 걱정-시럽다[-따] ㉾ 걱정-스럽다
 건건이-발[건-] ㉾ 맨-발

건 : 느다 ㉼ 건:너다
 건느-방 ㉼ 건넛-방(-房)
 건는-방 ㉼ 건넛-방(-房)
 건덕지[-찌] ㉼ 건더기
 건대기 ㉼ 건더기
 건디기 ㉼ 건더기
 건똥-허믈[건뜨더-] ㉼ 걸똥-하먼
 -걸래 ㉼ -기에
 걸러-쿰 한둘씩 건너뛰어서
 걸러-쿰 한둘씩 건너뛰어서
 걸 : 루 ㉼ 거기로
 걸르다¹ ㉼ 거르다
 걸르다² ㉼ 거르다
 걸림-뚝[-떡] ㉼ 걸림-돌
 걸썌-허믈 ㉼ 걸똥-하먼
 걸터-안지다 ㉼ 걸터-안다
 검딩이 ㉼ 검둥이
 검부락지[-찌] ㉼ 검볼
 검부레기 ㉼ 검부러기
 겁-나게(怯-)[검-] ㉼ 매우/아주
 겁거니 ㉼ 건건-이
 겁건-허다 ㉼ 건건-하다
 걸-꿍데[걸-떼] ㉼ 걸-꿍데기
 걸-더깽이[걸떠-] ㉼ 걸-더깽이
 걸-모양[건-] ㉼ 걸-모양(-模樣)
 걸물-들다[건-] 남 따라 걸모양만 꾸
 미다
 걸-배기[걸배-] ㉼ 걸-보기
 걸-보매[걸뵈-] ㉼ 걸-보기
 같이[거치] ㉼ 같이
 게 : -거품 ㉼ 게:-거품
 게기 ㉼ 고기
 게면-쩍다[-따] ㉼ 겸연-쩍다(慚然-)
 게을르다 ㉼ 게으르다
 게을름-뱅이 ㉼ 게으름-뱅이

게을름-쟁이 ㉼ 게으름-쟁이
 게-트름 ㉼ 트름
 게 : 피 ㉼ 거:피(去皮)
 게 : 피-고물[-고-] ㉼ 거:피-고물(去皮-)
 게 : 피-떡 ㉼ 거:피-떡(去皮-)
 겹-말[겹-] ㉼ 겹-말/고의-춤
 겹겹이[-깨비-] ㉼ 겹겹이
 겨감 ㉼ 교감(校監)
 겨 : -대니다 ㉼ 기어-다니다
 겨-댕기다 ㉼ 기어-다니다
 겨 : -댕이다 ㉼ 기어-다니다
 겨란 ㉼ 계란(鷄卵)
 겨란-구이 ㉼ 계란-구이(鷄卵-)
 겨란-덮밥[-덮밥] ㉼ 계란-덮밥(鷄卵-)
 겨란-빵 ㉼ 계란-빵(鷄卵-)
 겨 : 시다 ㉼ 계시다
 겨 : -올르다 ㉼ 기어-오르다
 겨을 ㉼ 겨울
 겨을-출 ㉼ 겨울-철
 겨장 ㉼ 교장(校長)
 걸 : -출 ㉼ 겨울-철
 경칩 ㉼ 경칩(驚蟄)
 계 : 줄 ㉼ 계:절(季節)
 계절-풍 ㉼ 계:절-풍(季節風)
 고갯-말랭이[고갯-] ㉼ 고갯-마루
 고개-찜 ㉼ 고기-찜
 고동¹ ㉼ 고동
 고두래 ㉼ 고드래
 고두랫-뚝[-래뚝/-래뚝] ㉼ 고드래
 고등-핵겨[-꺼] ㉼ 고등-학교(高等學校)
 고등-핵교[-꼬] ㉼ 고등-학교(高等學校)
 고-따우 ㉼ 고-따위
 고라실 ㉼ 고래실
 고라실-논 ㉼ 고래실
 고 : 랑 ㉼ 골짜기

고랑-내 ㉾ 고린-내
 고 : 랑-팅이 ㉾ 골짜기/고랑
 고 : 랑-팅이 ㉾ 골짜기
 고래-질 고래를 청소하는 일
 고렇기[-러키] ㉾ 고렇게
 고려 ㉾ 고래
 고려두 ㉾ 그래도
 고려서 ㉾ 고래서
 고룻기[-로키] ㉾ 고렇게
 고 : -루 ㉾ 고리-로
 고류 ㉾ 고래요
 고리두 ㉾ 고래도
 고리서 ㉾ 고래서
 고린-장 ㉾ 고려-장(高麗葬)
 고만 ㉾ 그만
 고만-허다 ㉾ 그만-두다
 고-만침 ㉾ 고-만치
 고-망큼 ㉾ 고-만큼
 고-맨치 ㉾ 고-만치
 고-맨침 ㉾ 고-만치
 고-맹큼 ㉾ 고-만큼
 고모래 ㉾ 고무래
 고모래-질 ㉾ 고무래-질
 고무-바 ㉾ 고무-줄(gomme-)
 고무-발 ㉾ 고무-줄
 고무-줄[-물쭈] ㉾ 고무-줄(gomme-)
 고뱅이 ㉾ 고갱이
 고불탕-거리다 ㉾ 구불-거리다
 고뻥이 ㉾ 고뻬
 고뿔-약 ㉾ 감기-약(感氣藥)
 고뿔-지침 ㉾ 감기-기침(感氣-)
 고상 ㉾ 고생(苦生)
 고상-담 ㉾ 고생-담(苦生談)
 고상-문 ㉾ 고생-문(苦生門)
 고상-바가지[-빠-] ㉾ 고생-바가지(苦

生-)
 고상-시럽다[-따] ㉾ 고생-스럽다(苦
 生-)
 고상-주먼지[-쭈-] ㉾ 고생-주머니(苦
 生-)
 고상-질[-찢] ㉾ 고생-길(苦生-)
 고상-티 ㉾ 고생-티(苦生-)
 고상-허다 ㉾ 고생-하다(苦生-)
 고서 ㉾ 고기서
 고습다[-따] ㉾ 고소-하다
 고습다[-따] ㉾ 고소-하다
 고 : 스 ㉾ 고:서(古書)
 고 : -스죽 ㉾ 고:서적(古書籍)
 고 : -스점 ㉾ 고:서점(古書店)
 고 : -스즘 ㉾ 고:서점(古書店)
 고시레 ㉾ 고수레
 고여-니 ㉾ 공연-히(空然-)
 고연-시리 ㉾ 공연-스레(空然-)
 고염 ㉾ 고염
 고염-나무 ㉾ 고염-나무
 고염-낭구 ㉾ 고염-나무
 고이 ㉾ 고양이
 고자리 ㉾ 구더기
 고주배기 ㉾ 고주박이
 고-짜 ㉾ 고-쪽
 곤두-세 : 다 ㉾ 곤두-세우다(筋斗-)
 곤두-스기 ㉾ 물구나무-서기
 곤두-스다 ㉾ 곤두-서다(筋斗-)
 곤 : 주-백히다 ㉾ 곤두-박이다(筋斗-)
 곤치다 ㉾ 고치다
 골 ㉾ 밭-고랑
 골 : 련-딱지 ㉾ 궤:련-딱지(卷煙-)
 골 : 루 ㉾ 고리-로
 골르다¹ ㉾ 고르다
 골르다² ㉾ 고르다

골리 ㉾ 골리
골-새리다 ㉾ 골-때리다
골-새리다 ㉾ 골-때리다
골짜구니 ㉾ 골짜기
골-차푸다 골치(骨-) 아프다
골 : -치다 고랑을 만들다
골 : -타다 고랑을 만들다
곰새기 ㉾ 곰마지
곰팡이 ㉾ 곰팡이
곰실-머리[-쌀-] ㉾ 곰슬-머리
곰-허기 ㉾ 곰-하기
공-딜이다 ㉾ 공-들이다(功-)
공이 ㉾ 옹이
과자-점 ㉾ 과자-점(菓子店)
곽 ㉾ 갑(匣)
곽-성냥 ㉾ 갑 성냥
곽-성냥 ㉾ 갑 성냥
괭이 ㉾ 갈퀴
괭이-눈 험상스러운 눈
괭이-질 ㉾ 갈퀴-질
괭이질-허다 ㉾ 갈퀴질-허다
광-밥 ㉾ 강냉이
광 : 솔 ㉾ 관:솔
광 : 솔-불[-뿔] ㉾ 관:솔-불
괘 : 니 ㉾ 권-히
괘-시럽다[-따] ㉾ 권-스럽다
괘-시리 ㉾ 권-스레
괘 : 이 ㉾ 고양이
괴기 ㉾ 고기
괴기-맛[-맡] ㉾ 고기-맛
괴리-띠 ㉾ 허리-띠
괴뺨이 ㉾ 고뺨
괴상망척-허다 ㉾ 괴상망척-허다(怪常
 罔測-)
괴-타리 ㉾ 고의-춤

괴타리-씨름 고의춤을 잡고 하는 씨름.
괘-말[괘-] ㉾ 겹-말/고의-춤
구넉 ㉾ 구멍
구녕 ㉾ 구멍
구녕-가게[-까] ㉾ 구멍-가게
구 : 다 ㉾ 굶다
구덕 ㉾ 구덩이
구덩 ㉾ 구덩이
구데기¹ ㉾ 구덩이
구 : 데기² ㉾ 구더기
구덩이 ㉾ 구덩이
구들 ㉾ 구들
구들-짱 ㉾ 구들-장
구들-배기[-배-] ㉾ 방-구들
구 : 디기 ㉾ 구더기
구덩이 ㉾ 구덩이
구렁텅이 ㉾ 구렁텅이
구렁텅이 ㉾ 구렁텅이
구렁이 ㉾ 구렁이
구룬-내 ㉾ 구린-내
구렁이 ㉾ 구렁이
구먹 ㉾ 구멍
-구먼 ㉾ -는데
구불탕-거리다 ㉾ 구불-거리다
구수 ㉾ 구유
구수-젓 ㉾ 귀웅-젓
구수-통 ㉾ 구유-통
구실르다 ㉾ 구슬리다
구-싸대기 ㉾ 귀-싸대기
구-쌈배기 ㉾ 귀-싸대기
구-쌈대기 ㉾ 귀-싸대기
구-쌈배기 ㉾ 귀-싸대기
구약-승 : 공 ㉾ 구약-성경(舊約聖經)
구약-승 : 스 ㉾ 구약-성서(舊約聖書)
구 : 여음 ㉾ 귀:여음

구여워-허다 ㉾ 귀:여워-하다
 구:염 ㉾ 귀:염
 구:염-둥이 ㉾ 귀:염-둥이
 구:염-딩이 ㉾ 귀:염-둥이
 구:염-성[-쌍] ㉾ 귀:염-성
 구:엽다[-따] ㉾ 귀:엽다
 구정물 ㉾ 구정물
 구지다 ㉾ 곳다
 구찮다[-찬타] ㉾ 귀찮다
 구텡이 ㉾ 귀퉁이
 구텡이 ㉾ 귀퉁이
 구텡이 ㉾ 귀퉁이
 구통-배기 ㉾ 귀퉁이
 국-그룩[-끄-] ㉾ 국-그룩
 군:-더디기 ㉾ 군:-더더기
 군:등-내 ㉾ 군:-내
 군시령-거리다 ㉾ 구시령-거리다
 군시령-군시령 ㉾ 구시령-구시령
 굴:-내다 ㉾ 내:다
 굴러-대니다 ㉾ 굴러-다니다
 굴러-댕기다 ㉾ 굴러-다니다
 굴러-댕이다 ㉾ 굴러-다니다
 굴:르다¹ ㉾ 구르다
 굴르다² ㉾ 구르다
 굼빙이 ㉾ 굼벵이
 귀:경[-/기-] ㉾ 구:경
 귀:경-가머리[기-까-] ㉾ 구:경-가머리
 귀:경-거리[-/까-/기-까-] ㉾ 구:경-거리
 귀:경-꾼[-/기-] ㉾ 구:경-꾼
 귀:경-허다[-/기-] ㉾ 구:경-허다
 귀-꾸넉 ㉾ 귀-구멍
 귀-꾸녕 ㉾ 귀-구멍
 귀-꾸먹 ㉾ 귀-구멍

귀-따갑다[-따] ㉾ 귀-따갑다
 귀뚜래미 ㉾ 귀뚜라미
 귀-먹쟁이[-기-쟁-] ㉾ 귀-머거리
 귀-불알 ㉾ 귀-불
 귀-싸대기 ㉾ 귀-뺨/귀싸대기
 귀-쌍 ㉾ 귀-뺨
 귀-쌍대기 ㉾ 귀-뺨/귀-싸대기
 귀:우개 ㉾ 귀이개
 굽-바쿠[굽빠-] ㉾ 귀-바퀴
 굽-밥[-뺨] ㉾ 귀-밥
 굽-방맹이[-뺨-] ㉾ 귀퉁이
 귀-바쿠[귀빠-] ㉾ 귀-바퀴
 귀-밥[귀뺨] ㉾ 귀-밥
 귀-방맹이[귀뺨-/굽뺨-] ㉾ 귀퉁이
 귀-뺨[귀뺨/굽뺨] ㉾ 귀-뺨(-病)
 그: ㉾ 거기
 그간 ㉾ 거간(居間)
 그간-꾼 ㉾ 거간-꾼(居間-)
 그:구 ㉾ 거:구(巨龜)
 그:금 ㉾ 거:금(巨金)
 그기 ㉾ 거기
 그-끄저기 ㉾ 그끄저게
 그나-허다 ㉾ 거나-하다
 그닥 ㉾ 그다지
 그:담-제 ㉾ 거:담-제(祛痰劑)
 그:대-허다 ㉾ 거:대-허다(巨大-)
 그도 ㉾ 툽/거도(鋸刀)
 그도-질 ㉾ 툽-질
 그뚱-밥[-뺨] ㉾ 툽-밥
 그뚱-날[-돈-] ㉾ 툽-날
 그:동 ㉾ 거:동(舉動)
 그:두 ㉾ 거:두(巨頭)
 그두다 ㉾ 거두다
 그:두-절미 ㉾ 거:두-절미(去頭截尾)
 그:두-줄미 ㉾ 거:두-줄미(去頭截尾)

그뒤-딜이다 ㉼ 거뒤-들이다
 그 : 드름 ㉼ 거:드름
 그 : 드름-피다 ㉼ 거:드름-피우다
 그 : 들다 ㉼ 거:들다
 그들떠-보다 ㉼ 거들떠-보다
 그들먹-거리다[-꺼-]
 ㉼ 거들먹-거리다
 그-따우 ㉼ 그-따위
 그라구 ㉼ 그리고
 그라운 ㉼ 그러면
 그 : 란 ㉼ 거란(契丹)
 그란디 ㉼ 그런데
 그 : 래 ㉼ 거:래(去來)
 그 : 래-량 ㉼ 거:래-량(去來量)
 그 : 래-처 ㉼ 거:래-처(去來處)
 그러구¹ ㉼ 그리고
 그러구² ㉼ 그리고
 그러니께 ㉼ 그러니까
 그러닝께 ㉼ 그러니까
 그러은 ㉼ 그러면
 그런디 ㉼ 그런데
 그렇기[-러키] ㉼ 그렇게
 그렇다-은[-러타-] ㉼ 그렇다-면
 그렇지먼[-러치-] ㉼ 그렇지만
 그려¹ ㉼ 그래
 그려² ㉼ 그래
 그려³ ㉼ 그래
 그려⁴ ㉼ 그래
 그려두 ㉼ 그래도
 그려서¹ ㉼ 그래서
 그려서² ㉼ 그래서
 그려서니 ㉼ 그래서는
 그-루¹ ㉼ 그리-로
 그 : 룩-허다[-루커-] ㉼ 거:룩-하다

그류 : ¹ ㉼ 그래요
 그류² ㉼ 그래요
 그룩 ㉼ 그룻
 그룩-그룩 ㉼ 그룻-그룻
 그룩-따갱이 ㉼ 밥-뚜겅
 그리구 ㉼ 그리고
 그리기¹ ㉼ 그러게
 그리기² ㉼ 그러게
 그리두¹ ㉼ 그래도
 그리두² ㉼ 그래도
 그리-봤자 ㉼ 그래 보았자
 그리서¹ ㉼ 그래서
 그리서² ㉼ 그래서
 그리서-니 ㉼ 그래서-는
 그리야¹ ㉼ 그래야
 그리야² ㉼ 그래야
 그렀다 ㉼ 그랬다
 그 : 만 ㉼ 거만(倨慢)
 그 : 만-허다 ㉼ 거만-하다(倨慢-)
 그 : 머리 ㉼ 거:머리
 그-만침 ㉼ 그-만큼
 그-망큼 ㉼ 그-만큼
 그-맨치 ㉼ 그-만치
 그-맨침 ㉼ 그-만치
 그-맹큼 ㉼ 그-만큼
 그 : 물 ㉼ 거:물(巨物)
 그 : 물-급[-릅] ㉼ 거:물-급(巨物級)
 그 : 물-못[-을] ㉼ 거:물-못
 그 : 물-장[-짱] ㉼ 거:물-장
 그미 ㉼ 거미
 그미-알 ㉼ 거미-알
 그미-줄 ㉼ 거미-줄
 그미줄-치다 ㉼ 거미줄-치다
 그미-집 ㉼ 거미-집
 그 : 봉 ㉼ 거:봉(巨峰)

그 : 부¹ [富] 거:부(巨富)
 그 : 부² [否] 거:부(拒否)
 그 : 부-권 [-권] [否] 거:부-권(拒否權)
 그 : 부-반 : 응 [否] 거:부-반:응(拒否反應)
 그 : 북살-시럽다 [-살-따] [否] 거:북살-스럽다
 그 : 북-허다 [-부커-] [否] 거:북-하다
 그 : 사 [居] 거:사(居士)
 그 : 상 [巨] 거:상(巨商)
 그 : 상 [居] 거:상(居喪)
 그 : 석 [巨] 거:석(巨石)
 그 : 성 [巨] 거:성(巨星)
 그 : 송 [巨] 거:송(巨松)
 그스간 [居] 거서간(居西干)
 그 : 손 [巨] 거:선(巨船)
 그-시다¹ [居] 거세다
 그 : 시다² [居] 곳다
 그 : 시다³ [居] 그리다
 그시르다¹ [居] 거슬리다
 그시르다² [居] 거스르다
 그시름-돈 [-돈] [居] 거스름-돈
 그 : 실 [居] 거:실(居室)
 그실르다¹ [居] 거스르다
 그실르다² [居] 거스르다
 그실리다 [居] 거슬리다
 그 : 안-지미 [學] 거:안-제미(學案齊眉)
 그 : 암 [巨] 거:암(巨巖)
 그 : 여 [居] 그예
 그여-이 [居] 거어이
 그 : 역 [拒] 거:역(拒逆)
 그을 [居] 거을
 그이 [居] 계
 그이-거름 [居] 계:-거름
 그이-걸음 [居] 계:-걸음
 그이-눈 [居] 계:-눈

그이-딱지 [-찌] [居] 계:-딱지
 그이-발 [居] 계:-발
 그이-장 [居] 계:-장
 그이-젓 [-점] [居] 계:-젓
 그 : 인 [巨] 거:인(巨人)
 그잇-살 [-임쌀] [居] 계:-살
 그 : 옥 [拒] 거:역(拒逆)
 그 : 작 [巨] 거:작(巨作)
 그 : 장 [巨] 거:장(巨匠)
 그저끼 [居] 그저끼
 그적 [居] 거적
 그적-때기 [居] 거적-때기
 그적-문 [-정-] [居] 거적-문
 그 : 절 [拒] 거:절(拒絕)
 그 : 점 [-점] [居] 거:점(據點)
 그주 [居] 거주(居住)
 그주-민 [居] 거주-민(居民)
 그주-자 [居] 거주-자(居住者)
 그주-지 [居] 거주-지(居住地)
 그-중 [居] 그-중(-中)/가장
 그 : 줄 [居] 거:줄
 그 : 지¹ [居] 거:지
 그지-반 [居] 거지-반(居之半)
 그지-야 [居] 그제-야
 그지-서야 [居] 그제-야
 그지-야 [居] 그제-야
 그진 [居] 거의
 그진-그진 [居] 거의
 그질-루 [居] 그길-로
 그 : 짐-말 [居] 거:짓-말
 그짐말-투성이 [居] 거짓말-투성이
 그-집 [居] 그 여자
 그 : 짓 [-짓] [居] 거:짓
 그 : 짓-말 [-진-] [居] 거:짓-말
 그짓말-투성이 [-진-] [居] 거짓말-투성이

그-짜 ㉼ 그-쪽
그 : 창-허다 ㉼ 거:창-하다(巨創-/巨
 棚-)
그처 ㉼ 거처(居處)
그 : 취 ㉼ 거:취(去就)
그츠 ㉼ 거처(居處)
그치 ㉼ 거치(據置)
그치다 ㉼ 거치다
그치장-시럽다[-따] ㉼ 거:추장-스럽다
그치적-거리다[-꺼-] ㉼ 걸리적-거리다
그칠다 ㉼ 거칠다
그-터락 ㉼ 그-토록
그 : -허다 ㉼ 거-하다(巨-)
그 : 행 ㉼ 거:행(舉行)
근 : 각 ㉼ 건:각(健脚)
근곤 ㉼ 건곤(乾坤)
근과 ㉼ 건과(乾果)
근 : 국 ㉼ 건:국(建國)
근 : 군 ㉼ 건:군(建軍)
근 : 너-가다 ㉼ 건:너-가다
근 : 너-오다 ㉼ 건:너-오다
근 : 너-짚다[-따] ㉼ 건:너-짚다
근 : 너-뛰다 ㉼ 건:너-뛰다
근 : 너-편 ㉼ 건:너-편
근 : 너-편짜 ㉼ 건:너-편
근 : 널-목 ㉼ 건:널-목
근 : 녁-마을[-님-] ㉼ 건:녇-마을
근 : 녁-방[-뺑] ㉼ 건:녇-방
근 : 녁-산[-님산] ㉼ 건:녇-산
근 : 네다 ㉼ 건:네다
근 : 네-받다[-따] ㉼ 건:네-받다
근 : 네-주다 ㉼ 건:네-주다
근 : 느다 ㉼ 건:너다
근 : 대다 ㉼ 건드리다
근 : 대리다 ㉼ 건드리다

근더기 ㉼ 건더기
근덕지[-찌] ㉼ 건더기
근뎡-거리다 ㉼ 근뎡-거리다
근뎡-근뎡 ㉼ 근뎡-근뎡
근뎡-대다 ㉼ 근뎡-대다
근뎡-이다 ㉼ 근뎡-이다
근 : 드리다 ㉼ 건드리다
근 : 들다 ㉼ 건:들다
근디 ㉼ 그런데
근디기 ㉼ 건더기
근 : 디리다 ㉼ 건드리다
근 : 딜다 ㉼ 건:들다
근 : 립[글-] ㉼ 건:립(建立)
근 : 물 ㉼ 건:물(建物)
근 : 반 ㉼ 건:반(鍵盤)
근 : 반-악기[-끼] ㉼ 건:반-악기(鍵盤
 樂器)
근방 ㉼ 건방
근방-떨다 ㉼ 건방-떨다
근방-지다 ㉼ 건방-지다
근배 ㉼ 건배(乾杯)
근 : 아 ㉼ 건:아(健兒)
근-어물 ㉼ 건-어물(乾魚物)
근-으물 ㉼ 건-어물(乾魚物)
근 : 의[그:느이] ㉼ 건:의(建議)
근 : 의-문[그:느이-] ㉼ 건:의-문(建
 議文)
근 : 의-서[그:느이-] ㉼ 건:의-서(建
 議書)
근 : 의-안[그:느이-] ㉼ 건:의-안(建
 議案)
근재 ㉼ 건재(乾材)
근지럽다[-따] ㉼ 간지럽다/가렵다
근지럼 ㉼ 간지럼/가려움
근초 ㉼ 건초(乾草)

근: 축 [표] 건축(建築)
 근: 축-가[-가] [표] 건: 축-가(建築家)
 근: 축-물 [표] 건: 축-물(建築物)
 근: 축-법[-법] [표] 건: 축-법(建築法)
 근: 축-법[-법] [표] 건: 축-법(建築法)
 근: 축-비[-비] [표] 건: 축-비(建築費)
 근: 축-사[-사] [표] 건: 축-사(建築士)
 근: 축-술[-술] [표] 건: 축-술(建築術)
 근: 축-업 [표] 건: 축-업(建築業)
 근: 축-업 [표] 건: 축-업(建築業)
 근: 축-재[-재] [표] 건: 축-재(建築材)
 근: 축-주[-주] [표] 건: 축-주(建築主)
 근탕 [표] 건탕(巾宕)
 근: 투 [표] 건: 투(健鬪)
 근: 평 [표] 건: 평(建坪)
 근: 필 [표] 건: 필(健筆)
 근: -허다 [표] 건: -하다
 근다[-따] [표] 건다
 근어-차다 [표] 건어-차다
 근어-치다 [표] 건어-치우다
 근-잡다[-잡따] [표] 건-잡다
 글: 다 [표] 걸: 다
 글: -루 [표] 그리-로
 글르다 [표] 그르다/그릇되다
 글리 [표] 그리
 글: -맞다[-맞따] [표] 걸: -맞다
 글머-지다 [표] 걸머-지다
 글: 상[-쌍] [표] 걸-상(-床)
 글참어두 [표] 그렇지 않아도
 글: 치다 [표] 걸: 치다
 글터-안지다 [표] 걸터-안다
 금: [표] 검: (劍)
 금: 갑 [표] 검: 갑(劍匣)
 금: 객 [표] 검: 객(劍客)
 금: 거 [표] 검: 거(檢舉)

금: 광 [표] 검: 광(劍光)
 금: 기 [표] 검: 기(劍氣)
 금: 난 [표] 검: 난(劍難)
 금: 도 [표] 검: 도(劍道)
 금: 문 [표] 검: 문(檢問)
 금: 문-검: 색 [표] 검: 문-검: 색(檢問檢索)
 금: 문-소 [표] 검: 문-소(檢問所)
 금: 사 [표] 검: 사(檢査)
 금: 사 [표] 검: 사(檢事)
 금: 사-관 [표] 검: 사-관(檢査官)
 금: 사-대 [표] 검: 사-대(檢査臺)
 금: 사-장 [표] 검: 사-장(檢査場)
 금: 산 [표] 검: 산(檢算)
 금: 색 [표] 검: 색(檢索)
 금: 색-엔진 [표] 검: 색-엔진(檢索-engine)
 금: 수 [표] 검: 수(檢水)
 금-싸래기 [표] 금-싸래기(金-)
 금: 안 [표] 검: 안(檢眼)
 금: 열[-널] [표] 검: 열(檢閱)
 금: 저리 [표] 거: 머리
 금: 정 [표] 검: 정(檢定)
 금: 정-고: 시 [표] 검: 정-고: 시(檢定考試)
 금: 정-필 [표] 검: 정-필(檢定筆)
 금: 증 [표] 검: 증(檢定)
 금: 증 [표] 검: 증(檢證)
 금: 증-고: 시 [표] 검: 증-고: 시(檢定考試)
 금: 증-필 [표] 검: 증-필(檢定筆)
 금: 진 [표] 검: 진(檢診)
 금: 찰 [표] 검: 찰(檢査)
 금: 찰-관 [표] 검: 찰-관(檢査官)
 금: 찰-청 [표] 검: 찰-청(檢査廳)
 금: 찰-총: 장 [표] 검: 찰-총: 장(檢査總長)
 금: 찰-총 [표] 검: 찰-청(檢査廳)
 금: 출 [표] 검: 출(檢出)
 급자키[-짜-] [표] 갑자기

급작-시리[-짝씨-] ㉠ 갑작-스레
 기벨[그이-/기-] ㉠ 기별(寄別)
 기별 ㉠ 기별(寄別)
 기블 ㉠ 기별(寄別)
 그-나마나 ㉠ 그-나마
 기나-저나 ㉠ 그나-저나
 기냥-저냥 ㉠ 그냥-저냥
 기 : 다 ㉠ 갑:다
 기다 ㉠ 그렇다/맞다
 기특-허다[-뜨커-/뜨커-] ㉠ 기특-하
 다(奇特-)
 기력지[-찌] ㉠ 길이
 기리기 ㉠ 길이
 기-맥히다[-매키-/맥키-] ㉠ 기-막
 히다(氣-)
 기쁘다 ㉠ 기쁘다
 기 : 산 ㉠ 계:산(計算)
 기 : 산-기 ㉠ 계:산-기(計算機)
 기 : 산-대 ㉠ 계:산-대(計算臺)
 기 : 속 ㉠ 계:속(繼續)
 기시다 ㉠ 계시다
 기양 ㉠ 귀양
 기양-가다 ㉠ 귀양-가다
 기양-살다 ㉠ 귀양-살다
 기양-살이 ㉠ 귀양-살이
 기양-지 ㉠ 귀양-지
 기양-질[-찐] ㉠ 귀양-길
 기여 ㉠ 그래/맞아
 기유 ㉠ 그래요/맞아요
 기 : 즐 ㉠ 계:절(季節)
 기 : 즐-풍 ㉠ 계:절-풍(季節風)
 기-지사 ㉠ 기-제사(忌祭祀)
 기 : 층 ㉠ 계층(階層)
 기쁘다 ㉠ 깊다
 길-짐성[-쯔성] ㉠ 길-짐승

그 : 냥 ㉠ 겨:냥
 그 : 냥-허다 ㉠ 겨:냥-하다
 그를 ㉠ 겨를
 그은-쭈다[-따] ㉠ 겸연-쩍다(謙然-)
 글 ㉠ 결
 굴리다 ㉠ 결리다
 금사 ㉠ 겸사(兼事)
 금사-금사 ㉠ 겸사-겸사(兼事兼事)
 금용 ㉠ 겸용(兼用)
 겹쳐-지다 ㉠ 겹쳐-지다
 겹치다 ㉠ 겹치다
 궁단 ㉠ 경단(瓊團)
 궁침 ㉠ 경침(驚蟄)
 까그매 ㉠ 까마귀
 까그매-밥 ㉠ 까마귀-밥
 까구루 ㉠ 거꾸로
 까꿀루 ㉠ 거꾸로
 까다-럽다[-따] ㉠ 까다-롭다
 까닥 하던 일의 끝/논쟁의 결론
 까닥-나다[-당-] 끝나다/결론이 나다
 까마구 ㉠ 까마귀
 까물-쓰다 ㉠ 까물어-치다
 까물-키다 ㉠ 까물어-치다
 까빱 ㉠ 깜빱
 까빱-거리다 ㉠ 깜빱-거리다
 까빱-그리다 ㉠ 깜빱-거리다
 까빱-까빱 ㉠ 깜빱-깜빱
 까빱-이 ㉠ 깜빱-이
 까빱-허다[-빠커-] ㉠ 깜빱-하다
 까시 ㉠ 가시
 까시-나무 ㉠ 가시-나무
 까시-닝구 ㉠ 가시-나무
 까시-닝굴 ㉠ 가시-닝굴
 까시-닝쿨 ㉠ 가시-닝굴
 까시-눈 쏘아보는 눈

까시-덤부달 ㉾ 가시-덤불
 까시-덤부살 ㉾ 가시-덤불
 까시-덤불 ㉾ 가시-덤불
 까시-덩굴 ㉾ 가시-넙쿨
 까시-덩쿨 ㉾ 가시-넙쿨
 까시랭이 ㉾ 가시랭이
 까시-바늘 ㉾ 가시-바늘
 까시-방석 ㉾ 가시-방석(-方席)
 까시-밭[-밭] ㉾ 가시-밭
 까시밭-질[-밭질] ㉾ 가시밭-길
 까장 ㉾ 까지
 까지-꺼 ㉾ 까짓-것
 까직-거[-꺼] ㉾ 까짓-것
 까치 ㉾ 개비
 까치-독사[-싸] ㉾ 북-살모사(北殺母蛇)
 까치-밋등 달맞이꽃의 뿌리
 까탈-시럽다[-따] ㉾ 까다-롭다
 깁깁-허다[-까퍼-] ㉾ 깁깁-하다/답
 답-하다
 깁-대기[-때-] 아랫도리
 깁-대기[-때-] ㉾ 깁(匣)
 깁대기[-때-] ㉾ 깁두기
 깁디기[-띠-] 아랫도리
 깁디기[-띠-] ㉾ 깁두기
 깁-때기 ㉾ 깁(匣)
 깁띠기 ㉾ 깁지
 깁 만만히 여김
 깁닥-지다[-찌-] ㉾ 끈덕-지다
 깁-보다 ㉾ 깔-보다
 깁-보이다 ㉾ 깔-보이다
 깁-뵈다 ㉾ 깔-뵈다
 깔 : ㉾ 꼰
 깔-관지다 ㉾ 깔고 앉다
 깔-꿨다[-관따] ㉾ 깔고 앉다
 깔까럽다 ㉾ 깔끄럽다

깔-꾼 ㉾ 꼰-꾼
 깔때기 ㉾ 깔따구
 깔-머슴 ㉾ 꼰-머슴
 깔-지게[-찌-] ㉾ 꼰-지게
 깔-짐[-짙] ㉾ 꼰-짐
 깔쿠리 ㉾ 갈퀴
 깔-덩이 ㉾ 깔-동이
 깔막 ㉾ 깔박
 깔막-그리다[-끄-] ㉾ 깔박-거리다
 깔막-깔막 ㉾ 깔박-깔박
 깔막깔막-허다[-마커-] ㉾ 깔박깔박-하다
 깔막-허다[-마커-] ㉾ 깔박-하다
 깔배기 ㉾ 깔부기
 깔뵈기 ㉾ 깔부기
 -까비 ㉾ -까 봐
 깔장 ㉾ 검정
 깔장-색 ㉾ 검정-색
 깔숙-그리다[-씩끄-] ㉾ 깔죽-거리다
 깔숙-깔숙[-씩씩] ㉾ 깔죽-깔죽
 깔숙-대다[-씩때-] ㉾ 깔죽-대다
 깔-치다 ㉾ 깔죽-거리다
 잣난-아이[깁-] ㉾ 잣난-아이
 잣난-이[깁-] ㉾ 잣난-아이
 잣난-쟁이[깁-] ㉾ 잣난-아이
 강- ㉾ 강-
 강-까마다[-까마-] ㉾ 캄캄하다
 강깜 ㉾ 캄캄
 강똥-허다 ㉾ 강똥-하다
 강-말르다 ㉾ 강-마르다
 깨구락지[-락찌] ㉾ 깨구리
 깨구락지-후염[-찌] ㉾ 깨구리-혜염
 깨금 ㉾ 외발 서기
 깨금-발 ㉾ 양감-질
 깨금-박질[-질] ㉾ 양감-질

깨금-뵈기[-밭끼] ㉾ 양감-질
 깨끗이[-까시] ㉾ 깨끗이
 깨끗-허다[-까터-/~깔터-] ㉾ 깨끗하다
 -깨미 ㉾ -까 봐
 -깨비 ㉾ -까 봐
 깨송깨송-허다 ㉾ 또릿또릿-하다
 깨-치다 ㉾ 깨-뜨리다
 깨꾸러-지다 ㉾ 거꾸러-지다
 깨꿀루 ㉾ 거꾸로
 깨떡-허든[-떠커-] ㉾ 걸핏-하면
 깨빱 ㉾ 꺼벅/순간적으로
 깨빱-허다 ㉾ 꺼벅이다/기가 꺾이다.
 꺼럭 ㉾ 꺼끄러기
 꺼스랭이 ㉾ 가시랭이/저스러미
 꺼스렁-베 ㉾ 꺼끄렁-벼
 꺼스렁-보리 ㉾ 꺼끄렁-보리
 꺼적 ㉾ 거적
 꺼적-때기 ㉾ 거적-때기
 꺼정 ㉾ 까지
 꺼치 ㉾ 거적
 꺼풀 ㉾ 껍질/꺼풀
 꺾새[-썩] ㉾ 꺾-다리
 꺾꺼렵다[-따] ㉾ 꺾끄렵다
 꺾랭-이 ㉾ 꺾렁이
 꺾쩍지근-허다[-찌-] ㉾ 꺾름칙-하다
 꺾먹-거리다 ㉾ 꺾박-거리다
 꺾먹-꺾먹 꺾벼-꺾벼
 꺾먹꺾먹-허다[-머커-] ㉾ 꺾벼꺾벼-하다
 꺾먹-허다[-머커-] ㉾ 꺾벼-하다
 꺼빱 ㉾ 꺼벼
 꺾-꺼럭 ㉾ 꺼끄러기
 꺾떠기 ㉾ 딸꾹-질
 꺾떼기 ㉾ 딸꾹-질
 꺾댕이 ㉾ 꺾댕이

꺾-딩이 ㉾ 꺾-둥이
 꺾정 ㉾ 꺾정
 꺾정-색 ㉾ 꺾정-색
 꺾데[-때] ㉾ 꺾떼기
 꺾-꺼머다 ㉾ 꺾꺾-하다
 꺾쟁-허다 ㉾ 꺾충-하다
 꺾-보리[꺾뵈-] ㉾ 꺾-보리
 꺾까드렵다[-따] ㉾ 꺾-까다롭다
 꺾림칙-허다[-치커-/~칙커-] ㉾ 꺾림
 칩-하다
 꺾 : 미 ㉾ 꺾 : 미
 꺾개-꺾개 ㉾ 꺾깃-꺾깃
 꺾기-꺾기 ㉾ 꺾깃-꺾깃
 꺾기꺾기-허다 ㉾ 꺾깃꺾깃-하다
 꺾깔 ㉾ 꺾깔
 꺾깔-모자 ㉾ 꺾깔
 꺾곶-쟁이[-쟁-] ㉾ 꺾구두-쇠
 꺾곶-허다[-꺾퍼-] ㉾ 꺾인색-하다
 꺾나-박다 ㉾ 꺾라-박 다
 꺾느다 ㉾ 꺾누다
 꺾다리 ㉾ 꺾찌
 꺾닥지[-찌] ㉾ 꺾대기
 꺾도바리 ㉾ 꺾찌
 꺾드락지[-찌] ㉾ 꺾두라지
 꺾라지 ㉾ 꺾
 꺾락스니[-쓰-] ㉾ 꺾락서니
 꺾랑-내 ㉾ 꺾린-내
 꺾랑-댕이 ㉾ 꺾랑지
 꺾랑-딩이 ㉾ 꺾랑지
 꺾랑-지 ㉾ 꺾리/꺾찌
 꺾 : 랑-텅이 ㉾ 꺾짜기
 꺾 : 랑-팅이 ㉾ 꺾짜기
 꺾래비 ㉾ 꺾라비/꺾찌
 꺾-랭이 ㉾ 꺾랑이
 꺾린-내 ㉾ 꺾린-내

꼬-매기 ㉞ 께:-매기
 꼬-매다 ㉞ 께:-매다
 꼬불탕-거리다 ㉞ 꼬불-거리다
 꼬불탕-질[-질] ㉞ 꼬부랑-길
 꼬섭다[-따] ㉞ 고소-하다
 꼬숨 무엇에 올려놓고 놀아주는 일
 꼬숨-태 : 다 무엇에 올려놓고 흔들어 주다
 꼬숨-태우다 무엇에 올려놓고 흔들어 주다
 꼬습다[-따] ㉞ 고소-하다/즐겁다
 꼬습다[-따] ㉞ 고소-하다
 꼬시다 ㉞ 께:다
 꼬작지[-찌] ㉞ 꼭대기
 꼬잡다[-따] ㉞ 꼬집다
 꼬잡어-내다 ㉞ 꼬집어-내다
 꼬-잡히다[-자피-] ㉞ 꼬집히다
 꼬장-부리다 ㉞ 꼬장을 부리다
 꼬장꼬장-허다 ㉞ 꼬장꼬장-하다
 꼬쟁히다[-재피-] ㉞ 꼬집히다
 꼬지다 ㉞ 꽃다
 꼬지지 ㉞ 께지지
 꼬지지-허다 ㉞ 께죄죄-하다
 꼬째 ㉞ 꼴찌
 꼬찌 ㉞ 꼴찌
 꼬추 ㉞ 고추
 꼬추-뿔[-춤-] ㉞ 고추의 꼭지
 꼬추-상투 ㉞ 고추-상투
 꼬추-씨 ㉞ 고추-씨
 꼬춧-가루[-춘까-/축까-] ㉞ 고춧-
 가루
 꼬춧-물[-춤-] ㉞ 고춧-물
 꼬춧-잎[-춘닙] ㉞ 고춧-잎
 꼬춧-잎새기[-춘닙새-] ㉞ 고춧-잎
 꼬치-장 ㉞ 고추-장(-醬)
 꼬타리 ㉞ 꼬투리
 꼭-감[-괏] ㉞ 께-감

꼭다리[-따-] ㉞ 꼭지
 꼭대[-따] ㉞ 꼭대기
 끈노-끈노 ㉞ 섬마-섬마
 끈 : 두 ㉞ 곤두(筋斗)
 끈 : 두박질[-질] ㉞ 곤두박질(筋斗撲跌)
 끈 : 두박질-치다[-질-] ㉞ 곤두박질
 -치다(筋斗撲跌-)
 끈 : 두-백히다[-배키-] ㉞ 곤두-박이
 다(筋斗-)
 끈 : 두-스기 ㉞ 물구나무-서기
 끈 : 두-스다 ㉞ 곤두-서다(筋斗-)
 끈-장(-杖) 반칙/꼭대기
 끈장-부리다 ㉞ 휘방을 부리다
 끈주 ㉞ 곤두(筋斗)
 끈주박질[-질] ㉞ 곤두박질(筋斗撲跌)
 끈 : 주박질-치다[-질-] ㉞ 곤두박질
 -치다(筋斗撲跌-)
 끈주-백히다[-배키-] ㉞ 곤두-박이다
 (筋斗-)
 끈 : 주-스기 ㉞ 물구나무-서기
 끈 : 주-스다 ㉞ 곤두-서다(筋斗-)
 꼴떼기 ㉞ 꼴뚜기
 꼴떼기-젓[-젓] ㉞ 꼴뚜기-젓
 꼴띠기 ㉞ 꼴뚜기
 꼴띠기-젓[-젓] ㉞ 꼴뚜기-젓
 꼴랑 고작, 겨우
 꼴 : -뵈다 ㉞ 눈꼴-시다
 꼴 : -비다 ㉞ 눈꼴-시다
 꼴 : -시다 ㉞ 눈꼴-시다
 꼴째 ㉞ 꼴찌
 꿈꿈 ㉞ 인색
 꿈꿈-쟁이[-쟁-/꼭-쟁-] ㉞ 구두-쇠
 꿈꿈-허다[-꼬퍼-/꼭꼬퍼-] ㉞ 인색-
 하다
 꿈다[-따] ㉞ 꽃다

곱하다[꼬피-] ㉾ 곱히다
 곱새[-새] ㉾ 곱사-등이
 곱새-춤[-새-] ㉾ 곱사등이-춤
 곱살-머리[-쌀-] ㉾ 곱살-머리
 꽃[꼇] ㉾ 꽃
 꽃-가쟁이[꼇까-] ㉾ 꽃-가지
 꽃-귀 : 경[꼇까-] ㉾ 꽃-구 : 경
 꽃-그이[꼇-] ㉾ 꽃-게
 꽃-기 : 경[꼇까-] ㉾ 꽃-구 : 경
 꽃-낭구[꼇-] ㉾ 꽃-나무
 꽃-대공[-꼇때-] ㉾ 꽃-대
 꽃-몽우리[꼇-] ㉾ 꽃-망울
 꽃-바구리[꼇빠-] ㉾ 꽃-바구니
 꽃-방망이[꼇방-] ㉾ 꽃-방망이
 꽃-배얌[꼇배-] ㉾ 꽃-뱀
 꽃-생여[꼇쌍-] ㉾ 꽃-상여(-喪輿)
 꽃-송아리[꼇송-] ㉾ 꽃-송이
 꽃-씽이[꼇쌍-] ㉾ 꽃-송이
 꽃-잎새기[꼇닙새-] ㉾ 꽃-잎
 꽃-즌[꼇즌] ㉾ 꽃-전
 꿈-댕이 ㉾ 꿈지
 꿈-딩이 ㉾ 꿈지
 꿈-수 ㉾ 꿈-수
 꿈치 ㉾ 꿈초
 꺾지[-찌] ㉾ 꺾지
 꺾지-벌레[-찌-] ㉾ 사슴-벌레
 꺾 ㉾ 꺾
 꺾-꽃[-꺾] ㉾ 꺾-꽃
 꺾-모[꺾-] ㉾ 꺾-모
 꺾-목[꺾-] ㉾ 꺾-목
 꺾둑사리[꺾둑싸-] ㉾ 꺾-단
 꺾-잎[꺾닙] ㉾ 꺾-잎
 꺾-잎새기[꺾닙새-] ㉾ 꺾-잎
 꺾맥이 ㉾ 꺾과리
 꺾 : 다 ㉾ 꺾 : 다

꺾 : 미 ㉾ 꺾 : 미
 꺾제제 ㉾ 꺾죄죄
 꺾제제-허다 ㉾ 꺾죄죄-허다
 꺾째 ㉾ 꺾찌
 꺾찌 ㉾ 꺾찌
 꾸기-꾸기 ㉾ 꾸깃-꾸깃
 꾸기꾸기-허다 ㉾ 꾸깃꾸깃-허다
 꾸룬-내 ㉾ 꾸린-내
 -꾸리기 ㉾ -꾸러기
 꾸불탕-거리다 ㉾ 꾸불-거리다
 꾸불텡-거리다 ㉾ 꾸불-거리다
 꾸정물 ㉾ 꾸정물/흙탕물
 꾸 : 지 ㉾ 꾸지뽕나무의 열매
 꿈먹-꿈먹 꾸벽꾸벽
 꺾-내끼 ㉾ 꺾
 꺾 : -내다 ㉾ 꺾 : -내다
 꺾-냉이 ㉾ 꺾/줄
 꺾니 ㉾ 꺾니
 꺾니-때 ㉾ 꺾니-때
 꺾닛-감[-닐깜] ㉾ 꺾닛-거리
 꺾닛-거리[-닐꺼-] ㉾ 꺾닛-거리
 꺾닛-적[-닐쩍] ㉾ 꺾니-때
 꺾-댕기다 ㉾ 꺾어-당기다
 꺾덩이 ㉾ 꺾덩이
 꺾득-꺾득 ㉾ 거덕-거덕
 꺾득꺾득-허다 ㉾ 거덕거덕-허다
 꺾들-꺾들 ㉾ 거덕-거덕
 꺾들꺾들-허다 ㉾ 거덕거덕-허다
 꺾딩이 ㉾ 꺾덩이
 꺾떡-허은[-떠커-] ㉾ 걸핏-하면
 꺾 : 림 ㉾ 그을음
 꺾백 ㉾ 꺾벽/순간적으로
 꺾시랭이 ㉾ 가시랭이
 꺾실르다 ㉾ 그슬다
 꺾실리다 ㉾ 그슬리다

꼬잡어-다리다 ㉾ 끌어 잡아당기다
 꼬잡어-댕기다 ㉾ 끌어 잡아당기다
 꼬잡어-딜이다 ㉾ 끌어 잡아들이다
 꼬잡어-땡기다 ㉾ 끌어잡아-당기다
 꼬적 ㉾ 거적
 꼬적-거리다 ㉾ 끼적-거리다
 꼬적-꼬적 ㉾ 끼적-끼적
 꼬적-때기 ㉾ 거적-때기
 꼬적-문 ㉾ 거적-문
 꼬치다 ㉾ 그치다
 끈-나풀 ㉾ 끈나풀
 끈-내끼 ㉾ 꼬아 만든 끈
 끈-냉이 ㉾ 끈/줄
 끊-치다[끈-] ㉾ 끊기다[끈키-]
 끌려-대니다 ㉾ 끌려-다니다
 끌려-댕이다 ㉾ 끌려-다니다
 끌려-땡기다 ㉾ 끌려-다니다
 끌르다 ㉾ 끄르다
 끌어-다리다 ㉾ 끌어-당기다
 끌어-댕기다 ㉾ 끌어-당기다
 끌어-딜이다 ㉾ 끌어-들이다
 곱 : ㉾ 곱(gum)
 곱 : -값[-값/공값] ㉾ 곱-값
 곱먹 ㉾ 곱벽
 곱먹-거리다[-꺼-] ㉾ 곱박-거리다
 곱먹-곱먹 ㉾ 곱벽-곱벽
 곱먹곱먹-허다[-머커-] ㉾ 곱벽곱벽-하다
 곱먹-허다[-머커-] ㉾ 곱벽-하다
 곱 씹년 소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끼리기 ㉾ 길이
 끼겨-들다 ㉾ 끼어-들다
 끼구다 ㉾ 끼우다
 끼기다 ㉾ 끼이다

-ㄴ디 ㉾ -ㄴ데
 -ㄴ디 ㉾ -ㄴ대
 -ㄴ디유 ㉾ -데요
 -ㄴ디유 ㉾ -ㄴ대요
 나-대니다 ㉾ 나-다니다
 나-댕기다 ㉾ 나-다니다
 나-댕이다 ㉾ 나-다니다
 나동그라-지다 ㉾ 나동그라-지다
 나-동글다 ㉾ 나-땡글다
 나동구러-지다 ㉾ 나-땡글다
 나-동글다 ㉾ 나-땡글다
 나락-모가지 ㉾ 이삭
 나무-구신 ㉾ 나무-귀신(-鬼神)
 나-무고럽다[-따] ㉾ 남-부끄럽다
 나무새 ㉾ 나물/채소
 나무-저갈 ㉾ 나무-젓가락
 나무-저범 ㉾ 나무-젓가락
 나무-판때기 ㉾ 나무-판자(-板子)
 나뭇-가쟁이[-목까-] ㉾ 나뭇-가지
 나뭇-가징이[-목까-] ㉾ 나뭇-가지
 나무-골[-/-목골] ㉾ 나뭇-결
 나뭇-골[-운골] ㉾ 나뭇-결
 나뭇-데미[-운떼-] ㉾ 나뭇-데미
 나서-지다 ㉾ 나아-지다
 나-스다 ㉾ 나-서다
 나스다 ㉾ 낫다
 -나유 ㉾ -나요
 나이타 ㉾ 라이터(lighter)
 나이타-돌[-몰] ㉾ 라이터-돌(lighter-)
 나-자빠지다 ㉾ 나-자빠지다
 나지오 ㉾ 라디오(radio)
 낙순[-쓰] ㉾ 낙선(落選)
 낙을 ㉾ 낙엽(落葉)

난닝구 ㉾ 러닝-셔츠(running-shirt)
 난 : 디-읏다[-음따] ㉾ 난:데-없다
 난 : 디-읏이[-음씨] ㉾ 난:데-없이
 난 : 디-읏다[-음따] ㉾ 난:데-없다
 난 : 디-읏이[-음씨] ㉾ 난:데-없이
 난중 ㉾ 나중
 날개미 ㉾ 날개
 날-겨란 ㉾ 날-계란(鷄卵)
 날 : 꺾이-허다 꺾은 날 소일거리를 즐
 기다
 날-다갈 ㉾ 날-달갈
 날-달갈 ㉾ 날-달갈
 날러-가다 ㉾ 날아-가다
 날러-대니다 ㉾ 날아-다니다
 날러-탱기다 ㉾ 날아-다니다
 날러-탱이다 ㉾ 날아-다니다
 날러-오다 ㉾ 날아-오다
 날르다 ㉾ 날다
 날-장적 ㉾ 날-장작(-長斫)
 날-짐성[-쯔성] ㉾ 날-짐승
 날-짐성[-쯔성] ㉾ 날-짐승
 날카-럽다[-따] ㉾ 날카-롭다
 날-파리 ㉾ 하루-살이
 낡으다 ㉾ 낡다[낙따]
 남-동상 ㉾ 남-동생(男-)
 남새-밭[-밭] ㉾ 채소-밭
 -남유 ㉾ -나유
 낫 : -살[날 : 쌀] ㉾ 나잇-살
 냥구 ㉾ 나무
 냥구-가짐이[-까-] ㉾ 나뭇가지
 냥구-고두래 ㉾ 나무 고드래
 냥구-구신 ㉾ 나무-귀신(-鬼神)
 냥구-꾼 ㉾ 나무-꾼
 냥구-때기 ㉾ 나무-때기
 냥구-치기 ㉾ 가지-치기

냥구-허다 ㉾ 나무-허다
 냥굿-데미[-곤때-] ㉾ 나뭇-데미
 냥굿-잎[-곤닙] ㉾ 나뭇-잎
 냥굿-짐[-곤짚] ㉾ 나뭇-짐
 냥-어덕 ㉾ 냥-떠러지
 낫-개리다[날까-] ㉾ 낫-가리다
 낫-개림[날까-] ㉾ 낫-가림
 -내 ㉾ -나
 내 : -갈 ㉾ 냇:-가
 -내끼 ㉾ -끈
 내남-보살 ㉾ 내전-보살(內殿菩薩)
 내남보살-허다 ㉾ 내전보살-허다(內殿
 菩薩-)
 내 : 동 ㉾ 내:내/지금껏
 내 : -동덩이 ㉾ 내-동덩이
 내 : 동덩이-치다 ㉾ 내:동덩이-치다
 내 : -돌르다 ㉾ 내:-두르다
 내리-놀르다 ㉾ 내리-누르다
 내 : -맥기다[-매끼-/끼-] ㉾ 내:-말
 기다
 내 : -은 ㉾ 내:면(內面)
 내 : -발다[-발따] ㉾ 내:-빨다
 내 : -불다 ㉾ 내:-버리다
 내 : 비-두다 ㉾ 내버려-두다
 내 : -비리다 ㉾ 내:-버리다
 내 : -빌다 ㉾ 내:-버리다
 내-빠다 ㉾ 달아-나다
 내 : 송-꾸리기 ㉾ 내:송-꾸리기
 내 : -승 : 기 ㉾ 내:-성기(內性器)
 내 : -저스다 ㉾ 내-젓다
 내 : -질르다 ㉾ 내-지르다
 내 : -찍기다[-끼-] ㉾ 내-쫓기다
 냇 : -갈[-갈] ㉾ 냇:-가
 냇편 ㉾ 냇편(男便)
 냇편 ㉾ 냇편(男便)

넙 : -두다[-뚜-] ㉸ 내버려-두다
 넙 : 대[-때] ㉸ 냅다
 넙 : -물[넙-] ㉸ 냇:-물
 넙 : -버리다[-빠-] ㉸ 내:-버리다
 넙 : -볼다[내뿔-/넙뿔-] ㉸ 내:-버리다
 넙 : -비리다[내뻘-/넙뻘-] ㉸ 내:-버리다
 넙비려-두다[내뻘-/넙뻘-] ㉸ 내버려-두다
 넙 : -빌다[내뿔-/넙뿔-] ㉸ 내:-버리다
 냇비려-두다[넙뻘-/넙뻘-] ㉸ 내버려-두다
 냇 : -비리다[넙뻘-/넙뻘-] ㉸ 내:-버리다
 냇 : -가심 ㉸ 냇:-가슴(冷-)
 냇기다 ㉸ 냇기다
 냇김-읻이[-음씨] ㉸ 냇김-없이
 -냇이 ㉸ -끈
 -냐구 ㉸ -라고
 냇구 ㉸ 라고
 냇군 ㉸ 라고는
 냇중 ㉸ 나중
 냇 : -모리 ㉸ 냇:-모레
 -너냐구 ㉸ -느라고
 너머 ㉸ 너무
 너머-나 ㉸ 너무-나
 너머-너머 ㉸ 너무-너무
 너머-허다 ㉸ 너무-허다
 너-무끄럽다[-따] ㉸ 냇-부끄럽다
 너무새 ㉸ 나물/채소
 년저리 ㉸ 년더리
 년절-머리 ㉸ 년털-머리
 날러-대니다 ㉸ 날아-다니다
 날러-댕기다 ㉸ 날아-다니다
 날러-댕이다 ㉸ 날아-다니다

넙브다 ㉸ 냅다
 넙-뻘때기 ㉸ 넙뻘지
 넙 ㉸ 냇
 넙 : -보다 ㉸ 넘겨다 보다
 넙어-띠리다 ㉸ 넘어-프리다
 넙-우끄럽다[-따] ㉸ 냇-부끄럽다
 넙의집-살이[넙미-싸-] ㉸ 냇의집-살이
 네려-가다 ㉸ 내려-가다
 네려-놓다[-노타] ㉸ 내려-놓다
 네려다-보다 ㉸ 내려다-보다
 네려다-보이다 ㉸ 내려다-보이다
 네려-띠리다 ㉸ 내려-프리다
 네려-보다 ㉸ 내려-보다
 네려-쓰다 ㉸ 내려-쓰다
 네려-안지다 ㉸ 내려-앉다
 네려-오다 ㉸ 내려-오다
 네려-찍다[-따] ㉸ 내려-찍다
 네려-치다 ㉸ 내려-치다
 넙겨다-보다 ㉸ 넘겨-보다
 넙겨-들다[-따] ㉸ 넘겨-들다
 넙겨-띠리다 ㉸ 넘어-프리다
 넙겨-받다[-따] ㉸ 넘겨-받다
 넙겨-보다 ㉸ 넘겨-보다
 넙겨-주다 ㉸ 넘겨-주다
 넙겨-짚다[-집따] ㉸ 넘겨-짚다
 넙기다 ㉸ 넘기다
 넙 : ㉸ 내일(來日)
 넙 : -모리 ㉸ 냇:-모레
 노간지-나무 ㉸ 노간주-나무
 노간지-냥구 ㉸ 노간주-나무
 노-끄륵 ㉸ 낫-그릇
 노내기 ㉸ 노래기
 노-내끼 ㉸ 노-끈
 노끈-내끼 ㉸ 노-끈
 노끈-넙이 ㉸ 노-끈

노누-기 ㉾ 나누-기
 노누다 ㉾ 노느다
 노눛-셈[-눛셈] ㉾ 나눛-셈
 노나-가지다 ㉾ 나뉘-가지다
 노나-갖다[-갈따] ㉾ 나뉘-갖다
 노너-가지다 ㉾ 나뉘-가지다
 노너-갖다 ㉾ 나뉘-갖다
 노너-주다 ㉾ 나뉘-주다
 녹두-즌 ㉾ 녹두-전
 논-가생이[-까-] ㉾ 논 주변
 논-갓[-갈] ㉾ 논둑 주변
 논-다랭이[-따-] ㉾ 논-다랑이
 논둑-질[-꼭질] ㉾ 논둑-길
 놀 : 래다 ㉾ 놀라다
 놀 : 래키다 ㉾ 놀래다
 놀잇-감[-인깜/-익깜] ㉾ 장난-감
 놉 ㉾ 놉/삿일꾼
 놏-그릇[놏꼬-/놏꼬-] ㉾ 놏-그릇
 놏-저범[놏-] ㉾ 놏-젓가락
 농-투사니 ㉾ 농-투성이
 넘겨다-보다 ㉾ 넘겨다-보다
 넘겨-듣다[-따] ㉾ 넘겨-듣다/흘려-
 듣다
 넘겨-띠리다 ㉾ 넘어-뜨리다
 넘겨-받다[-따] ㉾ 넘겨-받다
 넘겨-보다 ㉾ 넘겨다-보다
 넘겨-주다 ㉾ 넘겨-주다
 넘겨-짚다[-집따] ㉾ 넘겨-짚다
 넘기다 ㉾ 넘기다
 누디기 ㉾ 누더기
 누랭이 ㉾ 누렁이
 누룬-밥[-/-룬-] ㉾ 누은-밥
 누룬-밥 ㉾ 누은-밥
 누룬-개 ㉾ 누룬-지
 누룬개-밥 ㉾ 누룬지 밥

누룬-갱이 ㉾ 누룬-지
 누룬갱이-밥 ㉾ 누룬지 밥
 누룬-내 ㉾ 누룬내
 누리미 ㉾ 지짐이/부침개
 누여 ㉾ 누에
 누여-꼬치 ㉾ 누에-꼬치
 누여-농사 ㉾ 누에-농사
 누여-똥 ㉾ 누에-똥
 누여-밥 ㉾ 누에-밥
 누여-씨 ㉾ 누에-씨
 누여-치기 ㉾ 누에-치기
 누이-동상 ㉾ 누이-동생
 눈-가생이[-까-] ㉾ 눈-가
 눈-개림 ㉾ 눈-가림
 눈-구녕[-꾸-] ㉾ 눈-구멍
 눈 : -구녕[-꾸-] ㉾ 눈 : -구멍
 눈-깜[-/농-] ㉾ 눈-대중
 눈깜-맹깜 ㉾ 눈-대중
 눈꺼[-/농-] ㉾ 눈곱
 눈꺼[-/농-] ㉾ 눈-꺼풀
 눈꺼[-/농-] ㉾ 눈곱
 눈-꼬리 ㉾ 눈-소리
 눈 : -꾸멍이[-꾸-] ㉾ 눈 : -구멍이
 눈 : -꾸딩이[-꾸-] ㉾ 눈 : -구멍이
 눈-다락지[-찌] ㉾ 다래끼
 눈-다래끼 ㉾ 다래끼
 눈둑-딜이다[-똥-] ㉾ 눈둑-들이다
 눈-두멧이[-뚜-] ㉾ 눈-두덩
 눈-두딩이[-뚜-] ㉾ 눈-두덩
 눈 : -송아리 ㉾ 눈 : -송이
 눈-씩임 ㉾ 눈-속임
 눈 : -씽이 ㉾ 눈 : -송이
 눈-썰미 ㉾ 눈-썰미
 눈썰 ㉾ 눈썰
 눈여겨-보다 ㉾ 눈여겨-보다

눈잇-가시[누닐까-] ㉠ 눈엣-가시
 눈-저 : 냥[-찌-] ㉠ 눈-겨냥
 눈-질[-짚] ㉠ 눈-길
 눈 : -질[-짚] ㉠ 눈:-길
 눈-텅이 ㉠ 눈-통이
 눈-팅이 ㉠ 눈-통이
 놀 : 르다 ㉠ 누:르다
 놀 : 다 ㉠ 눈:다
 능-까풀 ㉠ 눈-꺼풀
 능깜-땡깜 ㉠ 눈-대중
 능-꺼풀 ㉠ 눈-꺼풀
 능깎 ㉠ 눈-꺼풀
 능깽 ㉠ 눈곱
 নে : ㉠ 누에
 নে : -꼬치 ㉠ 누에-고치
 নে : -농사 ㉠ 누에-농사(-農事)
 নে : -똥 ㉠ 누에-똥
 নে : -밥 ㉠ 누에-밥
 নে : -쓸기 ㉠ 누에-쓸기
 নে : -씨 ㉠ 누에-씨
 নে : -알 ㉠ 누에-알
 নে : -치기[넙 : -] ㉠ 누에-치기
 느 ㉠ 네
 느 ㉠ 너
 -느나구 ㉠ -느라고
 느 : -네 ㉠ 너-네
 느 : 네-덜 ㉠ 너희-들
 느 : -덜 ㉠ 너희-들
 느 : -들 ㉠ 너희-들
 느싯-느싯 ㉠ 느긋-느긋
 느싯 : -허다[-시 : 터-] ㉠ 느릿-하다
 /느긋-하다
 느이 ㉠ 너희
 느이 ㉠ 넷
 늑 ㉠ 녀

늑-갈[-갈] ㉠ 늑-가을
 느더리 ㉠ 언더리
 느저리 ㉠ 언더리
 느덜-머리 ㉠ 언덜-머리
 느절-머리 ㉠ 언덜-머리
 늘 : ㉠ 널:
 늘 : -감[-괏] ㉠ 널:-괏
 늘 : -뛰기[-/-띠-] ㉠ 널:-뛰기
 늘 : -뛰다 ㉠ 널:-뛰다
 늘 : 다 ㉠ 널:다
 늘-따랑다[-라타] ㉠ 널-따랑다
 늘름 ㉠ 널름
 늘름-늘름 ㉠ 널름-널름
 늘름-그리다 ㉠ 널름-거리다
 늘리다 ㉠ 널리다
 늘 : -밥[-뺨] ㉠ 늘:-뺨
 늘 : -방석[-뺨-] ㉠ 널:-방석(-方席)
 늘 : -뺨지 ㉠ 널:뺨지
 늘 : -판대기 ㉠ 널:-판대기
 늘 : 어-놓다[-노타] ㉠ 널:어-놓다
 늘 : -조각[-쯔-] ㉠ 널:-조각
 늑 : 다[늘 : 따] ㉠ 늑다
 늑이[늘비] ㉠ 늑이
 늑실-그리다 ㉠ 늑실-거리다
 늑실-늑실 ㉠ 늑실-늑실
 능-구렁이 ㉠ 능-구렁이
 능-구렁이 ㉠ 능-구렁이
 능청-꾸리기 ㉠ 능청-꾸리기
 늑-갈[늘갈] ㉠ 늑-가을
 늑다[느 : 타] ㉠ 늑다
 니 ㉠ 네
 니 ㉠ 너
 니 : -거리 ㉠ 네-거리(-距離)
 니 : -덜 ㉠ 너희-들
 니 : -들 ㉠ 너희-들

니아-까 ㉾ 리어-카(rear-car)
 닢 : -질목 ㉾ 네 : -거리(-距離)
 넷 ㉾ 넷
 넷 : -두리[닐뚜-] 하나를 넷으로 나눈
 몫
 니길-거리다 ㉾ 느글-거리다
 니길-니길 ㉾ 느글-느글
 -니께 ㉾ -니까
 -니켄드루 ㉾ -니까
 니끼-허다 ㉾ 느끼-하다
 니네-덜 ㉾ 너희-들
 -니라구 ㉾ -느라고
 니알 ㉾ 내일(來日)
 니알-모리 ㉾ 낼 : -모래
 니알 ㉾ 내일(來日)
 니얼 ㉾ 내일(來日)
 니얼-모리 ㉾ 낼 : -모래
 니열 ㉾ 내일(來日)
 닛 ㉾ 넷
 -닝께 ㉾ -니까
 -닝켄드루 ㉾ -니까
 닛닝-허다 ㉾ 밍밍-하다/느끼-하다

ㄷ

-다가니 ㉾ -다가
 -다가닌 ㉾ -다가는
 다갈 ㉾ 달걀
 다갈-구이 ㉾ 달걀-구이
 다갈-말이 ㉾ 달걀-말이
 다갈-뎛밥[ㄷ뎛] ㉾ 달걀-뎛밥
 다갈-찜 ㉾ 달걀-찜
 -다나 ㉾ -대
 -다남 ㉾ -대
 다담이 ㉾ 다듬-이

다담이-질 ㉾ 다듬이-질
 다담익-감[~익깜] ㉾ 다듬잇-감
 다담잇-감[~익깜/-익깜] ㉾ 다듬잇-감
 다담잇-독[~쪽] ㉾ 다듬이-돌
 다담잇-돌[~꼴] ㉾ 다듬이-돌
 다담잇-방맹이[~미뺑-] ㉾ 다듬잇-방
 망이
 다담-질 ㉾ 다듬이-질
 다락지[~찌] ㉾ 다래끼/종기
 다랭이 ㉾ 다랑이
 다랭이-논 ㉾ 다랑이-논
 다랭이-밭[~밭] ㉾ 다랑이 밭
 다려-지다 ㉾ 멧겨 지다
 -다리다 ㉾ 당기다
 다리다 ㉾ 멧기다
 다름-없이[~음씨] ㉾ 다름-없이
 다름-없다[~음따] ㉾ 다름-없다
 다름-없이[~음씨] ㉾ 다름-없이
 다시리다 ㉾ 다스리다
 다정-시럽다[~따] ㉾ 다정-스럽다(多情)
 다정-시리 ㉾ 다정-스레(情-)
 닥채-나무 ㉾ 닥-나무
 닥채-낭구 ㉾ 닥-나무
 단풍-잎새[~넙쌔] ㉾ 단풍-잎(丹楓-)
 달갈 ㉾ 달걀
 달갈-구신 ㉾ 달걀-귀신(-鬼神)
 달갈-구이 ㉾ 달걀-구이
 달갈-말이[~마리] ㉾ 달걀-말이
 달갈-뎛밥[ㄷ뎛] ㉾ 달걀-뎛밥
 달갈-찜 ㉾ 달걀-찜
 달 : 고 ㉾ 달구
 달 : 공 ㉾ 달구
 달-구신(-鬼神) ㉾ 닭 귀신
 달기-게기 ㉾ 닭-고기
 달기-고집 ㉾ 닭-고집(-固執)

달기-똥 ㉾ 닭-똥
 달기-띠 ㉾ 닭-띠
 달기-새끼이 ㉾ 병아리/닭
 달기-장 ㉾ 닭-장(-穢)
 달기-해 ㉾ 닭-해
 달 : -기신(-鬼神) ㉾ 닭 귀신
 달기-발 ㉾ 닭-발
 달기-죽 ㉾ 닭-죽(-粥)
 달려-붙다 ㉾ 달라-붙다
 달려-지다 ㉾ 달라-지다
 달르다 ㉾ 다르다
 달므다 ㉾ 닭다
 달버-지다 ㉾ 달라-지다
 달브다 ㉾ 다르다
 닭-게기[닭개-] ㉾ 닭-고기
 닭-알[알걀/다걀] ㉾ 달걀
 닭 : 다[-따] ㉾ 닭그다
 닭박 ㉾ 닭박
 닭배-각 ㉾ 닭뺏-갑(-匣)
 닭배-꽂치 ㉾ 닭배-꽂초
 닭-벼락[-베-] ㉾ 닭-벼락
 닭뺏-각[-뺏각] ㉾ 닭뺏-갑(-匣)
 닭-부락[-뿌-] ㉾ 닭-벼락
 닭-브락[-브-] ㉾ 닭-벼락
 닭구다 ㉾ 닭그다
 닭그다 ㉾ 닭그다
 닭금-질 ㉾ 닭금-질
 닭기다 ㉾ 다니다
 닭기다 ㉾ 닭기다
 닭까 ㉾ 닭가(擔架)
 닭손 ㉾ 닭선(當選)
 닭체 ㉾ 닭취
 닭공 ㉾ 닭-대
 닭-갈키 ㉾ 닭 갈퀴
 닭-낭구 ㉾ 닭-나무

대녀-가다 ㉾ 다녀-가다
 대녀-오다 ㉾ 다녀-오다
 대니다 ㉾ 다니다
 대루 ㉾ 대로
 대루 ㉾ 대로
 대리다 ㉾ 당기다
 대리다 ㉾ 다리다
 대리다 ㉾ 달이다
 대리미 ㉾ 다리미
 대리미-질 ㉾ 다림-질
 대리-즘 ㉾ 대리-점(代理店)
 대-바늘 ㉾ 대-바늘
 대바라-지다 ㉾ 되바라-지다
 대-빛자락[-빔짜-] ㉾ 대-비
 대수-럽다[-따] ㉾ 대수-롭다
 대시-럽다[-따] ㉾ 대수-롭다
 -대유 ㉾ -나요
 -대유 ㉾ -대요
 -대유 ㉾ -대요
 대으-즘 ㉾ 대어-점(貸與店)
 대-저범 ㉾ 대-젓가락
 대-적갈 ㉾ 대-젓가락
 대청-말래 ㉾ 대청-마루(大廳-)
 대 : -핵겨[-꺼] ㉾ 대:-학교(大學校)
 대 : -핵교[-꼬] ㉾ 대:-학교(大學校)
 댈이다 ㉾ 달이다
 댐-부락[-뿌-] ㉾ 닭-벼락
 댐 : 대[-때] ㉾ 도리어
 댕겨-가다 ㉾ 다녀-가다
 댕겨-오다 ㉾ 다녀-오다
 댕기다 ㉾ 다니다
 댕기다 ㉾ 당기다
 댕여-가다 ㉾ 다녀-가다
 댕여-오다 ㉾ 다녀-오다
 댕이다 ㉾ 다니다

당일 ㉾ 당일(當日)
 당일-치기 ㉾ 당일-치기(當日-)
 더글-거리다 ㉾ 바글-거리다
 더글-더글 ㉾ 바글-바글
 더글더글-허다 ㉾ 바글바글-하다
 더깨 ㉾ 뒸-개
 더깡이 ㉾ 더깡이
 -더락 ㉾ -도록
 더떡 ㉾ 더떡
 더떡-그리다[-끄-] ㉾ 더떡-거리다
 더떡-대다[-때-] ㉾ 더떡-대다
 더떡-더떡 ㉾ 더떡-더떡
 -던 ㉾ -지는
 -덜 ㉾ -지를/-지들
 덜 ㉾ 들
 덜그덕 ㉾ 덜그럭
 덜그덕-거리다[-꺼-] ㉾ 덜그럭-거리다.
 덜그덕-덜그덕 ㉾ 덜그럭-덜그럭
 덜렙-이 ㉾ 덜렙이
 덤테기 ㉾ 덤터기
 덤티기 ㉾ 덤터기
 덤부달 ㉾ 덤불
 덤부살 ㉾ 덤불
 덤푸달 ㉾ 덤불
 덤푸살 ㉾ 덤불
 데글-거리다 ㉾ 바글-거리다
 데꾸-가다 ㉾ 데리고 가다
 데꾸-대니다 ㉾ 데리고 다니다
 데꾸-댕기다 ㉾ 데리고 다니다
 데꾸-댕이다 ㉾ 데리고 다니다
 데꾸-오다 ㉾ 데리고 오다
 데 : 다 ㉾ 데우다
 데리다 ㉾ 데리다
 데미 ㉾ 더미
 덤벼-들다 ㉾ 덤벼-들다

덤비다 ㉾ 덤비다
 덤히다[데피-] ㉾ 덤히다
 덤이 ㉾ 덩이
 도가지 ㉾ 독
 도구-땡이 ㉾ 절긋-공이
 도구-통 ㉾ 절구-통
 도깨비-장냥 ㉾ 도깨비-장난
 도독 ㉾ 도독
 도독-고이[-꼬-] ㉾ 도독-고양이
 도독-괭이[-괭-] ㉾ 도독-고양이
 도독-눔[-동-] ㉾ 도독-눔
 도독-질[-짚] ㉾ 도독-질
 도롱테 ㉾ 굴렁-쇠
 도-말으다 ㉾ 도-말다
 도매-즘 ㉾ 도매-점(都賣店)
 도야지 ㉾ 돼지
 도 : 치 ㉾ 도 : 끼
 도 : 치-눈[-친-] ㉾ 도 : 끼-눈
 도 : 치-농깁 ㉾ 도 : 끼-눈
 도 : 치-질[-친-] ㉾ 도 : 끼-질
 도 : 첫-날[-친-] ㉾ 도 : 끼-날
 독 : ㉾ 돌 :
 독 : -구수[-꾸-] ㉾ 돌 : -구유
 독 : -그룩[-끄-] ㉾ 돌 : -그룻
 독 : -너덜[동-] ㉾ 돌 : -너덜
 독 : -널[동-] ㉾ 돌 : -널
 독 : -늘[동-] ㉾ 돌 : -널
 독 : -담[-땅] ㉾ 돌 : -담
 독 : -담불[-땅-] ㉾ 돌 : -담불
 독 : -담부살[-땅-] ㉾ 돌 : -담불
 독 : -덤불[-땅-] ㉾ 돌 : -담불
 독-데미[-때-] ㉾ 돌-더미
 독-디미[-띠-] ㉾ 돌-더미
 독 : -댕이[-땅-] ㉾ 돌 : -덩이
 독 : -딩이[-땅-] ㉾ 돌 : -덩이

독 : -막[동-] ㅍ 독 : -멍이
 독 : -메[동-] ㅍ 독 : -메
 독 : -멍이[동-] ㅍ 독 : -멍이
 독 : -무덤[동-] ㅍ 독 : -무덤
 독-무대기[동-] ㅍ 독 : -무더기
 독 : -무디기[동-] ㅍ 독 : -무더기
 독립-승분[동남-] ㅍ 독립-성분(獨立
 性分)
 독 : -바닥[-빠-] ㅍ 독-바닥
 독 : -바당[-빠-] ㅍ 독-바당
 독 : -발[-빨] ㅍ 독 : -발
 독 : -배[-빠] ㅍ 독 : -배
 독 : 배-낭구[-빠-] ㅍ 독 : 배-나무
 독 : -부리[-뿌-] ㅍ 독 : -부리
 독사-풀[-싸-] ㅍ 독새-풀
 독 : -산[-싼] ㅍ 독 : -산(-山)
 독 : -살[-쌀] ㅍ 독 : -발
 독새-풀[-싸-] ㅍ 독새-풀
 독 : -쌈 ㅍ 독 : -싸움
 독-아지 ㅍ 독
 독 : -어덕 ㅍ 독 : -언덕
 독-올르다[도골-] 독이 오르다
 독 : -자갈[-짜-] ㅍ 자갈-돌
 독 : 자갈-발[-짜-반] ㅍ 독 : -발
 독 : -절구[-절-] ㅍ 독 : -절구
 독 : -지동[-찌-] ㅍ 독 : -기동
 독 : -질[-찹] ㅍ 독 : -길
 독 : -짐[-찹] ㅍ 독 : -짐
 독 : -팔매 ㅍ 독 : -팔매
 독 : 팔매-질 ㅍ 독 : 팔매-질
 돈 : -그 : 래 ㅍ 돈 : -거 : 래(-去來)
 돈-고상[-꼬-] ㅍ 돈-고생(苦生)
 돈 : -괘미 ㅍ 돈 : -괘미
 돈-데미 ㅍ 돈-데미
 돈 : -베락[-베-] ㅍ 돈 : -벼락

돈 : -브락[-뿌-] ㅍ 돈 : -벼락
 돈 : -사다 물건을 내다 팔다
 돈 : -시 : 탁 ㅍ 돈-세 : 탁(-洗濯)
 돈 : -주먼지[-쭈-] ㅍ 돈 : -주머니
 돈 : -지[-찌] ㅍ 돈 : -계(-契)
 돈 : -팔다 물건을 사다
 돈-나물[돈-] ㅍ 돈-나물
 돈배기[-베-] ㅍ 돈보기
 돈보기[-뽀-] ㅍ 돈보기
 돈 : -덩이[-땡-] ㅍ 돈 : -덩이
 돈 : -딩이[-땡-] ㅍ 돈 : -덩이
 돈 : -막 ㅍ 돈 : -멍이
 돈 : -무대기 ㅍ 돈 : -무더기
 돈 : -무디기 ㅍ 돈 : -무더기
 돈 : -버개 ㅍ 돈 : -베개
 돈 : -뿌리기 ㅍ 돈 : -부리
 돈 : -썩편[-/피은] ㅍ 돈-송편(-松-)
 돈어-가다 ㅍ 돈아-가다
 돈 : -어덕 ㅍ 돈 : -언덕
 돈 : -지동[-찌-] ㅍ 돈 : -기동
 돈 : -지집 ㅍ 돈 : -계집
 돈 : -짜구 ㅍ 돈 : -찌귀
 돈 : -칭계[-계] ㅍ 돈 : -층계(-層階)
 돈 : -팍 ㅍ 돈 : -멍이
 동고라미 ㅍ 동그라미
 동고라-지다 ㅍ 동그래-지다
 동고랄다[-라타] ㅍ 동그랄다
 동고래미 ㅍ 동그라미
 동고래-지다 ㅍ 동그래-지다
 동골-동골 ㅍ 동글-동글
 동냥-배기 ㅍ 동냥-아치
 동백-나무[-뱅-] ㅍ 생강-나무(生薑-)
 동백-낭구[-뱅-] ㅍ 생강-나무(生薑-)
 동백-꽃[-핀] ㅍ 생강나무-꽃(生薑-)
 동상 ㅍ 동생

동상-네 ㉔ 동생-네
 동세 ㉔ 동서(同聲)
 동아-바 ㉔ 동아-줄
 동아-발 ㉔ 동아-줄
 동 : -줄 ㉔ 동: 절(冬節)
 동 : 줄-기 ㉔ 동: 절-기(冬節期)
 동토-나다 ㉔ 통토-하다(動土-)
 동티-나다 ㉔ 통토-하다(動土-)
 돼지-울간[~간] ㉔ 돼지-우리
 되-넣기다 ㉔ 되-넣기다
 되뚝-그리다 ㉔ 되뚝-거리다
 되 : 려[-/똥 : -] ㉔ 도리어
 되 : 레 ㉔ 도리어/되려
 되-보다 ㉔ 되어 보다
 됨박 ㉔ 뒤옹박
 됨 : 대[-때/-똥 : -] ㉔ 도리어
 됨-박[-뽕] ㉔ 되
 됨박-지기[-뽕찌-] ㉔ 되-지기
 똥여-매다 ㉔ 동여-매다
 똥이 ㉔ 동이
 똥이다 ㉔ 동이다
 -두 ㉔ -지도
 두간 ㉔ 뒷간
 두꺼비 ㉔ 두꺼비
 두드럭-그리다[-고-] ㉔ 우물두툼-하다
 두디리다 ㉔ 두드리다
 두딜기다 ㉔ 두들기다
 두루매기 ㉔ 두루마기
 두리몽실-허다 ㉔ 두루몽술-하다
 두방맹이-질 ㉔ 두방망이-질
 두부-즌 ㉔ 두부-전(豆腐煎)
 두부-즙 ㉔ 두부-점(豆腐點)
 두지 ㉔ 뒤주
 두 : -째 ㉔ 둘: -째
 둘르다 ㉔ 두르다

둥굴다 ㉔ 똥굴다
 둥굴-둥굴 ㉔ 둥글-둥글
 둥굴-둥굴 ㉔ 똥굴-똥굴
 둥굴둥굴-허다 ㉔ 똥굴똥굴-하다
 똥 : -데미[-때-] ㉔ 두엄-데미
 뒤-간[디-/딕간] ㉔ 뒷: -간(-間)
 뒤-꾸녁 ㉔ 뒷-구멍
 뒤-꾸녕 ㉔ 뒷-구멍
 뒤-꾸먹 ㉔ 뒷-구멍
 뒤따러-가다 ㉔ 뒤따라-가다
 뒤따러-오다 ㉔ 뒤따라-오다
 뒤-배뀌다[-/-까-] ㉔ 뒤-바뀌다
 똥-은 : [똥-] ㉔ 뒷-면(-面)
 뒷-그 : 래[똥고-] ㉔ 뒷-거: 래(-去來)
 뒷-들미[똥뜰-] ㉔ 뒷-덜미
 뒷-등배기[똥똥-] ㉔ 뒷-등성이
 뒷-등성이[똥똥-/딕똥-] ㉔ 뒷-등성이
 뒷-은 : [똥-/똥-] ㉔ 뒷-면(-面)
 뒷-서르지[똥써-] ㉔ 뒷-설거지
 뒷-질[똥질] ㉔ 뒷-길
 드글-거리다 ㉔ 바글-거리다
 드글-드글 ㉔ 바글-바글
 드글드글-허다 ㉔ 바글바글-하다
 드 : 꾸 ㉔ 차꾸
 -드끼 ㉔ -똥이
 드끼 ㉔ 똥이
 드 : 러움 ㉔ 더: 러움
 드 : 러워-지다 ㉔ 더: 러워-지다
 드 : 럽다[-따] ㉔ 더: 럽다
 드 : 럽히다[-러피-] ㉔ 더: 럽히다
 드부룩-허다[-루커-] ㉔ 더부룩-하다
 드불다 ㉔ 더불다
 드-시다 ㉔ 드-세다
 드-잡이 ㉔ 드-잡이
 드잡이-질 ㉔ 드잡이-질

들 : ㅁ 달:
 들 : 구 ㅁ 자꾸
 들그덕 ㅁ 달거덕
 들그덕-거리다[-깨-] ㅁ 달거덕-거리다
 들그덕-들그덕 ㅁ 털그덕-털그덕
 들그렁 ㅁ 털그렁
 들그렁-거리다 ㅁ 털그렁-거리다
 들그렁-들그렁 ㅁ 털그렁-털그렁
 들-꽤 ㅁ 들-깨
 들꽤-죽 ㅁ 들깨-죽(-粥)
 들-괘모 들개의 모
 들괘-잎[-괘닙] ㅁ 괘-잎
 들-괘모[-괘-] 들개의 모
 들괘-목[-괘-] ㅁ 들괘-목
 들 : 다 ㅁ 털:다
 들 : -되다 ㅁ 털:-되다
 들 : -떨어지다 ㅁ 털:-떨어지다
 들렁-거리다 ㅁ 털렁-거리다
 들렁-들렁 ㅁ 털렁-털렁
 들렁들렁-허다 ㅁ 털렁털렁-허다
 들리다 ㅁ 들르다
 들미 ㅁ 털미
 들 : 어-내다 ㅁ 털어-내다
 들 : -짐성[-ㅈ-] ㅁ 들:-짐승
 들-지름 ㅁ 들-기름
 들-질[-ㅈ] ㅁ 들-길
 들 : -짐성[-ㅈ-] ㅁ 들:-짐승
 들컱 ㅁ 털컱
 들 : -허다 ㅁ 털-허다
 됴 : ㅁ 됴:
 됴-허다 ㅁ 됴-허다
 됴 : -바둑 ㅁ 됴:-바둑
 됴-거리다 ㅁ 됴-거리다
 됴-대다 ㅁ 됴-대다
 됴 : 테기 ㅁ 됴터기

됴 : 티기 ㅁ 됴터기
 됴-들미[-ㅈ-] ㅁ 됴-털미
 됴-떡 ㅁ 됴-물/됴-물(-沐)
 됴배기 ㅁ 됴성이
 됴성이 ㅁ 됴성이
 됴치 ㅁ 됴치
 됴척-값[-ㅈ] ㅁ 됴척-값
 디 ㅁ 데
 디글-거리다 ㅁ 바글-거리다
 디글-대다 ㅁ 바글-거리다
 디글-디글 ㅁ 바글-바글
 디글디글-허다 ㅁ 바글바글-허다
 디 : 다 ㅁ 데:다
 디 : 러움 ㅁ 더:러움
 디 : 러워-지다 ㅁ 더:러워-지다
 디 : 럽다[-ㅈ] ㅁ 더:렵다
 디리다 ㅁ 드리다
 디 : -밀다 ㅁ 들이-밀다
 디통-맞다[-ㅈ] ㅁ 데통-맞다
 딜러-불다[-불ㅈ] ㅁ 들러-불다
 딜어-가다 ㅁ 들어-가다
 딜어-놓다[-노ㅈ] ㅁ 들어-놓다
 딜어다-보다 ㅁ 들어다-보다
 딜어-보내다 ㅁ 들어-보내다
 딜어-앉히다[-안치-] ㅁ 들어-앉히다
 딜이다 ㅁ 들이다
 딜이-마시다 ㅁ 들이-마시다
 딜이-밀다 ㅁ 들이-밀다
 딜이-박다[-ㅈ] ㅁ 들이-박다
 딜이-받다[-ㅈ] ㅁ 들이-받다
 딜이-받히다[-바치-] ㅁ 들이-받히다
 딜이-붓다[-불ㅈ] ㅁ 들이-붓다
 딜이-키다 ㅁ 들이-켜다
 딩이 ㅁ 덩이
 따깡 ㅁ 뚜깡

따깡이 ㉼ 뚜껑
 따겁다[-따] ㉼ 따갑다
 따구 ㉼ 따귀
 따랭기 ㉼ 매달리기
 따랭기 뛰다 뒤에서 매달리다
 따러-가다 ㉼ 따라-가다
 따러-나스다 ㉼ 따라-나서다
 따러-대니다 ㉼ 따라-다니다
 따러-댕기다 ㉼ 따라-다니다
 따러-댕이다 ㉼ 따라-다니다
 따러-붙다[-붙따] ㉼ 따라-붙다
 따러-오다 ㉼ 따라-오다
 따러-잡다[-따] ㉼ 따라-잡다
 따루 ㉼ 따로
 따루-따루 ㉼ 따로-따로
 따사-럽다[-따] ㉼ 따사-롭다
 따습다[-따] ㉼ 따습다
 따시다 ㉼ 따습다
 따우 ㉼ 따위
 딸 : 구 ㉼ 딸:기
 딸 : 구-밭[-밭] ㉼ 딸:기-밭
 딸 : 구-코 ㉼ 딸:기-코
 딸리다 ㉼ 달리다
 딸-자식 ㉼ 딸-자식(-子息)
 딸-자숙 ㉼ 딸-자식(-子息)
 땀-꾸녕 ㉼ 땀-구멍
 땀-꾸녕 ㉼ 땀-구멍
 땀-꾸먹 ㉼ 땀-구멍
 땀-때기 ㉼ 땀-띠
 땀-띠기 ㉼ 땀-띠
 땀띠기-약 ㉼ 땀띠-약(-藥)
 땀따시[땀-] ㉼ 따뜻이
 땀땀-허다[땀따터-] ㉼ 따뜻-하다
 땀-개비 ㉼ 방아-개비
 땀-배얌[-배-] ㉼ 누룩-땀

때꿀 ㉼ 딸:기
 때꿀 ㉼ 파:리
 때꿀-밭[-밭] ㉼ 딸:기-밭
 때때-비 ㉼ 딱따-개비
 때려-치 : 다 ㉼ 때려-치우다
 때민 ㉼ 때문
 맥국-물[-공-] ㉼ 땃국-물
 땀-낭구 ㉼ 땀-나무
 땀 ㉼ 때문
 땀기다 ㉼ 당기다
 떠깡이 ㉼ 뚜껑
 떠-넣기다 ㉼ 떠-넘기다
 떠-대니다 ㉼ 떠-다니다
 떠-댕기다 ㉼ 떠-다니다
 떠-댕이다 ㉼ 떠-다니다
 떠-말으다 ㉼ 떠-말다
 떠-맥기다[-매끼-/맥끼-] ㉼ 떠-말기다
 떡갈-낭구[-갈-] ㉼ 떡갈-나무
 떡-두꺼비[-두-] ㉼ 떡-두꺼비
 떡 : -허니[떠커-] ㉼ 떡-하니
 떨그지 ㉼ 떨거지
 떼 : 끈-허다 ㉼ 떼:끈-하다
 떼-넣기다 ㉼ 떠-넘기다
 떼-맥기다[-끼-] ㉼ 떠-말기다
 땀고라미 ㉼ 땀고라미
 땀고라-지다 ㉼ 땀고래-지다
 땀고랄다[-라타] ㉼ 땀고랑다
 땀고래미 ㉼ 땀고라미
 땀고래-지다 ㉼ 땀고래-지다
 땀골-땀골 ㉼ 땀골-땀골
 떠 : -댕기다 ㉼ 뛰어-다니다
 떠 : -대니다 ㉼ 뛰어-다니다
 떠 : -댕이다 ㉼ 뛰어-다니다
 똑-고르다[-꼬-] ㉼ 고르다
 똑띠기 ㉼ 똑-바로

뚝뚝-허다[-찌커-/찌거] **표** 뚝뚝-하다
뚝-바루[-빠-] **표** 뚝-바로
뚝 **표** 도랑
뚝-강 **표** 도랑
뚝강-물 **표** 도랑-물
뚝망-뚝망 **표** 또랑-또랑
뚝고라미 **표** 뚝그라미
뚝고라-지다 **표** 뚝그래-지다
뚝고랑다[-라타] **표** 뚝그랑다
뚝고래미 **표** 뚝그라미
뚝고래-지다 **표** 뚝그래-지다
뚝굴-뚝굴 **표** 뚝굴-뚝굴
뚝-구덕[-꾸-] **표** 뚝-구덩이
뚝-구덩이[-꾸-] **표** 뚝-구덩이
뚝-구디기[-꾸-] **표** 뚝-구덩이
뚝-구덩이[-꾸-] **표** 뚝-구덩이
뚝-꾸넉 **표** 뚝-구멍
뚝-꾸녕 **표** 뚝-구멍
뚝-꾸먹 **표** 뚝-구멍
뚝-데미 **표** 뚝-더미
뚝-뒤깐[-뽀-] **표** 뒷간
뚝-또깐 **표** 뒷간
뚝-뚜깐 **표** 뒷간
뚝-쑤깐 **표** 뒷간
뚝아리 **표** 파리
뽀뚝-그리다 **표** 뽀뚝-거리다
뽀뚝-뽀뚝 **표** 뽀뚝-뽀뚝
뽀뚝-허다[-또커-/뽀커-] **표** 뽀뚝-하다
뽕고라미 **표** 뚝그라미
뽕고래미 **표** 뚝그라미
뚜쟁이 **표** 뚜쟁
뚜디려-맞다[-말따] **표** 두드려-맞다
뚜디려-패다 **표** 두드려-패다
뚜디리다 **표** 두드리다

뚜딕-이다 **표** 또닥-이다
뚜들겨-맞다[-말따] **표** 두들겨-맞다
뚜들겨-패다 **표** 두들겨-패다
뚜들기다 **표** 두들기다
뚝-질[-짚] **표** 뚝-길
뚝구레미 **표** 뚝그러미
뚝구렇다[-러타] **표** 뚝그렇다
뚝구래-지다 **표** 뚝그래-지다
뚝굴-뚝굴 **표** 뚝굴-뚝굴
뚝땡이 **표** 뚝땡이
뜨듯미적지근-허다[-찌-] **표** 뜨듯미
 지근-하다
뜨시다 **표** 뜨습다
뜸 : -딜이다 **표** 뜸-들이다
뜸물 **표** 진덧물
뜸-물 **표** 뜨물
뜨금-없이[-음씨] **표** 뜸금-없이
뜨금-없이[-음씨] **표** 뜸금-없이
뜯기다[-찌끼-] **표** 뜯기다
뜯기다[-끼-] **표** 뜯기다
뜯어-내다 **표** 뜯어-내다
뽕겨-먹다[-따] **표** 뽕어-먹다
뽕이 **표** 뽕이

2

-리까마 **표** -리까 봐
-리까비 **표** -리까 봐
-리깨미 **표** -리까 봐
-리깨비 **표** -리까 봐
-리라구 **표** -리려고
-리라구 **표** -리려고
-리라구넌디 **표** -리려고 그러는데
-리라구니 **표** -리려고
-리라구니 **표** -리려고 하니

-**라구다** ㉾ -르려고 하다
 -**라구다가** ㉾ -르려고 하다가
 -**라구다가니** ㉾ -르려고 하다가는
 -**라구래두** ㉾ -르려고 그래도
 -**라구려** ㉾ -르려고 그래
 -**라구려** ㉾ -르려고 그래
 -**라구류** ㉾ -르려고 해요
 -**라구류** ㉾ -르려고 해요
 -**라군다** ㉾ -르려고 한대
 -**라군다** ㉾ -르려고 한대
 -**라나** ㉾ -르는지
 -**라나** ㉾ -르려나
 -**라남** ㉾ -르려나
 -**래나** ㉾ -르는지
 -**래나** ㉾ -르려나
 -**래남** ㉾ -르려나
 -**라구** ㉾ -려고
 -**라구** ㉾ -려고
 -**라구년디** ㉾ -려고 그러는데
 -**라구는** ㉾ -려고는
 -**라구니** ㉾ -려고
 -**라구니** ㉾ -려고 하니
 -**라구닌** ㉾ -려고는
 -**라구다** ㉾ -려고 하다
 -**라구다가** ㉾ -려고 하다가
 -**라구다가니** ㉾ -려고 하다가는
 -**라구래두** ㉾ -려고 그래도
 -**라구려** ㉾ -려고 그래
 -**라구려** ㉾ -려고 그래
 -**라구류** ㉾ -려고 해요
 -**라구류** ㉾ -려고 해요
 -**라군다** ㉾ -려고 한대
 -**라군다** ㉾ -려고 한대
 -**라나** ㉾ -는지
 -**라나** ㉾ -려나

-**라남** ㉾ -려나
 -**래나** ㉾ -려나
 -**래나** ㉾ -려나
 -**래남** ㉾ -려나



마냥-같이 ㉾ 닳-같이
마당-빗자락[-빗짜-] ㉾ 마당-비
마른-버들 ㉾ 마른-버짐
마실 ㉾ 마을
마실-꾼 ㉾ 마을-꾼
마실-방[-뽕] ㉾ 마을 방
마끔 ㉾ 만큼
마끔 ㉾ 만큼
만치다 ㉾ 만지다
만침 ㉾ 만큼
만침 ㉾ 만큼
말-메누리[안-] ㉾ 말-며느리
말 : 래 ㉾ 마루
말랭이 ㉾ 마루
말리다 ㉾ 관리-하다
말쌍-꾸리기 ㉾ 말쌍-꾸러기
말 : 쌍-시피다 ㉾ 말: 쌍-부리다
말 : 씹 ㉾ 말: 씹
말 : 씹-드리다 ㉾ 말: 씹-드리다
말-자마리 ㉾ 왕-잠자리(王-)
말 : -장냥[-짱-] ㉾ 말: -장난
말 : 장냥-허다[-짱-] ㉾ 말: 장난-허다
맘 : -고상[-꼬-] ㉾ 마음-고생(-苦生)
맘 : -긋 ㉾ 맘: -긋
망근 ㉾ 망건(綱巾)
망 : 녕 ㉾ 망: 령(妄靈)
망우리 ㉾ 망월-곳(望月-)
망칙-허다 ㉾ 망측-하다(罔測-)

망큼 ㉾ 만큼
 망큼 ㉾ 만큼
 맞닥떠리다[맞딱-/마딱-] ㉾ 맞닥뜨리다
 맞-대미[말때-] ㉾ 맞-대매
 맞대미-허다[말때-] ㉾ 맞대매-하다
 맞-땡기다[말-] ㉾ 맞-당기다
 맞-스다[말쓰-] ㉾ 맞-서다
 맞-순[말쓰-] ㉾ 맞-선
 맞아-틸이다 ㉾ 맞아-들이다
 말으다 ㉾ 말다
 매가리-웁다[-음따] ㉾ 맥-없다(脈-)
 매가리-웁이[-음씨] ㉾ 맥-없이(脈-)
 매끼럽다[-따] ㉾ 매끄럽다
 매끈-거리다 ㉾ 매끈-거리다
 매끈-대다 ㉾ 매끈-대다
 매끈덕-거리다[-꺼-] ㉾ 매끈-거리다
 매끈매끈-허다 ㉾ 매끌매끌-하다
 매끈-허다 ㉾ 매끈-하다
 매짚매짚-허다 ㉾ 매끌매끌-하다
 매-땡기다 ㉾ 매-달리다
 매땡기-뛰다 ㉾ 매-달리다
 매동-거리다 ㉾ 대롱-거리다
 매동-매동 ㉾ 대롱-대롱
 매렵다[-따] ㉾ 마렵다
 매아미 ㉾ 매미
 매암 ㉾ 매미
 매양-매미 ㉾ 참-매미
 매양-매암 ㉾ 참-매미
 매웁다[-따] ㉾ 맵다
 매음 ㉾ 마음
 맥기다[맥끼-] ㉾ 말기다
 맥-웁다[매급따] ㉾ 맥-없다(脈-)
 맥-웁이[매급씨] ㉾ 맥-없이(脈-)
 맥질-허다 ㉾ 맥질-하다
 맥히다 ㉾ 막히다

맨-이루 ㉾ 맨 것으로, 거저로
 맨 : -날 ㉾ 만 : -날(萬-)
 맨들다 ㉾ 만들다
 맨몸-땡이 ㉾ 맨-몸
 맨몸-땡이 ㉾ 맨-몸
 맨-바당 ㉾ 맨-바닥
 맨치 ㉾ 만큼
 맨치 ㉾ 만큼
 맨침 ㉾ 만큼
 맨침 ㉾ 만큼
 맨큼 ㉾ 만큼
 맨큼 ㉾ 만큼
 맨 : ㉾ 마음
 맨 : -가짐 ㉾ 마음-가짐
 맨- : -결[-꺄] ㉾ 마음-결
 맨 : -고상[-꼬-] ㉾ 마음-고생(-苦生)
 맨 : -껏[-꺄] ㉾ 마음-껏
 맨 : -놓다[-노타-] ㉾
 맨 : -대루 ㉾ 마음-대로
 맨 : -보[-뵤] ㉾ 마음-보
 맨 : -씨 ㉾ 마음-씨
 맨 : -자리[-짜-] ㉾ 마음-자리
 맨글다 ㉾ 만들다
 맨쟁이 ㉾ 맹꽂이
 맨-은 : -십[-느-] ㉾ 맹-연: 습(猛練習)
 맨큼 ㉾ 만큼
 맨큼 ㉾ 만큼
 머 ㉾ 뭐/무엇
 머다라 ㉾ 무엇하러
 머더라 ㉾ 무엇하러
 머더러 ㉾ 무엇하러
 머리-고땡이 ㉾ 머리-끄덩이
 머리-고딩이 ㉾ 머리-끄덩이
 머릿-지름[-릴씨-] ㉾ 머릿-기름
 머물르다 ㉾ 머무르다

머스매 ㉾ 사내-아이
 머시매 ㉾ 사내-아이
 머심 ㉾ 머슴
 머심-살이 ㉾ 머슴-살이
 머-허다 ㉾ 무엇-하다
 먹 ㉾ 멍
 먹-구렁이[-꾸-] ㉾ 먹-구렁이
 먹-구렁이[-꾸-] ㉾ 먹-구렁이
 먹-지다[-찌-] ㉾ 멍-들다
 먼처 ㉾ 먼저
 먼침 ㉾ 먼저
 먼침-번[-빰] ㉾ 먼젓-번(-番)
 멀-국 ㉾ 국물
 멀덕-국[-떡국] ㉾ 멀건 국
 멀때 ㉾ 멀대/명청이
 멀렁-감 ㉾ 물렁-감
 멀렁-거리다 ㉾ 물렁-거리다
 멀렁-대다 ㉾ 물렁-대다
 멀렁-멀렁 ㉾ 물렁-물렁
 멀렁멀렁-허다 ㉾ 물렁물렁-허다
 멀컹 ㉾ 물컹
 멀컹-거리다 ㉾ 물컹-거리다
 멀컹-대다 ㉾ 물컹-대다
 멀컹-멀컹 ㉾ 물컹-물컹
 멀컹멀컹-허다 ㉾ 물컹물컹-허다
 멀크덩-거리다 ㉾ 물컹-거리다
 멀크덩-멀크덩 ㉾ 물컹-물컹
 멧[엿] ㉾ 무엇
 멧-몰르다[먼-] ㉾ 무엇을 모르다
 멧-허다[머터-] ㉾ 무엇-하다
 멍가 ㉾ 청미래나무의 열매
 멍가-나무 ㉾ 청미래-나무
 멍가-낭구 ㉾ 청미래-나무
 멍개-떡 ㉾ 망개-떡
 멍덕 ㉾ 멍덕/누명(陋名)

멍석-팔 : 구 ㉾ 멍석-팔:기
 멍석-때꿀 ㉾ 멍석-팔:기
 멍위[멍우이] ㉾ 머위
 멍위-쌈 ㉾ 머윗잎-쌈
 멍-허니 ㉾ 멍-하니
 메 : -꼬지다 ㉾ 메어-꽃다
 메-끈지다 ㉾ 메어-꽃다
 메꾸다 ㉾ 메우다
 메 : 뿌리 ㉾ 멍둥구미/멍서리
 메누리 ㉾ 머느리
 메눈님 ㉾ 머느님
 메-때리다 ㉾ 메어-꽃다
 메띠기 ㉾ 메뚜기
 메시껍다[-따] ㉾ 메스껍다
 메식-거리다[-꺼-] ㉾ 메숙-거리다
 메식-메식[-싱-] ㉾ 메숙-메숙
 메식메식-허다[-싱-시키-] ㉾ 메숙메
 숙-하다
 메-쌔리다 ㉾ 메어-꽃다
 메-쌔리다 ㉾ 메어-꽃다
 메 : -지다 ㉾ 메워-지다
 메 : -치다 ㉾ 메어-치다
 메-패다 ㉾ 메-치다
 맥여-치다[매겨-] ㉾ 먹여-치다
 맥이다[매기-] ㉾ 먹이다
 맥이-사실[-매기-] ㉾ 먹이-사슬
 맥이-통 ㉾ 먹이-통(-桶)
 맥잇감[-매긱감] ㉾ 먹잇-감
 맥히다[매키-/멕키-] ㉾ 먹히다
 멜 : 빵-겉이 ㉾ 멜:빵-끈
 멧[엿] ㉾ 멧
 멧-도야지[엔또-] ㉾ 멧-돼지
 멍년 ㉾ 멍년(明年)
 멍단 ㉾ 멍단(名單)
 멍당 ㉾ 멍당(明堂)

명당-자리[-짜-] ㉸ 명당-자리(明堂-)

명목 ㉸ 명목(名目)

명부 ㉸ 명부(名簿)

명약 ㉸ 명-약(名藥)

명의 ㉸ 명의(名醫)

명이 ㉸ 명의(名義)

명이-인 ㉸ 명의-인(名義人)

명이-자 ㉸ 명의-자(名義者)

명인 ㉸ 명인(名人)

명절 ㉸ 명절-날(名節-)

명절-맞이 ㉸ 명절-맞이(名節-)

명절 ㉸ 명절(名節)

명줄 ㉸ 명절(名節)

명치 ㉸ 명치

명치-끝[-끝] ㉸ 명치-끝

명치-끝[-끝] ㉸ 명치-끝

명품 ㉸ 명품(名品)

명함 ㉸ 명함(名銜)

명함-판 ㉸ 명함-판(名銜判)

몇[넉] ㉸ 몇

머가지 ㉸ 모가지

머감-댕이 ㉸ 모가지

머 : -지다 ㉸ 미어-지다

머 : -터지다 ㉸ 미어-터지다

먹-젹이[-째비] ㉸ 먹살-잡이

명지 ㉸ 명주(明紬)

명지-실 ㉸ 명주-실(明紬-)

모가 ㉸ 모과(木瓜)

모가-낭구 ㉸ 모과-나무(木瓜-)

모감댕이 ㉸ 모가지

모감딩이 ㉸ 모가지

모감지 ㉸ 모가지

모갯-돈[-갯돈] ㉸ 목-돈

모거치 ㉸ 모가지

모냥 ㉸ 모양(模樣)

모냥-빠지다 ㉸ 모양이 안 좋아지다.

모대기 ㉸ 모으기

모대-놓다 ㉸ 모아 놓다

모대다 ㉸ 모으다

모대-루 ㉸ 무더기로

모대-모대 ㉸ 무더기무더기/모아모아

모대미 ㉸ 모아놓은 덩어리, 무더기

모리 ㉸ 모래

모새 ㉸ 모래

모새-땅 ㉸ 모래-땅

모새-발[-발] ㉸ 모래-발

모새-벌판 ㉸ 모래-벌판

모새-사장 ㉸ 모래-사장(-沙場)

모새-알 ㉸ 모래-알

모새-어덕 ㉸ 모래-언덕

모새-자갈 ㉸ 모래-자갈

모새-찜질 ㉸ 모래-찜질

모새-투성이 ㉸ 모래-투성이

모새-투심이 ㉸ 모래-투심이

모새-판 ㉸ 모래-판(-板)

모새-흙 ㉸ 모래-흙

모시 ㉸ 모이

모시-그륵[-끄륵] ㉸ 모이-그릇

모시-통 ㉸ 모이-통(-桶)

모이 ㉸ 무덤

모이-막 ㉸ 묘막(墓幕)

모이-지기 ㉸ 묘-지기(墓-)

모이-판 ㉸ 무덤 마당

모이-판대기 ㉸ 무덤 편더기

모이-편대기 ㉸ 무덤 편더기

모잇-자리[-일짜-] ㉸ 뒹-자리

모잇-잔등[-일짚-] ㉸ 뒹-등

모잇-잔등어리[-일짚-] ㉸ 뒹-등

모잇-잔딩이[-일짚-] ㉸ 뒹-등

모잘르다 ㉸ 모자라다

모지리 ㉾ 머저리
 모지라다 ㉾ 모자라다
 모질르다 ㉾ 모자라다
 모갱이 ㉾ 모통이/모서리
 모당 ㉾ 모탕
 모텡이 ㉾ 모통이
 모팅이 ㉾ 모통이
 목-가심[-까-] ㉾ 목-죽임
 목-구녕[-꾸-] ㉾ 목-구멍
 목-구녕[-꾸-] ㉾ 목-구멍
 목-구멍[-꾸-] ㉾ 목-구멍
 목-꼬쟁이 ㉾ 못
 목-들미[-플-] ㉾ 목-덜미
 목-말르다[몽-] ㉾ 목-마르다
 목심[-쌈] ㉾ 목숨
 목심-줄[-쌈줄] ㉾ 목숨-줄
 목자[-짜] ㉾ 목자/비석(碑石)
 목작지근-허다[-짜짜-] ㉾ 무지근-하다
 목화-성이[모과-] ㉾ 목화-송이(木花-)
 몬지 ㉾ 먼지
 몬지-바람 ㉾ 먼지-바람
 몬지-버섯[-선] ㉾ 먼지-버섯
 몬지-지둥 ㉾ 먼지-기둥
 몬지-털이개 ㉾ 먼지-떨이
 몬지-투성이 ㉾ 먼지-투성이
 몰려-대니다 ㉾ 몰려-다니다
 몰려-댕기다 ㉾ 몰려-다니다
 몰려-댕이다 ㉾ 몰려-다니다
 몰어-놓다[-느타] ㉾ 몰아-넣다
 몰쳐-댕기다 ㉾ 몰려-다니다
 몰치다 ㉾ 몰리다
 몸데기 ㉾ 먼지
 몸디기 ㉾ 먼지
 몸-땡이 ㉾ 몸-퐁이
 몸-땡이 ㉾ 몸-퐁이

몸지 ㉾ 먼지
 몸지-털이개 ㉾ 먼지-떨이
 몸지-바람 ㉾ 먼지-바람
 몸지-버섯[-선] ㉾ 먼지-버섯
 몸지-지둥 ㉾ 먼지-기둥
 몸지-투성이 ㉾ 먼지-투성이
 못-꼬쟁이[문-] ㉾ 못
 못-살다[몬살-] ㉾ 가난-하다
 몽달-구 : 신 ㉾ 몽달-귀신(-鬼神)
 몽덩이 ㉾ 몽둥이
 몽덩이-찜질 ㉾ 몽둥이-찜질
 몽딩이 ㉾ 몽둥이
 몽딩이-찜질 ㉾ 몽둥이-찜질
 목-매기[몽-] 어린 짐승
 몽우리 ㉾ 명울
 몽울 ㉾ 명울
 몽울-몽울 ㉾ 명울-명울
 몽조리 ㉾ 모조리
 몽창 ㉾ 몽땅
 뉘띠기 ㉾ 메뚜기
 뉘-스속 ㉾ 메-조
 뉘-조 ㉾ 메-조
 뉘 : -잔등[뉘짚-] ㉾ 뉘 : -등
 무거웁다[-따] ㉾ 무겁다
 무끈-허다 ㉾ 묵직-하다
 무녀-띠리다 ㉾ 무너-뜨리다
 무녀-버리다 ㉾ 무너-뜨리다
 무녀-번지다 ㉾ 무너-뜨리다
 무녀-빠리다 ㉾ 무너-뜨리다
 무녀-뻘지다 ㉾ 무너-뜨리다
 무녀-지다 ㉾ 무너-지다
 무니다 ㉾ 무느다
 무데기 ㉾ 무더기
 무듬듬-허다 ㉾ 무덤덤-하다(無-)
 무등 ㉾ 목말

무디기 ㉾ 무더기
 무디기-지다 ㉾ 무더기-지다
 무리-떡 ㉾ 무리-떡/백설기
 무수 ㉾ 무:
 무수-짐치 ㉾ 무:-김치
 무쓸 ㉾ 몹쓸
 무-승의[-/이] ㉾ 무-성의(無誠意)
 무신 ㉾ 무슨
 무-자식 ㉾ 무-자식(無子息)
 무-자숙 ㉾ 무-자식(無子息)
 무잘르다 ㉾ 모자라다
 무-저꺼 ㉾ 무-조건(無條件)
 무지라다 ㉾ 모자라다
 무지렝이 ㉾ 무지렁이
 무-표증 ㉾ 무-표정(無表情)
 묵은-시배 ㉾ 묵은-세배(-歲拜)
 묵지근-허다[-찌-] ㉾ 무지근-하다
 묶으다 ㉾ 묶다
 문구-줌 ㉾ 문구-점(文具店)
 문딩이 ㉾ 문둥이
 문장-승분 ㉾ 문장-성분(文章成分)
 문전-글식[-씩] ㉾ 문전-걸식(門前乞食)
 문전-승시 ㉾ 문전-성시(門前成市)
 문-주방[-꾸-] ㉾ 문-지방(門-)
 문즌-글식[-씩] ㉾ 문전-걸식(門前乞食)
 문즌-승시 ㉾ 문전-성시(門前成市)
 물-가생이[-까-] ㉾ 물-가
 물-갓[-깁] ㉾ 물-가
 물개-똥 ㉾ 물-똥
 물-거쿰 ㉾ 물-거품
 물-게기[-깨-] ㉾ 물-고기
 물-괘키 ㉾ 물-갈퀴
 물-괴기[-괘-] ㉾ 물고기
 물-구텡이[-꾸-] ㉾ 물-구덩이
 물-구딩이[-꾸-] ㉾ 물-구덩이

물-구신[-꾸-] ㉾ 물-귀신(-鬼神)
 물-글[-골] ㉾ 물-걸
 물-꼬추 ㉾ 물-고추
 물-데리다 ㉾ 물-들이다
 물-딜이다 ㉾ 물-들이다
 물-똥이[-똥-] ㉾ 물-똥이
 물 : 러-주다 ㉾ 물:라-주다
 물렁-빠 ㉾ 물렁-빠
 물렁-이 ㉾ 물렁-이
 물르다 ㉾ 무르다
 물르다 ㉾ 무르다
 물르다 ㉾ 무르다
 물 : 르다 ㉾ 모르다
 물렁-이 ㉾ 물렁-이
 물렁이-감 ㉾ 물렁-감
 물-맥이 ㉾ 물-막이
 물-배얌[-배-] ㉾ 무자치/물-뱀
 물-버쿰 ㉾ 물-거품
 물-베락[-베-] ㉾ 물-벼락
 물-앵경 ㉾ 물-안경(-眼鏡)
 물어-놓다[-느타] ㉾ 물어-넣다
 물-자마리 ㉾ 물-잠자리
 물-장냥 ㉾ 물-장난(-作亂)
 물-즙성[-쯔성] ㉾ 물-짐승
 물-지둥[-찌-] ㉾ 물-기둥
 물-짐성[-쯔-] ㉾ 물-짐승
 물-짐치 ㉾ 물-김치
 못[운] ㉾ 못
 못-나다[운-] ㉾ 못-나다
 못-살다[운살-] ㉾ 가난-하다
 못-허다[우터-/물터-] ㉾ 못-하다
 물-쿵텡이 ㉾ 물-구덩이
 물-쿵딩이 ㉾ 물-구덩이
 미갈-맞다[-맏따] ㉾ 밭살-맞다
 미갈-시럽다[-럽따] ㉾ 밭살-스럽다

미꾸락지[-찌] ㉾ 미꾸라지
 미끈덕-미끈덕 ㉾ 미끌-미끌
 미끈덩-미끈덩 ㉾ 미끌-미끌
 미끼러-지다 ㉾ 미끄러-지다
 미끼럼 ㉾ 미끄럼
 미끼럼-틀 ㉾ 미끄럼-틀
 미끼럼-판 ㉾ 미끄럼-판(-板)
 미끼럽다[-따] ㉾ 미끄럽다
 미끈-거리다 ㉾ 미끈-거리다
 미끈-대다 ㉾ 미끈-대다
 미끈덕-거리다 ㉾ 미끈-거리다
 미끈덩-거리다[-꺼-] ㉾ 미끈-거리다
 미끈미끈-허다 ㉾ 미끌-대다
 미끈-허다 ㉾ 미끈-하다
 미끌-거리다 ㉾ 미끌-거리다
 미끌-대다 ㉾ 미끌-대다
 미끌-미끌 ㉾ 미끌-미끌
 미끌미끌-허다 ㉾ 미끌-대다
 미다 ㉾ 미터(meter)
 미련-시럽다[-따] ㉾ 미련-스럽다
 미섭다[-따] ㉾ 무섭다
 미-승는 ㉾ 미-성년(未成年)
 미승는-자 ㉾ 미성년-자(未成年者)
 미식-거리다[-꺼-] ㉾ 메숙-거리다
 미식-미식[-싱-] ㉾ 메숙-메숙
 미식미식-허다[-싱-시커-] ㉾ 메숙메
 숙-하다
 미쟁이 ㉾ 미장이
 미타 ㉾ 미터(meter)
 믹-구녕[미꾸-/믹꾸-] ㉾ 밀-구멍
 믹-구녕[미꾸-/믹꾸-] ㉾ 밀-구멍
 믹-구떡[미꾸-/믹꾸-] ㉾ 밀-구멍
 밀-그 : 래 ㉾ 밀-거 : 래(密去來)
 밀려-대니다 ㉾ 밀려-다니다
 밀려-댁이다 ㉾ 밀려-다니다

밀어-제끼다 ㉾ 밀어-제치다
 밀-지을[-찌-] ㉾ 밀-기을
 밋[밋] ㉾ 밋
 밋[밋] ㉾ 밋
 밋짱-개[밋-] ㉾ 밋짱-개
 밋기적-거리다[-꺼-] ㉾ 밋기적-거리다
 밋기적-밋기적 ㉾ 밋기적-밋기적
 밋[몹] ㉾ 밋
 밋-짱개[밋-] ㉾ 밋짱-개
 므 : 꾸리 ㉾ 멍둥구미/멍서리
 므누리 ㉾ 멍누리
 므 : -지다 ㉾ 미어-지다
 므 : -터지다 ㉾ 미어-터지다
 므-패다 ㉾ 메-치다
 옥-잡이[-잡비] ㉾ 멍살-잡이
 은 ㉾ 면(綿)
 은 : ㉾ 면 : (面)
 은 : ㉾ 면 : (面)
 은 : ㉾ 면 : (麪)
 은 : 경 ㉾ 면경(面鏡)
 은 : 궁 ㉾ 면경(面鏡)
 은 : 담 ㉾ 면 : 담(面談)
 은 : 도 ㉾ 면 : 도(面刀)
 은 : 도-기 ㉾ 면 : 도-기(面刀器)
 은 : 도-질 ㉾ 면 : 도-질(面刀-)
 은 : 도-칼 ㉾ 면 : 도-칼(面刀-)
 은 : 돛-날[-돈-] ㉾ 면 : 도-날(面刀-)
 은 : 류[-뉴] ㉾ 면류(麵類)
 은 : 마 ㉾ 면 : 마(面馬)
 은-빨 ㉾ 면-발(麪-)
 은 : -사무소[-싸-] ㉾ 면 : -사무소(面
 事務所)
 은 : 사-포 ㉾ 면 : 사-포(面紗布)
 은 : 상 ㉾ 면 : 상(面上)
 은 : 상 ㉾ 면 : 상(面相/面像)

은 : 상 [표 면:상(面象)]
 은 : -서기[-씨-] [표 면:-서기(面書記)]
 은 : -스기[-쓰-] [표 면:-서기(面書記)]
 은 : 세 [표 면:세(免稅)]
 은 : 세-점 [표 면:세-점(免稅點)]
 은 : 세-점 [표 면:세-점(免稅點)]
 은 : 세-품 [표 면:세-품(免稅品)]
 은 : 수[-수] [표 면:수(面數)]
 은 : 양증-가 [표 면양정-가(俛仰亭歌)]
 은 : 액 [표 면:액(免厄)]
 은 : 장 [표 면:장(面長)]
 은 : 직 [표 면:직]
 은 : 즉 [표 면:직]
 은 : 전 [표 면:전(面前)]
 은 : 존 [표 면:전(面前)]
 은 : 제 [표 면:제(免除)]
 은-제품 [표 면-제품(綿製品)]
 은 : 죄 [표 면:죄(免罪)]
 은 : 죄-부 [표 면:죄-부(免罪符)]
 은-지품 [표 면-제품(綿製品)]
 은 : 직 [표 면:직(免職)]
 은직-물 [표 면직-물(綿織物)]
 은 : 책 [표 면:책(免責)]
 은 : 촌 [표 면:천(免賤)]
 은포 [표 면포(綿布)]
 은 : 포 [표 면:포(面包)]
 은 : 피 [표 면:피(免避)]
 은 : -허다 [표 면:-하다(免-)]
 은 : 학 [표 면:학(勉學)]
 은 : 허 [표 면:허(免許)]
 은화 [표 면화(棉花)]
 은 : 화 [표 면:화(免禍)]
 은 : 흐[으느] [표 면:허(免許)]
 을구 [표 멸구]
 을균 [표 멸균(滅菌)]

을망 [표 멸망(滅亡)]
 을문 [표 멸문(滅門)]
 을문지-화 [표 멸문지-화(滅門之禍)]
 을사봉 : 공[-씨-] [표 멸사봉:공(滅私奉公)]
 을살[-살] [표 멸살(滅殺)]
 을악-산[-산] [표 멸악-산(滅惡山)]
 을절[-절] [표 멸절(滅絕)]
 을족[-족] [표 멸족(滅族)]
 을종[-종] [표 멸종(滅種)]
 을즐[-즐] [표 멸절(滅絕)]
 을-허다[으러-] [표 멸-하다(滅-)]
 응 [표 명(名)]
 응 [표 명(名)]
 응 : [표 명:(命)]
 응가 [표 명가(名家)]
 응가 [표 명가(名歌)]
 응검 [표 명검(名劍)]
 응경-대 [표 명경-대(明鏡臺)]
 응계 [표 명계(冥界)]
 응곡 [표 명곡(名曲)]
 응관 [표 명관(名官)]
 응관 [표 명관(明官)]
 응국 [표 명국(名局)]
 응군 [표 명군(名君)]
 응군 [표 명군(明君)]
 응궁 [표 명궁(名弓)]
 응기 [표 명기(名妓)]
 응기 [표 명기(明記)]
 응-나라 [표 명-나라(明-)]
 응는 [표 명년(明年)]
 응단 [표 명단(名單)]
 응답 [표 명답(名答)]
 응랑-허다 [표 명랑-하다(明朗-)]
 응리 [표 명리(名利)]
 응 : 맥 [표 명:맥(命脈)]

응멸 ㉾ 명멸(明滅)
응명 ㉾ 명명(命名)
응목 ㉾ 명목(名目)
응물 ㉾ 명물(名物)
응민-허다[-/-미너-] ㉾ 명민-허다(明敏-)
응물 ㉾ 명멸(明滅)
응응 ㉾ 명명(命名)
응응-백백[-백] ㉾ 명명-백백(明明白白)
응백-허다[-배커] ㉾ 명백-허다(明白-)
응복 ㉾ 명복(冥福)
응부 ㉾ 명부(名簿)
응분 ㉾ 명분(名分)
응사 ㉾ 명사(名士)
응사 ㉾ 명사(名詞)
응산 ㉾ 명산(名山)
응산-대 : 천 ㉾ 명산-대천(名山大川)
응산-대 : 촌 ㉾ 명산-대천(名山大川)
응-산지 ㉾ 명-산지(名產地)
응상 ㉾ 명상(冥想, 瞑想)
응색 ㉾ 명색(名色)
응석-허다[-커-] ㉾ 명석-허다(明哲-)
응성 ㉾ 명성(名聲)
응세 ㉾ 명세(明細)
응세-서 ㉾ 명세-서(明細書)
응소 ㉾ 명소(名所)
응수 ㉾ 명수(名手)
응수[-수] ㉾ 명수(名數)
응승-고적 ㉾ 명승-고적(名勝古蹟)
응승-지 ㉾ 명승-지(名勝地)
응시 ㉾ 명시(明示)
응시 ㉾ 명시(名詩)
응시-스 ㉾ 명시-스(名詩選)
응신 ㉾ 명신(名臣)
응 : -실[-썰] ㉾ 명-실(命-)

응실-상부 ㉾ 명실-상부(名實相符)
응안 ㉾ 명안(名案)
응암 ㉾ 명암(明暗)
응약 ㉾ 명-약(名藥)
응약관화[-관-] ㉾ 명약관화(明若觀火)
응언 ㉾ 명언(名言)
응예 ㉾ 명예(名譽)
응예-럽다[-따] ㉾ 명예-롭다(名譽-)
응예-심 ㉾ 명예-심(名譽心)
응예-욕 ㉾ 명예-욕(名譽慾)
응예-직 ㉾ 명예-직(名譽職)
응 : 운 ㉾ 명 : 운(命運)
응월 ㉾ 명월(明月)
응유 ㉾ 명유(名儒)
응은 ㉾ 명언(名言)
응의 ㉾ 명의(名醫)
응이 ㉾ 명의(名義)
응이-인 ㉾ 명의-인(名義人)
응이-자 ㉾ 명의-자(名義者)
응인 ㉾ 명인(名人)
응작 ㉾ 명작(名作)
응장 ㉾ 명장(名將)
응장 ㉾ 명장(名匠)
응족 ㉾ 명족(名族)
응주 ㉾ 명주(明紬)
응주-실 ㉾ 명주-실(明紬-)
응 : -줄[-쫄] ㉾ 명 : -줄(命-)
응 : 중 ㉾ 명 : 중(命中)
응절 ㉾ 명절(名節)
응 : 찰 ㉾ 명찰(名札)
응창 ㉾ 명창(名唱)
응철-허다 ㉾ 명철-허다(明哲-)
응치 ㉾ 명치
응치-끗[-끈] ㉾ 명치-끝
응치-끝[-끈] ㉾ 명치-끝

응칭 ㉾ 명칭(名稱)
응쾌-허다 ㉾ 명쾌-허다(明快-)
응패 ㉾ 명패(名牌)
응품 ㉾ 명품(名品)
응필 ㉾ 명필(名筆)
응필-가 ㉾ 명필-가(名筆家)
응현 ㉾ 명현(名賢)
응현 ㉾ 명현(明賢)
응호 ㉾ 명호(名號)
응혼 ㉾ 명혼(冥婚)
응흔 ㉾ 명현(名賢)
응흔 ㉾ 명현(明賢)

ㅂ

바 : ㉾ 발:
바 : 재미 ㉾ 바:구미
바구리 ㉾ 바구리
바 : 그미 ㉾ 바:구미
바-고름 ㉾ 밥-그릇
바누-질 ㉾ 바누-질
바늘 ㉾ 바늘
바늘-귀 [-귀/-끼] ㉾ 바늘-귀
바늘-밥 [-뽕] ㉾ 바늘-밥
바늘-방석 [-/-뽕-] ㉾ 바늘-방석(-方席)
바늘-구녕 [-꾸-] ㉾ 바늘-구멍
바늘-구녕 [-꾸-] ㉾ 바늘-구멍
바늘-구멍 [-꾸-] ㉾ 바늘-구멍
바늘-땀 ㉾ 바늘-땀
바다리 ㉾ 바더리
바람-박 [-뽕] ㉾ 바람-벽(-壁)
바러다 ㉾ 바라다
바러-보다 ㉾ 바라-보다
바루 ㉾ 바로
바른-질 ㉾ 바른-길

바당 ㉾ 바당
바 : -수거리 ㉾ 발채
바시락-거리다 [-꺼-] ㉾ 바스락-거리다
바시락-대다 [-때] ㉾ 바스락-대다
바시락-바시락 ㉾ 바스락-바스락
바심-허다 ㉾ 바심-허다
바지게 ㉾ 발채
바지-저구리 ㉾ 바지-저고리
바탕이 ㉾ 항아리의 한 갈래
반-굉일 ㉾ 반-공일(半空日)
반-명함판 ㉾ 반-명함판(半名銜判)
반-용함판 ㉾ 반-명함판(半名銜判)
반 : -슴 ㉾ 반:-섬(半-)
반증 ㉾ 반점(飯店)
반 : -짜 ㉾ 반:-쪽(半-)
발 : ㉾ 바
발가-생이 ㉾ 발가-숭이
발-거리 ㉾ 발-거리
발거리-치다 ㉾ 발거리를 놓다.
발-꼬락 ㉾ 발-가락
발꼬락-빼 ㉾ 발가락-빼
발매-허다 ㉾ 발매-허다(發賣-)
발목-쟁이 [-쟁-] ㉾ 발-모가지
발-머가지 ㉾ 발-모가지
발-므가지 ㉾ 발-모가지
발-바당 [-빠-] ㉾ 발-바당
발브다 ㉾ 발:다
발-심 [-쌩] ㉾ 발-힘
발써 ㉾ 벌써
발-자치 ㉾ 발-자취
발-질 [-짚] ㉾ 발-길
발-짜기 ㉾ 발-자국
밝으다 ㉾ 밝다
밝 : 다[발 : 따] ㉾ 밝:다[발 : 따]
밤-송아리 ㉾ 밤-송이

밤-성이 [표] 밤-송이
 밤-질[-질] [표] 밤-길
 밤-그릅[바꼬-] [표] 밤-그릇
 밤-따깁 [표] 밤-뚜껑
 밤-따깁이 [표] 밤-뚜껑
 밤-수갈[-수-] [표] 밤-순가락
 밤-텅이 [표] 밤-통
 밤-팅이 [표] 밤-통
 밧[밭] [표] 밧
 밧-고랑텅이[밭꼬-] [표] 밧-고랑
 밧-고랑텅이[밭꼬-] [표] 밧-고랑
 밧-질[밭질] [표] 밧-길
 방구다 [표] 방이다
 방-구들(房-)[-구-] [표] 구들
 방-짱(房-) [표] 구들-장
 방망이 [표] 방망이
 방망이-질 [표] 방망이-질
 방-바당[-빠-] [표] 방-바닥(房-)
 방-빗자락[-빠짜-/뽕짜-] [표] 방-비
 발다[발따-] [표] 발다
 발-질[밭질] [표] 밧-길
 배갈[-갈] [표] 바갈
 배갈-냥반[-갈-] [표] 바갈-양반(-兩班)
 배갈-마당[-갈-] [표] 바갈-마당
 배갈-말래[-갈-] [표] 바갈 마루
 배갈-문[-갈-] [표] 바갈-문(-門)
 배갈-바람[-갈빠-] [표] 바갈-바람
 배갈-방[-갈뽕] [표] 바갈-방(-房)
 배갈-사둔[-갈싸-] [표] 바갈-사둔(-査頓)
 배갈-손님[갈쓴-] [표] 바갈-손님
 배갈-시 : 상[-갈씨-] [표] 바갈-세 : 상
 (-世上)
 배갈-일[-갈닐] [표] 바갈-일
 배갈-짹[-갈] [표] 바갈-쪽
 배갈-채[-갈-] [표] 바갈-채

배갈-출입 [표] 바갈-출입(-出入)
 배끼 [표] 박에
 배람-박[-박] [표] 바람-벽(-壁)
 배람-박 [표] 바람-벽(-壁)
 배삭 [표] 바삭
 배얌 [표] 뱀
 배얌-딸 : 구 [표] 뱀-딸:기
 배얌-때꿀 [표] 뱀-딸:기
 배 : 차 [표] 배:추
 배차-고뱅이[-꼬-] [표] 배추-고갱이
 배 : 차-꽃[-곧] [표] 배:추-꽃
 배 : 차-공댕이 [표] 배:추-꼬랑이
 배 : 차-밧[-밭] [표] 배:추-밭
 배 : 차-밭[-밭] [표] 배:추-밭
 배 : 차-쌈 [표] 배:추-쌈
 배 : 차-집치 [표] 배:추-김치
 배 : 찻-국[-꼭/-작꼭] [표] 배:춧-국
 배 : 찻-속[-찰씩] [표] 배춧-속
 배 : 찻-잎[-찬닙] [표] 배추 잎
 배-팅기다 배짱을 부리다
 백목[백-] [표] 백목(白墨)
 백-무리[백-] [표] 백-설기(白-)
 백무리-떡[백-] [표] 백설기(白-)
 백오동 [표] 벽오동-나무(碧梧桐-)
 백오동-나무 [표] 벽오동-나무(碧梧桐-)
 백오동-낭구 [표] 벽오동-나무(碧梧桐-)
 백이다 [표] 박히다
 백화-즘[백과-] [표] 백화-점(百貨店)
 백히다[백기-] [표] 박히다
 백[백] [표] 박
 버개 [표] 베개
 버걱 [표] 보국
 버두-나무 [표] 버드-나무
 버두-낭구 [표] 버드-나무
 버들-가쟁이 [표] 버들-개지

버들-가징이 〔표〕 버들-개지
 버들-낭구 〔표〕 버드-나무
 버들-잎[-닙/-립] 〔표〕 버들-잎
 버들-잎새[-립새] 〔표〕 버들-잎
 버짐 〔표〕 버짐
 버르-쟁이 〔표〕 버르-장이
 버릇-없다[-를음따] 〔표〕 버릇-없다
 버리-쟁이 〔표〕 버르-장이
 버버-거리다 〔표〕 버벅-거리다
 버시력-거리다[-꺼-] 〔표〕 버스력-거리다
 버시력-대다 〔표〕 버스력-대다
 버시력-버시력 〔표〕 버스력-버스력
 버썩 〔표〕 버썩
 버썩-버썩 〔표〕 버쩍-버쩍
 버터 〔표〕 부터
 버털 〔표〕 부터
 버팀-뚝[-뚝] 〔표〕 버팀-돌
 버팅기다 〔표〕 버티다
 벅겨-내다[벅꺼-] 〔표〕 벗겨-내다
 벅겨-지다[벅꺼-] 〔표〕 벗겨-지다
 벅기다[벅끼-] 〔표〕 벗기다
 번대기 〔표〕 번대기
 번지다 〔표〕 버리다
 벌거-생이 〔표〕 벌거-숭이
 벌거지 〔표〕 버러지
 벌레-팅이 〔표〕 벌레-통이
 벌 : 벌-허다 〔표〕 벌벌-떨다
 베 〔표〕 벼
 베라-벨 〔표〕 벌의-벌
 베라-벌[-비을] 〔표〕 벌의-벌
 베란-간 〔표〕 벌안-간(瞥眼間)
 베란간-이[-/-랑-] 〔표〕 벌안간-에(瞥眼間-)
 베랑-간 〔표〕 벌안-간(瞥眼間)
 베락 〔표〕 벼락

베락-맞다[-말따] 〔표〕 벼락-맞다
 베락-치기 〔표〕 벼락-치기
 베랑 〔표〕 벼랑
 베랑 〔표〕 별로
 베려-번지다 〔표〕 버리다
 베루 〔표〕 벼루
 베룻-뚝[-를뚝] 〔표〕 버룻-돌
 베리다 〔표〕 버리다
 베리다 〔표〕 버리다/틀어지다
 베-멸구 〔표〕 벼-멸구
 베슬 〔표〕 벼
 베슬 〔표〕 벼슬
 베슬-질[-질] 〔표〕 벼슬-길
 베슬-살이[-사리] 〔표〕 벼슬-살이
 베슬-아치[-시라-] 〔표〕 벼슬-아치
 베슬-자리[-짜-] 〔표〕 벼슬-자리
 베슬-허다 〔표〕 벼슬-하다
 베실 〔표〕 벼
 베실 〔표〕 벼슬
 베실-질[-질] 〔표〕 벼슬-길
 베실-살이 〔표〕 벼슬-살이
 베실-아치 〔표〕 벼슬-아치
 베실-자리[-짜-] 〔표〕 벼슬-자리
 베실-허다 〔표〕 벼슬-하다
 베-토매[베-/뽀-] 〔표〕 벼-단
 벅겨-내다[벅꺼-] 〔표〕 벗겨-내다
 벅겨-지다[벅꺼-] 〔표〕 벗겨-지다
 벅기다[-끼-] 〔표〕 벗기다
 벅-돌[-뚝] 〔표〕 벼-돌(壁-)
 벨-귀 : 경[-귀-/-기-] 〔표〕 벌-구: 경(別-)
 벨-꿀 〔표〕 벌-꿀(別-)
 벨-눔[-름] 〔표〕 벌-눔
 벨-다르다 〔표〕 벌-다르다(別-)
 벨도[-또] 〔표〕 벌도(別途)

벨-도리 [표] 벨-도리(別道理)
벨-돈(別-) 벨도의 돈
벨루 [표] 벨로
벨르다 [표] 버르다
벨-말 [표] 벨-말(別-)
벨-말씀 [표] 벨-말씀(別-)
벨-맛[-안] [표] 벨-맛(別-)
벨-문제 [표] 벨-문제(別問題)
벨벨 [표] 별별(別別)
벨-사람 [표] 벨-사람(別-)
벨-소리 [표] 벨-소리(別-)
벨-수 [표] 벨-수(別-)
벨-수단 [표] 벨-수단(別手段)
벨-시럽다[-따] [표] 벨-스럽다(別-)
벨-일[-닐] [표] 벨-일(別-)
벨장[-짱] [표] 별장(別莊)
벨장-지기[-짱-] [표] 별장-지기(別莊-)
벨증[-짱-] [표] 별정(別定)
벵-쌀 [표] 벵-쌀
벵-씨 [표] 벵-씨
벵-가리[벵까-] [표] 벵-가리
벵겨-내다[벵겨-] [표] 벵겨-내다
벵겨-지다[벵겨-] [표] 벵겨-지다
벵기다[벵끼-] [표] 벵기다
벵-단[벵딤] [표] 벵-단
벵-동[벵똥] [표] 벵의 동
벵-동가리[벵똥-] [표] 벵의 동가리
벵-섬[벵섬] [표] 벵-섬
벵-습[벵섬] [표] 벵-섬
벵-짚[벵짚] [표] 벵-짚
벵어 [표] 벵어
벼 : [표] 벼
벼개 [표] 벼개
벼 : -먹다[-따] [표] 벼어 먹다
벼 : -지다 [표] 벼다

벌르다 [표] 버르다
병-따깁 [표] 병-뚜껑
병-따깁이 [표] 병-뚜껑
병 : -주거리 [표] 병:-주머니(病-)
병 : -주거리 [표] 병:-주머니(病-)
보리-감자 [표] 감자
보리-토매 [표] 보릿-단
보리-꺼럭 [표] 보리-까락
보릿-저[-릴찌] [표] 보릿-겨
보릿-지울[-릴찌-] [표] 보리-기울
보-맥이 [표] 보-막이(湫-)
보 : 물-습[-쌈] [표] 보:물-섬(寶物-)
보새기 [표] 보시기
보십 [표] 보습
보재기 [표] 보자기(褌子-)
보태기 [표] 더하기
보팅이 [표] 보통이(褌-)
보푸래기 [표] 보푸라기
복사[-싸] [표] 복숭아
복사-나무[-싸-] [표] 복숭아-나무
복사-낭구[-싸-] [표] 복숭아-나무
복사-꽃[-싸꽃] [표] 복숭아-꽃
복사-뼈[-싸-] [표] 복사-뼈
복사-씨[-싸-] [표] 복숭아-씨
봄-늬 : [표] 봄-누에
봄-벵[-벵] [표] 봄-별
봄-출 [표] 봄-철
봉어리 [표] 봉우리
봉창 [표] 호주머니
볶기 싫다 [표] 보기 싫다
볶 : -주다 [표] 보여 주다
부담-시럽다[-따] [표] 부담-스럽다(負擔-)
부 : 도 [표] 포도(葡萄)/산포도(山葡萄)
부라우쓰 [표] 블라우스(blouse)
부레끼 [표] 브레이크(brake)

부리키다 ㅍ 부르뜨다
 부뭇-님[-문-] ㅍ 부모-님(父母-)
 부셔-지다 ㅍ 부서-지다
 부속-승분 ㅍ 부속-성분(附屬成分)
 부수수 ㅍ 부스스
 부수수-허다 ㅍ 부스스-하다
 부시다 ㅍ 부수다
 부시-땡이 ㅍ 부지깽이
 부시래기 ㅍ 부스러기
 부시력 ㅍ 부스럭
 부시력-거리다[-꺼-] ㅍ 부스럭-거리다
 부시력-대다[-때-] ㅍ 부스럭-대다
 부시력-부시력 ㅍ 부스럭-부스럭
 부시력지[-찌] ㅍ 부스러기
 부시럼 ㅍ 부스럼
 부시시 ㅍ 부스스
 부시시 불꽃이 스러지는 소리
 부시시-허다 ㅍ 부스스-하다
 부지-땡이 ㅍ 부지깽이
 부진-부진 ㅍ 부득부득
 부집다[-따] ㅍ 부딪다/부딪치다
 부 : -허다 ㅍ 부풀다
 북생이[-쌩-] ㅍ 북승이
 불다 ㅍ 벌:다
 불 다리다 ㅍ 불을 땡기다
 불불-거리다 ㅍ 벌벌-거리다
 불불-대다 ㅍ 벌벌-대다
 불불-허다 ㅍ 벌벌-대다
 불-승 : 실[-쓰-] ㅍ 불-성 : 실(不誠實)
 불심-금 : 문[-쌩-] ㅍ 불심-검 : 문(不
 審檢問)
 불-쌍놈 ㅍ 불-상놈(-常-)
 불어-놓다[-느타] ㅍ 불어-넣다
 불-여수[-녀-/-러-] ㅍ 불-여우
 불-장냥 ㅍ 불-장난

붉은-팻[-팻] ㅍ 붉은-팔
 불어-다리다 ㅍ 불다
 불어-대니다 ㅍ 불어-다니다
 불어-대리다 ㅍ 불다
 불어-댕기다 ㅍ 불어-다니다
 불어-댕이다 ㅍ 불어-다니다
 불-잡히다[부째피-] ㅍ 붙-잡히다
 뷁 : -데기[-때-] ㅍ 부엌-데기
 뷰 : ㅍ 봐요
 비누-거품 ㅍ 비누-거품
 비누-깍 ㅍ 비누-깍
 비누-꽝 ㅍ 비누-깍
 비니루 ㅍ 비닐(vinyl)
 비다 ㅍ 보다
 비 : 다 ㅍ 베:다
 비 : 다 ㅍ 베:다
 비 : 단-글[-글] ㅍ 비:단-결
 비듬 ㅍ 비름
 비듬-나물 ㅍ 비름
 비력-질[-질] ㅍ 비력-질
 비력-질[-질] ㅍ 비력-질
 비리다 ㅍ 버리다
 비-서르지 ㅍ 비-설거지
 비알 ㅍ 비탈
 비알-지다 ㅍ 비탈-지다
 비알-질[-질] ㅍ 비탈-길
 비알-밭[-밭] ㅍ 비탈-밭
 비우 ㅍ 비위(脾胃)
 비우-짱 ㅍ 비위(脾胃)
 비젓-비젓[-절-절] ㅍ 비숫-비숫
 비젓비젓-허다[-절-저터-/-절-절터-]
 ㅍ 비숫비숫-하다
 비젓-허다[-저터-/-절터-] ㅍ 비숫-
 하다
 비 : -증상 ㅍ 비 : -정상(非正常)

비-출 [표 비-출(非-)]
빈-털레미 [표 빈-털터리]
빔-물 [빔-] [표 빗-물]
빔물-받이 [빔-바지] [표 빗물-받이]
빔-방울 [빔방-] [표 빗-방울]
빗-데미 [빔데미-] [표 빗-데미]
빗자락 [비짜-] [표 비-]
빗자락-질 [-짜-질] [표 비-질]
빗자락질-허다 [-짜-질-] [표 비질-허다]
빙아리 [표 병아리]
브 [표 버]
브라-불 [표 별의-별]
브란-간 [-/-랑-] [표 별안-간(瞥眼間)]
브란간-이 [-/-랑-] [표 별안간-에(瞥眼間-)]
브랑 [표 별루]
브루 [표 버루]
브리다 [표 버리다]
벽 : -돌 [-돌] [표 벽-돌(壁-)]
벽장 [-짱] [표 벽장(壁幃)]
븐 : 덕 [표 변:덕(變德)]
븐 : 덕-꾸리기 [표 변:덕-꾸리기(變德-)]
븐 : 덕-맞다 [-따] [표 변:덕-맞다(變德-)]
븐 : 덕-쟁이 [-쟁-] [표 변:덕-쟁이(變德-)]
븐 : 득 [표 변:덕(變德)]
븐 : 득-꾸리기 [표 변:덕-꾸리기(變德-)]
븐 : 득-맞다 [-따] [표 변:덕-맞다(變德-)]
븐 : 득-시럽다 [-씨-따] [표 변:덕-스
 럽다(變德-)]
븐 : 득-쟁이 [-쟁-] [표 변:덕-쟁이(變德-)]
븐 : 소 [표 변소(便所)]

븐즐 [표 변절(變節)]
븐즐-자 [-짜] [표 변절-자(變節者)]
븐즐-허다 [표 변절-허다(變節-)]
블-기 : 궁 [표 별-구:경]
블 : -골 [표 별-골]
블 : -나라 [표 별:-나라]
블-눔 [-룸] [표 별-눔]
블-다르다 [표 별-다르다(別-)]
블도 [-또] [표 별도(別途)]
블-도리 [표 별-도리(別道理)]
블-돈 (別-)[-똥] [표 별도의 돈]
블 : -똥 [표 별-똥]
블루 [표 별로]
블르다 [표 버르다]
블-말 [표 별-말(別-)]
블-말씀 [표 별-말씀(別-)]
블-맛 [-맛] [표 별-맛(別-)]
블-문제 [표 별-문제(別問題)]
블블 [표 별별(別別)]
블-사람 [표 별-사람(別-)]
블-소리 [표 별-소리(別-)]
블-수 [표 별-수(別-)]
블-수단 [표 별-수단(別手段)]
블-시계 [표 별-세계(別世界)]
블-시럽다 [-따] [표 별-스럽다(別-)]
블-일 [-닐] [표 별-일(別-)]
블장 [-짱] [표 별장(別莊)]
블장-지기 [-짱-] [표 별장-지기(別莊-)]
블존 [-존] [표 별전(別殿)]
블 : -즘 [-쯘] [표 별-점(-占)]
블-춘지 [표 별-천지(別天地)]
븨-쌀 [표 뷨-쌀]
븨-씨 [표 뷨-씨]
븨-가리 [븨까-] [표 뷨-가리]
븨-짚 [븨짚] [표 뷨-짚]

붕아리 [표] 병아리
붕어 [표] 병어
붕 : -주거리 [표] 병: -주머니(病-)
붕 : -주가리 [표] 병: -주머니(病-)
빠뜨리다 [표] 빠뜨리다
빠수다 [표] 빵다/바수다
빠시다 [표] 빵다/바수다
빠 : 치다 [표] 빠뜨리다
박치기 [표] 박치기
반똥-허다 [-뜨터-] [표] 반똥하다/가지
 런하다
반똥-이 [표] 반똥이/똥바로
반쓰 [표] 팬티(panties)
빨가다 [표] 빨강다
빨가-벗다 [-벗따] [표] 발가-벗다
빨가-생이 [표] 빨가-승이
빨개-벽기다 [-벽끼-] [표] 발가-벗기다
빨개-벗다 [-벗따] [표] 발가-벗다
빨개-벧기다 [-벧끼-] [표] 발가-벗기다
빨랑 [표] 빨리
빨랑-빨랑 [표] 빨리빨리
빨랑-허다 [표] 빨리-허다
빨랙-감 [-강] [표] 빨렛-감
빨랩-물 [-랩-] [표] 빨렛-물
빨랩-비누 [-빼-] [표] 빨렛-비누
빨렛-방맹이 [-래빵-/랩빵-] [표] 빨렛-
 방망이[-래빵-/괘빵-]
빨렛-돌 [-래-똥] [표] 빨렛-돌
빨르다 [표] 빠르다
빼기 [표] 밖에
빼니 [표] 밖에
빼삭 [표] 바삭
빼짱 [표] 배짱/비쩍
빼쪽-허다 [-커다] [표] 빼쪽-허다
팽이 [표] 팡이

팽이-채 [표] 팡이-채
팽이-치기 [표] 팡이-치기
팽이-치다 [표] 생고생을 하다
뺨-따구 [표] 뺨-따귀
뺨-때기 [표] 뺨
뺨개다 [표] 빠개다/뽀개다
뺨그리-지다 [표] 어그리-지다
뺨그리다 [표] 어그리-뜨리다
뺨팅기다 [표] 버티다
뺨똥-허다 [-뜨터-] [표] 번똥하다
뺨지다 [표] 버리다
뺨[뺨] [표] 버찌
뺨-꽃 [뺨꽃] [표] 뺨-꽃
뺨-나무 [뺨-] [표] 뺨-나무
뺨-낭구 [뺨-] [표] 뺨-나무
뺨-다구 [표] 뺨-다귀
뺨다구-국 [-꼭] [표] 뺨다귀-국
뺨-다구 [-따-] [표] 뺨-다귀
뺨-대기 [-때-] [표] 뺨-다귀
뺨대기-국 [-때-꼭] [표] 뺨다귀-국
뺨물다 [표] 날이 깨지다, 상하다
뺨 [표] 뺨
뺨-끝 [-끝] [표] 뺨-끝
뺨-다구 [표] 뺨-다귀
뺨-도장 [표] 뺨-도장(圖章)
뺨-마디 [표] 뺨-마디
뺨물다 [표] 뺨물다
뺨물다 [표] 날이 상하다
뺨-빠지다 [표] 뺨-빠지다
뺨-아프다 [표] 뺨-아프다
뺨-저리다 [표] 뺨-저리다
뺨-가루 [-까] [표] 뺨-가루
뺨-골 [-골] [표] 뺨-골
뺨-다구 [-따-] [표] 뺨-다귀
뺨-가루 [뺨까-] [표] 뺨-가루

벧-골[벧골/벧골] ㉾ **벧-골**
벧-똥[벧-] ㉾ **피-똥**
벧똥-싸다[벧-] ㉾ **피똥-싸다**
벧-속[벧속] ㉾ **벧-속**
벧-조각[벧조-] ㉾ **벧-조각**
뽑히다[빼피-/뽑피-] ㉾ **뽑히다**
뽕 : 끼 ㉾ **페인트**(paint)
뽕드락지[-찌] ㉾ **뽕두락지**
뽕로지 ㉾ **뽕루지**
뽕루수 ㉾ **보리수**(菩提樹)
뽕루수-나무 ㉾ **보리수-나무**(菩提樹-)
뽕루수-낭구 ㉾ **보리수-나무**(菩提樹-)
뽕리수 ㉾ **보리수**(菩提樹-)
뽕-때 ㉾ **본-새/본-때**(本-)
뽕-뜨다 ㉾ **본-뜨다**(本-)
뽕-잎새[-닙새] ㉾ **뽕-잎**
뽕-잎새기[닙새-] ㉾ **뽕-잎**
뿌니 ㉾ **밖에**
뿌럭지[-찌] ㉾ **뿌리**
뿌레기 ㉾ **뿌리**
뿌렁이 ㉾ **뿌리**
뿌리기 ㉾ **뿌리**
뿌링이 ㉾ **뿌리**
뽕질르다 ㉾ **분지르다**
빼돌-빼돌 ㉾ **빼돌-빼돌**
빼돌빼돌-허다 ㉾ **빼돌빼돌-허다**
뽕 ㉾ **뽕**
뽕-다구 ㉾ **뽕**
뽕-마디 ㉾ **뽕**
뽕-빠지다 ㉾ **뽕-빠지다**
뽕-가루[뽕까-] ㉾ **뽕-가루**
뽕아리 ㉾ **뽕아리**



사갓[-갓] ㉾ **삿갓**
사날 ㉾ **사나흘**
사-내끼 ㉾ **새끼**
사내-자식 ㉾ **사내-자식**(-子息)
사내-자숙 ㉾ **사내-자식**(-子息)
사둔 ㉾ **사둔**(查頓)
사둔-댁[-떡] ㉾ **사둔-댁**(查頓宅)
사랑-시럽다[-따] ㉾ **사랑-스럽다**
사라-지다 ㉾ **사라-지다**
사실 ㉾ **사슬**
사우 ㉾ **사위**
사 : 촌 ㉾ **사: 촌**(四寸)
사 : 촌-영아 ㉾ **사: 촌-형**(四寸兄)
사철 ㉾ **사철**(四-)
사철-나무 ㉾ **사철-나무**(四-)
사치-시럽다[-따] ㉾ **사치-스럽다**(奢
 侈-)
사 : 팔-띠기 ㉾ **사: 팔-뜨기**
사회-은 ㉾ **사회-면**(社會面)
사흔-부 ㉾ **사헌-부**(司憲府)
삭정-이[-쟁-] ㉾ **삭정-이**
삭장-이[-쟁-] ㉾ **삭정-이**
산-가생이[-까-] ㉾ **산의 부근**
산감 ㉾ **산감**(山監)
산-고랑[-꼬-] ㉾ **산-골/산-골짜기**
산-고랑텨이[-꼬-] ㉾ **산-골짜기**
산-고랑텨이[-꼬-] ㉾ **산-골짜기**
산-데미[-떼-] ㉾ **산-데미**
산-등배기[-똥-] ㉾ **산-등성이**(山-)
산-디미[-따-] ㉾ **산-데미**(山-)
산-딸 : 구 ㉾ **산-딸:기**
산-말랭이 ㉾ **산-마루**(山-)
산-모퉁이 ㉾ **산-모퉁이**(山-)

산-봉어리 ㉾ 산-봉우리(山-)
 산 : -비알[-뻘-] ㉾ 산-비탈(山-)
 산 : -어덕 ㉾ 산-언덕(山-)
 산-짐성[-짚성] ㉾ 산-짐승(山-)
 산-질[-짚] ㉾ 산-길(山-)
 산-짐성[-짚성] ㉾ 산-짐승(山-)
 산-토갱이 ㉾ 산-토끼(山-)
 산-퇴갱이 ㉾ 산-토끼(山-)
 산-퇴끼 ㉾ 산-토끼(山-)
 산화-출[-/사놉-] ㉾ 산화-철(酸化鐵)
 살-가지 ㉾ 살-쟁이
 살갓[-깁] ㉾ 살갓
 살-글[-글] ㉾ 살-결
 살므다 ㉾ 삶:다
 살-케기 ㉾ 살코기
 살-꾀기 ㉾ 살코기
 살 : -질[-짚] ㉾ 살:-길
 삼춘 ㉾ 삼춘(三寸)
 삼태미 ㉾ 삼태기
 삼태미-그물 ㉾ 삼태-그물
 삼-바[-뻘] ㉾ 살-바
 샷-내끼[산-] ㉾ 새끼
 상 : 감 ㉾ 산감(山監)
 상-거리 ㉾ 삼-거리(三距離)
 상-그 : 래 ㉾ 상-거:래(商去來)
 상 : 낭 ㉾ 상:량(上樑)
 상 : 낭-문 ㉾ 상:량-문(上樑文)
 상 : 낭-보[-뻘] ㉾ 상:량-보(上樑-)
 상 : 낭-식 ㉾ 상:량-식(上樑式)
 상 : -빨 상:-길
 상즌 ㉾ 상전(上典)
 상-지[-찌] ㉾ 상-계(喪契)
 상 : -질[-짚] ㉾ 상:-길(上-)
 상 : -짜 상:-길(上-)
 상포-지[-찌] ㉾ 상포-계(喪布契)

새 : -가심 ㉾ 새:-가슴
 새금-파리 ㉾ 사금-파리
 새금-팽이 ㉾ 사금-파리
 새꿈-맞다 분위기에 맞지 않다
 새갱이 ㉾ 새끼
 새갱이 ㉾ 새끼
 새끼-발꼬락 ㉾ 새끼-발가락
 새끼-손꼬락[-/송-] ㉾ 새끼-손가락
 새끼-송꼬락 ㉾ 새끼-손가락
 새끼이 ㉾ 새끼
 새끼이 ㉾ 새끼
 새끼이-발꼬락 ㉾ 새끼-발가락
 새끼이-발톱 ㉾ 새끼-발톱
 새끼이-송꼬락 ㉾ 새끼-손가락
 새-닥 ㉾ 새-색시
 새닥다리[-따-] ㉾ 사닥다리
 새뚝-허다[-뜨커-] ㉾ 새뚝-하다
 새-약시 ㉾ 색시
 새알-새미 ㉾ 새알-심(-心)
 새알-시미 ㉾ 새알-심(-心)
 새암 ㉾ 샘/우물
 새약시 ㉾ 색시
 새암 ㉾ 샘:/우물
 새암-물 ㉾ 샘:-물/우물-물
 새암-터 ㉾ 샘:-터/우물-터
 새-엄니 ㉾ 새-어머니
 색-염필[생녕-] ㉾ 색-연필(色鉛筆)
 색이다 ㉾ 삭이다
 색-은필[생녕-] ㉾ 색-연필(色鉛筆)
 색증[-짚] ㉾ 색정(色情)
 셋 : -질[썩 : 짚] ㉾ 셋:-길
 생-고상 ㉾ 생-고생(生苦生)
 생-다갈 ㉾ 날-달갈(生-)
 생-달갈 ㉾ 날-달갈(生-)
 생-매기 ㉾ 생마(生馬)

생여 ㉾ 상여(喪輿)
 생여-발 ㉾ 생인-발
 생여-손 ㉾ 생인-손
 삭 : 시[-씨] ㉾ 색시
 삼 : ㉾ 샘/우물
 삼 : -물 ㉾ 샘-물/우물-물
 삼 : -터 ㉾ 샘-터/우물-터
 서 ㉾ 혀
 -서니 ㉾ -서는/-선
 -서리 ㉾ -서는/-선
 서르지 ㉾ 설거지
 서르집-물 ㉾ 설거지-물
 서르짓-물[-짐-] ㉾ 설거지-물
 서르지-통 ㉾ 설거지-통(-桶)
 서르지-허다 ㉾ 설거지-하다
 서쪽-새[-새] ㉾ 소쩍-새
 선발-즌 ㉾ 선발-전(選拔戰)
 선상 ㉾ 선생(先生)
 선상-님 ㉾ 선생-님(先生-)
 선상-질 ㉾ 선생-질(先生-)
 설즌[-즌] ㉾ 설전(舌戰)
 섬찍 ㉾ 섬뜩
 섬찍-허다[-찌커-] ㉾ 섬뜩-하다
 섬찝[-찝] ㉾ 섬뜩
 섬찝-섬찝[-찝-찝] ㉾ 섬뜩-섬뜩
 섬찝-허다[-찌터다] ㉾ 섬뜩-하다
 섭-바늘[-빠-] ㉾ 헛-바늘
 섭-바닥[-빠-] ㉾ 헛-바닥
 섭-바당[-빠-] ㉾ 헛-바당
 섯-바늘[-빠-/섭빠-] ㉾ 헛-바늘
 성 ㉾ 형(兄)
 성냥 ㉾ 성냥
 성냥-각[-각] ㉾ 성냥-갑(-匣)
 성냥-개비[-깨-] ㉾ 성냥-개비
 성냥-곽[-곽] ㉾ 성냥-갑

성냥-까치 ㉾ 성냥-개비
 성냥-불[-뿔] ㉾ 성냥-불
 성냥-통 ㉾ 성냥-갑
 성-님 ㉾ 형-님(兄-)
 성아 ㉾ 형(兄)
 성 : 탄-줄 ㉾ 성 : 탄-절(聖誕節)
 세 : 다 ㉾ 세우다
 세 ㉾ 혀
 세겨 ㉾ 석유(石油)
 세 : -괴기 ㉾ 쇠 : -고기
 세규 ㉾ 석유(石油)
 세짚-배기[-/-셀-] ㉾ 혀짚-배기/말-
 더듬이
 세-빠지다 ㉾ 혀가 빠지다, 몹시 고되다
 세 : 존 ㉾ 세 : 전(世傳)
 세 : 타 ㉾ 스웨터(sweater)
 색경[-경] ㉾ 거울
 색류[생뉴] ㉾ 석류(石榴)
 색류-나무[생뉴-] ㉾ 석류-나무(石榴-)
 색류-낭구[생뉴-] ㉾ 석류-나무(石榴-)
 색류-꽃[생뉴꽃] ㉾ 석류-꽃(石榴)
 셀-바늘[-빠-] ㉾ 헛-바늘
 셀-바닥[-빠-] ㉾ 헛-바닥
 셀-바당[-빠-] ㉾ 헛-바당
 셀-빠지다 ㉾ 매우 고되다
 셋-바닥[세빠-/셀빠-] ㉾ 헛-바닥
 셋-바늘[셀빠-/셀빠-] ㉾ 헛-바늘
 생묘 ㉾ 성묘(省墓)
 션 : -허다[셔 : 너-] ㉾ 시원-하다
 션 : ㉾ 수염(鬚髯)
 션 : ㉾ 시험(試驗)
 션 : -션 : ㉾ 쉬엄-쉬엄
 션 : 션 : -허다 ㉾ 쉬엄쉬엄-하다
 션 : ㉾ 싱아
 션 : ㉾ 수양(收養)

성 : -가다 ㉞ 수양-가다(收養-)
 성 : -딸 ㉞ 수양-딸(收養-)
 성 : -부모 ㉞ 수양-부모(收養父母)
 성 : -삼다[-따] ㉞ 수양-하다(收養-)
 성 : -아들 ㉞ 수양-아들(收養-)
 성 : -아버지 ㉞ 수양-아버지(收養-)
 성 : -엄마 ㉞ 수양-어머니(收養-)
 성 : -엄니 ㉞ 수양-어머니(收養-)
 성 : -오다 ㉞ 수양-오다(收養-)
 성 : -자식 ㉞ 수양-자식(收養子息)
 성 : -할머니 ㉞ 수양-할머니(收養-)
 성 : -할아버지 ㉞ 수양-할아버지(收養-)
 소 : 갈-배기[-빠] ㉞ 소갈-머리
 소꿉-살이[-싸리] ㉞ 소꿉-놀이
 소꿉-장냥[-짱-] ㉞ 소꿉-장난
 소꿉장냥-허다[-짱-] ㉞ 소꿉장난-하다
 소당 ㉞ 소댕
 소도방 ㉞ 소댕/솔뚜껑
 소란-시럽다[-따] ㉞ 소란-스럽다(騷亂-)
 소리-질르다 ㉞ 소리-지르다
 소 : 매-점 ㉞ 소:매-점(小賣店)
 소-배기 ㉞ 소-박이
 소시랑 ㉞ 쇠스랑
 속 : -고뱅이[-꼬-] ㉞ 속:-고갱이
 속-껍데[-떼] ㉞ 속-껍질
 속-잎새[송닙새] ㉞ 속-잎
 속-잎새기[송닙새-] ㉞ 속-잎
 속잇-것[-인괘] ㉞ 속엿것
 손-꼬락[-/송-] ㉞ 손-가락
 손꼬락-무니[송-] ㉞ 손가락-무늬
 손꼬락-도장[송-또-] ㉞ 손가락-도장(-圖章)
 손꼬락-뼈[송-] ㉞ 손가락-뼈
 손꼬락-뼈[송-] ㉞ 손가락-뼈

손꼬락-장갑[송-] ㉞ 손가락-장갑(-掌匣)
 손꼬락-질[-찢/송-찢] ㉞ 손가락-질
 손꼬락질-허다[-찢-/송-찢-] ㉞ 손가락질-하다
 손-도치 ㉞ 손-도끼
 손-머가지[-므-/머-] ㉞ 손-모가지
 손목-쟁이[-쟁-] ㉞ 손-모가지
 손-바당[-빠-] ㉞ 손-바닥
 손-심[-쌩] ㉞ 손-힘
 손-아구 ㉞ 아귀
 손-장냥[-짱-] ㉞ 손-장난
 손-잡이 ㉞ 손-잡이
 손주-메누리 ㉞ 손주-며느리
 술-가쟁이[-까-] ㉞ 술-가지
 술-가징이[-까-] ㉞ 술-가지
 술-깁이 ㉞ 술-가리
 술-꺼럭 ㉞ 술-가리
 술-꼰 ㉞ 술-가리
 술-나무[-리] ㉞ 소-나무
 술-낭구[-랑-] ㉞ 소-나무
 술-때비 ㉞ 술-파비
 술-버걱[-빠-] ㉞ 술-보긋
 술-잎새[-닙새/-립새] ㉞ 술-잎
 술-잎새기[-닙새/-립새-] ㉞ 술-잎
 술 : 차니 꽤, 껍
 술 : 찡다 ㉞ 수월하지 아니하다
 술 : 찡이 꽤, 껍
 솟[손] ㉞ 솟
 솟-뚜껑 ㉞ 솟-뚜껑
 솟-뚜껑이 ㉞ 솟-뚜껑
 솟-물[손-] ㉞ 솟-물
 송-꼬락 ㉞ 손-가락
 송구-시럽다[-따] ㉞ 송구-스럽다(悚懼-)

송방(松房) ㉾ 가게
 송아 ㉾ 송화(松花)
 송아-까루 ㉾ 송화-가루(松花-)
 송아-다식 ㉾ 송화-다식(松花茶食)
 송아치 ㉾ 송아지
 송앗-가루[-알까-] ㉾ 송화-가루(松花-)
 송장-땅개비 ㉾ 방아-깨비
 송장-메뚜기 ㉾ 송장-메뚜기
 송장-후염 ㉾ 송장-혜염, 배영
 쇠 : 경 ㉾ 소경
 쇠-고뺨이 ㉾ 쇠-고뼈
 쇠-갈키 ㉾ 쇠-갈퀴
 쇠 : -괴기[-/세-] ㉾ 쇠 : -고기
 쇠 : -구신 ㉾ 쇠 : -귀신(鬼神)
 쇠 : 다 ㉾ 세 : 다
 쇠-따깁 ㉾ 쇠-뚜껑
 쇠띠기 ㉾ 쇠뜨기
 쇠-뭇꼬쟁이[-물-] ㉾ 쇠-뭇
 쇠-비듬 ㉾ 쇠-비름
 쇠 : -새깁이 ㉾ 쇠 : -새끼
 쇠 : -새깁이 ㉾ 쇠 : -새끼
 쇠 : -지게 ㉾ 길마
 쇠-지둥 ㉾ 쇠-기둥
 쇠 : -지름 ㉾ 세 : -거리/삼-거리(三距離)
 쇠이다 ㉾ 속이다
 쇠 : -머리 ㉾ 쇠 : -머리
 쇠 : -머리 ㉾ 쇠 : -머리
 쇠이 ㉾ 송이
 쇠이 ㉾ 송이(松栝)
 쇠이-눈 : ㉾ 함박-눈
 쇠이-버섯 ㉾ 송이-버섯(松栝-)
 쇠이-썰이 ㉾ 송이-송이
 수구-맥이 ㉾ 수구-막이(水口-)
 수-까락 ㉾ 순-가락
 수-갈 ㉾ 순-가락

수물 ㉾ 스물
 수억-허다[-어커-] ㉾ 일이 뜸해지다
 수지비 ㉾ 수제비
 수책-구녕[-꾸-] ㉾ 수책-구명
 수책-구녕[-꾸-] ㉾ 수책-구명
 수책-구먹[-꾸-] ㉾ 수책-구명
 수책-구녕[-책-꾸-] ㉾ 수책-구명
 수책-구녕[-책-꾸-] ㉾ 수책-구명
 수책-구먹[-책-꾸-] ㉾ 수책-구명
 수-크미 ㉾ 수-거미
 수-토야지[순-] ㉾ 수-돼지
 술-똥이[-똥-] ㉾ 술-둥이
 술-지검지[-찌-] ㉾ 술-지계미
 술-구녕[승꾸-] ㉾ 술-구명
 술-구녕[승꾸-] ㉾ 술-구명
 술-구먹[승꾸-] ㉾ 술-구명
 술기-장냥[-끼] ㉾ 술바꼭질
 술 : -질[-찔] ㉾ 술 : -길
 술키다 ㉾ 술기다
 술-괘덩이[순괘-/썩괘-] ㉾ 술-검정
 술-검덩이[순괘-/수괘-] ㉾ 술-검정
 송 ㉾ 흥
 송가 ㉾ 흥가(凶家)
 송계 ㉾ 흥계(凶計)
 송금 ㉾ 흥금(胸襟)
 송기 ㉾ 흥기(凶器)
 송기다 ㉾ 술기다
 송년 ㉾ 흥년(凶年)
 송년-그지 ㉾ 흥년-거지(凶年-)
 송님 ㉾ 송냥
 송몽 ㉾ 흥몽(凶夢)
 송물 ㉾ 흥물(凶物)
 송물-시럽다[-따] ㉾ 흥물-스럽다(凶物-)
 송-보다 ㉾ 흥-보다(凶-)

승사 ㉾ 흉사(凶事)
승악 ㉾ 흉악(凶惡)
승악무도[-양-] ㉾ 흉악무도(凶惡無道-)
승악-범 ㉾ 흉악범(凶惡犯)
승악-허다[-아커-] ㉾ 흉악-허다(凶惡-)
승어 ㉾ 흉어(凶漁)
승어-기 ㉾ 흉어-기(凶漁期)
승작 ㉾ 흉작(凶作)
승-잡다[-따] ㉾ 흉-잡다(凶-)
승-잡히다[-재피-] ㉾ 흉-잡히다(凶-)
승적 ㉾ 흉적(凶賊)
승-지다 흉터가 생기다
승척 ㉾ 흉측(凶測)
승척-허다[-치커-] ㉾ 흉측-허다(凶測-)
승키다 ㉾ 숨기다
승-터 ㉾ 흉-터
승-허다 ㉾ 흉-허다(凶-)
술-허다[수터-] ㉾ 술-허다
쉬운 ㉾ 쉬:
쉬훈 ㉾ 쉬:
של : -차니 꽤, 펍
של : -찮다[-찬타] ㉾ 수월하지 아니하다
של : -찮이[-차니] 꽤, 펍
스 ㉾ 서/세
스 ㉾ 서(西)
스 : ㉾ 서:(署)
스- ㉾ 서-(庶)
스가 ㉾ 서가(書架)
스 : 가 ㉾ 서:가(庶家)
스각 ㉾ 서각(書閣)
스 : 각 ㉾ 서:각(犀角)
스간 ㉾ 서간(書簡)
스-간도 ㉾ 서-간도(西間島)
스간-문 ㉾ 서간-문(書簡文)
스간-집 ㉾ 서간-집(書簡集)

스간-체 ㉾ 서간-체(書柬體)
스 : 거 ㉾ 서:거(逝去)
스 : 계[-계/-계] ㉾ 서:계(庶系)
스고 ㉾ 서고(書庫)
스 : 곡 ㉾ 서:곡(序曲)
스 : 광 ㉾ 서:광(瑞光)
스 : 광 ㉾ 서:광(曙光)
스교 ㉾ 서교(西敎)
스구 ㉾ 서구(西區)
스귀포[-기-] ㉾ 서귀포(西歸浦)
스글프다 ㉾ 서글프다
스글픔 ㉾ 서글픔
스글피 ㉾ 서글피
스기 ㉾ 서기(西紀)
스기 ㉾ 서기(書記)
스 : 기 동물의 눈에서 솟아나오는 푸른 기운
스 : 기 ㉾ 서:기(瑞氣)
스기-관 ㉾ 서기-관(書記官)
스기-보 ㉾ 서기-보(書記補)
스 : 기-허다 동물의 눈에서 푸른 기운이 솟구치다
스넛 ㉾ 서넛
스다 ㉾ 서다
스댕 ㉾ 스테인리스(stainless)
스두 ㉾ 서두(序頭)
스들르다 ㉾ 서두르다
스 : 랭-허다 ㉾ 서:랭-허다(徐冷-)
스 : 러워-허다 ㉾ 서:러워-허다
스 : 럽다[-따] ㉾ 서: 럽다
스력 ㉾ 서력(西曆)
스 : 론 ㉾ 서:론(序論)
스 : 론 ㉾ 서:론(書論)
스 : 롬 ㉾ 설:롬
스 : 리 ㉾ 서:리(胥吏)

스림 ㉾ 서림(書林)
스 : 막 ㉾ 서:막(序幕)
스먹스먹-허다 ㉾ 서먹서먹-하다
스먹-허다 ㉾ 스펁-허다
스 : 모 ㉾ 서:모(庶母)
스 : 무 ㉾ 서:무(庶務)
스 : 무-실 ㉾ 서:무-실(庶務室)
스문 ㉾ 서문(西門)
스 : 문 ㉾ 서:문(序文)
스물-거리다 ㉾ 스믈-거리다
스물-그리다 ㉾ 스믈-그리다
스물-스물 ㉾ 스믈-스믈
스 : 민 ㉾ 서:민(庶民)
스 : 민-칭 ㉾ 서:민-칭(庶民層)
스은 ㉾ 서면(書面)
스은-기 : 약 ㉾ 서면-계:약(書面契約)
스 : 응 ㉾ 서:명(署名)
스 : 응-날인 ㉾ 서:명-날인(署名捺印)
스방 ㉾ 서방(西方)
스방 ㉾ 서방(書房)
스방-님 ㉾ 서방-님(書房-)
스방-질 ㉾ 서방-질(書房-)
스방-척 ㉾ 서방-척(西方側)
스 : 사 ㉾ 서:사(序詞)
스 : 사 ㉾ 서:사(敍事)
스사루 ㉾ 스스로/저절로
스 : 사-문 ㉾ 서:사-문(敍事文)
스 : 사-시 ㉾ 서:사-시(敍事詩)
스 : 사-체 ㉾ 서:사-체(敍事體)
스(:)산 ㉾ 서산(西山)
스 : 산 ㉾ 서산(瑞山)
스 : 생 ㉾ 서생(書生)
스 : 설 ㉾ 서:설(瑞雪)
스 : 속 ㉾ 서속(西俗)
스 : 손 ㉾ 서:손(庶孫)

스 : 수 ㉾ 서:수(序數)
스 : -수사 ㉾ 서:-수사(序數詞)
스 : 술 ㉾ 서:술(敍述)
스 : 숙 ㉾ 조
스숙-밥 ㉾ [-뽕] ㉾ 조-밥
스숙-쌀 ㉾ 줍-쌀
스숙-토매 ㉾ 조의 단
스 : 설 ㉾ 서:설(瑞雪)
스 : 시 ㉾ 서:시(序詩)
스신 ㉾ 스신(書信)
스안 ㉾ 서안(書案)
스 : 약 ㉾ 서:약(誓約)
스 : 약-문 ㉾ [-양-] ㉾ 서:약-문(誓約文)
스 : 약-서 ㉾ [-써] ㉾ 서:약-서
스 : 약-스 ㉾ [-쓰] ㉾ 서:약-서(誓約書)
스양 ㉾ 서양(西洋)
스양-사 ㉾ 서양-사(西洋史)
스양-식 ㉾ 서양-식(西洋式)
스양-인 ㉾ 서양-인(西洋人)
스양-풍 ㉾ 서양-풍(西洋風)
스양-학 ㉾ 서양-학(西洋學)
스양-화 ㉾ 서양-화(西洋化)
스양-화 ㉾ 서양-화(西洋畫)
스 : 언 ㉾ 서:언(序言, 緒言)
스 : 열 ㉾ 서:열(庶孽)
스 : 열 ㉾ 서:열(序列)
스예 ㉾ 서예(書藝)
스예-가 ㉾ 서예-가(書藝家)
스-왕모 ㉾ 서-왕모(西王母)
스유기 ㉾ 서유기(西遊記)
스 : 은 ㉾ 서:언(序言, 緒言)
스이 ㉾ 세/셋
스인 ㉾ 서인(西人)
스 : 인 ㉾ 서:인(庶人)
스 : 을 ㉾ 서:열(序列)

스 : 자 ㉠ 서:자(庶子)
 스 : 장 ㉠ 서:장(署長)
 스 : 장-관 ㉠ 서:장-관(書狀官)
 스점 ㉠ 서점(書店)
 스 : 정 ㉠ 서:정(抒情/絞情)
 스 : 정-성[-성] ㉠ 서:정-성(抒情性)
 스 : 정-시 ㉠ 서:정-시(抒情詩)
 스 : 정-적 ㉠ 서:정-적(抒情的)
 스점 ㉠ 서점(書店)
 스 : 증 ㉠ 서:증(抒情/絞情)
 스 : 증-승[-승] ㉠ 서:증-성(抒情性)
 스 : 증-시 ㉠ 서:증-시(抒情詩)
 스 : 증-죽 ㉠ 서:증-적(抒情的)
 스진 ㉠ 서진(西進)
 스 : 진 ㉠ 서진(書鎭)
 스 : 찰 ㉠ 서찰(書札)
 스창 ㉠ 서창(西窓)
 스책 ㉠ 서책(書冊)
 스 : 촌 ㉠ 서:촌(舒川)
 스 : 첩 ㉠ 서첩(書帖)
 스 : 체 ㉠ 서체(書體)
 스촌 ㉠ 서촌(西村)
 스 : 촌 ㉠ 서첩(書帖)
 스출 ㉠ 서출(庶出)
 스 : 투르다 ㉠ 서:투르다
 스 : 툄다 ㉠ 서툄다
 스 : 평 ㉠ 서평(書評)
 스폭 ㉠ 서폭(書幅)
 스 : -푼 ㉠ 서:-푼
 스 : 푼-어치 ㉠ 서:푼-어치
 스 : 푼-으치 ㉠ 서:푼-어치
 스 : 푼-짜리 ㉠ 서:푼-짜리
 스폹 ㉠ 서푹(西風)
 스 : 푹 ㉠ 서푹(書風)
 스 : 푹 ㉠ 서평(書評)

스학 ㉠ 서학(西學)
 스해 ㉠ 서해(西海)
 스해-안 ㉠ 서해-안(西海岸)
 스 : 행 ㉠ 서:행(徐行)
 스화-가 ㉠ 서화-가(書畫家)
 스 : 훈 ㉠ 서:훈(敍勳)
 숙 ㉠ 석
 숙 ㉠ 석(石)
 숙가[-까-] ㉠ 석가-모니(Sākyamuni)
 숙가-모니[-까-] ㉠ 석가-모니(Sākyamuni)
 숙가-시존[-까-] ㉠ 석가-세존(釋迦世尊)
 숙가-탑[-까-] ㉠ 석가-탑(釋迦塔)
 숙고[-꼬] ㉠ 석고(石膏)
 숙고-대죄[-꼬-] ㉠ 석고-대죄(席藁待罪)
 숙고-상[-꼬-] ㉠ 석고-상(石膏像)
 숙고-판[-꼬-] ㉠ 석고-판(石膏板)
 숙-관[-관] ㉠ 석-관(石棺)
 숙굴-암[-꾸람] ㉠ 석굴-암(石窟庵)
 숙기[-끼] ㉠ 석기(石器)
 숙기-시대[-끼-] ㉠ 석기-시대(石器時代)
 숙 : -똥[-똥] ㉠ 석:-똥
 숙 : 똥-무니[-똥-] ㉠ 석:똥-무니
 숙방[-똥] ㉠ 석방(釋放)
 숙별-연 ㉠ 석별-연(惜別宴)
 숙사[-싸] ㉠ 석사(碩士)
 숙산[-싼] ㉠ 석산(石山)
 숙 : -삼년[-쌩-/-쌩는] ㉠ 석:-삼년(-三年)
 숙상[-쌩] ㉠ 석상(石像)
 숙상[-쌩] ㉠ 석상(席上)
 숙 : 새-삼배[-쌩-] ㉠ 석:새-삼배
 숙수-쟁이[-쑤-] ㉠ 석수/석수장이(石手-)
 숙연-허다 ㉠ 석연-하다(釋然-)

숙인 ㉔ 석인(石人)
 숙은-허다 ㉔ 석연-허다(釋然-)
 숙장[-짱] ㉔ 석장(錫杖)
 숙재[-째] ㉔ 석재(石材)
 숙존[-존] ㉔ 석존(釋尊)
 숙존[-존] ㉔ 석전(石戰)
 숙주[-쭈] ㉔ 석주(石柱)
 숙차 ㉔ 석차(席次)
 숙총 ㉔ 석총(石塚)
 숙축 ㉔ 석축(石築)
 숙탑 ㉔ 석탑(石塔)
 숙학[스락] ㉔ 석학(碩學)
 숙호[스코] ㉔ 석호(石虎)
 숙화[스과] ㉔ 석화(石化)
 숙회[스괴/스래] ㉔ 석회(石灰)
 숙회-동굴[스괴-/스래-] ㉔ 석회-동굴
 (石灰洞窟)
 숙회-수[스괴-/스래-] ㉔ 석회-수(石
 灰水)
 숙회-암[스괴-/스래-] ㉔ 석회-암(石
 灰巖)
 숙회-질[스괴-/스래-] ㉔ 석회-질(石
 灰質)
 슨 : ㉔ 선:
 슨 : - ㉔ 선:-
 슨 : ㉔ 선:(善)
 슨각 ㉔ 선각(先覺)
 슨각-자[-짜] ㉔ 선각-자(先覺者)
 슨거리 ㉔ 선거리
 슨결 ㉔ 선결(先決)
 슨계 ㉔ 선계(仙界)
 슨공-후 : 사 ㉔ 슨공-후:사(先公後私)
 슨과 ㉔ 선과(仙果)
 슨 : 과 ㉔ 선:과(善果)
 슨 : 과 ㉔ 선:과(選果)

슨관 ㉔ 선관(仙官)
 슨 : 관 ㉔ 선:관(選管)
 슨 : 광 ㉔ 선:광(選鑛)
 슨교 ㉔ 선교(宣教)
 슨교-사 ㉔ 선교-사(宣教師)
 슨구 ㉔ 선구(先驅)
 슨 : 구 ㉔ 선구(選球)
 슨 : 구-안 ㉔ 선구안(選球眼)
 슨구-자 ㉔ 선구-자(先驅者)
 슨군 ㉔ 선군(先君)
 슨-긋[-긋] ㉔ 선-긋
 슨궁 ㉔ 선궁(仙宮)
 슨 : 궁 ㉔ 선:궁(善弓)
 슨궤 ㉔ 선궤(先軌)
 슨규 ㉔ 선규(先規)
 슨-그 : 래 ㉔ 선물-거:래(先去來)
 슨금 ㉔ 선금(先金)
 슨급 ㉔ 선급(先給)
 슨급-금[-끔] ㉔ 선급-금(先給金)
 슨결 ㉔ 선결(先決)
 슨궁 ㉔ 선경(仙境)
 슨 : 남-스 : 느 ㉔ 선:남-선:녀(善男善女)
 슨납 ㉔ 슨-납(先納)
 슨느 ㉔ 선녀(仙女)
 슨단 ㉔ 선단(仙丹)
 슨단 ㉔ 선단(先端)
 슨달 ㉔ 선달(先達)
 슨대 ㉔ 선대(先代)
 슨대 ㉔ 선대(先貸)
 슨대인 ㉔ 선대인(先大人)
 슨 : 덕 ㉔ 선:덕(善德)
 슨도 ㉔ 선도(仙道)
 슨도 ㉔ 선도(先導)
 슨 : 도 ㉔ 선:도(善道)
 슨-돌 ㉔ 선-돌

슨두 ㉞ 선두(先頭)
 슨 : -떡 ㉞ 선: -떡
 슨 : 량[슬-] ㉞ 선: 량(善良)
 슨 : 량[슬-] ㉞ 선: 량(選良)
 슨례[슬-] ㉞ 선례(先例)
 슨 : 린[슬-] ㉞ 선: 린(善隣)
 슨 : 망 ㉞ 선: 망(羨望)
 슨매 ㉞ 선매(先賣)
 슨매 ㉞ 선매(先賣)
 슨 : -머스매 ㉞ 선: -머슴
 슨 : -머시매 ㉞ 선: -머슴
 슨 : -머심 ㉞ 선: -머슴
 슨 : -무당 ㉞ 선: -무당
 슨박 ㉞ 선박(船舶)
 슨발 ㉞ 선발(先發)
 슨 : 발 ㉞ 선: 발(選拔)
 슨발-대 ㉞ 선발-대(先發隊)
 슨발-전 ㉞ 선발-전(選拔戰)
 슨 : 발-즌 ㉞ 선: 발-전(選拔戰)
 슨 : 방 ㉞ 선: 방(善防)
 슨 : 방-허다 ㉞ 선: 방-허다(善防-)
 슨배 ㉞ 선배(先輩)
 슨 : 벌 ㉞ 선: 벌(選伐)
 슨 : 벌-허다 ㉞ 선: 벌-허다(選伐-)
 슨 : -보다 ㉞ 선: -보다
 슨 : -보이다 ㉞ 선: -보이다
 슨부 ㉞ 선부(先父)
 슨불 ㉞ 선불(先佛)
 슨 : 불 ㉞ 선: 벌(選別)
 슨사 ㉞ 선사(先史)
 슨사-시대 ㉞ 선사-시대(先史時代)
 슨 : 사 ㉞ 선: 사(禪師)
 슨 : 사 ㉞ 선: 사(善射)
 슨 : 사-허다 ㉞ 선: 사-허다(贈賜-)
 슨산 ㉞ 선산(先山)

슨상 ㉞ 선생(先生)
 슨상-님 ㉞ 선생-님(先生-)
 슨상-질 ㉞ 선생-질(先生-)
 슨서 ㉞ 선서(仙書)
 슨서 ㉞ 선서(宣誓)
 슨서-허다 ㉞ 선서-허다(宣誓-)
 슨선-허다 ㉞ 선선-허다
 슨성 ㉞ 선성(先聲)
 슨 : -소리 ㉞ 선-소리
 슨수 ㉞ 선수(先手)
 슨 : 수 ㉞ 선: 수(選手)
 슨 : 수-권[-권] ㉞ 선: 수-권(選手權)
 슨수-금 ㉞ 선수-금(先受金)
 슨 : 수-단 ㉞ 선: 수-단(選手團)
 슨 : 수-촌 ㉞ 선: 수-촌(選手村)
 슨 : 수-층 ㉞ 선: 수-층(選手層)
 슨 : 수-칭 ㉞ 선: 수-층(選手層)
 슨-술 ㉞ 선-술
 슨-술 ㉞ 선-술(仙術)
 슨술-집[-집] ㉞ 선술-집
 슨스-허다[-스너다] ㉞ 선선-허다
 슨(:)식 ㉞ 선식(仙食)
 슨실 ㉞ 선실(船室)
 슨 : 악 ㉞ 선: 악(善惡)
 슨 : 악-과[스 : 나과] ㉞ 선악-과(善惡果)
 슨약 ㉞ 선약(仙藥)
 슨약 ㉞ 선약(先約)
 슨 : 양[스 : 냥] ㉞ 선양(宣揚)
 슨 : 양[스 : 냥] ㉞ 선양(禪讓)
 슨어말-어미 ㉞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슨언 ㉞ 선언(宣言)
 슨언-문 ㉞ 선언-문(宣言文)
 슨언-서 ㉞ 선언-서(宣言書)
 슨영 ㉞ 선영(先塋)
 슨왕 ㉞ 선왕(先王)

슨 : 외[-외/-웨] ㉞ 선:외(選外)
 슨 : 용 ㉞ 선:용(選用)
 슨우 ㉞ 선우(鮮于)
 슨 : 우 ㉞ 선:우(善友)
 슨 : -웃음 ㉞ 선:-웃음
 슨원 ㉞ 선원(船員)
 슨원 ㉞ 선원(禪院)
 슨위 ㉞ 선위(禪位)
 슨울 ㉞ 선울(旋律)
 슨으말-으미 ㉞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슨은 ㉞ 선언(宣言)
 슨은-문 ㉞ 선언-문(宣言文)
 슨은-스 ㉞ 선언-서(宣言書)
 슨읍 ㉞ 선읍(先業)
 슨 : 읍 ㉞ 선:읍(善業)
 슨 : 의[-/스니] ㉞ 선:의(善意)
 슨-이자 ㉞ 선-이자(先利子)
 슨인 ㉞ 선인(仙人)
 슨인장 ㉞ 선인장(仙人掌)
 슨입 ㉞ 선입(先入)
 슨입-감[-감] ㉞ 선입-감(先入感)
 슨입-견 ㉞ 선입-견(先入見)
 슨입-관[-관] ㉞ 선입-관(先入觀)
 슨입-근 ㉞ 선입-견(先入見)
 슨늘[-/-늘] ㉞ 선열(先烈)
 슨 : 은[스 : 니은] ㉞ 선:연(善緣)
 슨을[-/-늘] ㉞ 선열(先烈)
 슨용 ㉞ 선용(先瑩)
 슨 : 자 ㉞ 선:자(選者)
 슨자-옥질[-질] ㉞ 선자-옥질(仙姿玉質)
 슨 : -잠 ㉞ 선:-잠
 슨재 ㉞ 선재(仙才)
 슨전 ㉞ 선전(宣傳)
 슨전 ㉞ 선전(宣戰)
 슨 : 전 ㉞ 선:전(善戰)

슨전-포 : 고 ㉞ 선전-포:고(宣戰布告)
 슨점 ㉞ 선점(先占)
 슨정 ㉞ 선정(選定)
 슨정 ㉞ 선정(煽情)
 슨 : 정 ㉞ 선:정(善政)
 슨 : 정-비 ㉞ 선정-비(善政碑)
 슨정-성[-성] ㉞ 선정-성(煽情性)
 슨 : 정-허다 ㉞ 선:정-하다(選定-)
 슨조 ㉞ 선조(先祖)
 슨종 ㉞ 선종(善終)
 슨종 ㉞ 선종(禪宗)
 슨좌 ㉞ 선좌(禪坐)
 슨주 ㉞ 선주(船主)
 슨즌 ㉞ 선전(宣傳)
 슨즌 ㉞ 선전(宣戰)
 슨 : 즈 ㉞ 선:전(善戰)
 슨즌-포 : 고 ㉞ 선전-포:고(宣戰布告)
 슨즘 ㉞ 선점(先占)
 슨증 ㉞ 선정(選定)
 슨 : 증 ㉞ 선:정(善政)
 슨 : 증-비 ㉞ 선정-비(善政碑)
 슨증-승[-승] ㉞ 선정-성(煽情性)
 슨 : 증-허다 ㉞ 선:정-하다(選定-)
 슨지 ㉞ 선지
 슨지 ㉞ 선지(先知)
 슨지-국 ㉞ 선짓-국
 슨지-자 ㉞ 선지-자(先知者)
 슨지-피 ㉞ 선지-피
 슨진 ㉞ 선진(先陣)
 슨진 ㉞ 선진(先進)
 슨진-국 ㉞ 선진-국(先進國)
 슨진-화 ㉞ 선진-화(先進化)
 슨짓-국[-짓곡/-직곡] ㉞ 선짓-국
 슨집 ㉞ 선집(選集)
 슨창 ㉞ 선창(先唱)

슨창 ㉸ 선창(船艙)
 슨창-가[-까] ㉸ 선창-가(船艙-)
 슨채 ㉸ 선채((先綵))
 슨채 ㉸ 선채(鮮菜)
 슨: 책 ㉸ 선: 책(善策)
 슨: 처 ㉸ 선: 처(善處)
 슨천 ㉸ 선천(先天)
 슨천-성[-성] ㉸ 선천-성(先天性)
 슨춘 ㉸ 선천(先天)
 슨춘-성[-성] ㉸ 선천-성(先天性)
 슨춘-적 ㉸ 선천-적(先天的)
 슨체 ㉸ 선체(船體)
 슨축 ㉸ 선축(先蹴)
 슨: 출 ㉸ 선: 출(選出)
 슨취[-치] ㉸ 선취(先取)
 슨취[-치] ㉸ 선취(選取)
 슨취-점[-치점] ㉸ 선취-점(先取點)
 슨취-즘[-치즘] ㉸ 선취-점(先取點)
 슨취-허다 ㉸ 선취-허다(先取-)
 슨: 치 ㉸ 선: 치(善治)
 슨친 ㉸ 선친(先親)
 슨-키 ㉸ 선-키
 슨탈 ㉸ 선탈(蟬脫)
 슨태 ㉸ 선태(鮮太)
 슨: 택 ㉸ 선: 택(選擇)
 슨: 택-권[-권] ㉸ 선: 택-권(選擇權)
 슨: 택-적[-적] ㉸ 선: 택-적(選擇的)
 슨: 택-즉[-적] ㉸ 선: 택-적(選擇的)
 슨: 택-형 ㉸ 선: 택-형(選擇形)
 슨통 ㉸ 선통(先通)
 슨포 ㉸ 선포(宣布)
 슨포-문 ㉸ 선포-문(宣布文)
 슨폭 ㉸ 선폭(船幅)
 슨편 ㉸ 선편(船便)
 슨풍 ㉸ 선풍(仙風)

슨풍 ㉸ 선풍(旋風)
 슨풍-기 ㉸ 선풍-기(扇風機)
 슨: -허다 ㉸ 선: -허다
 슨: -허다 ㉸ 선: -허다(善-)
 슨: -하품 ㉸ 선: -하품
 슨학 ㉸ 선학(禪學)
 슨: 행 ㉸ 선: 행(善行)
 슨행 ㉸ 선행(先行)
 슨험 ㉸ 선험(先驗)
 슨현 ㉸ 선현(先賢)
 슨혈 ㉸ 선혈(鮮血)
 슨형 ㉸ 선형(線形)
 슨: 호 ㉸ 선: 호(選好)
 슨홍-색 ㉸ 선홍-색(鮮紅色)
 슨화-지 ㉸ 선화-지(仙花紙)
 슨회 ㉸ 선회(旋回)
 슨회 ㉸ 선회(禪會)
 슨후 ㉸ 선후(先後)
 슨후-책 ㉸ 선후-책(先後策)
 슨흔[-/스는] ㉸ 선현(先賢)
 슨흘[-/스늘] ㉸ 선혈(鮮血)
 슨: -달[-말] ㉸ 선: -달
 슨: 달-그믐[-말-] ㉸ 선: 달-그믐
 슨: -부르다[-뿌-] ㉸ 선-부르다
 슨: -불리[-불-/슴불-] ㉸ 선: -불리
 슨 ㉸ 설
 슨- ㉸ 설
 슨 ㉸ 설(說)
 슨계[-계] ㉸ 설계(設計)
 슨계-도[-계-] ㉸ 설계-도(設計圖)
 슨계-사[-계-] ㉸ 설계-사(設計士)
 슨계-사[-계-] ㉸ 설계-사(設計師)
 슨계-서[-계-] ㉸ 설계-서(設計書)
 슨계-안[-계-] ㉸ 설계-안(設計案)
 슨기-떡 ㉸ 백-설기

슬-깨다 ㉸ 설-깨다
 슬 : -날 ㉸ 설 : -날
 슬-늡은이 ㉸ 설-늡은이
 슬 : 다 ㉸ 설 : 다
 슬-다루다 ㉸ 설-다루다
 슬단[-똥] ㉸ 설단(舌端)
 슬단-음[-따늡] ㉸ 설단-음(舌端音)
 슬-데치다 ㉸ 설-데치다
 슬-들다[-따] ㉸ 설-들다
 슬 : 따 ㉸ 설 : 다
 슬-때리다 ㉸ 설-치다
 슬릉 ㉸ 설릉(設令)
 슬립 ㉸ 설립(設立)
 슬립-자[-짜] ㉸ 설립-자(設立者)
 슬립-허다[-리퍼-] ㉸ 설립-허다(設立-)
 슬마 ㉸ 설마
 슬마-헌들 ㉸ 설마-헌들
 슬-맞다[-만따] ㉸ 설-맞다
 슬-맞이 ㉸ 설-맞이
 슬명 ㉸ 설명(說明)
 슬명-문 ㉸ 설명-문(說明文)
 슬명-서 ㉸ 설명-서(說明書)
 슬용 ㉸ 설명(說明)
 슬용-문 ㉸ 설명-문(說明文)
 슬용-스 ㉸ 설명-서(說明書)
 슬문 ㉸ 설문(設問)
 슬문-지 ㉸ 설문-지(設問紙)
 슬 : -밀 ㉸ 설 : -밀
 슬법[-똥] ㉸ 설법(設法)
 슬-보다 ㉸ 설-보다
 슬비 ㉸ 설비(設備)
 슬 : -빔 ㉸ 설 : -빔
 슬사[-싸] ㉸ 설사(設使)
 슬-살므다[-쌀-] ㉸ 설-살다
 슬-삼다[-따] ㉸ 설-삼다

슬 : -상[-쌍] ㉸ 설 차례상
 슬 : -쇠다 ㉸ 설 : -쇠다
 슬왕-슬래 ㉸ 설왕-설래(說往說來)
 슬 : 움 ㉸ 설 : 움
 슬 : 위-허다 ㉸ 설 : 위-허다
 슬 : -음식 ㉸ 설 : -음식(-飲食)
 슬의 ㉸ 설의(設疑)
 슬의-법[-똥] ㉸ 설의-법(設疑法)
 슬의-똥[-똥] ㉸ 설의-똥(設疑法)
 슬-익다[-따] ㉸ 설-익다
 슬-자리[-짜-] ㉸ 설-자리
 슬-잡다[-따] ㉸ 설-잡다
 슬즌[-쯔] ㉸ 설전(舌戰)
 슬-뿌리다 ㉸ 설 뿌리다
 슬정[-쯔] ㉸ 설정(設定)
 슬-죽다[-따] ㉸ 설-죽다
 슬증[-쯔] ㉸ 설정(設定)
 슬증[-쯔] ㉸ 설-증(泄症)
 슬 : -직이다 ㉸ 설 : -죽이다
 슬치 ㉸ 설치(設置)
 슬치다 ㉸ 설치다
 슬-치다 ㉸ 설-치다
 슬치-대 ㉸ 설치-대(設置臺)
 슬치-되다 ㉸ 설치-되다(設置-)
 슬치-허다 ㉸ 설치-허다(設置-)
 슬파 ㉸ 설파(說破)
 슬파-허다 ㉸ 설파-허다(說破-)
 슬형-문자[-짜/스령-짜] ㉸ 설형-문자
 (楔形文字)
 슬화[-/스래] ㉸ 설화(說話)
 슬화-문학[-/스래우낙] ㉸ 설화-문학
 (說話文學)
 슬화-집[-/스래-] ㉸ 설화-집(說話集)
 슬총-문자 ㉸ 설형-문자(楔形文字)
 슬 : 다[슬 : 따] ㉸ 설 : 다

슴 ㅍ 슴
 슴: ㅍ 슴:
 슴광 ㅍ 슴광(閃光)
 슴: -나라 ㅍ 슴: -나라
 슴-돌[-뜰] ㅍ 슴-돌
 슴뜰-허다[-뜨커-] ㅍ 슴뜰-허다
 슴벅 ㅍ 슴벅
 슴: -사람[-싸-] ㅍ 슴: -사람
 슴스-옥수[-쓰] ㅍ 슴스-옥수(纖織玉手)
 슴세-허다 ㅍ 슴세-허다(纖細-)
 슴수 ㅍ 슴수(纖手)
 슴스-허다 ㅍ 슴스-허다
 슴유 ㅍ 슴유(纖維)
 슴즌 ㅍ 슴즌(閃電)
 슴-지기 ㅍ 슴-지기
 슴진-강 ㅍ 슴진-강(蟾津江)
 슴짚 ㅍ 슴짚
 슴짚-스짚[-짚-짚] ㅍ 슴짚-스짚
 슴짚-허다[-짚터-] ㅍ 슴짚-허다
 슴리[스니] ㅍ 슴리(攝理)
 슴: -불리[-뿔-] ㅍ 슴: -불리
 슴름[스름] ㅍ 슴름(涉獵)
 슴외[스외/스외] ㅍ 슴외(涉外)
 슴취[-치] ㅍ 슴취(攝取)
 슴취-허다[-치-] ㅍ 슴취-허다(攝取-)
 승 ㅍ 승
 승: ㅍ 승:
 승: ㅍ 승:(姓)
 승: ㅍ 승:(性)
 승: ㅍ 승:(聖)
 승: ㅍ 승:(聖)
 -승 ㅍ -승(性)
 승: 가 ㅍ 승: 가(聖歌)
 승: 가-대 ㅍ 승: 가-대(聖歌隊)
 승: -가정 ㅍ 승: -가정(聖家庭)

승: 감 ㅍ 승: 감(性感)
 승: 감-대 ㅍ 승: 감-대(性感帶)
 승: 격[-격] ㅍ 승: 격(性格)
 승: 곡[-곡] ㅍ 승: 곡(性格)
 승: 격-이상[-곡-] ㅍ 승: 격-이상(性格異常)
 승: 글-교 ㅍ 승: 글-교(聖潔教)
 승과[-과] ㅍ 승과(成果)
 승: 과 ㅍ 승: 과(聖果)
 성과-급[-과-] ㅍ 성과-급(成果給)
 승곽 ㅍ 승곽(城郭/城郭)
 승: 교 ㅍ 승: 교(性交)
 승: 교 ㅍ 승: 교(聖教)
 승: -교육 ㅍ 승: -교육(性教育)
 승: 군 ㅍ 승: 군(聖君)
 승균-관 ㅍ 승균-관(成均館)
 승급-허다[-그피-] ㅍ 승급-허다(性急-)
 승: 기 ㅍ 승: 기(性器)
 승: 궁 ㅍ 승: 궁(聖經)
 승: -갈 ㅍ 승: -갈(性-)
 승: -나다 ㅍ 승: -나다
 승: -내다 ㅍ 승: -내다
 승: 녀 ㅍ 승: 녀(聖女)
 승년 ㅍ 승년(成年)
 승년-식 ㅍ 승년-식(成年式)
 승느 ㅍ 승: 녀(聖女)
 승는 ㅍ 승년(成年)
 승는-식 ㅍ 승년-식(成年式)
 승: 당 ㅍ 승: 당(聖堂)
 승: 대-허다 ㅍ 승: 대-허다(盛大-)
 승: 덕 ㅍ 승: 덕(聖德)
 승: 령[-녕] ㅍ 승: 령(聖靈)
 승: 룡 ㅍ 승: 룡(聖靈)
 승: 리[-니] ㅍ 승: 리(性理)
 승: 리-학[-/-니-] ㅍ 승: 리-학(性理學)

승립[-립] ㉾ 성립(成立)
 승:모 ㉾ 성:모(聖母)
 승모-마리아 ㉾ 성:모-마리아(聖母-Maria)
 승:모-송[-송] ㉾ 성:모-송(聖母誦)
 승:-모자 ㉾ 성:-모자(聖母子)
 승묘 ㉾ 성묘(省墓)
 승:묘 ㉾ 성:묘(聖廟)
 승:물 ㉾ 성:물(聖物)
 승:미 ㉾ 성:미(性味)
 승:민 ㉾ 성:민(聖民)
 승:배 ㉾ 성:배(聖杯)
 승:-범죄 ㉾ 성-범죄(性犯罪)
 승:별 ㉾ 성:별(性別)
 승:병[-병] ㉾ 성:병(性病)
 승:부 ㉾ 성:부(聖父)
 승분 ㉾ 성분(成分)
 승분-부:사 ㉾ 성분-부:사(成分副詞)
 승분-비 ㉾ 성분-비(成分比)
 승불 ㉾ 성불(成佛)
 승:-불구 ㉾ 성:-불구(性不具)
 승:비 ㉾ 성:비(性比)
 승:벽 ㉾ 성:벽(性癖)
 승:별 ㉾ 성:별(性別)
 승:병[-병] ㉾ 성:병(性病)
 승사 ㉾ 성사(成事)
 승:사 ㉾ 성:사(聖事)
 승:산 ㉾ 성:산(聖山)
 승:산 ㉾ 성:산(聖算)
 승:상 ㉾ 성:상(聖上)
 승:-생활 ㉾ 성-생활(性生活)
 승:세 ㉾ 성:세(盛世)
 승:쇠[-쇠/-쇠] ㉾ 성:세(盛衰)
 승:스 ㉾ 성:서(聖書)
 승:-스럽다[-따] ㉾ 성:-스럽다(聖-)
 승:순-술 ㉾ 성:선-설(性善說)

승:술 ㉾ 성:설(性說)
 승시 ㉾ 성시(成市)
 승:-스럽다[-따] ㉾ 성:-스럽다(聖-)
 승-시프다 ㉾ 성-싶다
 승-싶다[-싶따] ㉾ 성-싶다
 승:실 ㉾ 성:실(誠實)
 승:실-감 ㉾ 성:실-감(誠實感)
 승:실-성[-성] ㉾ 성:실-성(誠實性)
 승:실-승[-승] ㉾ 성:실-성(誠實性)
 승:실-히[-시리] ㉾ 성:실-히(誠實-)
 승-싶다[-싶따] ㉾ 성-싶다
 승:-씨 ㉾ 성:씨(姓氏)
 승:악-술[-술] ㉾ 성:악-설(性惡說)
 승어 ㉾ 승어(成語)
 승:업 ㉾ 성:업(盛業)
 승:왕 ㉾ 성:왕(聖王)
 승:욕 ㉾ 성:욕(性慾)
 승:용 ㉾ 성:용(聖容)
 승:웅 ㉾ 성:웅(聖雄)
 승:위 ㉾ 성:위(聖威)
 승:유-허다 ㉾ 성:유-하다(性柔-)
 승:은 ㉾ 성:은(聖恩)
 승:읍 ㉾ 성:업(盛業)
 승인 ㉾ 성인(成人)
 승인 ㉾ 성인(成仁)
 승:역 ㉾ 성:역(聖域)
 승:자[-짜] ㉾ 성:자(姓字)
 승장 ㉾ 성장(成長)
 승장 ㉾ 성장(盛裝)
 승장-기 ㉾ 성장-기(成長期)
 승장-허다 ㉾ 성장-하다(成長-)
 승적 ㉾ 성적(成績)
 승:적[-적] ㉾ 성적(性的)
 승적-순[-순] ㉾ 성적-순(成績順)
 승적-표 ㉾ 성적-표(成績表)

승 : 정 ㅍ 성정(性情)
 승적 ㅍ 성적(成績)
 승 : 족[-족] ㅍ 성적(性的)
 승적-순[-순] ㅍ 성적-순(成績順)
 승 : 존 ㅍ 성:전(聖戰)
 승 : -존환 ㅍ 성:-전환(性轉換)
 승 : 증 ㅍ 성:정(性情)
 승 : 직 ㅍ 성:직(聖職)
 승 : 직-자[-짜] ㅍ 성:직-자(聖職者)
 승 : 질 ㅍ 성:질(性質)
 승 : 질-나다 ㅍ 성:질-나다(性質-)
 승 : 질-내다 ㅍ 성:질-내다(性質-)
 승 : 질-머리 ㅍ 성:질-머리(性質-)
 승 : 질-배기[-배-] ㅍ 성:질-배기(性質-)
 승 : 질-부리다 ㅍ 성:질-부리다(性質-)
 승 : 징 ㅍ 성:징(性徵)
 승 : 찬 ㅍ 성:찬(盛饌)
 승 : 체 ㅍ 성:체(聖體)
 승 : -추행 ㅍ 성:-추행(性醜行)
 승취 ㅍ 성취(成就)
 승취-동기[-치-] ㅍ 성취-동기(成就動機)
 승취-허다[-치-] ㅍ 성취-허다(成就-)
 승 : 칙 ㅍ 성:칙(聖勅)
 승 : 탄 ㅍ 성:탄(聖誕)
 승 : 탄-절 ㅍ 성:탄-절(聖誕節)
 승 : 탄-즐 ㅍ 성:탄-즐(聖誕節)
 승토 ㅍ 성토(聲討)
 승토-허다 ㅍ 성토-허다(聲討-)
 승 : -폭행[-포행] ㅍ 승:-폭행(性暴行)
 승 : -풀이 ㅍ 성:-풀이
 승 : 품 ㅍ 성:품(性品)
 승 : 학 ㅍ 성:학(聖學)
 승 : 함 ㅍ 성:함(姓銜)

승 : 합 ㅍ 성:합(聖盃)
 승 : 향 ㅍ 성:향(性向)
 승 : 현 ㅍ 성:현(聖賢)
 승형 ㅍ 성형(成形)
 승 : 호 ㅍ 성:호(聖號)
 승화 ㅍ 성화(成火)
 승 : 화 ㅍ 성:화(聖火)
 승 : 화-대 ㅍ 성:화-대(聖火臺)
 승 : 황 ㅍ 성:황(盛況)
 승 : 황-리[-리] ㅍ 성:황-리(盛況裏)
 승 : 훈 ㅍ 성:훈(聖訓)
 승 : 희[-히] ㅍ 성:희(性戲)
 승 : -희롱[-히-] ㅍ 성:-희롱(性戲弄)
 승 : 현 ㅍ 성:현(聖賢)
 승형 ㅍ 성형(成形)
 승형-수술 ㅍ 성형-수술(成形手術)
 승형-술 ㅍ 성형-술(成形術)
 시 ㅍ 세
 시 : 간 ㅍ 세:간(世間)
 시 : -거리 ㅍ 세:-거리(-距離)
 시계 ㅍ 시계(時計)
 시겍-바늘[-빠-] ㅍ 시겍-바늘(時計-)
 시겍-바늘[-겍빠-] ㅍ 시겍-바늘(時計-)
 시 : 겍-살[-쌀] ㅍ 세:겍-살
 시 : 계[-계/-계] ㅍ 세:계(世系)
 시 : 계[-계/-계] ㅍ 세:계(世界)
 시 : 계-관[-계/-계] ㅍ 세:계-관(世界觀)
 시 : 계-사[-계/-계] ㅍ 세:계-사(世界史)
 시 : 계-화 ㅍ 세:계-화(世界化)
 시국-지[-찌] ㅍ 시국-취
 시-근방지다 ㅍ 시-건방지다
 시곳[-곳] ㅍ 힐곳
 시곳-허다[-고터-/곳터-] ㅍ 힐곳-허다
 시끼 ㅍ 새끼
 시 : -끼 ㅍ 세:-끼

시닛 ㉞ 서닛
 시 : 뇌 ㉞ 세:뇌(洗腦)
 시 : 다 ㉞ 쉬:다
 시 : 대 ㉞ 세:대(世代)
 시 : 대-수[-덯쑤] ㉞ 세:대-수(世代數)
 시 : 대-주 ㉞ 세:대-주(世代主)
 -시렵다[-따] ㉞ -스렵다
 시렵다[-따] ㉞ 시리다
 -시렵다[-러타] ㉞ -스렵다
 시령 ㉞ 시령
 시렵다[-따] ㉞ 시리다
 시마리 ㉞ 힘
 시맹이 ㉞ 힘
 시 : 면 ㉞ 세:면(洗面)
 시 : 면-기 ㉞ 세:면-기(洗面器)
 시 : 면-대 ㉞ 세:면-대(洗面臺)
 시 : 면-도 : 구 ㉞ 세:면-도 : 구(洗面道具)
 시 : 면-장 ㉞ 세:면-장(洗面場)
 시 : 은 ㉞ 세:면(洗面)
 시 : 은-기 ㉞ 세:면-기(洗面器)
 시 : 은-대 ㉞ 세:면-대(洗面臺)
 시 : 은-도 : 구 ㉞ 세:면-도 : 구(洗面道具)
 시 : 은-장 ㉞ 세:면-장(洗面場)
 시 : 발-자전거 ㉞ 세:발-자전거(-自轉車)
 시 : 발-자징거 ㉞ 세:발-자전거(-自轉車)
 시부정-찮다[-찬타] 흐리멍텅하다
 시 : 사 ㉞ 세:사(世事)
 시 : 상 ㉞ 세:상(世上)
 시 : 상-사 ㉞ 세:상-사(世上事)
 시 : 상-살이 ㉞ 세:상-살이(世上-)
 시 : 상-없다 ㉞ 세:상-없다(世上-)
 시 : 상-없쑤두 ㉞ 세:상-없어도(世上-)

시 : 상-없이 ㉞ 세:상-없이(世上-)
 시 : 상-없다[-음따] ㉞ 세:상-없다(世上-)
 시 : 상-없어두[-음씨] ㉞ 세:상-없어도(世上-)
 시 : 상-없이[-음씨] ㉞ 세:상-없이(世上-)
 시 : 상-이 ㉞ 세:상-에(世上-)
 시 : 상-일[-닐] ㉞ 세:상-일(世上-)
 시 : 속 ㉞ 세:속(世俗)
 시 : 수 ㉞ 세:수(洗手)
 시 : 수-간 ㉞ 세:수-간(洗手間)
 시 : 습-물[-습] ㉞ 세:습-물(洗手-)
 시습-비누[-습빠] ㉞ 세습-비누(洗手-)
 시 : 습-대[-습때] ㉞ 세:수-간(洗手間)
 시 : 습-대야[-습때-] ㉞ 세:수-대야(洗手-)
 시 : 습-물[-습-] ㉞ 세:습-물(洗手-)
 시습-비누[-습빠-] ㉞ 세습-비누(洗手-)
 시 : 습 ㉞ 세:습(世襲)
 시 : 습-무[-습-] ㉞ 세:습-무(世襲巫)
 시 : 안 ㉞ 세:안(洗眼)
 시 : 안 ㉞ 세:안(洗顔)
 시연-허다[-어너-] ㉞ 시원-하다
 시엄 ㉞ 시험(試驗)
 시영 ㉞ 싱아
 시염 ㉞ 수염(鬚髯)
 시 : 연 ㉞ 세:연(世緣)
 시적-부적[-부-] ㉞ 시적-시적
 시적부적-허다[-부-] ㉞ 시적시적-허다
 시적-찮다[-찬타] ㉞ 시답-잖다
 시접-찮다[-찬타] ㉞ 시답-잖다
 시 : 존 ㉞ 세:전(世傳)
 시 : 존지-보 ㉞ 세:전지-보(世傳之寶)
 시 : -질목 ㉞ 세:-거리(-距離)

시 : 차 ㉾ 세:차(洗車)
 시 : -차다 ㉾ 세:-차다
 시 : 차-장 ㉾ 세:차-장(洗車場)
 시 : 탁 ㉾ 세:탁(洗濯)
 시 : 탁-기[-끼] ㉾ 세:탁-기(洗濯機)
 시 : 탁-물[-탕-] ㉾ 세:탁-물(洗濯物)
 시 : 탁-소[-쓰] ㉾ 세:탁-소(洗濯所)
 시 : 태 ㉾ 세:태(世態)
 시 : 파 ㉾ 세:파(世波)
 시-할아배 ㉾ 시-할아버지
 시-할매 ㉾ 시-할머니
 시-헬미 ㉾ 시-할머니
 식품-점 ㉾ 식품-점(食品店)
 신갱이 ㉾ 도토리
 신갱이-나무 ㉾ 신갈-나무
 신갱이-낭구 ㉾ 신갈-나무
 신 : -머리 ㉾ 센-머리
 신-소리 ㉾ 흰-소리
 신약-승 : 경[-기응] ㉾ 신약-성:경(新約聖經)
 신약-승 : 공 ㉾ 신약-성:경(新約聖經)
 신체-검사 ㉾ 신체-검사(身體檢查)
 신 : 층 ㉾ 신청(申請)
 신-트름 ㉾ 신-트림
 실갱이 ㉾ 실랑이
 실경 ㉾ 시렁
 실 : -내끼 ㉾ 실
 실다 ㉾ 슬다
 실 : -자마리 ㉾ 실:-잠자리
 실지-루[-찌-] ㉾ 실제-로(實際-)/실지-로(實地-)
 실 : -지렁이 ㉾ 실-지렁이
 실컨 ㉾ 실컷
 실령[-령/-형] ㉾ 시렁
 싹 : 다[싹타] ㉾ 싹다

심 ㉾ 힘
 심-그루기 ㉾ 힘-겨루기
 심-굽다[-따] ㉾ 힘-굽다
 심-껏[-꼇] ㉾ 힘-껏
 심-끗[-끈] ㉾ 힘-껏
 심-닿다[-다타] ㉾ 힘-닿다
 심-들다 ㉾ 힘-들다
 심-덜이다 ㉾ 힘-덜이다
 심술-꾸리기 ㉾ 심술-꾸리기
 심-쓰다 ㉾ 힘-쓰다
 심-씨다 ㉾ 힘-세다
 심으다 ㉾ 심:다
 심-입다[-따/-넙따] ㉾ 힘-입다
 심-저루기 ㉾ 힘-겨루기
 심-주다 ㉾ 힘-주다
 싹 ㉾ 싹
 싹으다 ㉾ 싹다
 싹냥 ㉾ 식량(食糧)
 싸갈-배기[-배-] ㉾ 싹-수
 싸게 ㉾ 빨리
 싸게-싸게 ㉾ 빨리-빨리
 싸 : 납다[-따] ㉾ 사:납다
 싸 : 납-쟁이[-쟁-] ㉾ 성정이 사나운 사람
 싸-대기 ㉾ 뺨
 싸-대니다 ㉾ 싸-다니다
 싸-댕기다 ㉾ 싸-다니다
 싸-댕이다 ㉾ 싸-다니다
 싸돌아-대니다 ㉾ 싸돌아-다니다
 싸돌아-댕기다 ㉾ 싸돌아-다니다
 싸돌아-댕이다 ㉾ 싸돌아-다니다
 싸래기 ㉾ 싸라기
 싸래기-밥 ㉾ 싸라기-밥
 싸리-꽃 ㉾ 싸리꽃/조팝꽃
 싸리-빛자락[-빚자-] ㉾ 싸리-비
 싹-바가지[싹배-] ㉾ 싹-수

쌀-괘목[-괘-] 쌀겨에서 나온 기름 찌꺼기
쌀-괘뿔[-괘-/-괘-] 쌀겨에서 나온 기름 찌꺼기
쌀-뒤지[-뒤-] ㉠ 쌀-뒤주
쌀-뜸물 ㉠ 쌀-뜨물
쌀므다 ㉠ 삶:다
쌀-저[-저] ㉠ 쌀-겨
쌀-지[-찌] ㉠ 쌀-계(-契)
쌈-귀:경[-/-긔] ㉠ 쌈-구:경
쌈-매다 ㉠ 싸-매다
쌈-박질[-찹] ㉠ 싸움-질
쌍-까풀 ㉠ 쌍-꺼풀(雙-)
쌍:-눔 ㉠ 상-눔(常-)
쌍-다락지[-찌] ㉠ 쌍-다래끼(雙-)
쌍-딩이 ㉠ 쌍-둥이(雙-)
쌍관-때기 ㉠ 상관-대기(相-)
쌔리다 ㉠ 때리다
쌔:-대기 ㉠ 뺨
쌔:-대기 ㉠ 뺨
쌔:-눔 ㉠ 상-눔(常-)
쌍-고상 ㉠ 생-고상(生苦生)
쌔리다 ㉠ 때리다
쌔-지다 ㉠ 켜-지다
-씩 ㉠ -씩
썰멍-허다 ㉠ 썰렁-하다
썰-빠지다 ㉠ 혀가 빠지다
썰:-주다 ㉠ 끼워-주다
쏘내기 ㉠ 소나기
쏘-대니다 ㉠ 쏘-다니다
쏘-댕기다 ㉠ 쏘-다니다
쏘-댕이다 ㉠ 쏘-다니다
수세미 ㉠ 수세미
수수 ㉠ 수수
수수-개:떡 ㉠ 수수-개:떡
수수-궁단 ㉠ 수수-경단(瓊團)

수수-갱이 ㉠ 수수-갱
수수갱이-앵경 ㉠ 수수갱-안경(眼鏡)
수숫-대[-술때] ㉠ 수숫-대
수수-밥 ㉠ 수수-밥
수수-밭[-밭] ㉠ 수수-밭
수수-밭[-밭] ㉠ 수수-밭
수수-빛자락[-빔짜-] ㉠ 수수-비
수수-엿[-염] ㉠ 수수-엿
수습-쌀 ㉠ 수수-쌀
수숫-토매[-술-] ㉠ 수숫-단
쑥-시럽다[-씨-따] ㉠ 쑥-스럽다
쓰다 ㉠ 켜다
쓰다 ㉠ 하다
쓰다 ㉠ 켜다
쓰:레 ㉠ 써:레
쓰:레-질 ㉠ 써:래-질
쓰르래미 ㉠ 쓰르래미
쓰:레-발 ㉠ 써:래-발
쓰:리다 ㉠ 써:리다
쓰비스 ㉠ 서비스(service)
쓰잘-데[-떼] ㉠ 쓰잘-머리
쓰잘-데기[-떼-] ㉠ 쓰잘-머리
쓰잘-디[-띠] ㉠ 쓰잘-머리
쓰잘-디기[-띠-] ㉠ 쓰잘-머리
쓰케트(skate) ㉠ 썰매
-쓱 ㉠ -씩
쓱둑[-쓱] ㉠ 쓱둑
쓱둑-쓱둑[-쓱-쓱] ㉠ 쓱둑-쓱둑
쓸:다 ㉠ 쓸:다
쓸-디[-띠] ㉠ 쓸-데
쓸디-없다[-띠음따] ㉠ 쓸데-없다
쓸디-없다[-띠음따] ㉠ 쓸데-없다
씀벅 ㉠ 섬벅
씩:다 ㉠ 씌우다
씨끗[-끗] ㉠ 힐끗

씨끼다 ㉾ 씨기다
 씨다듬다[-따] ㉾ 쓰다듬다
 씨라구 ㉾ 시래기
 씨라구-국[-국] ㉾ 시래깃-국
 씨래기 ㉾ 시래기
 씨래깃-국[-깃국/-길국] ㉾ 시래깃-국
 씨라렵다[-렵따] ㉾ 쓰라리다
 씨라리다 ㉾ 쓰라리다
 씨라림 ㉾ 쓰라림
 씨래기 ㉾ 시래기
 씨래기-국[-국] ㉾ 시래기국
 씨리다 ㉾ 쓰리다
 씨잘-데[-떼] ㉾ 쓰잘-머리
 씨잘-데기[-떼-] ㉾ 쓰잘-머리
 씨잘-디[-띠] ㉾ 쓰잘-머리
 씨잘-디기[-띠-] ㉾ 쓰잘-머리
 싰득-거리다[-꺼] ㉾ 싰들-거리다
 싰개 ㉾ 싰개
 싰갯-물[-갱-] ㉾ 담즙(膽汁)
 싰-디[-띠] ㉾ 싰-데
 싰디-읏다[-음따] ㉾ 싰데-읏다
 싰디-읏다[-띠음따] ㉾ 싰데-읏다
 싰-구녁[-꾸-/싰꾸-] ㉾ 싰-구멍
 싰-구녕[-꾸-/싰꾸-] ㉾ 싰-구멍
 싰-구먹[-꾸-/싰꾸-] ㉾ 싰-구멍
 싰-나락[싰-] ㉾ 법-씨
 싰치다[싰-] ㉾ 싰다



-ㅇ개 ㉾ -니까
 아 : ㉾ 아이
 아가-배 ㉾ 아그-배
 아가배-나무 ㉾ 아그배-나무
 아가배-낭무 ㉾ 아그배-나무

아개미 ㉾ 아가미
 아구 ㉾ 아귀
 아구-심[-싰] 아귀의 힘
 아금 ㉾ 아람
 아금-벌다 아람이 벌다
 아금-니 ㉾ 어금-니
 아금닛-소리[-닐쏘/-니쏘-] ㉾ 어금
 닛-소리
 아까-아까 ㉾ 한참 전에
 아-까심 ㉾ 앞-가슴
 아까-침 ㉾ 아까-뜸
 아래-우이 ㉾ 아래-위
 아래우잇-집[-일짚] 아랫집과 윗집
 아래웃-집[-을짚] 아랫집과 윗집
 아랫-목[-랭-] ㉾ 아랫-목
 아랫-두리[-랏뚜-] ㉾ 아랫-도리
 아릅-목[-름-] ㉾ 아랫-목
 아릅-다리 ㉾ 아릅드리
 아리까리-허다 ㉾ 아리송-하다
 아무-시렵다[-따] ㉾ 아: 무렇다
 아배 ㉾ 아비
 아버지 ㉾ 아버지
 아사리-논 목정-논
 아사리-덤부달 덩불-숲
 아사리-덤부살 덩불-숲
 아사리-밭 목정-밭
 아사리-숲 덩불-숲
 아사리-판 난장-판
 아이고개 ㉾ 애개개
 아이 : 씨 ㉾ 에이
 아직 ㉾ 아직
 아주까루 ㉾ 아주까리
 아주매 ㉾ 아주머니
 아주무니 ㉾ 아주머니
 아줍니 ㉾ 아주머니

아쭈 ㉮ 어쭈
아푸다 ㉮ 아프다
악기-점 [아끼-/악끼-] ㉮ 악기-점(樂器店)
악-가심 [-까-] ㉮ 앞-가슴
안-말래 ㉮ 안-마루
안-사둔 [-싸-] ㉮ 안-사둔(-査頓)
안-안팎 ㉮ 안팎
안지다 ㉮ 앓다
안진-뱅이 ㉮ 앓은-뱅이
안-짜 ㉮ 안-쪽
안창 ㉮ 안쪽/안창
안창-골 [-골] ㉮ 심곡(深谷)
안치미 ㉮ 안쪽
안침 ㉮ 안쪽
알-그지 ㉮ 알-거지
알몸-땡이 ㉮ 알몸-똥이
알몸-땡이 ㉮ 알-똥똥이
알-바늘 ㉮ 바늘
알어-채리다 ㉮ 알아-차리다
암 : ㉮ 아무
암-그 : **래** ㉮ 암-거:래(暗去來)
암만-허다 ㉮ 암만-하다
암만-히두 ㉮ 아무리-해도
암 : **-시럽다** [-따] ㉮ 아:무렇다
암 : **-시럽다** [-따] ㉮ 아:무렇다
암 : **제** ㉮ 아무-때
암-크미 ㉮ 암-거미
암-토야지 ㉮ 암-돼지
암행-으사 ㉮ 암행-어사(暗行御使)
양-가심 ㉮ 양-가슴
앞-가심 [앞까-/아까-] ㉮ 앞-가슴
앞-개림 [앞개-] ㉮ 앞-가림
앞-댕기다 [앞땡-] ㉮ 앞-당기다
앞-등배기 [앞땡-] ㉮ 앞-등성이

앞-등성이 [앞땡-] ㉮ 앞-등성이
앞-모냥 [암-] ㉮ 앞-모양(-模樣)
앞-은 : [암-] ㉮ 앞-면(-面)
앞-세다 [앞세-] ㉮ 앞-세우다
앞이루-나란이 ㉮ 앞으로 나란히
앞-잡이 [앞잡-] ㉮ 앞-잡이
앞-정강이 [앞정-] ㉮ 앞-정강이
앞-질 [앞 : 질] ㉮ 앞-길
애-고계 ㉮ 애개개
애-꼬추 [애-/액-] ㉮ 풋-고추
애꾸지다 ㉮ 애꿎다
애끼다 ㉮ 아끼다
애김-없이 [-음씨] ㉮ 아김-없이
애-덜 ㉮ 아이들
애멘 ㉮ 애:면
애-새끼 ㉮ 애-새끼
애-새끼 ㉮ 애-새끼
애-저녁 초-저녁, 애초
애저녁-이 애초-에
애-즈녁 초-저녁, 애초
애즈녁-이 애초-에
애체 ㉮ 애최
액-맥이 [앵-] ㉮ 액-막이(厄-)
앵 : **경** ㉮ 안:경(眼鏡)
앵 : **경-점** [-기응-] ㉮ 안:경-점(眼鏡店)
앵기다 ㉮ 안기다
야 ㉮ 예/네
-야 ㉮ -어야/-아야
야 ㉮ 야
야 : ㉮ 예
야 : ㉮ 애
야 : **-네** ㉮ 애-네
야 : **-덜** ㉮ 애-들
야리끼리-허다 ㉮ 아리송-하다
-야만 ㉮ -아야만/-어야만

야중 ㅍ 나중
 야중-이 ㅍ 나중-에
 야마 ㅍ 야 임마
 알-구지다 ㅍ 알-긱다
 알브다 ㅍ 앞:다[알:따]
 암즌 ㅍ 암전
 암즌-허다 ㅍ 암전-하다
 양-꼬추 ㅍ 서양-고추(西洋-)
 양-똥이 ㅍ 양-둥이(洋-)
 양-딸:구 ㅍ 양-딸:기/딸:기
 양복-즘[-쯔] ㅍ 양복-점(洋服店)
 양-송이 ㅍ 양-송이(洋松楸)
 양장-즘 ㅍ 양장-점(洋裝店)
 양품-즘 ㅍ 양품-점(洋品店)
 애처럽다[-따] ㅍ 애처롭다
 애:-네 ㅍ 이 아이네
 어거지 ㅍ 억지
 어구 ㅍ 어귀
 어덕 ㅍ 언덕
 어덕-말랭이 ㅍ 언덕-마루
 어덕-바지[-빠지] ㅍ 언덕-반이
 어덕-밥[-빡] ㅍ 언덕-밥
 어덕-배기[-빠-] ㅍ 언덕-배기
 어덕-지다[-찌-] ㅍ 언덕-지다
 어덕-질[-짚] ㅍ 언덕-길
 어두침침-허다 ㅍ 어두컴컴-하다
 어려웁다[-따] ㅍ 어렵다
 어루레기 ㅍ 어루러기
 어른-내 ㅍ 어린-애
 어림-배기[-빠-] ㅍ 어리-보기
 어링이 ㅍ 어령이
 어매 ㅍ 어미/엄마
 어매나 ㅍ 어머니
 어떤 ㅍ 애:면
 어무니 ㅍ 어머니

어:설프다 ㅍ 어:설프다
 어여 ㅍ 어서
 어이 ㅍ 어서
 어이-없다[-음따] ㅍ 어이-없다
 어이-없다[음따] ㅍ 어이-없다
 어이-씨 ㅍ 아이 씨
 어질르다 ㅍ 어지르다
 어집잡다[-짚타] ㅍ 어쭈잡다
 어초구니 ㅍ 어처구니
 어트케 ㅍ 어떻게
 어턱-허다[-트커-] ㅍ 어떡-하다
 어푸러-지다 ㅍ 얹어-지다
 억시게[-씨-] ㅍ 매우
 억-시다[-씨-] ㅍ 억-세다
 언서리 ㅍ 언저리
 언설 ㅍ 언저리
 언지다 ㅍ 었다
 언체이 ㅍ 언청이
 언챙이 ㅍ 언청이
 얼:-르다 ㅍ 어:르다
 얼릉 ㅍ 얼른
 얼릉-얼릉 ㅍ 얼른
 얼게미 ㅍ 어레미
 얼라 ㅍ 어/어라
 얼라려 ㅍ 올레리
 얼라려-깎라려 ㅍ 알나리-깎나리
 얼맹이 ㅍ 어레미
 얼금-뱅이 ㅍ 앞둑-빼기
 엄:-니 ㅍ 어머니
 엄살-꾸리기 ㅍ 엄살-꾸리기
 엄지-발꼬락 ㅍ 엄지-발가락
 엄지-손꼬락[-송-] ㅍ 엄지-손가락
 엄지-송꼬락 ㅍ 엄지-손가락
 업-구링이[-꾸-] ㅍ 업-구렁이
 업:쎄 ㅍ 어머니/우와

엇-비젓하다[엿빠저터-/엿빠절터-] ㉾
 엿-비슷하다
엄서리 ㉾ 언저리
엄설 ㉾ 언저리
엄-아 ㉾ 형(兄)
엿디리다[엿따-] ㉾ 엿드리다
에기다 ㉾ 어기다
에지간-허다 ㉾ 어지간-하다
에지간-히 ㉾ 어지간-히
에 : 헤라-달 : 고 : ㉾ 어허라-달구야
에 : 헤라-달 : 공 : ㉾ 어허라-달구야
엿히다[에피-] ㉾ 업히다
엿간-허다 ㉾ 언간-하다
엿간-히 ㉾ 언간히
엿기다 ㉾ 엉기다
여 ㉾ 여기
여그 ㉾ 여기
여-께 ㉾ 여기-쯤
여께-짬 ㉾ 여기-쯤
여-동상 ㉾ 여-동생(女-)
여리 ㉾ 이리
여름-출 ㉾ 여름-철
여 : 서 ㉾ 여기서
여수 ㉾ 여우
여 : -오다 이고 오다
여우-살이 ㉾ 여의살이
여위-살이 ㉾ 여의살이
여위살이-시키다 ㉾ 여의살이-시키다
여이다 ㉾ 여위다
여적 ㉾ 여태
여적-껏[-껏] ㉾ 여태-껏
여직 ㉾ 여태
여직-껏[-껏] ㉾ 여태-껏
여- 짹 ㉾ 이-쪽
여- 짬 ㉾ 이-쯤

여- 짬 ㉾ 이-쯤
여편-네 ㉾ 여편-네(女便-)
역-구리[-꾸-] ㉾ 옆-구리
역부리[-뿌-] ㉾ 일부리
역즌[-즌] ㉾ 역전(驛前)
연태 ㉾ 여태
옆 : 루 ㉾ 여기로
옆매기 ㉾ 옆매
옆생이 ㉾ 옆소
옆생이-젓[-젓] ㉾ 옆소-젓
옆필 ㉾ 연필(鉛筆)
옆필-깎이 ㉾ 연필-깎이(鉛筆-)
옆즌[-즌] ㉾ 옆전(葉錢)
옆-장사[옆짱-] ㉾ 옆-장수
옆기 ㉾ 연기(煙氣)
옆-댕이[옆땡-] ㉾ 옆
예 ㉾ 여기
예뿌다 ㉾ 예쁘다
예사-시럽다[-따] ㉾ 예사-스럽다(例
 事-)
예편-네 ㉾ 여편-네(女便-)
오 : -당숙 ㉾ 외-당숙(外堂叔)
오도개 ㉾ 오디
오돌개 ㉾ 오디
오돌개-낭구 ㉾ 뽕-나무
오돌 ㉾ 옷
오돌-나무 ㉾ 옷-나무
오돌-낭구 ㉾ 옷-나무
오두개 ㉾ 오디
오디 ㉾ 어디
오디-께 ㉾ 어디-쯤
오따 ㉾ 어디-에다
오따-가 ㉾ 어디-에다가
오떠-허다 ㉾ 어떠-하다
오떠오떠-허다 ㉾ 어떠어떠-하다

오뎨 ㉮ 어뎨
오뎨다[-떠타/-떨타] ㉮ 어뎨다
오뎨-든[-떠든/-떨든] ㉮ 어뎨-든
오뎨 ㉮ 어뎨
오 : **래기** ㉮ **오**:라기
오리봉-나무 ㉮ 오리-나무
오리봉-낭구 ㉮ 오리-나무
오 : **-사춘** ㉮ **외**:-사춘(外四寸)
오 : **-삼춘** ㉮ **외**:-삼춘(外三寸)
오 : **서** ㉮ 어디-서
오(:)-숙모[-송-] **외**:-숙모(外叔母)
오야 ㉮ 자두
오야-나무 ㉮ 자두-나무
오야-낭구 ㉮ 자두-나무
오 : **-알매** ㉮ **외**:-할머니(外-)
오 : **-알머니** ㉮ **외**:-할머니(外-)
오 : **-알아버지** ㉮ **외**:-할아버지(外-)
오 : **-알미** ㉮ **외**:-할머니(外-)
오 : **-알아배** ㉮ **외**:-할아버지(外-)
오 : **-알아부지** ㉮ **외**:-할아버지(外-)
오 : **-알애비** ㉮ **외**:-할아버지(外-)
오양-간 ㉮ **외양-간**(-間)
오여 ㉮ **원**:
오여-낫[-낫] ㉮ **원**:-낫
오-여달이[-다지] ㉮ **외**-여달이
오여-발 ㉮ **원**:-발
오여-발목 ㉮ **원**:-발목
오여-발짝 ㉮ **원**:-발짝
오여-배지기 ㉮ **원**:-배지기
오여-사내기 ㉮ **원**:-새끼
오여-삿내기[-산-] ㉮ **원**:-새끼
오여-손 ㉮ **원**:-손
오여손-잡이 ㉮ **원**:-손-잡이
오여-씨름 ㉮ **원**:-씨름
오여-지다 **원**쪽으로 넘어지다

오여-짱 ㉮ **원**:-쪽
오여짱-질[-질] ㉮ **원**:-쪽-질
오여짱-귀[-끼] ㉮ **원**:-쪽-귀
오여-팔 ㉮ **원**:-팔
오여-팔목 ㉮ **원**:-팔목
오여-팔뚝 ㉮ **원**:-팔뚝
오여-편 ㉮ **원**:-편
오여-편짱 ㉮ **원**:-편짱
오이-사 : **춘** ㉮ **외**-사:춘(外四寸)
오죽참다[-찬타] ㉮ 오죽참다
오째 ㉮ 어째
오째서 ㉮ 어째서
오짬거나[-짬꺼-] ㉮ 어짬거나
오짬던[-짬던] ㉮ 어짬던
오짬던지[-짬던-] ㉮ 어짬던지
오짬든[-짬든] ㉮ 어짬든
오짬든지[-짬든-] ㉮ 어짬든
오쩌구-저쩌구 ㉮ 어쩌고-저쩌고
오쩌다 ㉮ 어쩌다
오쩌다 ㉮ 어쩌다
오쩌다가 ㉮ 어쩌다가
오쩌든 ㉮ 어쩌면
오쩨 ㉮ 어쩨
오쩨지 ㉮ 어쩨지
오쩨 ㉮ 어쩨
오찌 ㉮ 어찌
오찌-나 ㉮ 어찌-나
오찌-허다 ㉮ 어찌-하다
오찌-허여 ㉮ 어찌-하여
오차피 ㉮ 어차피(於此彼)
오채피 ㉮ 어차피(於此彼)
오치기 ㉮ 어떻게
오척-허다[-치커-] ㉮ 어떡-하다
오척-허다[-치키-] ㉮ 어떡-하다
오칭다[-치타/-칭타] ㉮ 어떠-하다

오티기 ㉾ 어떻게
 오탁-허다[티커-] ㉾ 어떡-하다
 오탁-허다[-티커-] ㉾ 어떡-하다
 오탈다[-티타] ㉾ 어떠-하다
 오 : -할매 ㉾ 외:-할머니(外-)
 오 : -할머니 ㉾ 외:-할머니(外-)
 오 : -할미 ㉾ 외:-할머니(外-)
 오 : -할아배 ㉾ 외:-할아버지(外-)
 오 : -할아버지 ㉾ 외:-할아버지(外-)
 옥수갱이[-쑤-] ㉾ 옥수수
 옥수갱이-떡[-쑤-] ㉾ 옥수수-떡
 옥수갱이-밥[-쑤-] ㉾ 옥수수-밥
 옥수갱이-밭[-쑤-밭] ㉾ 옥수수-밭
 옥수갱이-섬 : [-쑤-] ㉾ 옥수수-수염
 (-鬚髯)
 옥수갱이-엿[-쑤-엿] ㉾ 옥수수-엿
 옥수갱이-지름[-쑤-] ㉾ 옥수수-기름
 옥수갱잇-대[-쑤-인때] ㉾ 옥수수-대
 옥-퇴끼 ㉾ 옥-토끼(玉-)
 온 : 제 ㉾ 언제
 온 : 제-나 ㉾ 언제-나
 온 : 젼-가[-쟁-] ㉾ 언:젠-가
 올-갈 : [-갈] ㉾ 올-가을
 올개미 ㉾ 올가미
 올르다 ㉾ 오르다
 올 : 마 ㉾ 얼:마
 올 : 마-나 ㉾ 얼마-나
 올 : 마-씩 ㉾ 얼:마-씩
 올 : 마-씩 ㉾ 얼:마-씩
 올 : 마-짚 ㉾ 얼:마-짚
 올 : 마-침 ㉾ 얼:마-만큼
 올 : -마큼 ㉾ 얼:마-만큼
 올 : -망큼 ㉾ 얼:마-만큼

올-뻗[-뻗] 이르게 익는 벗
 올-뻗낭구[-뻗-] ㉾ 올-벗나무
 올-히[-/오리] ㉾ 올-해
 옴 : 세 ㉾ 어머니/우와
 옷-가심[올까-] ㉾ 옷-가슴
 옹기-즘 ㉾ 옹기-점(甕器店)
 옹니-백이[-배기] ㉾ 옥니-박이
 옹쳐-매다 ㉾ 흘쳐-매다
 옹-치다 ㉾ 동이다/땀하다.
 옷-올르다[오들-] ㉾ 옷-오르다
 옷-올름[오들-] ㉾ 옷 오르
 옷-올리다[오들-] ㉾ 옷 오르다
 왁 : 새[-새] ㉾ 역사
 왁 : 새-밭[-새밭] ㉾ 역사-밭
 왁새-꽃[-새꽃] ㉾ 역사-꽃
 완구-즘 ㉾ 완구-점(玩具店)
 왕-그미 ㉾ 왕-거미(王-)
 왕-매미 ㉾ 말-매미
 왕-매암 ㉾ 말-매미
 왕-모새 ㉾ 왕-모래(王-)
 왕-탱이 ㉾ 말-벌
 왕-팅이 ㉾ 말-벌
 왜냐-든 ㉾ 왜냐하면
 왕-겨 ㉾ 왕-겨(王-)
 왕-저 ㉾ 왕-겨(王-)
 외-질 ㉾ 외-길
 윈 ㉾ 온
 윈 : -갓[-갈] ㉾ 온갓
 윈 : -굉일 ㉾ 온-공일(-空日)
 윈 : -내끼 ㉾ 윈-새끼
 윈 : -정일 ㉾ 온:-종일(-終日)
 윈 : -통 ㉾ 온:-통
 왕겨-가다 ㉾ 옮겨-가다
 요 : ㉾ 요기
 요개 ㉾ 요기쭝

요깨-짬 ㉮ 요기-좁
 요-따우 ㉮ 요-따위
 요랄기[-러키] ㉮ 요렇게
 요려 ㉮ 요래
 요려서 ㉮ 요래서
 요령-잡이[-재비] ㉮ 요령-잡이(鑿鈴-)
 요룻기[-로키] ㉮ 요렇게
 요루 ㉮ 요리-로
 요류 ㉮ 요래요
 요리두 ㉮ 요래두
 요리서 ㉮ 요래서
 요렀다 조렀다 ㉮ 요렀다 조렀다
 요룻다[-리타/-릴타] ㉮ 요룻다
 요-만침 ㉮ 요-만큼
 요-망큼 ㉮ 요-만큼
 요-맨치 ㉮ 요-만치
 요-맨침 ㉮ 요-만치
 요-맹큼 ㉮ 요-만큼
 요서 ㉮ 요기서
 요집 ㉮ 요즈음
 요-짜 ㉮ 요-쪽
 욕심-꾸리기 ㉮ 욕심-꾸리기(慾心-)
 욕증[-쯔] ㉮ 욕정(欲情)
 율 : -루 ㉮ 요리-로
 율루-줄루 ㉮ 요리-조리
 율리 ㉮ 요리
 율리-줄리 ㉮ 요리-조리
 용수-출 ㉮ 용수-철(龍鬚鐵)
 용천-백이 ㉮ 문둥이
 용천-뱅이 ㉮ 문둥이
 우-덜 ㉮ 우리-들
 우링이 ㉮ 우려낸 열매
 우사리 ㉮ 우수리
 우섭다[-따] ㉮ 우습다
 우이-뜸 ㉮ 위-뜸

우이-아래 ㉮ 위-아래
 우이-쪽 ㉮ 위-쪽
 우이-편 ㉮ 위-편(-便)
 우이편-짜 ㉮ 위-편(-便)
 우인 ㉮ 위인(爲人)
 우인 ㉮ 위인(偉人)
 우인-전 ㉮ 위인-전(偉人傳)
 우인-즌 ㉮ 위인-전(偉人傳)
 우잇 : -도리[-일또-] ㉮ 잇-도리
 우잇-목[-인-/임-] ㉮ 잇-목
 우-풍[-/읍-] ㉮ 웃-풍(-風)
 우잇-집[-일짬] ㉮ 잇-집
 옥 : 기다[옥끼다] ㉮ 웃:기다
 울-간[-간] ㉮ 우리
 울뱅이 ㉮ 울보
 움추러-들다 ㉮ 움츠러-들다
 움추리다 ㉮ 움츠리다
 움치러-들다 ㉮ 움츠러-들다
 움치리다 ㉮ 움츠리다
 읊-목[읍-] ㉮ 잇-목
 읊-방[-뽕] ㉮ 잇-방
 읊풍 ㉮ 웃-풍(-風)
 읊 : 다[읍따] ㉮ 읊:다
 웃-떠깁[운-] ㉮ 뚜깁
 웃-더깁이[운떠-] ㉮ 걸-더깁이
 웃-집[운짬] ㉮ 잇-집
 웃-쪽[운-] ㉮ 위-쪽
 웃-편[운-] ㉮ 위-쪽
 웃편-짜[운-] ㉮ 위-쪽
 웅덩이 ㉮ 웅덩이
 워디 ㉮ 어디
 워디께 ㉮ 어디-쯤
 워 : 따매 ㉮ 우와
 워떠-허다 ㉮ 어떠-하다
 워편 ㉮ 어떤

위떨다[-떠타/-떨타] ㉾ 어떠하다
 위떨-든[-떠든] ㉾ 어떨-든
 위떠 ㉾ 어때
 위 : 매 ㉾ 우와
 위째 ㉾ 어째
 위째서 ㉾ 어째서
 위졌거나[-째꺼-] ㉾ 어졌거나
 위졌던지[-째던지] ㉾ 어졌든지
 위졌든[-째든] ㉾ 어졌든
 위쩌구-저쩌구 ㉾ 어쩌고-저쩌고
 위쩌다 ㉾ 어쩌다
 위쩌다 ㉾ 어쩌다
 위쩌다가 ㉾ 어쩌다가
 위쩌은 ㉾ 어쩌면
 위쩨 ㉾ 어쩨
 위쩨지 ㉾ 어쩨지
 위 : 째 ㉾ 어째
 위졌거나[-째꺼-] ㉾ 어졌거나
 위졌던[-째던] ㉾ 어졌든
 위졌던지[-째던지] ㉾ 어졌든지
 위찌 ㉾ 어찌
 위찌-나 ㉾ 어찌-나
 위찌-허다 ㉾ 어찌-하다
 위찌-허여 ㉾ 어찌-하여
 위차피 ㉾ 어차피(於此彼)
 위채피 ㉾ 어차피(於此彼)
 위치기 ㉾ 어떻게
 위치키[-치키] ㉾ 어떻게
 위척-허다 ㉾ 어떻게 하다
 위척-허다 ㉾ 어떡-하다
 원 : 생이 ㉾ 원 : 송이(猿猩-)
 원 : 양-으선 ㉾ 원 : 양-어선(遠洋漁船)
 원 : 제 ㉾ 언제
 원 : 제-나 ㉾ 언제-나
 원 : 쟈-가[-쟁-] ㉾ 언 : 쟈-가

원체(元體) ㉾ 워낙
 월 : 마 ㉾ 얼 : 마
 월 : 마-나 ㉾ 얼마-나
 월 : 마-쓱 ㉾ 얼 : 마-쓱
 월 : 마-씩 ㉾ 얼 : 마-씩
 월 : 마-짬 ㉾ 얼 : 마-짬
 월 : -마큼 ㉾ 얼 : 마-만큼
 월 : -망큼 ㉾ 얼 : 마-만큼
 월 : 매 ㉾ 얼 : 마
 월 : 매-나 ㉾ 얼 : 마-나
 월 : 매-쓱 ㉾ 얼 : 마-쓱
 월 : 매-씩 ㉾ 얼 : 마-씩
 웬만-허다 ㉾ 웬만-하다
 원수 ㉾ 원수(怨讐)
 원수-지간 ㉾ 원수-지간(怨讐之間)
 윗 : 풍[우인-/우입-] ㉾ 웃-풍(-風)
 유산 ㉾ 우산(雨傘)
 육모-초[응-] ㉾ 익모-초(益母草)
 육실-허다[-쉴-] ㉾ 육시-하다(戮屍-)
 울메기 ㉾ 유헬목이
 울미기 ㉾ 유헬목이
 웃 : ㉾ 웃 :
 -으 ㉾ 어(語)
 으 ㉾ 의
 으 : ㉾ 어 : (御)
 으 : 가 ㉾ 어 : 가(御街)
 으 : 가 ㉾ 어 : 가(御駕)
 으 : 가 ㉾ 어가(漁家)
 으 : 가 ㉾ 어가(漁歌)
 으 : 간 ㉾ 어 : 간(語幹)
 으 : 간-대청 ㉾ 어 : 간-대청(-大廳)
 으 : 간-말래 ㉾ 어간-마루
 으 : 감 ㉾ 어 : 감(語感)
 으거지 ㉾ 억지
 으거지-공사 ㉾ 억지-공사(-公事)

으거지-농사 ㉾ 억지-농사(-農事)
 으: 계 ㉾ 어:계(語系)
 으: 고 ㉾ 어:고(御庫)
 으: 구[-꾸] ㉾ 어:구(語句)
 으: 구 ㉾ 어구(漁具)
 으: 군 ㉾ 어:군(語群)
 으굴-허다[-굴-/구러-] ㉾ 억울-하다(抑鬱-)
 으그러-지다 ㉾ 어그러-지다
 으그러-뜨리다 ㉾ 어그러-뜨리다
 으그리다 ㉾ 응그리다
 으: 근 ㉾ 어:근(語根)
 으긋-나다[-근-] ㉾ 어긋-나다
 으기다 ㉾ 어기다
 으기적-거리다[-꺼-] ㉾ 어기적-거리다
 으기적-대다[-때-] ㉾ 어기적-대다
 으기적-으기적 ㉾ 어기적-어기적
 으기즉-그리다[-끄-] ㉾ 어기적-거리다
 으기즉-으기즉 ㉾ 어기적-어기적
 으기-차다 ㉾ 어기-차다
 으깃-장[-깁짱] ㉾ 어깃-장
 으김-없다[-음따] ㉾ 어김-없다
 으김-없이[-음씨] ㉾ 어김-없이
 으깃-장[-깁짱] ㉾ 어깃-장
 -으까미 ㉾ -을까 봐
 -으깨미 ㉾ -을까 봐
 -으깨비 ㉾ -을까 봐
 으껴-지다 ㉾ 으깨-지다
 으끼다 ㉾ 으깨다
 으냥 ㉾ 은행(銀杏)
 으냥-나무 ㉾ 은행-나무(銀杏-)
 으냥-낭구 ㉾ 은행-나무(銀杏-)
 으냥-앞새[-입새] ㉾ 은행-앞(銀杏-)
 으녕 ㉾ 은행(銀杏)
 으녕-낭구 ㉾ 은행-나무(銀杏-)

으녕-나무 ㉾ 은행-나무(銀杏-)
 으녕-잎[-닙] ㉾ 은행-잎(銀杏-)
 으: 놀-허다 ㉾ 어:놀-허다(語訥-)
 -으니까 ㉾ -으니까
 -으니까 ㉾ -으니까
 으: 두 ㉾ 어:두(語頭)
 으뒤-지다 ㉾ 어두어-지다
 으: 든-허다 ㉾ 어:둔-허다(語通/語鈍-)
 으둡다[-따] ㉾ 어둡다
 으롤랑 ㉾ 으로는
 으롤랑은 ㉾ 으로는
 으: 르신 ㉾ 어:르신
 으: 르신-네 ㉾ 어:르신-네
 으: 른 ㉾ 어:르
 으리-광 ㉾ 어리-광
 으리광-부리다 ㉾ 어리광-하다
 으리광-피다 ㉾ 어리광-하다
 으리굴-젓[-절] ㉾ 어리굴-젓
 으리뜩-허다[-커-] ㉾ 어리뜩-하다
 으리병병-허다 ㉾ 어리병병-하다
 으리빠리 ㉾ 어리바리
 으리빠리-허다 ㉾ 어리바리-하다
 으림 ㉾ 어림
 으림-없다[-음따] ㉾ 어림-없다
 으림-없다[-음따] ㉾ 어림-없다
 으림-잡다[-따] ㉾ 어림-잡다
 으림-짐작 ㉾ 어림-짐작
 으림-치다 ㉾ 어림-치다
 으림-배기[-배-] ㉾ 어리-보기
 으릿-거리다[-릴꺼-] ㉾ 어릿-거리다
 으릿-광대[-릴광-] ㉾ 어릿-광대
 으릿-배기[-릴배-] ㉾ 어리-보기
 으릿-으릿 ㉾ 어릿-어릿
 으릿으릿-허다[-릴-리터-/릴-릴터-]
 ㉾ 어릿어릿-하다

으 : 마 ㅍ 어:마(御馬)
 으마으마-허다 ㅍ 어마어마-하다
 으 : 말 ㅍ 어:말(語末)
 으 : 말-으 : 미 ㅍ 어:말-어:미(語末語尾)
 으 : 망 ㅍ 어망(漁網,魚網)
 으 : 명 ㅍ 어:명(御命)
 으 : -목 ㅍ 어-목(魚-)
 으 : 미 ㅍ 어:미(語尾)
 으 : 민 ㅍ 어민(漁民)
 으 : 응 ㅍ 어명(御命)
 으 : 법 ㅍ 어법(語法)
 으병-허다 ㅍ 어병-하다
 으 : 부 ㅍ 어부(漁夫/漁父)
 으 : 부-가 ㅍ 어부-가(漁父歌)
 으 : 부-사 ㅍ 어부-사(漁父詞)
 으 : 부-사 ㅍ 어부-사(漁夫辭)
 으 : 부-사 : 시사 ㅍ 어부-사: 시사(漁父四時詞)
 으부지-리 ㅍ 어부지-리(漁父之利)
 으 : 분 ㅍ 어분(魚粉)
 으붓-딸[-분-] ㅍ 의붓-딸
 으붓-새끼[-분-] ㅍ 의붓-자식
 으붓-아들[-부다-] ㅍ 의붓-아들
 으붓-애비[-부대-] ㅍ 의붓-애비
 으붓-에미[-부데-] ㅍ 의붓-어미
 으붓-자식[-분짜-] ㅍ 의붓-자식
 으붓-자숙[-분짜-] ㅍ 의붓-자식
 으 : 사 ㅍ 어:사(御史)
 으 : 사 ㅍ 어:사(語史)
 으 : 사-또 ㅍ 어:사-또(御史道)
 으 : 사-출또 ㅍ 어:사-출또(御使出頭)
 으 : 사-출두[-뜨] ㅍ 어:사-출두(御使出頭)
 으 : 사-화 ㅍ 어:사-화(御賜花)
 으 : 색-허다[-새커-] ㅍ 어:색-하다

(語塞-)
 으서 ㅍ 어서
 으서-지다 ㅍ 으스러-지다
 으 : 선 ㅍ 어선(漁船)
 으 : 슨 ㅍ 어선(漁船)
 으 : 설프다 ㅍ 어:설프다
 으 : 설피 ㅍ 어:설피
 으서-대다 ㅍ 으스러-뜨리다
 으서-버리다 ㅍ 으스러-뜨리다
 으셔-지다 ㅍ 으스러-지다
 으 : 수 ㅍ 어:수(御手)
 으 : 수 ㅍ 어:수(御水)
 으 : 수 ㅍ 어:수(御壽)
 으수룩-허다[-루커-/-룩커-] ㅍ 어수
 룩-하다
 으 : 순 ㅍ 어:순(語順)
 으스름 ㅍ 어스름
 으슬프다 ㅍ 어설프다
 으 : 슬피 ㅍ 어:설피
 으슴푸레 ㅍ 어슴푸레
 으슴푸레-허다 ㅍ 어슴푸레-하다
 으시다 ㅍ 으스러-뜨리다
 으시-대다 ㅍ 으스-대다
 으실-으실 ㅍ 으슬-으슬
 으실으실-허다 ㅍ 으슬으슬-하다
 으심푸레 ㅍ 으슴푸레
 으심푸레-허다 ㅍ 으슴푸레-하다
 으안 ㅍ 어안
 -으야 ㅍ -어야
 -으야만 ㅍ -아(어)야만
 으업 ㅍ 어업(漁業)
 으업-권[-권] ㅍ 어업-권(漁業權)
 으여 ㅍ 어서
 으여뿌다 ㅍ 어여쁘다
 으여빠 ㅍ 어여빠

으 : 영-대 : 장 [표] 어:영-대:장(御營大將)
 으영-부영 [표] 어영-부영
 으 : 영-청 [표] 어:영-청(御營廳)
 으 : 용 [표] 어:용(御用)
 으 : 용-신문[-심-] [표] 어:용-신문(御用新聞)
 으우렁-드우렁 [표] 어우렁-더우렁
 으우릉-드우릉 [표] 어우렁-더우렁
 으올리다 [표] 어올리다
 으 : 원 [표] 어:원(語源)
 으 : 유 [표] 어유(魚油)
 으 : 육 [표] 어육(魚肉)
 으 : 의 [표] 어:의(語義)
 으 : 읍 [표] 어읍(漁業)
 으이-없다[-음따] [표] 어이-없다
 으이-없다[-음따] [표] 어이-없다
 으인 [표] 어인
 으 : 응-대 : 장 [표] 어:영-대:장(御營大將)
 으 : 응-청 [표] 어:영-청(御營廳)
 으장 [표] 어장(漁場)
 으적잡다[-째타] [표] 어줍잡다
 으 : 전 [표] 어:전(御前)
 으 : 전-회 : 의 [표] 어:전-회:의(御前會議)
 으 : 절 [표] 어:절(語節)
 으접잡다[-째타] [표] 어줍잡다
 으젓-이[-저시] [표] 의젓-이
 으젓-허다[-저터-] [표] 의젓-하다
 으정쟁-허다 [표] 어정쟁-하다
 으 : 제 [표] 어:제(御製)
 으줍잡다[-째타] [표] 어줍잡다
 으중간-허다 [표] 어중간-하다(於中間-)
 으중-따다 [표] 어중-되다(於中-)
 으즈럽다[-따] [표] 어지럽다
 으즈럽허다[-러피-] [표] 어지럽허다
 으 : 존 [표] 어:전(御前)

으 : 존 [표] 어:전(御殿)
 으 : 존-회 : 의 [표] 어:전-회:의(御前會議)
 으 : 줄 [표] 어:절(語節)
 으증쟁-허다 [표] 어정쟁-하다
 으 : 지 [표] 어지(御旨)
 으지간-허다 [표] 어지간-하다
 으지간-히 [표] 어지간-히
 으지럽다[-따] [표] 어지럽다
 으지럽허다[-러피-] [표] 어지럽허다
 으 : 진 [표] 거의
 으 : 진 [표] 어:진(御眞)
 으질르다 [표] 어지르다
 으질-병 [표] 어질-병(-病)
 으질-붕 [표] 어질-병(-病)
 으질-으질 [표] 어질-어질
 으질으질-허다 [표] 어질어질-하다
 으집잡다[-째타] [표] 어줍잡다
 으징간-허다 [표] 어중간-하다(於中間-)
 으징-따다 [표] 어중-되다(於中-)
 으 : 징-이 [표] 어:중-이(於中-)
 으 : 징이-뜨징이 [표] 어:중이-떠중이
 으찻-으찻 [표] 어찻-어찻
 으찻으찻-허다 [표] 어질어질-하다
 으찻-허다 [표] 어찻-하다
 으처구니 [표] 어처구니
 으처구니-없다[-음따] [표] 어처구니-없다
 으 : 촌 [표] 어촌(漁村)
 으초구니 [표] 어처구니
 으초구니-없다[-음따] [표] 어처구니-없다
 -으치 [표] -어치
 으 : 탁 [표] 어탁(魚拓)
 으 : 패-류 [표] 어패-류(魚貝類)
 으 : 항 [표] 어항(魚缸)

으 : 항 ㉾ 어항(漁港)
 으 : 혈[-히을] ㉾ 어:혈(瘀血)
 으 : 형 ㉾ 어:형(語形)
 으 : 형-변 : 화 ㉾ 어:형-변화(語形變化)
 으화 ㉾ 어화(漁火)
 으획 ㉾ 어획(漁獲)
 으획-량[-횡량] ㉾ 어획-량(漁獲量)
 으 : 휘[-히] ㉾ 어:휘(語彙)
 으 : 휘-론[-히-] ㉾ 어:휘-론(語彙論)
 으 : 휘-력[-히-] ㉾ 어휘-력(語彙力)
 으흠 ㉾ 어흠
 으 : 흘 ㉾ 어:혈(瘀血)
 으 : 흥 ㉾ 어:형(語形)
 으 : 흥-변 : 화 ㉾ 어형-변화(語形變化)
 억 ㉾ 억(億)
 억겁[-겁] ㉾ 억겁(億劫)
 억급[-급] ㉾ 억급(億劫)
 억-놀르다[응-] ㉾ 억-놀르다
 억-놀리다[응-] ㉾ 억-놀리다
 억류[응뉴] ㉾ 억류(抑留)
 억만[응만] ㉾ 억만(億萬)
 억만-금[응-] ㉾ 억만-금(億萬金)
 억만-장자[응-] ㉾ 억만-장자(億萬長者)
 억불-송유[-뵤-] ㉾ 억불-송유(抑佛崇儒)
 억-시계[-씨-] ㉾ 억-세계
 억-시다[-씨-] ㉾ 억-세다
 억압 ㉾ 억압(抑壓)
 억양 ㉾ 억양(抑揚)
 억양-법[-뵤] ㉾ 억양-법(抑揚法)
 억양-뵤[-뵤] ㉾ 억양-법(抑揚法)
 억울 ㉾ 억울(抑鬱)
 억제[-제] ㉾ 억제(抑制)
 억제-허다[-제-] ㉾ 억제-허다(抑制-)
 억조-창생[-쯔-] ㉾ 억조-창생(億兆蒼生)
 억지[-찌] ㉾ 억지

억지-루[-찌] ㉾ 억지-로
 억지-웃음[-찌] ㉾ 억지-웃음
 억척 ㉾ 억척
 억척-꾸리기 ㉾ 억척-꾸리기
 억척-스럽다[-쓰-따] ㉾ 억척-스럽다
 억측 ㉾ 억척
 억측-꾸리기 ㉾ 억척-꾸리기
 억측-빼기 ㉾ 억척-빼기
 억측-시럽다[-씨-따] ㉾ 억척-스럽다
 억측-허다[-츠키-] ㉾ 억척-허다(臆測-)
 억 : 하-심정[으카-] ㉾ 억하-심정(抑何心淸)
 은 : 간 ㉾ 언:간(諺簡)
 은감생심 ㉾ 언감생심(焉敢生心)
 은 : 문 ㉾ 언문(諺文)
 은 : 문-일치 ㉾ 언문-일치(言文一致)
 은 : 문-책 ㉾ 언문-책(諺文冊)
 은변 : ㉾ 언변(言辯)
 은사 ㉾ 언사(言事)
 은약 ㉾ 언약(言約)
 은 : 월 ㉾ 언:월(偃月)
 은 : 월-도[-도] ㉾ 언:월-도(偃月刀)
 은 : 쟁 ㉾ 언쟁(言爭)
 은 : 쟁-허다 ㉾ 언쟁-허다(言爭-)
 은 : 제 ㉾ 언:제
 은 : 제-나 ㉾ 언:제-나
 은 : 쟁-가[-젠-/쟁-] ㉾ 언:쟁가
 은 : 중 ㉾ 언중(言衆)
 은 : 중 ㉾ 언중(言中)
 은 : 중-유골 ㉾ 언중-유골(言中有骨)
 은 : 질 ㉾ 언질(言質)
 은짚다[-짚타] ㉾ 언짚다
 을짚다[-짚타] ㉾ 언짚다
 은 : 해 ㉾ 언:해(諺解)
 은 : 행 ㉾ 언행(言行)

은행-일치 ㉾ 언행-일치(言行一致)
 을 : 다[-따] ㉾ 언:다
 을 : 어-내다 ㉾ 언:어-내다
 을 : 어-듣다[-따] ㉾ 언:어-듣다
 을 : 어-맞다[-맞따] ㉾ 언:어-맞다
 을 : 어-먹다[-먹따] ㉾ 언:어-먹다
 을 : 어-터지다 ㉾ 언:어-터지다
 을 : ㉾ 얼:
 얼근-허다[-/-그너-] ㉾ 얼근-허다
 얼김-이[-끼미] ㉾ 얼김-에
 을 : 다 ㉾ 얼:다
 을 : -띠기 ㉾ 얼:-뜨기
 을 : -띠다 ㉾ 얼:-뜨다
 얼러-대다 ㉾ 으르-대다
 을 : 러-맞추다[-맞-] ㉾ 얼:러-맞추다
 을 : 러방-치다 ㉾ 얼:러방-치다
 을 : 러-치다 ㉾ 얼:러-치다
 얼론[을-] ㉾ 언론(言論)
 얼론-계[을-계/을-계] ㉾ 언론-계(言
 論界)
 얼론-사[을-] ㉾ 언론-사(言論社)
 얼론-인[을-] ㉾ 언론-인(言論人)
 얼르다 ㉾ 으르다
 얼리다 ㉾ 얼리다
 얼-버무리다 ㉾ 얼-버무리다
 얼-비치다 ㉾ 얼:-비치다
 을 : -빠지다 ㉾ 얼:-빠지다
 을 : -뺨 ㉾ 얼-뺨
 얼씨구 ㉾ 얼씨구
 얼씨구나 ㉾ 얼씨구나
 얼씨구-즐씨구 ㉾ 얼씨구-즐씨구
 얼어-붙다[-붙따] ㉾ 얼어-붙다
 얼음 ㉾ 얼음
 얼음-낚시[-낙씨] ㉾ 얼음-낚시
 얼음-덩이[-땡-] ㉾ 얼음-덩이

얼음-장[-짱] ㉾ 얼음-장
 을 : -차래 ㉾ 얼-차래
 얼-치기 ㉾ 얼-치기
 얼다[으따] ㉾ 얼다
 얼-매다[응-] ㉾ 얼-매다
 얼어-매다[을거-] ㉾ 얼어-매다
 얼히다[을키-] ㉾ 얼히다
 음 : 식 ㉾ 음:식(飮食)
 음 : 식-물[-싱-] ㉾ 음:식-물(飮食物)
 음 : 식-상[-쌍] ㉾ 음:식-상(飮食床)
 음 : 식-용[-성농] ㉾ 음:식-용(飮食用)
 음식-점[-점] ㉾ 음식-점(飮食店)
 음청 ㉾ 엄청
 율 : 다 ㉾ 율:다
 율 : 애다[음쎄-] ㉾ 율:애다
 율어-지다 ㉾ 율:어-지다
 율 : 이 ㉾ 율:이
 음청-나다 ㉾ 엄청-나다
 음청-이 ㉾ 엄청나게
 음첵-이 ㉾ 엄청나게
 읍 ㉾ 읍(業)
 -읍 ㉾ -읍(業)
 읍계[-계] ㉾ 읍계(業界)
 읍무[음-] ㉾ 읍무(業務)
 읍 : 수이[-수-] ㉾ 하찮게
 읍 : 신-여기다[-썬녀-] ㉾ 읍신-여기다
 읍 : 쎄 ㉾ 어머니/우와
 읍자[-짜] ㉾ 읍자(業者)
 읍종[-짱] ㉾ 읍종(業種)
 율 : 다[음 : 따] ㉾ 율:다
 율 : 애다[음 : 쎄-] ㉾ 율:애다
 율 : 어-지다[음 : 쎄-] ㉾ 율:어-지다
 율 : 이[음 : 씨] ㉾ 율:이
 율 : 이[음씨] ㉾ 하찮게
 율 : 이-허다[음 : 씨-] ㉾ 율:이-허다

응겁-결[-결] ㉾ 응겁-결
 응겁결-이[-꺼리] ㉾ 응겁결-에
 응급-굴[-굴] ㉾ 응겁-결
 응급굴-이[-꺼리] ㉾ 응겁-결에
 -응께 ㉾ -으니까
 응 : 덩-방아 ㉾ 응: 덩-방아
 응 : 덩-짜 ㉾ 볼기-짜
 응 : 뎡이 ㉾ 응: 덩이
 응 : 뎡이-춤 ㉾ 응: 덩-춤
 응 : 덩이 ㉾ 응: 덩이
 응딩이-춤 ㉾ 엉덩-춤
 응 : 덩-짜 ㉾ 볼기-짜
 응망 ㉾ 엉망
 응망-진창 ㉾ 엉망진창
 응 : 석-꾸러기 ㉾ 응: 석-꾸러기
 응 : 석-꾸러기 ㉾ 응: 석-꾸러기
 응치-빠 ㉾ 엉덩이-빠
 응치-빠 ㉾ 엉덩이-빠
 이 ㉾ 응
 이 ㉾ 의
 이사 ㉾ 이야
 -이니께 ㉾ -으니까
 -이닝께 ㉾ -으니까
 이-다가 ㉾ 에-다가
 이-다가니 ㉾ 에-다가는
 이-다가니는 ㉾ 에-다가는
 이-다가닌 ㉾ 에-다가는
 이-따우 ㉾ 이-따위
 이려구 ㉾ 이려고
 이려구-저려구 ㉾ 이려고-저려고
 이렇기[-러키] ㉾ 이렇게
 이려 ㉾ 이래
 이려야 ㉾ 이래야
 이려두 ㉾ 이래도
 이려서 ㉾ 이래서

이-루 ㉾ 이리-로
 이룰랑 ㉾ 으로는
 이룰랑은 ㉾ 으로는
 이류 ㉾ 이래요
 이를-테른 ㉾ 이를-테면
 이리두 ㉾ 이래도
 이리-루 ㉾ 이리-로
 이리서 ㉾ 이래서
 이뤘다-저뤘다 ㉾ 이랬다-저랬다
 이-만침 ㉾ 이-만끔
 이맛-독[-만독] ㉾ 이맛-돌
 이-망큼 ㉾ 이-만끔
 이-맨치 ㉾ 이-만치
 이-맨침 ㉾ 이-만치
 이-맹큼 ㉾ 이-만끔
 이물-없다[-음따] ㉾ 허물-없다
 이 : 민수 ㉾ 임연수-어(林延壽魚)
 이뿌다 ㉾ 예쁘다
 이서 ㉾ 여기에서
 이서-지다 ㉾ 이어-지다
 이스다 ㉾ 잇다
 이 : 씨 ㉾ 에이 씨
 이우지 ㉾ 이웃
 이웃[-웁] ㉾ 이웃
 이우지-간 ㉾ 이웃-간(-間)
 이웃-간[-웁간] ㉾ 이웃-간(-間)
 이웃-사 : 촌[-웁싸-] ㉾ 이웃-사: 촌
 이웃-집[-웁집] ㉾ 이웃-집
 이웃-허다[-우터-] ㉾ 이웃-하다
 이응 ㉾ 영
 이저 ㉾ 이제
 이-집 ㉾ 이 여자
 이-짜 ㉾ 이-쪽
 이짜-저짜 ㉾ 이쪽-저쪽
 이-터락 ㉾ 이-토록

익살-꾸리기[-쌀-] ㉠ 익살-꾸리기
인자 ㉠ 인제
인저 ㉠ 인제
인전 ㉠ 이젠
인주-각[-각] ㉠ 인주-갑(印朱-)
일-나다 ㉠ 일어-나다
일다 ㉠ 이다
일 : -루 ㉠ 이리-로
일루-절루 ㉠ 이리저리
일르다 ㉠ 이르다
일 : 르다 ㉠ 이르다
일리 ㉠ 이리
일리-절리 ㉠ 이리-저리
일-은식 ㉠ 일-면식(一面識)
일부로 ㉠ 일부러
일 : 쓰다 ㉠ 일으키다
일키다 ㉠ 일으키다
일-테른 ㉠ 일-테면
입-마개 ㉠ 입-마개/마스크
입순[-쓰] ㉠ 입선(入選)
입순-작[-쓰-] ㉠ 입선-작(入選作)
입-짐[-짐] ㉠ 입-감
입 짝-차 ㉠ 이쪽 것
잉 ㉠ 응
앞-사구[입싸-] ㉠ 앞-사귀
앞-새[입싸] ㉠ 앞-사귀
앞-새기[입싸-] ㉠ 앞-사귀
앞새-담배[입싸-] ㉠ 앞-담배
으 : ㉠ 여기
으그 ㉠ 여기
으기 ㉠ 여기
으-동상 ㉠ 여-동생(女-)
으 : 서 ㉠ 여기서
으유-렵다[-따] ㉠ 여유-롭다(餘裕-)
으-짬 ㉠ 이-짬

으-짬 ㉠ 이-짬
으 ㉠ 역(驛)
으 ㉠ 역(逆)
으즌[-쯔] ㉠ 역전(驛前)
은기 ㉠ 연기(煙氣)
은기-통 ㉠ 연기-통(煙氣筒)
은통 ㉠ 연통(煙氣筒)
은 : 십 ㉠ 연:습(練習)
은 : 십-량[-심냥] ㉠ 연:습-량(練習量)
은 : 십-상[-심쌍] ㉠ 연:습-생(練習生)
은 : 십-용[-심농] ㉠ 연:습-용(練習用)
은 : 십-장[-심짱] ㉠ 연:습-장(練習帳)
은 : 십-허다 ㉠ 연:습-하다(練習-)
은 : 출 ㉠ 연:철(軟鐵)
을브다 ㉠ 엮:다
읍전[-쯔] ㉠ 엽전(葉錢)
읍즌[-쯔] ㉠ 엽전(葉錢)
응 : ㉠ 영
응기 ㉠ 연기(煙氣)
응기-통 ㉠ 연기-통(煙氣筒)

ㅉ

자러다 ㉠ 자라다
자마리 ㉠ 잠자리
자마리-채 ㉠ 잠자리-채
자빠-띠리다 ㉠ 자빠-뜨리다
자빠-지다 ㉠ 자빠-지다
자상-시럽다[-따] ㉠ 자상-스럽다(仔詳-)
자식 ㉠ 자식(子息)
자식-복[-백] ㉠ 자식-복(子息福)
자식-새끼 ㉠ 자식-새끼(子息-)
자숙 ㉠ 자식(子息)
자숙-복[-백] ㉠ 자식-복(子息福)

자숙-새끼이 ㉾ 자식-새끼(子息-)
자존거 ㉾ 자전거(自轉車)
자징거 ㉾ 자전거(自轉車)
자징거-포 ㉾ 자전거-포(自轉車鋪)
자징겨 ㉾ 자전거(自轉車)
자치 ㉾ 자취
작은-메누리 ㉾ 작은-며느리
작은-아부지 ㉾ 작은-아버지
작은-엄니 ㉾ 작은-어머니
작작-허다 ㉾ 작작-하다
잔-가쟁이 ㉾ 잔-가지
잔-가징이 ㉾ 잔-가지
잔-까시 ㉾ 잔-가시
잔나비 ㉾ 원숭이
잔내비 ㉾ 원숭이
잔등 ㉾ 등
잔등-어리 ㉾ 등
잔딩이 ㉾ 등
잔-못꼬쟁이[-물-] ㉾ 잔-못
잔-치리기 ㉾ 찌꺼기
잔치-서르지 ㉾ 잔치-설거지
잘르다 ㉾ 자르다
잘못[-을] ㉾ 잘못
잘못-허다[-우터-] ㉾ 잘못-하다
잠-글[-플] ㉾ 잠-걸
잠-꾸리기 ㉾ 잠-꾸러기
잡어-놓다[느타] ㉾ 잡아-놓다
잡어-다리다 ㉾ 잡아-당기다
잡어-댕기다 ㉾ 잡아-당기다
잡어-딜이다 ㉾ 잡아-들이다
잡어-댕기다 ㉾ 잡아-당기다
잡어-땡기다 ㉾ 잡아-당기다
잡어-멕히다[-메키-] ㉾ 잡아-먹히다
잡어-직이다 ㉾ 잡아-죽이다
잡화-즘[자뻘-/자파-] ㉾ 잡화-짐(雜

貨店)
장그다 ㉾ 잡그다
장기다 ㉾ 잡기다
장기다 ㉾ 잡기다
장 : -광 : ㉾ 장 : 독-대(醬-臺)
장냥 ㉾ 장난
장냥-감[-괘] ㉾ 장난-감
장냥-꾸리기 ㉾ 장난-꾸리기
장냥-꾼 ㉾ 장난-꾼
장냥-기[-끼] ㉾ 장냥-기(-氣)
장냥-조[-뜨] ㉾ 장난-조(-調)
장냥-질 ㉾ 장난-질
장냥-치다 ㉾ 장난-치다
장냥-허다 ㉾ 장난-하다
장-대미[-때-] ㉾ 장-대(長-)
장 : 두리 ㉾ 장 : 도리
장적 ㉾ 장작(長斫)
장적-가리[-까-] ㉾ 장작-가리(長斫-)
장적-개비[-깨-] ㉾ 장작-개비(長斫-)
장적-데미[-때-] ㉾ 장작-데미(長斫-)
장적-불[-뿔] ㉾ 장작-불(長斫-)
장적-웃[-을] ㉾ 장작-웃(長斫-)
재-근축 ㉾ 재-건축(再建築)
재근-허다 ㉾ 재건-하다(再建-)
재 : -벌 ㉾ 두 : -벌
재치기 ㉾ 재채기
쟁히다[재피-] ㉾ 잡히다
쟁기다 ㉾ 잡기다
쟁기다 ㉾ 잡기다
-자 ㉾ -지
자 ㉾ 재
자 : -네 ㉾ 재 네
자 : -덜 ㉾ 저 애들
저 ㉾ 겨
저 : ㉾ 저기

저그 ㅍ 저기
 저깨 ㅍ 저기썸
 저깨핌 ㅍ 저기썸
 저 : 냥 ㅍ 겨:냥
 저 : 냥-허다 ㅍ 겨냥-하다
 저드랑 ㅍ 겨드랑
 저드랑-이 ㅍ 겨드랑-이
 저드랑-털 ㅍ 겨드랑이-털
 저드랭-이 ㅍ 겨드랑-이
 저드랭이-털 ㅍ 겨드랑이-털
 저-따우 ㅍ 저-따위
 저러구 ㅍ 저리고
 저랄기[-러키] ㅍ 저렇게
 저려 ㅍ 저래
 저려두 ㅍ 저래두
 저려서 ㅍ 저래서
 저-루 ㅍ 저리-로
 저류 ㅍ 저래요
 저르르 ㅍ 찌르르
 저르르-허다 ㅍ 찌르르-하다
 저를 ㅍ 겨를
 저리다 ㅍ 저러다
 저리두 ㅍ 저래두
 저리서 ㅍ 저래서
 저렀다[-ړ따] ㅍ 저렇게 했다
 저ړ다[-리타/-ړ따] ㅍ 저렇다
 저-만침 ㅍ 저-만큼
 저-망큼 ㅍ 저-만큼
 저-맨치 ㅍ 저-만치
 저-맨침 ㅍ 저-만치
 저-맹큼 ㅍ 저-만큼
 저범 ㅍ 젓-가락
 저범-질 ㅍ 젓가락-질
 저 : 서 ㅍ 저기에서
 저스다 ㅍ 젓:다

저-시 : 상 ㅍ 저-세:상(-世上)
 저-죽 ㅍ 겨-죽(-粥)
 저-질르다 ㅍ 저-지르다
 저-집 ㅍ 저 여자
 저-짜 ㅍ 저-쪽
 저참 지난 저번 때
 저 : 칭 ㅍ 저:층(底層)
 저-터락 ㅍ 저-토록
 적-가마[-까-] 겨를 담은 가마니
 적-가락[-까-] ㅍ 젓-가락
 적깔 ㅍ 젓-가락
 적깔-질 ㅍ 젓가락-질
 적구[-꾸] ㅍ 격구(擊毬)
 적발-이 장부에 적는 사람
 전디다 ㅍ 견디다
 절 ㅍ 결
 절구-맹이 ㅍ 절굿-공이
 절구-통 ㅍ 절구
 절굿-대[-군대] ㅍ 절굿-공이
 절-루 ㅍ 절-로
 절리 ㅍ 저리
 절리다 ㅍ 결리다
 점 ㅍ 줌
 점 ㅍ 줌
 점부 ㅍ 전부(全部)
 점사 ㅍ 겸사(兼事)
 점사-점사 ㅍ 겸사-겸사(兼事兼事)
 점상 ㅍ 겸상(兼床)
 점용 ㅍ 겸용(兼用)
 접-꽃[-곧] ㅍ 겹-꽃
 접-니불[점-] ㅍ 겹-이불
 접-두루매기[점뚜-] ㅍ 겹-두루매기
 접-바지[-빠-] ㅍ 겹-바지
 접-방[-뽕] ㅍ 겹-방(-房)
 접방-살림[-뽕-] ㅍ 겹방-살림(-房-)

접방-살이[-뺑-] ㉾ **결방-살이**(-房-)
접-버선[-빠-] ㉾ **겹-버선**
접-사둔[-싸-] ㉾ **겹-사둔**(-査頓)
접-살림[-쌀-] ㉾ **겹-살림**
접-저구리 ㉾ **겹-저고리**
접접-이[-찌비] ㉾ **겹겹-이**
접짝-차 ㉾ **저쪽** **것**
접쳐-지다 ㉾ **겹쳐-지다**
접치다 ㉾ **겹치다**
접-치마 ㉾ **겹-치마**
젓[젓] ㉾ **젓**
젓-가마[적까-/적까-] ㉾
젓-가슴[젓까-] ㉾ **젓-가슴**
젓-먹이[젓-] ㉾ **젓-먹이**
젓-팅이[젓-] ㉾ **젓-통이**
징 ㉾ **경**(經)
징 ㉾ **경**(黥)
징강이 ㉾ **정강이**
징강이-빠 ㉾ **정강이-빠**
징그다 ㉾ **잠그다**
징-내미 ㉾ **정-내미**(情)
징-배기 ㉾ **정수리**(頂-)
징-수배기 ㉾ **정수리**(頂-)
징-읽다(經-)[-닐따/-닉따] **경을 읽다**
징-쟁이(經-) ㉾ **경-쟁이**(經-)
징-치다 ㉾ **경-치다**(黥-)
절[절] ㉾ **결**
제금 ㉾ **판-살림**
제금-나다 **따로** **살림을 차리다**
제금-내다 **따로** **살림을 차리다**
제-극 ㉾ **제-격**(-格)
제꺼-놓다[-노타] ㉾ **제쳐-놓다**
제끼다 ㉾ **제치다**
제로-습 ㉾ **제로-섬**(zerosum)
제우 ㉾ **겨우**

제우-제우 ㉾ **겨우-겨우**
젠 : 장-혈 ㉾ **젠 : 장-칠 / 젠 : 장-맛을**
쟁일 ㉾ **종일**(終日)
져 : -살이 ㉾ **겨우-살이**
적-가지[-까-] ㉾ **결-가지**
적-가쟁이[-까-] ㉾ **결-가지**
적-가징이[-까-] ㉾ **결-가지**
젯 : -지름 ㉾ **겨-기름**
조 : ㉾ **조기**
조-깨 ㉾ **조기-썸**
조깨-썸 ㉾ **조기-썸**
조꺼 ㉾ **조끼**(chokki)
조-따우 ㉾ **조-따위**
조렁키[-러키] ㉾ **조렇게**
조려 ㉾ **조래**
조려두 ㉾ **조래도**
조려서 ㉾ **조래서**
조롱기[-로키] ㉾ **조렇게**
조-루 ㉾ **조리-로**
조류 ㉾ **조래요**
조리다 ㉾ **조러다**
조리두 ㉾ **조래도**
조리서 ㉾ **조래서**
조ړ다[-리타/-린타] ㉾ **조ړ다**
조-만침 ㉾ **조-만치**
조-망큼 ㉾ **조-만큼**
조-맨치 ㉾ **조-만치**
조-맨침 ㉾ **조-만치**
조-맹큼 ㉾ **조-만치**
조서 ㉾ **조기에서**
조-씩 ㉾ **조-쪽**
조카-메누리 ㉾ **조카-며느리**
졸 : ㉾ **부 : 추**
졸러-매다 ㉾ **졸라-매다**
졸 : -루 ㉾ **조리-로**

졸르다 ㉼ 졸르다
졸르다 ㉼ 졸르다
졸리 ㉼ 졸리
졸 : -**집치** ㉼ 부:추-김치
좃다[좃따] ㉼ 쪼다
종그락 ㉼ 종구라기
종그래기 ㉼ 종구라기/종지
종재기 ㉼ 종지
좌 : **우당-간** ㉼ 좌:우지-간(左右之間)
정일 ㉼ 종일(終日)
주-가리(酒-) 술을 내는 사람
주깨미 ㉼ 주꾸미
주댕이 ㉼ 주둥이
주딩이 ㉼ 주둥이
주먼지 ㉼ 주머니/호주머니
주븐 ㉼ 주변(周邊)
주 : **븐** ㉼ 주:변
주 : **븐-머리** ㉼ 주:변-머리
주-승분 ㉼ 주-성분(主成分)
주 : -**잔지다** ㉼ 주저-앉다
주 : -**짚다**[-잔따] ㉼ 주저-앉다
주즘 ㉼ 주점(酒店)
죽-가래[-까-] ㉼ 녁-가래
줄거리 ㉼ 줄기
줄창 ㉼ 줄곧
좃다[좃따] ㉼ 쪼다
중 ㉼ 중
중-빨 ㉼ 중-길(中-)
중-짜 ㉼ 중-길(中-)
중-짚[-짚] ㉼ 중-길(中-)
중-태기 ㉼ 중:-고기
중-태미 ㉼ 중:-고기
중-티기 ㉼ 중:-고기
중-티미 ㉼ 중:-고기
중-핵겨[-꺼] ㉼ 중-학교(中學校)

중-핵교[-교] ㉼ 중-학교(中學校)
친 : -**낭반** ㉼ 주인-양반(主人兩班)
-쥬 ㉼ -지요
즈 : ㉼ 저기
즈 : **가**[-까] ㉼ 저:가(低價)
즈 : **가-주**[-까-] ㉼ 저:가-주(低價株)
즈 : **간** ㉼ 저:간(這間)
즈 : -**개발** ㉼ 저:-개발(低開發)
즈 : **격** ㉼ 저:격(狙擊)
즈 : **격-술**[-술] ㉼ 저:격-술(狙擊術)
즈 : **격-대**[-때] ㉼ 저:격-대(狙擊隊)
즈 : **격-범**[-뺑] ㉼ 저:격-범(狙擊犯)
즈 : **격-병**[-뺑] ㉼ 저:격-병(狙擊兵)
즈 : **격-수**[-수] ㉼ 저:격-수(狙擊手)
즈 : **격-술**[-술] ㉼ 저:격-술(狙擊術)
즈 : -**고도** ㉼ 저:-고도(低高度)
즈 : **금** ㉼ 저:금(貯金)
즈 : -**금리**[-니] ㉼ 저:-금리(低金利)
즈 : **금-통** ㉼ 저:금-통(貯金筒)
즈 : **금-통장** ㉼ 저:금-통장(貯金通帳)
즈 : **급** ㉼ 저:급(低級)
즈 : **급** ㉼ 저:급(低給)
즈 : **기** ㉼ 저기
즈 : -**기압** ㉼ 저:-기압(低氣壓)
즈 : **극** ㉼ 저:격(狙擊)
즈 : **극-대**[-때] ㉼ 저:격-대(狙擊隊)
즈 : **극-범**[-뺑] ㉼ 저:격-범(狙擊犯)
즈 : **극-병**[-뺑] ㉼ 저:격-병(狙擊兵)
즈 : **극-수**[-수] ㉼ 저:격-수(狙擊手)
즈 : **극-술**[-술] ㉼ 저:격-술(狙擊術)
즈 : -**네** ㉼ 저-네/저희-네
즈녁 ㉼ 저녁
즈녁-거리[-꺼-] ㉼ 저녁-거리
즈녁-나절 ㉼ 저녁-나절
즈녁-밥[-뺑] ㉼ 저녁-밥

즈넉-상[-쌍] ㉾ 저넉-상(-床)
즈넉-참 ㉾ 저넉-참
즈넉-해[-녀개] ㉾ 저넉-해
즈 : 능 ㉾ 저:능(低能)
즈 : 능-아 ㉾ 저:능-아(低能兒)
즈 : 능-허다 ㉾ 저:능-허다(低能-)
즈 : -덜 ㉾ 저희-들
즈돌-적[-쩍] ㉾ 저돌-적(猪突的)
즈 : 력 ㉾ 저:력(底力)
즈 : 렘-허다 ㉾ 저:렘-허다(低廉-)
즈-루 ㉾ 저리-로
즈리 ㉾ 저리
즈 : 리 ㉾ 저:리(低利)
즈 : 리-채 ㉾ 저:리-채(低利債)
즈 : 륵 ㉾ 저:력(底力)
즈 : 림-허다 ㉾ 저:림-허다(低廉-)
즈 : -모음 ㉾ 저:-모음(低母音)
즈 : -물가[-까] ㉾ 저:-물가(低物價)
즈 : -밀도[-뜨] ㉾ 저:-밀도(低密度)
즈 : 응 ㉾ 저:명(著名)
즈 : 응-허다 ㉾ 저명-허다(著名-)
즈 : 부 ㉾ 저:부(低部)
즈 : 부 ㉾ 저:부(底部)
즈 : 서 ㉾ 저:서(著書)
즈 : -살이 ㉾ 겨우-살이
즈 : -살이 ㉾ 겨우-살이
즈 : -소득 ㉾ 저:-소득(低所得)
즈 : 속-어 ㉾ 저:-속어(低速語)
즈 : 속-허다[-소커-] ㉾ 저:속-허다
 (低俗-)
즈 : 속-화[-소과] ㉾ 저:속-화(低俗化)
즈 : 수 ㉾ 저:수(貯水)
즈 : 수-량 ㉾ 저:수-량(貯水量)
즈 : -수로 ㉾ 저:-수로(低水路)
즈 : -승능 ㉾ 저:-성능(低性能)

즈 : -수위 ㉾ 저:-수위(低水位)
즈 : 수-율 ㉾ 저:수-율(貯水率)
즈 : 수-조 ㉾ 저:-수조(貯水槽)
즈 : 수-지 ㉾ 저:수-지(貯水池)
즈 : 수-탑 ㉾ 저:수-탑(貯水塔)
즈 : 수-통 ㉾ 저:수-통(貯水桶)
즈 : -성장 ㉾ 저:-성장(低成長)
저-시상 ㉾ 저-세상(-世上)
즈 : 압 ㉾ 저:압(低壓)
즈 : 액 ㉾ 저:액(低額)
즈 : 온 ㉾ 저:온(低溫)
즈 : 위 ㉾ 저:위(低位)
즈 : -위도 ㉾ 저:-위도(低緯度)
즈 : 의 ㉾ 저:의(底意)
즈 : 인-망 ㉾ 저:인-망(底引網)
즈 : 인망-으선 ㉾ 저:인망-어선(底引網
 網漁船)
즈인망-으업 ㉾ 저인망-어업(底引網-
 漁業)
즈 : -임금 ㉾ 저:-임금(低賃金)
즈자 ㉾ 저자
즈 : 자 ㉾ 저:자(著者)
즈 : -자세 ㉾ 저:-자세(低姿勢)
즈작-거리[-꺼-] ㉾ 저갓-거리(-距離)
즈 : 장-허다 ㉾ 저:장-허다(貯藏-)
즈 : 조-허다 ㉾ 저:조-허다(低調-)
즈 : 주 ㉾ 저:주(咀呪/詛呪)
즈 : 주-시럽다[-따] ㉾ 저:주-스럽다
 (咀呪-)
즈 : -주파 ㉾ 저:-주파(低周波)
즈 : 주-허다 ㉾ 저:주-허다(咀呪/咀呪-)
즈지 ㉾ 저지(沮止)
즈 : -지대 ㉾ 저:-지대(低地帶)
즈 : -지방 ㉾ 저:-지방(低脂肪)
즈지-선 ㉾ 저지-선(沮止線)

즈 : 질 [표] 저:질(低質)
즈질르다 [표] 저지르다
즈-짜 [표] 저-쪽
즈 : -차원 [표] 저:-차원(低次元)
즈 : 축 [표] 저:축(抵觸)
즈 : 축 [표] 저축(貯蓄)
즈 : 축-금[-금] [표] 저:축-금(貯蓄金)
즈 : 축-률[-총률] [표] 저:축-률(貯蓄率)
즈 : 축-예금[-총액-] [표] 저:축-예금(貯蓄預金)
즈 : 축-은행[-추근-] [표] 저:축-은행(貯蓄銀行)
즈 : -출산[-산] [표] 즈:-출산(低出產)
즈 : 칭 [표] 저:층(底層)
즈 : 탄-소 [표] 저:탄-소(貯炭所)
즈 : 탄-장 [표] 저:탄-장(貯炭場)
즈 : 택 [표] 저:택(邸宅)
즈-터락 [표] 저-토록
즈 : 하 [표] 저:하(低下)
즈 : 하 [표] 저:하(邸下)
즈 : -학년[-항-] [표] 저:-학년(低學年)
즈 : -학력[-항력] [표] 저:-학력(低學歷)
즈해 [표] 저해(沮害)
즈해-되다 [표] 저해-되다(沮害-)
즈해-허다 [표] 저해-허다(沮害-)
즈 : -혈압 [표] 저:-혈압(低血壓)
즈 : -출압 [표] 저:-출압(低血壓)
즈희[-희이/-히] [표] 저희
즈희-덜[-희-/ -이-] [표] 저희-덜
즈격[-격] [표] 적격(適格)
즈극[-극] [표] 적격(適格)
즈나라-허다[증-] [표] 적나라-허다(赤裸裸-)
즈 : 다[-따] [표] 적:다
즈당-량[-량] [표] 적당-량(適當量)

즈당-주의[-당-의/-당-이] [표] 적당-주의(適當主義)
즈당-허다[-당-] [표] 적당-허다(適當-)
즈도[-도] [표] 적도(赤道)
즈립[증립] [표] 적립(積立)
즈립-금[증립금] [표] 절립-금(積立金)
즈발-이[-빠리] 장부에 적는 사람
즈색[-색] [표] 적색(赤色)
즈성[-성] [표] 적성(適性)
즈소[-소] [표] 적소(適所)
즈수[수] [표] 적수(赤手)
즈수-공권[-수-권] [표] 적수-공권(赤手空拳)
즈수-단신[-수-] [표] 적수-단신(赤手單身)
즈-신호[-신-] [표] 적-신호(赤信號)
즈-십자[-십자] [표] 적-십자(赤十字)
즈 : 어두 [표] 적:어두
즈 : 어-지다 [표] 적:어-지다
즈외-선[즈괴-/즈괘-] [표] 적외-선(赤外線)
즈 : 이 [표] 적:이
즈 : 이-나 [표] 적:이-나
즈임-자 [표] 적임-자(適任者)
즈자[-자] [표] 적자(赤字)
즈-자색[-자-] [표] 적-자색(赤紫色)
즈 : 잦다[-판타] [표] 적:잦다
즈 : 잦이[-판니] [표] 적:잦이
즈중[-중] [표] 적중(的中)
즈중-허다[-중-] [표] 적중-허다(的中-)
즈토-마 [표] 적토-마(赤土馬)
즈합[즈합] [표] 적합(適合)
즈합-성[즈합성] [표] 적합-성(適合性)
즈화[즈화] [표] 적화(赤化)
즈확-허다[-과거-] [표] 적확-허다(的確-)
즈황-색[즈황-] [표] 적황-색(赤黃色)
-즌 [표] 전(戰)

-존 : ㅉ 전: (殿)
 -존 ㅉ 전(展)
 존 : ㅉ 전: (煎)
 존 : ㅉ 전: (廬)
 존가 ㅉ 전가(傳家)
 존 : 가 ㅉ 전: 가(轉嫁)
 존 : 가-되다 ㅉ 전: 가-되다(轉嫁-)
 존 : 가-허다 ㅉ 전: 가-허다(轉嫁-)
 존가지-보 ㅉ 전가지-보(傳家之寶)
 존 : 각 ㅉ 전: 각(殿閣)
 존 : 각 ㅉ 전: 각(篆刻)
 존 : 간 ㅉ 전간(傳簡)
 존갈 ㅉ 전갈(傳喝)
 존갈-꾼 ㅉ 전갈-꾼(傳喝-)
 존갈을 놓다 전갈하다
 존 : 개 ㅉ 전: 개(展開)
 존개-도 ㅉ 전: 개-도(展開圖)
 존 : 개-식 ㅉ 전: 개-식(展開式)
 존쟁이 ㅉ 전쟁이
 존 : 거 ㅉ 전: 거(典據)
 존경 ㅉ 전경(前景)
 존 : 경 ㅉ 전: 경(戰警)
 존공 ㅉ 전공(專攻)
 존 : 공 ㅉ 전: 공(戰功)
 존 : 공-비 ㅉ 전: 공-비(戰功碑)
 존공-의 ㅉ 전공-의(專攻醫)
 존 : 공-탑 ㅉ 전: 공-탑(戰功塔)
 존 : 과[-과] ㅉ 전: 과(全科)
 존 : 과[-과] ㅉ 전: 과(戰果)
 존 : 과[-과] ㅉ 전과(全科)
 존과-범[-과-] ㅉ 전과-범(全科犯)
 존과-자 ㅉ 전과-자(前科者)
 존관 ㅉ 전관(前官)
 존관-예우 ㅉ 전관-예우(前官禮遇)
 존 : 광 ㅉ 전: 광(電光)

존광-석화[-스과] ㅉ 전광-석화(電光石火)
 존 : 광-판 ㅉ 전: 광-판(電光板)
 존교 ㅉ 전교(傳教)
 존교 ㅉ 전교(傳教)
 존교 ㅉ 전교(全校)
 존교-상 ㅉ 전교-생(全校生)
 존교-생 ㅉ 전교-생(全校生)
 존 : 구 ㅉ 전: 구(電球)
 존 : 구 ㅉ 전: 구(戰具)
 존국 ㅉ 전국(全國)
 존 : 국 ㅉ 전: 국(戰局)
 존국-구[-구] ㅉ 전국-구(全國區)
 존국-적[-적] ㅉ 전국-적(全國的)
 존권[-권] ㅉ 전권(專權)
 존권[-권] ㅉ 전권(全權)
 존궤 ㅉ 전궤(前軌)
 존 : 극 ㅉ 전국(電極)
 존 : 근 ㅉ 전: 근(轉勤)
 존기 ㅉ 전기(傳奇)
 존기 ㅉ 전기(前期)
 존기 ㅉ 전기(傳記)
 존 : 기 ㅉ 전: 기(轉機)
 존 : 기 ㅉ 전: 기(電氣)
 존 : 기-공 ㅉ 전: 기-공(電氣工)
 존 : 기-공사 ㅉ 전: 기-공사(電氣工事)
 존 : 기-공업 ㅉ 전: 기-공업(電氣工業)
 존 : 기-공학 ㅉ 전: 기-공학(電氣工學)
 존 : 기-기구 ㅉ 전: 기-기구(電氣器具)
 존 : 기-난로[-날-] ㅉ 전: 기-난로(電氣煖爐)
 존 : 기-료 ㅉ 전: 기-료(電氣料)
 존 : 기-메기 ㅉ 전: 기-메기(電氣-)
 존 : 기-면도기 ㅉ 전: 기-면도기(電氣面刀器)
 존기-문학 ㅉ 전기-문학(傳奇文學)

즌 : 기-밥솥[-솥] ㉟ 전:기-밥솥(電氣-)
즌 : 기-밥솥[-솥] ㉟ 전:기-밥솥(電氣-)
즌 : 기-보일러 ㉟ 전:기-보일러(電氣-boiler)
즌 : 기-세[-세] ㉟ 전:기-세(電氣稅)
즌기-소설 ㉟ 전기-소설(傳奇小說)
즌기-소설 ㉟ 전기-소설(傳記小說)
즌기-수 ㉟ 전기-수(傳奇叟)
즌 : 기-신호 ㉟ 전:기-신호(電氣信號)
즌 : 기-즈:항 ㉟ 전:기-저:항(電氣抵抗)
즌 : 기-툼 ㉟ 전:기-툼(電氣-)
즌 : 기-회로 ㉟ 전:기-회로(電氣回路)
즌 : 깃-불[-깃불] ㉟ 전:깃-불(電氣-)
즌 : 기-대리미 ㉟ 전:기-다리미(電氣-)
즌 : 기-장판 ㉟ 전:기-장판(電氣卮版)
즌기-적 ㉟ 전기-적(傳奇的)
즌 : 깃-불[-깃불] ㉟ 전:깃-불(電氣-)
즌 : 깃-줄[-깃줄] ㉟ 전:깃-줄(電氣-)
즌 : 극[-극] ㉟ 전:격(電擊)
즌 : 극-죽[-쯉] ㉟ 전:격-적(電擊的)
즌 : 극-즌[-쯉] ㉟ 전:격-전(電擊戰)
즌 : 궁 ㉟ 전:경(戰警)
즌 : -나무 ㉟ 짓:-나무
즌-날 ㉟ 전-날(前-)
즌 : 낭 ㉟ 전:낭(錢囊)
즌 : -낭구 ㉟ 짓:-나무
즌 : -내기 ㉟ 전:-내기(塵-)
즌 : 년-도 ㉟ 전:년-도(前年度)
즌념 ㉟ 전념(專念)
즌능-허다 ㉟ 전능-하다(全能-)
즌 : 는-도 ㉟ 전:년-도(前年度)
즌능 ㉟ 전념(專念)
즌단 ㉟ 전단(傳單)
즌달 ㉟ 전달(傳達)
즌-달[-떨] ㉟ 전-달(前)

즌달-식 ㉟ 전달-식(傳達式)
즌달-자[-짜] ㉟ 전달-자(傳達者)
즌달-품 ㉟ 전달-품(傳達品)
즌담 ㉟ 전담(全擔)
즌담 ㉟ 전담(專擔)
즌담 ㉟ 전담(田畝)
즌당 ㉟ 전당(全黨)
즌당 ㉟ 전당(殿堂)
즌당-대회[-회/-회] ㉟ 전당-대회(全黨大會)
즌 : 당-질 ㉟ 전:당-질(典當-)
즌 : 당-포 ㉟ 전:당-포(典當鋪)
즌 : 대 ㉟ 전:대(纏帶)
즌도 ㉟ 전도(前途)
즌도 ㉟ 전도(全圖)
즌도 ㉟ 전도(傳道)
즌 : 도 ㉟ 전:도(顛倒)
즌도-금 ㉟ 전도-금(前渡金)
즌도-사 ㉟ 전도-사(傳道師)
즌도-성[-성] ㉟ 전도-성(傳導性)
즌도-자 ㉟ 전도-자(傳道者)
즌두-엽 ㉟ 전두-엽(前頭葉)
즌두-음 ㉟ 전두-엽(前頭葉)
즌 : 등 ㉟ 전:등(電燈)
즌 : 등-불[-불] ㉟ 전:등-불(電燈-)
즌 : 등-신화 ㉟ 전:등-신화(剪燈新話)
즌 : 락[줄-] ㉟ 전:락(轉落)
즌 : 란[줄-] ㉟ 전:란(戰亂)
즌 : 램[줄-] ㉟ 전:람(展覽)
즌 : 램-실[줄-] ㉟ 전:람-실(展覽室)
즌 : 램-회[줄-/줄-회] ㉟ 전:람-회(展覽會)
즌 : 래[줄-] ㉟ 전래(傳來)
즌량[줄-] ㉟ 전량(全量)
즌력[줄-] ㉟ 전력(全力)

존력[즐-] ㉠ 전력(前歷)
 존력[즐-] ㉠ 전력(專力)
 존 : 력[즐-] ㉠ 전 : 력(電力)
 존 : 력[즐-] ㉠ 전 : 력(戰力)
 존 : 력-난[-령-] ㉠ 전 : 력-난(電力難)
 존 : 력-량[-양] ㉠ 전 : 력-량(電力量)
 존례[즐-] ㉠ 전례(前例)
 존 : 류[즐-] ㉠ 전 : 류(電流)
 존 : 류-계[-계/-계] ㉠ 전 : 류-계(電流計)
 존륜[즐-] ㉠ 전륜(前輪)
 존 : 리-칭[즐-] ㉠ 전 : 리-칭(電離層)
 존 : 리-품[즐-] ㉠ 전 : 리-품(戰利品)
 존립-선[즐-선] ㉠ 전립-선(前立-線)
 존축[즐-] ㉠ 전력(全力)
 존축[즐-] ㉠ 전력(前歷)
 존축[즐-] ㉠ 전력(專力)
 존 : 축[즐-] ㉠ 전 : 력(電力)
 존 : 축[즐-] ㉠ 전 : 력(戰力)
 존 : 축-난[-릉-] ㉠ 전 : 력-난(電力難)
 존 : 축-량[-릉양-] ㉠ 전 : 력-량(電力量)
 존 : 마 ㉠ 존 : 마(戰馬)
 존 : 말 ㉠ 전 : 말(顛末)
 존 : 망 ㉠ 전 : 망(展望)
 존 : 망-대 ㉠ 전 : 망-대(展望臺)
 존매-수입 ㉠ 전매-수입(專賣收入)
 존매-특허[-트커] ㉠ 전매-특허(專賣特許)
 존면 ㉠ 전면(前面)
 존면-적[-미은-] ㉠ 전면-적(全面的)
 존면-전[-미은-] ㉠ 전면-전(全面戰)
 존은-존 ㉠ 전면-전(全面戰)
 존을 ㉠ 전멸(全滅)
 존모 ㉠ 전모(全貌)
 존 : 몰 ㉠ 전 : 몰(戰歿)
 존무 ㉠ 전무(全無)
 존무 ㉠ 전무(專務)

존무-이사 ㉠ 전무-이사(專務理事)
 존무-후 : 무 ㉠ 전무-후 : 무(前無後無)
 존문 ㉠ 전문(全文)
 존은 ㉠ 전면(前面)
 존은-즉 ㉠ 전면-적(全面的)
 존을 ㉠ 전멸(全滅)
 존반 ㉠ 전반(全般)
 존반 ㉠ 전반(前半)
 존반-기 ㉠ 전반-기(前半期)
 존반-부 ㉠ 전반-부(前半部)
 존반-적 ㉠ 전반-적(全般的)
 존반-즉 ㉠ 전반-적(全般的)
 존방 ㉠ 전방(前方)
 존 : 방[-뺑] ㉠ 전 : 방(塵房)
 존 : 병 ㉠ 전 : 병(煎餅)
 존 : 보 ㉠ 전 : 보(電報)
 존 : 보 ㉠ 전 : 보(轉補)
 존 : 보 ㉠ 전 : 보(戰報)
 존복 ㉠ 전복(全鰓)
 존 : 복 ㉠ 전 : 복(顛覆)
 존복-쌈 ㉠ 전복-쌈(全鰓-)
 존복-죽[-쭈] ㉠ 전복-죽(全鰓-)
 존복-탕 ㉠ 전복-탕(全鰓湯)
 존 : 분 ㉠ 전 : 분(澱粉)
 존부 ㉠ 존부(全部)
 존 : 부상-대[-대] ㉠ 전 : 붓-대(電報上-)
 존북 ㉠ 전북(全北)
 존 : 붓-대[-불대] ㉠ 전 : 붓-대(電報-)
 존 : 비 ㉠ 전 : 비(戰費)
 존 : 비 ㉠ 전 : 비(戰備)
 존 : 병 ㉠ 전 : 병(煎餅)
 존 : 사 ㉠ 전 : 사(戰士)
 존 : 사 ㉠ 전 : 사(戰死)
 존 : 사 ㉠ 전 : 사(戰史)
 존 : 사 ㉠ 전 : 사(轉寫)

즌 : 사-본 ㉾ 전:사-본(轉寫本)
즌 : 사-자 ㉾ 전:사-자(戰死者)
즌 : 산 ㉾ 전:산(電算)
즌 : 산-망 ㉾ 전:산-망(電算綱)
즌생 ㉾ 전생(前生)
즌서-구 ㉾ 전서-구(傳書鳩)
즌 : 선 ㉾ 전:선(戰線)
즌 : 선 ㉾ 전:선(電線)
즌 : 선 ㉾ 전:선(戰船)
즌 : 선-줄[-줄] ㉾ 전:선-줄(電線-)
즌설 ㉾ 전설(傳說)
즌설-모음 ㉾ 전설-모음(前舌母音)
즌설-적[-적] ㉾ 전설-적(傳說的)
즌 : 성 ㉾ 전:성(轉成)
즌 : 성-어미 ㉾ 전성-어미(轉成語尾)
즌세 ㉾ 전세(傳賈)
즌 : 세 ㉾ 전:세(戰勢)
즌세-권[-권] ㉾ 전세-권(傳賈權)
즌세-금 ㉾ 전세-금(傳賈金)
즌세-난 ㉾ 전세-난(傳賈難)
즌세-기 ㉾ 전세-기(傳賈機)
즌셋-돈[-셋돈] ㉾ 전셋-돈(傳賈-)
즌세-방[-세방/-셋방] ㉾ 전세-방(傳
 賈房)
즌셋-집[-셋집] ㉾ 전셋-집(傳賈-)
즌소 ㉾ 전소(全燒)
즌속 ㉾ 전속(專屬)
즌-속력[-속력] ㉾ 전-속력(全速力)
즌송 ㉾ 전송(傳誦)
즌 : 송 ㉾ 전:송(電送)
즌 : 송 ㉾ 전:송(餞送)
즌 : 송-망 ㉾ 전:송-망(電送綱)
즌수 ㉾ 전수(傳授)
즌수 ㉾ 전수(傳受)
즌술 ㉾ 전술(前述)

즌 : 술 ㉾ 전:술(戰術)
즌 : 술-가 ㉾ 전:술-가(戰術家)
즌 : 술-적[-적] ㉾ 전:술-적(戰術的)
즌 : 술-학 ㉾ 전:술-학(戰術學)
즌술 ㉾ 전설(傳說)
즌술-모음 ㉾ 전설-모음(前舌母音)
즌술-적[-적] ㉾ 전설-적(傳說的)
즌승 ㉾ 전승(傳承)
즌 : 승 ㉾ 전:승(戰勝)
즌 : 승-국 ㉾ 전:승-국(戰勝國)
즌승-자 ㉾ 전승-자(傳承者)
즌 : 시 ㉾ 전:시(戰時)
즌 : 시-관 ㉾ 전:시-관(展示館)
즌 : 시-대 ㉾ 전:시-대(展示臺)
즌식[-식] ㉾ 전식(前式)
즌신 ㉾ 전신(前身)
즌 : 신 ㉾ 전:신(電信)
즌 : 신 ㉾ 전:신(戰神)
즌신-상 ㉾ 전신-상(全身像)
즌신-운동 ㉾ 전신-운동(全身運動)
즌 : 신-주 ㉾ 전:신-주(電信柱)
즌 : 신-환 ㉾ 전:신-환(電信換)
즌실 ㉾ 전실(前室)
즌심 ㉾ 전심(專心)
즌심 ㉾ 전심(傳心)
즌심 ㉾ 전심(全心)
즌심-전력[-전] ㉾ 전심-전력(全心全力)
즌심-준축[-축] ㉾ 전심-전력(全心全力)
즌 : 아-허다 ㉾ 전:아-허다(典雅-)
즌안 ㉾ 전안(奠雁)
즌안-례[-례] ㉾ 전안-례(奠雁禮)
즌안-상[-상] ㉾ 전안-상(奠雁末)
즌 : 압 ㉾ 전:압(電壓)
즌야 ㉾ 전야(前夜)
즌야-제 ㉾ 전야-제(前夜祭)

즌액 ㉾ 전액(全額)
즌:어 ㉾ 전:어(錢魚)
즌언 ㉾ 전언(傳言)
즌:업 ㉾ 전:업(轉業)
즌업-농 ㉾ 전업-농(專業農)
즌:업-사[-싸] ㉾ 전:업-사(電業社)
즌역 ㉾ 전역(全域)
즌:역 ㉾ 전:역(轉役)
즌:역-식 ㉾ 전:역-식(轉役式)
즌연 ㉾ 전연(全然)
즌:열 ㉾ 전:열(戰列)
즌:열 ㉾ 전:열(電熱)
즌:열-기 ㉾ 전:열-기(電熱器)
즌염 ㉾ 전염(傳染)
즌염-병[-뵙] ㉾ 전염-병(傳染病)
즌염-성[-쌩] ㉾ 전염-성(傳染性)
즌용 ㉾ 전용(專用)
즌:용 ㉾ 전:용(轉用)
즌용-물 ㉾ 전용-물(轉用物)
즌:우 ㉾ 전:우(戰友)
즌:우-애 ㉾ 전:우-애(戰友愛)
즌:운 ㉾ 전:운(戰雲)
즌원 ㉾ 전원(田園)
즌원 ㉾ 전원(全員)
즌:원 ㉾ 전:원(電源)
즌원-주택 ㉾ 전원-주택(田園住宅)
즌월세 ㉾ 전월세(傳月貰)
즌유 ㉾ 전유(專有)
즌유-물 ㉾ 전유-물(專有物)
즌:울 ㉾ 전:울(戰栗)
즌은 ㉾ 전언(傳言)
즌음 ㉾ 전음(傳音)
즌음 ㉾ 전업(專業)
즌:음 ㉾ 전:업(轉業)
즌음-농가 ㉾ 전업-농가(專業農家)

즌:음-사[-싸] ㉾ 전:업-사(電業社)
즌:의[즈:느이] ㉾ 전:의(典醫)
즌:의[즈:느이] ㉾ 전:의(戰意)
즌:이 ㉾ 전:이(轉移)
즌인 ㉾ 전인(全人)
즌인 ㉾ 전인(傳人)
즌인-교육 ㉾ 전인-교육(全人教育)
즌인-미답 ㉾ 전인-미답(前人未踏)
즌임 ㉾ 전임(專任)
즌임 ㉾ 전임(前任)
즌임-자 ㉾ 전임-자(前任者)
즌옥 ㉾ 전역(全域)
즌:옥 ㉾ 전:역(轉役)
즌:옥-식 ㉾ 전:역-식(轉役式)
즌은 ㉾ 전연(全然)
즌:을 ㉾ 전:열(戰列)
즌음 ㉾ 전염(傳染)
즌음-병[-뵙] ㉾ 전염-병(傳染病)
즌음-성[-쌩] ㉾ 전염-성(傳染性)
즌자 ㉾ 전자(前者)
즌:자 ㉾ 전:자(電子)
즌:자-공학 ㉾ 전:자-공학(電子工學)
즌:자-기산기 ㉾ 전:자-계산기(電子計算機)
즌:자-렌지 ㉾ 전:자-레인지(電子 range)
즌:자-오:락 ㉾ 전:자-오:락(電子娛樂)
즌:자-오:락실 ㉾ 전:자-오:락실(電子娛樂室)
즌자-즌 ㉾ 전자-전(電子戰)
즌:자-파 ㉾ 전:자-파(電磁波)
즌작 ㉾ 전작(前酌)
즌:장 ㉾ 전:장(戰場)
즌:장-터 ㉾ 전:쟁-터(戰場-)
즌:장-판 ㉾ 전:쟁-판(戰場-)
즌재 ㉾ 전재(全載)

즌 : 쟁 ㉾ 전:쟁(戰爭)
즌 : 쟁-놀이 ㉾ 전:쟁-놀이(戰爭-)
즌 : 쟁-물 ㉾ 전:쟁-물(戰爭物)
즌 : 쟁-터 ㉾ 전:쟁-터(戰爭-)
즌적[-적] ㉾ 전적(全的)
즌적 ㉾ 전적(前績)
즌 : 적 ㉾ 전:적(戰績)
즌 : 적-지[-찌] ㉾ 전:적-지(戰迹地)
즌제 ㉾ 전제(前提)
즌제 ㉾ 전제(專制)
즌제-증치 ㉾ 전제-정치(專制政治)
즌조 ㉾ 전조(前兆)
즌조-등 ㉾ 전조-등(電照燈)
즌 : 족 ㉾ 전:족(纏足)
즌-주[-꾸] ㉾ 전-주(前週)
즌주 ㉾ 전주(全州)
즌주 ㉾ 전주(轉注)
즌 : 주 ㉾ 전:주(電柱)
즌주-곡 ㉾ 존주-곡(前奏曲)
즌족[-족] ㉾ 전적(全的)
즌족 ㉾ 전적(前績)
즌 : 족 ㉾ 전:적(戰績)
즌 : 족-지[-찌] ㉾ 전:적-지(戰迹地)
즌즌 ㉾ 전전(前前)
즌 : 즈 ㉾ 전:전(輾轉/轉轉)
즌 : 즈-글식[-씩] ㉾ 전:전-걸식(轉轉
 乞食)
즌즌-날 ㉾ 전전-날(前前-)
즌즌-달[-달] ㉾ 전전-달(前前-)
즌 : 즈-반 : 칩 ㉾ 전:전-반측(輾轉反側)
즌즌-번[-번] ㉾ 전전-번(前前番)
즌 : 즈-불매 ㉾ 전:전-불매(輾轉不寐)
즌 : -즌세 ㉾ 전:-전세(轉傳貰)
즌 : 지 ㉾ 전:지(剪枝)
즌 : 지 ㉾ 전:지(電池)

즌지-즌능 ㉾ 전지-전능(全知全能)
즌 : 지-훈 : 련[-훈-] ㉾ 전:지-훈:련
 (轉地訓練)
즌직 ㉾ 전직(前職)
즌 : 직 ㉾ 전:직(轉職)
즌 : 진 ㉾ 전:진(前陣)
즌진 ㉾ 전진(前進)
즌질 ㉾ 전질(全帙)
즌집 ㉾ 전집(全集)
즌차 ㉾ 전차(前車)
즌 : 차 ㉾ 전:차(電車)
즌 : 차-표 ㉾ 전:차-표(電車票)
즌 : 찻-길[-찰길] ㉾ 전:찻-길(電車-)
즌처 ㉾ 전처(前妻)
즌철 ㉾ 전철(前轍)
즌 : 철 ㉾ 전:철(電鐵)
즌체 ㉾ 전체(全體)
즌초-즌 ㉾ 전초-전(前哨戰)
즌 : 축 ㉾ 전:축(箭鏑)
즌 : 축 ㉾ 전:축(電畜)
즌초 ㉾ 전처(前妻)
즌-춘후 ㉾ 전-천후(全天候)
즌출 ㉾ 전철(前轍)
즌 : 출 ㉾ 전:철(電鐵)
즌치사 ㉾ 전치사(前置詞)
즌칭 ㉾ 전층(全層)
즌통 ㉾ 전통(傳統)
즌통-문화 ㉾ 전통-문화(傳統文化)
즌 : 투 ㉾ 전:투(戰鬪)
즌투-공찰 ㉾ 전:투-경찰(戰鬪警察)
즌 : 투-기 ㉾ 전:투-기(戰鬪機)
즌 : 투-력 ㉾ 전:투-력(戰鬪力)
즌 : 투-복 ㉾ 전:투-복(戰鬪服)
즌 : 투-부대 ㉾ 전:투-부대(戰鬪部隊)
즌 : 투-원 ㉾ 전:투-원(戰鬪員)

즌파 ㉾ 전파(全破)
즌파 ㉾ 전파(傳播)
즌 : 파 ㉾ 전 : 파(電波)
즌 : 파-사 ㉾ 전 : 파-사(電波社)
즌 : 파-탐지기 ㉾ 전 : 파-탐지기(電波探知機)
즌판 ㉾ 전판(全-)
즌패 ㉾ 전패(全敗)
즌폐 ㉾ 전폐(全廢)
즌 : 폭-기 [-끼] ㉾ 전 : 폭-기(戰爆機)
즌폭-적 [-찍] ㉾ 전폭-적(全幅的)
즌폭-죽 [-쯉] ㉾ 전폭-적(全幅的)
즌 : 표 ㉾ 전 : 표(錢票)
즌 : 하 ㉾ 전 : 하(殿下)
즌 : 하 ㉾ 전 : 하(電荷)
즌 : 하-량 ㉾ 전 : 하-량(電荷量)
즌 : 학 ㉾ 전 : 학(轉學)
즌 : 학-상 [-쌍] ㉾ 전 : 학-생(轉學生)
즌 : 학-생 [-쌍] ㉾ 전 : 학-생(轉學生)
즌 : 함 ㉾ 전 : 함(戰艦)
즌함 ㉾ 전함(細合)
즌항 ㉾ 전항(前項)
즌-해 ㉾ 전-해(前-)
즌해-질 ㉾ 전해-질(電解質)
즌 : 향 ㉾ 전 : 향(轉向)
즌 : 향-자 ㉾ 전 : 향-자(轉向者)
즌-허다 [-허-/즈너-] ㉾ 전-하다(傳-)
즌허 ㉾ 전허(全-)
즌 : 화 ㉾ 전 : 화(電話)
즌 : 화 ㉾ 전 : 화(戰火)
즌 : 화 ㉾ 전 : 화(戰禍)
즌 : 화-국 ㉾ 전 : 화-국(電話局)
즌 : 화-기 ㉾ 전 : 화-기(電話機)
즌 : 화-번호 ㉾ 전 : 화-번호(電話番號)
즌 : 화-비 ㉾ 전 : 화-비(電話費)

즌 : 화-세 [-세] ㉾ 전 : 화-세(電話稅)
즌 : 화-선 ㉾ 전 : 화-선(電話線)
즌 : 화-스 ㉾ 전 : 화-선(電話線)
즌 : 화-위복 ㉾ 전 : 화-위복(轉禍爲福)
즌 : 화-질 ㉾ 전 : 화-질(電話-)
즌 : 핫-줄 [-할쫄] ㉾ 전 : 핫-줄(電話-)
즌 : 황 ㉾ 전 : 황(戰況)
즌횡 ㉾ 전횡(專橫)
즌후 ㉾ 전후(前後)
즌 : 후 ㉾ 전 : 후(戰後)
즌-후방 ㉾ 전-후방
즌후좌우 ㉾ 전후좌우(前後左右)
즌희 [-희/-히] ㉾ 전희(前戲)
즌 : 흔 ㉾ 전 : 흔(戰痕)
-줄 ㉾ 절(節)
줄 ㉾ 절
줄 : ㉾ 겨울
줄 ㉾ 절(節)
줄-간 [-간] ㉾ 절-간(-間)
줄감 ㉾ 절감(切感)
줄감 ㉾ 절감(節減)
줄-감 [-감] ㉾ 절-감
줄개 ㉾ 절개(切開)
줄개 ㉾ 절개(節概)
줄경 ㉾ 절경(絕景)
줄-골 [-골] ㉾ 절 골
줄골 ㉾ 절골(折骨)
줄교 ㉾ 절교(絕交)
줄 : 기 ㉾ 겨울
줄기 ㉾ 절기(節氣)
줄궁 ㉾ 절경(絕景)
줄 : 다 ㉾ 절 : 다
줄단-허다 [-뜨-] ㉾ 절단-하다(切斷-)
줄대 [-대] ㉾ 절대(絶對)
줄대-농지 [-대] ㉾ 절대-농지(絶對農地)

즐대-루 ㉾ 절대-로(絶對-)
즐대-자[-때-] ㉾ 절대-자(絶對者)
즐대-적[-때-] ㉾ 절대-적(絶對的)
즐대-죽[-때-] ㉾ 절대-적(絶對的)
즐라도 ㉾ 전라도(全羅道)
즐 : 락 ㉾ 전:락(轉落)
즐 : 란 ㉾ 전:란(戰亂)
즐 : 람 ㉾ 전:람(展覽)
즐레즐레 ㉾ 절레절레
즐령 ㉾ 전령(傳令)
즐레 ㉾ 전례(前例)
즐 : -루 ㉾ 저리-로
즐리 ㉾ 저리
즐맥 ㉾ 절맥(絶脈)
즐명 ㉾ 절명(絶命)
즐묘-허다 ㉾ 절묘-허다(絶妙-)
즐미 ㉾ 절미(節米)
즐용 ㉾ 절명(絶命)
즐박-감[-강] ㉾ 절박-감(切迫-)
즐박-허다[바커-] ㉾ 절박-허다(切迫-)
즐반 ㉾ 절반(折半)
즐벽 ㉾ 절벽(絶壁)
즐북 ㉾ 절벽(絶壁)
즐삭[-씩] ㉾ 절삭(切削)
즐삭-기[-씩끼] ㉾ 절삭-기(切削機)
즐상[-쌍] ㉾ 절상(切上)
즐상[-쌍] ㉾ 절상(折傷)
즐색[-씩] ㉾ 절색(絶色)
즐세[-써] ㉾ 절세(節稅)
즐세[-써] ㉾ 절세(絶世)
즐세-가인[-써-] ㉾ 절세-가인(絶世佳人)
즐속[-씩] ㉾ 절속(絶俗)
즐손[-쓰] ㉾ 절손(絶孫)
즐승[-승] ㉾ 절승(絶勝)
즐식[-씩] ㉾ 절식(節食)

즐식[-씩] ㉾ 절식(絶食)
즐신[-쓰] ㉾ 절신(絶信)
즐실-허다[-쓸-] ㉾ 절실-허다(切實-)
즐후 ㉾ 절후(節候)
즐 : [즐/죽] ㉾ 저울
즐 : -나다[증 : -] ㉾ 저울-나다
즐 : -날[증 : -] ㉾ 저울-날
즐-바람[죽 : 빠-] ㉾ 저울-바람
즐 : -밤[죽 : 빵] ㉾ 저울-밤
즐 : -비[즐 : 빠/죽 : 빠] ㉾ 저울-비
즐 : -옷[즈 : 곧/즐 : -곧] ㉾ 저울-옷
즐 : -음식[즈 : 림-/즈 : 금-] ㉾ 저울
 음식(-飮食)
즐 : -작물[죽 : 짱-] ㉾ 저울-작물
즐 : -잠[죽 : 짱] ㉾ 저울-잠
즐 : -진장[즐 : 찌-/죽 : 찌-] ㉾ 김장
즐 : -짐치[즐 : -/죽 : 찜-] ㉾
 -짐 ㉾ 점(店)
즐부 ㉾ 전부(全部)
즐 : 부상-대[-때] ㉾ 전:봇-대(電報上-)
즐 : 봇-대[-분때] ㉾ 전:봇-대(電報-)
즐성 ㉾ 짐승
즐슨 ㉾ 점심(點心)
즐신 ㉾ 점심(點心)
즐원 ㉾ 점원(店員)
즐 : 잦다[-잔타] ㉾ 점:잦다
즐장 ㉾ 점장(店長)
즐 : 점 ㉾ 점:점(漸漸)
즐 : 차 ㉾ 점차(漸次)
즐차-루 ㉾ 점차-로(漸次-)
즐각-쟁이[-쟁-] ㉾ 박수-무당
즐-내미 ㉾ 정-나미(情)
즐 : 당 ㉾ 정:당(正當)
즐 : 당-성[-성] ㉾ 정:당-성(正當性)
즐 : 당-승[-승] ㉾ 정:당-성(正當性)

증 : 도 ㉾ 정:도(正道)
 증 : 론[-논] ㉾ 정:론(正論)
 증자 ㉾ 정자(亭子)
 증 : 자 ㉾ 정:자(正字)
 증자-나무 ㉾ 정자-나무(亭子-)
 증자-낭구 ㉾ 정자-나무(亭子-)
 증 : 작 ㉾ 정:작
 증 : 직 ㉾ 정직(正直)
 증 : 직-허다[-지커-] ㉾ 정직-허다(正直-)
 증체 ㉾ 정체(停滯)
 증 : 체 ㉾ 정:체(正體)
 증 : 체-성[-성] ㉾ 정:체-성(正體性)
 증치 ㉾ 정치(政治)
 증치-가 ㉾ 정치-가(政治家)
 증치-인 ㉾ 정치-인(政治人)
 증 : -허다 ㉾ 정:-허다(定-)
 증 : -회원 ㉾ 정:-회원(正會員)
 증 : 히 ㉾ 정:히(正-)
 지 ㉾ 자기(自己)
 지 : ㉾ 제
 지 ㉾ 제(劑)
 지 : ㉾ 계(契, 稷)
 지 : ㉾ 제:(祭)
 지-가끔 ㉾ 제-가끔
 지-각각[-각] ㉾ 제-각각(-各各)
 지-각기[-기] ㉾ 제-각기(-各其)
 지-값 ㉾ 제-값
 지-격 ㉾ 제-격(-格)
 지 : 과 ㉾ 제:과(製菓)
 지 : 과-음 ㉾ 제:과-업(製菓業)
 지 : 과-점 ㉾ 제과-점(製菓店)
 지 : 관 ㉾ 제:관(祭官)
 지 : 구 ㉾ 제:구(祭具)
 지-구실 ㉾ 제-구실
 지긋-허다[-그터-] ㉾ 지긋-허다

지 : 기 ㉾ 제:기(祭器)
 지-극 ㉾ 제-격(-格)
 지-까직 ㉾ 제-까짓
 지-까집 ㉾ 제-까짓
 지-까짓[-까짚] ㉾ 제-까짓
 지나-대니다 ㉾ 지나-다니다
 지나-댕기다 ㉾ 지나-다니다
 지나-댕이다 ㉾ 지나-다니다
 지 : 나-진 ㉾ 기:나-긴
 지-날 ㉾ 제-날
 지-날짜 ㉾ 제-날짜
 지남출 ㉾ 지남철(指南鐵)
 지 : 다 ㉾ 김:다
 지 : 다라-지다 ㉾ 기:다래-지다
 지 : 다랴다[-라타] ㉾ 기:다랴다
 지 : 단 ㉾ 제:단(祭壇)
 지-달 ㉾ 제-달
 지 : 당 ㉾ 제:당(祭堂)
 지 : 당 ㉾ 제:당(製糖)
 지 : 당-음 ㉾ 제:당-업(製糖業)
 지달리다 ㉾ 기다리다
 지 : 대다 ㉾ 기:대다
 지-대루 ㉾ 제-대로
 지 : 대-스다 ㉾ 기:대-서다
 지 : 대-안지다[-안따] ㉾ 기:대-앉다
 지 : -덜 ㉾ 자기-들
 -지두 ㉾ -지도
 지들르다 ㉾ 기다리다
 지등 ㉾ 기등
 지등-감[-깜] ㉾ 기등-감
 지등-감어리[-까머-] ㉾ 기등-감
 지등-뿌리 ㉾ 기등-뿌리
 지등-뿌리기 ㉾ 기등-뿌리
 지등-머리 ㉾ 기등-머리
 지등-목 ㉾ 기등-목(-木)

지등-서방 ㅍ 기등-서방(-書房)

지-때 ㅍ 제-때

지랑 간장(-醬)

지랑-물 간장-물(-醬-)

지력지 ㅍ 길이

지렁 간장(-醬)

지렁-물 간장-물(-醬-)

지 : 령이 ㅍ 지: 령이

지 : 례 ㅍ 제: 례(祭禮)

지르다 ㅍ 기르다

지름 ㅍ 기름

지름-간장 ㅍ 기름-간장(-醬)

지름-걸레 ㅍ 기름-걸레

지름-기[-끼] ㅍ 기름-기(-氣)

지름-내 ㅍ 기름-내

지름-덩어리[-땡-] ㅍ 기름-덩어리

지름-땡이[-땡-] ㅍ 기름-땡이

지름-때 ㅍ 기름-때

지름-떡 ㅍ 기름-떡

지름-땡이 ㅍ 기름-땡이

지름-병[-뺩] ㅍ 기름-병(-甁)

지름-불[-뿔] ㅍ 기름-불

지름-쌈 ㅍ 기름-쌈

지름-종이 ㅍ 기름-종이

지름-지다 ㅍ 기름-지다

지름-질[-짚] ㅍ 지름-길

지름-챙이 ㅍ 기름-챙개

지름-체 ㅍ 기름-체

지름-칠 ㅍ 기름-칠(-漆)

지름-통 ㅍ 기름-통(-桶)

지름-틀 ㅍ 기름-틀

지리기 ㅍ 길이

지렁이 ㅍ 지렁이

-지만 ㅍ -지만

지-명 ㅍ 제-명(-命)

지 : -모임 ㅍ 제: -모임(契-)

지 : 물 ㅍ 제: 물(祭物)

지물-이 ㅍ 제물-에

지 : 미 ㅍ 제: 미

지-응 ㅍ 제-명(-命)

지 : 발 ㅍ 제: 발

지방-둑[-뜩] ㅍ 제방-둑(堤防-)

지법 ㅍ 제법

지붕 ㅍ 지붕

지 : 변 ㅍ 주: 변

지 : 변-머리 ㅍ 주: 변-머리

지비-고사리 ㅍ 고비-고사리

지비-꼬리 ㅍ 제비-초리

지 : 븐 ㅍ 주: 변

지 : 븐-머리 ㅍ 주: 변-머리

지 : -삼자 ㅍ 제: -삼자(第三者)

지슬기 ㅍ 기슬

지슭[-스] ㅍ 기슭

지심 ㅍ 감:

지심-매기 ㅍ 감: -매기

지심-매다 ㅍ 감-매다

지 : -쌀 ㅍ 제: 쌀(契-)

지-아무리 ㅍ 제-아무리

지어이 ㅍ 기어이(期於-)

지어코 ㅍ 기어코(期於-)

지와 ㅍ 기와

지와-쟁이 ㅍ 기와-장이

지와-지방 ㅍ 기와-지붕

지와-집 ㅍ 기와-집

지왓-장[-왓짱] ㅍ 기왓-장(張)

지우 ㅍ 겨우

지우-지우 ㅍ 겨우-겨우

지우똥 ㅍ 기우똥

지우똥-거리다 ㅍ 기우똥-거리다

지우똥-대다 ㅍ 기우똥-대다

지우똥-허다 ㉾ 기우똥-하다
지운 ㉾ 기운
지운-차다 ㉾ 기운-차다
지울 ㉾ 기울
지울-기 ㉾ 기울-기
지울-떡 ㉾ 기울-떡
지울다 ㉾ 기울다
지울어-지다 ㉾ 기울어-지다
지울-이다 ㉾ 기울-이다
지웃-거리다[-을꺼-] ㉾ 기웃-거리다
지웃-대다[-을때-] ㉾ 기웃-대다
지웃-지웃[-을-을] ㉾ 기웃-기웃
지 : 원 ㉾ 계:원(契員)
지 : 일 ㉾ 제:일(第一)
지 : 일 ㉾ 제:일(祭日)
지 : 일 ㉾ 기:일(忌日)
지저구 ㉾ 기저구
지 : 주 ㉾ 계:주(契主)
지즘-장 ㉾ 지점-장(支店長)
지 : 집 ㉾ 계:집
지 : 집-년 ㉾ 계:집-년
지 : 집-애[지지배] ㉾ 계:집-애
지 : 집-질[지집질] ㉾ 계:집-질
지-출 ㉾ 제-출
지침 ㉾ 기침
지 : -타다 ㉾ 계를 타다
지푸다 ㉾ 깊다
지푸락지[-찌] ㉾ 지푸라기
지푸래기 ㉾ 지푸라기
지 : 피 ㉾ 깊이
지피 ㉾ 깊이
지하-출 ㉾ 지하-철(地下鐵)
지-허다 ㉾ 계를 하다
직계[-깨] ㉾ 집계
직계-발[-깨-] ㉾ 집계-발

직계-송꼬락[직깨-] ㉾ 집계-손가락
직선[-쓰] ㉾ 직선(直選)
직선-제[-쓰-] ㉾ 직선-제(直選制)
직-그 : 래[-고-] ㉾ 직-거래(直去來)
직이다 ㉾ 죽이다
진 ㉾ 긴
진 : ㉾ 진지
진 : -네모 ㉾ 긴:-네모
진 : -말 ㉾ 긴:-말
진 : -바늘 ㉾ 긴:-바늘
진 : -소매 ㉾ 긴:-소매
진-양말[-냥-] ㉾ 스타킹
진작-이 ㉾ 진작-에
진장 ㉾ 김장
진장-감[-깡] ㉾ 김장-감
진장-값[-깡] ㉾ 김장-값
진장-거리[-꺼리] ㉾ 김장-거리
진장-독[-떡] ㉾ 김장-독
진장-출 ㉾ 김장-철
진장-허다 ㉾ 김장-하다
진 : -쟁일 ㉾ 진-종일(盡終日)
진죽-이 ㉾ 진작-에
진즌 ㉾ 진전(進展)
진증 ㉾ 진정(眞正)
진증 ㉾ 진정(眞情)
진증 ㉾ 진정(陳情)
진증 ㉾ 진정(鎮靜)
진증스 ㉾ 진정서(陳情書)
진증-제 ㉾ 진정-제(鎮靜劑)
진 : -진 ㉾ 긴:-긴
진 : 진-날 ㉾ 긴:진-날
진 : 진-해 ㉾ 긴:진-해
질 : 다[-따] ㉾ 긴:다
질 ㉾ 길
질 ㉾ 길

질 : ㅈ 길:
질-가생이[-까-] ㅈ 길-가
질-갓[-괘] ㅈ 길-가
질갓-집[-괘집] ㅈ 길갓-집
질-거리[-꺼리] ㅈ 길/길-거리
질-걸[-꼴] ㅈ 길/길-거리(-距離)
질경이 ㅈ 질경이
질갱이 ㅈ 질경이
질 : 구-질 : 다 ㅈ 길고 길다
질-그릇 ㅈ 질-그릇
질-나다[-라-] ㅈ 길-나다
질-놀이[-노리] ㅈ 길-놀이
질-눈[-눈] ㅈ 길-눈
질 : 다 ㅈ 길:다
질 : 다 ㅈ 길:다
질 : -다랗다[-라타] ㅈ 길:-다랗다
질-닭기[-닭기/-딱기] ㅈ 길-닭이
질-동무[-똥-] ㅈ 길-동무
질-들다 ㅈ 길-들다
질-들이다 ㅈ 길-들이다
질-들이다[-디리-] ㅈ 길-들이다
질러-내다 ㅈ 길러 내다
질르기 ㅈ 기르기
질르다 ㅈ 기르다
질마 ㅈ 길마
질-마중 ㅈ 길-마중
질-모퉁이 ㅈ 길-모퉁이
질-모퉁이 ㅈ 길-모퉁이
질-모퉁이 ㅈ 길-모퉁이
질-목 ㅈ 길-목
질목-쟁이[-쟁-] ㅈ 길-목
질-바닥[-빠-] ㅈ 길-바닥
질-벗 ㅈ 길-벗
질-섞[-섞] ㅈ 길-섞
질-손[-쓰] ㅈ 길-손

질쌈 ㅈ 길쌈
질쌈-틀 ㅈ 길쌈-틀
질-잼이 ㅈ 길-잡이
질 : 질-이[-지리] ㅈ 길:길-이
질질이 ㅈ 독하게
질쪽-질쪽 ㅈ 길쪽-길쪽
질쪽-허다[-커다] ㅈ 길쪽-허다
질씩-질씩 ㅈ 길씩-길씩
질씩-허다[-찌커-] ㅈ 길씩-허다
질-채림 ㅈ 길-차림
질-턱 ㅈ 길-턱
질-품 ㅈ 길-품
질-호사 ㅈ 길-호사(豪奢)
짐 ㅈ 김
짐 : ㅈ 김:
짐 : ㅈ 김:
짐 : ㅈ 김:
짐 : -매기 ㅈ 김:-매기
짐 : -매다 ㅈ 김:-매다
짐 : -발[-빨] ㅈ 김:-발
짐 : -밤[-뽕] ㅈ 김:-밤
짐병 ㅈ 점병
짐병-거리다 ㅈ 점병-거리다
짐병-대다 ㅈ 점병-대다
짐병-짐병 ㅈ 점병-짐병
짐 : -새다 ㅈ 김:-새다
짐성 ㅈ 짐승
짐장 ㅈ 김장
짐장-감[-괘] ㅈ 김장-감
짐장-값[-괘] ㅈ 김장-값
짐장-거리[-꺼리] ㅈ 김장-거리
짐장-독[-떡] ㅈ 김장-독
짐장-철 ㅈ 김장-철
짐장-출 ㅈ 김장-철
짐치 ㅈ 김치

짐치-즌 ㉾ 김치-즌(-煎)
 짐치-찌개 ㉾ 김치-찌개
 짐척-국[-국] ㉾ 김척-국
 짐척-그릇[-그-] ㉾ 김치 그릇
 짐척-독[-척독] ㉾ 김척-독
 짐척-돌[-척돌] ㉾ 김척-돌
 짐척-말국[-척-] ㉾ 김척-국물
 집 ㉾ 너/그
 집계-손꼬락[집개송-] ㉾ 집계-손가락
 집-고상[-고상] ㉾ 집-고생(-苦生)
 집어-놓다[-느타] ㉾ 집어-넣다
 집웃년-달팽이[-음-] ㉾ 민-달팽이
 집-즙성[-즙성] ㉾ 집-즙승
 집-집성[-집성] ㉾ 집-집승
 짓 : -날[진 : -] ㉾ 겹-날(契-)
 짓-눌르다[진-] ㉾ 짓-누르다
 짓다[질따] ㉾ 짓다
 짓 : -돈[지돈/질돈] ㉾ 겹 : -돈(契-)
 짓 : -술[지 : 쓸/진 : 쓸] ㉾ 겹-술(契-)
 징조 ㉾ 증조(曾祖)
 징-조모 ㉾ 증-조모(曾祖父)
 징-조부 ㉾ 증-조부(曾祖父)
 징조-할매 ㉾ 증조-할머니
 징조-할머니 ㉾ 증조-할머니
 징조-할아배 ㉾ 증조-할아버지
 징조-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짚 : 다[집 : 따] ㉾ 짚다
 짚 : 다-짚다[집 : 띠집따] ㉾ 짚다-짚다
 짚-세기[집세-] ㉾ 짚-신
 짚숙-이[집쑤-] ㉾ 짚숙-히
 짚숙-허다[집쑤커-] ㉾ 짚숙-하다
 짚어-지다 ㉾ 짚어-지다
 짚 : 이 ㉾ 짚이
 짚 : 이 ㉾ 짚이
 짚 : 이-같이 ㉾ 짚이-같이

짚 : 이-짚이 ㉾ 짚이-짚이
 짚개짜개 ㉾ 쪼개쪼개
 짚개다 ㉾ 쪼개다
 짜구 ㉾ 자귀
 짜구-나다 ㉾ 자귀가 나다
 짜구때-나무 ㉾ 자귀-나무
 짜구때-낭구 ㉾ 자귀-나무
 짜우똥 ㉾ 가우똥
 짜우똥-거리다 ㉾ 가우똥-거리다
 짜우똥-대다 ㉾ 가우똥-거리다
 짜우똥-짜우똥 ㉾ 가우똥-가우똥
 짜웃[-울] ㉾ 가웃
 짜웃-거리다[-울] ㉾ 가웃-거리다
 짜웃-그리다 ㉾ 가웃-거리다
 짜웃-대다 ㉾ 가웃-대다
 짜웃-이 ㉾ 가웃-이
 짜웃-짜웃 ㉾ 가웃-가웃
 짜잘-허다 ㉾ 자잘-하다
 짜-집기[-끼] ㉾ 짜-깎기
 짜-집다[-따] ㉾ 짜-깎다
 짜징 ㉾ 짜증
 짜징-나다 ㉾ 짜증-나다
 짜징-내다 ㉾ 짜증-내다
 짜징-시럽다[-따] ㉾ 짜증-스럽다
 짜징이 ㉾ 짜증
 짜징이-나다 ㉾ 짜증-나다
 짜징이-내다 ㉾ 짜증-내다
 짹 ㉾ 짹
 짹 ㉾ 쪽
 짹 : 다 ㉾ 작 : 다
 짹은-아버지 ㉾ 작은-아버지
 짹은-애 ㉾ 작은-애
 짹은-엄니 ㉾ 작은-어머니
 짹째기 ㉾ 짹짜이
 짹짜이 ㉾ 짹짜이

짹짹기 [표] 짹짹이
 짹짹이 [표] 짹짹이
 짹따 [표] 짹따
 짹르다 [표] 자르다
 짹브다 [표] 짹다
 짹-매다 [표] 매다
 짹-치다 [표] 치이다
 짹그락-거리다 [표] 짜그락-거리다
 짹그락-대다 [표] 짜그락-대다
 짹그락-짜그락 [표] 짜그락-짜그락
 짹꼬망다[-마타] [표] 자그망다
 짹곰 [표] 쪼곰
 짹보 [표] 언칭이
 짹 : 보 [표] 울보
 짹-눌르다 [표] 쪼-누르다
 짹르르 [표] 짜르르
 짹르르-허다 [표] 짜르르-하다
 짹뚝-발이[-빠리] [표] 절름발이/절뚝발이
 짹 : 다 [표] 졸:다
 짹 : 리다 [표] 졸:다
 짹-매다 [표] 매다
 짹 : -부리다 [표] 꺾치게 하다
 짹 : -장 [표] 막-장(-醬)?
 짹 : -들다[짜-] [표] 끼어-들다
 짹 : -입다[-따] [표] 꺾-입다
 짹 : 지다 [표] 끼-엮다
 짹 : 다[짹 : 따] [표] 끼-엮다
 짹 : 꺾 [표] 조끼(chokki)
 짹-골[-골] [표] 편두(偏頭)
 짹제비[-제] [표] 죽제비
 짹지비[-제] [표] 죽제비
 짹 : 다 [표] 졸:다
 짹러-매다 [표] 졸라-매다
 짹 : 리다 [표] 졸:다
 짹어-대니다 [표] 쫓아-다니다

쫓아-댕기다 [표] 쫓아-다니다
 쫓아-댕이다 [표] 쫓아-다니다
 쫓겨-가다[쫓겨-] [표] 쫓겨-가다
 쫓겨-나다[쫓겨-] [표] 쫓겨-나다
 쫓겨-댕기다[쫓겨-] [표] 쫓겨-다니다
 쫓기다[쫓끼-] [표] 쫓기다
 쫓깨미 [표] 주꾸미
 쫓뻗-거리다[-뻗겨-] [표] 쫓뻗-거리다
 쫓뻗-대다[-뻗대-] [표] 쫓뻗-대다
 쫓뻗-쫓뻗[-뻗:뻗-] [표] 쫓뻗-쫓뻗
 쫓뻗쫓뻗-허다[-뻗-뻗터-] [표] 쫓뻗쫓뻗
 뻗-하다
 쫓쟁이[-쟁-] [표] 쫓쟁이
 쫓징이[-쟁-] [표] 쫓쟁이
 쫓거리 [표] 줄거리
 쫓 : 다 [표] 적다
 쫓 [표] 전(錢)
 쫓구-돌다 [표] 끼고-돌다
 쫓고래기 [표] 찌꺼기
 쫓고러기 [표] 찌꺼기
 쫓고럭지[-찌] [표] 찌꺼기
 쫓고리기 [표] 찌꺼기
 쫓다 [표] 끼다
 쫓 : 다 [표] 끼:다
 쫓 : 다 [표] 끼이다
 쫓 : 다 [표] 쫓다
 쫓 : 다라-지다 [표] 기:다래-지다
 쫓 : 다랑다[-라타] [표] 기:다랑다
 쫓럭지 [표] 길이
 쫓리 [표] 끼리
 쫓리기 [표] 길이
 쫓리-쫓리 [표] 끼리-끼리
 쫓우똥 [표] 기우똥
 쫓우똥-쫓우똥 [표] 기우똥-기우똥
 쫓우똥-허다 [표] 끼우똥-하다

씨울 ㉾ 기울
 씨울-기 ㉾ 기울-기
 씨울다 ㉾ 기울다
 씨울어-지다 ㉾ 기울어-지다
 씨울-이다 ㉾ 끼울-이다
 씨웃-거리다[-을꺼-] ㉾ 기웃-거리다
 씨웃-대다[-을때-] ㉾ 기웃-대다
 씨웃-씨웃[-을-을] ㉾ 기웃-기웃
 씨웃-허다[-우터-] ㉾ 가웃-하다
 씨찌-매미 ㉾ 털-매미
 씨찌-매암 ㉾ 털-매미
 짝게[-께] ㉾ 집계
 짝게-손가락 ㉾ 집계-손가락
 찌 ㉾ 낫
 찌 : 다 ㉾ 길:다
 찌 : -다랗다[-라타] ㉾ 길: -다랗다
 찌르다 ㉾ 찌르다
 찌쪽-찌쪽 ㉾ 길쪽-길쪽
 찌쪽-허다[-커-] ㉾ 길쪽-하다
 찌찌-이 잘 우는 사람, 울보
 찌찌이 지독하게
 찌 ㉾ 즈
 찌-매다 ㉾ 매다
 찌뽕 ㉾ 찌뽕
 찌게 ㉾ 집계
 찌구다 ㉾ 끼우다
 찌기다 ㉾ 끼이다

ㅊ

차 ㉾ 첫
 차-스속 ㉾ 차-좁쌀
 차순 ㉾ 차선(次善)
 차순-책 ㉾ 차선-책(次善策)
 차지다 ㉾ 찾다

차침 ㉾ 차츰
 차침-차침 ㉾ 차츰-차츰
 찬 : -그룩[-고-] ㉾ 찬: -그릇(饑-)
 찰-그 : 머리 ㉾ 찰-거:머리
 찰-금 : 저리 ㉾ 찰-거:머리
 찰-옥수깅이[-쑤-] ㉾ 찰-옥수수
 참-비듬 ㉾ 참-비름
 참-고보[-고-] ㉾ 곱-창
 창관 ㉾ 참관(參觀)
 창 : 근 ㉾ 창: 건(創建)
 창-꽤 ㉾ 참-깨
 창-괘목[-괘-] ㉾ 참-괘목
 창끗-잎[-괘닙] ㉾ 참끗-잎
 창-대미[-때-] ㉾ 장-대(長-)
 창-지름 ㉾ 참-기름
 찾아-대니다 ㉾ 찾아-다니다
 찾아-댕기다 ㉾ 찾아-다니다
 찾아-댕이다 ㉾ 찾아-다니다
 채띠리다 ㉾ 채뜨리다
 채리다 ㉾ 차리다
 채틀다 ㉾ 채뜨리다
 책임 ㉾ 책임(責任)
 책임-자 ㉾ 책임-자(責任者)
 책임-지다 ㉾ 책임-지다(責任-)
 챙건 ㉾ 참견(參見)
 챙-기름 ㉾ 참-기름
 챙-지름 ㉾ 참-기름
 처-놀다[-느타] ㉾ 처-널다
 처-백히다 ㉾ 처-박히다
 천도-복사[-싸] ㉾ 천도-복숭아(天桃-)
 천둥-벌거생이 ㉾ 천둥-벌거숭이
 천상 ㉾ 천생(天生)
 철물-점 ㉾ 철물-점(鐵物店)
 청승-꾸리기 ㉾ 청승-꾸리기
 체인-점 ㉾ 체인-점(chain-店)

책 ㉠ 책
 처-들다 ㉠ 들이-치다
 초가-지붕 ㉠ 초가-지붕(草家-)
 초-갈 ㉠ 초-가을(初-)
 초고똥 시발점(始發點)
 초고똥-이 시발점(始發點)
 초-꼬치장 ㉠ 초-고추장(醋-醬)
 초쌈-초쌈 ㉠ 초쌈-초쌈
 초행-질[-질] ㉠ 초행-길(初行-)
 촌 : 구석-쟁이[-꾸-쟁-] ㉠ 촌:-구석
 촌-시럽다[-씨-따] ㉠ 촌-스럽다(村-)
 출랭이 ㉠ 출랑이
 촛불[촛별/초별] ㉠ 촛불
 충-구녁[-꾸-] ㉠ 충-구멍(銃-)
 충-구녕[-꾸-] ㉠ 충-구멍(銃-)
 충-구멍[-꾸-] ㉠ 충-구멍(銃-)
 충-은 : 심[-는-은] ㉠ 충-연: 습(繼演習)
 최 : 슌 ㉠ 최: 선(最善)
 최 : -스봉 ㉠ 최: -선봉(最先鋒)
 최 : -스책 ㉠ 최: -선책(最善策)
 추념-허다 ㉠ 추렴-하다(出斂-)
 추력 ㉠ 트럭(truck)
 추수-출 ㉠ 추수-철(秋收-)
 추슬르다 ㉠ 추스르다
 추시리다 ㉠ 추스르다
 추실르다 ㉠ 추스르다
 추절 ㉠ 추절(秋節)
 총이다 시간을 지체하다
 축 : -허니[츠키-] ㉠ 축: -하니
 촌덕-꾸리기 ㉠ 천덕-꾸리기(賤-)
 촌덕-쟁이 ㉠ 천덕-꾸리기(賤-)
 촌 : 민 ㉠ 촌: 민(賤民)
 촌 : 박-시럽다[-씨럽따] ㉠ 천: 박-스
 럽다(淺薄-)
 촌 : 박-허다[-바커-] ㉠ 천: 박-하다

(淺薄-)
 촌 : 비 ㉠ 천: 비(賤婢)
 촌 : 빈 ㉠ 천: 빈(賤貧-)
 촌사 ㉠ 천사(天使)
 촌 : 사 ㉠ 천: 사(賤事)
 촌 : 생 ㉠ 천: 생(賤生)
 촌은득-시럽다[-따] ㉠ 천연덕-스럽
 다(天然-)
 촌 : 출 ㉠ 천: 출(賤出)
 촌촌이[-츠니] ㉠ 천천히
 철 ㉠ 철
 철 ㉠ 철
 철 ㉠ 철(鐵)
 철강 ㉠ 철강(鐵鋼)
 철검 ㉠ 철검(鐵劍)
 철골 ㉠ 철골(鐵骨)
 철공 ㉠ 철공(鐵工)
 철공-소 ㉠ 철공-소(鐵工所)
 철교 ㉠ 철교(鐵橋)
 철권 ㉠ 철권(鐵拳)
 철괘 ㉠ 철괘(鐵櫃)
 철궤 ㉠ 철궤(鐵軌)
 철근 ㉠ 철근(鐵筋)
 철검 ㉠ 철검(鐵劍)
 철금 ㉠ 철금(鐵琴)
 철기 ㉠ 철기(鐵器)
 철기 ㉠ 철기(鐵騎)
 철기-시대 ㉠ 철기-시대(鐵器時代)
 철도[-또] ㉠ 철도(鐵道)
 철도-교 ㉠ 철-도교(鐵道橋)
 철도-망[-또-] ㉠ 철도-망(鐵道網)
 철도-법[-또법] ㉠ 철도-법(鐵道法)
 철도-뱀[-또뱀] ㉠ 철도-뱀(鐵道廳)
 철도-청[-또-] ㉠ 철도-청(鐵道廳)
 철도-총[-또-] ㉠ 철도-청(鐵道廳)

출-득[-떡] ㉾ 철-득(鐵-)
출득-질[-떡질] ㉾ 철득-질(鐵-)
출-딱스니[-쓰-] ㉾ 철-딱서니
출로 ㉾ 철로(鐵路)
출륜 ㉾ 철륜(鐵輪)
출마 ㉾ 철마(鐵馬)
출망 ㉾ 철망(鐵網)
출모 ㉾ 철모(鐵帽)
출문 ㉾ 철문(鐵門)
출물 ㉾ 철물(鐵物)
출-물르다 ㉾ 철-모르다
출물-즌 ㉾ 철물-전(鐵物塵)
출물-즘 ㉾ 철물-점(鐵物店)
출은 ㉾ 철면(鐵面)
출-은피 ㉾ 철면피(鐵面皮)
출-새[-새] ㉾ 철-새
출-장[-짱] ㉾ 철장(鐵杖)
출조망[-쑈-] ㉾ 철조망(鐵條網)
출즈-허다 ㉾ 철저-하다
츄 ㉾ 처음
치 ㉾ 키
치 : 다 ㉾ 치이다
치 : 다 ㉾ 치우다
치 : 다 ㉾ 치우치다
치리기 ㉾ 찌꺼기
치마-저구리 ㉾ 치마-저고리
치막-감[-마깜/-막깜] ㉾ 치막-감
치-질 ㉾ 키-질
치켜-들다 ㉾ 추켜-들다
치켜-세다 ㉾ 추켜-세우다
치켜-올리다 ㉾ 추켜-올리다
치키다 ㉾ 추키다
척간[-깐] ㉾ 측간(廁間)
척이다 ㉾ 측이다
친목-지 ㉾ 친목-계(親睦契)

친-자식 ㉾ 친-자식(親子息)
친-자숙 ㉾ 친-자식(親子息)
철따기 ㉾ 철뜨기
취-곤냥이 ㉾ 취-줄기
침침-허다 ㉾ 침침-하다(沈沈-)
칭 ㉾ 층(層)
칭 ㉾ 층(層)
칭계 ㉾ 층계(層階)
칭-나다 ㉾ 층-나다
칭수[-수] ㉾ 층수(層數)
칭-지다 ㉾ 층-지다
칭칭 ㉾ 층층(層層)
칭칭-다리 ㉾ 계단/층층-다리
칭칭-대 ㉾ 층층-대/계단
칭칭-이 ㉾ 층층-이
칭탑 ㉾ 층탑
칭하 ㉾ 층하(層下)



컬레 ㉾ 컬레
코-찔찔이 ㉾ 코-흘리개
콧-구녕[-꾸-] ㉾ 콧-구멍
콧-구녕[-꾸-] ㉾ 콧-구멍
콧-구멍[-꾸-] ㉾ 콧-구멍
콧-물[콧-] ㉾ 콧-물
콧-밀[콧-] ㉾ 코-밀
콧-바람[콧-] ㉾ 콧-바람
콧-방구[콧-] ㉾ 코-방귀
콧-방울[콧-] ㉾ 콧-방울
콧-빠기 ㉾ 코-빠기
콧-등배기[콧-] ㉾ 콧-등
콧-시염[콧-] ㉾ 콧-수염(-鬚髯)
콧-잔등[콧-] ㉾ 콧-잔등
콧-중배기[콧-] ㉾ 콧-등

콧-지름[콧찌-] ㉾ 콧-기름
 콧-짐[콧짐] ㉾ 콧-김
 콩-괘목[-괘-] ㉾ 콩-괘목
 콩-잎새기[-잎새-] ㉾ 콩-잎
 콩-지름 ㉾ 콩-기름
 콩-팻[-팻] ㉾ 콩-팻
 크드막 : -허다[-마커-] ㉾ 큼직-하다
 크 : -드말다[-마타] ㉾ 커:-다랗다
 큰-메누리 ㉾ 큰-머느리
 큰-아부지 ㉾ 큰-아버지
 큰-엄니 ㉾ 큰-어머니
 큰-질 ㉾ 큰-길
 큰질-가[-까] ㉾ 큰길-가
 클-나다[-라-] ㉾ 큰일이 나다
 키다 ㉾ 커다
 키다 ㉾ 커다
 키다 ㉾ 커다
 키 : 다 ㉾ 키우다



탐-스렵다[-따] ㉾ 탐-스렵다(貪-)
 탕 : ㉾ 매기(霉氣)
 탕 : 근 ㉾ 탕건(宕巾)
 탕 : -나다 매기(霉氣)가 끼다
 태 : 다 ㉾ 태어-나다
 태 : 다 ㉾ 태우다
 태 : 다 ㉾ 태우다
 태 : 다 ㉾ 태우다
 타래-박 ㉾ 두레-박
 타래박-질 ㉾ 두레박-질
 탐새기[-새-] ㉾ 먼지/티끌
 탐시기[-씨-] ㉾ 먼지/티끌
 태평-승대 ㉾ 태평-성대(太平聖代)
 태평-승세 ㉾ 태평-성세(太平聖世)

택 ㉾ 턱
 탯[탯] ㉾ 탯
 터 : 띠리다 ㉾ 터:뜨리다
 터락 ㉾ 토록
 터 : 치다 ㉾ 터:뜨리다
 턱-배기[-배-] ㉾ 턱
 턱중-배기[-중-] ㉾ 턱/턱선(-線)
 턱-주거리[-쭈-] ㉾ 턱
 턱-주거리[-쭈-] ㉾ 턱
 털렝이 ㉾ 털털이
 털-부리 ㉾ 털석-부리
 털-복생이 ㉾ 털-복숭이
 토갱이 ㉾ 토끼
 토갱이-띠 ㉾ 토끼-띠
 토갱이-풀 ㉾ 토끼-풀
 토깁이 ㉾ 토끼
 토사 ㉾ 토사(吐瀉)
 토사-나다(吐瀉-) 어그러지다
 통-꼬추 ㉾ 통-고추
 통-배차 ㉾ 통-배추
 통수 ㉾ 피리
 통-성냥 ㉾ 통 성냥
 통-성냥 ㉾ 통 성냥
 통-장적 ㉾ 통-장작(-長斫)
 통통-장 ㉾ 청국-장(淸麴醬)
 통-채 ㉾ 통-째
 통채-루 ㉾ 통째-로
 통-털다 ㉾ 통-뜯다
 통-털어 ㉾ 통-뜯어
 퇴갱이 ㉾ 토끼
 퇴끼 ㉾ 토끼
 퇴끼-띠 ㉾ 토끼-띠
 퇴끼-장 ㉾ 토끼-장(-穢)
 퇴끼-즌 ㉾ 토끼-전(-傳)
 퇴끼-풀 ㉾ 토끼-풀

퇴깁이 [표] 토끼
 퇴깁이-띠 [표] 토끼-띠
 퇴 : -받다[-따] [표] 거슬러 받다
 퇴 : -주다 [표] 거슬러-주다
 투닥-거리다[-꺼-] [표] 토닥-거리다
 투닥-투닥 다투는 소리
 투성이 [표] 투성이
 투심이 [표] 투성이
 툼병 [표] 물-옹덩이
 통세-빠지다 엉뚱-하다
 트 : 림 [표] 트림
 특약-줌[-쫘] [표] 특약-점(特約店)
 틸새기 [표] 틸새/틸새기
 티-검볼 [표] 티트-검볼
 티-밥 [표] 튀-밥
 텅기다 [표] 튀기다/툭기다

ㅍ

파다 [표] 후비다
 파-즌 [표] 파-전
 파-짐치 [표] 파-김치
 파 : 토 [표] 파:투(破圖)
 파 : 토-나다 [표] 파:투-하다(破圖-)
 파-허치다 [표] 파-헤치다
 판대기 [표] 편더기
 판매-줌 [표] 판매-점(販賣店)
 팔목-쟁이 [표] 팔-모가지
 팔-으가지 [표] 팔-모가지
 팔-버개 [표] 팔-베개
 팔-버개 [표] 팔-베개
 팟[팍] [표] 팔
 팟-고물[팍꼬-] [표] 팔-고물
 팟-꽃[팍꼐] [표] 팔-꽃
 팟-단지[팍딤-] [표] 팔-단지(-團子)

팟-알갱이[파달-] [표] 팔-알
 팟-잎새기[판닙새-] [표] 팔-잎
 팟-죽[판죽] [표] 팔-죽
 팟죽-땀[판죽-] [표] 팔죽-땀
 패이다 [표] 파이다
 팡기다 [표] 파이다
 퍼 : -넣기다 퍼서 넘기다
 퍼대기 [표] 포대기
 퍼-질르다 [표] 퍼-지르다
 편대기 [표] 편더기
 편던 [표] 버덩
 펜안-허다[-/-아너-] [표] 편안-하다(便安-)
 펜 : 지 [표] 편:지(便紙)
 편의-줌 [표] 편의-점(便宜店)
 평풍 [표] 병풍(屏風)
 포갱이 [표] 포기
 포목-줌[-쫘] [표] 포목-줌(布木店)
 표구-줌 [표] 표구-줌(表具店)
 표증 [표] 표정(表情)
 푸대 [표] 포대(布袋)
 푸성가리 [표] 푸성귀
 푸장-나무 [표] 떡갈-나무
 푸장-낭구 [표] 떡갈-나무
 푸장-치다 땀나무를 베다
 풀-데미[-떼-] [표] 풀-더미
 풀-데미[-띠-] [표] 풀-더미
 풀랑-거리다 [표] 펄렁-거리다
 풀-뿌리기 [표] 풀-뿌리
 풀러-놓다[-노타] [표] 풀어-놓다
 풀러-지다 [표] 풀어-지다
 풀르다 [표] 풀다
 풀르다 [표] 풀다
 풀-잎새[-닙새/-립새] [표] 풀-잎사귀
 풀-잎새기[-닙새-/-립새-] [표] 풀-잎

사귀
 품-메다 일품을 까먹다
 풋-고추 [푼-/푹-] ㉸ 풋-고추
 품-깎 ㉸ 품삭/품값
 품-깎 ㉸ 품삭/품값
 품덩-허다 풍부하다
 품덩이 ㉸ 품덩이
 풍성-기 ㉸ 풍선(風扇)/풍구(風-)
 피겨 ㉸ 딸꾹-질
 피기 ㉸ 딸꾹-질
 피다 ㉸ 퍼다
 피 : 다 ㉸ 피우다
 피-먹 ㉸ 피-명
 피-투성이 ㉸ 피-투성이
 픈 : 곡-허다 [-고커-] ㉸ 편곡-하다(編曲-)
 픈근 : ㉸ 편견(偏見)
 픈 : -두통 ㉸ 편-두통(偏頭痛)
 픈 : -들다 ㉸ 편-들다(偏-)
 픈 : 리[플-] ㉸ 편리(便利)
 픈 : 린[플-] ㉸ 편린(片鱗)
 픈 : 모 ㉸ 편모(偏母)
 픈 : 백-나무 [-뱅-] ㉸ 편백-나무(扁柏-)
 픈 : 법[-뵤] ㉸ 편법(便法)
 픈 : 뵤[-뵤] ㉸ 편법(便法)
 픈 : 성 ㉸ 편성(編成)
 픈 : -서풍 ㉸ 편-서풍(偏西風)
 픈 : -스풍 ㉸ 편-서풍(偏西風)
 픈 : 식 ㉸ 편식(偏食)
 픈안-허다 ㉸ 편안-하다(便安-)
 픈애-허다 ㉸ 편애-하다(偏愛-)
 픈의 ㉸ 편의(便宜)
 픈의-점 ㉸ 편의-점(便宜店)
 픈입 ㉸ 편입(編入)
 픈입-생 ㉸ 편입-생(編入生)

픈 : 존 ㉸ 편:전(便殿)
 픈 : 제 ㉸ 편제(編制)
 픈 : 중 ㉸ 편중(偏重)
 픈 : 지 ㉸ 편:지(便紙)
 픈 : 집 ㉸ 편집(編輯)
 픈 : -짜다 ㉸ 편-짜다(便-)
 픈 : 차 ㉸ 편차(偏差)
 픈 : 찬 ㉸ 편찬(編纂-)
 픈 : 찡다 [찬타] ㉸ 편찡다(便-)
 픈-허다 ㉸ 편-하다(便-)
 픈흠 : -허다 [-흐퍼-] ㉸ 편협-하다(偏狹-)
 픈 : ㉸ 평(坪)
 픈 : ㉸ 평:(評)
 픈 : 가[-가] ㉸ 평:가(評價)
 픈 : 강-공주 ㉸ 평강-공주(平岡公主)
 픈 : -교사 ㉸ 평-교사(平教師)
 픈 : 균 ㉸ 평균(平均)
 픈 : 균-값[값] ㉸ 평균-값(平均-)
 픈 : 균-점[-쯤] ㉸ 평균-점(平均點)
 픈 : 균-치 ㉸ 평균-치(平均値)
 픈 : 굴 ㉸ 평결(評決)
 픈 : 는 ㉸ 평년(平年)
 픈 : 는 : -작 ㉸ 평년-작(平年作)
 픈 : 는 : -치 ㉸ 평년-치(平年値)

ㅎ

하 : 나 가득/듬뿍
 하냥 ㉸ 함께/같이
 하-빨 ㉸ 하-길(下-)
 하 : 줄-기 ㉸ 하:절-기(夏節期)
 하짓-감자 [-진감-] ㉸ 감자
 하-짜 ㉸ 하-길(下-)
 학상[-쌍] ㉸ 학생(學生)

학-절구[-절-] ㉾ 돌화
한가-럽다[-따] ㉾ 한가-롭다(閑暇-)
한꺼번-이[-/항-] ㉾ 한꺼번-에
한-디 ㉾ 한-데
한 : -디 ㉾ 한:-데
한-시 : 상 ㉾ 한-세:상(-世上)
한-숨[-/-심] ㉾ 한-숨
한-숨[-/-심] ㉾ 한-숨
한-심 ㉾ 한-숨
한-심 ㉾ 한-숨
한-출 ㉾ 한-철
한티 ㉾ 한테/에게
한티서 ㉾ 한테서/에게서
한티서니 ㉾ 한테서/에게서
한티서닌 ㉾ 한테서는/에게서는
할라 까지/조차
할망구 ㉾ 할머니
할매 ㉾ 할머니
할아배 ㉾ 할아버지
할아버지 ㉾ 할아버지
할애비 ㉾ 할아버지
할인-증 ㉾ 할인-증(割引店)
함-배미[-배-] ㉾ 합친 논배미
해-일다 ㉾ 이다
해필 ㉾ 하필(何必)
해필-이든 ㉾ 하필-이면(何必-)
핵겨[-겨] ㉾ 학교(學校)
핵겨-장[-겨-] ㉾ 학-교장
핵교[-교] ㉾ 학교(學校)
핵교-장[-교-] ㉾ 학-교장
헬미 ㉾ 할미
햇-짐치[햇짚-] ㉾ 햇-김치
행 : 결 ㉾ 한결
행 : 결-같이[-가치] ㉾ 한:결-같이
행 : 결-같다[-같따] ㉾ 한:결-같다

행-길 ㉾ 한-길
행동-그지 ㉾ 행동-거지(行動舉止)
행-질 ㉾ 한-길
허구-많다 ㉾ 하고-많다
허구-진(許久-) 길고 긴
허구-허다 ㉾ 허구-하다(許久-)
허깐 ㉾ 헛-간(-間)
허깐-방 ㉾ 헛간-방(-房)
허-깔리다[-/헛깔-] ㉾ 헛-갈리다
허깨비 ㉾ 도깨비
허-꾸역 ㉾ 헛-구역(-嘔逆)
허-꾸역질[-짚] ㉾ 헛구역-질(-嘔逆-)
허다 ㉾ 하다
허다-허다 끝내/결국
허다-허다 ㉾ 허다-하다(許多-)
허당 ㉾ 허방
허당 ㉾ 헛-일
허르르 ㉾ 하르르
허르르-허다 ㉾ 하르르-하다
허리 잡다 허리를 다치다
허립-바[-빠] ㉾ 허리-띠
허릿-바[-릴빠] ㉾ 허리-띠
허물-없이[-무릅씨] ㉾ 허물-없이
허발-허다 ㉾ 허발-하다
허승애비 ㉾ 허수아비
허지만 ㉾ 하지만
허치다 ㉾ 헤치다
허티루 ㉾ 허투루
허-품 ㉾ 헛-품
허-품팔이 ㉾ 헛품 팔이
헛-거[-겨] ㉾ 헛-것
헛-것[-견] ㉾ 헛-것
헛-걸음[헛꺼름] ㉾ 헛-걸음
헛걸음-질[헛꺼름-] ㉾ 헛-걸음
헛걸음-허다[헛꺼름-] ㉾ 헛걸음-하다

헉-고상[헉꼬-] ㉠ 헉-고생(-苦生)
헌디 ㉠ 헌데
헌 : -디 ㉠ 헌: -데
헌티 ㉠ 헌테/에게
헌티서 ㉠ 헌테서/에게서
헌티서니 ㉠ 헌테서/에게서
헌티서닌 ㉠ 헌테서는/에게서는
헉-맹세[헉-] ㉠ 헉-맹세
헉-바쿠[-빠-] ㉠ 헉-바퀴
헉-바퀴[-빠기] ㉠ 헉-바퀴
헉-발[-빨] ㉠ 헉-발
헉발-질[-빨-] ㉠ 헉발-질
헉-방[-뽕] ㉠ 헉-방(-放)
헉방-놓다[-뽕노타] ㉠ 헉방-놓다(-放-)
헉방-질[-뽕-] ㉠ 헉방-질(-放-)
헉-방구[-뽕-] ㉠ 헉-방귀
헉-배[-빠] ㉠ 헉-배
헉-보다[-뽕-] ㉠ 헉-보다
헉-비다[-빠-] ㉠ 헉-보이다
헉-고상[헉꼬-] ㉠ 헉-고생(-苦生)
헉-디[헉띠] 쓸데없는 곳
헉-바쿠[헉빠-] ㉠ 헉-바퀴
헉-발[-빨/헉빨] ㉠ 헉-발
헉발-질[헉빨/헉빨-] ㉠ 헉발-질
헉-심[헉쌌] ㉠ 헉-심
헉-티[헉-] 쓸데없는 곳
헉-지랄[헉찌-] ㉠ 헉-짓
헉-지침[헉찌-] ㉠ 헉-기침
헉-질[헉짚] ㉠ 헉-길
헉-질[헉짚] ㉠ 헉-짓
헉-짐[헉짚] ㉠ 헉-김
헉짐-빠지다[헉짚] ㉠ 헉김-나다
헉-갈리다[-/헉갈-] ㉠ 헉-갈리다
헉-품 ㉠ 헉-품
헉-품팔이 ㉠ 헉품 팔이

헉-걸음[헉꺼름/헉꺼름] ㉠ 헉-걸음
헉-고상[헉꼬-] ㉠ 헉-고생(-苦生)
헉-소리[헉쏘-] ㉠ 헉-소리
헉-소문[헉쏘-] ㉠ 헉-소문(-所聞)
헉-손질[헉쓰-] ㉠ 헉-손질
헉-수고[헉수-] ㉠ 헉-수고(-愁苦)
헉-심[헉쌌] ㉠ 헉-심
헉-일[헉닐] ㉠ 헉-일
헉-지랄[헉찌-] ㉠ 헉-짓
호-꼬추[호-/혹-] ㉠ 호-꼬추(胡-)
호도 ㉠ 호두(胡桃)
호도-과자 ㉠ 호두-과자(胡桃菓子)
호도-나무 ㉠ 호두-나무(胡桃-)
호도-낭구 ㉠ 호두-낭구(胡桃-)
호도-송이 ㉠ 호두-송이(胡桃-)
호뜨기 ㉠ 호뜨기
호띠기 ㉠ 호뜨기
호라시 ㉠ 호락질
호랑 ㉠ 호주머니
호로-자숙 ㉠ 호래-자식(-子息)
호박-잎새[-방닙새] ㉠ 호박-잎
호박-잎새기[-닙새-] ㉠ 호박-잎
호사-시럽다[-따] ㉠ 호사-스럽다(豪
 奢-)
훈-꾸녕[-꾸-] ㉠ 훈-꾸녕(魂-)
훈-꾸녕[-꾸-] ㉠ 훈-꾸녕(魂-)
훈꾸녕-나다 ㉠ 훈-나다(魂-)
훈꾸녕-내다 ㉠ 훈-내다(魂-)
훈-꾸먹[-꾸-] ㉠ 훈-꾸먹(魂-)
훈내-키다 ㉠ 훈-내다(魂-)
훈-애비[호래-] ㉠ 훈-아비
훈-에미[호래-] ㉠ 훈-어미
훈-바지[-빠-] ㉠ 훈-바지
훈-저구리[훈짜-] ㉠ 훈-저고리
화닥-그리다[-꼬-] ㉠ 화끈-거리다

화즌 ㉾ 화전(花煎)
 환즌 ㉾ 환전(換錢)
 환즌-소 ㉾ 환전-소(換錢所)
 환즌-허다 ㉾ 환전-허다(換錢)
 환-즐기 ㉾ 환-절기(換節期)
 황-구렁이 ㉾ 황-구렁이(黃-)
 황-구렁이 ㉾ 황-구렁이(黃-)
 회 ㉾ 회충(蛔蟲)
 회 : ㉾ 회의(會議)
 회파람 ㉾ 휘파람
 회 : -허다 ㉾ 회의-허다(會議-)
 횃 : -돈[횃돈] ㉾ 회:비(會費)
 횃편 ㉾ 형편(形便)
 횃편-없다[-퍼느따] ㉾ 형편-없다(形便-)
 횃편-없이[-퍼느시] ㉾ 형편-없다(形便-)
 후듯-이[-두시] ㉾ 후듯하게
 후듯-허다[-두터-/-/똥터-] ㉾ 후듯-
 하다
 후레-아덜 ㉾ 후레-자식(-子息)
 후레-자식 ㉾ 후레-자식(-子息)
 후레-자숙 ㉾ 후레-자식(-子息)
 후려-쌔리다 ㉾ 후려-갈기다
 후려-쌔리다 ㉾ 후려-갈기다
 후염 ㉾ 혜염
 후염-치다 ㉾ 혜염-치다
 후제 ㉾ 훗날/나중에
 후-질르다 ㉾ 휘-지르다
 훗-굉일[굉굉-] 다음 일요일
 휘-돌르다 ㉾ 휘-두르다
 휴가-출 ㉾ 휴가-철(休暇-)
 흐다 ㉾ 희다
 흐물다 ㉾ 허물다
 흐미-허다 ㉾ 희미-허다
 흐밧-허다[-미터-/-/밧터-] ㉾ 희미-
 하다

흐얏다[-아타] ㉾ 하얏다
 흐 : 연-허다[-어너-] ㉾ 허영다
 흐염스름-허다[-쓰-] ㉾ 희염스름-허다
 흐염시름-허다[-씨-] ㉾ 희염시름-허다
 흐 : 열다[-어타/-열타] ㉾ 허:열다
 흐 : 예-지다 ㉾ 허:예-지다
 흐 : 은-허다[-으너-] ㉾ 허영다
 흐들다 ㉾ 흘다
 흐 : 푸다 ㉾ 헤:프다
 흐 : 피 ㉾ 헤:피
 흐 ㉾ 힌
 흐 : ㉾ 힌
 흐 : -거 ㉾ 힌:-것
 흐 : -것[흔걸/흥걸] ㉾ 힌:-것
 흐 : 금 ㉾ 힌:금(獻金)
 흐 : 금-허다 ㉾ 힌:금-허다(獻金-)
 흐-나비 ㉾ 힌-나비
 흐덩-거리다 ㉾ 혼덩-거리다
 흐덩-흔덩 ㉾ 혼덕-흔덕
 흐-동이 ㉾ 힌-동이
 흐 : -디 ㉾ 힌:-데
 흐-떡 ㉾ 힌-떡
 흐떡-국[-꼭] ㉾ 떡-국
 흐-밥 ㉾ 힌-밥, 쌀밥
 흐 : 법[-뽕] ㉾ 힌:법(憲法)
 흐 : 법-학[-뽕학] ㉾ 힌:법-학(憲法學)
 흐 : 상 ㉾ 힌:상(獻上)
 흐 : 상-물 ㉾ 힌:상-물(獻上物)
 흐 : -숨 ㉾ 힌:-숨
 흐 : 수 ㉾ 힌:수(獻酬)
 흐 : 수 ㉾ 힌:수(獻壽)
 흐 : 시 ㉾ 힌:시(獻詩)
 흐 : 신 ㉾ 힌:신(獻身)
 흐 : 신-적[-쩍] ㉾ 힌:신-적(獻身的)
 흐 : -신짜 ㉾ 힌:-신짜

햇-밭질[흔빨] ㉾ 헛-밭질
햇-방[흔뺑] ㉾ 헛-방(-放)
흥 : -거 ㉾ 현 : -것
흥 : -것[-건] ㉾ 현 : -것
흥 : 겁 ㉾ 형 : 겁
흥 : 겁-보[-뵤] ㉾
희나리[히-] ㉾ 희아리

희업스름-허다[-쓰-] ㉾ 희업스름-하다
히다 ㉾ 하다
힘-적게[-께] ㉾ 힘차게
흥편 ㉾ 형편(形便)
흥편-없다[-퍼늬따] ㉾ 형편(形便)-없다
흥편-없이[-퍼늬씨] ㉾ 형편(形便)-없다

편찬위원

김문희, 정낙신, 김도희, 김종옥, 류근홍
박복규, 박종규, 신익선, 유원숙, 이명선
이송희, 정달순, 한규복, 한상복

충청남도 예산말사전 제 3 권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지은이 이명재
발행처 예산문화원
발행인 김시운
기획 박세진
행정지원 김상희, 박지혜, 이다연
인쇄처 이화커뮤니케이션즈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1일 6-1
T. 070-8225-9707

ISBN 979-11-959886-0-0 04710
978-89-968223-2-6 (세트)

〈비매품〉

-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혹은 전재 할 경우에는 저자와 예산문화원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본 서적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